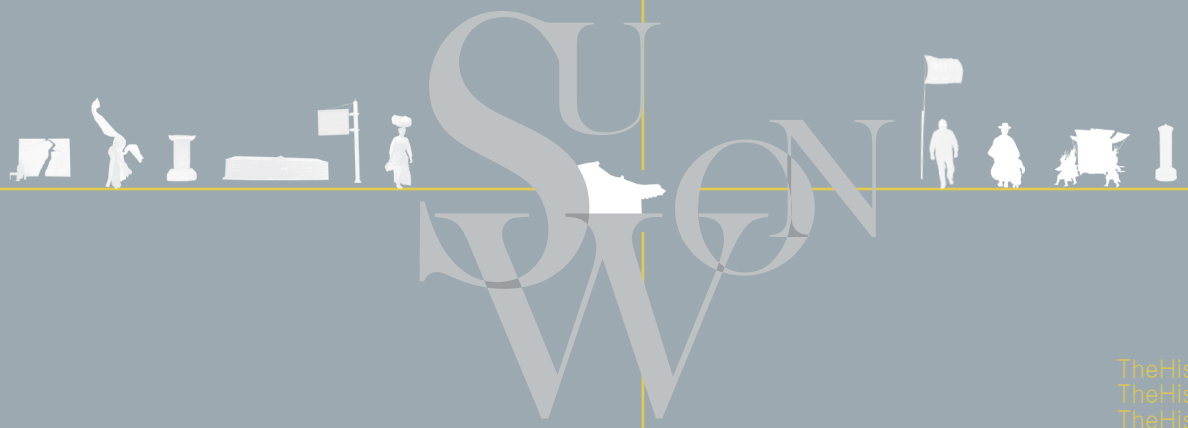
Geographic Environment of Suwon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수원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 살기 좋았던 땅임을 알려 주는 많은 문화유산과 조선 후기 역사 · 문화의 전성기를 보여 주는 수원 화성, 나라를 되찾고자 외쳤던 독립운동의 함성이 아직도 전해지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1949년 시 승격 이후 도시적 발전을 거듭해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상을 정리하고자 『수원시사』 편찬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5년간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수원시사』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수원시사』는 기존의 성과를 넘어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수원 역사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수원시사』가 발간되는 올해는 매우 뜻 깊은 갑오(甲午)년입니다. 역사적으로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민초들이 사회 변혁을 부르짖으며 분연히 떨쳐 일어서 갑오개혁을 이루었고, 근대사회로의 물꼬를 텄습니다. 『수원시사』에는 수원 지역 민초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생생한 삶의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원 화성'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오늘날처럼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화성성역의궤』라는 빛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 · 정치 · 사회 · 경제적 변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 하나 하나가 담겨 있는 『수원시사』야말로 2000년대의 기록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수원시사』를 통해 수원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이 또 하나의 빛나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수원시사』는 수원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정체성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앞으로 지역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원시사』가 발간되기까지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수원시사』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수원시장 염 태 영

5년간 추진된 『수원시사』 편찬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간된 『수원시사』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밝히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120만 수원 시민들에게도 뜻 깊은 일입니다.

1986년에 1권, 1998년에 4권 분량으로 발간된 데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이전보다 탄탄한 구조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시사』는 수원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모습들을 담아내어 수원을 대표하는 역사서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20권에 담긴 수원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수원을 이해하는 지침서로 활용하길 바라며, 시간이 흐르며 사라지고 잊히는 것들을 담고 있는 『수원시사』가 우리의 기록 유산으로 남겨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원시사』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연구가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책을 편찬하는 데 귀한 자료들을 기꺼이 제공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양하고 진실한 수원의 모습을 담기 위해 몇 년간 곳곳에 숨어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연구해 주신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발간에 힘써 주신 편찬위원, 심혈을 다해 원고를 써 주신 집필위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교열 · 교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 발간된 『수원시사』가 수원 시민과 수원을 이해하는 기본서로서, 수원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되길 바라며, 이 20권의 책 속에서 진정한 수원을 다시 한 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원시가 발전하고 건승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수원시사편찬위원장 염 상 덕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수원 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변화 과정을 수록한 수원역사총서인 『수원시사』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120만 수원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5년여 동안 수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충실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및 연구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여 명의 집필자의 노력으로 편찬된 총 20권의 『수원시사』는 철저한 지역자료 조사와 현장조사로 수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고증 · 재조명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사』는 수원 지역 문화의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수원 시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편찬된 『수원시사』가 수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 ·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종합 역사서로 우리 시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 자료로 훌륭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편찬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6월

수원시의장 노 영 관

수원시사 제작진

제1차 편찬위원회 구성

위 원 장	김용서	수원시장
부 위 원 장	유병헌	수원문화원장
편 찬 위 원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이창식	기전향토문화연구회장
	우제찬	경기방송사장
	정규호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장
	차준만	전 경기유소년 축구클럽 회장
	김형구	한국등잔박물관장
	오현규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장
	임병호	경기일보사 논설위원
	김종기	수원시의원
	김영규	수원시청 문화체육국장
	이달호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김훈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원지부장

제1차 소위원회 구성

위 원 장	유병헌	수원문화원장
위 원	이병성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김종국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정영한	전 수원중학교 교장
	조형기	전 경인일보사 편집국 부국장
	김준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실무진

선임연구원	류현희(전임 김명훈, 박철하)
연 구 원	김현미, 홍현영
교 열 교 정	권오수, 김미엽, 성명선, 이우석, 이주실, 정명숙
자료조사원	김수현, 김충현, 송민정, 어준일, 이태영, 이혜영, 하효림

간사 및 서기

간 사	원영덕(전임 라수홍, 한승환, 김주홍, 김찬영, 오성석)
서 기	이동근(전임 최철희, 이민식, 정제연)

제2차 편찬위원회 구성

위 원 장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부 위 원 장	조성을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편 찬 위 원	전용두	수원시의원
	박홍식	수원시청 문화교육국장(전임 홍성관)
	안병우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
	박천우	장안대학교 교양과 교수
	박 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지욱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팀장
	김헌선	경기대학교 국문과 교수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수자	아주대 강사

제2차 소위원회 구성

위 원 장	조성을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위 원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정수자	시인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디자인 · 제작

제 작 총 괄	김태익(홍익문화사 대표)
진 행 총 괄	정경식(홍익문화사 상무)
아트디렉터	윤진남(홍익문화사 실장)
편집디자인	장은경(홍익문화사 팀장), 박미나 대리, 김란 대리 이순하, 장윤희, 장선희

표지그림(11–16권) 박정신(더 페이퍼 제공)
박용준

집필위원

강대균	공주대학교 리서치펠로우
고성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구자옥	전 서울대학교 교수
권오영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　혁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광기	시인
김권정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김도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도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동욱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김명숙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김명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팀 책임연구원
김문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백영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보현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김선경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갑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김성열	극단 성 대표
김수현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승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간사
김영극	정선군청 기록연구사
김영호	이안미디어 실장
김용국	(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장
김우영	시인
김윤희	전북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김은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교수
김은주	서울대학교 강사
김인호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자운	공주대학교 강사
김재국	홍익대학교 공학박사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부교수
김종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지석	안양시청 전문위원
김찬수	동원고등학교 교사

집필위원

김충관	수원시정연구원 사무국장
김현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현미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김형국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대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의전담요원
김혜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
류지성	단국대학교 사회과대학 교수, 행정법무대학원장
류현희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 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동찬	한양대학교 강사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민웅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편찬실장
박윤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박진태	대진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철상	고문헌 연구가
박철하	의왕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박헌순	신길중학교 교감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
박현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배기봉	과천문화원 연구원
배상석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석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백종철	자연유산보존협회 사무국장
상대영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전임교수
서정리	아이쿱생협연합회 팀장
서태원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성주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연구교수
손병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손승호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송용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운영실장
신명호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승모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반연구원

집필위원

심성보	킹콩랩 연구원
안승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양규헌	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양선아	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양훈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어준일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엄정식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강사
염상균	역사탐방연구회 이사
염정섭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예지숙	서울대학교 강사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왕재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조교수
왕현종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우대식	진위고등학교 교사
원재연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유문종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윤성철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성훈	태동고전연구소 연구원
윤주리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
이남희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이달호	전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이동근	수원시청 학예연구사
이동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상명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석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원지부 수석 부회장
이송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승렬	대림대학교 교수
이승민	수원대학교 영화학과 강사
이승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승연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이승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이승호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집필위원

이아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이우석	건국대학교 강사
이원재	(사)전통예술원우리소리 사무국장
이윤숙	대안공간 눈 대표
이응경	(주)터알 대표이사
이재범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정일	화성시청 전문위원
이창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창식	기전향토문화연구회 고문
이창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이태영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이평원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현아	경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이혜영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임병호	경기일보 논설위원
임선빈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장덕삼	전 원광대학교 교수
장신애	한국무용협회 수원지부 사무국장
장연수	전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장용경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장정희	한국무용협회 수원지부 지부장
정명숙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정병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정부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정세영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석사
정수자	시인
정숭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승모	전 지역문화연구소 이사장
정정남	경기대학교 연구교수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외래교수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혜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과장
정혜정	원광대학교 HK연구교수
조석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집필위원

조성운	경기대학교 강사
조성을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조은정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조재곤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조현수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주용수	한국복지대학교 모던음악과 교수
차기동	석곡서예학원 원장
차선혜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최미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석사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과 교수
최봉영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수
최성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최수영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최영옥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대우교수
최원규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자운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최재성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하문식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하지연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한긍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허영란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허용호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허홍범	과천시 추사박물관 학예사
홍현영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후지이 다케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연구교수

일 | 러 | 두 | 기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 · 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 ·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발간사
- 편찬사
- 축간사
- 수원시사 제작진
- 일러두기

제1부 자연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위치와 지형 — 강대균

1. 위치와 면적 _23
2. 지형 _31
   1) 산지 _34
   2) 화강암 풍화층과 구릉지 _37
   3) 하천과 평야 _43
   4) 토양과 토지 이용 _50

제2장 수원의 기후 — 이승호

1. 수원의 기후 특성 _61
   1) 기후 특성 _61
   2) 기온 _63
   3) 강수와 습도 _69
   4) 바람 _72
   5) 현상일수 _77
2. 수원의 기후 변화 _81
   1) 기온 변화 _81
   2) 강수량 변화 _86
   3) 현상일수 변화 _87

제3장 수원의 생태계 ——— 이응경

1. 기반생태계 _94
   1) 고도 _94
   2) 음영기복도와 경사도 _95
   3) 향도와 요철도 _97
   4) 일사량 _100
2. 산림생태계 _103
   1) 산림식생 _104
   2) 도시식생 _116
   3) 가로수 _124
3. 하천생태계 _127
   1) 하천자연도 _129
   2) 습지 평가와 유형 분류 _133
   3) 소유역도 _139
   4) 유출량과 유출축적 _141
   5) 토양 습윤도 _141
4. 동물 서식지 _142
   1) 곤충 서식지 모형 _142
   2) 양서파충류상과 서식지 모형 _144
   3) 조류상과 서식지 모형 _150
   4) 포유류상과 서식지 모형 _158
   5) 어류상과 서식지 모형 _166
5. 비오톱 분류 및 생태계 평가 _184
   1) 비오톱 유형화 _186
   2) 비오톱 평가 _188
   3) 육상생태계 _192
   4) 수생태계 _192
   5) 수순환기능 _195
   6) 생태계 평가 _196

제2부 역사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연혁과 영역 ——— 김종혁

1. 연혁과 영역의 이해와 지도화 _205
2. 삼국시대 수원의 연혁 _211
3. 고려시대 수원의 연역 _214
4. 조선 초기 수원의 연혁 _218
5. 조선 후기 수원의 연혁 _230
6. 1831년 수원부 행정구역의 복원 _240
7. 일제시기 수원의 연혁 _252
8. 해방 후 수원시의 연혁 _256

제2장 조선 후기 수원의 풍수지리 ——— 김혜정

1. 풍수지리와 수원 지역의 이해 _275
2. 수원의 풍수지리 형세 _277
3. 음택 풍수지리 길지, 현륭원(顯隆園) _283
4. 양택 풍수지리 길지, 화성(華城)과 수원 _288
5. 조해공진(朝海拱辰) 천조지설(天造地設)의 길지, 수원 _299

제3장 18~19세기 읍지로 본 수원 ——— 정해득

1. 18세기 수원 지역 읍지 _305
   1) 1785년 『수원부읍지』 _305
   2) 1791년 『수원부읍지』 _312
2. 19세기 수원 지역 읍지 _323
   1) 1831년 『화성지』 _323
   2) 1894년 『기전영지』 「수원부읍지」와 『기전영사례』 「수원사례」 _330
   3) 1899년 『수원군읍지』 _334

제4장 문화경관으로 본 수원팔경의 형식과 의미 —— 노재현

1. 팔경의 문화현상적 함의(含意)와 텍스트성 _341
   1) 팔경의 의미 _341
   2) 팔경의 원조 소상팔경과 그 문화현상 _343
   3) 결속구조로 본 '팔(八)'의 상징성 _344
2. 수원팔경을 보는 시각과 관점 _345
   1) 수원팔경을 보는 관점과 내용 _345
   2) 최근의 연구 동향 _347
3. 수원팔경의 형성 배경과 내용 _350
   1) 화성춘 · 추팔경의 구성과 변천 _350
   2) 수원팔경의 형식성과 상징성 _359
4. 문화경관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_372

제3부 사회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인구와 주민 구성 변화 —— 손승호

1. 조선시대의 인구 변화 _378
2. 개항기의 인구와 인구 구성 _388
3. 일제시기의 인구와 인구 구성 _394
4. 수원시 승격 이후의 인구 _398
5. 수원시 주민 구성의 변화 _416
   1) 연령별 인구 구성 _416
   2)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 _423

제2장 수원의 토지 이용 변화 —— 손승호

1. 도시계획의 변화 _428
2. 한말과 일제시기의 토지 이용 _430

3. 해방 후의 토지 이용 _435
1) 1960년대 토지 이용 _435
2) 1970년대 토지 이용 _437
3) 1980년대 토지 이용 _440
4) 1990년대 토지 이용 _442
5) 2000년대 토지 이용 _445
4.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_447
1) 용도지역 구성의 변화 _447
2) 용도지역별 구성 _448
5. 지목별 토지 이용의 변화 _456
1) 도시 전체의 지목별 토지 이용 _456
2) 법정동별 지목 구성 _458
6. 도시공간의 특성 _462

제3장 수원의 도로망과 도로교통 변화 ——— 손승호

1. 지리적 위치와 도로 _467
2. 조선시대 광역교통로 _470
3. 조선시대 수원 화성의 도로망 _477
1) 성곽 내의 국지적 도로망 _477
2) 성곽 외부의 광역도로망 _480
4. 일제시기 교통로 _482
1) 도로교통의 변화 _482
2) 수여선과 수인선의 등장 _488
5. 해방 후 도로망 _490
1) 도로망의 변화 _490
2) 등급별 도로 _494
3) 도로체계 _498
4) 간선도로의 교통량 _505

제4장 수원의 철도교통 변화 ——— 김찬수

1. 경부철도의 부설과 복선화 _510
   1) 경부철도 노선의 선정 _510
   2) 철도용지의 강제수용 문제 _514
   3) 철도 건설노동자 동원 문제 _516
   4) 경부선의 복선화 _517
2. 수여선의 부설과 변천 _518
3. 수인선의 부설과 변천 _524
4. 수원역의 설치와 변화 _529
   1) 수원역사(水原驛舍)의 변화 _529
   2) 일제시기 수원역의 운송과 창고 기능 _531
   3) 해방 이후 수원역의 변화 _535
5. 철도의 발달과 수원의 변화 _536

제5장 수원의 촌락 형성과 발달 ——— 정치영

1. 촌락의 발달 과정 _544
2. 촌락의 입지 _557
3. 촌락의 형태와 경관 _566

- 참고자료 _574
- 찾아보기 _583
- 편찬후기 _600
- 집필위원

제1부

자연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위치와 지형
제2장 수원의 기후
제3장 수원의 생태계

강대균 공주대학교 리서치펠로우

1. 위치와 면적
2.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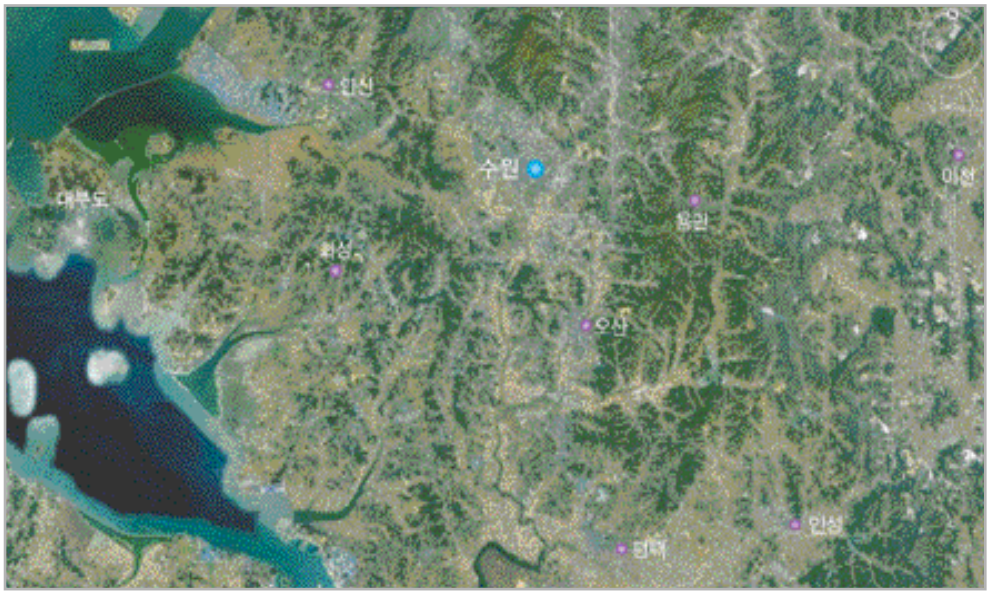
제1장

수원의 위치와 지형

1. 위치와 면적

수원시는 수도 서울의 외곽인 한반도 중앙부(37°N, 127°E)에 위치한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오늘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수원시의 위상은 지리적 위치와 서울과의 관련성에서 비롯되고, 그 연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시에는 우리나라 위치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이 자리한다. 경위도 원점은 지리연구소, 건설연구소, 국립지리원을 거쳐 2003년 7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개칭된 기관에 1989년 12월 설치되었다. 경위도 원점의 좌표는 북위 37°16′33.3659″, 동경 127°03′14.8913″이다.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측지 측량을 실시하는데, 그 출발점(측지원점)을 천문 측량을 실시하여 천문학적인 위도, 경도, 방위각을 결정한 것이 원점이다. 원점에서는 준거타원체(準據楕圓體)와 지오이드(Geoid)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든 삼각점의 측지학적 경도, 위도, 방위각을 결정한다. 한국은 1910년대에 일본이 동경원점에서 삼각측량 방법으로 대마도, 거제도를 거쳐 옮겨 온 기준점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1960년대 이후 독자적인 기준점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



수원시의 위치(http://www.google.com/earth)

원)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에 걸쳐 경위도 원점 설치를 위한 정밀 천문관측을 실시하는 한편 세계측지계에 따른 측량 및 위치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 구현을 도모하고자 국제 측지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관측을 실시하여 2002년 경위도 원점의 세계측지계좌표를 산출하였다.

서울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안양천 유역의 안양, 군포, 의왕을 지나 국도 1호선의 지지대고개를 넘어오면 황구지천 유역이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0여 km 떨어진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수원시는 동쪽이 용인시 수지읍과 기흥읍, 서쪽이 안산시와 화성시 매송면, 남쪽이 화성시 태안읍, 북쪽이 의왕시에 접한다. 수원시의 동단은 영통구 하동(동경 127° 05′), 서단은 권선구 금곡동(동경 126° 56′)으로 동서 연장이 14.3km이고 남단은 권선구 대황교동(북위 37° 13′), 북단은 장안구 상광교동(북위 37° 21′)으로 남북 연장이 13.9km에 달한다. 수원시는 해안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다. 서쪽에 구릉성 산지가 많기 때문이다. 쾨펜의 기후 구분상 온대습윤기후인 Cwa형에 해당하지만, 겨울이 춥고 건조한 편이고 연교차도 크다.

수원시는 서울에서 남부 지방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고속도로, 국도, 철도)와 중부 서해안에서 영동 지방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결절점에 발달한 도시이다. 서울과 남부 지방을 잇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중요하다. 경부고속

도로가 시의 동쪽 주변에서 남북으로 지나고 국도 1호선과 국도 42호선이 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동서로 지난다. 국도 43호선은 서남부 화성시에서 들어와 권선구를 지나 동부의 용인시로 넘어간다. 철도는 경부선이 국도 1호선과 나란히 남북으로 지난다. 1975년 개통된 서울~수원 간 전철은 수원시를 서울의 통근권에 포함시켰다. 이를 계기로 서울과 수원시는 1990년대 초반에 연담(conurbation)되었다. 국도 43호선과 나란히 서진하던 수인선 협궤철도는 1994년 이후 없어졌으나 수도권 광역전철로 거듭나고 있다.

수원시의 인구는 2012년 현재 114만 1,955명이다. 수원시의 어떠한 지형 배경이 화성의 축조와 오늘날과 같은 시가지 확장 과정과 관련되었는지,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는 데 작용하였는지 알아보자. 어느 지역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토대로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날과 같은 생활공간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수원시의 경우 화성 축조, 경기도 도청 이전, 교통로 발달 등 인문·사회적 요인만으로는 지리적 공간의 형성과 변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원시의 도시적 면모와 지위는 조선시대 정조가 축조한 화성을 모태로 발달한 것이다. 수원시는 조선 초기부터 한성 수호의 기능을 겸비한 도호부로서 그 치소가 화성시 안녕동의 화산(108m) 아래에 있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1789년(정조 13) 양주 중랑포(中浪浦) 배봉산 기슭(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곳에 모시고 수원부의 치소를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겼다. 그리고 1793년에는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1794년부터는 화성 건설을 추진하여 1796년에 완공하였다.

화성유수부는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당시 지방관제에 따라 수원군, 이듬해 13도제 실시 때는 경기도관찰부(도청)의 소재지가 되었다. 수원의 시가지는 화성을 중심으로 관가가 많은 신풍동, 종로 일대 및 장안문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직선도로 주변을 따라 동서로 확대되었다. 그 후 경부선 철도의 수원역과 남문(팔달문)을 연결하는 매산로를 따라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가지도 남문에서 서남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1899년 설립된 상공학교는 1904년에 농상공학교로 변경되었으며, 1906년에 다시 농림학교로 바뀌었다. 농림학교는 수원으로 이전하여 1907년 수원농림학교로 개설되어 발전하다가 지금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농업과학기술 연구의 산실인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이 수원시에 자리한 것은 정조의 유업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상 관측도 농업과 관련이 깊다. 농촌진흥청 건너편에 자리 잡은 수원기상대는 1964년 1월 1일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동년 5월 27일에 「농업기상관측소 직제」를 공포하고, 1966년 11월 5일부터 수원농업기상관측소라 부르며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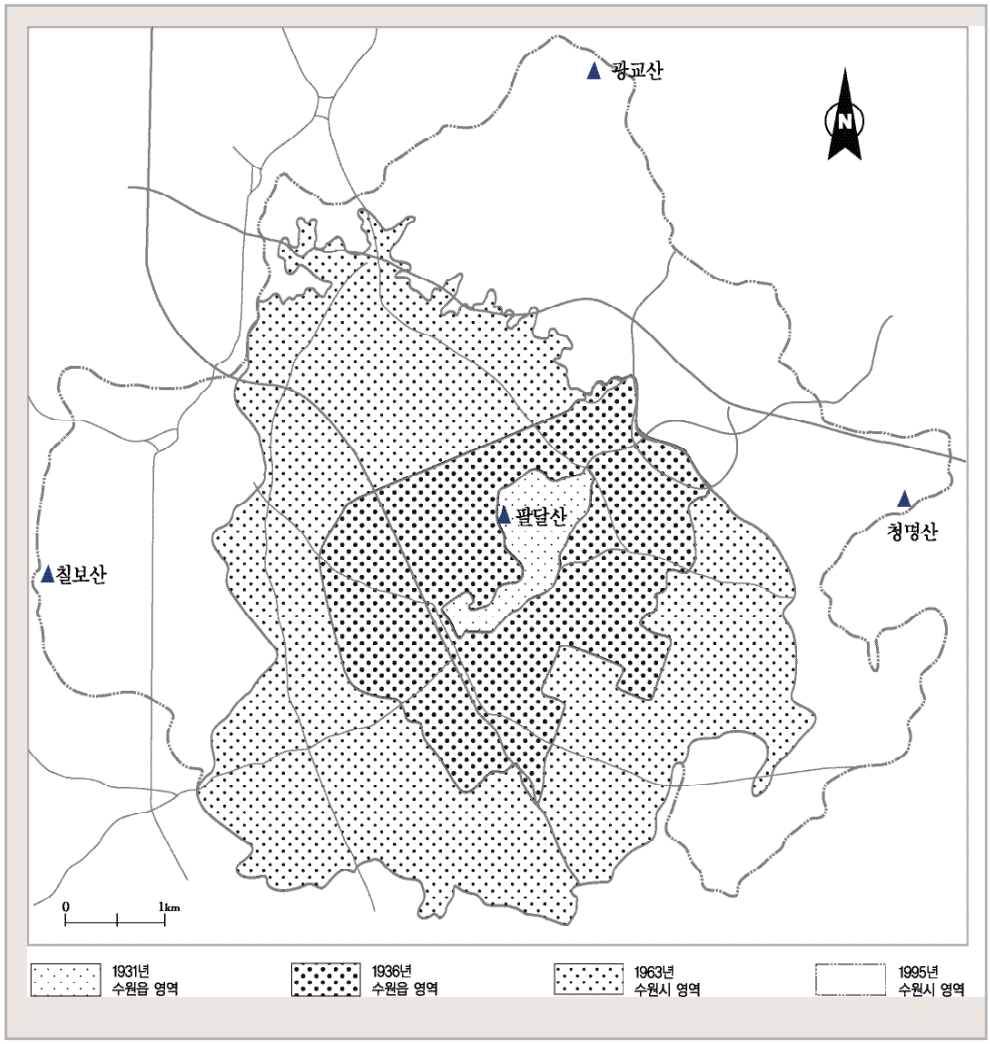
전문 관측업무에 활용되었다. 수원기상대는 일기예보에 필요한 종관 관측과 농사정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상 관측을 병행하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상 정보 교류도 활발하다.

수원의 시가지는 일제강점기 이래 여러 차례 확대되었다. 도시화는 철도 및 수원역과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역전을 포함한 역세권이 기존의 남문과 수원역 사이 매산로와 팔달로를 연결되었다. 화성 중심의 시가지가 역세권과 연결되며 저지대로 확산되어 나갔다. 근대적 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수원역과 연결되는 동서 방향의 국도 42호선과 이를 남북 방향으로 교차하는 국도 1호선이 만나 새로운 시가지가 십(+)자형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주요 교통로를 따라 시가지가 확대되는 점은 보편적인 경향이다. 수원시는 1917년 지정면, 1931년 읍이 되고, 1949년 시로 승격될 때 수원군의 다른 지역은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

토지 이용의 압력이 클 때 시가지가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 방향, 즉 충적지로 확산되어 나간 점은 한반도 주요 도시 성장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산지에서 충적지로 흘러나오는 하천을 끼고 발달한 골짜기나 침식분지에 입지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967년은 수원시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해이다.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이전하면서 각종 기관 · 단체, 특히 교육기관과 연구소, 산업체가 들어섰다. 매산로와 팔달산 서쪽 산록부 완사면에 관공서가 들어서는 한편, 산업시설과 인구 유입에 따라 도시공간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이어 농업과학의 중심 도시로서 위상도 공고해졌다. 경기도청이 이전되면서 유관기관과 산업체도 증가하여 인구 유입이 많아져 1960년대에는 구릉지에 거의 시가지가 들어섰다. 팔달산 북쪽 방향으로 선경화학연구소, 선경합섬, 해태유업이 들어서고 동수원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 부근에 삼성전기 ·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태평양공장 등의 공장이 입주하였다.

1970년대 이후 산록부의 구릉지는 시가지 확산과 같은 도시 성장 수용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도시로 전입되는 인구를 이제부터 충적지가 수용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시가지는 기존의 구릉지를 벗어나 충적지로 확산되었다. 충적지는 저습지 개간이 이루어진 이래 거주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수원시는 해발 60m 안팎의 저기복 구릉지 사이로 충적지가 하천 연안에 넓게 나타난다. 원천천 주변 신매탄동 일대는 택지 조성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곡반정동 일대는 구릉지와 충적지 경계부에 소규모 주거지 및 영세공장이 많다. 대황교동, 평동 일대 충적지도 지방도 43호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시가화하였다. 수원시와 그 주변에 격자로 놓인 고속도로(경부, 영동)와 일반도로가 도시 발달의 방향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수원시의 남쪽 충적지는 군사시설인 공군비행장과 격납고가 가까워 아직도 대



수원의 시역 확대

부분 논(절대 농지)으로 묶여 있고 각종 규제가 많기에 건축물은 낡았다. 그나마 서호천 중류 인근 충적지는 도시화 영향을 받아 시설채소단지와 화훼단지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도시 확산을 수용해 줄 공간이 군사비행장과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발전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수원시의 도시 규모는 더욱 성장하여 이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 전체에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남문을 중심으로 도심기능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수원 방향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시청이 입지하여 이곳이 부

심으로 등장하였다. 꾸준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삼성전자, 선경, 한일합섬 등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수원, 남수원, 영통지구, 호매실지구 등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도시 공간구조가 다핵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와 가까운 영통동에 베드타운(bed town)이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칠보산 기슭의 호매실지구는 199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세워져 경사 변환점 부근까지 시가화하였다. 칠보산 주변의 구릉지에는 농어촌개발공사, 식품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경기도잠종장, 사립대학 등이 입지해 있다.

〈표 1〉 수원시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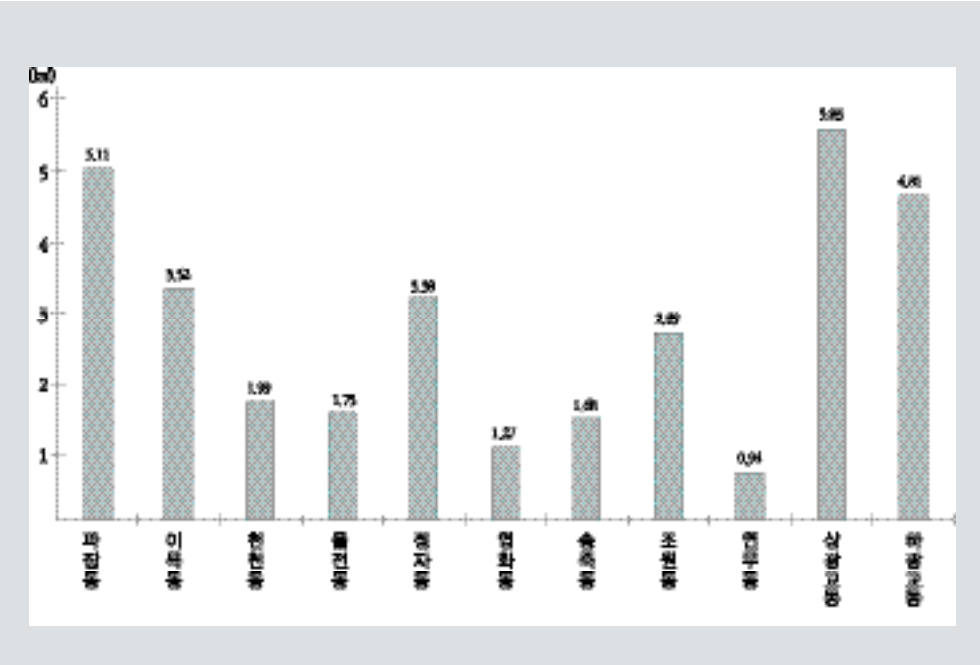
(2013년 현재, 단위 : ㎢)

전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00,208.02	10,186.75	121.01	33.17	47.31	12.86	2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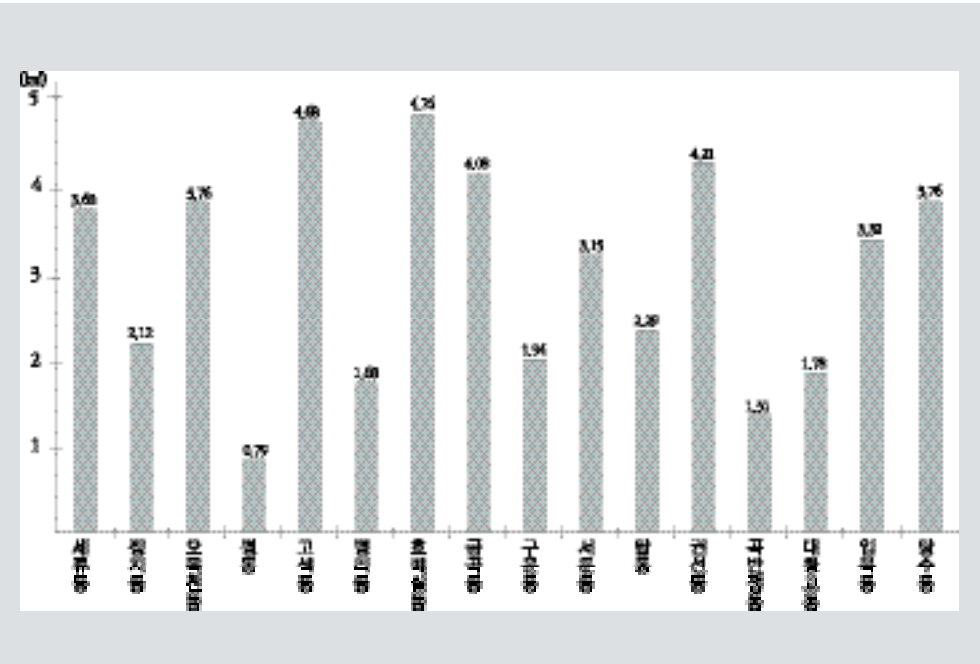
〈표 2〉 수원시 행정구역별 면적

(2013년 현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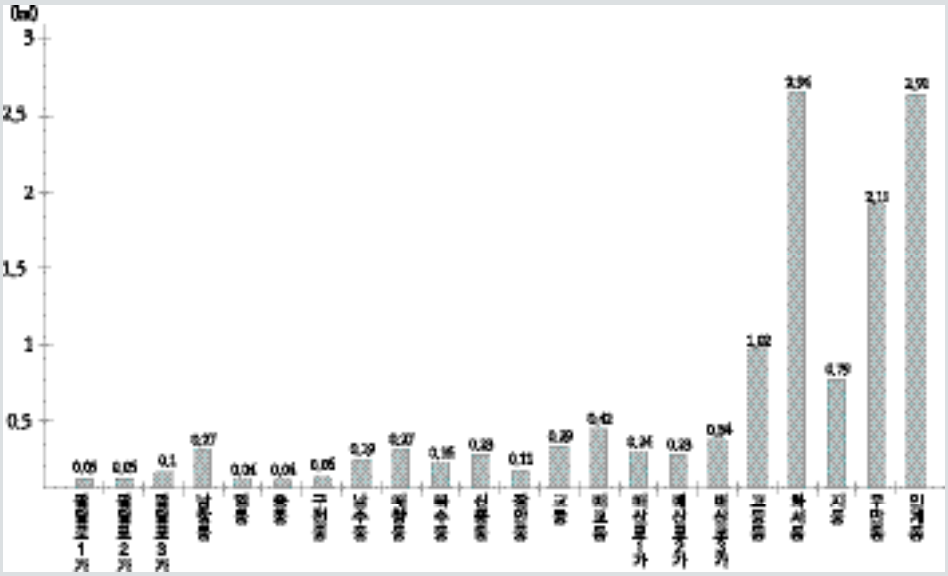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동명	면적	동명	면적	동명	면적	동명	면적
계	33.17	계	47.31	계	12.86	계	27.67
파장동	5.11	세류동	3.68	팔달로1가	0.05	매탄동	5.14
이목동	3.52	장지동	2.12	팔달로2가	0.05	원천동	3.25
천천동	1.99	오목천동	3.76	팔달로3가	0.10	이의동	7.98
율전동	1.75	평 동	0.79	남창동	0.27	하 동	4.18
정자동	3.38	고색동	4.68	영 동	0.04	영통동	3.94
영화동	1.27	평리동	1.68	중 동	0.04	신 동	0.56
송죽동	1.68	호매실동	4.76	구천동	0.06	망포동	2.62
조원동	2.89	금곡동	4.08	남수동	0.19		
연무동	0.94	구운동	1.94	매향동	0.27		
상광교동	5.83	서둔동	3.15	북수동	0.16		
하광교동	4.81	탑 동	2.29	신풍동	0.23		
		권선동	4.21	장안동	0.11		
		곡반정동	1.31	교 동	0.29		
		대황교동	1.78	매교동	0.42		
		입북동	3.32	매산로1가	0.24		
		당수동	3.76	매산로2가	0.23		
				매산로3가	0.34		
				고등동	1.02		
				화서동	2.94		
				지 동	0.79		
				우만동	2.11		
				인계동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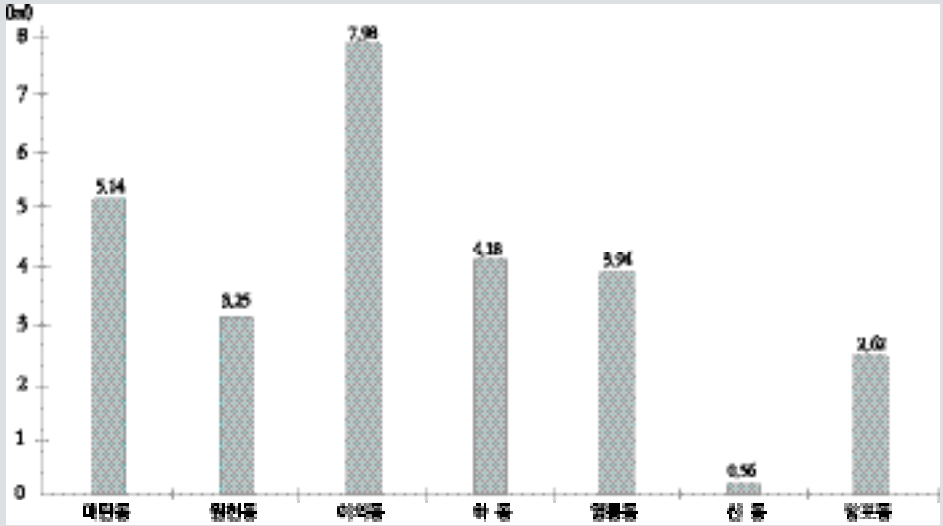
장안구 동별 면적



권선구 동별 면적



팔달구 동별 면적



영통구 동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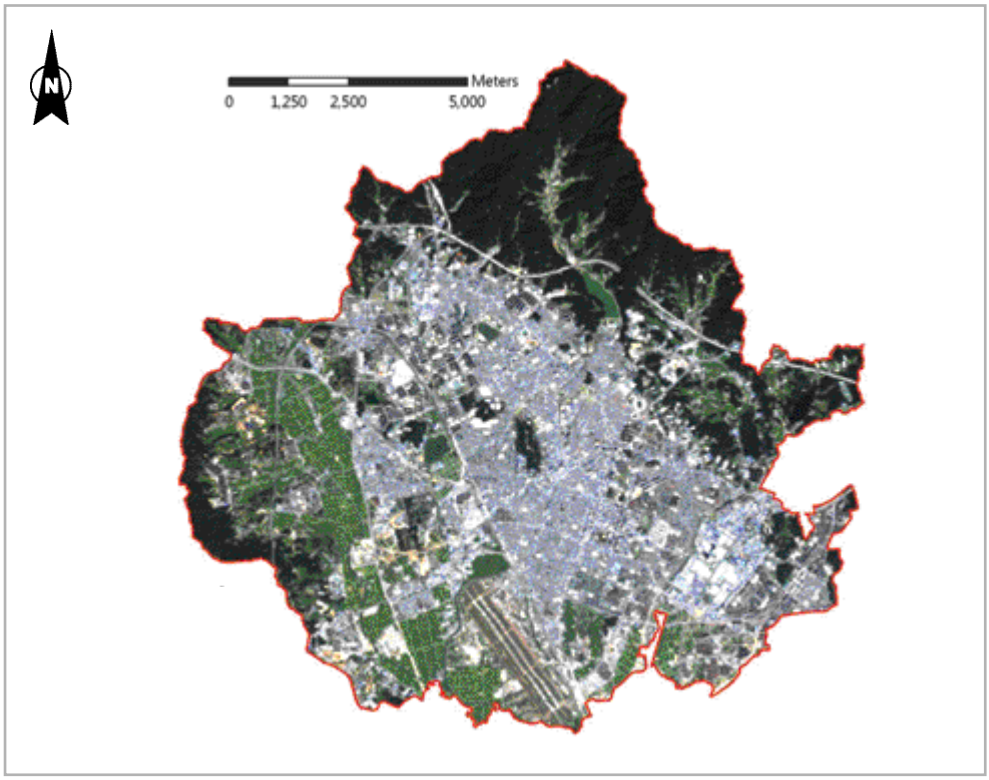
2011년 현재 수원시의 면적은 121.01㎢로, 답이 15.74㎢(13.0%), 전이 10.04㎢(8.3%), 임야가 29.72㎢(24.6%), 대지가 27.04㎢(22.3%), 공장용지가 3.36㎢(2.8%), 학교용지가 4.12㎢(3.4%), 도로가 13㎢(10.7%), 하천이 2.54㎢(2.1%)이다. 1931년 읍으로, 194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시역은 동심원상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중심부인 팔달구의 행궁동 · 매교동 · 매산동 등지는 면적이 좁고, 외곽인 권선구의 평동 · 금호동 · 입북동 등지는 면적이 넓다. 장안구의 파장동 · 연무동, 영통구의 원천동 등지도 면적이 넓은데, 이는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택지가 넓지 못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2. 지형

한반도는 지체구조상 낭림육괴, 평안분지, 경기육괴, 옥천대, 영남육괴, 경상분지로 이루어졌다. 낭림육괴와 영남육괴는 북중국판과 함께 적도 부근에서, 경기육괴는 남중국판과 함께 남반구에서 북상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랴오둥 방향과 중국 방향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이때 낭림육괴와 영암육괴 사이로 경기육괴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해저 퇴적분지(평안분지, 태백산분지)가 노출되고, 습곡대(임진강대, 옥천대)가 형성됨으로써 한반도의 대체적 윤곽이 완성되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육괴에 속하는 수원시는 북동부에서 동쪽 언저리까지 편마암 산지인 광교산-청명산 줄기와 서쪽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칠보산이 남북으로 마주보며 달리는 분지이다. 수원시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강편마암이 주축을 이룬다. 경기육괴를 구성하는 기반암인 경기편마암복합체는 선캄브리아기의 퇴적암이 여러 번의 변성작용과 화산활동, 구조운동, 화강암화작용을 받아 변성암으로 바뀐 것이다. 이 복합체는 형성시기가 오래되어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암상의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형성 과정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그래서 지층의 추적과 세분이 어려워 한데 묶어서 '복합체(complex)'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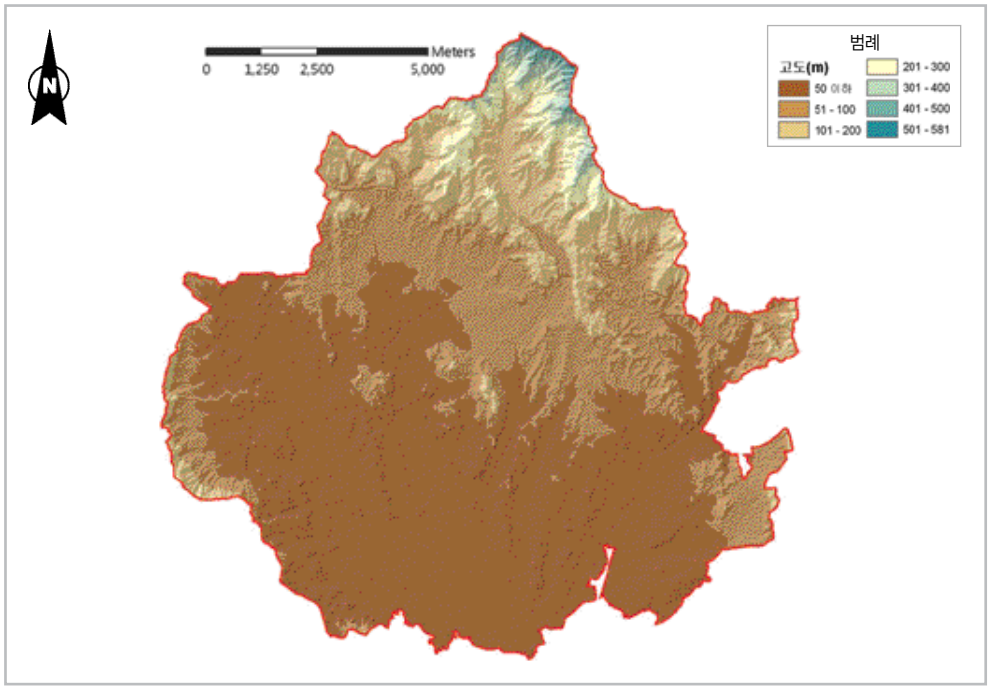
수원시의 암석 분포는 동북부에서 서남부를 향하여 광교산 편마암(gneiss)과 충적층, 대보화강암으로 나타난다. 하곡의 배열은 이 지역에 형성된 남-북, 동북-서남 방향의 구조선(fracture)과 이를 교차하는 북서-남동 방향의 구조선과 일치하고 그 사이에 산지와 구릉지, 충적지가 발달하였다. 산지가 개석된 내부에는 산지의 급사면에 연속된 풍화층과 구릉지(여기산, 팔달산, 숙지산 등 잔구 포함)가 능선의 연장 방향과 나란하게 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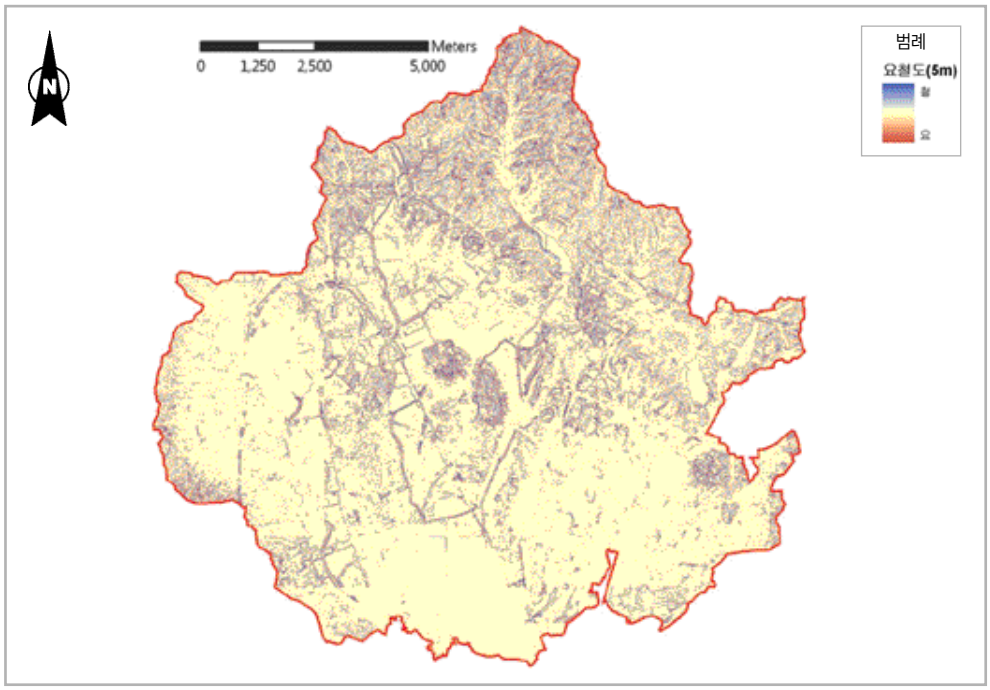
수원시의 랜드샛(LANDSAT) 영상 대표적인 원격탐사 자료인 LANDSAT-5 영상은 물리적인 접근 없이 육안으로 대상지를 분석하고 관독하기 용이하며,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배열되어 있다. 분지에서 발원한 여러 하천은 물목인 대황교 부근에서 분지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구릉지와 구릉지 사이는 하천을 끼고 발달한 충적지가 나타난다. 충적지는 형성연대가 1만 년 미만의 충적층으로 이루어졌다. 황구지천과 그 지류의 하천 연안에서 이들의 층리는 대체로 수평에 가깝게 기반암의 풍화층으로 구성된 사면의 경사보다 훨씬 완만하게 기울어 있다. 충적층은 모두 이전의 암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였다. 충적층의 구성물질은 자갈과 모래, 실트, 점토의 쇄설물과 미량의 유기물이며 미고결 상태를 보인다.

수원시와 같은 침식분지는 대체로 주변 산지가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도가 강한 변성암이나 퇴적암으로 구성되었고 내부가 심층 풍화를 받은 화강암이어서 한반도가 신생대 제3기 중신세에 경동성 요곡융기를 시작한 이후 차별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화강암이 기존의 기반암 사이에 관입하여 지표에 드러나는 과정에서 열접촉변성을 겪은 주변의 기반암보다 쉽게 침식을 받아 분지바닥이 된 것이다. 차별침식은 화강암과 변성퇴적



수원시의 수치고도 모형 수치고도 모형(DEM : Digital Elevation Model)이란 지형의 높낮이 변화를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모형이다. 제작이 완료된 수치고도 모형을 보면 수원시 행정구역 내에 해당하는 고도는 최소 15m에서 563.8m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고도는 70.6m이다. 남한의 평균 고도가 258m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해발고도가 낮고 평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수원시의 중남부 지역은 대체로 70m 미만의 평야지로 시가지 및 농경지가 발달하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수원시의 표고 비율을 살펴보면 50m 이하의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100m는 27.9%로 100m 이하의 지역이 수원시 전체의 80% 가까이 나타났다.



수원시의 요철도 곡률(曲率 : curvature)이란 선이나 면이 굽은 정도를 의미하며,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러한 굽은 크기와 방향에 따라 벡터로 표현한다. 지면의 곡률을 연속적인 격자의 형태로 표현한 지도를 요철도라 한다. 요철도는 지형의 굴곡에 대한 상대적 지표로서 수원시는 가장 오목한 지형은 −455로, 가장 볼록한 지형은 약 1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오목한 지형이 더 굴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볼록한 지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산림의 능선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오목한 지형은 계곡에 해당되는 지형에 나타나므로, 광교산 등지의 능선을 판단하고 수계가 형성 가능한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암류의 풍화와 침식에 대한 상대적인 저항력에 의해 일어난다. 이로써 두 암석의 지질 경계선을 따라서 경사급변점이 나타난다. 저항력이 약한 화강암은 분지바닥을 형성하거나 여기저기에 해체 과정에서 남은 상대적으로 강한 고립 봉우리, 즉 여기산이나 팔달산과 같은 잔류구릉을 형성하였다. 잔류구릉에서는 하천퇴적물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풍화산물은 지표유출(overland flow)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지형은 분지 배후의 편마암 산지, 화강암 풍화대에 발달한 구릉지, 하천을 끼고 발달한 충적지로 구분된다.

1) 산지

수원시의 지세는 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이 낮다. 해발 약 100m의 지지대고개 동쪽에는 광교산(582m)을 중심으로 산세가 뚜렷하다. 이 산지는 북쪽으로 의왕시 백운산(564m), 과천시 청계산(618m)까지 연속되다가 양재천을 만나고, 남쪽으로 형제산(448m)과 응봉(235m), 청명산(192m), 매미산(159m)까지 이어지다 신갈저수지를 만난다. 광교산은 『산경표』에서 말하는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의 주봉으로 풍수지리상 수원시의 진산에 해당한다. 가파른 사면도 비교적 넓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사면은 암괴 노출 없이 0.5~2m 두께의 흙으로 덮여 있다. 편마암 산지의 사면에서는 토양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두께의 풍화층과 토양과 같은 피복물이 모든 사면에 걸쳐서 고루 덮여 있는데다가 절리와 편리가 조밀하면 사면 상부에서 공급된 암설이 지표유출과 매스 무브먼트(mass movement)에 의해 아래로 운반되기 때문이다. 만약 암괴가 드러난다면 이는 경사 17° 이상 급사면이 피복물로 덮여 있기 어렵고 배수가 빨리 이루어지므로 습포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화학적 풍화보다 기계적 풍화가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풍화성향은 특히 석회암 분포지에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풍화 · 토양 성향 때문에 식생 피복은 연속성을 띠며 높은 밀도를 보여 사시사철 숲이 울창하므로 인근 주민이 땔나무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하며 산나물과 임산물이 풍부하다. 녹색댐 효과도 높아 1971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편마암은 광물 입자의 배열이 엽리를 따라 방향성을 보이므로 수분 침투가 지하 깊이까지 어려워 표층풍화(表層風化 : generalized superficial weathering)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지표의 지화학 작용에 약한 염기성 광물의 함유량과 절리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쉽게 풍화되기도 한다.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는 청명산은 광교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산세가 구조선에 의해 단절된 모습이다. 비교적 완만한 기복은 해발 100m 내외의 저기복 구릉지로 점

수원 북동쪽의 광교산 일대

이하며, 곳에 따라 산록면이 나타난다. 영통지구택지조성사업으로 원지형을 파괴하였다.

광교산 서남쪽에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장축을 갖는 화강암 저반이 관입되었다. 이곳은 기복이 작은 저지대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기산(105m), 팔달산(143m), 숙지산(123m)이 도드라져 보이는 정도이다. 수원시 구역 서쪽 경계에 칠보산(239m)이 호매실 신시가지를 휘돌아 굽어보고 길게 늘어서 있다. 칠보산은 봉고동일성(峰高同一性)의 능선이 환상구조(ring structure)를 보인다. 편마암 산지인 광교산과 달리 중생대에 관입한 대보화강암은 심층 풍화 이후 차별침식으로 낮아져서 구릉지, 충적지를 이루었으므로 양자는 불협화적인 단면을 보이며 경사급변점을 두고 만난다.

복운모 화강암(two mica granite)으로 이루어진 칠보산에는 5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주봉(239m)과 군부대 주둔지(234m), 잠종장 뒷산(185m), 개심사 뒷산(165m), 오룡골 뒷산(187m)이 그것이다. 화강암은 물리, 화학적으로 강한 암석이어서 쉽게 풍화되지 않으므로 산지를 형성한다. 화강암은 석산을 형성하고 돔(dome), 토르(tor)와 같은 암괴 노출이 많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지의 정상부와 능선은 험준하여 깎아지른 암봉과 깊고 가

칠보산

파른 계곡을 형성하는가 하면 완만하고 부드러운 산세를 보이기도 한다. 같은 암석이라도 절리밀도와 공극률, 광물 조성, 기후 조건에 따라 풍화 양상이 달라져 지형과 사면발달 정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산지의 형태와 경관은 능선 및 골짜기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칠보산 능선의 배열도 골짜기의 발달과 관련된 구조선과 단층 및 기반암의 절리 주향에 따라 규칙성을 보인다. 화강암 풍화층에 형성된 산록부는 구조적으로 약한 틈을 따라 두부침식하는 수많은 릴(rill)과 우곡, 하천에 의해 깎이어 골짜기가 형성되고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는 능선으로 남기 때문이다. 조립질로 구성된 화강암은 풍화성향이 차별적이어서 능선과 골짜기의 기복이 평활하고 단순한 편마암과 달리 세밀하고 복잡하다.

칠보산의 산정과 급사면의 능선에는 돔(dome), 토르(tor), 플레이킹(flaking) 등의 풍화미지형이 발달되었다. 풍화미지형의 크기와 형태는 암석 내에 형성된 여러 갈래의 절리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곳의 돔은 10~20m 내외 크기로 박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지하에서 차별 풍화가 진행된 후 풍화 기저면이 노출될 때 암괴를 둘러싼

풍화층이 제거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화강암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등을 관입하여 지하에 묻혀 있다가 장기간 지각변동과 침식으로 하중이 제거되면서 지표에 드러나 팽창하는 과정에서 수평 및 수직 절리가 되는 등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절리는 암석 표면과 내부에 형성된 갈라진 틈이다. 지표에 평행하게 발달하는 수평절리인 판상절리가 발달하는 암체는 빗물 침투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강하므로 돔이 형성된다. 암괴에 발달한 절리의 방향과 간격은 장소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칠보산의 산지 사면에는 암괴와 사질토가 많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고 수분의 유지 능력이 높지 않다. 이러한 급사면은 습포 효과가 낮고 풍화 물질인 그래뉼(granule) 내지 조사(coarse sand)는 중력과 지표유출에 의해 쉽게 제거되어 미립질이 거의 없는 석산이 되기 쉽고 풍화층과 토양층도 얇다.

2) 화강암 풍화층과 구릉지

칠보산은 산 정상부와 능선에서 급사면을 이루다가 해발 약 100m 지점에서 넓고 두꺼운 풍화층의 완만한 산록부로 전환된다. 이러한 산록부의 완사면은 해발 약 60~70m 지점에서 끝난다. 산록부의 구릉지는 풍화층 및 핵석 분포로 보아 현재보다 온난습윤한 간빙기와 지반융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황구지천과 그 지류의 약한 유수 에너지에도 쉽게 침식이 진행되어 구릉지 전면은 경사 약 1~2°의 평탄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칠보산 주변의 기복량은 광교 산지에 비해 크고 인접 지역과의 변화도 크다. 대부분의 급사면에는 편마암 산지와 달리 암괴가 급사면에 노출되어 있다. 봉고동일성(峰高同一性)의 능선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 5개의 구릉열이 구조선을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는 충적지가 형성되었다. 구릉지의 피복물은 심층 풍화를 받아 기반암이 입상 붕괴된 풍화층(saprolite)으로 이루어졌다.

심성암인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될 때는 하중의 제거(unloading)를 경험하면서 판상절리(sheeting joint)와 박리(exfoliation)가 발달하여 암반과 기암절벽, 암괴(block), 암설(debri)을 형성한다. 화강암은 이질적인 조암광물로 구성된 결정암으로 장석이나 흑운모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장석이나 운모는 풍화에 매우 약해 풍화가 진전되면 화강암 결정구조가 와해된다. 판상절리 간격을 따라 일정한 방향과 두께를 유지하는 화강암 풍화층은 박층의 활동성 운동(shallow translational slide) 형태로 산사태를 일으킨다. 화강암이 풍화를 받으면 풍화층의 깊이가 일정하고 미지형인 타포니(tafoni), 나마(gnamma) 등이

나타나며 구상풍화로 핵석(core stone)이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화강암은 기후 및 암석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형을 발달시킨다. 화강암 지형은 암괴 형태의 산지로도 나타나고 심층 풍화된 지형 경관으로도 나타난다. 위치에 따라 상이한 분포 및 형태로 발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 풍화된 곳에서는 구릉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구릉대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구릉대는 골짜기와 능선의 배열이며, 하천 영역과 사면 발달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1]

풍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가 풍화층에 반영되어 있다. 풍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암석에서 풍화층으로 변화하는지는 기반암과 접하는 부위와 지표면의 특색을 비교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화강암 분포지에서 구릉지는 산지가 침식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형이므로 풍화층 아래에 기반암이 드러나는 구릉지의 노두는 화강암 풍화 특색을 구명하는 데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풍화층 상 · 하부 간의 특성 차이는 대부분 육안(naked eye) 관찰로는 파악되지 않으므로 물리 · 화학적 분석이 병행된다. 그러나 풍화층에 대한 탄성도, 파쇄 정도 등의 물리적 분석은 화학적 풍화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며, 반면 화학 분석은 기계적 풍화에 대한 정도를 가늠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한반도에 나타나는 산지와 골짜기의 거시적 윤곽과 배열은 구조선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시 지형의 발달은 구조선 방향과 절리 밀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구체화된 중 · 소 지형으로 가시화하는 데는 기후 지형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풍화는 이런 구조적, 기후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과정이므로 풍화에 대한 연구는 지형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화강암 풍화에 대해서는 지형학, 토양학, 지화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축적해 왔다. 이는 화강암의 풍화가 다른 암석에 비해 암석 요인(structure)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등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절리 배열과 밀도, 지구조 환경, 기후 환경, 습포 효과와 관련된 지형적 상황 등에 따라 풍화 양상이 민감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풍화 과정과 풍화 환경을 밝히는 데 기초적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서 화강암은 경관상으로 가파른 바위산과 낮은 골짜기로 대비되는 양극화한 지형발달을 보이고 있다. 습포 효과가 적은 산지는 식피밀도가 낮고 토양 발달이 매우 약한 돌산을 이루고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골짜기에는 10~20m에 달하는 두꺼운 풍화층이 발달해 있다.[2]

---

1 김영래, 「미호평야 주변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한 구릉지 지형의 유형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절리밀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하여 암석의 틈을 따라 수분이 잘 유도될 수 있는 경우는 암석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습포 효과가 크므로 화강암이 두꺼운 풍화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화강암 분포지에는 비슷한 고도의 파랑상 구릉지가 발달한다. 이들 구릉지와 구릉지 사이에는 넓게 측방 침식된 평탄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위치한 지대는 수분 저장력이 약하므로 호우 시 하천으로 배출되는 유량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그로 인하여 화강암 배후산지를 흐르는 하천의 유황은 매우 불안정한 편이다. 화강암 유역의 산지는 강수 시 빗물을 곧바로 배출해 내기 때문에 녹색댐의 효과가 낮으며 집중 호우 시 하천에 흐르는 유수의 양이 많고 저수지가 적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에 따른 유량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호우 유출량을 가중시킨다. 이때 많은 양의 지표유출이 작용하여 화강암 풍화층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강암 지대를 흐르는 하천의 종단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된다. 또한 하곡은 본류는 물론 지류도 유수에 의해 하방 침식보다 쉽게 측방 침식을 받아 골짜기는 평탄하고 넓은 모습으로 발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접한 배후산지 또는 주변의 작은 구릉과 경사변환점이 뚜렷하고 내부는 평활하게 형성된 바닥이 평탄한(flat-bottom valley) 골짜기가 형성된다.

광교산 형제봉 정상 부근의 바위 절벽

화강암이 풍화층으로 변화하는 경우 중력 혹은 유수에 의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조립질 미고결 풍화산물의 특성을 보인다. 그 결과 국지적 침식기준면 변화에 민감하다. 침식기준면이 급격하게 낮아질 경우 풍화산물이 제거되고 암석이 노출되면서 급사면, 반대의 경우 저기복 평탄지를 형성한다. 화강암은 입상붕괴로 풍화산물에 모래 비율이 높은데, 모래는 유수에 의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사질토가 발달한다. 온대지방의 화강암 풍화층은 습윤 열대 환경에서 형성된 점토질 풍화층과 달리 사질토를 빈도 높게 발달시킨다.

2 권순식, 「한반도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된 제4기 후반의 주빙하 결빙구조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4, 1987.

화강암은 석산을 구성하는 한편 절리 밀도가 높아 풍화와 침식이 진전되면 풍화층과 토양에 덮인 구릉성 저지를 형성한다고 알려졌다. 조암광물이 입경이 다르고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번 풍화가 시작되어 입자 사이 공극이 이완되면 수분침투가 용이하여 깊이 풍화되는 성향을 지녔다.

암석이 풍화를 받으면 풍화층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지형을 만든다. 화강암은 다른 암석에 비하여 화학적 풍화가 쉽게 진행되어 지표에서 두꺼운 풍화층으로 바뀐다. 풍화층 두께는 보통 5~30m, 최대 70여m이다.[3] 풍화층은 현재 기후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과거 어떤 환경에서 형성된 것인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전통적으로 두꺼운 풍화층과 적색토는 과거 습윤 아열대 환경, 즉 제3기와 간빙기에 화학적 심층 풍화를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이 습윤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는 성대토양과 성인적인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김포 계양산 산록면의 적색토가 완사면 사력퇴적물로 덮여 있음을 확인한 연구[4]와 구릉지, 산록완사면, 평야에 해당하는 각기 14개 단면을 비교, 고찰한 적색토 연구는 각지 적색토 사이에 풍화과정과 토양생성작용에 차이가 없고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 아열대성 기후에서 생성된 것임을 밝혔다. 화강암 풍화층과 석회암에 발달한 적색토는 퍼루저너스(ferruginous) 토양 특성을 지닌 화석토로 해석된다. 그러나 풍화층의 1차광물 점토와 결빙포행을 증거로 빙기 주빙하 환경에서 풍화층이 형성되었다[5]는 주장처럼 기계적 풍화를 강조하는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수원시의 경계를 이루는 비교적 높은 고도를 보이는 산지 내부로는 오랜 침식에 의한 저기복의 구릉지가 파랑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구릉지는 화강암이 풍화되어 차별침식이 일어나는 곳에 잘 발달한다. 이는 하천의 침식력에 의하여 산지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원시와 같은 침식분지는 한반도가 경동성 요곡융기로 고위평탄면화한 이후 차별침식을 받음으로써 형성되었다. 고위평탄면은 융기 이전 침식면을 계승한 것이다. 고위평탄면이 개석을 받아 낮아져 '여주면'이라 명명된 저위평탄면은 침식분지와 함께 화강암 분포지에 발달하고, 그 주변 산지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것이 보통이다.[6] 수원시의 구릉지도 저위평탄면에 해당한다.

경동지형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수원시는 해발고도가 낮고 배수가 불량하여 화강암의

3 장재훈, 『한국의 화강암 침식지형』, 성신여대출판부, 2002.
4 강영복, 「계양산 산록면에 발달한 토양단면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지리학회지』 15, 1977.
5 권순식, 「화강암 풍화층의 특성과 결빙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2003.
6 권혁재, 「여주지방의 지형과 토지이용-복하천과 양화천의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대논집』, 1995.

심층 풍화층이 발달하였다. 광교산 산록부의 화강암은 보통 10m 이상 깊이 풍화되었다. 화강암 풍화층은 약한 유수에도 쉽게 침식 · 제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광교산에서 발원한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과 같은 소규모 하천 유역에도 하곡이 비교적 넓게 나타난다. 수원시는 약한 유수라 하더라도 쉽게 평탄화할 수 있는 풍화층이 발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하곡 사이에는 분수계를 이루는 팔달산, 숙지산, 여기산 같은 50~150m 높이의 구릉지가 형성되었다. 이곳의 구릉지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구조선(main fracture)과 동서 방향의 구조선(sub fracture) 방향으로 넓은 구릉열과 좁은 충적지가 교차하면서 발달하였다. 팔달산의 경우도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능선이 배열되었으며, 동서 사면은 넓고 남북 사면은 좁게 나타난다. 골짜기는 주로 동서 사면에 나타나고 남북 사면은 발달이 미약하다. 사면의 경사도는 급하지만 규모가 작아 사면을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상 비고가 작고 사면 경사가 완만하며 기복이 작아 소위 '비산비야' 경관을 형성시킨 구릉지는 두꺼운 풍화층과 적색토의 저기복 침식면과 단구면, 이를 개석한 소규모 U자골, 풍화가 진전되지 않은 채 노출된 고립 봉우리 등으로 이루어졌다. U자골은 다수 토양 파이프(soil pipe)와 슬럼프가 발달하여 복수 풍화층 계단이 형성된 곡두부와 지하수가 고인 습지인 곡저부로 이루어졌다. 이는 풍화층의 투수성이 높아 극단적인 토양수 결집으로 곡두부와 곡저부 경계에서 파이프 유출(pipe flow)에 의한 굴식(sapping)이 발생하기 때문이다.[7] 구릉지는 고도를 달리하며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해발 20~80m 고도에서 봉고동일성의 파랑상 기복을 보이다가 국지적으로 해발 100~200m 고도에서 또 다른 봉고동일성 고립 봉우리를 이루는 것이다. 봉우리는 파랑상 소기복 침식면보다 1단 높은 평탄면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남은 잔류구릉이다.[8]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심층 풍화층은 기후가 지금보다 고온 다습할 때의 산물로 여겨왔다. 그러나 칠보산 일대 화강암 풍화는 기계적인 풍화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화학적 풍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빙과 융해 작용을 통하여 화강암을 구성하는 광물 입자가 이완되고 이후 입상 붕괴(disintegration)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모래에서 더 작은 가는 모래와 실트, 점토로까지 풍화된 것으로 보인다(micro-gelifraction). 중랑천

7 양해근 · 박종관, 「화강암 지대 완사면에 발달된 'U자골' 지형의 수문지형학적 의미- 전라북도 고창군 지역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1-3, 2004.
8 장호, 「호남평야와 논산평야 내의 충적평야 주변에 분포한 저구릉의 토양지형학적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2-2, 1995.

유역에서는 기계적인 풍화가 풍화과정을 선도하고 이후에 지화학 작용이 다소 병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기계적인 풍화 작용이 활발했던 시기는 주로 제4기에 진행되었던 빙기라 할 수 있다. 절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습포 효과가 높고 지난 빙기 때 결빙의 깊이가 깊어지므로 기계적인 풍화도 활발하다. 화학적인 풍화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풍화도 수분이 높아야 잘 진전되기 때문이다.

구릉지는 비교적 일찍부터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간이었다. 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를 이용하면서도 범람에 안전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산임수의 구릉지에 입지한 전통적인 촌락은 구릉지로 둘러싸인 개석곡지를 내려다본다. 구릉지가 개석된 좁고 기다란 골짜기는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마을이 입지한 배후 구릉지의 능선에는 입향조를 포함한 선조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곳은 빗물 등의 지표수가 지하로 잘 스며들 뿐만 아니라 풍화층과 토양층의 사면 이동이 적어 음택(陰宅)의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과 조류의 토사로 덮이지 않은 고도에 위치한 화강암 풍화층의 구릉지는 홍수 시에도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가 없다.

구릉지의 토지 이용은 그 크기와 평면형태, 주변 산지 규모, 산록부 완사면 분포도, 주변 산지에서 발원하여 곡저(谷底)로 흘러드는 지표유출 또는 하천의 영향, 충적지 발달 정도와 같은 지형 조건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하였다. 민둥산이던 구릉지는 1970년대 이후 적극적인 사방 사업에 의해 리기다소나무 숲으로 바뀌었다. 화강암 구릉지는 농기구와 중장비로 일구어도 석회암과 달리 돌이 나오지 않아 개간하기가 용이하지만 염기가 부족해서 야산개발이 늦었다. 솔숲이 밭으로 전환된 것은 화학비료가 풍부하게 공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9] 야산 개발이 이루어진 구릉지는 채소, 딸기, 땅콩 등을 재배하는 밭 이외에 과수원, 목장, 임야로 이용된다.

구릉지라 하더라도 농업용수를 대기가 편리한, 저기복 침식면과 단구면을 개석한 소규모 골짜기(고라실)는 일찍이 논으로 개간되었고 '문전옥답'으로 불리었다. 고라실은 충적지 주변 풍화층과 적색토로 덮인 구릉지에 형성된 소규모 골짜기로서 근대적 전천후 수리시설이 갖추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중요한 논농사의 무대였다. 이런 곳은 사면경사가 완만하고 기복이 작은 편이며 침수 위험이 적고 식수와 농업용수를 구하기가 수월하였다. 주변산지로부터 흘러드는 물이 산록을 타고 분지바닥으로 모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를 구하기가 수월하여 구릉지 말단을 따라 촌락이 입지하였다. 하천

9 권혁재, 「여주지방의 지형과 토지이용-복하천과 양화천의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대논집』, 1995.

이 화강암 풍화층을 차별 침식하여 만든 낮은 구릉지와 충적지는 주요 도시의 시가지가 형성,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10]

3) 하천과 평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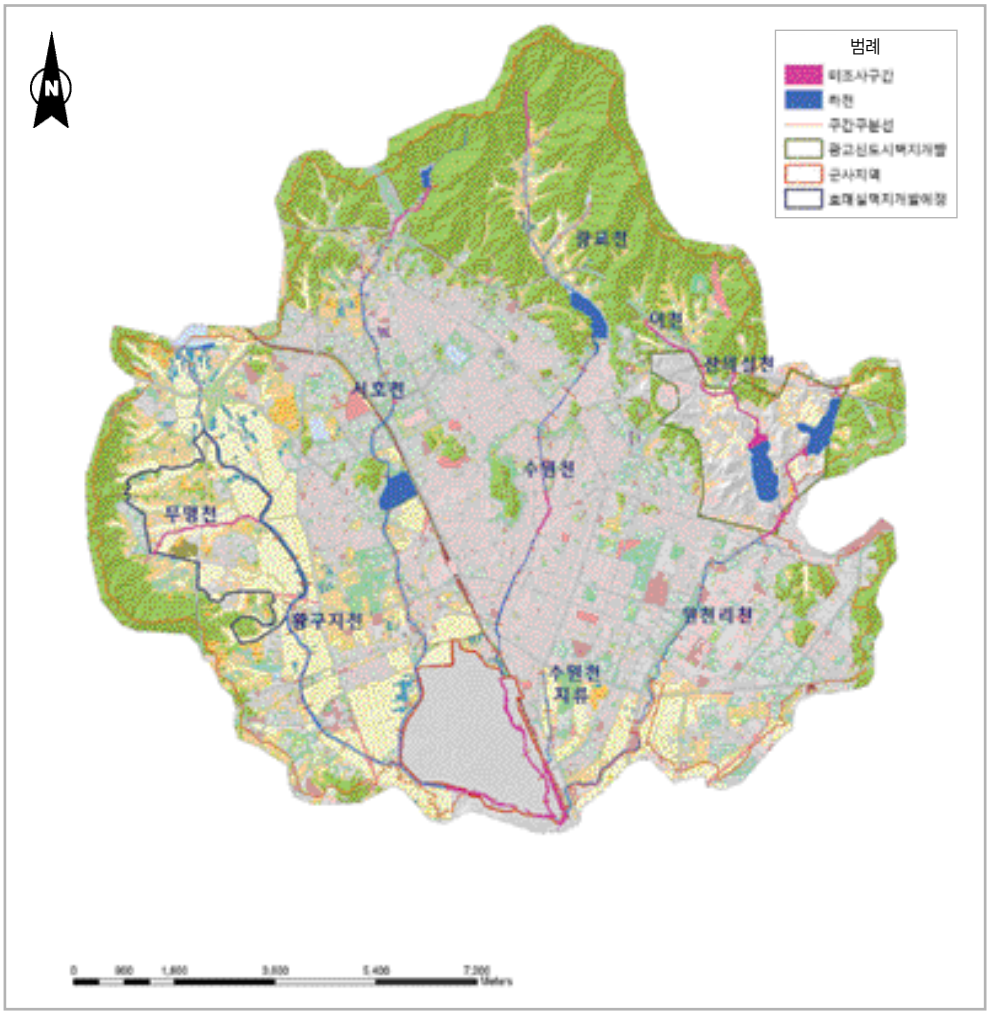
수원시에는 대하천이 흐르지 않는다. 거시적으로 수원시의 지표수는 광교산에서 발원한 여러 하천이 모두 군포시 감투봉(189m)에서 시작된 황구지천으로 모여서 수원분지 바깥으로 배수된다. 황구지천은 왕송저수지 둑을 지나면서 수원시 구역으로 들어와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의 지표수를 서쪽으로부터 담아낸다. 지지대고개에서 시작된 서호천은 일왕저수지를 지나 온 영화천을 받아들이고 서호저수지에 잠시 머물렀다 여러 농업 관련기관의 시험지를 적시고 기안교 부근에서 황구지천으로 흘러든다. 황구지천은 수원시 하천 중 가장 자연성이 높아 낚시꾼의 이용이 가장 많다.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제외지에 버드나무, 벚나무, 가중나무, 갈대, 줄, 환삼덩굴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서호천 주변의 충적지는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발 26m 이하, 하상 비고 3~4m와 일치한다. 이곳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및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시험 재배지로 이용되었다. 서호천은 북동 편마암 산지에서 시작되므로 가뭄에도 비교적 유량이 안정되어 나타난다. 서호 아래는 넓은 충적지가 전개되어 하상 경사도 약 0.5°로 완만하다. 이러한 하상 경사는 수계의 변화를 크게 만들지 않으며 하상은 충적물로 채워져 있다. 서호천은 중류에 서호를 품고 있다. 서호보다 상류 구간은 하천이 정비되어 제방 상단과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류 구간은 하천수의 탁도가 낮고

〈표 3〉 수원시 하천

구분	하천 길이	구분	하천 길이
황구지천	약 13.5㎞	원천리천	약 9.1㎞
서호천	약 11㎞	여천	약 4㎞
수원천	약 13.2㎞	산의실천	약 0.5㎞
광교천	약 1.4㎞	무명천(호매실지구)	약 2.2㎞
수원천 지류	약 2.7㎞	계	약 57.6㎞

10 기근도 · 이상환, 「수원분지의 지형 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2004; 윤지연, 「중랑천과 탄천 유역의 지형 환경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수원시 하천도

하상의 저질이 검정색을 띠고 있으며 악취가 심하다.

평동은 서호천 아래 지대가 낮고 지하수위가 높아 물이 풍부한 충적지, 즉 벌판 가운데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벌말 · 들말 · 평리라 한 데서 유래한다. 1936년 수원읍에 편입되어 대평정(大坪町)이라 하다가 1949년 수원시 평동이 되었다. 지대가 주변에 비해 낮아서 비만 오면 물이 고인다. 여름에는 침수 피해가 많으며 겨울에는 물 고인 곳이 아이들 썰매장, 팽이 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정조 시대에 만들어진 서호방죽은 이 마을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데 중요하였으나 현재 공터로 남아 있다. 새터는 일제강점기 지장개와 배

다리에 비행장이 건설되면서 마을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시킨 마을이다. 지장개는 마을 터가 갯벌과 맞닿아 있었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배다리는 마을 언저리까지 배가 들어왔던 곳으로 주교리(舟橋里)라고도 불렸다. 이곳은 땅이 질어서 시집온 지 3년이 지나야 신발에 붙은 흙이 떨어진다는 우스개가 있다. 이는 배후습지 토양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비유이다. 고색동에서 평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보뜰은 하천 뚝을 막은 곳이다. 오목천동은 서쪽의 칠보산이 아늑하게 울타리를 쳐서 인근 권선동, 대황교 등지와 함께 삼태기 바닥 형국과 같이 오목한 데를 황구지천이 돌아 흐르는 까닭에 붙은 지명이다.

광교산과 백운산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한 수원천은 창사천, 창사하천, 복골천, 문암골천이 차례로 상광교천에 유입되어 흐르는 하천이다. 광교저수지를 거쳐 화성 성안과 중심시가지인 영화동, 북수동, 남수동, 팔달로 등 도심을 가로질러 남류한 다음 경부선 철도와 나란히 흐르다가 대황교 부근에서 황구지천으로 흘러든다. 하계망의 패턴은 1차수 곡지인 창사천 · 창사하천 · 복골천이 합류하는 상류에서 골짜기 폭이 좁은 V자 모양이고, 2차수 곡지는 법성사와 창성사지에서 작은말 지점까지 해당된다. 3차수 곡지인 상광교천은 작은말 부분부터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구간이다. 1차수 곡저면은 사면 경사가 급하나 기반암과 식생이 밀식한 토양층으로 이루어져 측방 공급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상에 퇴적된 자갈은 많지 않다. 2차수 곡저면에 퇴적된 물질은 거력, 아원력, 아각력의 암설이다. 사면 경사가 급하지 않고 상부에서 소량의 물질이 운반된 결과이다. 3차수 곡지인 광교천의 하상 물질은 1~2차수 곡저에 비해 많으며 원력과 입자가 굵은 모래이다. 최근에 광교천에서 다슬기가 다량 발견되어 반딧불이의 서식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광교산과 연결된 골짜기는 화강암 유역에서 관찰되는 바닥이 평탄한 형태와 달리 전체적으로 경사가 급한 요람형으로 발달한다. 편마암의 배후산지는 전반적으로 얇게 풍화된 미립 물질이 기반암의 심층 풍화를 막으면서도 안정각인 22° 정도의 사면을 유지하므로 화강암 유역처럼 풍화층을 옆으로 깎아 나가는 넓은 골짜기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층 풍화로 풍화층이 쉽게 형성되어 주변 산지에서 형성된 작은 암설과 미립 물질은 계속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곡지의 사면은 산지 경사 방향과 마찬가지로 기울게 된다. 이와 같이 표층 풍화의 속성으로 산지가 쉽게 해체되지 않는 편마암의 특성으로 인해 하천의 종단면은 화강암 유역에 비해 경사가 급하고 직선상의 경향이 강하다. 편마암 산지는 유량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 발원하는 하천은 측방 침식보다 하방 침식을 더 활발하게 진행한다. 그래서 편마암 유역의 하도는 폭이 좁고 하도에 인접한 사면

에서 공급하는 물질이 일종의 단구와 같은 모양으로 쌓인다. 이러한 퇴적물은 주변의 산지 사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나 침식에 의한 제거가 호우시를 제외하고 활발하지 않으므로 골짜기는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은 요람형을 보이게 된다.

수원시의 도심을 통과하는 수원천은 골짜기가 넓어지며 화성의 축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북수문인 화홍문과 남수문, 방화수류정과 같은 화성의 부속건물은 수원천의 자연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것이다. 연못을 성 안(3군데에 5개)과 성 밖(용지)에 만들어 홍수 시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하도변에 버드나무를 심어 시원함을 더해 주는 등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흔적도 많이 남아 있다. 수원8경의 하나인 남제장류는 본래 유천청연(柳川晴烟)인바, 이는 수원천의 옛 명칭인 유천의 맑게 갠 날의 물안개라는 뜻으로 광교산에 쌓인 눈이 녹아 하천으로 흐를 때 따뜻한 봄바람에 수양버들은 살랑거리고 아직 차가운 물과 온도차가 발생하여 응결하는 현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풍광이다. 수원천은 자연과 건축의 융합을 이룬 조형의 모범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화로 직선형 콘크리트 제방으로 바뀌는 한편, 일부 구간은 생활오수를 가릴 목적으로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형제산과 응봉 사이 고개에서 발원하는 원천천은 동수원인터체인지, 원천저수지, 삼성전자 등지를 거쳐 곡반정동과 화성시 반정동 경계를 따라 대황교 부근에서 황구지천으로 흘러든다. 원천천 유역은 저기복 구릉지를 이루며, 수계는 북서-남동 방향 구조선과 거의 일치하여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흐른다. 하계망의 패턴은 쇠죽골 상부곡지와 버들치 고개를 분수계로 승죽골에서 시작한 1차수 곡지인 동녘쇠죽골천, 쇠죽골천에서는 좁은 V자 협곡을 이룬다. 2차수 곡류천인 여천은 5개의 지류천이 만나는 지점이며, 골짜기가 좁은 요람형을 이룬다. 이는 다시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를 거쳐 남 · 서류하며 충적지를 통과하여 흐른다. 원천천의 길이는 9.0㎞이고, 하상 경사가 0.6°로 급하지 않다. 이러한 하상 경사는 수계의 변화를 크게 만들지 않으며 유량이 연중 안정되어 흐르고 하상은 충적물로 이루어졌다.

수원분지를 벗어난 황구지천은 평택시 황구지리에서 오산천, 진위천과 합류하여 안성호로 흘러간다. 하도 주변은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생태 하천 관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본래 항곶천으로 불린 것은 항곶진(亢串津)에서 기원한다. 화강암 분포지를 흐르는 황구지천은 배후산지는 물론 심층 풍화된 구릉지로부터 많은 양의 모래를 운반한다. 그에 따라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 하상에는 모래를 위주로 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운반 · 퇴적되면서 모래톱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유량 변동이 심한 기후 환경, 특히 화강암 유역의 하곡에서 잘 나타나는 지형 특성이다. 화강암의 기후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수원천

지형적 특성의 영향으로 이곳에서는 측방침식을 진행하기에 용이한 유량과 풍화 환경 때문에 1~2개의 지류로도 넓은 충적지가 형성된다.

정조가 현륭원에 능행할 때 돌다리에서 기원하는 대황교 부근은 황구지천, 수원천, 원천천이 합류하여 함께 수원분지를 빠져 나가는 물목이다. 이곳은 해발 약 30m로서 수원시에서 가장 낮다. 하천 퇴적물 아래에 갯벌층이 나타난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신매탄동과 삼성전자 사이 지하배수로를 공사 시 파 놓은 토양 단면(soil profile)에서 갯벌층을 관찰하였다. 갯벌층은 하천 퇴적물 약 2m 아래에 1.5m 두께였다. 이는 해수면 상승기에 해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황구지천과 지류 하천의 연안에는 갯벌층의 유무와 관계없이 충적지가 비교적 넓게 발달되어 있다. 평야에서 핵심을 이루는 충적지는 범람원으로도 불리며, 순우리말은 '들'이다. 일월저수지 아래 구운동은 '군들'에서 유래한다. 이는 논과 밭이 무리지어 있는 들판이라는 뜻이다. 충적지는 후빙기 들어 기후가 온화해지자 해수면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빙기에 깊게 파인 침식곡이 토사로 매립되어 발달한 저습지이다. 충적지는 그 형성과정 때문에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평야의 핵심을 이루

수원시 갯벌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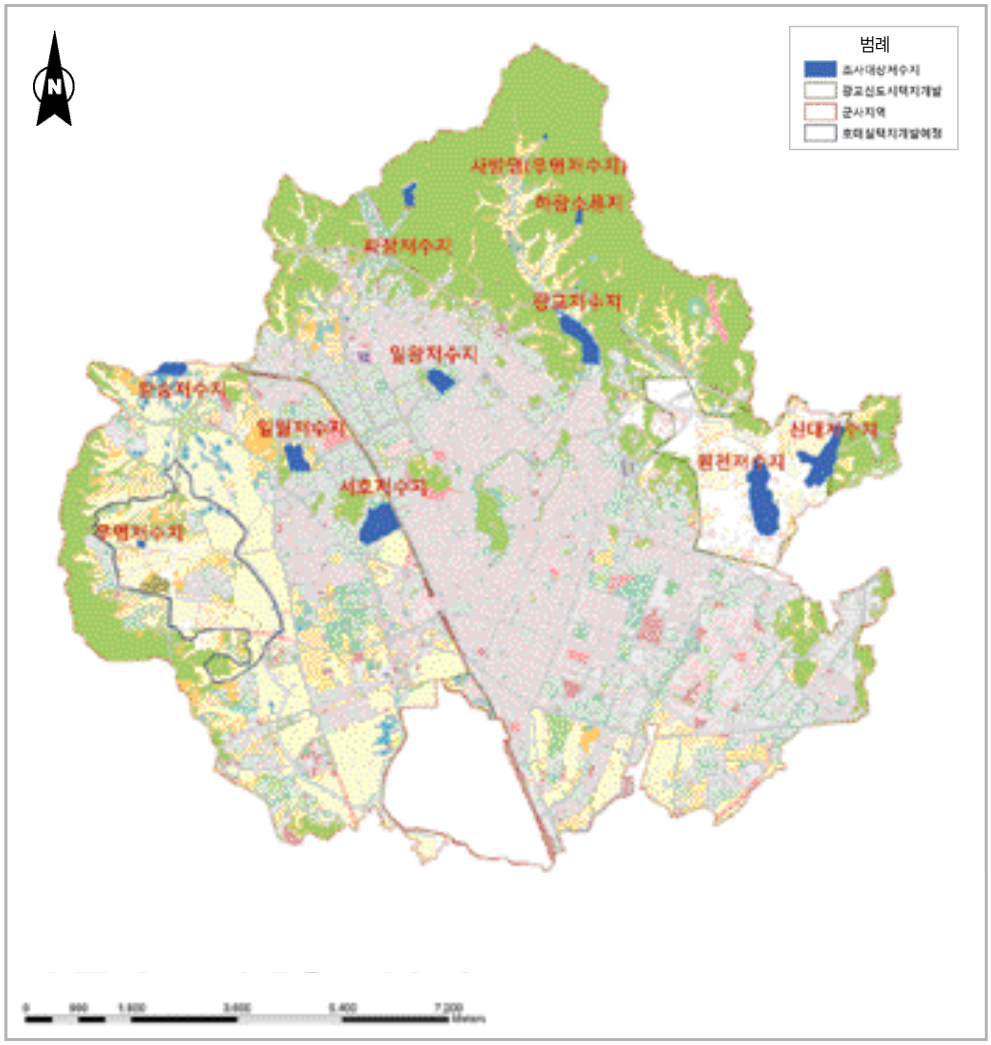
는 충적지는 후빙기 해면상승과 관련해서 발달한 것이어서 퇴적층이 두껍다. 빙기 침식곡을 따라 유역분지의 풍화산물이 지표유출과 하천의 침식과 운반, 퇴적작용과 창조류의 재운반, 재퇴적 작용에 의해 토사로 쌓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곡반정동 곡선1교 주변 지점, 원천천 하류에 해당되는 반정리와 아랫반정 지점도 충적지이다. 이곳은 등고선 26~29m 지점과 일치하며 하상비고가 약 4~5m이다. 하천수의 공급이 북동 편마암 산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유량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므로 자정 능력도 높은 편이며, 하상의 물질은 고운 모래와 부분적으로는 뻘 흙과 같은 미립 물질도 관찰되었다.

화강암에서 기원하는 모래는 자갈과 더불어 골재의 주성분이다.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사력퇴(砂礫堆 : sand-gravel bars)는 수질정화능력이 탁월하다. 수자원 확보와 홍수조절, 수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핵심은 하상 준설과 댐에 필적하는 대규모 보 건설이다.

수원시의 면적은 121.01㎢ 중 23.4%가 경지이다. 농사는 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수원시에는 저수지가 많다. 광교저수지 · 원천저수지 · 신대저수지 · 일월저수지 · 일왕저수지와 서호 등이 그것인데, 농업용수를 주로 공급한다. 광교저수지(저수량 248만t)는 1940년, 원천저수지(저수량 199만t)는 1929년 준공되었다.

만석거, 북지, 교구정방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일왕저수지는 1795년(정조 19)에 가뭄이 전국을 휩쓸자 축조를 결정하고 이듬해 착공, 완공하였다. 만석거 남단에는 영화정을 세워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영화정은 신구 감사가 임무를 교대하는 교구정의 구실도 겸하였다. 화성의 농업 생산기반시설로도 축조된 만석거 주변에는 국영농장인 대유둔이 조성되었다. 이는 화성을 관리, 보수,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용외영의 군사로 2월부터 9월까지 경작하게 한 병농 일치의 둔전법을 시험하려 한 것이다. 서호는 화성을 쌓을 때 만든 축만제로 수원시를 상징하는 유적의 하나이다. 서호는 유역면적 2,065ha, 만수면적 3.7ha, 인가면적 107ha로서 서호천의 중류에 위치하며 농사



수원시 저수지

〈표 4〉 수원시 저수지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광교저수지	309,210㎡	파장저수지	64,680㎡
사방댐(무명)	2,197.447㎡	하광소류지	6,871.756㎡
서호저수지	40.7ha	무명저수지	2,925.785㎡
왕송저수지	105ha	신대저수지	497.4ha
일왕저수지	39.9ha	원천저수지	370,915.468㎡
일월저수지	125.9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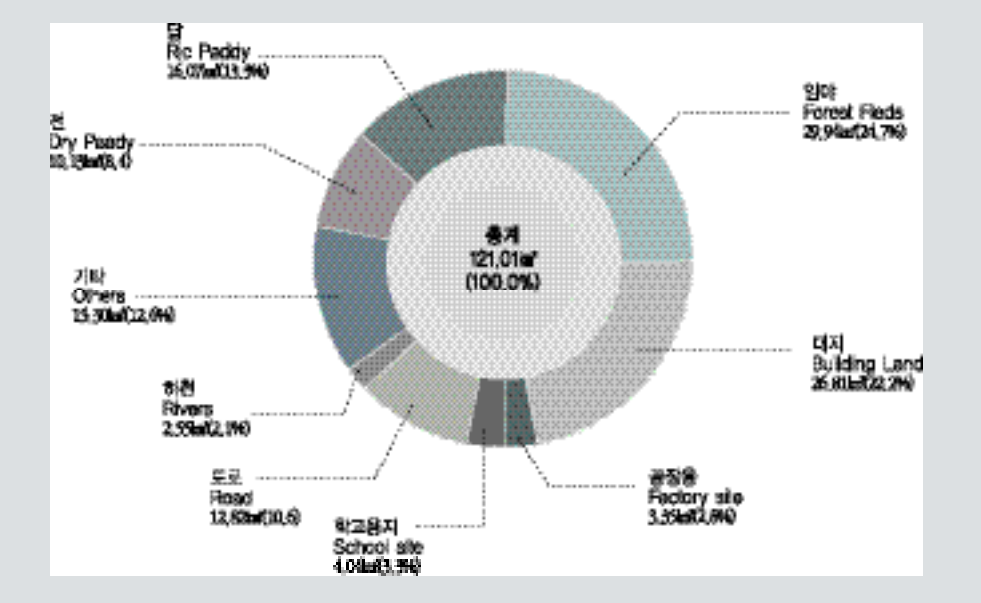
시험 연구의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농사시험을 위한 농경지는 남쪽 유출구 주변에 마련하였으며, 서쪽으로 임야와 농촌진흥청이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철도와 아파트단지, 북쪽인 유입구 주변은 농경지와 공원, 농민회관이 있다. 저수지 제방은 서호근린공원으로 이용된다. 왕송저수지는 유역면적 1,555ha, 만수면적 96ha, 인가면적 564ha이며, 수원시에 유출구 부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일월저수지는 유역면적 277ha, 만수면적 18ha, 유효저수량 299㎥이며, 주변이 모두 시가지로 둘러싸였고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다.

이들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물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쌀 · 보리 · 감자 이외에 배추 · 무 · 상추 · 호박 · 오이 · 참깨 · 포도 · 배 등이다. 농산물은 주곡 및 일반 채소류와 함께 고급 원예작물의 비중이 높다.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0.9% 정도이다. 수원시는 농업 연구의 중심지이다.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시험장, 농업기술연구소 등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농업의 과학화와 기술 보급을 주도하였다. 수원시의 농업도시 전통은 이처럼 200여 년 동안 이어 내려온 문화유산이다.

4) 토양과 토지 이용

토양은 농업활동의 근간으로 인간 생활의 토대가 되며, 특히 표토의 토성은 농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종 사서류에 기술되어 있는 단편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수원시의 토질은 농경지로서 그다지 비옥한 것은 못 되었던 것 같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수원은 기름지고 척박한 땅이 반반이라 하였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토질의 척박을 논하면서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오곡과 목면을 가꾸기에 알맞은 곳"이라면서 "논에 볍씨 1말[斗]을 뿌려 60말을 거두는 곳을 으뜸으로 치고, 40~50말을 거두면 그다음, 30말 이하의 땅은 메말라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원을 포함하는 한수 이남, 차령 이북 지방은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이 반반씩이니 차령 이남에 미치지 못한다. 기름지다는 곳도 수확량이 많아야 40말을 넘지 못한다."고 하였다.

수원시의 토양은 대부분 사양토(sandy loam)와 양토(loam soil)로서 비료를 공급하는 오늘날에는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곡간 및 선상지 토양이 870ha, 하성평탄지 토양이 284ha, 구릉지 토양이 271ha, 산록경사지 토양이 106ha, 홍적대지 토양이 210ha 등으로 분포한다. 밭 토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통밭 35%, 사질밭 15.6%, 중점밭 12.6%, 미숙밭 8.7%, 기타 28.1%이다. 토성별 밭 토양은 사양질토 58%, 사질토 48.5%, 식양질토 11.3%, 약질토 10.6%, 경반토 8.4%, 식질토 6.7%이다. 논 토양은



수원시의 토지 이용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질논 34.6%, 보통논 33.3%, 미숙논 22%, 습답논 9.3%, 기타 0.8%이다. 그리고 토성별 논 토양은 식양질토 44.1%, 사양질토 39.7%, 식질토 13.7%, 사약질토 2.5%이다.

토양은 수원시가 지닌 기후, 식생, 모재, 지형 등의 토양생성요인의 작용으로 생성되며 그 고유의 특성을 나타낸다. 모든 지표 환경은 가장 안정된 형태로 존재하려고 한다. 토양도 하나의 자연체이므로 주위 환경 조건에 대응하여 가장 안정된 형태를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생성된 풍화물은 토양생성작용을 받아 토양이 되고, 미성숙 토양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층위가 분화된 토양으로 발달하게 된다.

기후는 토양 생성에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이며, 특히 강수량과 기온의 영향이 크다. 이들이 토양수의 이동 방향과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강우량이 증발산량보다 많은 습윤지대에서는 물이 주로 하향 이동하며, 아래로 이동하는 물을 따라서 점토와 유기물 등의 토양교질물도 하향 이동하므로 용탈층과 집적층의 층위분화가 잘 되어 토양발달이 빠르다. 또한 강수량이 많을수록 염기의 용탈이 심하게 일어나 산성 토양으로 발달된다. 식생이 왕성하여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많고 화학적 반응도 쉽게 일어난다. 수원시는 온대 몬순 기후권에 속하며,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4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여름(6, 7, 8월)의 평균 기온은 약 20~25℃로 8월에 최고기온을 나타내며, 겨울(12, 1, 2월)의 평균기온은

−5~5℃로 1월에 최저기온을 나타낸다. 수원시의 토양이 산성을 띠는 가장 큰 이유가 강우량이 증발산량보다 많은 조건에 연유한다. 7~8월의 집중강우로 경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양유실이 심하여 토심이 얕은 토양이 생성된다. 이와 반대로 하천 부근의 평탄지 및 산록하부는 충적물이 퇴적되어 토심이 깊은 토양이 생성된다.

식생의 종류에 따라 토양에 공급되는 유기물의 양이 다르며, 토양의 침식 방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자연식생에 함유된 무기성분의 종류와 함량 또한 토양생성에 영향을 끼친다. 침엽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과 같은 염기함량이 낮기 때문에 침엽수림에서 생성된 토양은 활엽수림에 비하여 산성으로 된다. 수원시의 자연식생은 일반적으로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성림이다.

지형은 기후인자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사지에서는 비가 올 때 강우의 일부가 경사면을 따라 제거되기 때문에 토양 중에서 하향 이동하는 물량이 적어지고 점토의 하향 이동이 감소하여 토층분화가 지연된다. 반면에 경사지에 인접한 평탄지에서는 강우량뿐만 아니라 경사면을 따라 흘러온 물까지도 토양 속에서 하향 이동하게 된다. 경사가 심할수록 경사면을 따라 유거되는 물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토양까지도 유실되기 때문에 토심이 깊지 못하고, 토층분화가 지연되며, 유기물 함량이 낮다.

수원시의 지형은 일반적으로 산악지, 산록경사지, 구릉지, 선상지, 곡간지, 대지 및 평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악지는 광교산 · 칠보산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산록에는 산록경사지가 많고, 이어서 구릉지가 분포하고 있다. 구릉지의 하부에는 대지, 선상지 및 곡간지가 분포하고 있다. 평탄지는 주로 하천 연변에 분포한다.

화강암은 화학적으로 약한 암석이다. 조암 광물은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고 공극률도 매우 낮다. 지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풍화 초기에 흑운모, 사장석 등이 부피 팽창하면서 암석 조직이 이완되기 시작하면 수분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수분은 영하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얼고, 영상으로 회복되면서 녹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래서 암석 내부의 공간은 더욱 커지고 새로운 균열이 성장한다. 화강암 지역의 풍화는 마사토(saprolite)라고 불리는 층이 널리 분포하며, 이러한 곳은 비탈 침식(slope wash), 인간의 간섭 등으로 지형 형성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시의 대부분은 상술한 바와 같이 화강암 기반의 산체와 이의 해체 과정으로 나타나는 저기복의 구릉 및 하안충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시의 토양 모재는 화강암류의 산성암이 주류를 이룬다. 화강편마암과 같이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은 풍화작용의 진전이 느려 구릉이나 산지에서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즉 변성암을 모재로 하는 토양은 주로 구릉이나 산지에 분포하고 있고, 평탄하거나 완만한 지역은 구릉에서 와해된 공급

물로 충적되어 있다. 수원시의 토양 모재가 되는 각 암상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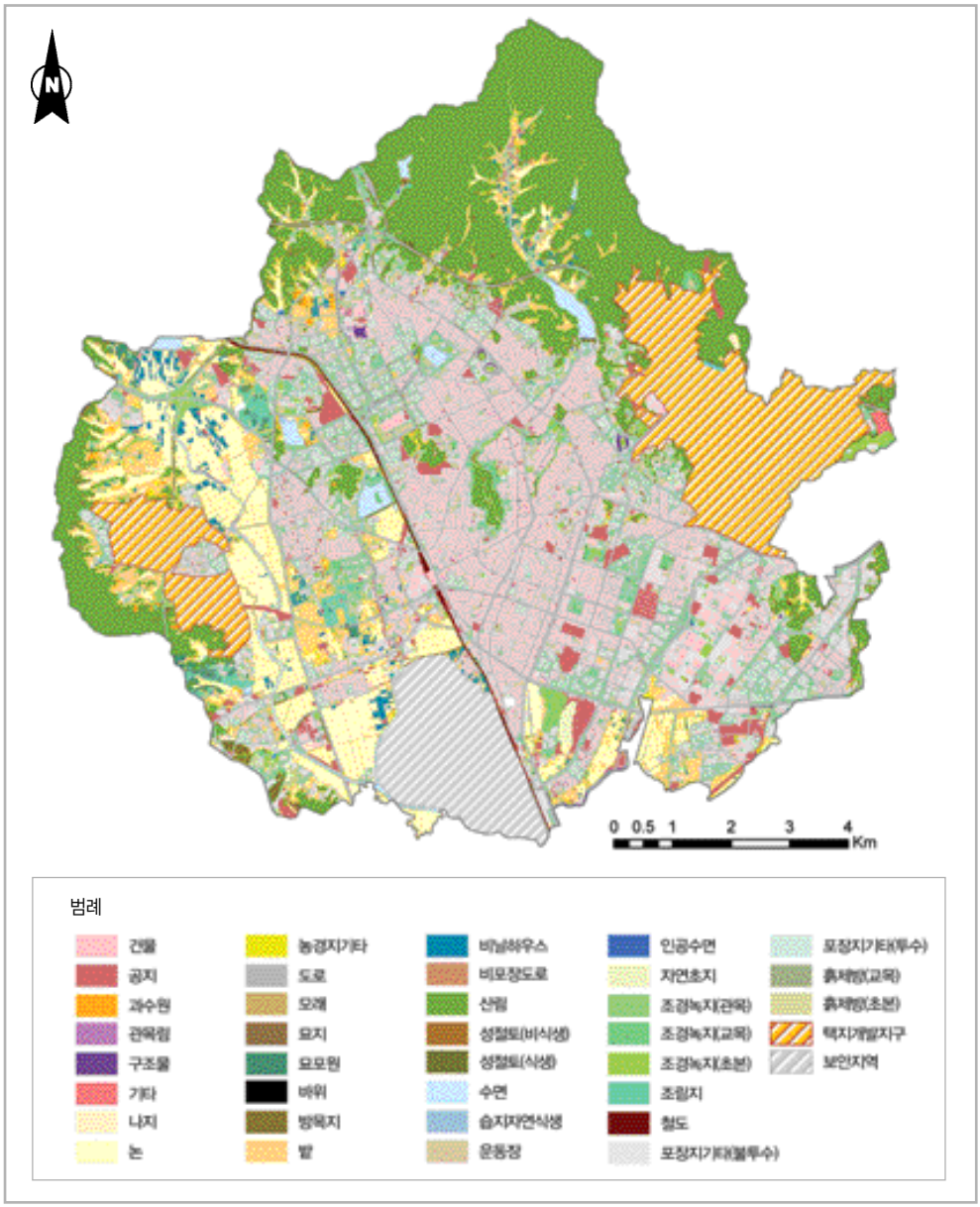
산악지는 주로 식생 피복상태를 기준으로 초지와 임지로 구분되며, 기복량이 크고 사면 경사가 상대적으로 높아 인간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다. 수원시의 북동부를 중심으로 산악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기반암이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강암의 풍화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 사질토양이 분포하고 있다. 화강암의 단열이나 절리면은 수분이 쉽게 유도되는 곳으로 풍화가 빨리 진전되어 비교적 유효토심이 높아질 수 있으나, 매스 무브먼트 혹은 유수의 제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므로 유효토심은 구릉이나 평야대에 비해 낮다. 또한 산악지역의 유효토심은 대개 50~100㎝ 내외이며, 침엽수림 · 활엽수림 · 혼효림 그리고 약간의 초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릉지는 곡간지를 제외하더라도 수원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모재가 산악지와 동일하지만, 토성의 경우는 사양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양토의 비율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화강암의 풍화 정도가 산악지보다 높아 토양 중 점토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릉지는 사면 경사로 인해 논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택지로 급격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피복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피복은 지표면을 덮고 있는 식생과 인공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구성요소인 나출된 토양이나 암석 그리고 수면을 모두 포함한다. 토지 피복도는 지표면의 실질적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토지 피복이 인간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 피복도는 인간 활동의 변화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토지 피복의 변화는 전 지구 규모의 글로벌 시스템(대기, 기후, 해수면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규모로는 생태계의 구성과 순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토지 피복의 변화를 잘 반영한 토지 피복도는 각종 동물서식처 모형화, 기후 변화 예상, 토지 이용 분석 등과 같은 실질적 환경 분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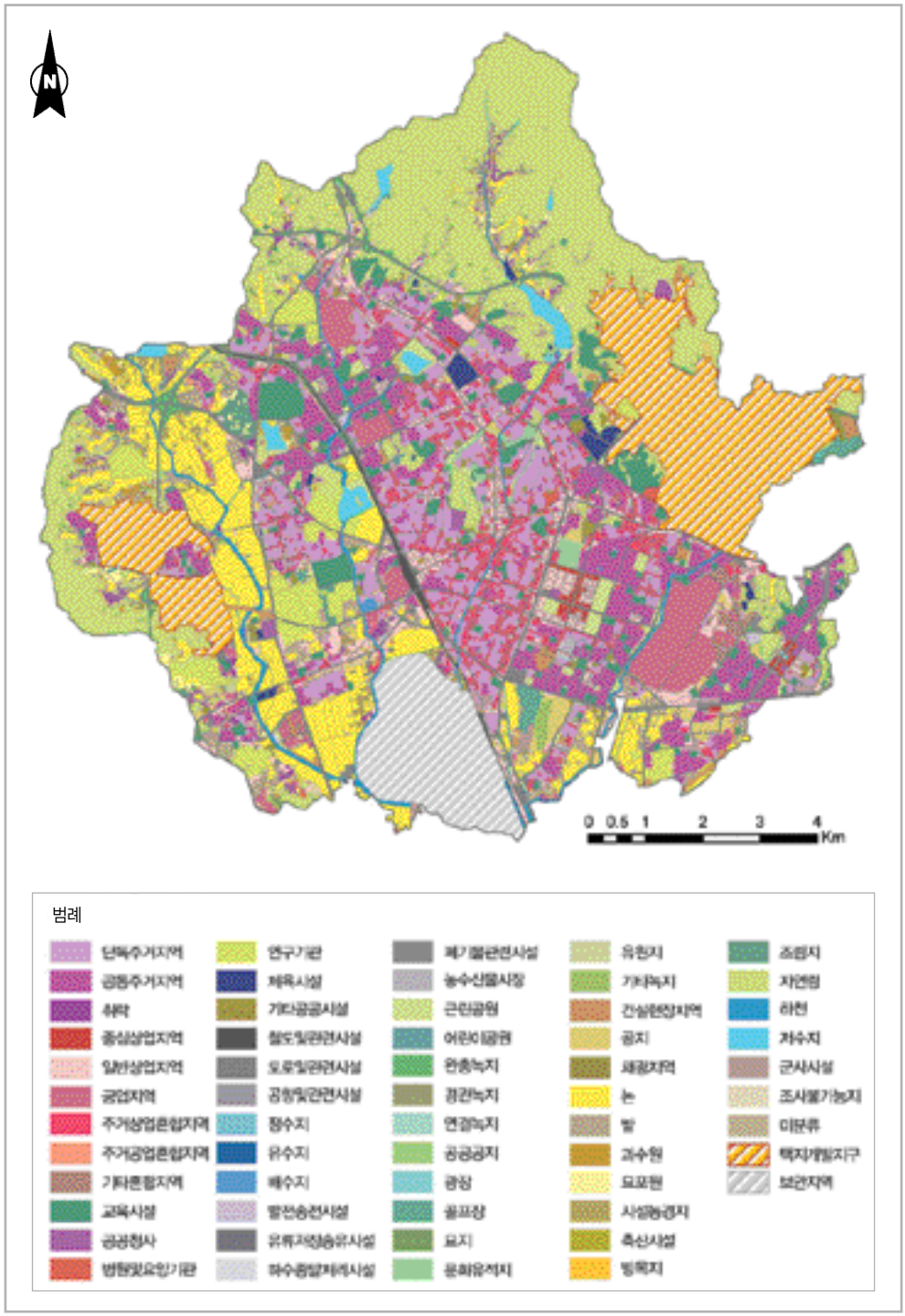
토지 피복도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면적 대비 35.9%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투수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중 도로가 불투수 토지 피복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투수 지역 면적 대비 29.9%, 전체 면적 대비 10.8%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기타로 분류된 전체 면적 대비 15.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당부분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향후 수원시 토지 피복 중 불투수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 이용도는 인간의 토지 이용 양상을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과거 토지 이용은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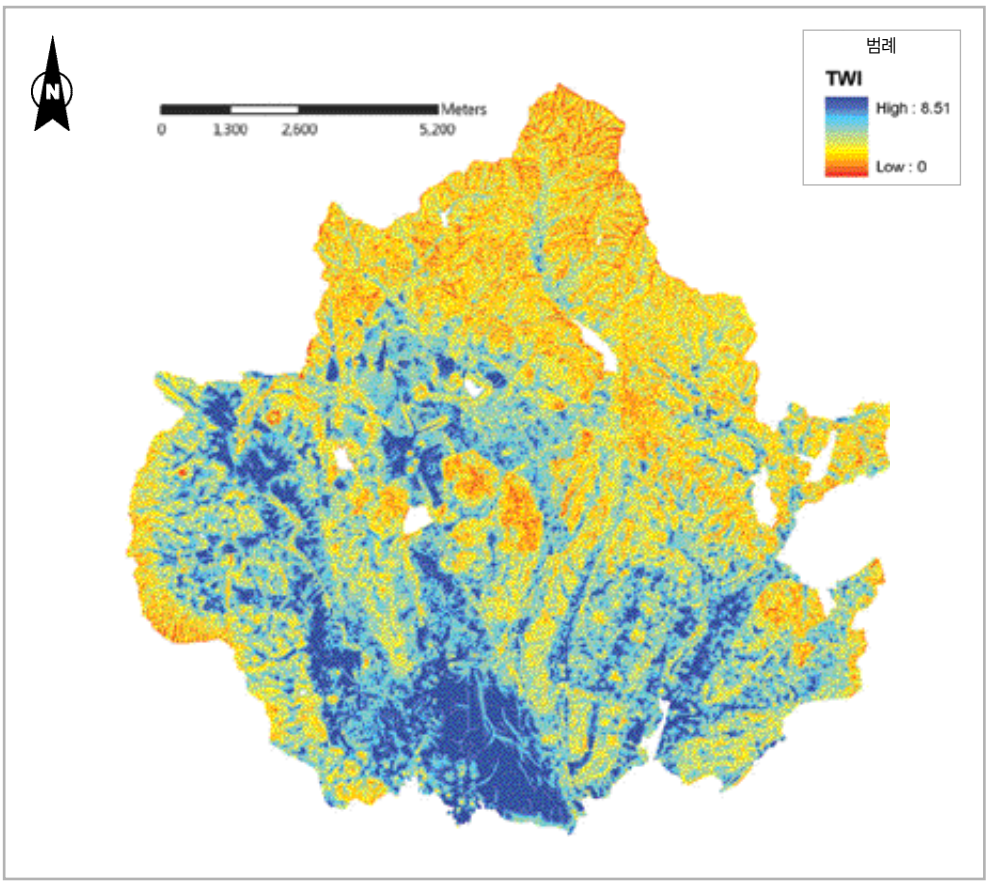


2009년 수원시 토지 피복도

피복의 의미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토지 피복도가 토지 피복의 물리적 상태를 표현한 지도라면, 토지 이용도는 토지에 대한 인간의 행위 혹은 활동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수원시 토지 이용도



2009년 수원시 토양 습윤지수

토양 습윤지수는 흐름에 따라 축적된 물이 경사의 완급에 따른 배수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땅이 습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토양 습윤지수도는 능선과 골짜기, 평지와 산악 지형 등 지형에 따라 습윤성이 결정된다. 토양 습윤지수를 분석한 결과 산림지역의 능선과 계곡에 따라 습윤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풍화는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과정의 시작이며 지형형성작용(morphogenesis)과 생물(식물, 동물,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토양생성작용(pedogenesis)의 준비 과정이다. 광교산 일대의 기반암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경기편마암복합체로서 다양한 종류의 편마암류가 존재하고 있으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흑운모 호상 편마암이다. 광교산과 같은 흑운모 호상 편마암산지는 정상부에서도 교목이 자라고 정상부의 능선은 기복이 없이 이어진다. 대부분의 산지에서 사면은 안정각인 22° 정도로, 정상부에서 평지까지 사

면이 직선상으로 이어진다. 편마암 산지는 지표가 고루 풍화층으로 덮여 평활한 사면으로 이루어 안정되어 보인다. 그러나 산지의 여러 사면에서 미립 물질과 작은 암설이 뒤섞여 매스 무브먼트에 의해 좁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 가는 모습도 관찰된다. 풍화산물의 중력 방향 이동으로 인해서 나무의 뒤틀림과 같은 식생의 변형이 광교저수지 사면에서 볼 수 있다.

칠보산 일대의 화강암이 산지와 저지대로 대비되는 양극성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곳의 편마암은 표층풍화(generalized superficial weathering) 성향을 보인다. 편마암은 층리와 절리를 따라 지하에서 쉽게 풍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풍화가 0.5~2m 두께로 진전되면 이 과정에서 생성된 많은 미립 물질이 수분의 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므로 풍화층의 하부에는 기반암이 신선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편마암의 독특한 풍화 양식을 '표층풍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암석의 특성으로 인해 광교산 일대의 산지나 구릉지는 기반암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정 깊이까지 풍화층이 기반암을 덮고 있는 토산의 모습이 나타난다. 편마암 자체는 층리 및 절리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쉽게 암설로 풍화되어 나간다. 일단 역으로 쪼개져 나간 암설은 토양 내에서 지중 풍화를 받아 미립 물질로 바뀐다. 그러나 풍화가 일정 두께 진전되면 이 과정에서 생성된 많은 미립 물질로 인하여 수분이 쉽게 지하로 침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편마암은 심층 풍화되지 않고 일정 깊이까지만 풍화되는 표층 풍화가 일어난다.

산지 사면은 풍화층이 씻겨 간 곳에서 암괴나 기반암이 드러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정 깊이까지 진행된 풍화층이 기반암을 덮고 있다. 풍화층과 기반암은 확연히 구별된다. 절리 밀도는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풍화층이 기반암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곳도 있고, 기반암과 풍화층이 만나는 점이부분에서 작은 암설이 쪼개져 나오면서 기반암과 풍화층의 구별이 모호한 곳도 있다.

이 지역에서 화학적 풍화보다 기계적 풍화작용이 우세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을 이루는 편마암은 풍화과정에서 화학적으로는 약하게, 기계적으로는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편마암의 풍화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화학적 풍화보다는 지중에서 서릿발의 쐐기작용(gelifraction)에 의한 결빙과 융해의 반복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계에도 영하의 날씨를 오르내리는 현재 기후에서도 지속적으로 풍화,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광교산과 화성 사이에 발달한 편마암 구릉지는 배후산지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선상으로 해체되었다. 하곡을 따라 넓고 평탄하게 침식되지 않는 편마암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열을 따라서 풍화가 진전되므로 산지와 폭이 좁은 고개로 연결되고 고도는 다소 낮

으나 경사가 뚜렷한 토산을 이룬다. 다만 구릉지에 형성된 풍화층은 산지에 비해 더 두꺼운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완사면이 더 많은 구릉지의 특성 때문에 산지보다 습포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구릉지는 산지에서 분리된 볼록한(convex) 형태이나 연속적이다. 대체로 구릉의 장축은 남북 방향을 띤다. 배후산지와 마찬가지로 토산의 모습이나 산지에 비해서는 풍화층이 두껍고 매스 무브먼트의 영향을 덜 받은 정적 풍화층이 많이 나타난다. 풍화층의 구성물질은 실트나 점토질의 미립 물질이고, 상부에서 하부까지 사질토와 10㎝ 내외 작은 암설이 섞여 있다. 손이나 삽으로 파면 미립 물질이 쉽게 탈거된다.

구릉지의 단면은 각종 공사로 노출되어 있어서 단단한 기반암 위에 풍화층이 일정한 두께로 덮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화층의 두께가 화강암 분포지에 비해 얇다. 풍화층과 기반암은 물질 구성과 색깔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단면의 상부에는 풍화층 위에 토양층인 A층이 30~40㎝ 두께로 덮여 있다. 토양층은 식생에 의한 화학적인 작용으로 짙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미립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층 아래에는 정적 풍화층이 1.5m 이상 발달해 있는데, 밝은 회백색이나 밝은 갈색을 띄고 있다. 토양층 아래에는 회색의 단단한 기반암이 자리 잡고 있다.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는 구릉지 단면에는 풍화층이 토양 생성작용을 받아 갈색토화가 진행되어 있다. 석영, 장석, 운모류 등 1차 광물 점토 형성은 약한 화학적 풍화 이외에 동결과 융해의 활발한 반복으로 인해 진전되는 기계적 풍화작용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현재 기후에서 겨울에 결빙이 지표에서 깊이 약 1m 이내의 범위까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표로부터 5m 이하의 깊이에서도 토양의 결빙현상이 진전될 수 있을 정도로 한랭한 기후가 존재하였음을 풍화층이 반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녹니석(chlorite)은 화학적 풍화가 진전되는 과정 중에 1차 광물 결정체에서 금속 원소만 떨어져 나오는 초기 단계에 생성되는 점토이다. 화학적 풍화가 계속 진전되어 규소(Si)-사면체와 알루미늄(Al)-팔면체가 이루는 층이 서서히 와해되는 단계에 이르면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스멕타이트(smectite)와 같은 점토가 생성된다. 화학적 풍화가 더욱 진전되어 규소-사면체와 알루미늄-팔면체가 이루는 층이 완전히 와해되어 새로운 광물 결정체를 이루는 단계가 되면 고령토(kaolinite)가 생성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풍화층은 화학적 풍화보다는 물리적인 풍화가 우세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화층에서 빠져 나온 풍화산물은 모래보다 실트나 점토질의 미립 물질이 많고, 기반암에서 떨어져 나온 10㎝ 내외 암설도 섞여 있다. 지표에 가까운 곳에서는 토양생성작용이

광교산과 광교저수지

일어나 갈색토화하였다. 편마암 산지와 구릉대에는 침엽수림보다는 낙엽수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비교적 토양 환경이 안정된 환경에서 관찰되는 식생 경관으로서 두께 30~50㎝도 되지 않는 박토임에도 불구하고 낙엽수림이 많다는 것은 습도가 안정되어 있고 영양염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편마암 풍화토에는 미립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수분의 저장능력이 높다. 그래서 녹색댐 효과가 높아 산지에서 발원하는 하천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막은 저수지가 곳곳에 분포한다. 편마암 유역은 화강암 유역에 비해 전체 유량은 더 적어도 평균 유량이 더 많다. 편마암 산지가 강우 시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평소에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황구지천의 물은 쉽게 불어나지만 광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에서는 홍수가 드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승호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수원의 기후 특성
2. 수원의 기후 변화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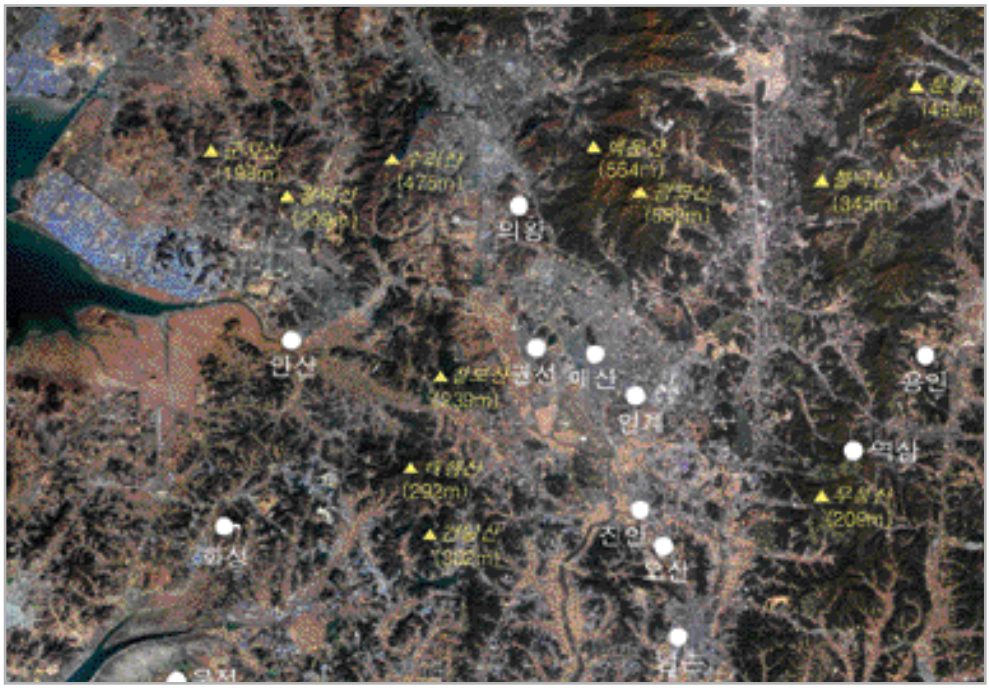
수원의 기후

1. 수원의 기후 특성

1) 기후 특성

수원은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비교적 높은 산지가 자리를 잡고 있으나, 서쪽과 남쪽의 구릉지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다. 수원의 북서쪽 방향에는 수리산(475m)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남서쪽에는 건달산(302m)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리산은 수원시 중심에서 약 14㎞ 떨어져 있고, 건달산은 약 11㎞ 떨어져 있다. 수원시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는 태봉산(223m)도 자리한다. 그보다 가까운 곳에 칠보산(239m)과 구봉산(146m) 등이 서쪽과 북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수원의 북쪽으로는 백운산(564m)과 광교산(582m)이 중심에서 9㎞ 정도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그림 1〉.

이와 같이 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높고 낮은 산지는 수원의 기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쪽에 분포하는 구릉지는 직접적으로 해양이 수원의 기후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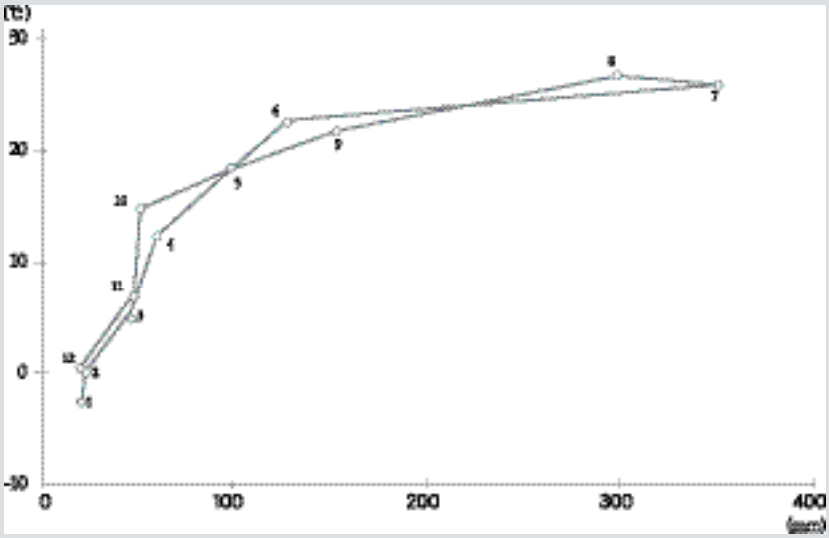


〈그림 1〉 수원 주변의 지형과 기상관측소의 위치

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원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해양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수원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는 약 15㎞ 떨어져 있어서 내륙의 관측지점보다 해양에 가깝지만, 수원의 연교차는 28.5℃로 경기도와 수도권의 기상관측지점 중 가장 높은 값이다. 참고로 내륙지역인 양평의 연교차는 28.4℃이고, 인접한 인천과 서울의 연교차는 각각 27.3℃, 28.1℃이다.

경기도의 내륙에 위치하는 양평과 이천, 강화를 제외하고는 수원 주변이 쾨펜의 기후분류상 온대습윤기후인 Cwa형에 해당한다〈그림 2〉. 즉, 여름철은 다른 중부 지방과 같이 고온다습하고, 겨울철은 비교적 한랭건조하다.

여기서 설명하는 수원의 기후 특징은 기상청의 수원기상대에서 관측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료의 기간은 198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값이다. 평년값의 분석에 사용된 관측지점은 수원을 포함하여 비슷한 위도대에 분포하는 인천, 서울, 이천, 원주, 동해이다. 그 외 등치선도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수원 인근에 위치하는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 Automatic Weather System)에 의하여 관측된 자료로, 자료의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분석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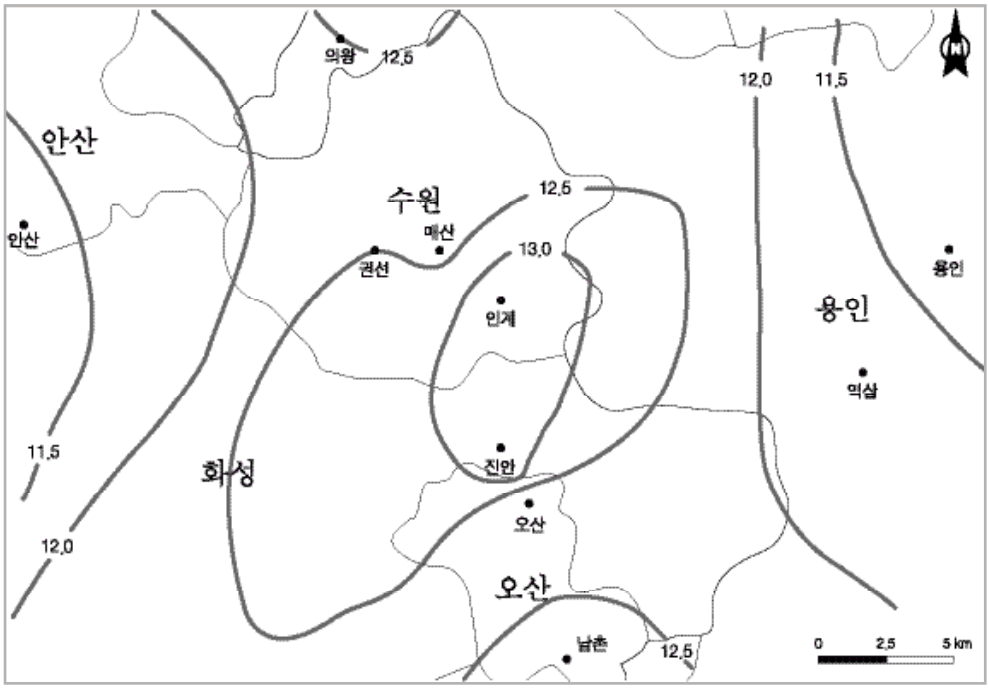
〈그림 2〉 수원의 클라이모그래프

은 성남 수내동, 의왕 고천동, 수원 인계동, 수원 서둔동, 용인 구갈리, 용인 역북동, 용인 둔전리, 안산 사동, 화성 남양동, 화성 조암리, 화성 진안리, 오산 외삼미동, 오산 오산동, 광주 문형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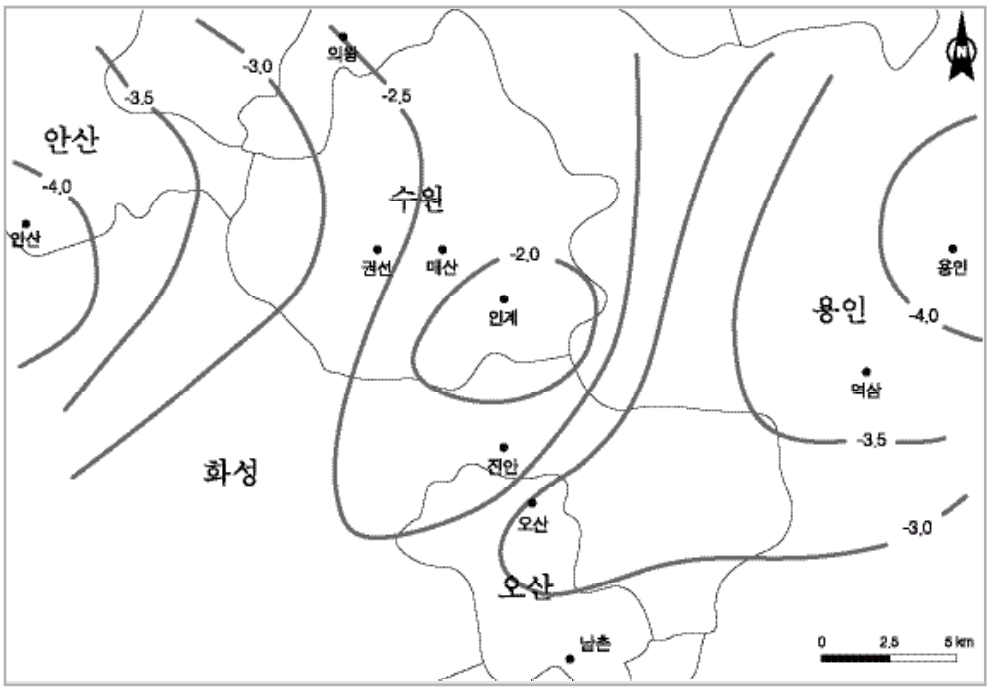
수원기상대는 1964년 1월 1일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시작하였다. 그해 5월 27일에 「농업기상관측소 직제」를 공포하여 1966년 11월 5일부터 수원농업기상관측소로 개칭되었으며, 농업을 위한 관측소로 활용되었다. 그 후 1985년 7월 2일에 수원측후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2년 3월부터 수원기상대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서 수원기상대는 종관 관측과 농업기상 관측을 병행하고 있다. 수원기상대의 관측 노장은 해발 34.5m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서 관측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상대 인근에 농촌진흥청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두 기관 간에 농업기상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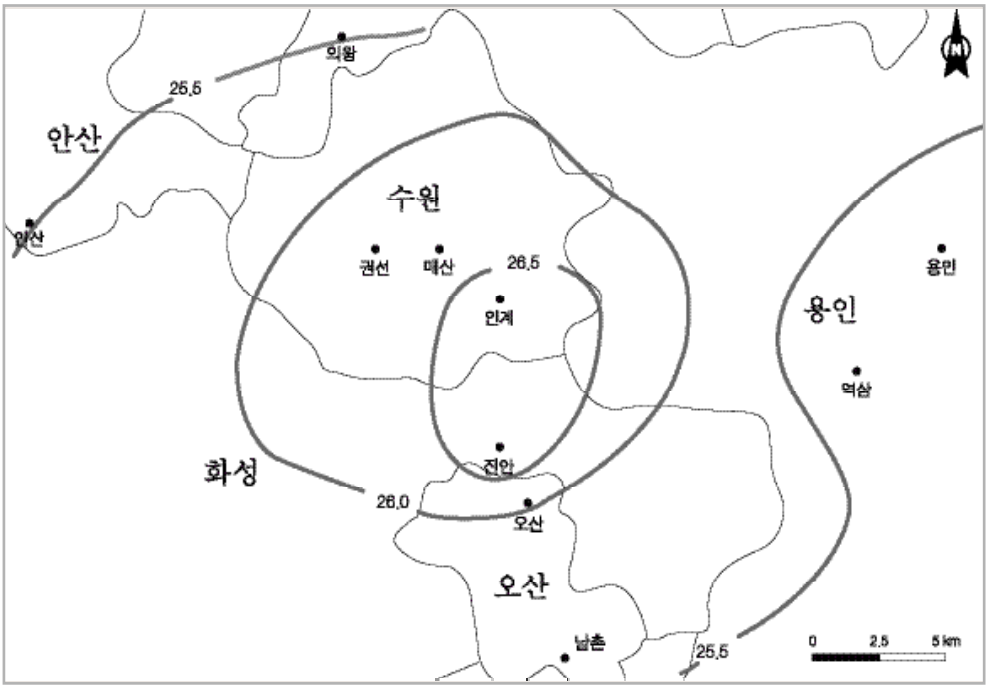
수원의 연평균 기온은 12.0℃로 인접한 대도시인 서울(12.5℃), 인천(12.1℃)과 0.5℃ 이내의 차이로 비슷한 값이며, 비슷한 위도대인 이천보다는 0.4℃ 높다. 그러나 동해안의 동해보다는 0.6℃ 낮은 값이다. 〈그림 3〉은 수원과 그 주변의 연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



〈그림 3〉 수원과 그 주변의 연평균 기온 분포



〈그림 4〉 수원과 그 주변의 1월 평균 기온 분포



〈그림 5〉 수원과 그 주변의 8월 평균 기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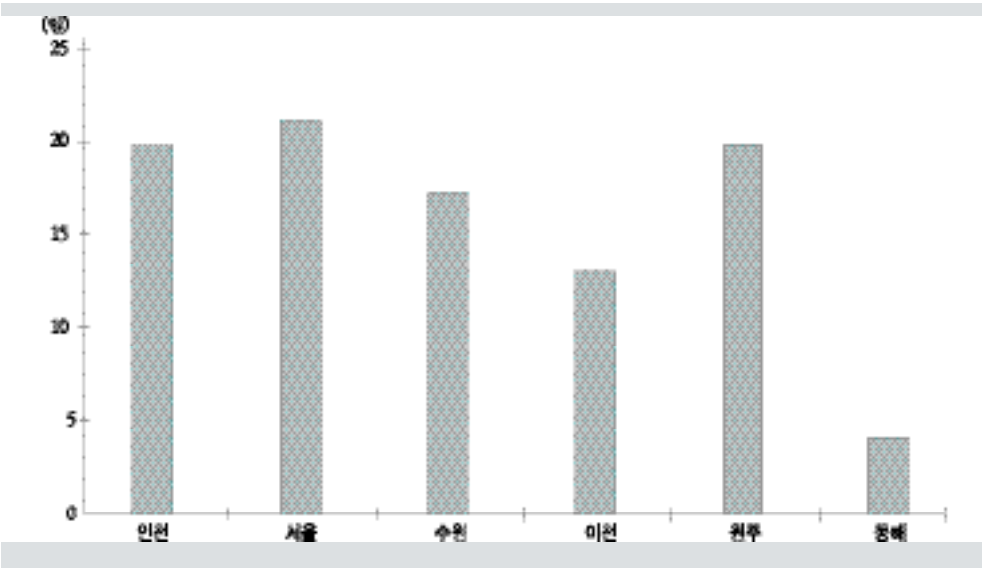
이다. 최근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과 화성시 진안동을 중심으로 주변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인다.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13.0℃ 이상으로 서울보다 더 높은 값이다. 반면 일찍이 개발이 이루어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과 오산시 오산동은 인접한 지역에 비하여 기온이 낮다.

연중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평균 기온은 −2.9℃로 서울(−2.4℃)보다 0.5℃ 낮고, 인천(−2.1℃)보다 0.8℃ 더 낮다. 서울은 도시화효과로, 인천은 해양효과와 도시화효과로 수원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천보다는 0.2℃ 높고, 동해보다는 2.1℃ 낮다. 즉, 인접한 지역과는 연평균 기온과 비슷한 차이지만, 동해안의 동해보다는 겨울철 기온의 차이가 더욱 크다. 〈그림 4〉는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1월 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월 평균 기온 분포도 연평균 기온과 같이 인계를 중심으로 고온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개발된 지역인 권선과 오산은 주변에 비하여 약간 낮은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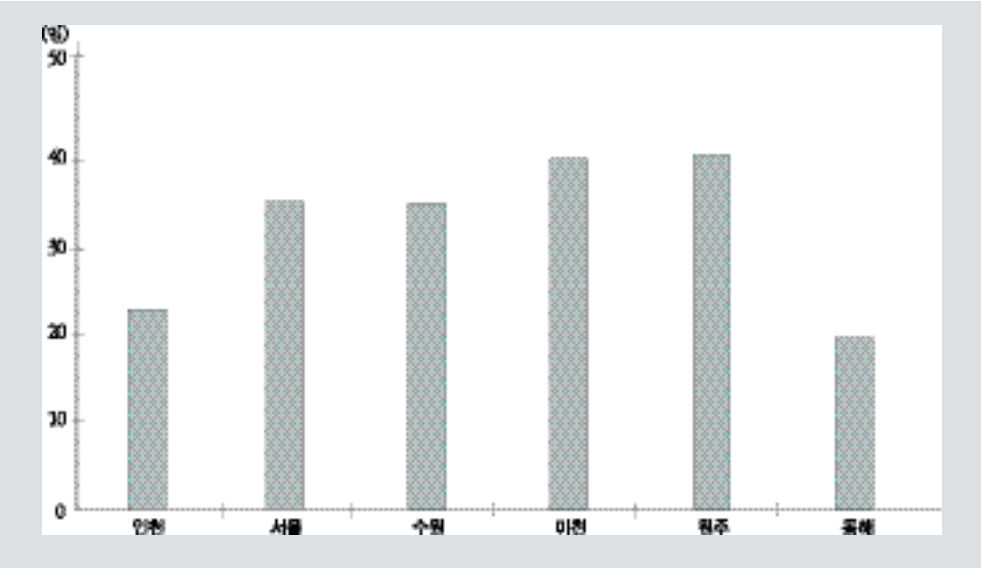
연중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의 평균 기온은 25.6℃이다. 이는 서울(25.7℃)보다 0.1℃ 낮고, 인천(25.2℃)보다 0.4℃ 더 높다. 연평균 기온이나 1월 평균 기온과 달리 인천보다 기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인천의 여름철 기온이 해양의 영향으로 수원보다 덜

상승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천(24.8℃)과 동해(23.7℃)보다는 각각 0.8℃, 1.9℃ 더 높다. 〈그림 5〉는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8월 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8월 평균 기온의 분포도 연평균 기온이나 1월 평균 기온 분포와 같이 인계와 진안을 중심으로 고온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주변에서의 기온 경도가 겨울철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17.2℃이다. 이는 인접한 대도시인 서울(17.0℃)과 인천(16.4℃)보다 각각 0.2℃, 0.8℃씩 더 높다. 그러나 비슷한 위도대인 이천(17.8℃)보다는 0.6℃ 낮고, 동해안의 동해(16.8℃)보다는 0.4℃ 더 높다. 이는 8월에도 비슷한 경향이다. 즉, 수원의 8월 평균 최고기온은 29.8℃로 서울(29.6℃)과 인천(29.0℃)보다 각각 0.2℃, 0.8℃씩 더 높다. 또한 이천보다는 0.1℃ 낮고, 동해보다는 2.5℃ 더 높다. 여름철에 동해보다 최고기온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수원의 1월 평균 최고기온은 2.1℃로 서울, 인천보다 각각 0.6℃, 0.4℃씩 더 높다. 또한 이천보다는 0.7℃ 낮고, 동해보다는 3.1℃ 낮아 겨울철 동해안에 비하여 기온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의 참겨울일수는 17.5일로 인접한 도시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월별로는 12월과 1, 2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6〉은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에 분포하는 기상관측지점의 참겨울일에 해당하는 일최고기온 0℃ 미만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의 참겨울일수는 21.2일이며, 인천 19.2일, 원주 19.1일이다. 동해안의 동해는 3.5일에 불과하다. 또한 수원의 참여름일수(일최고기온 30℃ 이상 일



〈그림 6〉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참겨울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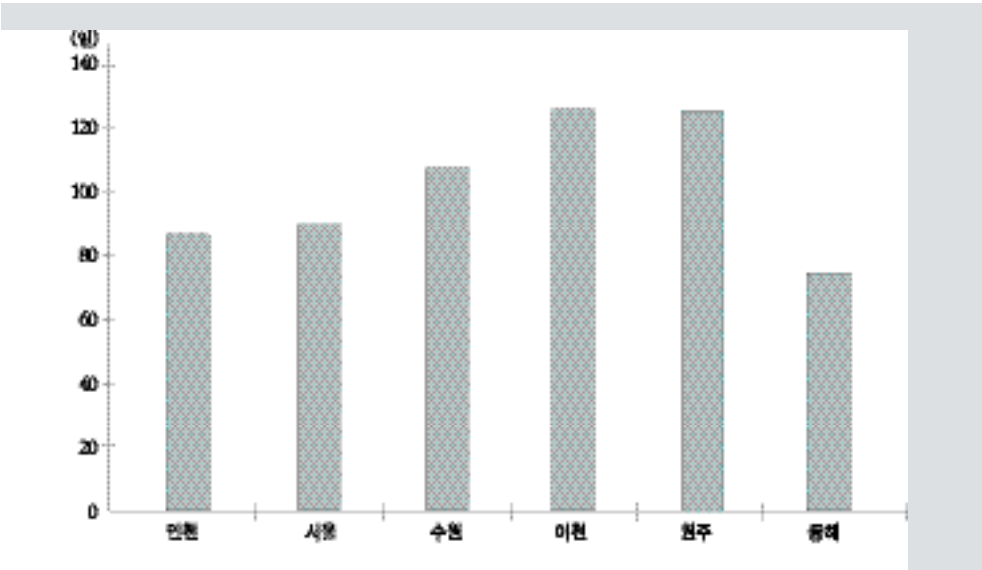


〈그림 7〉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참여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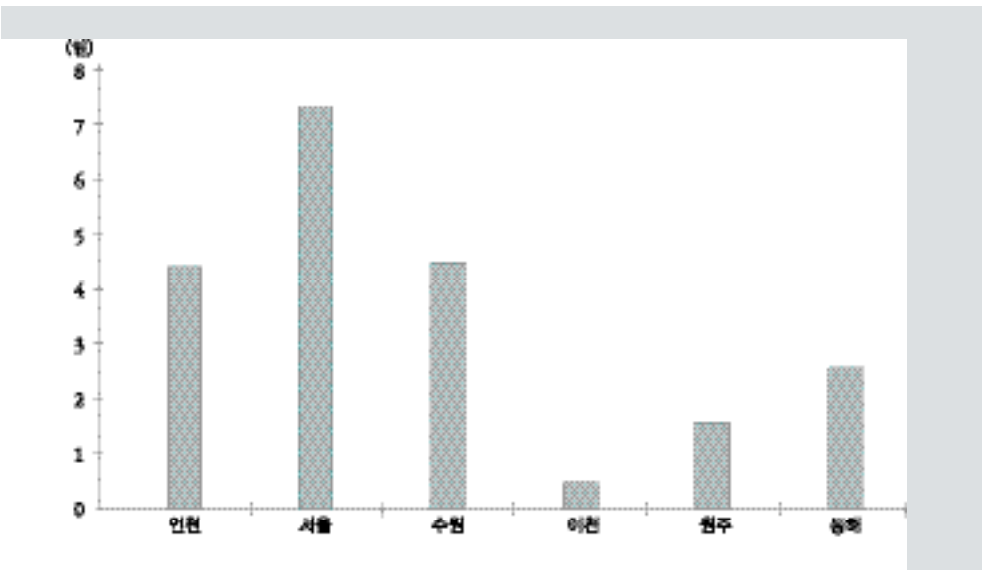
수)는 33.9일이다. 7월(11.1일)과 8월(16.0일)에 집중되어 있으며, 6월과 9월에도 각각 3.9일과 2.5일씩 발생하였다. 〈그림 7〉은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참여름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원주의 참여름일수가 41.8일로 가장 많고 이천도 41.0일로 많은 편이다. 서울은 수원(33.9일)보다 0.3일 많은 34.2일이며, 인천은 수원보다 12.1일 적은 21.8일이다. 동해는 17.8일에 불과하다.

수원의 연평균 최저기온은 7.5℃이다. 이는 인접한 대도시인 서울(8.6℃)과 인천(8.7℃)보다 각각 1.1℃, 1.2℃씩 더 낮다. 즉, 최저기온의 경우는 최고기온과 달리 인접한 대도시에 비하여 낮은 값이며, 이는 인접 도시에 비하여 수원에서 야간의 냉각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위도대인 이천(6.2℃)보다는 1.3℃ 높고, 동해안의 동해(8.7℃)보다는 1.2℃ 더 낮다. 이는 1월에도 비슷한 경향이다. 수원의 1월 평균 최저기온은 −7.4℃로 인접한 대도시인 서울(−5.9℃)과 인천(−5.4℃)보다 각각 1.5℃, 2.0℃가 더 낮다. 즉, 1월 평균 최저기온의 차이가 연평균보다 더 크다. 이천보다는 1.1℃ 더 높고, 동해보다는 4.3℃ 낮다. 〈그림 8〉은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수원의 0℃ 미만 일수는 108.6일로 인접한 서울(89.7일)과 인천(87.1일)보다 20일 정도 더 많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이나 인천보다 수원에서 겨울철 야간의 냉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내륙의 이천과 원주의 0℃ 미만 일수는 각각 126.3일과 124.7일이며, 동해는 74.2일이다. 수원에서 0℃ 미만 일수는 12

월과 1월, 2월에 집중되어 있지만, 3월과 11월에도 각각 15.4일과 11.0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원의 극최저기온은 1969년 2월 6일에 기록된 −25.8℃이다. 인천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21.0℃로 1931년 1월 11일에 기록되었으며, 서울은 1927년 12월 31일에 기록된 −23.1℃이다.



〈그림 8〉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0℃ 미만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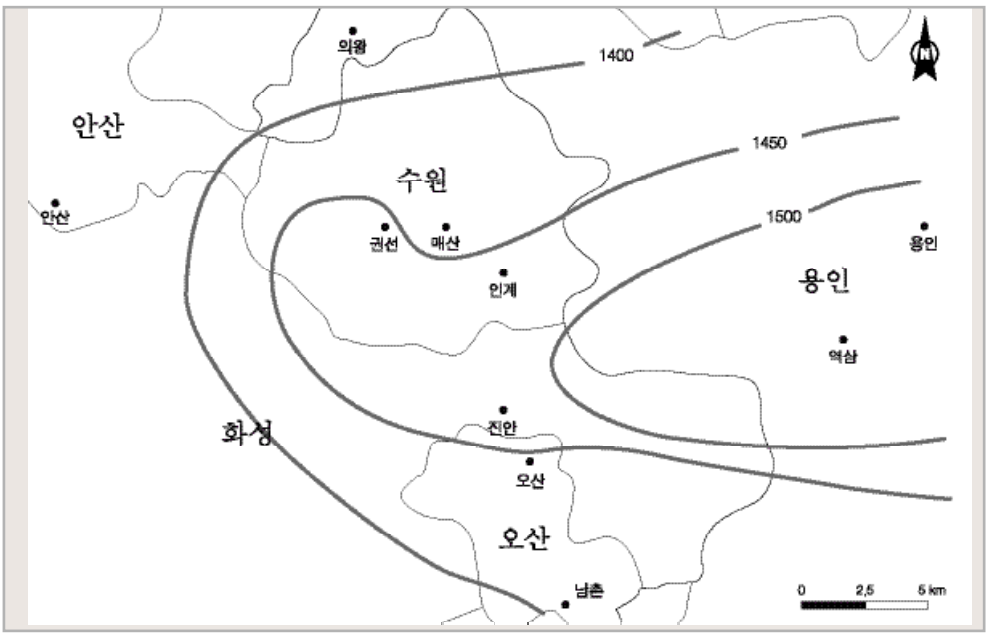


〈그림 9〉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열대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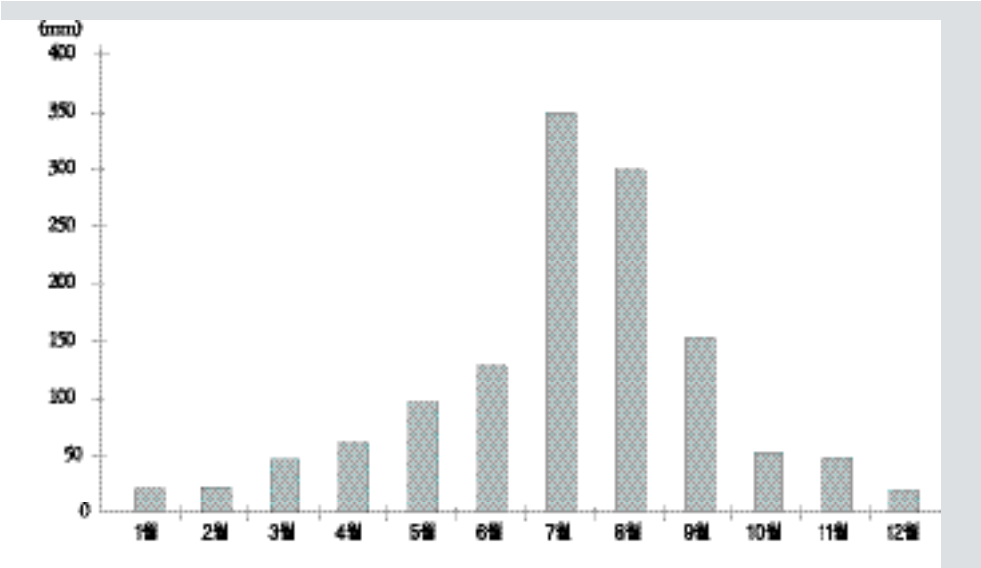
수원의 8월 평균 최저기온은 22.1℃로, 서울(22.4℃)과 인천(22.4℃)보다 각각 0.3℃씩 더 낮다. 이는 여름철에도 인접한 대도시보다 수원에서 냉각이 더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천과 동해보다는 각각 1.1℃, 1.4℃씩 더 높다. 〈그림 9〉는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열대야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수원의 열대야일수는 4.4일로 인천과 비슷하고 서울보다 약 3일이 적다. 이는 주변 산지에서 유입되는 냉기류의 영향이 서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내륙의 원주와 이천의 열대야일수는 각각 1.6일과 0.5일로 수원보다 적고, 동해도 2.6일로 수원보다 적다. 수원의 열대야일은 7월과 8월에만 출현하였다.

3) 강수와 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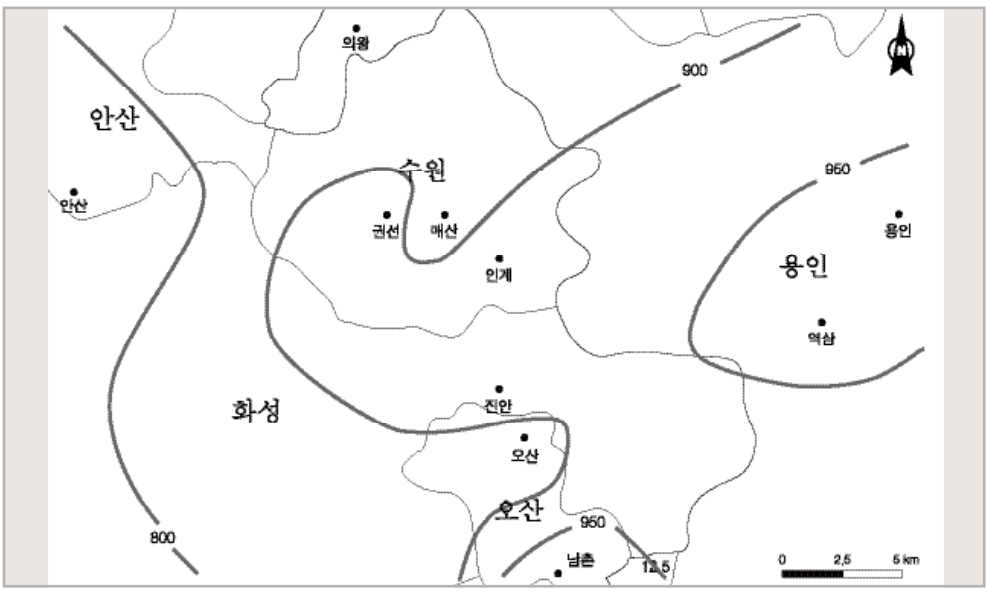
수원의 연평균 강수량은 1,312.3㎜이다. 이 값은 인접한 대도시 서울(1,450.5㎜)보다 적고, 인천(1,234.4㎜)보다 많다. 이는 중부 지방의 강수량이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림 10〉은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2004~2011년 평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수원 주변에서도 연평균 강수량이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준다. 대체로 서해안에 인접한 관측지점의 연평균 강수량은 1,320㎜ 이하이다. 도시화가 진행된 권선, 인계, 진안, 오산 지점에서는 연평균 강수



〈그림 10〉 수원과 그 주변의 연평균 강수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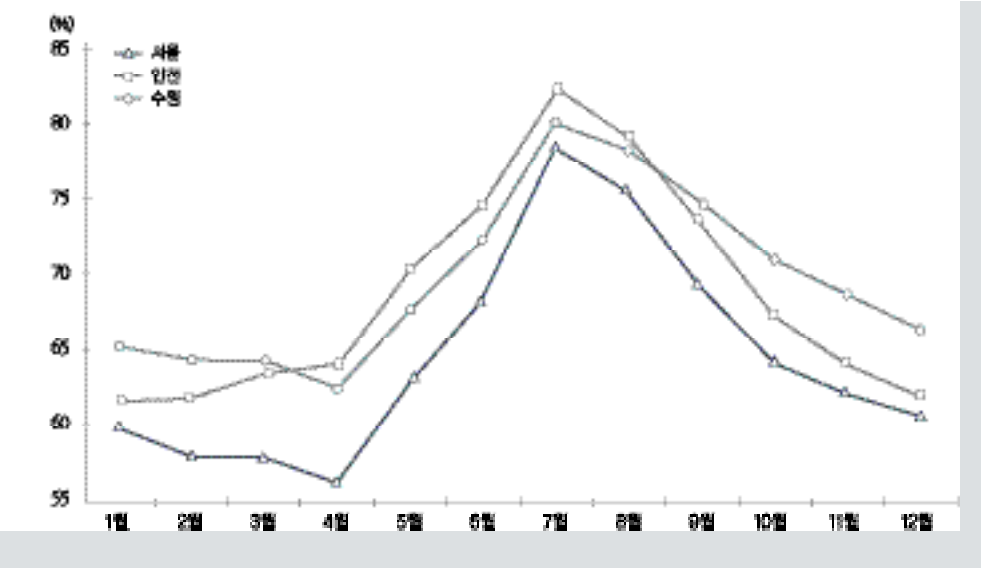
〈그림 11〉 수원의 월별 평균 강수량



〈그림 12〉 수원과 그 주변의 여름철 강수량 분포

량이 1,400㎜를 넘는다. 수원 동쪽의 역삼과 용인은 1,500㎜를 초과한다.

수원의 강수량도 한국의 다른 지역과 같이 여름철 집중도가 높다〈그림 11〉. 여름철(6, 7, 8월) 평균 강수량은 780.2㎜로 연평균 강수량의 59.4%이며, 여기에 늦장마기가 포함된



〈그림 13〉 수원과 그 주변의 월별 상대습도

9월 강수량을 포함하면, 934.1㎜로 연평균 강수량의 71.2%에 이른다. 특히 7월과 8월에 강수량 집중도가 더욱 높아서 650.9㎜(49.6%)에 이른다. 〈그림 12〉는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여름철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름철 강수량의 분포도 연평균 강수량과 같이 서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다. 수원 동쪽에 자리를 하는 용인과 역삼은 여름철 강수량이 950㎜를 초과하며, 도시화가 진행된 권선, 인계, 진안도 900㎜를 초과한다. 용인과 역삼은 문형산, 백마산, 태화산으로 이어지는 광주산맥 줄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형성 강수가 발달하기 쉬운 곳이다.

수원의 계절별 강수량 분포를 보면, 여름철 다음으로 가을철 강수량(256.7㎜, 연평균 강수량의 19.6%)이 많다. 이는 늦장마기가 포함된 9월 강수량이 가을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봄철 강수량은 207.0㎜로 연평균 강수량의 15.8%이고, 겨울철 강수량은 68.5㎜로 5.2%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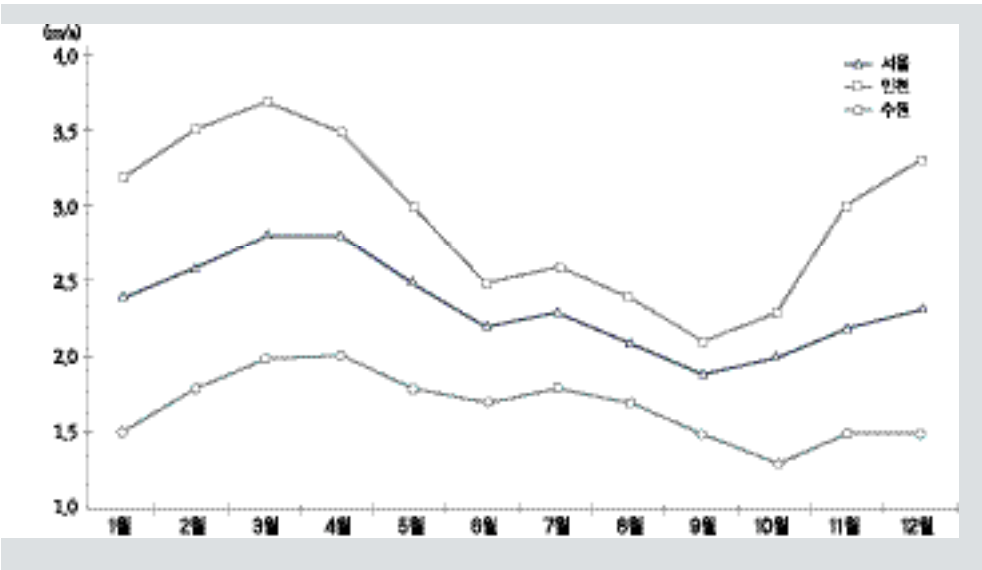
수원의 0.1㎜ 이상 강수일수는 108.3일이다. 이는 인접한 서울(108.9일)과 비슷한 값이며, 인천(101.7일)보다 6.6일 많은 값이다. 수원의 30㎜ 이상 강수일수는 11.7일로 인천(11.6일)과 비슷하고 서울(13.8일)보다는 2.1일 적다. 80㎜ 이상 강수일수도 수원(2.7일)과 인천(2.6일)은 비슷한 값이고, 서울(3.2일)보다는 적다.

수원의 연평균 상대습도는 69.6%이다. 이는 서해안의 인천(68.6%)이나 서울(64.4%)보다 높은 값이다. 수원과 인천의 월평균 상대습도를 비교하여 보면〈그림 13〉, 4월부터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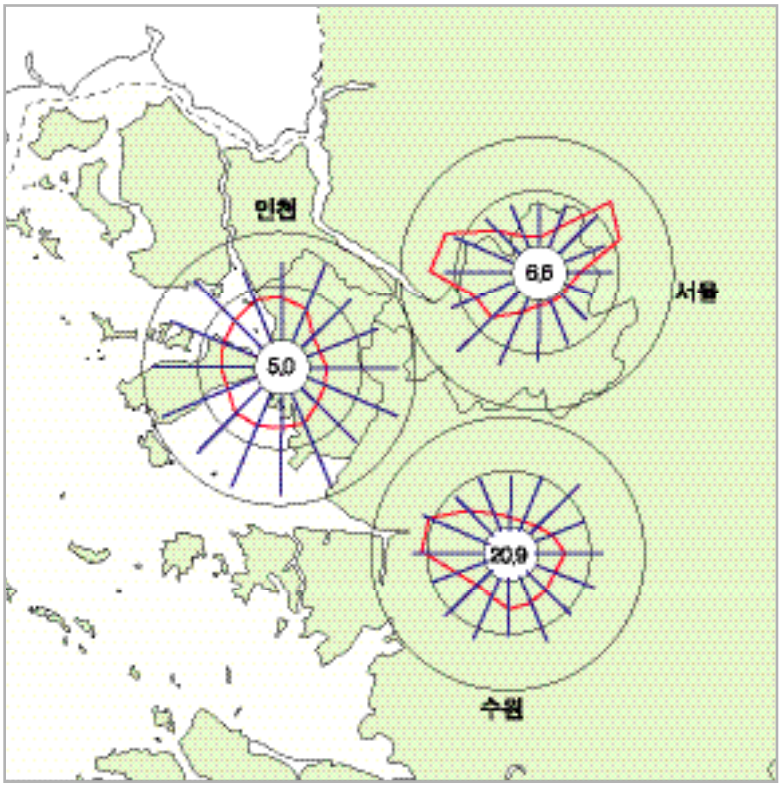
사이는 인천의 상대습도가 높고 그 외의 달에는 수원의 상대습도가 높다. 서울보다는 항상 수원의 상대습도가 높은 값이다. 수원에서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달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4월이며, 이때 평균 상대습도는 62.5%이다. 반면, 인천의 상대습도는 봄철보다 겨울철에 낮아서 1월 평균이 61.5%로 가장 낮다. 인천에서는 2월의 상대습도도 61.8%로 낮은 편이다. 서울도 수원과 같이 4월의 평균 상대습도가 가장 낮다. 서울과 비교하여 보면 연중 수원의 상대습도가 높다. 특히 건조한 시기인 가을과 겨울, 봄철에 그 차이가 더욱 크다.

4) 바람

수원의 연평균 풍속은 1.7m/sec로 인접한 인천(2.9m/sec)이나 서울(2.3m/sec)보다 낮다 〈그림 14〉. 이를 뒷받침하듯 수원의 연평균 정온 비율은 20.9%로 인천(5.0%)이나 서울(6.6%)보다 상당히 높은 값이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연중 서울과 인천의 풍속이 수원보다 강하다. 비교적 건조한 시기인 11월부터 4월 사이에 각 지점 간의 풍속 차이가 더욱 크다. 계절별로는 봄철 바람이 강한 편이어서, 3월과 4월의 평균 풍속은 각각 2.0m/sec이다. 서울과 인천도 봄철인 3월, 4월의 풍속이 강한 편이다. 반면 가을인 10월의 수원 평균풍속은 1.2m/sec에 불과하다. 수원에서 폭풍일에 해당하는 최대풍속 13.9m/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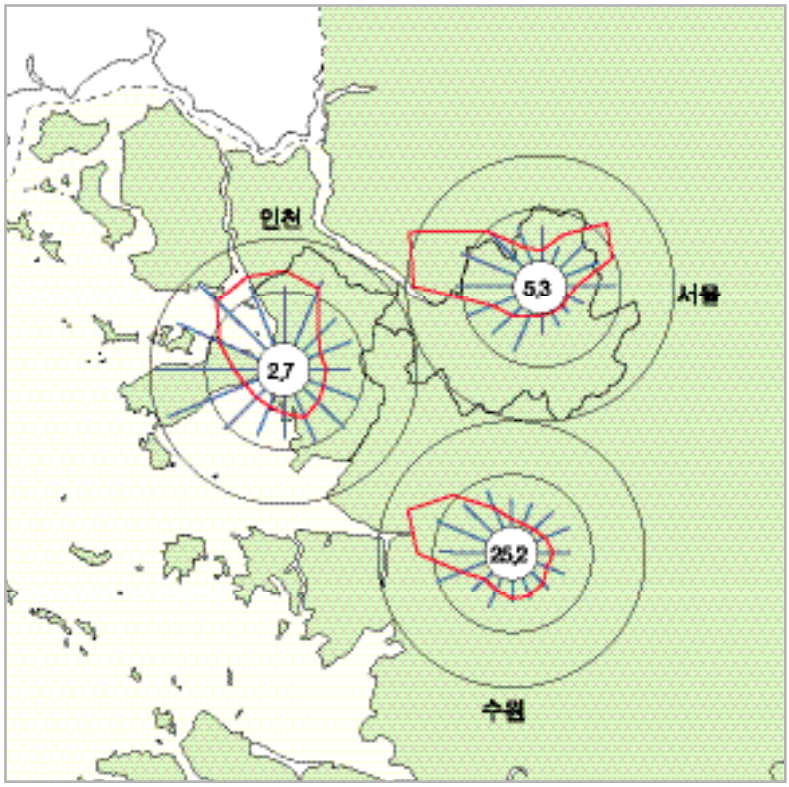
〈그림 14〉 수원과 그 주변의 월별 평균 풍속



〈그림 15〉 수원과 그 주변의 풍향별 연간 출현비율

이상인 날의 수는 0.1일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서울의 폭풍일수도 0.3일이며, 해안의 인천은 4.3일로 인접 지역 중 가장 높은 빈도이다.

〈그림 15〉는 수원과 인천, 서울의 풍향별 연간 백분율을 나타낸 바람장미이다. 서북서풍과 서풍의 출현비율이 각각 11.6%와 11.5%로 두드러진다. 그 밖에 북서풍(6.2%)과 여름철 출현빈도가 높은 남남동풍(5.3%), 남풍(5.7%), 동풍(5.2%)도 출현비율이 5.0%를 넘는다. 반면, 북북동풍과 북동풍, 북풍은 출현비율이 낮다. 인접한 서울의 경우도 서풍(15.3%)과 서북서풍(13.8%)의 출현비율도 높지만, 북동풍(14.0%)과 동북동풍(11.4%)의 출현비율도 높은 편이다. 서울의 경우는 수원과 달리 남남동풍이나 남풍의 출현비율은 낮고 서풍(15.3%)과 서북서풍(13.8%)의 출현비율이 높다. 서풍의 출현비율은 9월(9.6%)을 제외하고 연중 10%를 초과한다. 북동풍과 동북동풍의 출현비율도 높아서 출현비율이 각각 14.0%와 11.4%이다. 북동풍의 경우 3월과 4월을 제외하고 매달 출현비율이 10%를 넘으며, 9월에는 그 비율이 22.0%이다. 인천의 경우는 수원과 서울처럼 특정 풍향에 높은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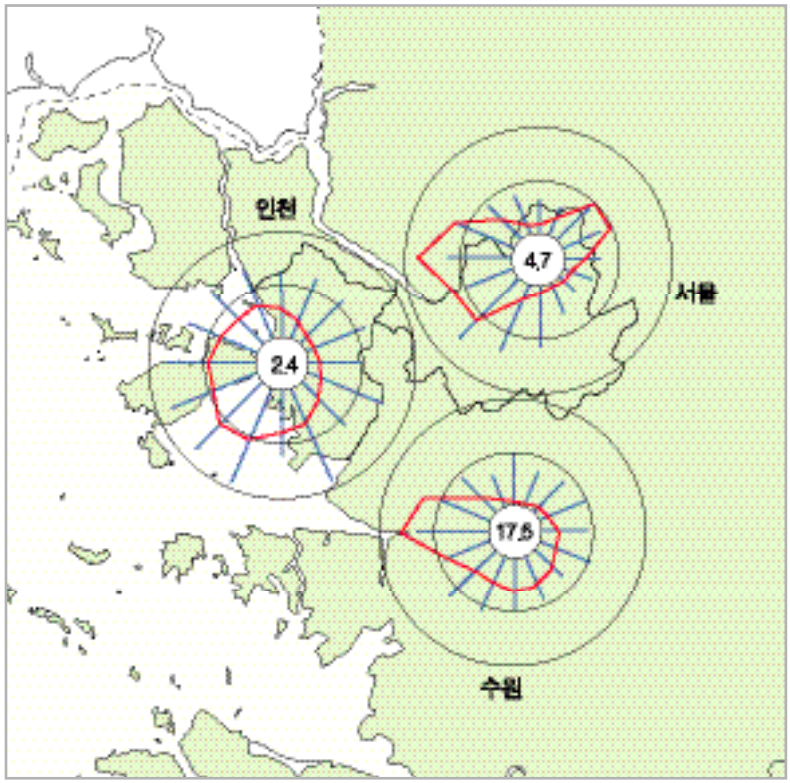


〈그림 16〉 수원과 그 주변 1월의 풍향별 출현비율

현빈도가 나타나지 않아 출현비율이 10%를 넘는 풍향이 없다. 연간 최빈풍향은 북북서풍이지만, 그 출현비율이 8.8%에 불과하다.

〈그림 16〉은 수원과 인천, 서울의 겨울철인 1월의 풍향별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원의 경우 연평균에 비하여 서풍(12.5%), 서북서풍(16.1%), 북서풍(10.7%)의 출현비율의 집중도가 더욱 높다. 반면, 동풍과 남남동풍, 남풍의 출현비율은 5%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다. 북북동풍의 비율은 단지 0.9%이다. 인천도 바람장미의 패턴이 수원과 비슷하지만, 수원에 비하여 북풍 계열 바람의 빈도가 높다. 즉, 북서풍(13.6%), 북북서풍(14.1%)의 출현비율도 높지만, 북풍(13.6%), 북북동풍(11.5%)의 출현비율이 수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의 경우는 서풍(19.1%)과 서북서풍(21.8%)의 집중도가 수원보다 훨씬 높다. 또한 수원과 인천에서 출현빈도가 낮은 북동풍(12.2%)과 동북동풍(9.5%)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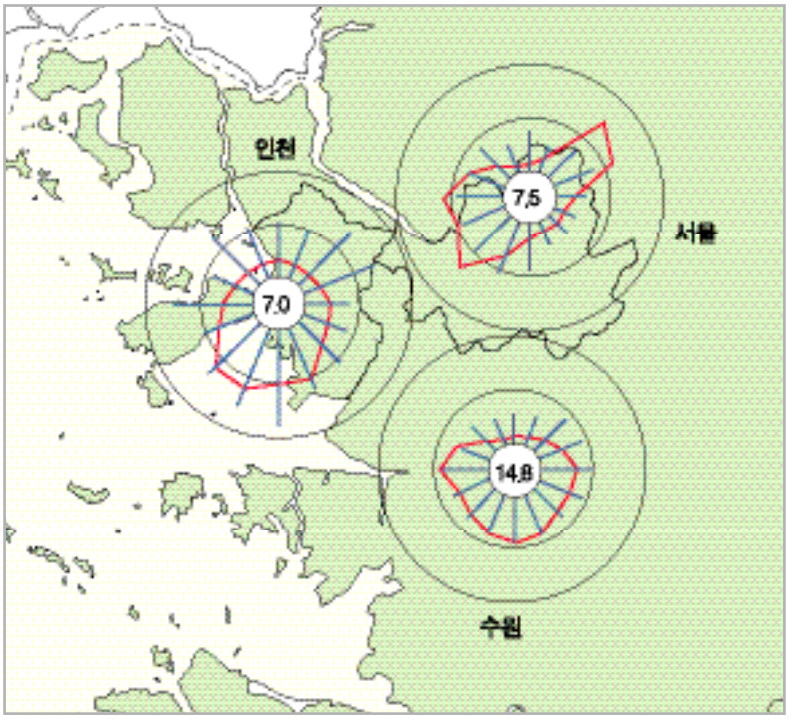
〈그림 17〉은 수원과 인천, 서울의 봄철인 4월의 풍향별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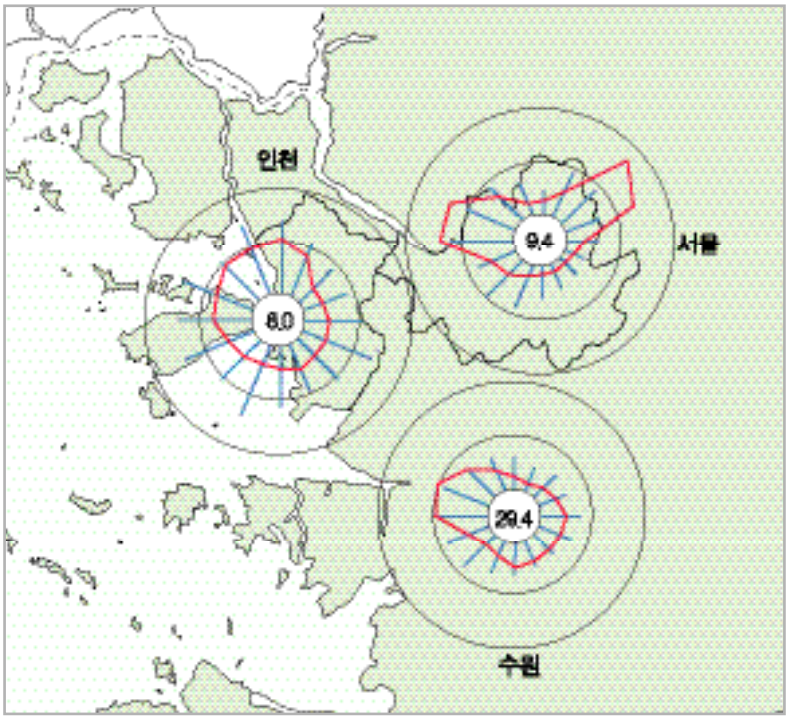
〈그림 17〉 수원과 그 주변 4월의 풍향별 출현비율

원의 경우 겨울철에 비하여 북서풍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서풍의 비율은 1월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면 서풍(15.8%), 서북서풍(12.8%)의 출현비율의 집중도가 높다. 남풍과 남동풍계의 출현빈도는 증가하여, 남남동풍과 남풍의 출현비율은 각각 5.9%이다. 서남서풍의 출현 비율도 7.8%로 높은 편이다. 인천의 경우는 바람장미의 패턴이 겨울철과 크게 바뀌었으며, 수원과도 차이가 있다. 즉, 겨울철에 출현빈도가 높았던 북풍과 북서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크게 줄고, 남서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북서풍계의 출현비율은 각각 10% 이하로 감소하고, 남서풍(10.8%)과 남남서풍(10.5%), 서남서풍(8.3%)의 출현빈도가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는 서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여전히 높고, 북서풍 계열에 비하여 남서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즉, 북북서풍과 북서풍의 출현빈도는 각각 1.4%와 5.0%이지만, 서남서풍은 12.2%, 남서풍은 11.7%로 증가하였다.

〈그림 18〉은 수원과 인천, 서울의 여름철인 7월의 풍향별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 수원과 그 주변 7월의 풍향별 출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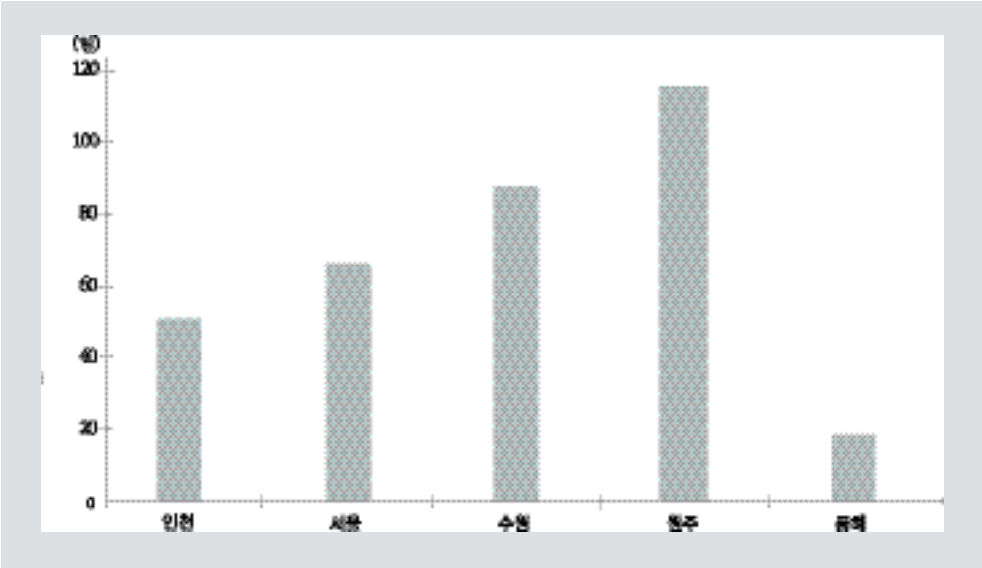
〈그림 19〉 수원과 그 주변 10월의 풍향별 출현비율

수원의 경우 다른 계절에 비하여 남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높다. 남풍의 출현빈도가 9.1%로 1년 중 가장 높은 빈도이며, 그 외 남남서풍과 남남동풍의 출현빈도가 각각 8.1%와 7.8%로 1년 중 가장 높은 빈도이다. 여름철이지만 서북서풍의 출현비율도 9.0%로 높은 편이다. 동풍의 출현비율도 6.6%로 8월(9.4%)과 9월(9.3%)에 이어 높은 편이다. 인천의 경우는 수원에 비하여 남풍과 남서풍 계열 바람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다. 남남동풍과 남풍, 남남서풍, 남서풍의 출현비율이 각각 10% 내외이다. 서울의 경우는 남서풍계의 출현빈도가 높지만, 북동풍계의 출현빈도도 여전히 높은 편으로 북동풍(14.2%)의 출현비율이 가장 높다. 남서풍과 서남서풍, 서풍의 출현비율은 각각 13.2%, 9.1%, 10.7%이다. 서북서풍과 남남서풍의 출현비율도 5%를 초과한다.

〈그림 19〉는 수원과 인천, 서울의 가을철인 10월의 풍향별 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원의 바람장미가 겨울철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7월에 비하여 북서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남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감소하였다. 겨울철에 비하여 집중도는 낮지만 북서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높은 편이다. 서북서풍과 북서풍, 북북서풍의 출현비율이 각각 9.6%, 10.2%, 7.3%이다. 반면 남서풍 계열의 출현빈도는 크게 감소하여 연평균에도 못 미친다. 남남서풍과 남서풍, 서남서풍의 출현비율이 각각 4.6%, 3.0%, 2.5%에 불과하다. 이때가 연중 월평균 풍속이 가장 낮은 시기로 정온 비율이 29.4%에 이른다. 인천의 경우도 바람장미가 겨울철과 비슷한 모양이다. 즉, 북서풍에서 북동풍 계열 출현빈도가 크게 늘었다. 북풍과 북북서풍, 북북동풍의 출현비율이 각각 12.1%, 11.8%, 10.6%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도 바람장미의 모양이 겨울철과 비슷하지만, 북서풍 계열에 비하여 북동풍 계열의 출현빈도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풍과 서북서풍의 출현비율은 각각 13.9%와 13.7%이지만, 북동풍과 동북동풍의 출현비율은 각각 16.6%와 12.7%에 이른다.

5) 현상일수

수원에서 서리가 발생한 날은 연평균 87.4일이다. 이 값은 인천의 50.5일과 서울의 65.9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그림 20〉. 수원의 서리 발생일은 11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지만, 평균 첫 서리일은 10월 23일이며, 평균 마지막 서리일은 4월 10일이다. 수원에서 서리가 가장 일찍 내린 날은 1987년 9월 27일이었으며, 가장 늦게 내린 날은 2009년 11월 18일이었다. 마지막 서리가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2003년 3월 20일이었으며, 가장 늦게 나타난 것은 1978년 5월 11일이었다. 수원에서 서리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기록은 66일로, 1981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8일까지 서리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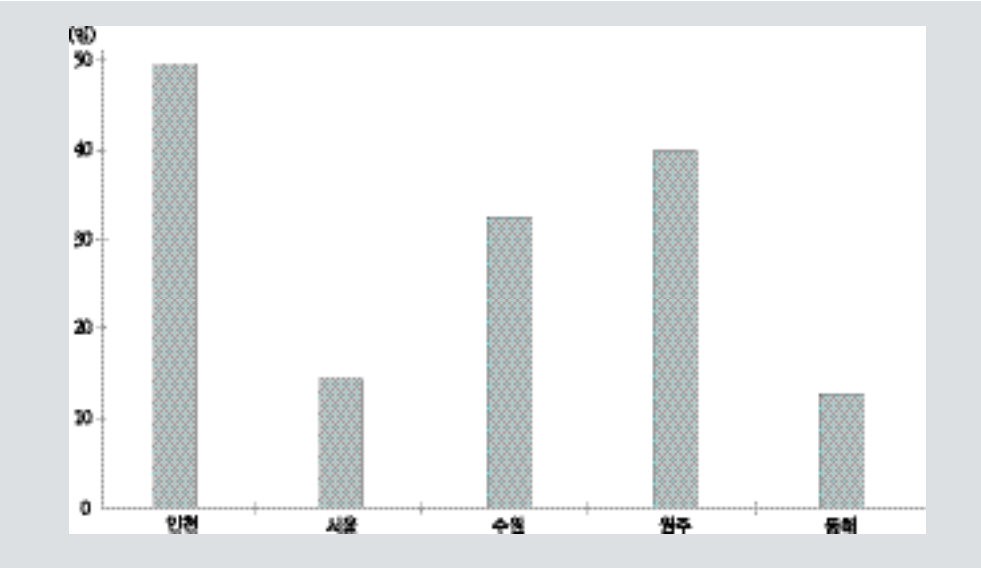


〈그림 20〉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서리일수

인천과 서울도 11월부터 3월 사이에 서리현상이 집중되었지만, 3월과 11월의 서리일수가 수원에 비하여 매우 적다. 인천의 경우 11월의 서리일수는 4.9일, 3월에는 7일로 수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의 평균 첫 서리일은 11월 7일로 수원에 비하여 15일 늦고, 평균 마지막 서리일은 3월 25일로 수원에 비하여 16일 이르다. 즉, 수원의 무상일수가 인천에 비하여 한 달가량 짧다. 이는 수원에서 인천에 비하여 농사 가능일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평균 첫 서리일은 10월 26일로 수원보다 3일 늦고, 평균 마지막 서리일은 3월 29일로 수원보다 13일 이르다. 이는 농사의 종료 시기는 수원과 서울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작 시기는 비교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천과 서울에서 서리가 연속으로 발생한 기록은 각각 23일과 24일로 두 지점이 같은 시기인 1963년 1월 31일부터 2월 22일과 23일까지 이어졌다.

수원의 안개일수는 32.7일이다. 이는 인천의 49.4일에 비하여 적은 값이고, 서울의 14.4일에 비하여 많은 값이다〈그림 21〉. 시기별로 보면, 수원에서는 연중 고르게 안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을철인 9~11월에 35.2%인 11.5일이 발생하여 가을 안개가 많은 편이다. 다음은 봄철에 안개 빈도가 높아서, 안개 발생일이 25.1%인 8.2일이다.

인천은 수원 인근의 도시 중 안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인천의 안개는 수원과 달리 여름철(18.9일, 38.2%)과 봄철(15.5일, 31.3%)에 집중되어 있다〈표 1〉. 이는 해안에서 발생하는 이류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안개 중 복사



〈그림 21〉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안개일수

무는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빈도가 높고, 이류무는 봄과 여름철에 빈도가 높다. 서울의 안개도 시기별로 보면 인천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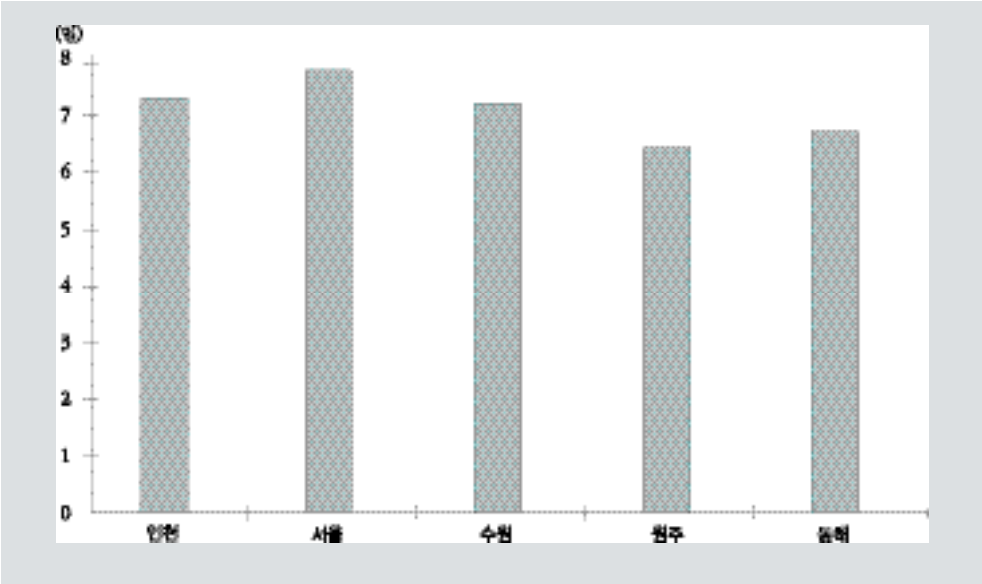
〈표 1〉 수원과 인접 도시의 계절별 안개일수(1981~2010년)

(단위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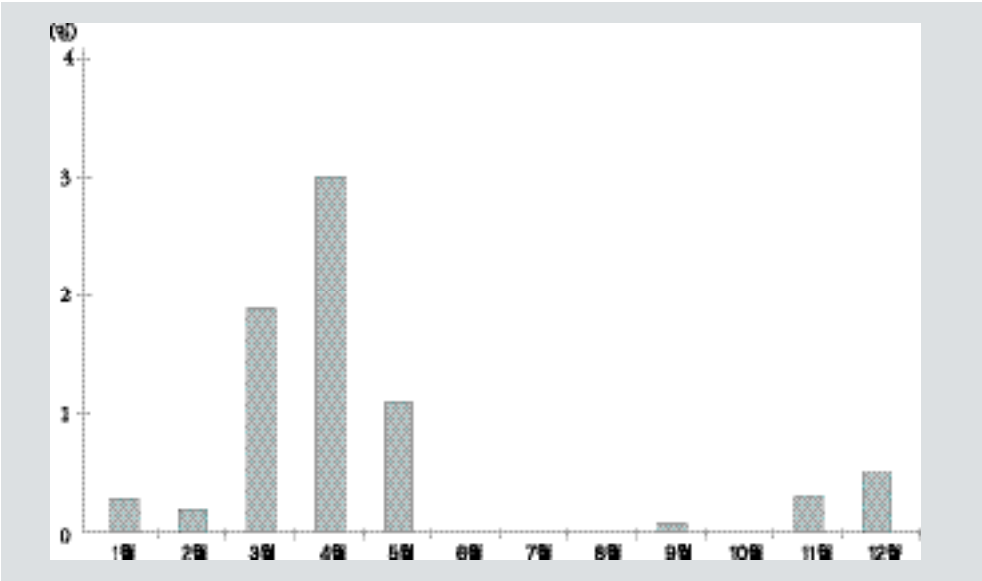
지역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수원	8.2	6.6	11.5	6.4	32.7
서울	4.1	4.6	2.5	3.2	14.4
인천	15.5	18.9	7.3	7.7	49.4

수원의 황사 발생일은 연평균 7.3일이다. 비슷한 위도대 상에서 비교하여 보면 동쪽의 원주(6.5일)나 동해(6.8일)보다 많은 편이고 서쪽에 위치하는 인천(7.4일)과 서울(7.9일)보다 조금 적은 편이다〈그림 22〉. 수원에서 황사는 여름철을 제외한 전 계절에 발생하고 있으나 봄철인 3월, 4월, 5월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23〉. 4월의 황사 발생일이 3일로 황사 빈도가 가장 높고 3월도 1.9일로 황사가 많은 편이다. 인천과 서울의 월별 황사 분포도 수원과 비슷하다.

수원의 연평균 강설일수는 14일로 인근 도시와 비슷한 값이며, 동해(7.9일)에 비하여서는 높은 빈도이다〈그림 24〉. 비슷한 위도대에서는 원주의 강설일수가 17일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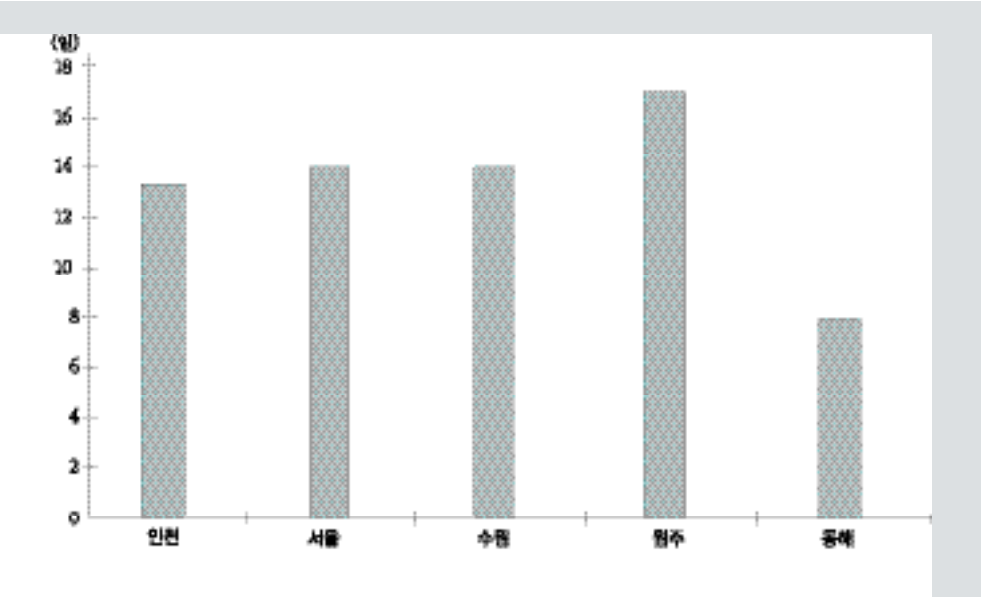


〈그림 22〉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황사일수



〈그림 23〉 수원의 월별 평균 황사일

월별로 보면, 수원의 강설일 중 대부분은 12월, 1월, 2월에 각 3.8일, 5.1일, 3.1일로 집중되어 있다. 3월과 11월에는 각각 1.2일과 0.8일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과 서울의 경우도 비슷하다. 원주도 수원과 비슷한 분포이지만 4월(0.1일)에도 강설일이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그림 24〉 수원과 비슷한 위도대 관측지점의 강설일수

동해안의 동해는 2월과 3월에 강설일의 비율이 다른 지점보다 높다.

2. 수원의 기후 변화

1) 기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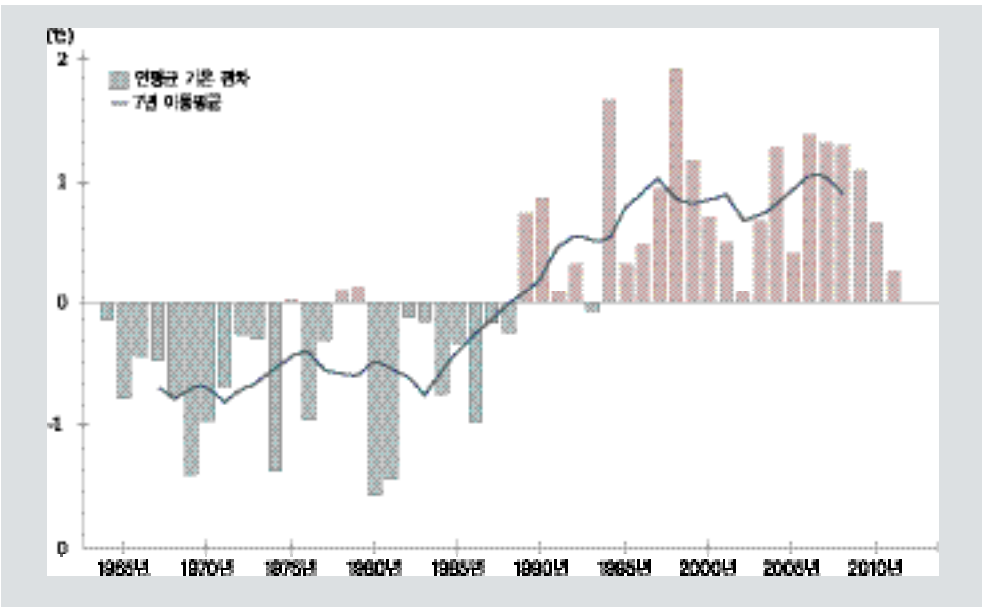
최근 30년 동안(1981~2010년) 수원의 연평균 기온은 12.0℃로, 인천(12.1℃)보다 0.1℃ 낮고 서울(12.5℃)보다 0.5℃ 낮다. 1961~1990년 평균값에 비하면 수원과 인접 도시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줄었다. 1961~1990년 평균은 수원, 서울, 인천이 각각 11.1℃, 11.8℃, 11.4℃ 였다〈표 2〉. 즉, 당시의 수원과 인천의 연평균 기온 차이는 0.3℃ 였고, 서울과는 0.7℃ 차이가 있었다. 바꿔 말하면, 수원의 최근 기온이 인접 도시보다 빠르게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저기온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수원의 경우 최근 30년 평균값(7.5℃)은 1961~1990년 평균(6.2℃)에 비하여 1.3℃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의 차이가 각각 0.8℃와 0.7℃에 불과하다. 수원에서 최저기온이 서울이나 인천보다 더욱 급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수원과 인접 도시의 기온의 평균값

(단위 : ℃)

지역	1961~1990년	1971~2000년	1981~2010년
수원	11.1	11.6	12.0
서울	11.8	12.2	12.5
인천	11.4	11.7	12.1

〈그림 25〉는 수원의 연평균 기온의 편차와 편차값의 7년 이동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1971~2000년의 평균에 대한 편차이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의 연평균 기온은 1988년까지는 음의 편차가 우세하였고, 1989년 이후부터는 양의 편차가 뚜렷하다. 7년 이동평균한 것을 보면 관측 이래로 1980년대 초반까지는 기온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으나, 그 후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동평균값을 보면,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 2℃에 가까운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그 변동 없이 0.2℃ 정도의 범위에서 상승과 하강을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최저기온의 편차도 연평균 기온과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7년 이동평균을 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연평균 최고기온도 전체적인 변화 추세는 연평균과 비슷하게 상승 경향이지만, 시기별 차이가 있다. 즉, 관측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상승한 후 1980년대 초반까지 하강하였고, 그 후 상승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하강한 후에 최근



〈그림 25〉 수원의 기온 변화

상승 경향이다.

수원의 연평균 기온의 변화율은 0.45℃/10년으로, 인천이나 서울 등에 비하여 높은 값이다. 이는 두 도시와 관측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실제로 기온상승 추세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국립기상연구소에 의하면 서울의 연평균 기온 변화율은 0.2℃/10년이고, 인천은 0.19℃/10년이다. IPCC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100년 동안의 전국 평균 기온 상승률은 0.74℃/100년이지만, 최근 50년 동안의 경우 상승률은 1.3℃/50년이다. 그만큼 최근의 기온 상승폭이 크다. 수원과 같은 기간(1964~2011년)의 변화율도 서울은 0.41℃/10년이고, 인천은 0.35℃/10년이다.

수원의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율은 0.60℃/10년으로 연평균 기온보다 상승폭이 더욱 크다. 최저기온의 상승폭이 평균 기온보다 큰 것은 인천도 같은 특징이다. 인천의 연평균 최저기온 변화율은 0.41℃/10년이다. 수원의 연평균 최고기온의 변화율은 0.32℃/10년으로 최저기온이나 평균 기온보다 낮다. 인천의 연평균 최고기온 변화율은 수원보다 낮은 0.22℃/10년이다. 서울의 경우는 연평균 최고기온의 변화율이 가장 큰 0.44℃/10년이며, 연평균 최저기온의 변화율은 0.41℃/10년으로 연평균 기온과 비슷한 값이다.

계절별로는 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모두 겨울철의 변화율이 가장 크다〈표 3〉. 겨울철의 평균 기온 변화율은 0.59℃/10년이며, 최저기온은 0.70℃/10년, 최고기온은 0.44℃/10년이다. 수원의 가을철의 기온 변화율은 겨울철 다음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수원의 가을철 최저기온의 변화율은 겨울철보다 더 높은 0.81℃/10년이다. 국립기상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의 경우 겨울철 다음으로 봄철의 기온 변화율이 높은 값이다.

〈표 3〉 수원 계절별 기온의 변화율(1964~2011년)

(단위 : ℃/10년)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기온	0.378**	0.272**	0.557**	0.589**
최고기온	0.284**	0.211*	0.334**	0.443**
최저기온	0.521**	0.373**	0.812**	0.696**

비고 : * 0.05 수준에서 유의, ** 0.01 수준에서 유의.

〈표 4〉 수원과 인접 도시의 극한기온지수의 변화율(1964~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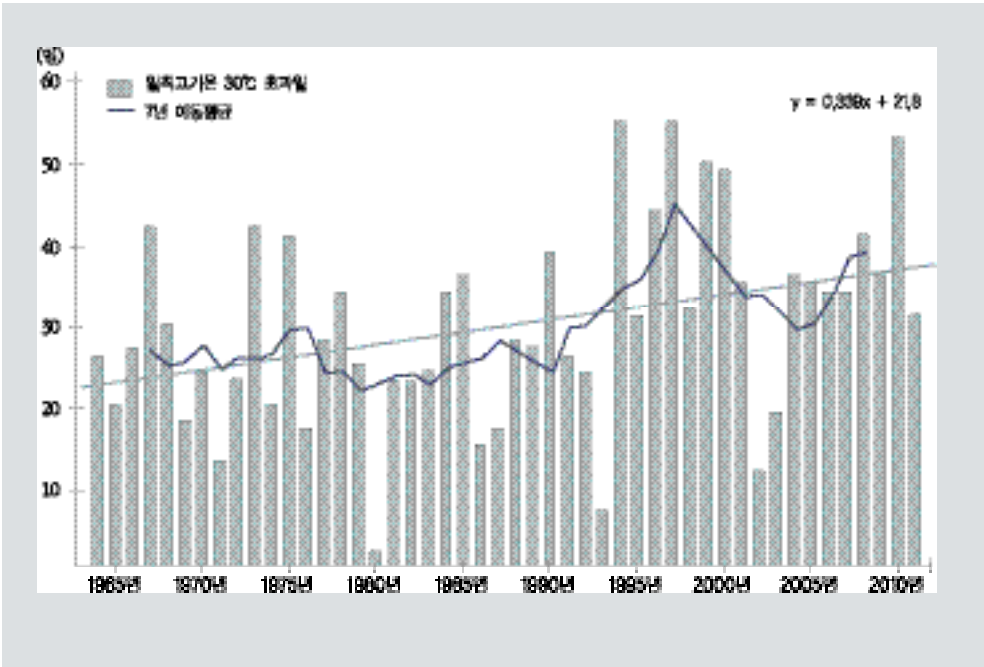
(단위 : 일/10년)

지역	참여름일수	열대야일수	영하일수	참겨울일수
수원	3.386**	0.773	−6.195**	−2.880**
서울	1.831	0.986	−4.983**	−2.218*
인천	2.441	0.354	−5.164**	−3.576**

비고 : * 0.05 수준에서 유의, ** 0.01 수준에서 유의

수원의 기온과 관련된 극한값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름일수와 열대야일수, 영하일수, 참겨울일수를 분석하였다〈표 4〉. 수원에서도 대체로 다른 지역과 같이 여름철 관련 일수는 증가하고 겨울철 관련 일수는 감소하였다. 수원의 참여름일수는 1964~1990년 평균 27.4일에서 1981~2010년 평균 33.9일로 6.5일 증가하였다. 인천은 같은 기간에 각각 15.3일에서 21.8일로 6.5일 증가하였고, 서울은 각각 30.4일에서 34.2일로 3.8일 증가하였다. 수원에서 1964~2011년의 참여름일수(일최고기온 30℃ 초과일수)의 변화율은 3.39일/10년이다.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인접 도시인 인천(2.44일/10년)과 서울(1.83일/10년)에 비하여 높은 값이다. 즉, 수원이 주변 도시보다 빠르게 참여름일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의 참여름일수는 1980년대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이고, 그 후 199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수원의 열대야일수는 1964~1980년 평균 1.8일에서 1981~2010년 평균 4.4일로 2.6일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인천은 2.9일에서 4.3일로 1.4일 증가하였고, 서울은 4.4일에서 7.3일로 2.9일 증가하였다. 열대야일수도 인천보다 수원에서 증가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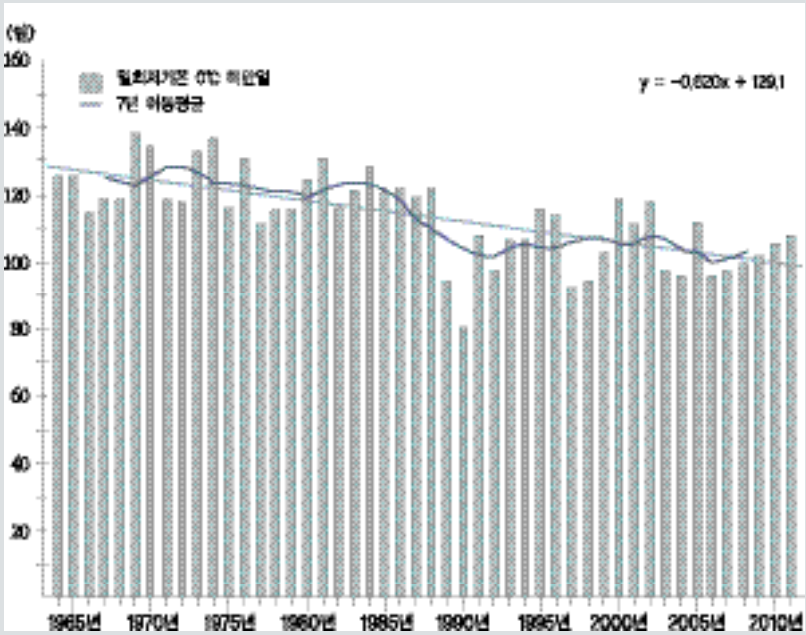


〈그림 26〉 수원의 참여름일수 변화

다. 1964~2011년의 열대야일수 변화율은 수원이 0.77일/10년이며, 서울은 1.00일/10년, 인천은 0.35일/10년이다.

수원의 영하일수는 1964~1989년 평균이 120.9일에서 1981~2010년 평균 108.6일로 12.3일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에 인천은 96.2일에서 87.1일로 9.1일 감소하였고, 서울은 99.6일에서 89.7일로 9.9일 감소하였다. 인접 도시 중 수원에서 영하일수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를 뒷받침하듯 1964~2011년 수원의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변화율은 −6.20일/10년으로 인천(−5.16일/10년)이나 서울(−4.98일/10년)에 비하여 큰 값이다. 〈그림 27〉은 수원의 영하일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참겨울일수(일최고기온 0℃ 미만 일수)도 비슷한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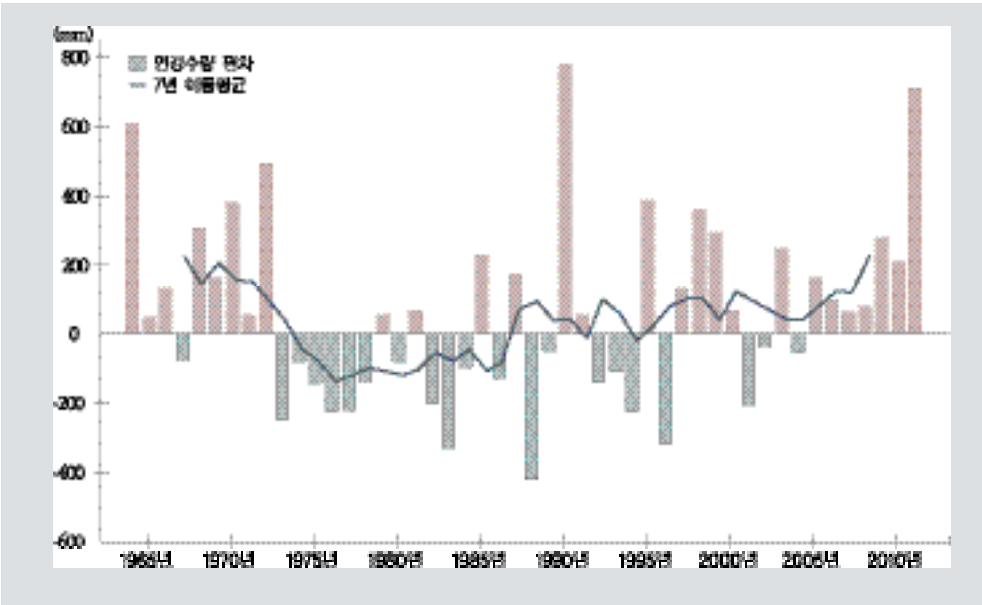
수원의 참겨울일수는 1964~1980년 평균 24.6일에서 1981~2010년 평균 17.5일로 7.1일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에 인천에서는 27.1일에서 19.2일로 7.9일 감소하였고, 서울은 27.3일에서 21.2일로 6.1일 감소하였다. 수원의 참겨울일수는 서울보다 많이 감소하였고, 인천보다 덜 감소한 것이다. 1964~2011년 참겨울일수 변화율은 수원 −2.88일/10년, 인천 −3.58일/10년, 서울 −2.22일/10년이다.



〈그림 27〉 수원의 영하일수 변화

2) 강수량 변화

최근 30년 동안(1981~2010년) 수원의 연평균 강수량은 1,312.3㎜로 1964~1980년 기간의 평균 1,307.0㎜에 비하여 5.3㎜ 증가하였다. 즉, 전 시기에 비하여 강수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접 도시인 인천과 서울의 최근 30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은 각각 1,234.4㎜, 1,450.5㎜로 과거에 비하여 인천은 64.3㎜가 증가하였고, 서울은 80.7㎜ 증가하였다.



〈그림 28〉 수원의 강수량 편차 변화

시기별로 보면 강수량의 증감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28〉. 대체로 관측개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해에 따른 강수량의 편차도 커서 가장 강수량이 많았던 1990년에는 1971~2000년 평균보다 775.5㎜가 더 많은 2,043.6㎜를 기록하였고, 가장 적었던 1988년에는 418.3㎜가 적은 849.8㎜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 2011년과 1964년도 각각 707.8㎜, 601.8㎜씩이 많은 1,975.9㎜, 1,869.9㎜를 기록하였다. 즉 가장 많은 해의 강수량이 가장 적은 해의 강수량의 두 배를 초과한다.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하였고, 그 외 계절의 강수량은 감소하였다. 이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같은 경향이다. 최근 30년 동안 수원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780.2㎜

〈표 5〉 수원과 인접 도시의 계절별 강수량 변화율(1964~2011년)

(단위 : ㎜/10년)

지역	봄	여름	가을	겨울	연평균
수원	−7.209	33.646	−5.474	−5.474	18.178
서울	−3.413	63.886*	−4.232	−1.223	54.743
인천	−1.937	60.705*	−0.585	−0.585	55.531

비고 : * 0.05 수준에서 유의, ** 0.01 수준에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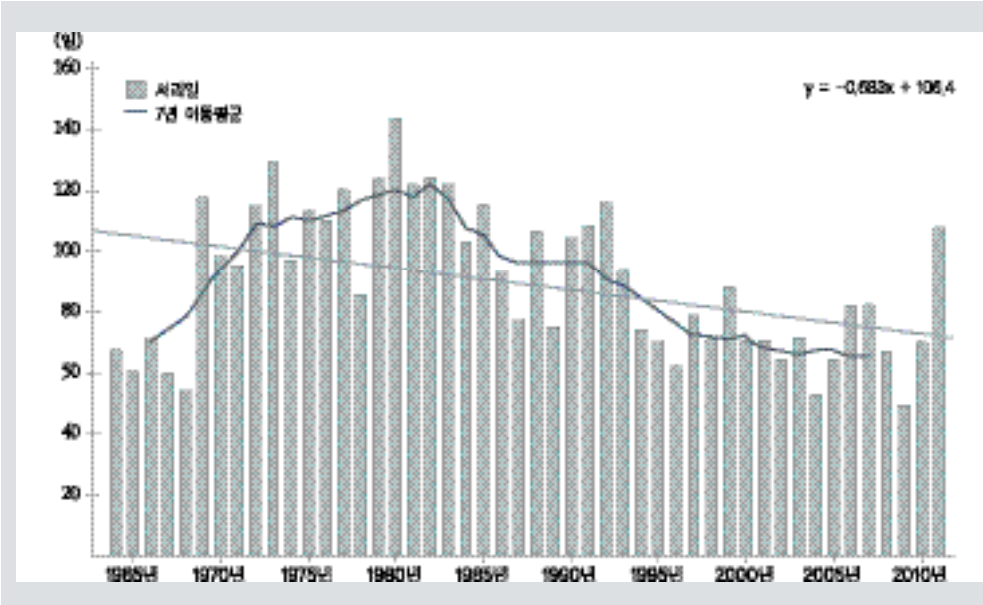
로 1964~1980년 평균 741.4㎜보다 38.8㎜ 증가하였다. 수원의 여름철 강수량 변화율은 33.65㎜/10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변화율 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은 아니다. 인천과 서울의 여름철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에 비하여, 수원에서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변화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겨울과 봄, 가을의 변화율도 모두 음의 값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다. 즉, 관측 이래 현재까지 수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수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표 5〉.

수원에서는 강수일수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수원의 강수일수(0.1㎜ 이상 일수)는 최근 30년 평균 108.3일로 과거(110.7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그 변화율도 −1.12일/10년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다. 인천의 경우도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평균 강수일수가 모두 101.7일로 변화가 없으며, 서울의 경우는 과거 110.1일에서 최근 108.9일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의미 있는 값은 아니다. 인천과 서울의 강수일수 변화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수원에서 일강수량 30㎜ 이상 일수도 과거 30년 평균 12.1일에서 최근 30년 평균 11.7일로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원의 일강수량 30㎜ 이상 일수의 변화율은 0.17일/10년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다. 수원의 일강수량 80㎜ 이상 일수는 과거 2.2일에서 최근 2.7일로 0.5일 증가하였다. 그 변화율은 0.28일/10년이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강수일수는 감소하면서 호우일수는 증가한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수원의 경우 관측기간이 짧아서 이런 결과를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원에서 강수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측 자료를 누적한 후 분석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3) 현상일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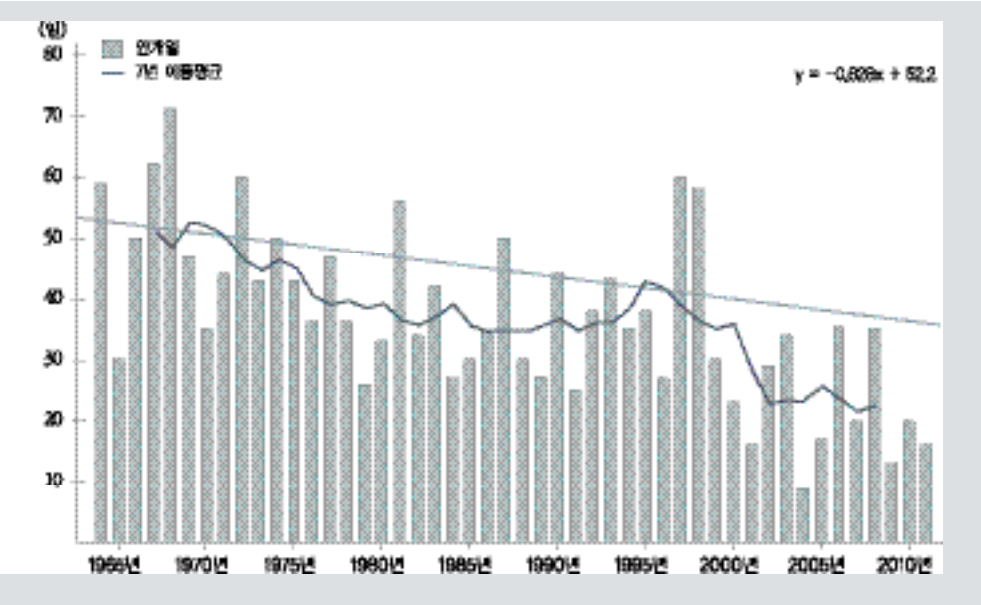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기온의 상승으로 서리일수 등 현상일수도 변화한다. 최근 30년 수원의 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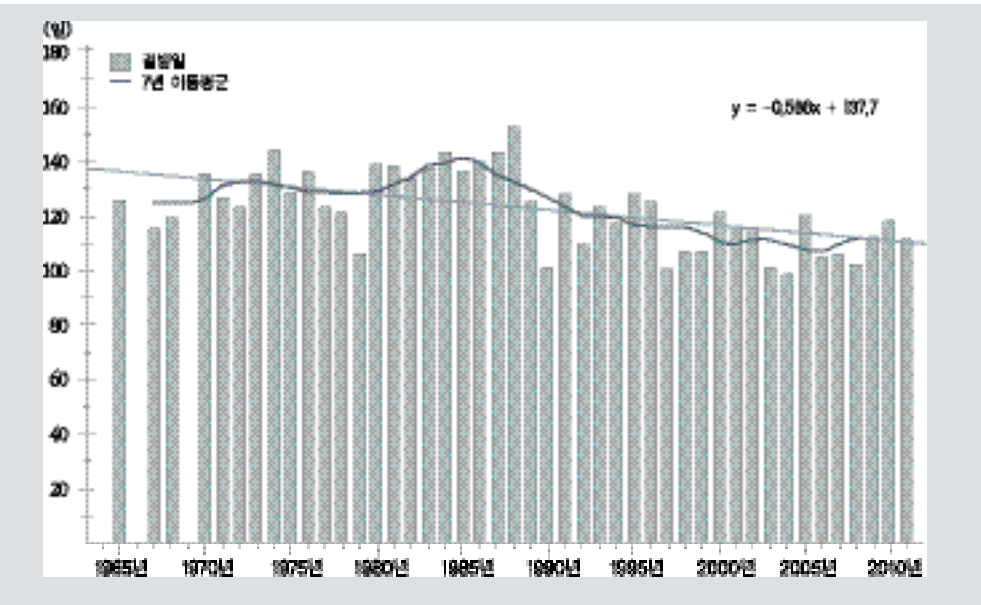
〈그림 29〉 수원의 서리일수 변화

일수는 평균 87.4일로 과거(1964~1980년 평균 101.6일)에 비하여 14.2일 감소하였다. 서리일수의 감소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인천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3.5일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에서는 9.2일 감소하였다.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의 서리일수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 변화율은 −6.83일/10년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이다.

〈그림 30〉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에서 안개일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습도가 낮아져 안개일수가 감소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수원의 안개일수는 과거에 40.1일이었으나 최근 30년 평균은 32.7일로 7.4일 감소하였다. 즉, 안개일수가 18.5%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22.7일에서 14.4일로 안개일수가 감소하였고, 인천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해안의 인천에서는 안개일수 변화가 거의 없고, 내륙의 수원과 서울에서만 안개일수가 변화한 것이다. 이는 안개 종류의 차이 때문이라 판단된다. 인천의 안개는 해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도시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원과 서울에는 복사무가 끼는 곳이어서 도시화 영향으로 안개일수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것도 복사무 발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서울과 수원에서는 앞으로도 안개일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원의 안개일수 변화율은 −6.28일/10년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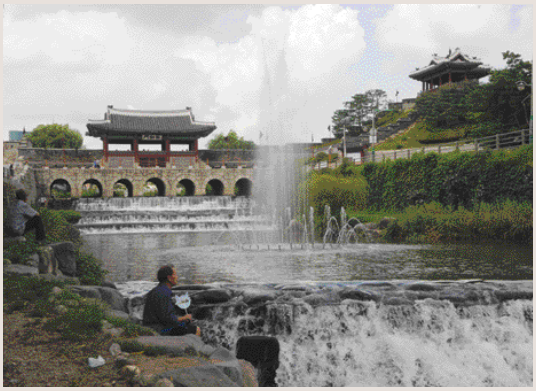
〈그림 30〉 수원의 안개일수 변화



〈그림 31〉 수원의 결빙일수 변화

기온이 상승하면서 결빙일수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원의 경우 과거 결빙일수는 129.1일이었고, 최근 121.1일로 8일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은

수원의 사계



2.8일 감소하였고, 인천은 1.8일 감소하였다. 수원에서 결빙일수의 감소 일수가 인접 도시보다 더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의 결빙일수는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그 후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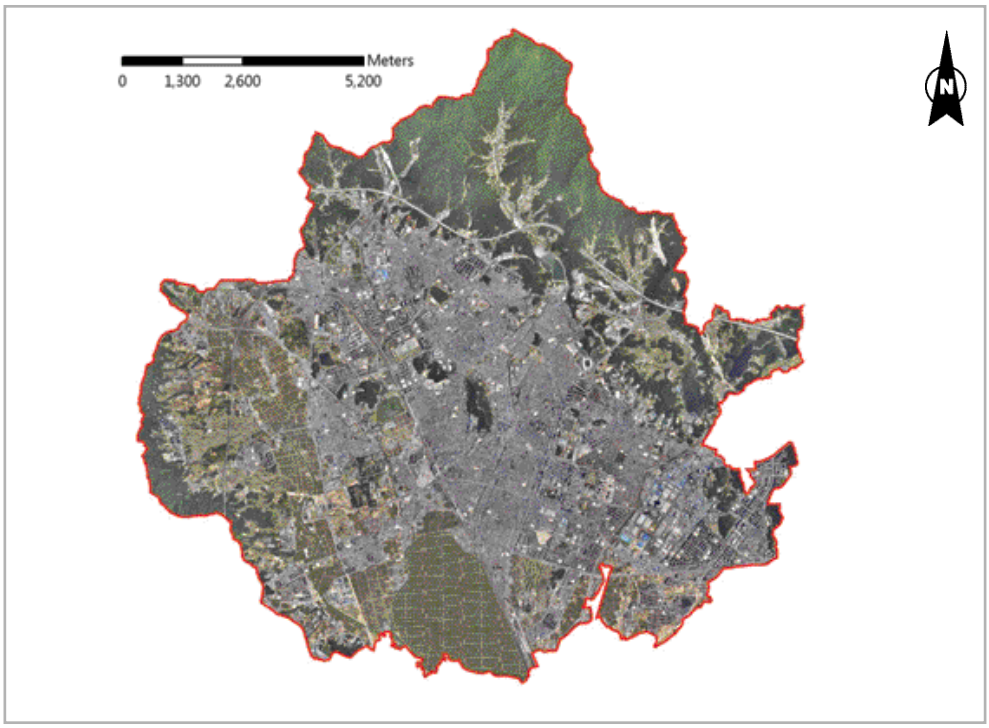
이응경 (주)터알 대표이사

1. 기반생태계
2. 산림생태계
3. 하천생태계
4. 동물 서식지
5. 비오톱 분류 및 생태계 평가

제3장

수원의 생태계

수원시의 북동부는 용인시의 경계를 따라 백운산(白雲山 : 567m), 광교산(光敎山 : 582m), 형제봉(兄弟峰 : 448m) 등의 높은 산지를 이루며, 남부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 밖에 시내 곳곳에 팔달산(八達山 : 143m), 여기산(麗妓山 : 105m), 숙지산(熟知山 : 123m), 칠보산(七寶山 : 239m) 등 낮은 구릉들이 분포한다. 하천은 북부 산지에서 발원한 수원천(水原川)이 시가지 중앙을 흐르고, 원천천(遠川川)은 동부 지역, 황구지천(黃口池川)과 서호천(西湖川)은 서부 지역을 남류하여 화성시에서 진위천(振威川)으로 유입한 뒤 아산만에 흘러든다. 하천의 중 · 상류에는 원천(遠川) · 광교(光敎) · 신대(新垈) 저수지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저수지가 축조되어 관개용수나 상수도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평균 기온 11.1℃ 내외, 1월 평균 기온 −3.9℃ 내외, 8월 평균 기온 25.1℃ 내외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07㎜ 정도이다. 수원시는 북부에 위치한 광교산과 서부에 위치한 칠보산을 중심으로 산림이 있으며, 수원천을 비롯한 4개의 하천이 수계를 형성하여 잠재적 자연 자원 가치는 높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팔달산, 숙지산, 여기산 등 낮은 구릉의 산림은 도시화로 고립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수원의 잠재적 자연 자원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녹지와 하천 네트워크 등 생태계 관리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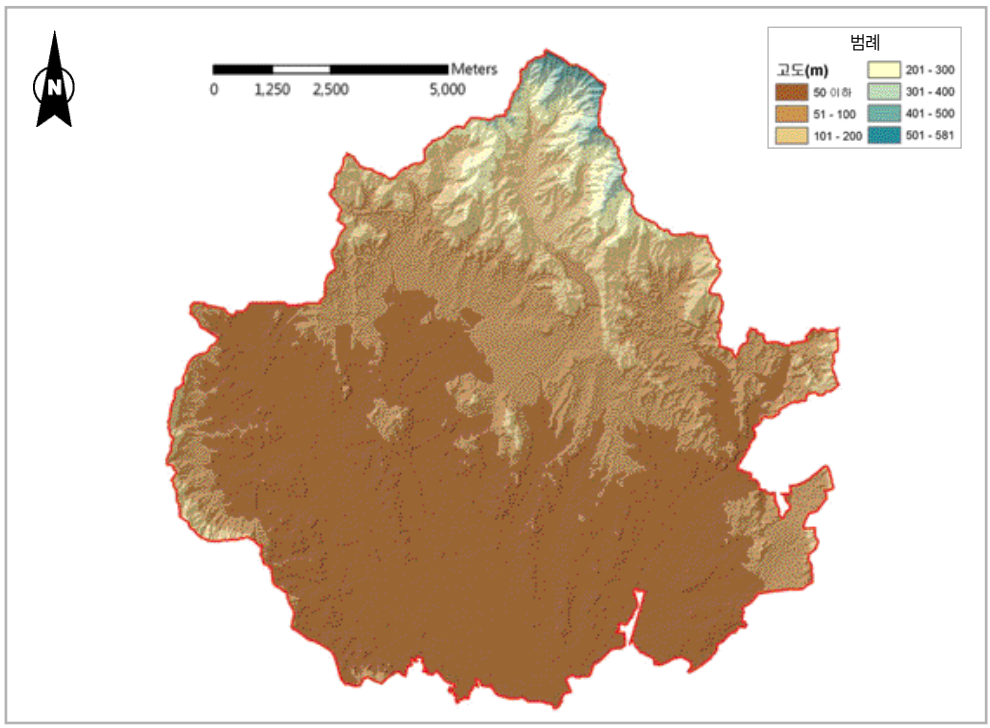


〈그림 1〉 수원시 전 지역 항공영상

1. 기반생태계

1) 고도

수치고도모형을 보면 수원시 북부의 광교산이 200m 이상의 높은 산림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교산 정상인 시루봉의 높이는 약 580m로 나타났다. 좌측의 칠보산도 70~200m 사이의 고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원시 중심부에도 팔달산 · 숙지산 및 여기산의 입지로 약 100m 내외의 고도를 분포하는 지대가 나타났다. 수원시 행정구역 내에 해당하는 고도는 최소 15m에서 563.8m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고도는 70.6m로 나타났다. 남한 지역의 평균 고도가 258m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산림지역의 비율은 낮으며, 대체로 해발고도가 낮고 평지의 비율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시의 중남부 지역은 대체로 70m 미만의 평야지로 시가지 및 농경지가 발달하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원시의 표고 비율을 살펴보면 50m 이하의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54.3%로



〈그림 2〉 수치고도모형(1m)

〈표 1〉 수원시 고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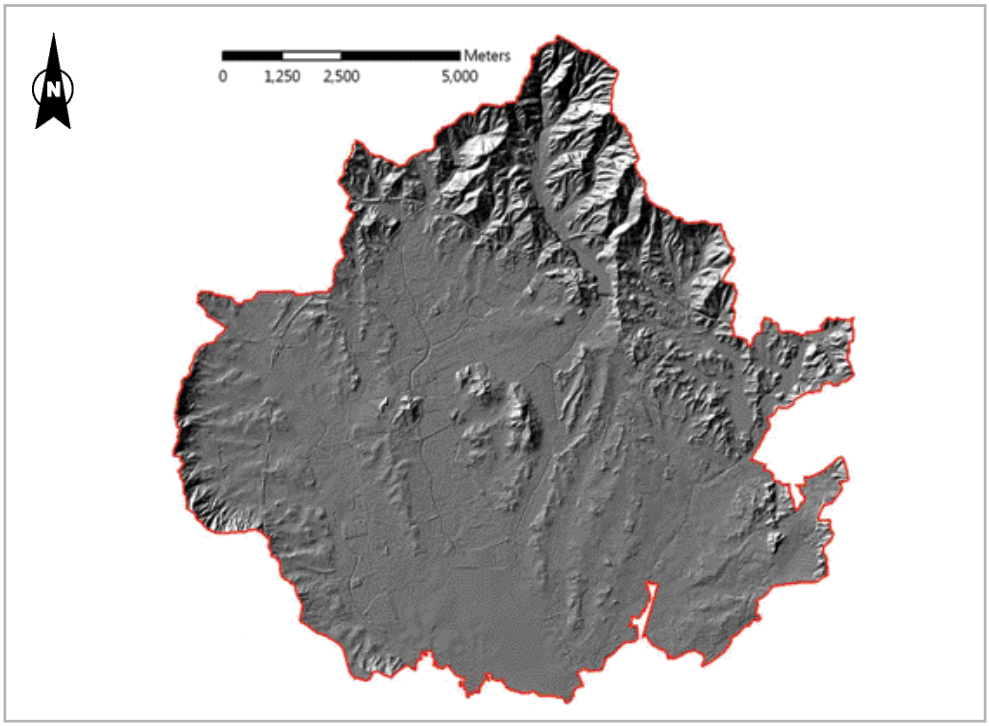
표고	계	50m 이하	50~100m	100~200m	200~300m	300~400m	400~500m	500~581m
면적(㎢)	121.5	65.9	33.9	15.0	4.3	1.6	0.6	0.1
비율(%)	100.0	54.3	27.9	12.4	3.5	1.4	0.5	0.1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100m는 27.9%로 100m 이하의 지역이 수원시 전체의 80% 가까이 나타났다.

2) 음영기복도와 경사도

수원시의 음영기복도[1]를 살펴보면, 외곽의 산림지대와 가운데 위치한 팔달산을 중심으

1 음영기복도는 북서방향의 수평선에서 45°로 내리쬐는 광원값을 가정하고 상대적으로 받는 빛의 정도를 표현한 지도이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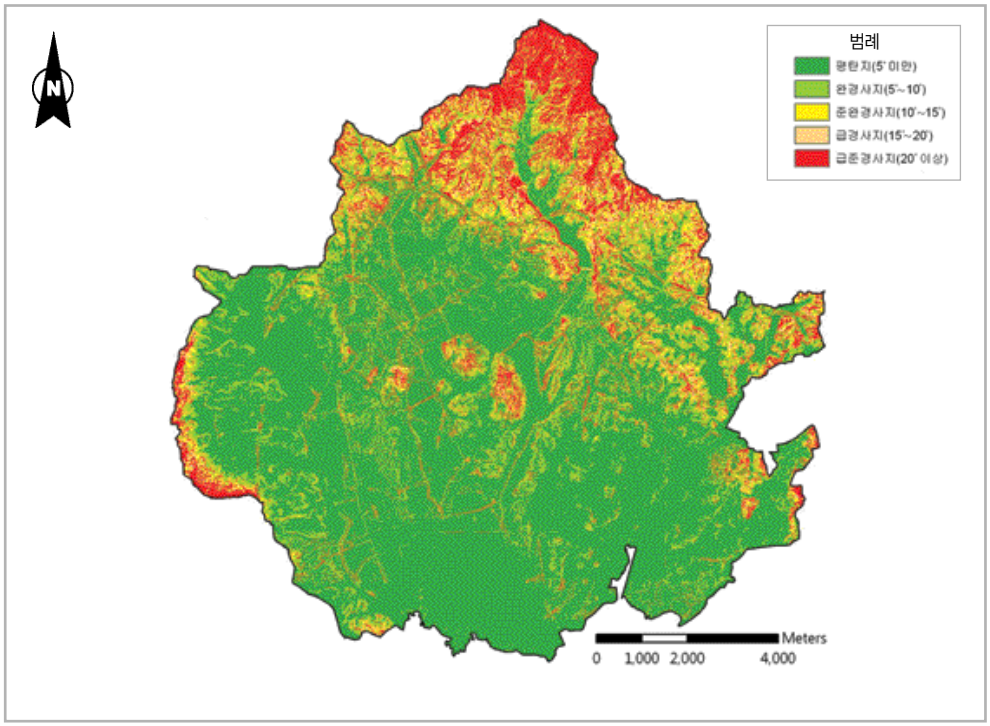


〈그림 3〉 음영기복도(1m)

로 한 낮은 산줄기가 도시에 분포하고 낮은 지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사도는 0에서 최대 82.8°의 값을 가지고, 평균 경사도는 6.8°로 나타났다. 남한 지역의 평균 경사도가 13.9°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지역에 비해서 평균 경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 편이며, 산림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도심지와 농경지가 발달할 수 있는 입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2008년 11월 24일 개정) 제50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따르면 경사도가 10°미만인 지역은 개발행위의 허가가 바로 가능하며, 10°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조건에 따라 경사도가 10°미만인 지역은 92㎢이며, 이 중 표고가 100m 미만인 지역은 87.9㎢로 수원 지역의 약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토지 이용상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25.5%로 나타났다.

영기복도의 결과값은 상대적인 빛의 값이기 때문에 수치 정보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빛의 분포를 통해 육안으로 지형의 기복을 확인하기에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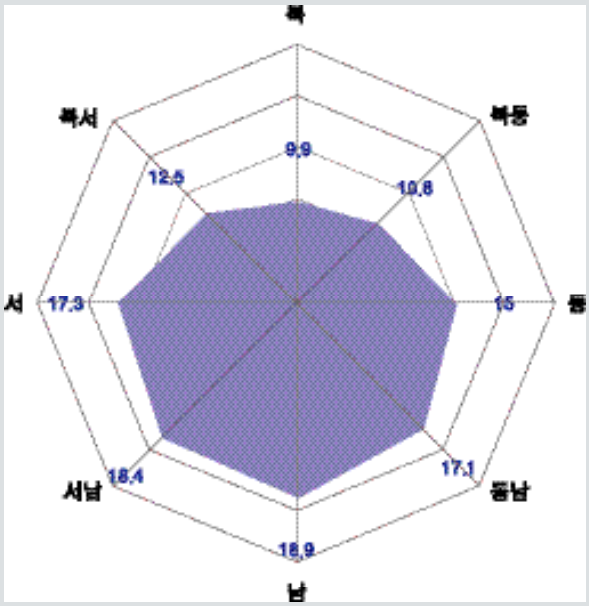
〈그림 4〉 경사도(1m)

〈표 2〉 수원시 경사도 분석

표고(m)	경사도 10° 미만 지역	개발 가능 지역	잠재 개발 가능 지역
면적(㎢)	92.0	87.9	31.0
비율(%)	75.8	72.3	25.5

3) 향도와 요철도

향도는 북쪽을 기준으로 360°의 방향을 45°씩 8개 방향으로 나누었으며, 향이 없는 지형을 포함해 전체 9개 방향으로 표시했는데, 수원시는 남향의 경사면이 18.9㎢로 15.5%의 비율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남향에서 남향을 거쳐 서향까지(112.5~292.5°)가 모두 14%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남한 지역의 전체 향 비율을 보면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수원시는 남향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향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일조량은 4계절 모두 높게 나타나며, 여름의 통풍 및 겨울의 방풍 역시 효과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입지에 좋은 조건을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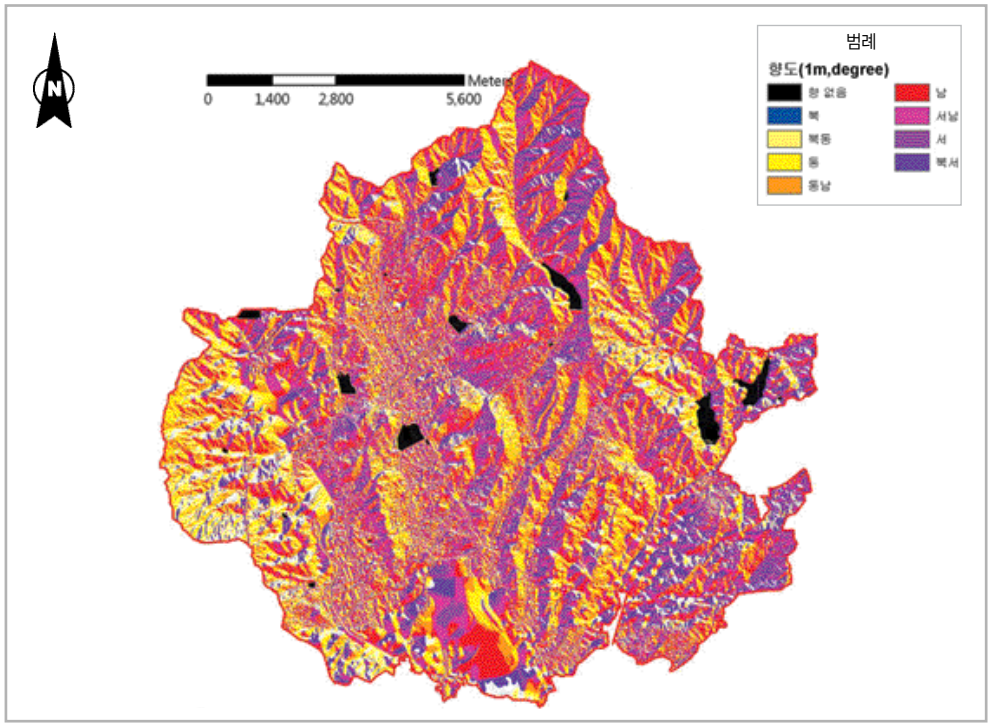
〈그림 5〉 수원시 향별 면적 분포 경향(단위 : ㎢)

〈표 3〉 수원시 향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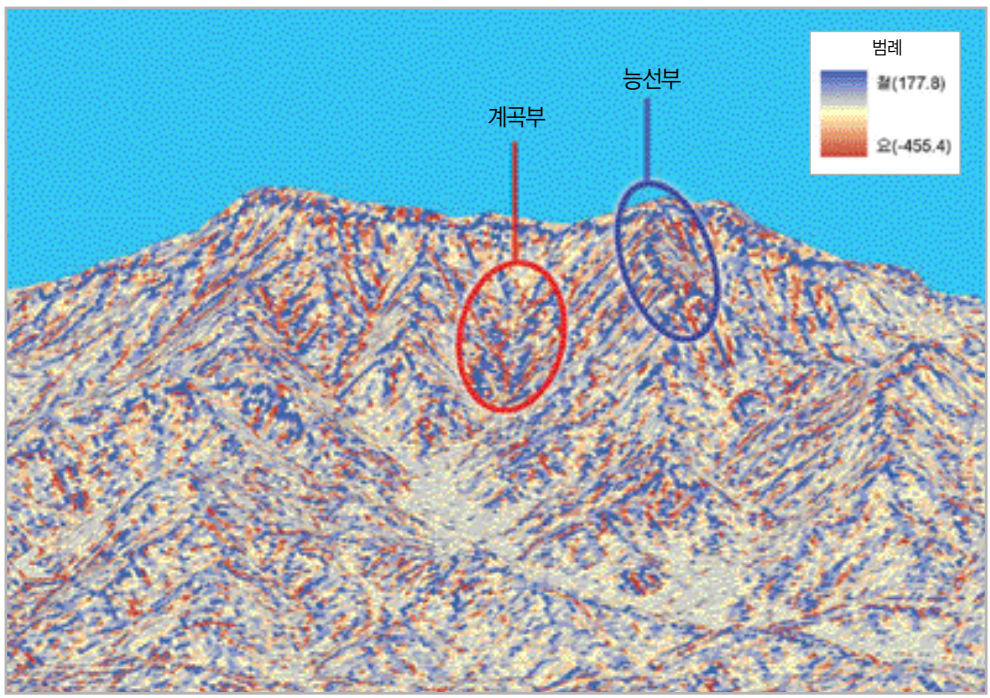
향	범위(°)	면적(㎢)	비율(%)	남한 지역 향 비율(%)
북	337.5~22.5	9.9	8.2	8.8
북동	22.5~67.5	10.8	8.9	10.0
동	67.5~112.5	15.0	12.4	10.6
동남	112.5~157.5	17.1	14.1	10.0
남	157.5~202.5	18.9	15.5	9.3
서남	202.5~247.5	18.4	15.1	10.1
서	247.5~292.5	17.3	14.2	10.6
북서	292.5~337.5	12.5	10.3	10.0
향 없음	–	1.6	1.3	20.6
계	–	121.5	100.0	100.0

고 있다. 또한 일조량은 식물 생산성에도 도움을 주어 논, 밭, 비닐하우스, 과수원, 묘포원 등 다양한 작물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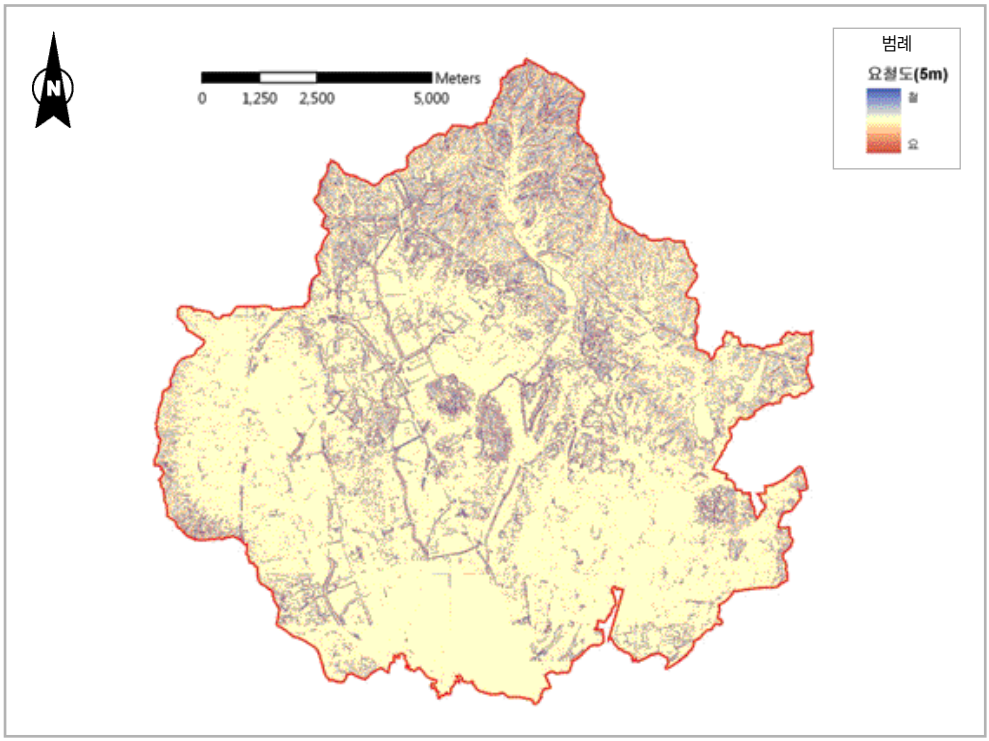
요철도는 지형의 굴곡에 대한 상대적인 지표로서 수원시의 가장 오목한 지형은 −455로, 가장 볼록한 지형은 약 1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오목한 지형이 더 급격하게 나타남



〈그림 6〉 향도(1m)



〈그림 7〉 요철도(광교산 일부)



〈그림 8〉 요철도(5m)

을 알 수 있다. 주로 볼록한 지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산림의 능선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오목한 지형은 계곡에 해당되는 지형에 나타나므로, 광교산 등지의 능선을 판단하고 수계가 형성 가능한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철도는 지형기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문분석에서 유역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요철도에 따라 유역에서의 흐름은 가속과 감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철도에 따라 지형의 침식, 퇴적 여부를 판단하고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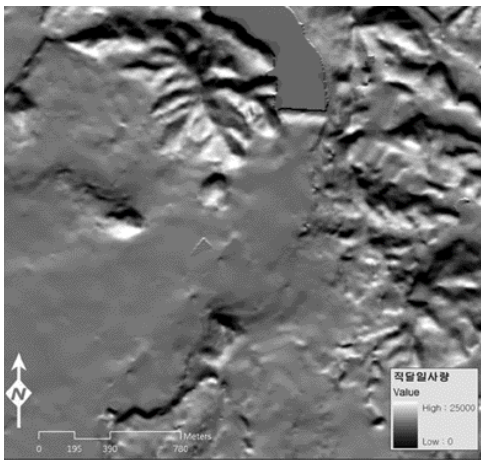
4) 일사량

수원시의 일사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조시간이 거의 동일한 춘분과 추분의 경우 비교값이 모두 유사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조시간이 분명하게 차이 나는 하지와 동지의 경우 모든 비교값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평균값이 각각 3만1,657K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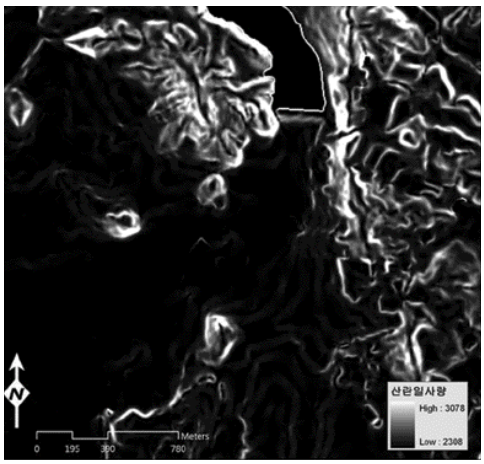
〈표 4〉 전천 일사량 시기별 산출 결과 비교

(단위 : KJ/㎡ ·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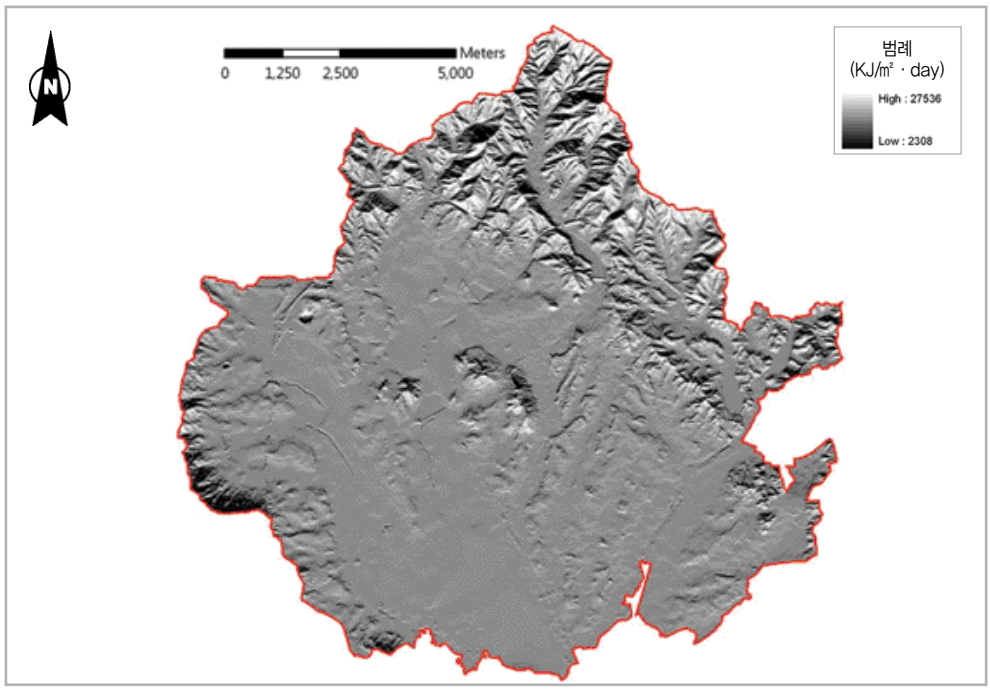
구분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최대값	27,536.0	32,274.0	27,149.0	21,026.0
최소값	2,308.0	6,014.0	2,277.0	1,752.0
평균	21,776.5	31,657.9	21,346.4	10,040.2
표준편차	2,265.1	1,057.4	2,251.5	2,3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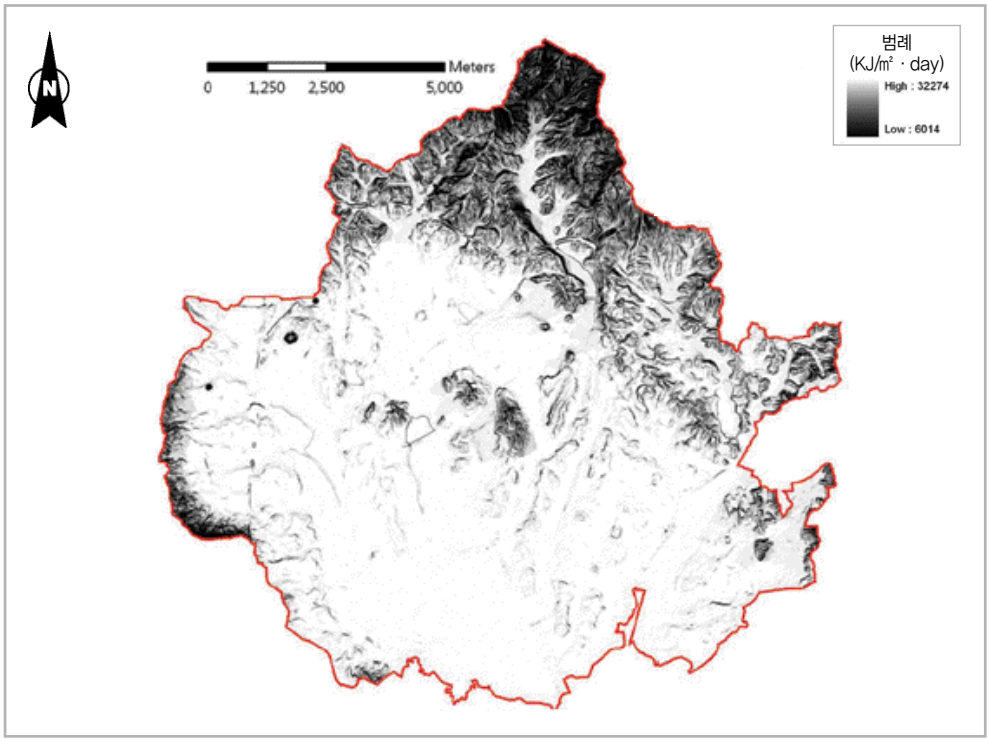
〈그림 9〉 직달 일사량



〈그림 10〉 산란 일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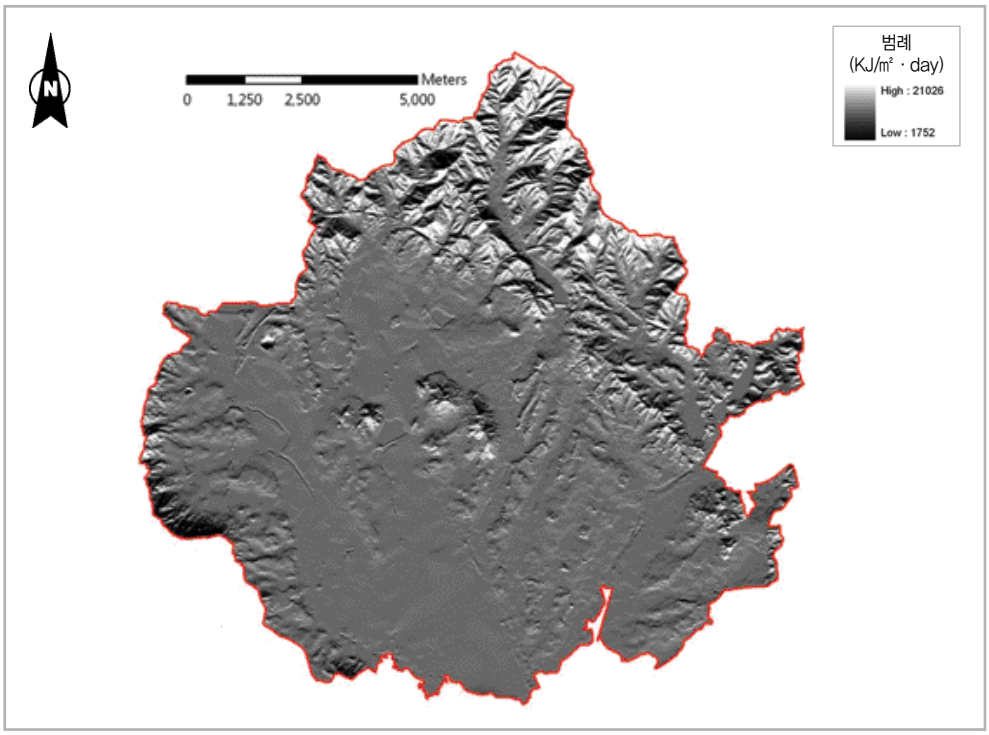


〈그림 11〉 춘분 전천 일사량



〈그림 12〉 하지 전천 일사량

㎡ · day와 1만 40KJ/㎡ · day로 2만 1,617KJ/㎡ · day가 넘게 차이 나고 있어, 시기별로 수원시의 일사량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 편차의 경우 하지 때 가장 낮고 동지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여름에 장시간 지속되는 일사량의 공간별 편차가 더 적고, 겨울처럼 일조시간이 적을 때에 공간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계의 부양과 유지를 위한 에너지 공급원은 태양이다. 일사량을 파악하는 것은 대상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태양에너지의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지표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는 식물의 생산 및 동물의 서식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산림지역의 경우 남사면은 북사면에 비해 일사량이 높아 광합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량도 북사면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식생량에 따라 곤충, 조류, 포유류 등의 동물 서식환경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사량의 변화를 파악하면, 대상지의 에너지 유입과 생산성, 동 · 식물의 서식환경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3〉 동지 전천 일사량

2. 산림생태계

수원시의 산림생태계를 산림, 공원, 녹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으며, 우선 현존식생도를 통하여 현존하는 식생을 표현하였다.

현존식생도는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지도이며, 따라서 크게 산림지역, 도시 식생지역, 하천 식생지역 등으로 나눈다. 현존식생도는 수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환경 중 식물분포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물 서식지 및 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수원시의 현존식생도 분류체계는 「비오톱지도 제작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환경부, 2008)의 식생도 분류체계를 따라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원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조정하였다. 산림지역은 식생 상관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비산림지역은 식생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표 5〉 수원시 현존식생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속성
산림지역	교목	상록활엽자연림	층위별 우점종, 피도, 평균 수고, 평균 흉고직경 등
		상록활엽인공림	
		상록침엽자연림	
		상록침엽인공림	
		상록혼효자연림	
		상록혼효인공림	
		낙엽활엽자연림	
		낙엽활엽인공림	
		낙엽침엽자연림	
		낙엽침엽인공림	
		낙엽혼효자연림	
		낙엽혼효인공림	
		혼효활엽자연림	
		혼효활엽인공림	
		혼효침엽자연림	
		혼효침엽인공림	
		혼효(혼효)자연림	
		혼효(혼효)인공림	
	비교목	관목림	
		초본식생	
비산림지역	도로	가로수	종 정보 및 층위정보
		가로수 외 도로변녹지	대표종 및 녹지율
	도시녹지	공원 및 녹지	
	하천식생	저수로식생	구간별 종 정보 및 피도
		저수로변식생	
	경작지	논	별도 속성정보 없음 토지피복도에 포함
		밭	
		시설경작지	
		방목지	
		과수원	
		묘포원	

1) 산림식생

수원시의 산림은 전체 면적의 22% 정도를 차지하며, 광교산 및 칠보산 · 팔달산 · 숙지산 · 여기산 등의 산림이 주로 남부를 제외한 수원시 외곽지역을 따라 감싸며 분포하고 있다. 산림현존식생도는 크게 토지 피복도를 기반으로 제작되며, 세분류는 식생의 계절

성, 자연성, 잎 형태를 고려하여 20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산림지역을 추출하고, 산림지역의 식생유형을 분류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식생유형 및 세부 속성을 추가하는 작업을 통해 산림현존식생도를 제작하였다.

수원시의 항공영상을 참고해 잎 형태에 따라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및 분류가 어려울 경우 기타의 4개 분류로 산림지역의 공간 단위를 구획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구획된 기초 공간 단위는 수원시 산림 조사의 기초 단위가 되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여 상관성이 떨어지거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간 단위를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산림식생 조사는 산림 공간 단위별로 대표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고, 20×20m 크기의 방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생량이 가장 활발한 2008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3개월) 산림식생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원시의 산림 면적은 2,268만 6,600㎡(2,268ha)이며, 수원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 중 약 19%를 차지하고 있어, 성남과 용인 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산림면적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6〉 수원시의 전체 지역과 산림지역 면적 비율

비 고	면적(㎡)	면적비(%)
산림지역	22,686,600	18.68
수원시 전체 면적	121,473,387	100.00

(1) 상관식생

상관식생을 분류한 결과 총 9가지 유형의 상관식생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낙엽활엽자연림이 전체 산림면적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표 7〉 수원시 상관식생 유형별 면적 비율

상관식생형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낙엽침엽인공림	3	124,017	0.54
낙엽혼효인공림	1	2,689	0.01
낙엽활엽인공림	21	141,393	0.62
낙엽활엽자연림	379	8,876,289	39.12
상록침엽인공림	179	5,738,937	25.29
상록침엽자연림	87	1,585,557	6.98
혼효인공림	156	2,537,620	11.18
혼효자연림	203	3,632,235	16.01
기타(미분류)	24	47,863	0.21
계	1,053	22,686,600	100.00

잎의 계절성에 따라 상관식생 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낙엽성이 40%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상록성(32%), 혼효림(27%)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상록성 식물과 낙엽성 식물의 혼효 정도가 낮았다.

〈표 8〉 잎의 계절성에 따른 상관식생 면적 비율

계절성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낙 엽	404	9,144,388	40.31
상 록	266	7,324,494	32.29
혼 효	359	6,169,855	27.19
기타(미분류)	24	47,863	0.21
계	1,053	22,686,600	100.00

잎의 형태에 따라 상관식생의 면적을 분류해 본 결과 활엽수림이 40%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침엽수림(33%), 혼효림(2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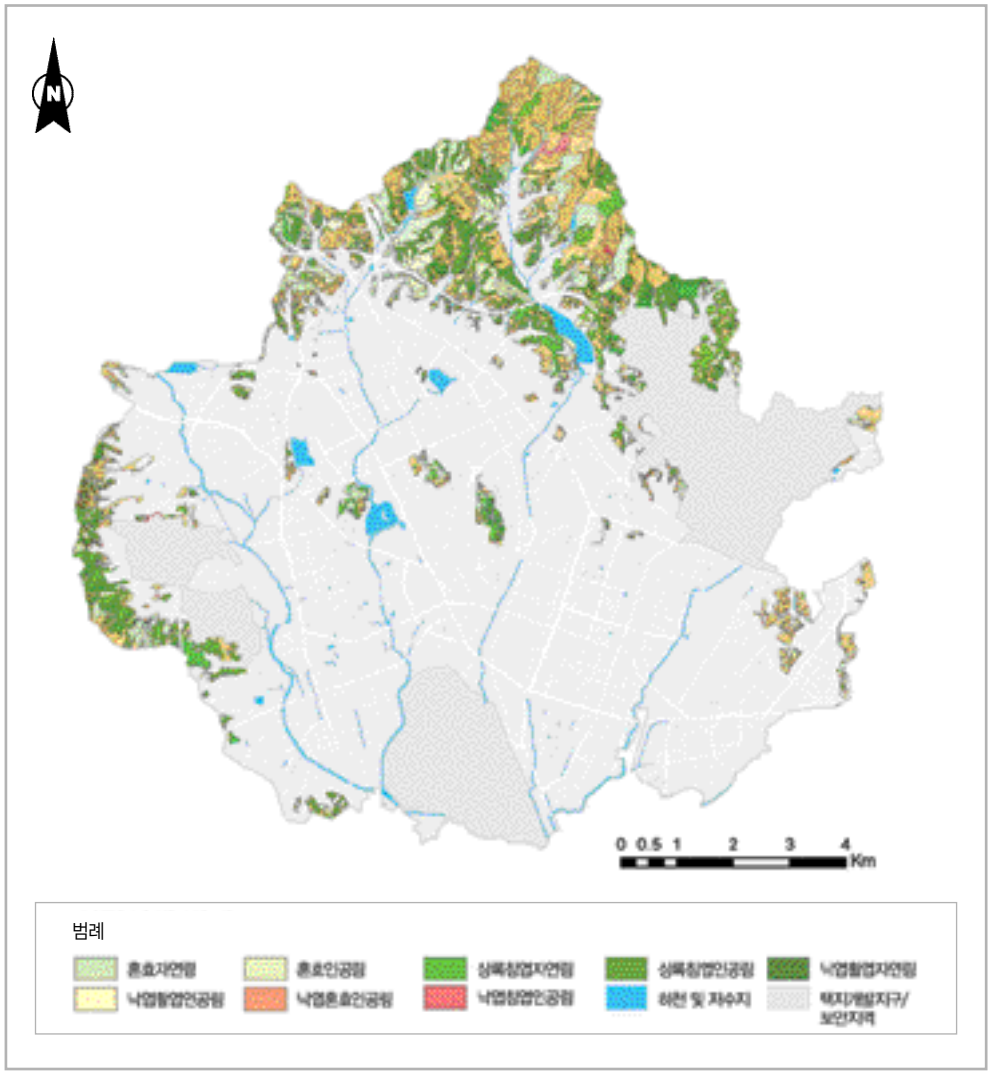
〈표 9〉 잎의 형태에 따른 상관식생 면적 비율

잎형태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활 엽	400	9,017,682	39.75
침 엽	269	7,448,511	32.83
혼 효	360	6,172,544	27.21
기타(미분류)	24	47,863	0.21
계	1,053	22,686,600	100.00

산림의 자연성에 따라 산림 면적을 분류한 결과 자연림이 62%로, 38%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림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10〉 산림의 자연성에 따른 상관식생 면적 비율

자연성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자 연	669	14,094,081	62.13
인 공	360	8,544,656	37.66
기타(미분류)	24	47,863	0.21
계	1,053	22,686,600	100.00



〈그림 14〉 상관식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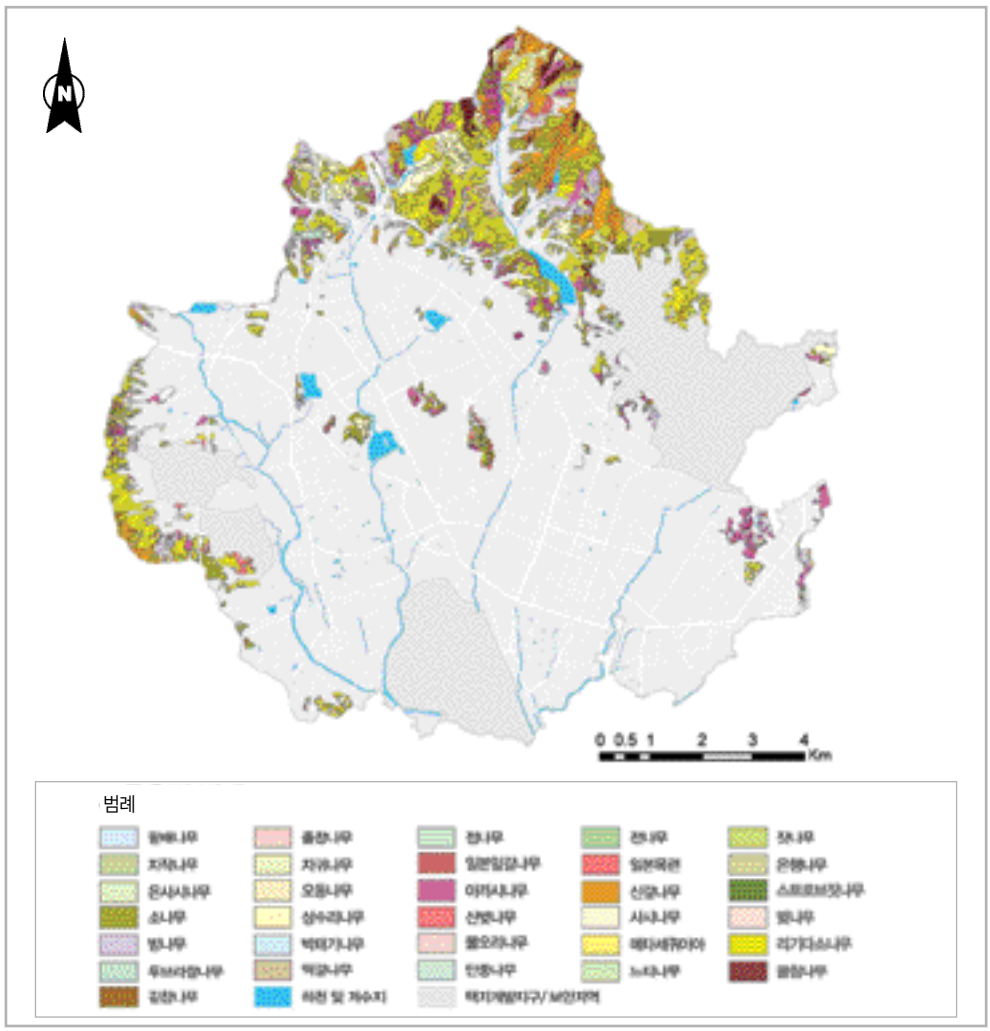
수원시의 상관식생을 분석한 결과, 낙엽수림은 대부분 활엽수림이고, 상록수림은 대부분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잎의 계절성과 잎의 형태의 면적비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낙엽활엽수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원시의 산림은 조림수종이 상당 부분 도태되고 참나무가 자생적으로 발달하여 혼효림을 형성하거나, 참나무를 중심으로 자연활엽수림이 주로 발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목

수원시 산림의 교목 우점종은 리기다소나무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36%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즉 침엽수림을 이루고 있는 산림 대부분이 리기다소나무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활엽수림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 굴참나무는 각각 13%, 11%, 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활엽수림을 형성하는 아까시나무와 밤나무가 11%, 7%로 높은 면적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1〉 산림식생 교목 우점종 면적 비율

교목 우점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갈참나무	3	65,800	0.29
굴참나무	15	532,152	2.35
느티나무	4	37,420	0.16
단풍나무	2	5,390	0.02
떡갈나무	3	209,083	0.92
루브라참나무	2	9,984	0.04
리기다소나무	328	8,233,498	36.29
메타세쿼이아	2	2,576	0.01
물오리나무	8	248,361	1.09
박태기나무	2	59	0.00
밤나무	116	1,681,405	7.41
벚나무	16	266,364	1.17
사시나무	2	7,132	0.03
산벚나무	22	211,327	0.93
상수리나무	116	2,991,321	13.19
소나무	133	2,346,865	10.34
스트로브잣나무	4	5,444	0.02
신갈나무	63	2,591,907	11.42
아까시나무	168	2,589,391	11.41
오동나무	3	83,625	0.37
은사시나무	3	29,013	0.13
은행나무	4	16,236	0.07
일본목련	1	4,520	0.02
일본잎갈나무	2	119,498	0.53
자귀나무	1	28,429	0.13
자작나무	3	21,333	0.09
잣나무	1	12,058	0.05
전나무	1	11,676	0.05
졸참나무	7	206,311	0.91
팥배나무	5	84,334	0.37
기타	13	34,093	0.15
계	1,053	22,686,600	100.0



〈그림 15〉 현존식생도(교목층 우점종)

(3) 아교목

수원시 산림의 아교목이 나타난 지역의 면적은 376만 1,295㎡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6분의 1 정도인 지역에서만 나타나 상층식생이 복층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아교목 중에서는 신갈나무가 전체 아교목 출현지역의 34%를 차지하여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아까시나무(15%), 산벚나무(12%), 팥배나무(6%) 순으로 나타났다. 아교목층을 우점하고 있는 상위수종이 모두 활엽수인 것으로 볼 때, 수원시의 산림은 대부분의 침엽수림이 도태되고 활엽수림으로 천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산림식생 아교목 우점종 면적 비율

아교목 우점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갈참나무	2	213,051	5.66
계수나무	1	10,060	0.27
굴참나무	1	35,108	0.93
단풍나무	1	25,698	0.68
때죽나무	4	177,278	4.71
떡갈나무	1	7,368	0.20
물푸레나무	1	40,757	1.08
밤나무	11	187,429	4.98
백목련	1	15,812	0.42
벚나무	4	26,914	0.72
붉나무	1	28,959	0.77
산벚나무	5	460,980	12.26
생강나무	1	41,833	1.11
신갈나무	26	1,285,909	34.19
아까시나무	13	547,314	14.55
일본목련	2	15,261	0.41
잣나무	2	4,707	0.13
졸참나무	6	112,263	2.98
쪽동백나무	5	170,023	4.52
층층나무	2	101,343	2.69
칠엽수	1	1,644	0.04
튤립나무	2	31,764	0.84
팥배나무	14	219,820	5.84
계	107	3,761,295	100.0

(4) 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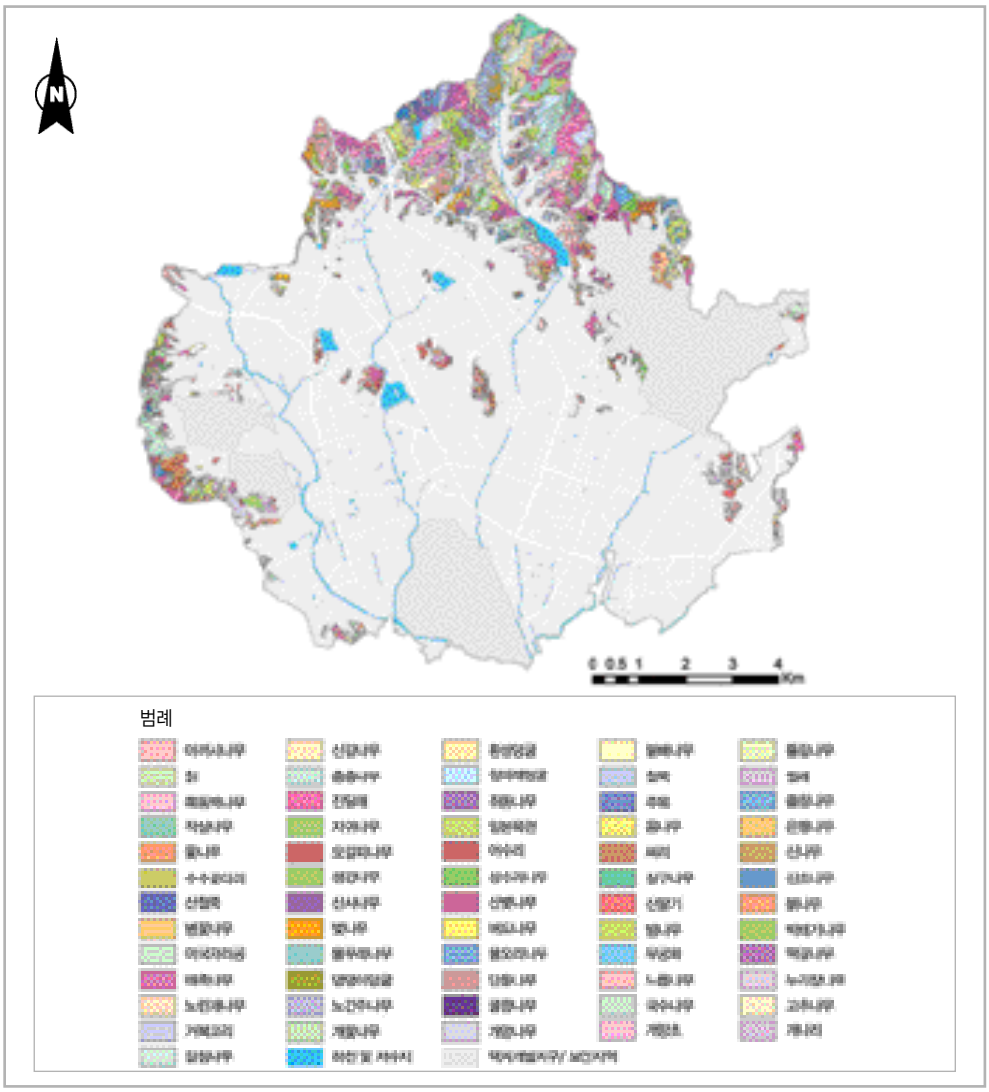
수원시 산림에서 관목층이 출현한 면적은 2,259만 2,549㎡로 거의 대부분의 산림지역에서 관목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목 우점종 중에서는 진달래가 전체 관목면적의 14%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개암나무(10%), 아까시나무(10%), 신갈나무(8%), 국수나무(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산림식생 관목 우점종 면적 비율

관목 우점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갈참나무	2	22,171	0.10
개나리	5	4,173	0.02
개망초	3	9,390	0.04
개암나무	79	2,310,116	10.23
개옻나무	31	632,291	2.80
거북꼬리	2	2,756	0.01

관목 우점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고추나무	1	2,413	0.01
국수나무	43	1,700,979	7.53
굴참나무	3	31,034	0.14
노간주나무	4	150,404	0.67
노린재나무	28	563,256	2.49
누리장나무	7	108,425	0.48
느릅나무	1	1,080	0.00
단풍나무	5	35,020	0.16
댕댕이덩굴	3	8,695	0.04
때죽나무	27	817,795	3.62
떡갈나무	7	340,948	1.51
무궁화	1	6,309	0.03
물오리나무	1	469	0.00
물푸레나무	3	42,178	0.19
미국자리공	18	143,903	0.64
박태기나무	1	5,888	0.03
밤나무	25	657,589	2.91
버드나무	1	3,236	0.01
벚나무	15	368,595	1.63
병꽃나무	1	8,381	0.04
붉나무	37	539,826	2.39
산딸기	64	595,584	2.64
산벚나무	5	86,480	0.38
산사나무	1	2,644	0.01
산철쭉	5	13,988	0.06
산초나무	14	356,859	1.58
살구나무	1	1,491	0.01
상수리나무	17	314,376	1.39
생강나무	29	1,109,898	4.91
수수꽃다리	2	1,204	0.01
신갈나무	62	1,771,745	7.84
신나무	2	167,574	0.74
싸리	22	500,025	2.21
아까시나무	162	2,181,952	9.66
어수리	1	5,987	0.03
오갈피나무	1	15,063	0.07
옻나무	1	3,713	0.02
은행나무	1	12,058	0.05
음나무	1	1,644	0.01
일본목련	5	221,827	0.98
자귀나무	1	78,802	0.35
작살나무	3	297,981	1.32
졸참나무	19	520,182	2.30
주목	3	4,098	0.02
쥐똥나무	2	37,502	0.17
진달래	156	3,112,795	13.78
쪽동백나무	7	255,260	1.13

관목 우점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찔레	33	370,758	1.64
철쭉	36	1,394,846	6.17
청미래덩굴	2	285,170	1.26
층층나무	4	152,525	0.68
칡	6	68,264	0.30
튤립나무	1	27,433	0.12
팥배나무	7	94,036	0.42
환삼덩굴	2	11,464	0.05
계	1,032	22,592,549	100.0



〈그림 16〉 현존식생도(관목층 우점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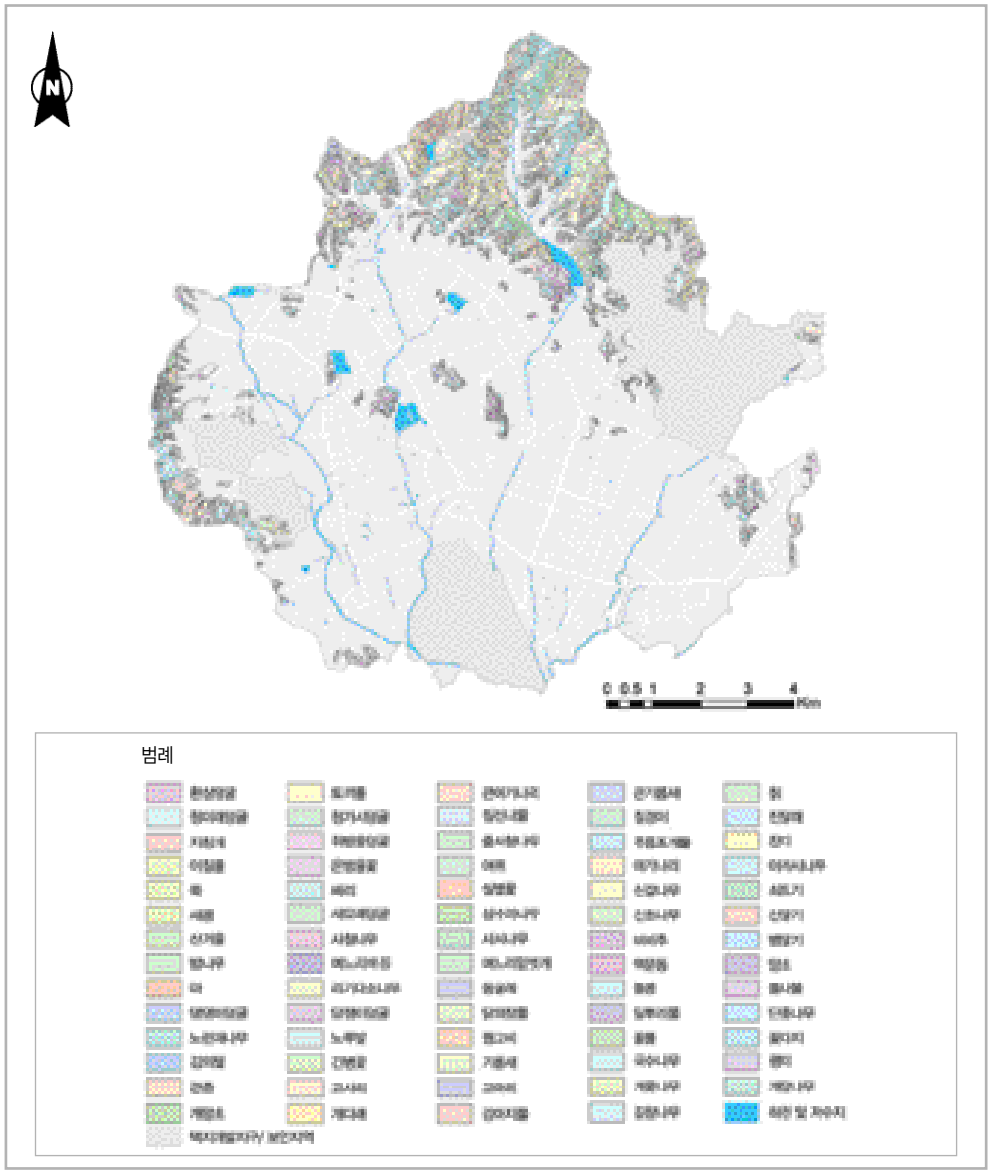
(5) 초본

수원시 산림에서 초본층이 출현한 면적은 2,256만 9,880㎡였으며, 관목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산림지역에서 초본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초본 우점종 중에서는 주름조개풀이 전체 초본면적의 21%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애기나리(17%), 고사리(12%), 산거울(11%), 담쟁이덩굴(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산림식생 초본 우점종 면적 비율

초본 우점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갈참나무	1	17,014	0.08
강아지풀	1	4,039	0.02
개다래	3	48,757	0.22
개망초	5	13,259	0.06
개암나무	4	586,452	2.60
개옻나무	6	8,242	0.04
고마리	33	278,685	1.23
고사리	84	2,626,098	11.64
관중	4	77,231	0.34
괭이	1	4,936	0.02
국수나무	1	13,816	0.06
기름새	10	21,318	0.09
긴병꽃	1	4,129	0.02
김의털	2	14,513	0.06
꽃다지	4	4,698	0.02
꿀풀	9	515,542	2.28
꿩고비	1	255	0.00
노루발	15	665,135	2.95
노린재나무	1	5,113	0.02
단풍나무	2	4,133	0.02
달뿌리풀	4	5,140	0.02
닭의장풀	41	655,178	2.90
담쟁이덩굴	139	1,824,192	8.08
댕댕이덩굴	12	41,755	0.19
돌나물	1	1,857	0.01
돌콩	4	174,148	0.77
둥굴레	5	126,142	0.56
리기다소나무	1	4,269	0.02
마	1	31	0.00
망초	1	4,753	0.02

초본 우점	빈도(개수)	면적(㎡)	면적비(%)
맥문동	1	3,293	0.01
며느리밑씻개	19	110,153	0.49
며느리배꼽	7	41,905	0.19
밤나무	1	30,669	0.14
뱀딸기	3	16,225	0.07
비비추	1	4,520	0.02
사시나무	1	19,381	0.09
사철나무	1	7,674	0.03
산거울	68	2,457,823	10.89
산딸기	60	816,037	3.62
산초나무	2	17,153	0.08
상수리나무	1	2,880	0.01
새모래덩굴	21	247,311	1.10
새콩	6	74,933	0.33
쇠뜨기	2	7,746	0.03
신갈나무	10	793,297	3.51
실별꽃	1	1,080	0.00
싸리	1	3,448	0.02
쑥	3	21,082	0.09
아까시나무	12	185,337	0.82
애기나리	108	3,754,793	16.64
여뀌	1	6,126	0.03
은방울꽃	1	37,611	0.17
이질풀	1	716	0.00
잔디	2	1,204	0.01
주름조개풀	192	4,739,991	21.00
줄사철나무	1	11,730	0.05
쥐방울덩굴	1	6,925	0.03
지칭개	1	1,683	0.01
진달래	16	148,870	0.66
질경이	1	828	0.00
짚신나물	1	14,113	0.06
청가시덩굴	2	30,518	0.14
청미래덩굴	59	799,047	3.54
칡	12	87,472	0.39
큰기름새	3	47,147	0.21
큰애기나리	6	190,430	0.84
토끼풀	1	3,723	0.02
환삼덩굴	5	74,176	0.33
계	1,032	22,569,880	100.0



〈그림 17〉 현존식생도(초본층 우점종)

(6) 식피율

수원시 산림의 층위별 식피율을 비교해 본 결과 교목층의 피도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목(42%), 초본(37%), 아교목(2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원시 산림은 교목층이 왕성하게 발달하고, 관목식생과 초본식생이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5〉 수원시 산림의 층위별 평균 식피율

비고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면적(㎡)	22,686,600	3,761,295	22,592,549	22,569,880
식피율(%)	68.31	21.59	42.25	3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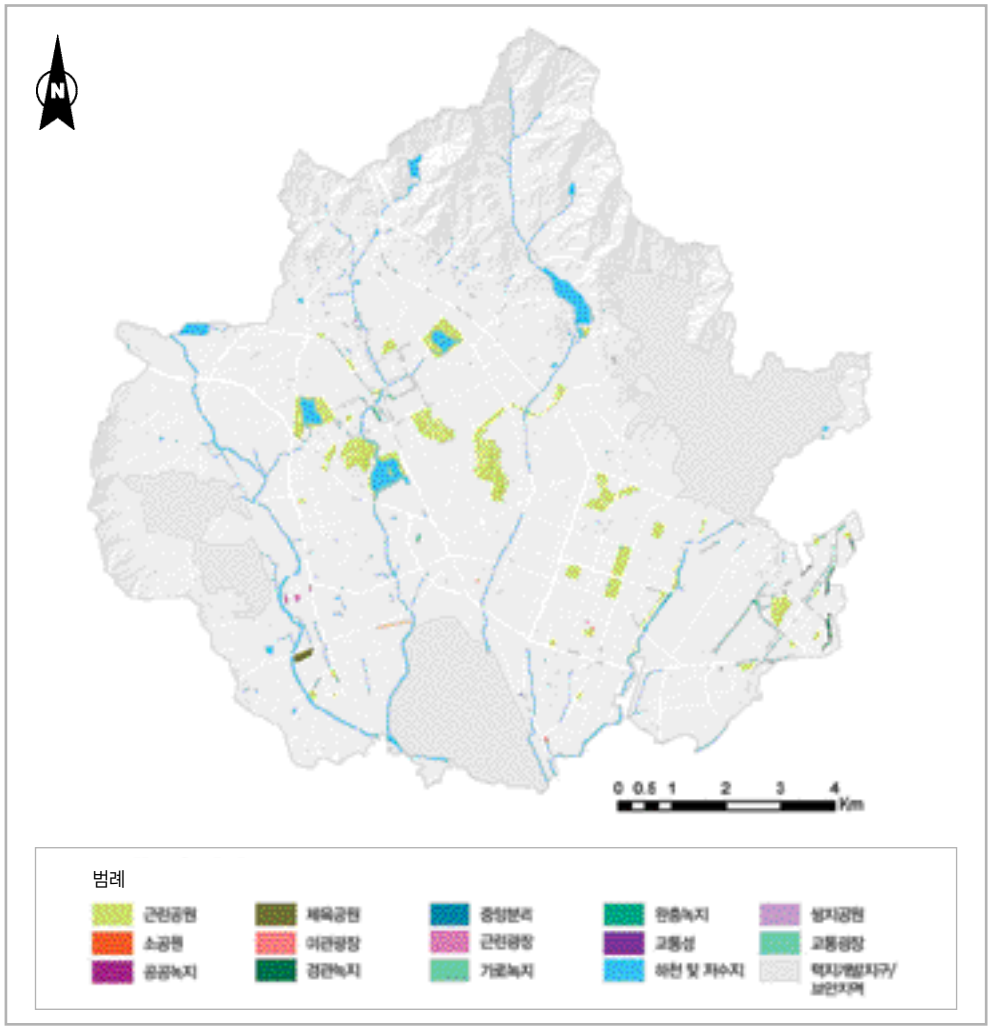
(7) 산림식생의 특성

수원시의 산림은 북쪽의 광교산 일대와 서쪽의 칠보산 일대가 산림지역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팔달산, 여기산과 같이 도심지 사이에 고립된 산림지역이 드물게 분포하고 있어 수도권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산림면적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산림은 주로 자연활엽낙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상당 부분의 산림이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천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교목수종은 침엽수림의 경우 조림수종으로 많이 식재되어 온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나타났으며, 활엽수림의 경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가 주로 나타나 전형적인 중부 지방의 참나무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식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도시식생

수원시 도심지 내의 식생에 대하여 현황 및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 · 간접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시 녹지를 파악하였다. 도시녹지의 대상지는 토지이용에서 분류되고 있는 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공원과 녹지 중 대표성을 갖는 조사구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지의 출현종 및 피도 정보를 통해 도시 녹지율 및 시민 이용성을 파악하였고, 도면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GIS 위치자료에 속성을 입력하였다. 조사는 수원시 도심지 내 녹지를 대상으로 2009년 8월부터 10월(3개월)까지 조사하였다.

도심지의 녹지는 토지이용으로 분류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숲,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을 포함하였다. 도시녹지 중에서 어린이공원과 학교숲의 경우 이용의 측면이 강하여 시설물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수원시에서는 녹지율이 적은 어린이공원과 학교숲을 제외하고 근린공원과 경관, 완충 녹지를 대상지로 하였다. 2005년에 제작된 수원시 도시녹화 기본계획에서 도시공원 지정현황(2004년 11월 15일 기준)을 보면 조사대상지가 되는 근린공원의 경우 수원시에 총 48개(조성 완료 27개, 조성



〈그림 18〉 도시녹지

중 11개, 미조성 10개)가 있다. 대상 도시녹지에서 관리구역을 기준으로 나누어 층위별로 많이 나타나는 순으로 수종 3종을 조사하고 대상지 내의 대표목을 선정하여 수고, 흉고직경과 전체 대상지 내의 층위별 식피율을 조사하였다.

(1) 공원식생의 특성

조사된 공원의 면적은 총 358만 6,733㎡(359ha)로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고, 공원별 면적은 1ha도 안 되는 면적부터 45ha가 넘는 것까지 면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 면적의 편차가 큰 것은 근린공원 중 대규모 산림을 포함한 것이 있어서이다. 전체 공원면적 중 식생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02만 8,989㎡으로, 전체 공원 면적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원지역의 전체 교목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느티나무가 2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소나무(21회), 메타세쿼이아(14회), 스트로브잣나무(11회), 은행나무(10회) 순으로 나타났다. 아교목의 경우 단풍나무가 2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산수유(12회), 스트로브잣나무(7회), 꽃사과(6회)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과 아교목의 식재종은 느티나무, 소나무,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산수유 등 조경식재에 많이 사용되는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교목보다 아교목에서 다양한 수종이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공원지역의 전체 관목수종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산철쭉의 원예종이 31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회양목(21회), 쥐똥나무(8회) 순으로 나타났다. 초본식물의 경우 맥문동이 2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비비추(17회), 제비꽃(8회), 강아지풀(7회) 순으로 나타났다. 관목 역시 교목층과 마찬가지로 조경식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산철쭉 원예종, 회양목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초본층도 조경식재에 널리 사용되는 맥문동, 비비추 등이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초본식물의 경우 식재된 식물이 아닌 제비꽃, 강아지풀, 토끼풀 등도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공원지역의 층위별 평균 식피율을 비교해 본 결과 교목층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교목과 관목은 25%로 나타났으며, 초본식물은 15%로 가장 낮았다. 즉 수원시의 공원지역에서는 교목과 아교목 등 교목층의 식재비율이 가장 높고, 초본식물은 비교적 적게 식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수원 공원 면적

비고	최소(㎡)	최대(㎡)	평균(㎡)	총면적(㎡)	공원(개수)
면적(㎡)	5,187	455,930	83,412	3,586,733	43

〈표 17〉 식생 면적 비율에 따른 공원 면적 비교

식생 면적 비율(%)	공원식생 면적(㎡)	공원 전체 면적(㎡)	공원수(개수)
0	0	12,142	1
20	78,004	390,022	1
50	483,938	967,875	9
55	7,427	13,503	1
60	553,724	922,874	18
70	828,502	1,183,574	10
80	77,394	96,743	3
56.6	2,028,989	3,586,733	43

〈표 18〉 공원 교목 출현빈도

교목	빈도(수)	교목	빈도(수)
느티나무	24	상수리나무	2
소나무	21	양버즘나무	2
메타세쿼이아	14	칠엽수	2
스트로브잣나무	11	튤립나무	2
은행나무	10	독일가문비	1
왕벚나무	7	밤나무	1
중국단풍	6	벚나무	1
자작나무	4	복자기	1
리기다소나무	3	자귀나무	1
버드나무	2	회화나무	1
버즘나무	2	소계	118

〈표 19〉 공원 아교목 출현빈도

아교목	빈도(수)	아교목	빈도(수)
단풍나무	25	은행나무	2
산수유	12	측백나무	2
스트로브잣나무	7	느릅나무	1
꽃사과	6	독일가문비	1
배롱나무	5	매실나무	1
백목련	5	메타세쿼이아	1
산딸나무	5	무궁화	1
이팝나무	5	박태기나무	1
자귀나무	4	반송	1
칠엽수	4	산초나무	1
감나무	3	살구나무	1
느티나무	3	생강나무	1
산사나무	3	서양측백나무	1
수수꽃다리	3	왕벚나무	1
때죽나무	2	주목	1
마가목	2	처진개벚나무	1
벚나무	2	편백나무	1
복자기	2	향나무	1
소나무	2	소계	120

〈표 20〉 공원 관목 출현빈도

관목	빈도(수)	관목	빈도(수)
산철쭉 원예종(연산홍)	31	명자꽃	7
회양목	21	산철쭉 원예종(적산홍)	6
쥐똥나무	8	개나리	5

관목	빈도(수)	관목	빈도(수)
병꽃나무	5	낙상홍	1
눈주목	4	말채나무	1
무궁화	4	매자나무	1
화살나무	4	불두화	1
개쉬땅나무	3	옥매화	1
사철나무	3	장미	1
주목	3	진달래	1
눈향나무	2	처진단풍	1
조팝나무	2	편백	1
철쭉	2	소계	121
황매화	2		

〈표 21〉 공원 초본 출현빈도

초본	빈도(수)	초본	빈도(수)
맥문동	24	감국	1
비비추	17	괭이밥	1
제비꽃	8	구절초	1
강아지풀	7	금불초	1
닭의장풀	7	돌단풍	1
토끼풀	7	루드베키아	1
벌개미취	6	민들레	1
조릿대	6	부처꽃	1
원추리	5	붓꽃	1
담쟁이덩굴	3	수호초	1
범부채	3	작약	1
옥잠화	3	주름잎	1
부용	2	주름조개풀	1
질경이	2	환삼덩굴	1
참나리	2	소계	116

〈표 22〉 공원 층위별 식피율 비교

구분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빈도(개수)	43	43	43	43
평균피도(%)	30.93	25.00	24.65	15.23

(2) 녹지식생의 특성

이번 과업에서 조사된 수원시 녹지의 전체 면적은 53만 1,550㎡(53ha)로 공원 면적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녹지의 교목수종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스트로브잣나무가 100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소나무(79회), 느티나무(57회), 왕벚나무(51회) 순으로 나타났다. 관목의 경우 산철쭉 원예종이 121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회양목(64회), 쥐똥나무(50회) 순으로 나타났다. 녹지의 경우 지역의 경계 및 차폐의 목적으로 식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주로 침엽수를 식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목 중에서는 스트로브잣나무와 소나무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관목층에서도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이루는 녹지가 많은 편이며, 이런 경우 전정이 용이한 회양목과 쥐똥나무가 주로 사용되므로 빈번하게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관목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산철쭉 원예종은 소나무와 같은 교목과 복층의 조경경관을 구성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녹지의 초본식물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잔디가 19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강아지풀(81회), 제비꽃(66회), 닭의장풀(48회), 괭이밥(27회) 순으로 나타났다. 녹지의 초본식물은 조경녹지 구성 시 지피식재로 널리 사용되는 잔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강아지풀, 제비꽃, 닭의장풀, 괭이밥 등 식재되지 않은 초본식물들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녹지의 층위별 식피율을 비교해 본 결과 초본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본(62%), 관목(35%)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공원과 달리 녹지는 지역의 경계 및 차폐, 완충지대 형성을 위해 조성되기 때문에 초본식물의 식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녹지 평균 면적

전체 녹지면적(㎡)	녹지(수)	평균 녹지면적(㎡)
531,550	258	2,060

〈표 24〉 녹지 층위별 식피율 비교

구분	교목	관목	초본
녹지(수)	258	258	258
평균 피도(%)	62.20	34.90	65.96

〈표 25〉 녹지 교목 출현빈도

교목	빈도(수)	교목	빈도(수)
스트로브잣나무	100	왕벚나무	51
소나무	79	단풍나무	46
느티나무	57	이팝나무	46

교목	빈도(수)	교목	빈도(수)
중국단풍	39	상수리나무	3
메타세쿼이아	33	구상나무	2
잣나무	31	마가목	2
은행나무	22	배롱나무	2
복자기	11	산사나무	2
전나무	11	섬잣나무	2
백목련	10	자작나무	2
산수유	8	주목	2
향나무	8	층층나무	2
아까시나무	7	칠엽수	2
양버즘나무	7	가이즈카향나무	1
가죽나무	6	미루나무	1
감나무	4	밤나무	1
목련	4	신갈나무	1
벚나무	4	오동나무	1
회화나무	4	자귀나무	1
루브라참나무	3	측백나무	1
리기다소나무	3	편백	1
매실나무	3	기타	4
버드나무	3	소계	636
산딸나무	3		

〈표 26〉 녹지 관목 출현빈도

관목	빈도(수)	관목	빈도(수)
산철쭉 원예종(연산홍)	121	눈향나무	3
회양목	64	단풍나무	3
쥐똥나무	50	매발톱	3
산철쭉	49	아까시나무	3
명자꽃	33	유카	3
병꽃나무	16	작살나무	3
무궁화	13	족제비싸리	3
개나리	12	산딸기	2
눈주목	12	산수유	2
반송	9	측백나무	2
사철나무	8	갈참나무	1
황매화	6	나팔꽃	1
수수꽃다리	4	낙상홍	1
장미	4	느티나무	1
조팝나무	4	박주가리	1
향나무	4	박태기나무	1

관목	빈도(수)	관목	빈도(수)
버드나무	1	실유카	1
서양측백나무	1	싸리	1
수국	1	코스모스	1
수크령	1	소계	450
신나무	1		

〈표 27〉 녹지 초본 출현빈도

초본	빈도(수)	초본	빈도(수)
잔디	197	며느리배꼽	2
강아지풀	81	비름	2
제비꽃	66	주름잎	2
닭의장풀	48	털별꽃아재비	2
괭이밥	27	회양목	2
맥문동	27	개미취	1
토끼풀	22	개암나무	1
환삼덩굴	13	국화류	1
바랭이	11	까마중	1
질경이	10	꽃다지	1
돌나물	9	나팔꽃	1
쑥	9	다닥냉이	1
명아주	8	돌나무	1
민들레	8	방동사니	1
쇠뜨기	8	봉숭아	1
개망초	7	부용	1
돌콩	7	붉은토끼풀	1
메꽃	6	붓꽃	1
쇠무릎	6	사초류	1
담쟁이덩굴	5	쇠별꽃	1
씀바귀	5	쇠비름	1
칡	5	애기땅빈대	1
금계국	3	원추리	1
꽃잔디	3	조깃대	1
냉이	3	조릿대	1
메리골드	3	주름조개풀	1
박주가리	3	청미래덩굴	1
벌개미취	3	코스모스	1
비비추	3	콜레우스	1
새팥	3	털비름	1
여뀌	3	피	1
옥잠화	3	호박	1
꽃범의꼬리	2	소계	656
맨드라미	2		

〈그림 19〉 도시녹지

3) 가로수

가로수는 도로의 소음 및 매연을 차단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음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내 조절작용을 하는 수목이다. 수원시의 가로수로 이용되는 수종 및 규모를 파악하여 가로수 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에서 수령한 가로수대장 및 GIS 자료를 이용하여 가로수 도면을 제작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DB 자료로 만들고 GIS 위치자료에 속성을 입력하였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 8월부터 10월(3개월)까지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가로수 및 도심지 내 주요 도로를 따라 식재된 가로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원시 녹지과에서 작성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 관리 기본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구간의 수종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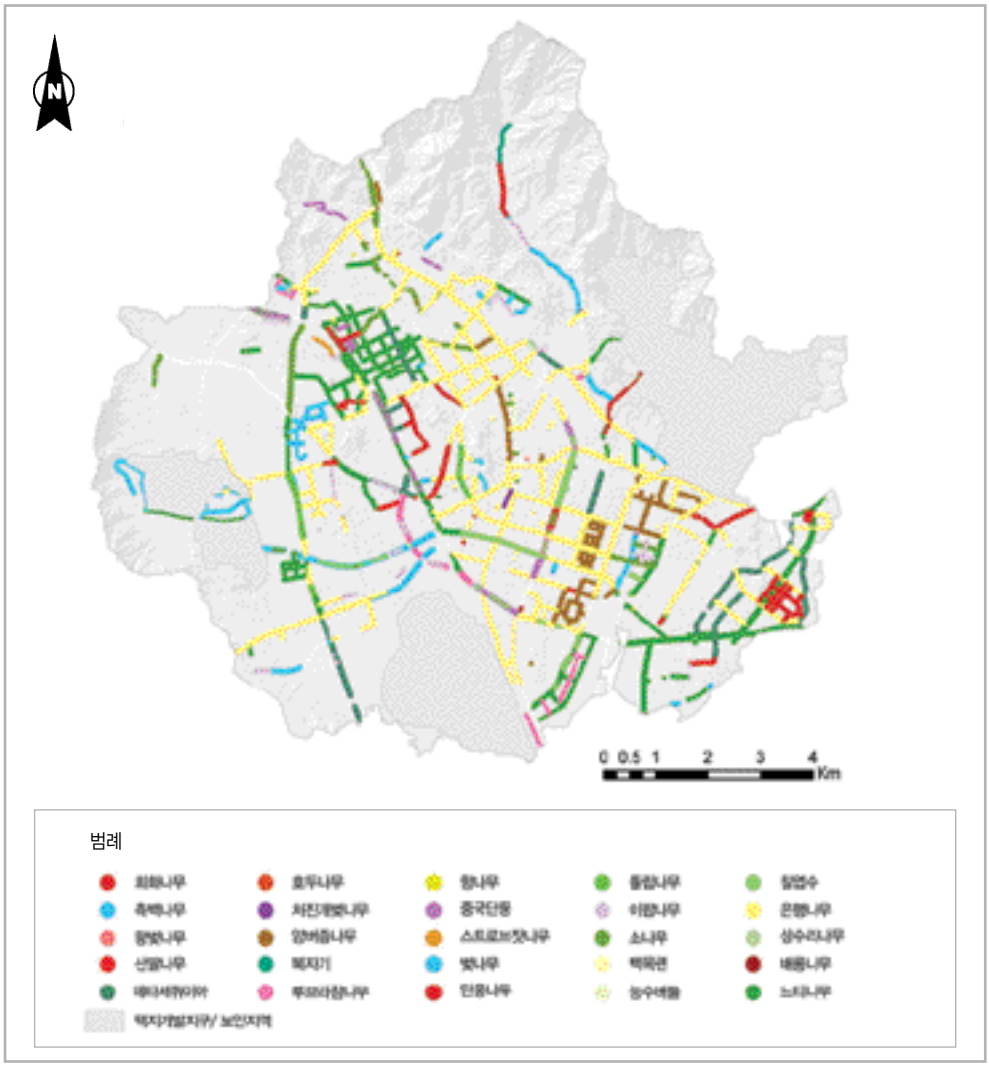
수원시의 가로수대장을 확인하여 가로수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도로변 가로수의 수종을 조사하고, 동일 수종 및 교차로 등을 기준으로 구획하여

〈표 28〉 구별 가로수 식재본수

행정구역	본수	비율(%)	면적(㎡)	면적비(%)
권선구	14,496	33.52	47,551,312	39.2
영통구	9,956	23.02	27,746,637	22.8
장안구	10,665	24.66	33,140,643	27.3
팔달구	8,133	18.80	13,034,943	10.7
소계	43,250	100.00	121,473,535	100.00

〈표 29〉 가로수 수종과 개체수 조사결과

가로수 수종	주수	비율(%)
느티나무	10,774	24.91
능수버들	76	0.18
단풍나무	742	1.72
루브라참나무	1,309	3.03
메타세쿼이아	2,439	5.64
배롱나무	2	0.00
백목련	20	0.05
벚나무	5,173	11.96
복자기	215	0.50
산딸나무	98	0.23
상수리나무	32	0.07
소나무	1,789	4.14
스트로브잣나무	53	0.12
양버즘나무	2,208	5.11
왕벚나무	2	0.00
은행나무	12,877	29.77
이팝나무	934	2.16
중국단풍	1,000	2.31
처진개벚나무	36	0.08
측백나무	13	0.03
칠엽수	1,045	2.42
튤립나무	555	1.28
향나무	1	0.00
호두나무	1	0.00
회화나무	1,856	4.29
총 25종	43,250	100.0



〈그림 20〉 가로수 분포도

대표목을 선정해 수종 평균 수고, 평균 흉고 직경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지의 가로수와 전경을 촬영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수원시의 가로수는 총 4만 3,250본이며, 행정구역에 따라서는 권선구가 34%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장안구(25%), 영통구(23%), 팔달구(19%)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의 면적에 비교해 본 결과 가로수의 식재비율과 행정구역의 면적비가 비교적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팔달구의 경우 면적에 비해 가로수의 식재비율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가로수의 수종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은행나무가 30%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느티나무(25%), 벚나무(12%), 메타세쿼이아(6%), 양버즘나무(5%)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가로수의 식재는 도로별로 영역을 구분하여 식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원시의 경우 블록별로 식재수종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 식재된 수종의 종류에 비해 가로수의 분포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수원시에서는 양버즘나무의 식재비율이 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점이 특이하다.

3. 하천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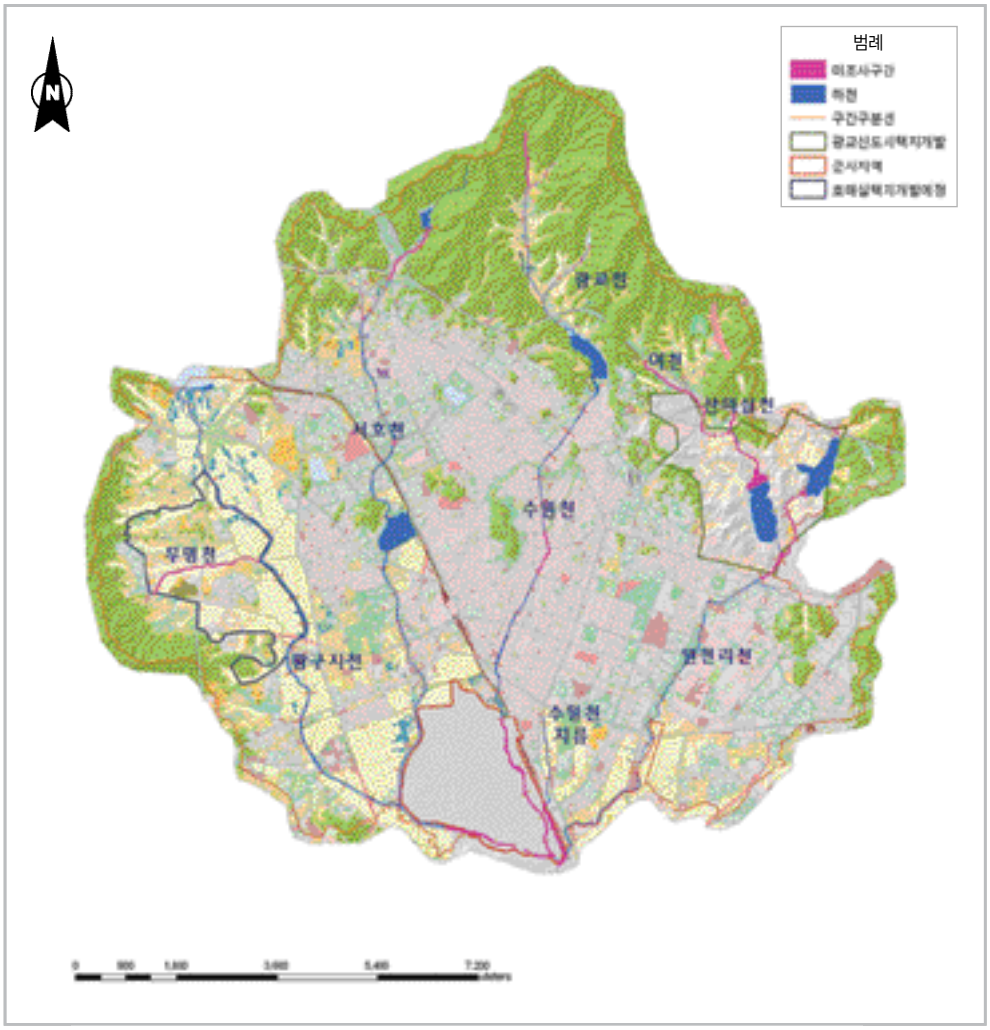
수원시의 지방 2급 하천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원천의 지류인 수원천2와 광교천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하천은 총 9개로, 하천 길이는 57.6㎞이며, 황구지천 13.5㎞, 서호천 11㎞, 원천리천 9.1㎞, 수원천 13.2㎞, 기타(광교천, 수원천2, 여천, 산외실천, 무명천) 10.8㎞이다.

이 중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광교천, 수원천 지류, 원천리천이 조사되었으며, 황구지천(1.7㎞), 수원천(2.8㎞), 수원천 지류(0.8㎞) 구간은 하천이 군사시설에 위치해 있어 조사하지 못하였다. 서호천(0.5㎞) 구간은 하천이 복개되고 접근이 어려웠으며, 저수지 상류는 정수장 구역이라 접근을 할 수 없다. 여천(약 4㎞), 산의실천(약 0.5㎞) 구간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기간 : 2004. 6.~2011. 12.)이 추진되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부 구

〈표 30〉 조사대상 하천 길이

(단위 : ㎞)

구분	하천 길이	조사한 길이	조사 못한 길이
황구지천	13.5	11.8	1.7
서호천	11.0	10.5	0.5
수원천	13.2	10.4	2.8
광교천	1.4	1.4	
수원천 지류(수원천2)	2.7	1.9	0.8
원천리천	9.1	7.1	2.0
여천	4.0		4.0
산의실천	0.5		0.5
무명천	2.2		2.2
계	57.6	43.1	14.5



〈그림 21〉 수원시 조사대상 하천

간은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정리로 손실되어 있으며, 원천리천(약 2.0㎞) 구간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무명천(2.2㎞) 구간은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사업기간 : 2004~2012, 사업착수 2006. 1. 6.~준공 2012. 12. 31.) 대상지 안에 포함되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수원시 하천은 총 57㎞이며, 하천 대부분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하천 주변으로 상가, 주거지, 아파트, 공장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 또한 수원천과 서호천, 원천리천 등은 하천둔치에 산책로, 운동시설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림 22〉 수원천 46번 구간의 복원 모습

〈그림 23〉 원천리천 76번 구간의 도로

〈그림 24〉 황구지천 6번 구간

〈그림 25〉 수원천 57번 구간의 보

있다. 또한 이들 하천은 도시하천으로 정비되어 있고, 황구지천만이 군사시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나마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하천은 상류로 갈수록 보가 늘어난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상류로 갈수록 보가 많기는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최대 한 구간(500m)에 5개의 보가 조사된 경우도 있다.

1) 하천자연도

조사지점은 총 85개 구간이며, 전체 하천의 지수평균은 3.7점으로 4등급이며, 1등급과 2등급은 없으며, 3등급 21개 구간(24.7%), 4등급 63개 구간(74.1%), 5등급 1개 구간(1.2%)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항목별로 보면 수로 발달 항목은 지수평균이 3.9점으로 4등급이며, 전체 등급에서 1등급은 없으며, 2등급 2개 구간(2.4%), 3등급 11개 구간(12.9%), 4등급 35개 구간(41.2%), 5등급 37개 구간(43.5%)으로 조사되었다. 수로의 굴곡은 54개 구간에서 4점으로 조사되었고, 5

점은 7개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측방침식은 4점 43개 구간, 5점 9개 구간이며, 종사주는 4점 구간이 60개, 5점 구간은 5개 구간이다. 특수한 수로 구조는 4점 구간이 14개 구간, 5점 구간이 59개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하천 직선화와 사주, 하중주, 하천의 정비로 등급이 낮았다.

종단면 항목은 지수평균이 3.6점으로 4등급이며, 등급분포는 1등급은 없으며, 2등급 10개 구간(11.8%), 3등급 25개 구간(29.4%), 4등급 27개 구간(31.8%), 5등급 23개 구간(27.1%)으로 조사되었다. 횡구조물이 있는 구간, 즉 보가 있는 구간은 41개 구간이며, 어도가 있는 보가 있는 구간도 4개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횡사주가 없는 구간은 63개 구간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흐름의 다양성은 주로 3점과 4점이 가장 많았다. 하천정비와 보로 인해서 등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횡단면 항목은 지수평균이 3.0점으로 3등급이며, 등급분포는 1등급과 5등급은 없으며, 2등급 20개 구간(23.5%), 3등급 46개 구간(54.1%), 4등급 19개 구간(22.4%)으로 조사되었다. 횡단면 유형으로는 '규칙적인 사다리꼴'이 63개 구간, '규칙적인 직사각형'이 22개 구간으로 조사되었고, 제방재료로는 '흙제방'이 43개 구간이며, '불투수 인공제방'도 16개로 조사되었다. 폭의 다양성은 '적당한', '경미한' 정도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하천상부 구조물은 57개 구간에서 없었으며, 28개 구간에서의 상부 구조물은 모두 교량으로 조사되었다.

하상구조 항목은 지수평균이 4.1점으로 4등급이며, 등급분포는 1등급은 없으며, 2등급 1개 구간(1.2%), 3등급 1개 구간(1.2%), 4등급 49개 구간(57.6%), 5등급 34개 구간(40%)으로 조사되었다. 저질 다양성은 69개 구간에서 '경미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특수한 하상구조는 주로 4점, 5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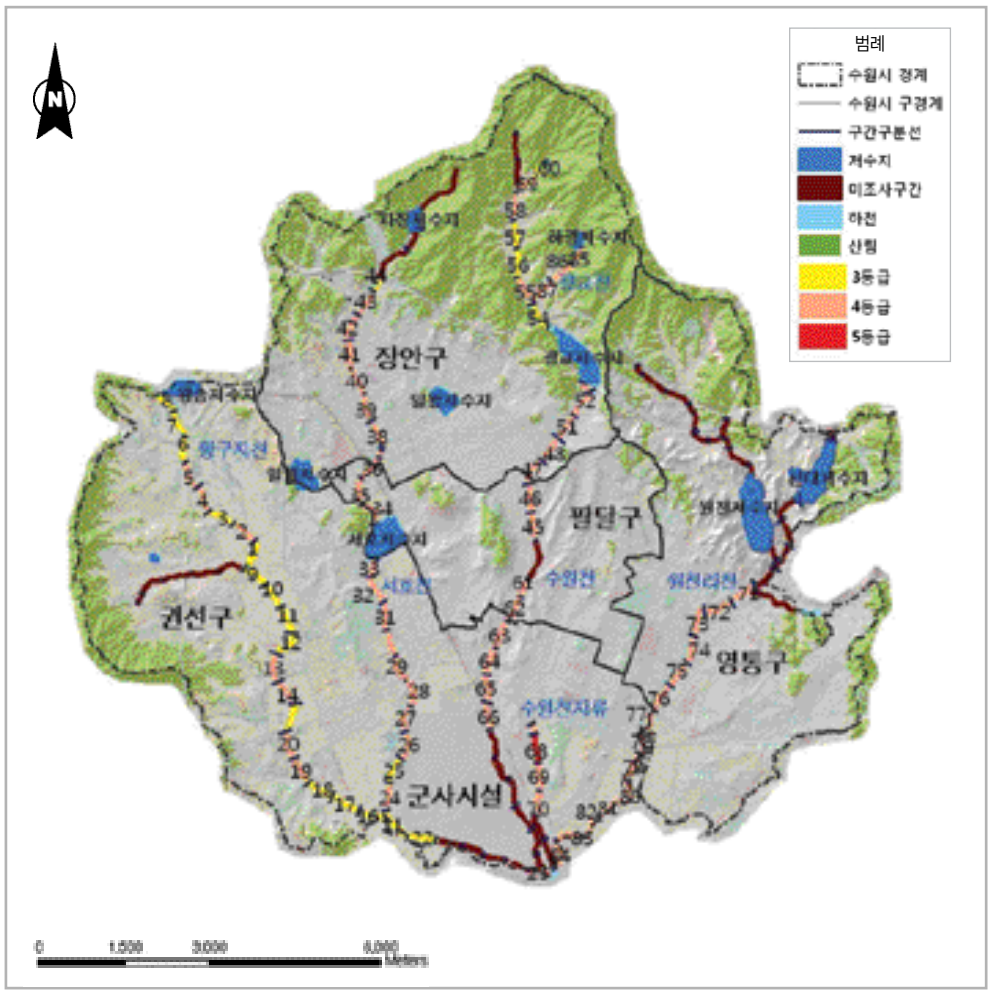
저수로변 구조 항목은 지수평균 3.3점으로 3등급이며, 등급분포는 1등급은 없으며, 2등급 2개 구간(2.4%), 3등급 57개 구간(67.1%), 4등급 20개 구간(23.5%), 5등급 6개 구간(7.1%)으로 조사되었다. 저수로변 식생은 82개 구간에서 '초지 · 저관목'이며, 호안공은 주로 자연호안과 거석식생호안이 나타나며, 콘크리트 옹벽 구간도 10개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독특한 저수로변구조는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수로변 종방향 배열은 주로 3점과 4점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하천이 많아 정비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복원이 이루어진 하천이 많아 호안공과 저수로변 종방향 배열에서 3점이 많이 조사되었다.

하천 주변 항목은 지수평균이 3.8점으로 4등급이며, 등급분포는 1등급 2개 구간(2.4%), 2등급 1개 구간(1.2%), 3등급 21개 구간(24.7%), 4등급 36개 구간(42.4%), 5등급 25개 구간(29.4%)으로 조사되었다. 인접 토지 이용으로는 55개 구간이 도시이며, 22개 구간은 농경지이다. 하천변 대상수림은 주로 다공성이 30% 이하이며, 자연스럽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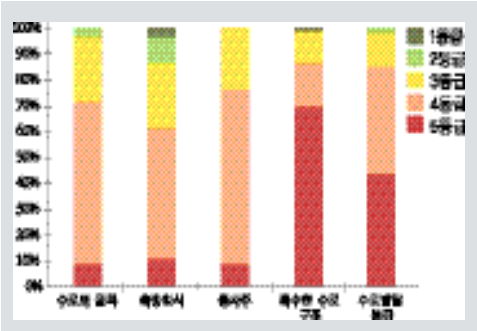
주변 구조는 차도가 15개 구간, 소로와 하천과 조화되지 않는 구조물도 48개 구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수원시 하천자연도 등급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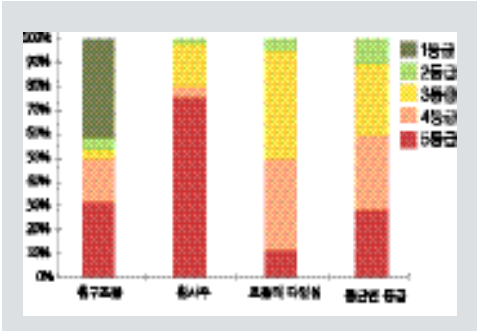
구분	수로 발달		종단면		횡단면		하상구조		저수로변 구조		하천 주변		총괄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1등급											2	2.4		
2등급	2	2.4	10	11.8	20	23.5	1	1.2	2	2.4	1	1.2		
3등급	11	12.9	25	29.4	46	54.1	1	1.2	57	67.1	21	24.7	21	24.7
4등급	35	41.2	27	31.8	19	22.4	49	57.6	20	23.5	36	42.4	63	74.1
5등급	37	43.5	23	27.1			34	40	6	7.1	25	29.4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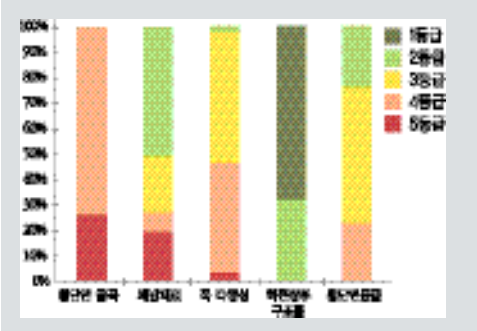
〈그림 26〉 수원시 하천자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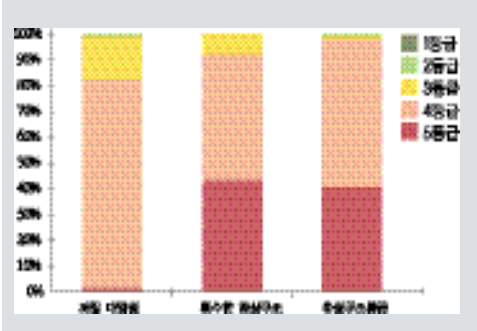
〈그림 27-1〉 수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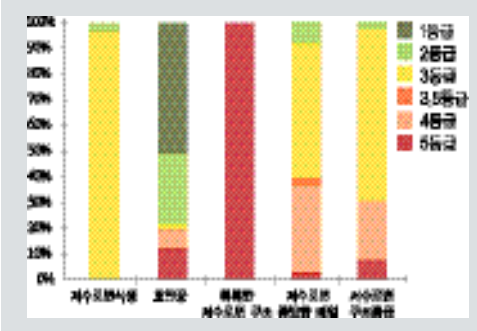
〈그림 27-2〉 종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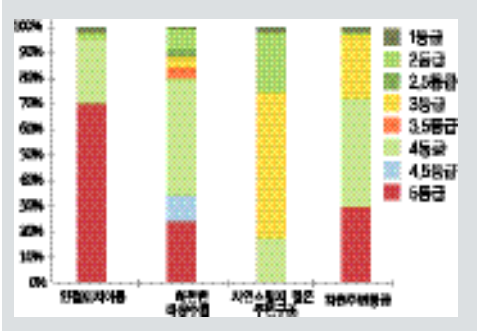
〈그림 27-3〉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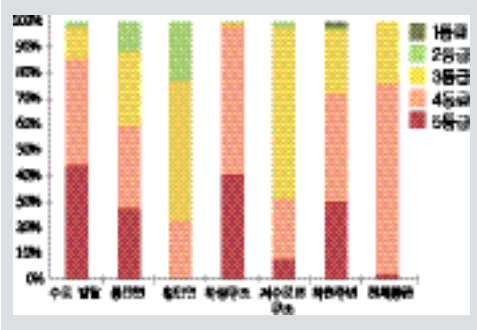
〈그림 27-4〉 하상구조



〈그림 27-5〉 저수로변 구조



〈그림 27-6〉 하천 주변



〈그림 27-7〉 전체 등급분포

2) 습지 평가와 유형 분류

습지의 일반기능평가(RAM : Rapid Assessment Method)를 통하여 수원시의 저수지 및 습지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왕송저수지, 서호저수지, 파장저수지, 광교저수지, 무명저수지,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일월저수지, 일왕저수지, 하광소류지, 사방댐(무명)으로 총 11개소의 습지를 조사하였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무명저수지를 제외한 왕송저수지, 서호저수지, 파장저수지, 광교저수지, 일월저수지, 일왕저수지, 하광소류지, 사방댐(무명) 등 총 8개 습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RAM은 습지의 기능을 8가지로 분류하며, 각각의 기능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는 능력을 평가 및 결정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수행 정도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 3단계로 평가한다. 식물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지, 어류 및 양서 · 파충류 서식지, 홍수조절, 유출량 저감, 수질보전 및 개선, 호안 및 제방보호, 미적 · 레크리에이션, 지하수 유지 등의 8가지 기능과 기능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유역의 유출 및 물질운반 능력 기능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기능은 2~12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기능별 평가의 모든 변수는 각각 3단계로 구분 평가하였다.

습지의 유형 분류 평가방법은 람사르(RAMSAR)의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적용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람사르협약에 의하면 습지유형은 크게 supersystem – system – subsystem – class – subclass 등 위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다시 세분된다. Super system은 지형학적 특성에 의해 해양 및 하구, 내륙, 인공습지로 세분된다. System은 입지조건에 의하여 해양계(Marine), 하구계(Estuarine), 하천계(Riverine), 호수계(Lacustrine), 소택계(Palustrine), 기타(Manmade, Geothermal etc.)로 세분된다. Subsystem은 수문조건에 의하며, Class는 저층, 식생피복 등에 의해, Subclass는 서식지 수준의 구체적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표 32〉 습지식생 구분

구분	특성	비고
절대습지식생 obligate wetland(OBL)	• 특정 습지환경에서만 생존하는 식생 • 자연상태의 습지조건에서 항상(99% 이상 발생)	수생식물
상대적습지식생 facultative wetland(FACW)	• 습지환경과 내륙환경 모두에서 생장이 가능한 식생 • 주로 습지환경에서 발생하며(67~99%), 습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때때로 발견	습생식물
중성식생 facultative(FAC)	• 습지조건이나 건조상태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됨(34~66%)	습생식물
습성내륙식생 facultative upland(FACU)	• 주로 습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며, 때로(1~33%) 습지에서도 발견	육상식물
내륙식생 upland(UPL)	• 침수조건에 내성이 거의 없으므로 내륙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식생(99% 이상)	육상식물

〈표 33〉 람사르협약에 의한 습지유형 분류체계

Sup-sys.	System	Sub-sys.	Class	Sub-class	code	종류
Marine and Coastal	Marine			Shallow marine waters	A	including coastal lagoons, rocky shores and coral reefs
		Subtidal	Aquatic bed	Marine aquatic beds	B	
			Reef	Coral reefs	C	
		Intertidal	Rocky	Rocky marine shores	D	
			Unconsolidated	sand/shingle beaches	E	
	Estuarine	Subtidal		Estuarine waters	F	including deltas, tidal marshes and mangrove swamps
		Intertidal	Unconsolidated	Intertidal mudflats	G	
			Emergent	Salt marshes	H	
			Forested	Mangrove, tidal forest	I	
	Lacustrine /Palustrine	Permanent / Seasonal		Brackish/saline lagoons	J	
				Coastal fresh lagoons	K	
Inland	Riverine	Perennial		Permanent river/stream	L	wetlands along rivers and streams
			Emergent	Inland deltas	M	
				Intermittent river/stream	N	
	Lacustrine	Permanent		Permanent freshwater lakes	O	wetlands associated with lakes
		Seasonal		Seasonal freshwater lakes	P	
		Permanent		Permanent saline lakes and marshes	Q	
		Seasonal		Seasonal saline lakes and marshes	R	
	Palustrine	Permanent	Emergent	Permanent freshwater ponds and marshes	Sp	marshes, swamps and bogs
				Open peat bogs, fens	U	
				Alpine wetlands	Va	
			Herb-dominated	inorganic soils freshwater marsh	Tp	
			Shrubs dominated	Shrub-dominated swamps	W	
			Forested	freshwater swamp forest	Xf	
				Peat swamp forest	Xp	
		Seasonal	Emergent	Freshwater springs, oases	Y	
				Seasonal freshwater marshes	Ss	
			Herb-dominated	inorganic soils freshwater marsh	Ts	
	Geothermal			Geothermal wetlands	Zg	
Manmade	Aquaculture			Fish, shrimp ponds	1	fish and shrimp ponds, farm ponds, irrigated agricultural land, salt pans, reservoirs, gravel pits, sewage farms and canals
	Agriculture			Farm ponds, small tanks	2	
				Irrigated land, rice fields	3	
				Seasonally-flooded arable land	4	
	Salt exploitation			Salt pans, salines	5	
	Urban and Industrial			Reservoirs, barrages	6	
				Gravel pits	7	
				Sewage farms	8	
				Canals and drainage channels / ditches	9	

비고 : "floodplain" is a broad term used to refer to one or more wetland types, Which may include examples from the R, Ss, Ts, W, Xf, Xp, or other wetland types. Some examples of floodplain wetlands are seasonally inundated grassland (including natural wet meadows), shrublands, woodlands and forests. Floodplain wetlands are not listed as a specific wetland type herein.

〈표 34〉 RAM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높음	보통	낮음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 서식지	다른 습지까지의 거리	400m 이하	400~1,000m	1,000m 이상
	식물 군집의 수	3개 이상	2개	1개
	식물 군집의 혼재도	높음	보통	낮음
	습지의 규모	8㏊ 이상	8~0.4㏊	0.4㏊ 이하
	주변 토지이용	3.0~2.4	2.3~1.7	1.6~1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있음	–	없음
어류 및 양서파충류 서식지	영구적인 수체와의 관련성	400m 이하	400~1,000m	1,000m 이상
	개방수면의 비율	호수 가장자리	계절적 범람원	관계없음
	개방수면과 식생피복과의 혼재도	e, c, d	b, g, f	a, h
	수문 침수 정도	상시 침수	계절적 침수	포화 또는 간헐적 침수
	식생형	3.0~2.4	2.3~1.7	1.6~1
홍수 저장 및 조절	유역의 표면 유출	있음	–	없음
	다른 지표수와의 연결 관계	범람원	호소변/하천변	연결 안됨
	유입 형태	홍수유량의 직접 유입	직접적인 지표 연결	홍수 유량 유입 없음
	유출 형태	출구 없음	제한 또는 조절됨	방해받지 않는 출구
	습지 규모	8㏊ 이상	8~0.4㏊	0.4㏊ 이하
	유역에 대한 습지의 면적비	0.02 이상	0.02~0.01	0.01 이하
표면유하 저감	유역권의 표면 유출	있음	–	없음
	유입 형태	홍수유량의 직접 유입	직접적인 지표 연결	홍수 유량 유입 없음
	유출 형태	출구 없음	제한 또는 조절됨	방해받지 않는 출구
	육역과 수역의 혼재도	e, c, d	b, g, f	a, h
	수문 침수 정도	상시 침수	계절적 침수	포화 또는 간헐적 침수
	수로 또는 넓은 지표면 유출	포상류	포상류와 하도 유출	하도 유출
	식생형	3.0~2.4	2.3~1.7	1.6~1
	습지 규모	8㏊ 이상	8~0.4㏊	0.4㏊ 이하
수질 보호 및 개선	유역의 유출능	있음	–	없음
	유입원의 형태	홍수유량의 직접 유입	직접적인 지표 연결	직접 지표연결 안 됨. 유입구 없음. 제한적 유입구
	유출구의 형태	출구 없음	제한 또는 조절됨	방해받지 않는 출구
	개방수면의 면적비	0~29%	30~74%	75~100%
	최대 수심	15㎝ 이하	–	15㎝ 이상
	수문 주기	지속적 침수 범람	계절적 침수 범람	침윤 또는 간헐적 침수
호안 및 제방 보호	지표수 흐름 유형	분산	선형 수로와 분산	선형 수로
	식생형	3.0~2.4	2.3~1.7	1.6~1
	식생대 폭	3m 이상	3~1.5m	1.5m 이하
	침식의 흔적	있음		없음
	토지 이용	3.0~2.4	2.3~1.7	1.6~1
	바람방향에 대한 수체의 형상	길다	보통	짧음
	인근 수체의 위치	북쪽	동쪽	서쪽 혹은 남쪽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높음	보통	낮음
호안 및 제방 보호	빙하 및 얼음 덩이의 흔적	있음	–	없음
	보트 통행의 흔적	있음	–	없음
미적 · 레크리에이션	현존 식생의 종류	3종 이상	2종	1종
	접근성	자유롭게 접근	도로	접근성 불량
	시각적 개방성	완전 개방	대체로 개방, 잘 보임	폐쇄되어 잘 안 보임
	폐기물 등의 흔적	없음	약간 있음	많음
	야생동물 서식지	3.0~2.4	2.3~1.7	1.6~1
	어류 서식지	3.0~2.4	2.3~1.7	1.6~1
지하수 유지 및 보충	토양 특성	모래 또는 사질 양토	미사질 양토, 양토	식질 양토, 이탄, 점토
	습지와 유역의 면적비	0.02 이상	0.02~0.01	0.01 이하
	인근 유역의 유출능	있음	–	없음
	유출구의 형태	출구 없음	제한 또는 조절됨	방해받지 않는 출구

〈표 35〉 RAM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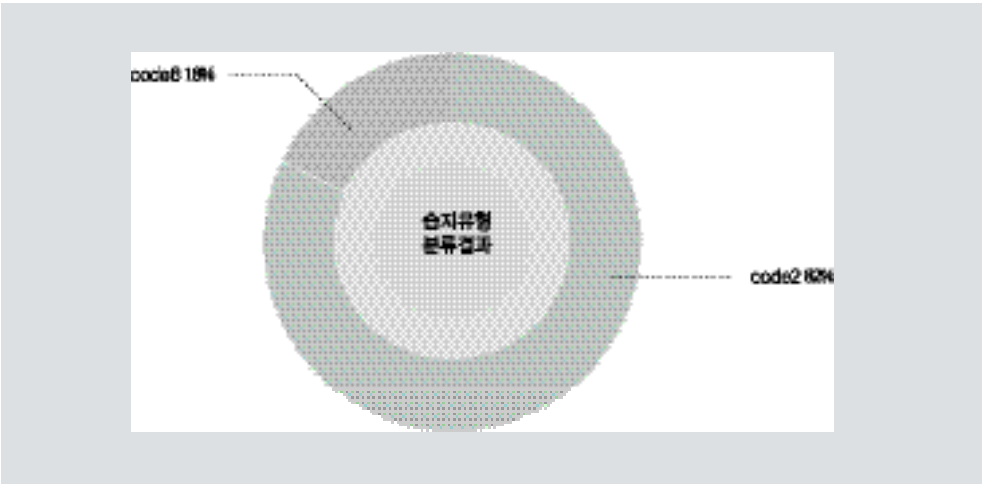
식생다양성 및 야생동물서식지 – 주변토지이용 평가			어류 및 양서류서식지 – 식생유형		
토지이용	평가등급	평가점수	군락	평가등급	평가점수
도시 : 산업적	낮음	1	부엽식물군락	높음	3
도시 : 상업적	낮음	1	침수식물군락	높음	3
도시 : 고밀도거주	낮음	1	정수식물군락	높음	3
도시 : 중밀도거주	보통	2	관목군락	낮음	1
도시 : 저밀도거주	보통	2	낙엽성활엽수군락	보통	2
농업/목장	보통	2	침엽성교목군락	낮음	1
산림/개방된 전원	높음	3	사초식물목초지/습한 목초지	높음	3
도시개방(놀이지역, 공원)	보통	2	깊은 개방수면/조류(algae)	보통	2
고속도로/길	낮음	1	other (explain) 기타 (설명)		
물/습지	높음	3			

표면 유하 저감 – 식생유형			제방 및 호안 안정 – 식생유형			제방 및 호안 안정– 토지이용		
군락	평가 등급	평가 점수	토지이용	평가 등급	평가 점수	토지이용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부엽식물군락	낮음	1	부엽식물군락	낮음	1	도시 : 산업적	높음	3
침수식물군락	낮음	1	침수식물군락	낮음	1	도시 : 상업적	높음	3
정수식물군락	높음	3	정수식물군락	높음	3	도시 : 고밀도거주	높음	3
관목군락	보통	2	관목군락	보통	2	도시 : 중밀도거주	보통	2
낙엽성활엽수군락	낮음	1	낙엽성활엽수군락	낮음	1	도시 : 저밀도거주	낮음	1
침엽성교목군락	낮음	1	침엽성교목군락	낮음	1	농업/ 목장	보통	2
사초식물목초지/습한 목초지	높음	3	사초식물목초지/습한 목초지	높음	3	산림/ 개방된 전원	낮음	1
깊은 개방수면/조류(algae)	낮음	1	깊은 개방수면/조류(algae)	낮음	1	도시개방(놀이지역, 공원)	낮음	1
1other (explain) 기타 (설명)			other (explain) 기타 (설명)			고속도로 / 길	높음	3
						물 / 습지	낮음	1

〈표 36〉 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 야장(예)

지점번호	1	SITE MAP
습지명	광교저수지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지점좌표		
습지면적	30㏊	
조사구간	제방 위	
습지유형	Sp, 6	
습지현황	상수도 보호지역	
수문현황	상수도를 위해 물을 모아 둔 인공제방에 의해 형성	
식생현황	소나무, 참나무류, 갈대	
토양현황	미사질양토, 양토	
특기사항	상수원보호지역, 유입구와 유출구는 공원과 인접해 있음	
습지현황 그림		
조사연월일	2009년 5월 29일	
조사자	조용현, 정종환, 최대희	

수원시에 위치한 11개의 습지를 대상으로 람사르 습지유형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해 보면 유형 2와 6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인공제방으로 생긴 인공습지로 농업용 저수지와 정수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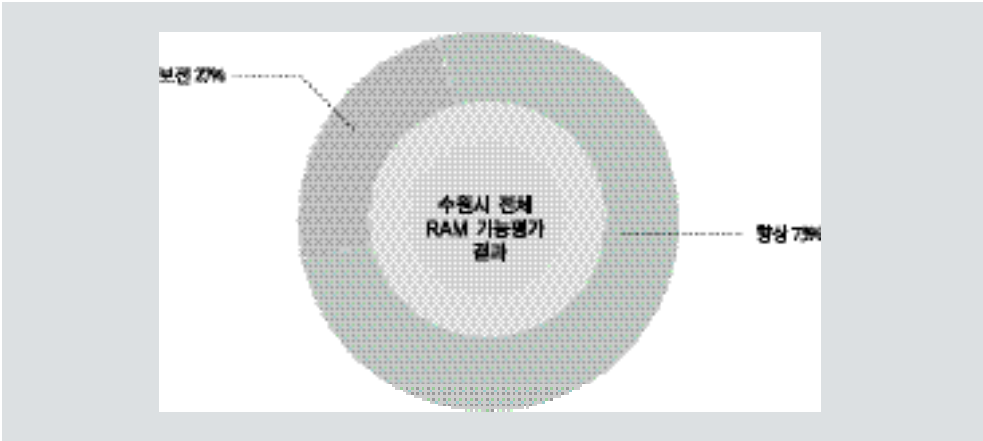
〈그림 28〉 습지유형 분류결과

정수장으로 이용되는 곳은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로 상수도시설이 갖춰져 있다. 식생은 주로 갈대, 버드나무, 소나무, 참나무류 등이 나타났으며, 공원화로 인한 조경수와 화훼류가 조사되었다. 토양은 대부분 미사질 양토, 양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습지 주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농업용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였으나, 일부 도시화와 주거지의 밀집화에 따라 공원으로 변화되었다.

〈표 37〉 수원시 습지유형 분류결과

습지명	Sup-sys.	System	Sub-sys.	Class	Sub-class	code
광교저수지	Man-made	Urban and Industrial			Reservoirs, barrages	6
사방댐	Man-made	Agriculture			Farm ponds, small tanks	2
서호저수지	Man-made	Agriculture			Farm ponds, small tanks	2
왕송저수지	Man-made	Agriculture			Farm ponds, small tanks	2
일왕저수지	Man-made	Agriculture			Farm ponds, small tanks	2
일월저수지	Man-made	Agriculture			Farm ponds, small tanks	2
파장저수지	Man-made	Urban and Industrial			Reservoirs, barrages	6
하광저수지	Man-made	Agriculture			Farm ponds, small tanks	2

RAM 평가는 선택된 평가지표에 따라 산정된 값을 더한 후 평가지표 개수로 나눈 값이 평가항목의 산출점수가 된다. 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점수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의 3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전 복원 전략의 방향설정에서 높음으로 나타난 습지는 보전, 보통으로 나타난 습지는 향상, 낮음으로 나타난 습지는 복원 혹은 향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수원시 전체 RAM 기능평가 결과를 보면 보전은 3개소로 27%를 차지하였고, 향상은 5개소로 7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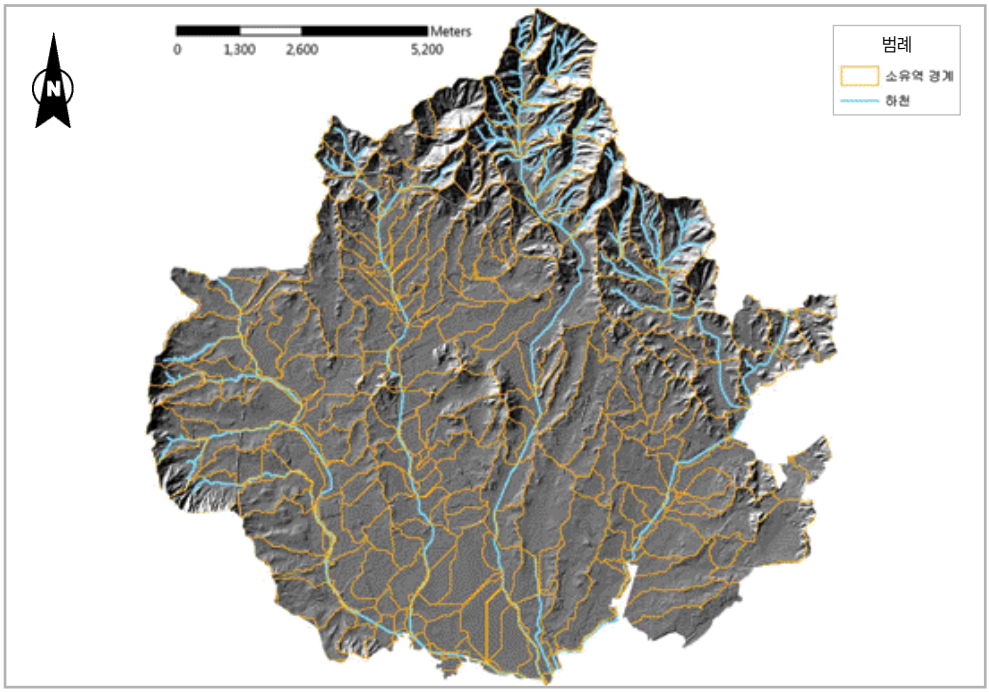


〈그림 29〉 수원시 전체 RAM 기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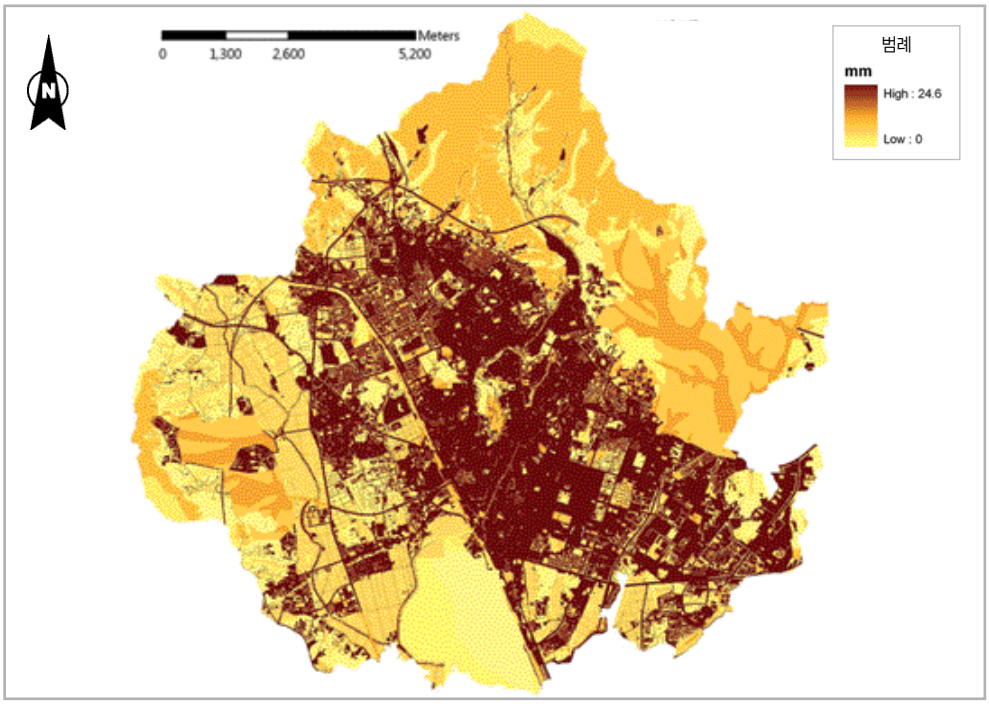
보전등급 판정을 받은 습지는 광교저수지, 파장저수지, 하광저수지이다. 이 중 하광저수지는 평가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지역이므로 보전등급으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위의 3개 습지는 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한 단계 낮은 향상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습지 대부분이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화가 이루어져 있고 주민들의 이용도 많았다. 이에 따른 습지와 연계된 공원이용계획과 습지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소유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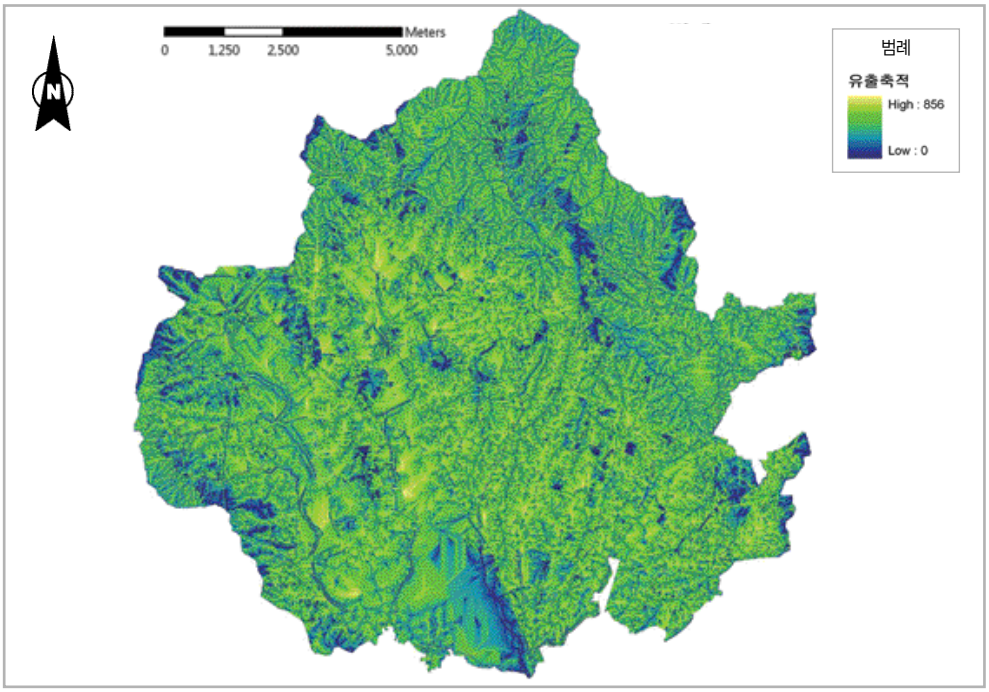
소유역도를 구축한 결과 산악지역은 골짜기를 중심으로 유역이 형성되었고, 도심지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유역이 형성되었다. 수원시의 경우 산림 면적보다 도심지역의 면적이 더 넓고, 하천이 도심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주로 하천에 따라 유역이 형성되었다.



〈그림 30〉 소유역도



〈그림 31〉 유출량



〈그림 32〉 유출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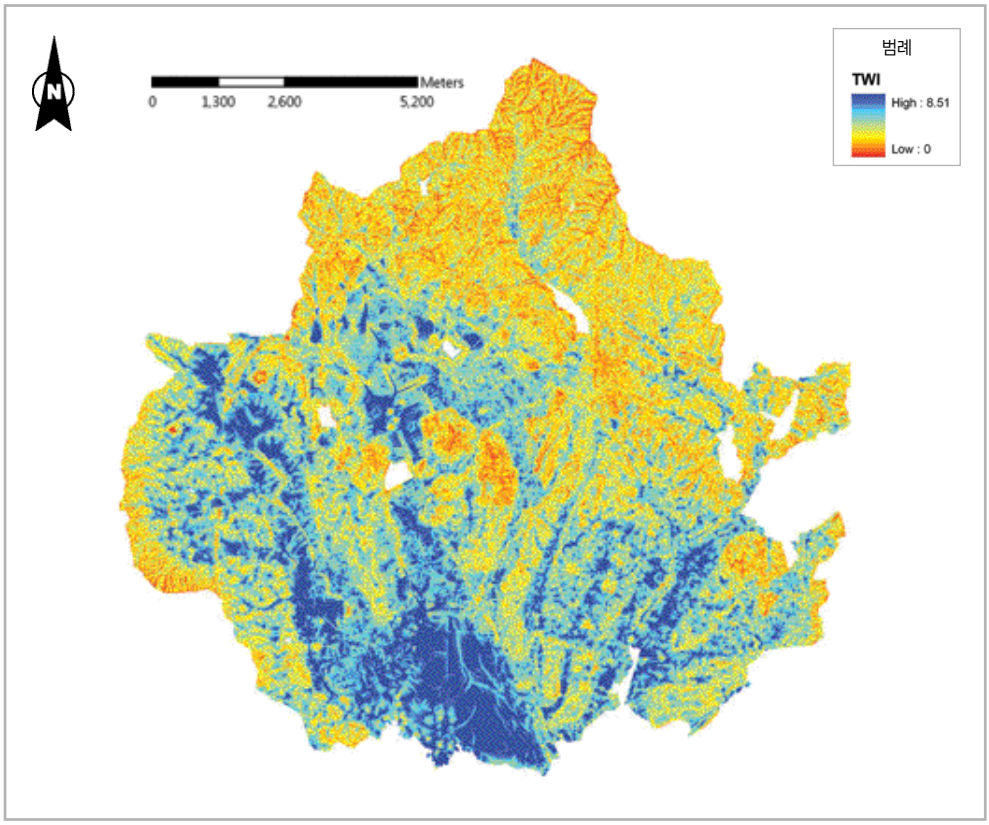
4) 유출량과 유출축적

유출량을 분석한 결과 불투수면이 많은 중앙의 도심지역은 유출량이 높고, 강우가 투수되는 북쪽의 광교산과 서쪽의 칠보산 지역은 유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축적을 분석한 결과 지형의 굴곡과 고도차가 큰 산림지역에서 유출축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출수가 광교산의 능선에서 골짜기로 이동하고, 수원천 · 서호천과 합류한 뒤 황구지천을 통해 수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5) 토양 습윤도

토양 습윤지수를 분석한 결과 산림지역의 능선과 계곡에 따라 습윤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수문분석 주제도는 대상지의 물 순환 기능을 파악하고 건강한 물순환 기능을 복원,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수계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생물조사 및 서식지 분석에 활용된다.



〈그림 33〉 토양 습윤지수

4. 동물 서식지

생태계 구성원 중 동물은 동적 자원으로서 생태계의 물질순환에 관여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또한, 동물 자원은 환경교육 자원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수원시내 동물상 및 서식지를 분석하여 도시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부 동물인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였으나, 미생물 등 도시생태계에서 상당한 동물 자원은 도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곤충 서식지 모형

곤충 서식지 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딱정벌레와 개미에 대

해서 진행하였다. 딱정벌레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은 먹이가 풍부하고 서식지 질이 양호함을 나타내며, 개미는 서식환경이 다양한 곳에서 여러 종이 나타나므로 딱정벌레와 개미가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곤충 서식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딱정벌레와 개미 종수를 선택하였다. 곤충 개체수의 경우 조사 당시의 상황에 따라 발견되는 개체수의 변동이 크므로 모형 제작에서 제외하였다. 곤충 조사 자료는 함정트랩 분류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표를 기어 다니는 산지성 곤충을 채집하는 함정트랩 방법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정량적인 자료를 얻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황색트랩 분류 결과는 속과 과 수준에서 분류되어 종수 분포를 비교하기에 부적합하였으므로 함정트랩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 중 분포가 안정적으로 나타난 99개 지점의 자료를 모형 구축에 사용하였다.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공간자료로 구축하였다.

〈표 38〉 곤충 서식지 모형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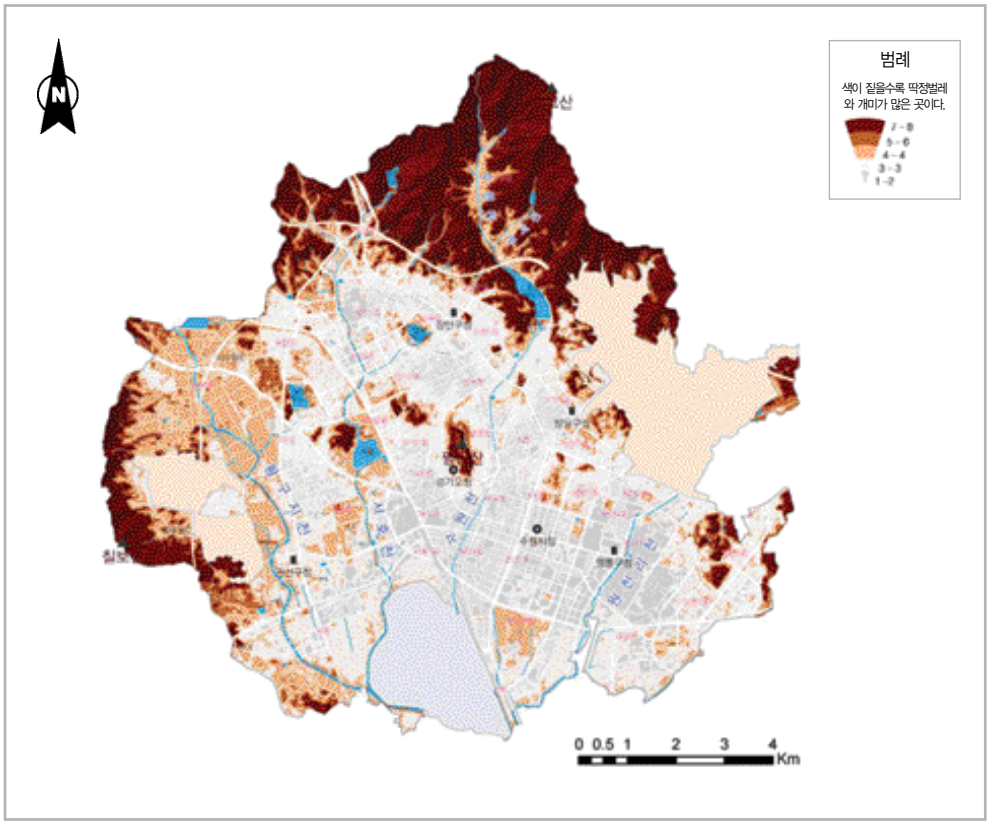
변수	지점	주변	지점/주변 비
토양습도	swet_i	swet_i_fs	swet_i_r
식생활력도	ndvi	ndvi_fs	ndvi_r
초본피도	sw_all_hc	sw_all_hc_fs	sw_all_hc_r
관목피도	sw_all_sc	sw_all_sc_fs	sw_all_sc_r
인간영향	inshum_i	inshum_i_fs	inshum_i_r
산림까지 거리비용	fordis_i	fordis_i_fs	fordis_i_r
식생하부 도달 일사량	sw_all_rad	sw_all_rad_fs	sw_all_rad_r

구축된 딱정벌레와 개미 종수 모형(INSECT)은 다음과 같다.

$$
\begin{aligned}
\text{INSECT} = 4.253 &+ [\text{ndvi}] * (3.474) \\
&+ [\text{inshum_i}] * (-0.001) \\
&+ [\text{sw-all_rad}] * (-0.0000652) \\
&+ [\text{sw_all_sc_fs}] * (0.005) \\
&+ [\text{fordis_i}] * (-0.0000122) \\
&+ [\text{swet_i}] * (0.326)
\end{aligned}
$$

$R^2 = 0.626$

구축된 모형을 대상지 전 공간에 적용하여 딱정벌레와 개미의 종수를 예측하였다. 바탕



〈그림 34〉 딱정벌레와 개미 종수 모형

지도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딱정벌레와 개미의 종수가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서식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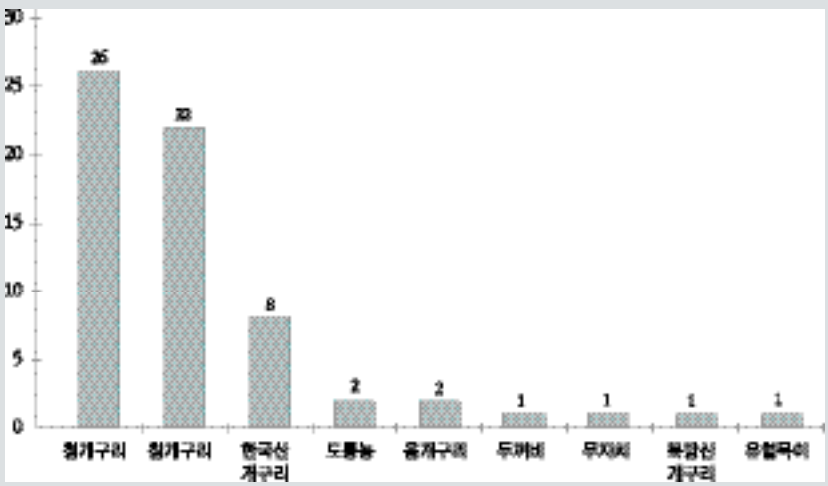
2) 양서파충류상과 서식지 모형

2009년 5~6월에 150개 지점을 대상으로 양서파충류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개 지점에서 총 64개의 양서파충류 흔적을 발견하였다. 양서파충류 흔적은 목견이나 청음을 통해 개체를 확인하거나 유생, 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출현 종은 주로 칠보산과 광교산의 산림지역 계곡과 이 산림지역에 가까운 서남부 지역의 논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논에서 물을 대지 않거나 물을 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서류의 유생 및 성체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원시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심

지에서는 양서파충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 수원 지역의 상당부가 양서파충류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산림과 농경지가 만나는 부분이 양서파충류 서식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발견된 종은 유혈목이, 무자치 등 파충류 2종과 도롱뇽, 두꺼비, 북방산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등 양서류 총 7종이 발견되었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1종도 발견되지 않았다. 참개구리와 청개구리가 발견된 지점이 발견 지점의 77%가량인 48곳에 달한다는 점과 발견지점의 대부분이 인간교란의 영향이 큰 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 지역의 양서파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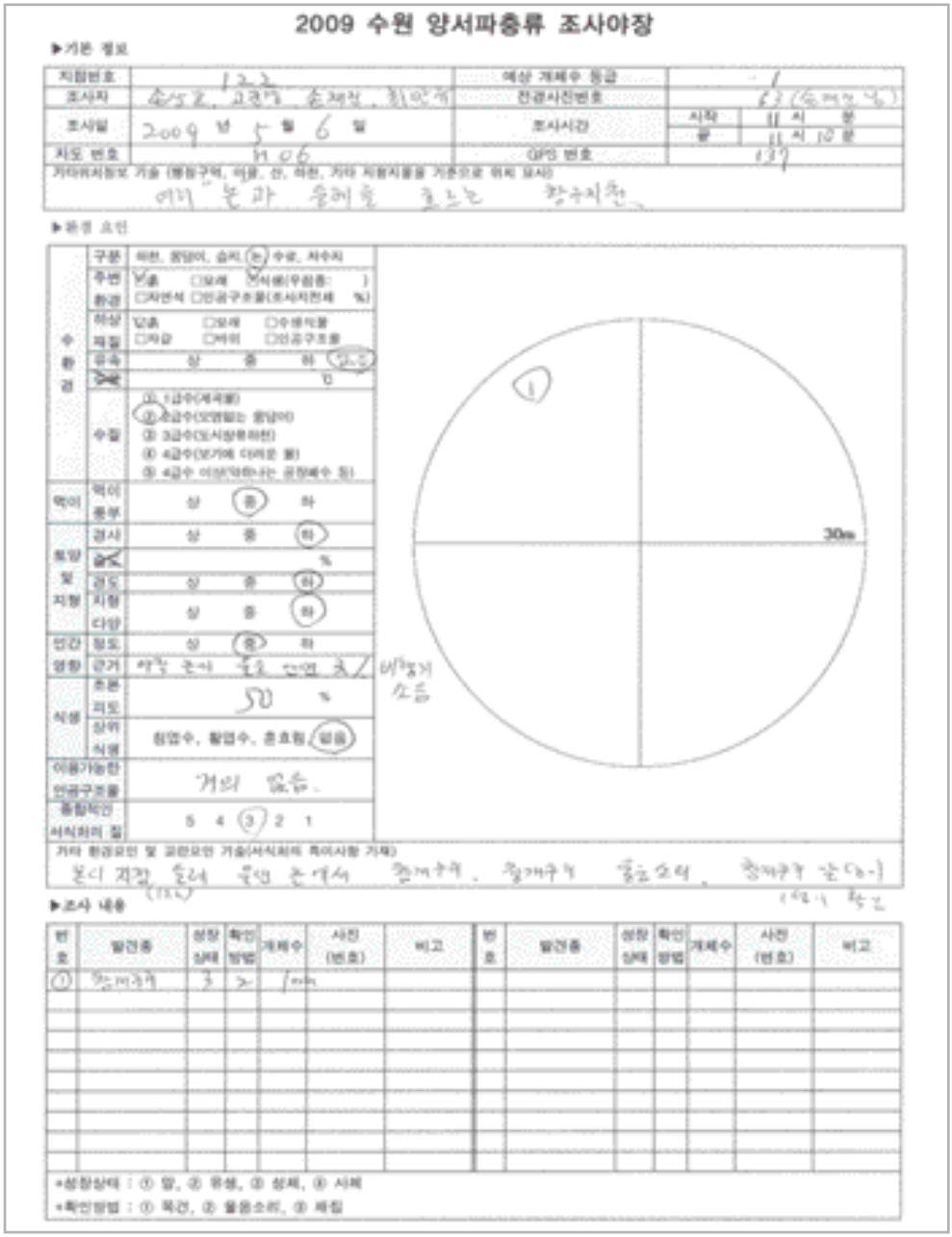
〈표 39〉 서식이 확인된 양서파충류 목록

구분	목	과	종	학명	발견된 조사지수
파충류	뱀목	뱀과	무자치	*Elaphe rufodorsata*	1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1
양서류	도롱뇽목	도롱뇽과	도롱뇽	*Hynobius leechii*	2
	개구리목	두꺼빗과	두꺼비	*Bufo bufo gargarizans*	1
	무미목	청개구릿과	청개구리	*Hyla japonica*	26
		개구릿과	참개구리	*Rana nigromaculata*	22
			한국산개구리	*Rana coreana*	8
			옴개구리	*Rana rugosa*	2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1
합계				9종	64



〈그림 35〉 종별 발견된 지점수

〈표 40〉 양서파충류 조사 야장



2009 수원 양서파충류 조사야장

▶기본 정보

지점번호	132	예상 개체수 등급	1
조사자	손석호, 고경기, 손재선, 최인기	전경사진번호	63 (동쪽 방향)
조사일	2009 년 5 월 6 일	조사시간	시작 11 시 분 / 끝 11 시 10 분
지도 번호	H06	GPS 번호	137

기타위치정보 기술 (행정구역, 이정, 산, 하천, 기타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위치 묘사)
여러 본과 줄레줄 초르는 황구지천

▶환경 요인

수환경	구분	하천, 웅덩이, 습지, 논, 수로, 저수지
	주변 환경	논, □밭, □묘재, 식생(우점종:), □자연석, □인공구조물(조사지전체 %)
	하상 재질	논, □모래, □수생식물, □자갈, □바위, □인공구조물
	유속	상 중 하 (0.3)
	깊이	0
	수질	① 1급수(계곡물) ② 2급수(모맹물는 웅덩이) ③ 3급수(도시상류하천) ④ 4급수(보기에 더러운 물) ⑤ 4급수 이상(악취나는 공장폐수 등)
먹이	먹이 풍부	상 (중) 하
토양 및 지형	경사	상 중 (하)
	습도	%
	경도	상 중 (하)
	지형 다양	상 중 (하)
인간 영향	정도	상 (중) 하
	근거	사람 존재 중요 인연 조/ 비행기 소음
식생	초본 피도	50 %
	상위 식생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없음)
이용가능한 인공구조물		거의 없음.
종합적인 서식처의 질		5 4 (3) 2 1

기타 환경요인 및 교란요인 기술(서식처의 특이사항 기재)
본디 지점 (132) 동네 존재서 참개구리, 참개구리 울고소리, 참개구리 군데 (132.1 참고)

▶조사 내용

번호	발견종	성장상태	확인방법	개체수	사진(번호)	비고	번호	발견종	성장상태	확인방법	개체수	사진(번호)	비고
①	참개구리	3	2	1mm									

*성장상태 : ① 알, ② 유생, ③ 성체, ④ 사체
*확인방법 : ① 목견, ② 울음소리, ③ 채집

서식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전역에서 비행기 소음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비행장 인근 주민에 따르면 무자치 · 유혈목이 · 맹꽁이 등이 나타난다고 하여 지속적

〈그림 36〉 두꺼비 올챙이

〈그림 37〉 참개구리

인 소음은 교란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 듯하다.

양서파충류 서식지 모형화를 검토하고 양서파충류 서식지 기능의 중요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번식처, 동면, 먹이와 물 등 주요 특성을 기술하였다. 특성은 양서류와 파충류로 나누어 대표 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양서파충류의 서식지 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위의 기술 사항을 바탕으로, 양서파충류 서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량화할 수 있는 서식지 변수를 추출하였다.

〈표 41〉 양서파충류의 서식특성

구분			번식처	동면
양서류	개구리	산지형(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2~6월 물이 유지되어야 함. 유속이 느린 곳 물 가운데보다는 물가 선호 하변은 인공구조물이 아닌 것 수질은 약 2등급(BOD 중요) 햇빛이 비쳐 수온이 유지되면 좋음. 식생은 상관없음. 하천, 웅덩이, 물이 솟는 곳, 계곡 주변 평지 수량이 유지되는 지천의 하류 쪽	계곡 상류의 물 속 하상재질이 바위일 것 수량이 유지될 것(소) 수질이 맑을 것
		평지형(참개구리, 두꺼비)		습기 많고 바위 없고 부드러운 땅 50㎝ 파고 들어감. 미지형(산 쪽보다는 끝자락 쪽), 수분, 경도, 토양층 두께
	도롱뇽		평지형 수로에는 없고, 계곡 1급수에서만 서식함.	개구리와 비슷함.
파충류	거북목(자라, 남생이, 붉은귀거북)		탄천 본류, 지류의 하류 쪽 물가 모래톱 반경 5m 물가에서 약간 높게	유속이 빠르지 않고, 수심이 깊은 물속
	장지뱀(도마뱀) 아무르장지뱀		좋은 토질의 습도가 유지되는 초지, 산 주변, 버려진 초지. 파기 쉬운 곳을 1~3㎝ 파서 수분이 유지되는 곳 교목은 상관없음.	큰 산의 논, 밭, 쓰러진 나무 아래의 땅 밑 구멍, 바위틈, 옛날 집, 지푸라기 밑
	뱀	산지형(살모사)	땅 밑. 빼앗은 굴, 나무뿌리 틈, 썩은 나무둥지, 바위틈, 지푸라기 밑, 옛날 집	자연굴, 쥐굴, 남사면의 깊은 바위굴
		초지형(유혈목이)		
		물(물뱀)	논 물속. 새끼로 낳음.	물가

구분			먹이	물	기타
양서류	개구리	산지형(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상류로 올라가서 먹이자원을 찾음. 숲으로 들어갈 때는 물에서 200m 정도 떨어질 수 있음. 하층식생 있는 활엽수림이 먹이자원 풍부함. 유생 : 물속의 유기물, 물고기 사체, 벌레 사체, 서로 성체 : 거미, 파리, 모기, 잠자리, 지렁이, 수서곤충, 작은 물고기 등	유생 : 물속에서 생활함 성체 : 피부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함. 숲 내에서는 이슬, 나뭇잎으로 물기를 취할 수 있음.	침엽수는 먹이, 물, 생활환경이 좋지 않음. 포식자 : 너구리, 뱀, 때까치, 백로, 해오라기
		평지형(참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개구리와 비슷함.	개구리보다 더 물과 밀접함.	
파충류	거북목(자라, 남생이, 붉은귀거북)		산 물고기, 죽은 물고기	물속에서 주로 생활함. 햇빛 쬐러 바위 위로 나옴.	물풀은 없는 것이 나음. 하변 재질은 생활에는 상관없음.
	장지뱀(도마뱀), 아무르장지뱀		초지나 산림, 나무 위의 개미, 지네, 거미, 쥐며느리 지렁이 등 작은 것	물을 먹이나 이슬에서 섭취하므로 서식공간에 물이 필요하지 않음.	체온 유지를 위해 양지바른 곳이 필요함. 포식자 : 새, 뱀 포식자로부터 은폐하기 위한 관목
	뱀	산지형(살모사)	초지, 산림 어릴 때 : 작은 개구리, 벌레, 지렁이 커서 : 쥐. 개구리, 새, 새알, 다람쥐	물은 필요하지 않으나, 하천 주변이 먹이자원 풍부함. 물속에서만 생활함.	체온 유지를 위해 양지바른 곳 필요함. 등산로는 피함. 포식자 : 청설모, 까치, 어치오소리, 고슴도치
		초지형(유혈목이)			
		물(물뱀)			

〈표 42〉 서식지 변수 추출(양서류, 파충류)

구분		동면처	산란처	먹이	생활환경	인간영향
양서류	산지형 개구리	하천맥락(계곡 상류부) 수량 하상재질(입자크기)(+)	수심 유속(-) 수온	물속 유기물 양(+) 수서곤충 양(+) 숲속 곤충 접근편익/비용(+)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활엽수/침엽수비율(+)	용존산소(+) 수질오염(BOD,전기전도도)(-) 하변 인공구조물 비율(-)
	평지형 개구리	토양 수분(+) 토양 경도(-) 토심(+)				
	도롱뇽	하천맥락(계곡 상류부) 수량	하천맥락(계곡 상류부) 수량	수서곤충 양(+) 숲속 곤충 접근편익/비용(+)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활엽수/침엽수 비율(+)	용존산소(+) 수질오염(BOD,전기전도도)(-) 하변 인공구조물 비율(-)
파충류	거북	수심(+) 유속(-)	하천맥락(하류) 사주부 면적(+)	어류 양(+)	하중도 면적(+) 노출바위 면적(+)	용존산소(+) 수질오염(BOD,전기전도도)(-)

구분		동면처	산란처	먹이	생활환경	인간영향
파충류	장지뱀	큰 산의 논, 밭, 쓰러진 나무 아래의 땅 밑 구멍, 바위틈, 지푸라기 밑, 옛날 집	초본 피도(+) 토양 수분(+) 토양 경도(-)	곤충 양(+)	일사량(+) 관목 피도(+)	없음
	뱀	자연굴, 쥐굴 남향(+)	땅 밑, 빼앗은 굴, 나무뿌리 틈, 썩은 나무둥지, 바위틈, 지푸라기 밑, 옛날 집	곤충 양(+) 양서류 양(+) 쥐 양 (+)	일사량(+)	인간영향요소, 등산로로부터 거리/강도(+)

양서파충류 서식지 모형화는 양서류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양서류의 개체수를 선택하였다.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 중 77개 지점의 자료를 모형 구축에 사용했으며, 알이나 유생으로 발견된 지점의 경우 성체 한 마리를 발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공간자료로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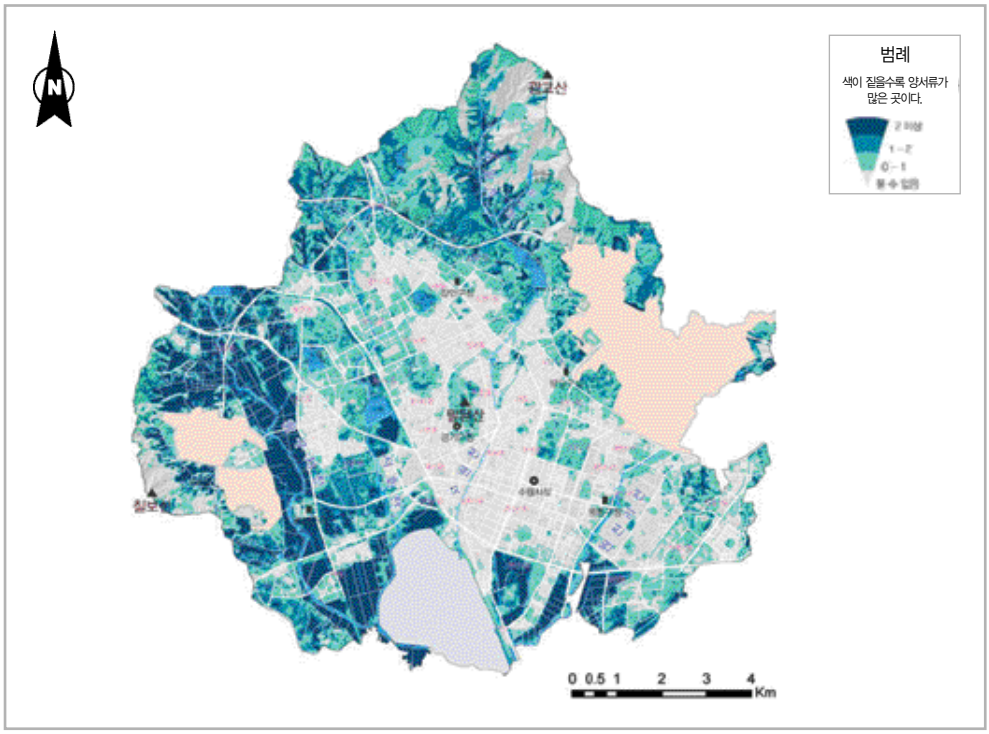
〈표 43〉 양서류 서식지 모형 변수

변수	지점	주변	지점/주변 비
토양습도	swet_am	swet_am_fs	swet_am_r
인간영향	inshum_a	inshum_a_fs	inshum_a_r
산림까지 거리비용	fordis_a	fordis_a_fs	fordis_a_r
초본피도	sw_all_hc	sw_all_hc_fs	sw_all_hc_r
경사도			slope_r
식생하부도달 일사량	sw_all_rad	sw_all_rad_fs	sw_all_rad_r

구축된 양서류 개체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구축된 모형을 대상지 전 공간에 적용하여 양서류 개체수를 예측하였다. 바탕지도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양서류가 많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나타낸다.

$$
\begin{aligned}
\text{am_model} = 1.46924 &+ [\text{fordis_a_fs}] * (-0.0000043) \\
&+ [\text{inshum_a_fs}] * (-0.00517) \\
&+ [\text{slope_r}] * (-0.104) \\
&+ [\text{sw_all_hc}] * (0.017) \\
&+ [\text{sw_all_rad}] * (0.0000701) \\
&+ [\text{swet_am}] * (0.048)
\end{aligned}
$$

$R^2 = 0.474$



〈그림 38〉 양서류 개체수 모형

3) 조류상과 서식지 모형

조류는 총 12목 26과 55종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천연기념물은 3종(소쩍새, 붉은배새매, 황조롱이)만 확인되었다.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인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올빼미가 기록되었고 백로류, 오리류, 도요류 등 물새류와 딱따구리류와 박새류 등 산림성 조류가 기록되어 수원 지역의 잠재적 조류상은 풍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에서 기록된 기존 연구 자료와 비교하여 찌르레기, 흰눈썹황금새 등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향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밝혀내야 하지만, 건강한 산림과 계류 보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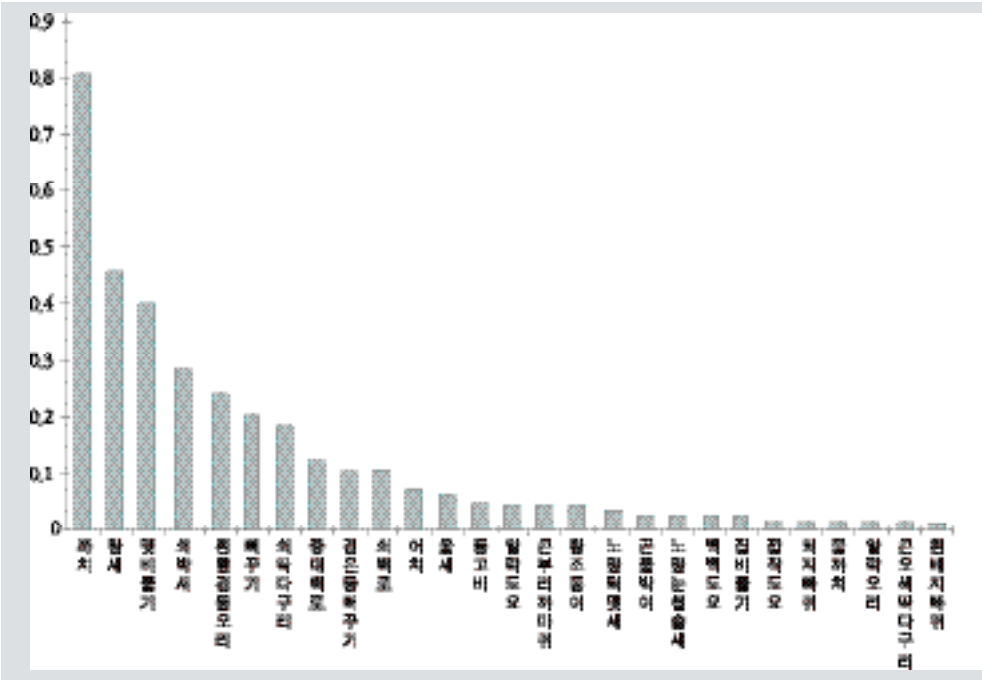
총 100개 지점에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종은 까치로서 0.81 빈도를 나타냈고, 직박구리, 참새, 박새, 멧비둘기, 꾀꼬리, 쇠박새 순이었다. 출현빈도가 0.01을 나타낸 종은 깝작도요, 알락오리 등 물새류와 노랑허리솔새, 흰눈썹울새 등 나그네새가 포함되어 있었고, 되지빠귀, 흰배지빠귀, 숲새, 진박새, 큰오색딱따구리 등 산림성 조류의 빈도가 낮았다. 때까치와 물까치의 빈도도 낮았는데, 농경지에 주로 분포하는 이 종은 수원시의 토지 피

〈표 44〉 수원시 조류 출현 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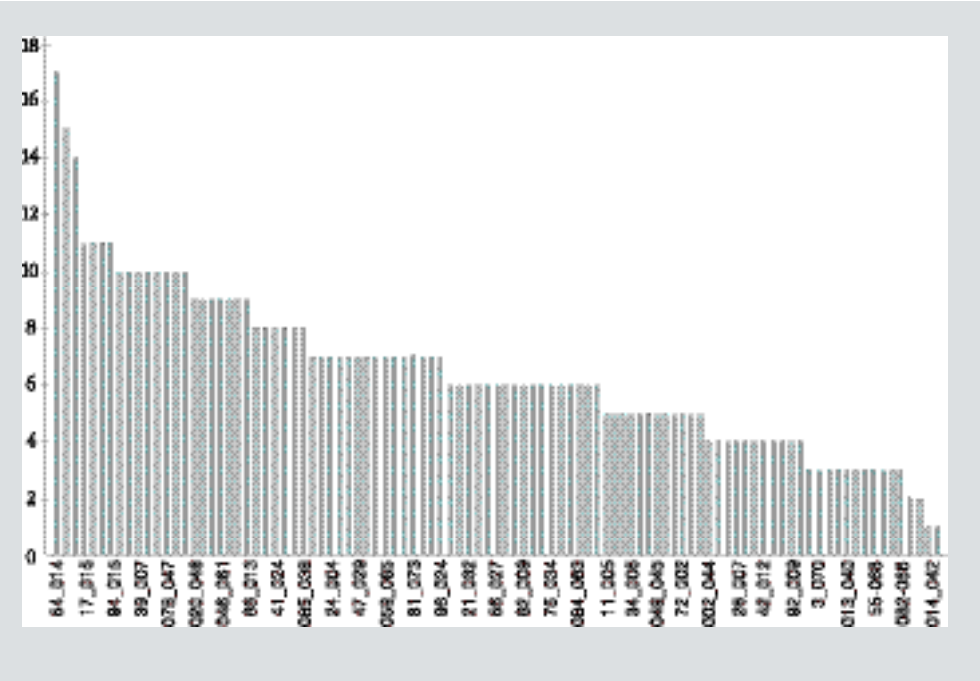
목	과	종	학명
황새목	백로과	왜가리	*Ardea cinerea*
		중대백로	*Egretta garzetta*
		중백로	*Egretta intermedia*
		쇠백로	*Egretta alba*
		황로	*Bubulcus ibis*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기러기목	오릿과	알락오리	*Anas strepera*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cha*
매목	수릿과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맷과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닭목	꿩과	꿩	*Phasianus colchicus*
두루미목	뜸부깃과	쇠뜸부기사촌	*Porzana fusca*
도요목	도요샛과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알락도요	*Tringa glareola*
		깝작도요	*Actitis hypoleucos*
비둘기목	비둘깃과	집비둘기	*Columba livia*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두견이목	두견잇과	검은등뻐꾸기	*Cuculus micropterus*
		뻐꾸기	*Cuculus canorus*
올빼미목	올빼밋과	소쩍새	*Otus scops*
파랑새목	파랑샛과	파랑새	*Eurystomus orientalis*
딱따구리목	딱따구릿과	쇠딱따구리	*Dendrocopus kizuki*
		큰오색딱따구리	*Dendrocopus leucotos*
		오색딱따구리	*Dendrocopus major*
		청딱따구리	*Picus canus*
참새목	제빗과	제비	*Hirundo rustica*
	직박구릿과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때까칫과	때까치	*Lanius bucephalus*
	지빠귓과	울새	*Erithacus sibilans*
		흰눈썹울새	*Luscinia svecicus*
		딱새	*Phoenicurus auroreus*
		호랑지빠귀	*Turdus dauma*
		되지빠귀	*Turdus hortulorum*
		흰배지빠귀	*Turdus pallidus*
		노랑지빠귀	*Turdus naumanni*
	붉은머리오목눈잇과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na*
	휘파람샛과	숲새	*Urosphena squameiceps*
		개개비	*Acrocephalus orientalis*
		노랑허리솔새	*Phylloscopus proregulus*
		노랑눈썹솔새	*Phylloscopus inornatus*
	딱샛과	큰유리새	*Cyanoptila cyanomelana*
	오목눈잇과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목	과	종	학명
참새목	박샛과	쇠박새	*Parus palustris*
		진박새	*Parus ater*
		박새	*Parus major*
		곤줄박이	*Parus varius*
	동고빗과	동고비	*Sitta europaea*
	멧샛과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참샛과	참새	*Passer monthanus*
	꾀꼬릿과	꾀꼬리	*Oriolus chinensis*
	까마귓과	어치	*Garrulus glandarius*
		물까치	*Cyanopica cyana*
		까치	*Pica pica serica*
		까마귀	*Corvus corone*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12목	26과	5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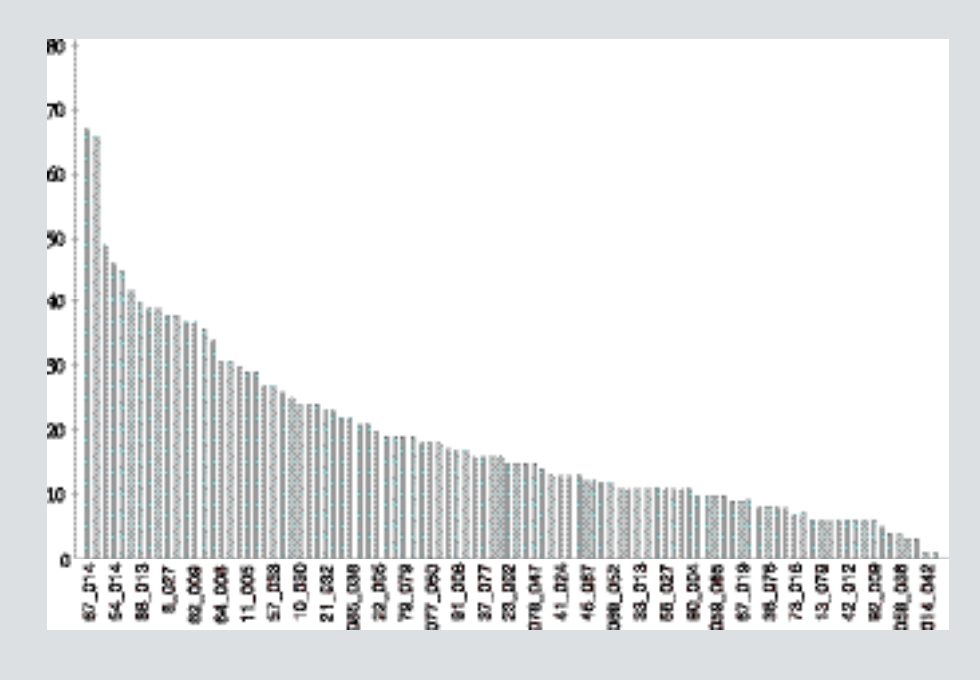
복에서는 출현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출현빈도가 0.1 이하인 종이 34종으로서 전체의 64%가 일부 조사구에서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점에 분포하는 종과 일부 지점에 분포하는 종이 다수 있는 조류 군집의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서, 녹지와 비녹지 등



〈그림 39〉 주요 조류의 조사지점별 출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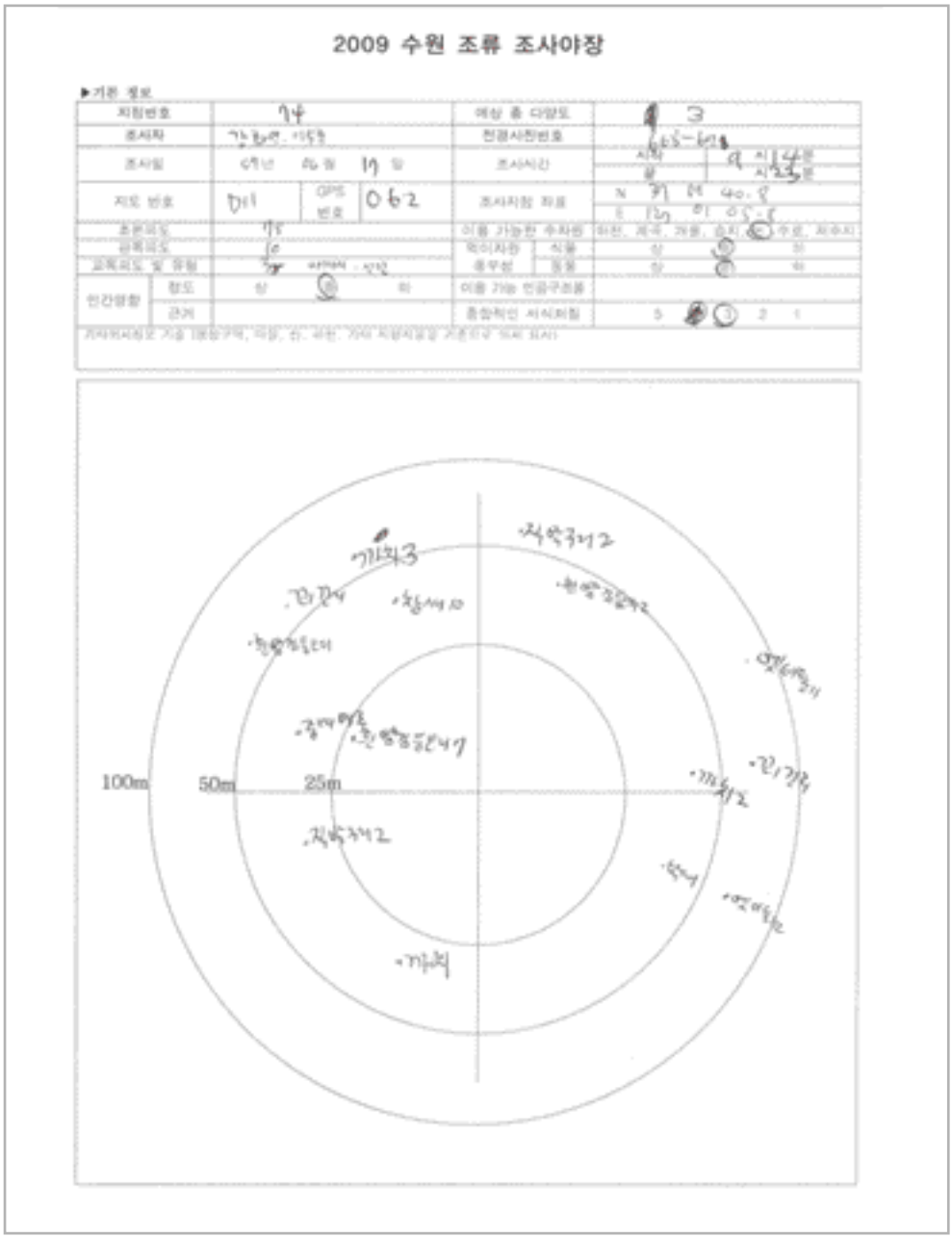
〈그림 40〉 조사지점별 출현 종수



〈그림 41〉 조사지점별 출현 개체수

질적으로 다른 서식지가 수원시에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각 조사지점의 토지 피복 자료와 연계하여 출현빈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45〉 조류 조사 야장



2009 수원 조류 조사야장

▶기본 정보

지점번호	74			예상 종 다양도	3
조사자	강호연, 이도형			현장사진번호	65-67
조사일	0년 06월 19일			조사시간	시작 9시 24분 / 종 시 35분
지도 번호	011	GPS 번호	062	조사지점 좌표	N 37 16 40.8 / E 127 01 05.5
초본피도	75			이용 가능한 수자원	하천, 계수, 저수, 습지, 수로, 지하수
관목피도	10			먹이자원 식물	상 중 하
교목피도 및 유형	70	낙엽활엽 · 인공		생우성 동물	상 중 하
인간영향 정도	상 중 하			이용 가능 인공구조물	
인간영향 관계				종합적인 서식처점	5 4 3 2 1

기타위사항은 기술 (생장구역, 마을, 산, 하천, 기타 지형지물 기준으로 10자 요지)

〈그림 42〉 중대백로

〈그림 43〉 황로

〈그림 44〉 흰빰검둥오리

조사지점별 종수 분포는 1~18종이었으며, 개체수는 1~67로 나타났다. 종수는 4~7종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종 구성과 개체수는 각 지점의 토지 피복 자료와 연계하여 향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류 서식지 모형 제작을 위하여 생물 서식 특성을 검토하였다. 서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조류를 산새, 숲가장자리새, 들새, 물새, 도시새로 구분하였다. 서식특성으로는 은신처, 먹이, 물, 인간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표 46〉과 같다.

〈표 46〉 조류의 서식특성

구분	은신처	먹이	물	인간영향
산새	수관, 관목, 초본 하층식생이 풍부한 자연숲 바위틈(침식지형)	먹이자원(벌레, 열매)의 양이 많은 자연숲, 큰 숲	먹을 물, 목욕할 물 필요	적을수록
숲가장자리새	산, 들	산, 들		적을수록
들새	관목이 꼭 있어야 함	벌레,열매,곡식, 양서류	물이 있으면 좋음 (들에는 물이 많다)	적을수록
물새	물가의 식생(관목) 아주 가까운 숲의 교목, 관목, 초지 휴식처는 사주부	유충, 곡식, 어류, 양서류 수심은 얕을수록	물이 없으면 안 됨	적을수록
도시새	도시녹지, 가로수, 주택, 교각	농작물, 쓰레기, 곤충, 열매, 양서류	도시 내 수자원	–

조류의 서식 조건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조류 서식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량화할 수 있는 서식지 변수를 추출하였다. 조류 서식지 모형화는 번식기 조류군집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Shannon-Wiener 종다양도 지수를 선택하였다.

〈표 47〉 조류의 서식지 변수 추출

구분		은신처	먹이	물	인간 영향
조류	산새	숲의 크기(+) 상 · 중 · 하층 식생 피도(+) 지형다양성(+)	열매 양(+) 곤충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숲 경계, 등산로로부터 거리(+)
	숲가장자리새	가장자리의 양(길이)(+) 가장자리의 질(중 · 하층 식생 피도)(+)	열매 양(+) 곤충 양(+) 양서류 양(+) 농작물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인간영향요소로부터 거리/강도(+)
	들새	관목숲 크기(+) 중 · 하층 식생 피도(+)	열매 양(+) 곤충 양(+) 양서류 양(+) 농작물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인간영향요소로부터 거리/강도(+)
	물새	수면의 면적(+) 하천변 식생 면적(+) 하천변 사주부 면적(+) 이용가능한 숲까지 접근편익/비용(+)	초본 양(+) 양서류 양(+) 어류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물 아닌 단위 비오톱)(+)	인간영향요소로부터 거리/강도(+)
	도시새	도시녹지 크기(+)	열매 양(+) 곤충 양(+) 양서류 양(+) 농작물, 음식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없음

$$H' = \sum_{i=0}^{s} (P_i) \times In(P_i)$$

$$P_i = \frac{n_i}{N}$$

S : 전체 종수

N : 군집 내 전체 개체수

n_i : 각종의 개체수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 중 72개 지점의 자료를 모형 구축에 사용하였다.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수를 공간자료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조류 종다양도 모형(BIMODEL)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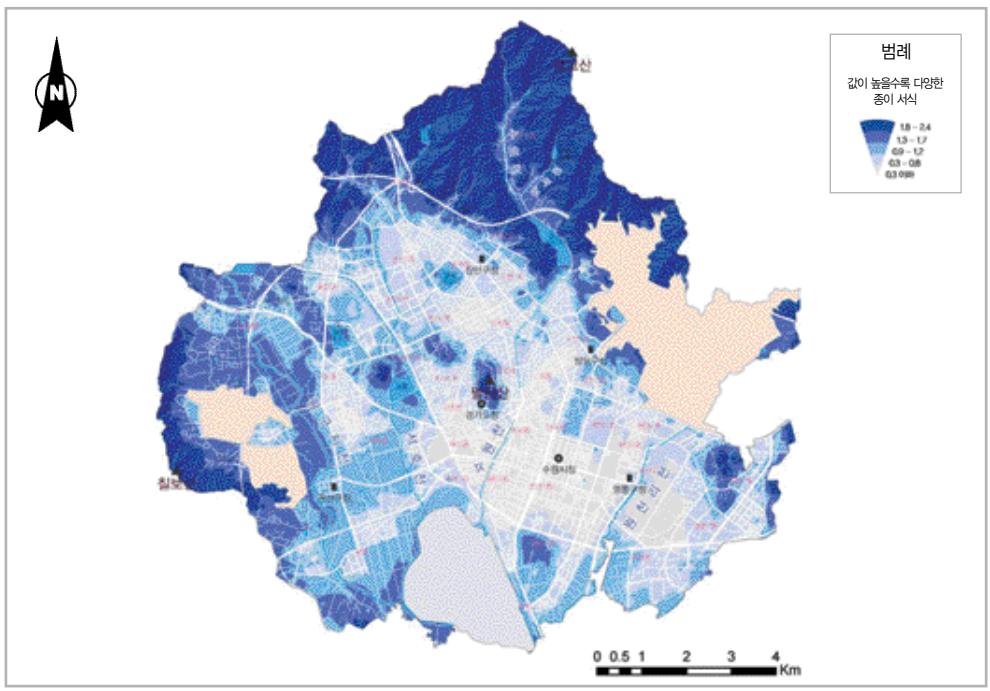
〈표 48〉 조류 서식지 모형 변수

변수	지점	주변	지점/주변 비
식생활력도	ndvi	ndvi_fs	ndvi_r
초본피도	sw_all_hc	sw_all_hc_fs	sw_all_hc_r

변수	지점	주변	지점/주변 비
관목피도	sw_all_sc	sw_all_sc_fs	sw_all_sc_r
인간영향	inshum_b	inshum_b_fs	inshum_b_r
산림 안쪽으로 거리	insidef	insidef_fs	insidef_r
산림까지 거리비용	fordis_b	fordis_b_fs	fordis_b_r
물까지 거리비용	watdis_b	watdis_b_fs	watdis_b_r
곤충 종수	insect	insect_fs	insect_r
숲바닥 일사량	sw_all_rad	sw_all_rad_fs	sw_all_rad_r

$$
\begin{aligned}
BIMODEL = \ & 1.081 + [fordis_b_fs] * (-0.0000232) \\
& + [insidef_fs] * (-0.0000585) \\
& + [inshum_b_fs] * (-0.011) \\
& + [sw_all_hc_fs] * (0.007) \\
& + [sw_all_sc_fs] * (0.001) \\
& + [insect_fs] * (0.049) \\
& + [ndvi_fs] * (0.395) \\
& + [ndvi] * (0.123)
\end{aligned}
$$

$R^2 = 0.662$



〈그림 45〉 조류 종다양도 모형

구축된 모형을 대상지 전 공간에 적용하여 조류 종다양도를 예측하였다. 바탕지도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나타낸다.

4) 포유류상과 서식지 모형

조사결과 총 10종의 야생 포유동물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들쥐류, 땃쥐류, 박쥐류와 같은 소형종을 포함하면 수원시에 서식하는 포유류의 종수는 보다 많을 것이다. 수원시의 산림과 농경지 일대의 포유동물은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서식밀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교산은 멧돼지, 노루, 오소리가 소수 서식하여 인근의 관악산과 청계산에 비하여서는 종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총 108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이 중 78개 지점에서 156건의 포유동물 서식흔적을 발견하였다. 이 중 두더지의 흔적이 45건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총 43곳의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너구리가 34건으로서 27곳의 조사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멧토끼가 16건으로 12곳, 다람쥐가 12건으로 12곳, 족제비가 10건으로 10곳에서 확인되었다. 멧돼지, 오소리, 노루의 서식흔적은 광교산 일대에서만 소수 발견되어, 광교산과 연결되지 않은 산림지역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설모는 도심의 여기산, 숙지산, 팔달산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보아 수원지 전역의 산림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라니는 광교산과 칠보산 자락을 중심으로 산림 및 농경지에서 폭넓게 발견되었으나 주거지로 단절된 지역의 산림에서는 서식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포유류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교산의 규모와 현존 산림에 기반을 두고 서식 가능성이 있는 법정보호종으로는 수달, 삵, 하늘다람쥐가 있으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중 수달은 서식가능성이 가장 높은 광교산 아래의 광교저수지 일대에서 서식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식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삵은 서식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부고속도로 건너편 성남시의 일부 산림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서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늘다람쥐의 경우 생태적 특성상 겨울철과 이른 봄에 서식유무의 확인이 용이하여 늦은 봄부터 조사를 시작한 본 조사에서는 서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비교적 많은 조사지에서 발견된 고라니와 너구리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역에 흔하게 분포한 중대형 포유류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이들 종의 서식이 폭넓게 확인되었으나 발견되는 흔적의 수가 적어 서식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수렵이나

유해조수의 구제 대상에서 너구리와 고라니를 제외시키는 등의 지속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

멧돼지, 노루, 오소리의 서식이 광교산에서 확인되었으며, 흔적이 발견된 지점의 수와 흔적의 시기와 양을 볼 때 서식밀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멧돼지와 노루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장기간 고립되어 서식하는 개체군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보호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 한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서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생태통로 조성 등을 통해 청계산과의 연결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관악산 및 남한산성도립공원과의 연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광교산에 다른 지역의 노루와 멧돼지 개체를 방사하여 유전자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할 가능성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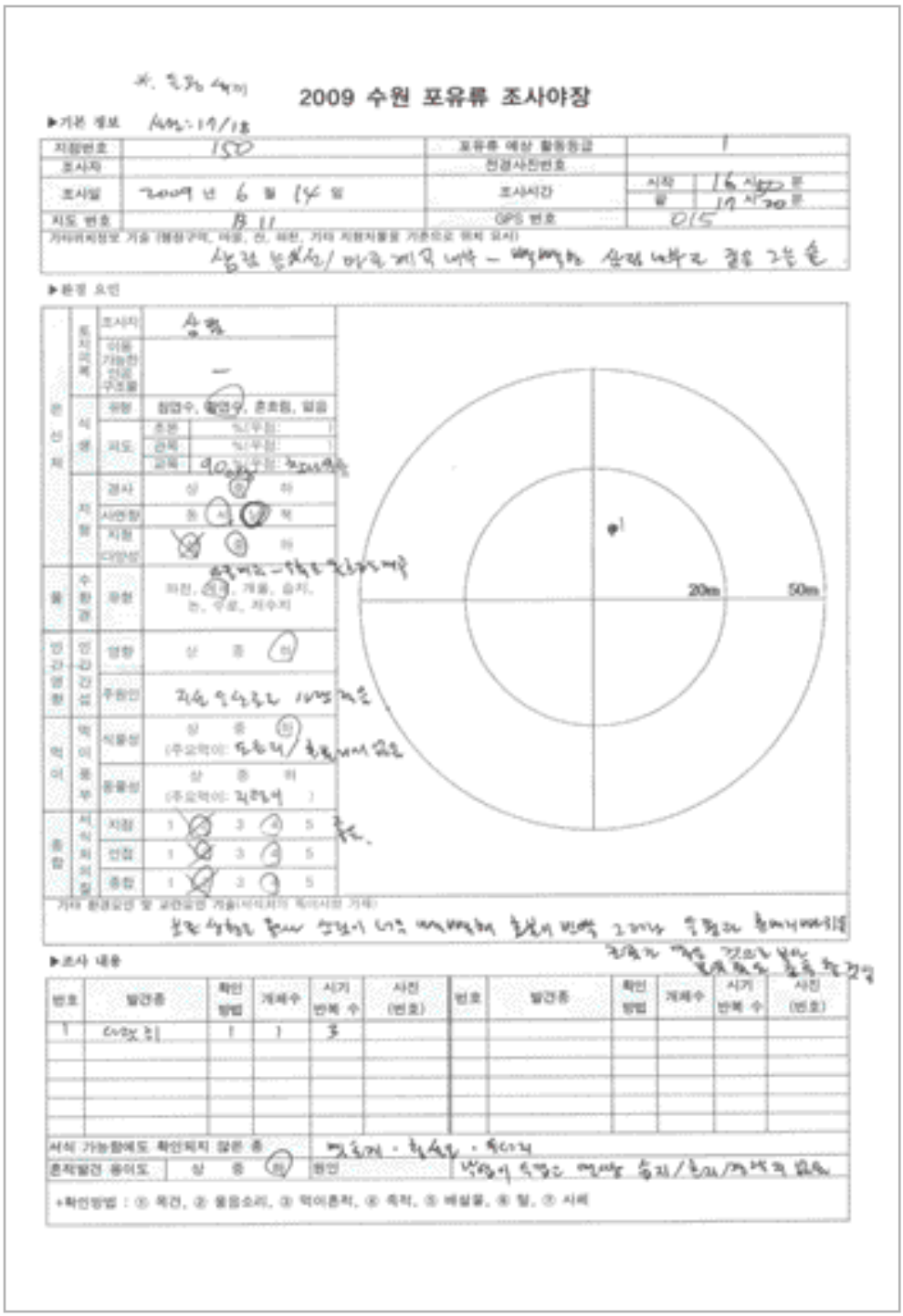
〈표 49〉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 목록

종	학명	발견된 조사지수	흔적 발견수
두더지	*Mogera robusta*	43	45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27	34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20	25
멧토끼	*Lepus coreanus*	12	16
다람쥐	*Tamias sibiricus*	12	12
족제비	*Mustela sibirica*	10	10
청설모	*Sciurus vulgaris*	7	7
멧돼지	*Sus scrofa*	3	5
오소리	*Meles leucurus*	1	1
노루	*Capreolus pygargus*	1	1
합계	10종	78(중복 제외)	156

〈표 50〉 종별 서식이 확인된 방법

발견종	굴	둥지	식흔	목견	배설물	사체	울무	소리	족적	털	총합계
고라니	·	·	·	·	4	·	·	·	21	·	25
너구리	·	·	·	·	·	1	·	·	33	·	34
다람쥐	·	·	1	10	·	·	·	1	·	·	12
두더지	42	·	·	3	·	·	·	·	·	·	45
멧돼지	·	·	3	·	·	·	·	·	2	·	5
멧토끼	·	·	4	·	10	·	1	·	·	1	16
오소리	1	·	·	·	·	·	·	·	·	1	2
족제비	·	·	·	·	3	·	·	·	7	·	10
청설모	·	1	2	3	·	·	·	·	1	·	7
합계	43	1	10	16	17	1	1	1	64	2	156

〈표 51〉 포유류 조사야장



2009 수원 포유류 조사야장

▶기본 정보

지점번호	150	포유류 예상 활동등급	1
조사자		전경사진번호	
조사일	2009 년 6 월 14 일	조사시간	시작 16 시 50 분 / 종 17 시 30 분
지도 번호	B 11	GPS 번호	015

▶환경 요인

인위적	토지이용	조사지	숲
		이용 가능한 인공 구조물	–
	식생	유형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없음
		피도	초본 %/우점: 1; 관목 %/우점: 1; 교목 90 %/우점: 소나무
	지형	경사	상 중 하
		사면향	동 서 남 북
		지형 다양성	상 중 하
물	수환경	유형	하천, 연못, 개울, 습지, 논, 수로, 저수지
인간영향	인간섭	영향	상 중 하
		주원인	지속적으로 이용
먹이	먹이	식물성	상 중 하 (주요먹이: 도토리)
		동물성	상 중 하 (주요먹이: 지렁이)
종합	서식처의 질	지점	1 2 3 4 5
		인접	1 2 3 4 5
		종합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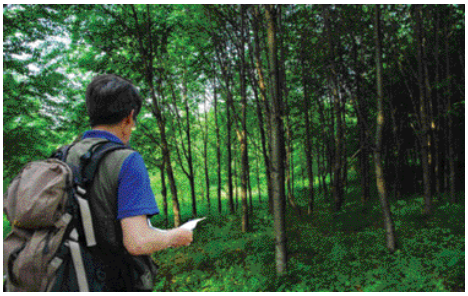
▶조사 내용

번호	발견종	확인 방법	개체수	시기 반복 수	사진 (번호)	번호	발견종	확인 방법	개체수	시기 반복 수	사진 (번호)
1	다람쥐	1	1	3							

서식 가능함에도 확인되지 않은 종: 멧토끼 · 청설모 · 족제비

흔적발견 용이도: 상 중 하 원인: 낙엽이 두껍고 먹이량 습지/초지/개천이 없음

+확인방법 : ① 목격, ② 울음소리, ③ 먹이흔적, ④ 족적, ⑤ 배설물, ⑥ 털, ⑦ 사체



〈그림 46〉 포유류 조사 모습

〈그림 47〉 족제비 발자국

〈그림 48〉 멧토끼 배설물

〈그림 49〉 멧돼지 발자국

〈그림 50〉 족제비 배설물

〈그림 51〉 두더지 굴

〈그림 52〉 너구리 발자국

〈그림 53〉 오소리 굴

〈그림 54〉 오소리 털

〈그림 55〉 고라니 배설물

〈그림 56〉 고라니 발자국

포유류 서식지 모형을 위하여 서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포유류를 내부종, 가장자리종, 일반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식특성으로는 은신처, 먹이, 물, 인간영향을 살

펴보았는데, 〈표 52〉와 같고, 주요 포유류의 서식특성을 종별로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 52〉 포유류의 서식특성

구분	은신처	먹이	물
내부종	숲의 자연성 숲의 크기 숲의 연령 인간영향(등산로, 임도) 적은곳 (200~250m)	열매 하층식생	있으면 좋음. 자연지형에서는 조금만 이동하면 물이 있으므로 중요한 제한인자가 되지는 않음.
가장자리 종	초본, 관목, 덩굴성식물(가장자리에서는 흔한 편임) 숲 30 : 초지 70 숲이 15% 이상은 되어야 함. 인간영향(등산로) 적은 곳 농지는 상관없음.	곡식(자연산 또는 경작지) 〉 풀, 나뭇잎 〉 음식쓰레기 가장자리에 풍부	있으면 좋음.
일반종	시골마을, 도시까지 들어옴.	열매, 쥐, 곤충, 파충류, 농작물, 쓰레기	있으면 좋음. 활동성으로 보아 물은 중요치 않음.

〈표 53〉 포유류 종별 서식특성

종	은신처	먹이	물
멧돼지	활엽수림 오목지(목욕, 먹이) 볼록지(새끼, 잠)	나무뿌리, 초본 줄기, 도토리	목욕할 물(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습한 곳)
담비	침활혼효림 해발 1000m 이상 산이 주위에 있어야 함.	다래, 머루, 청설모, 쥐	많이 필요치 않음.
노루	먹이 : 덩굴이 있는 곳 휴식 : 숲(활엽수림)	나무, 덩굴식물	
고라니	갈대밭, 관목숲, 산기슭, 강기슭, 버들밭, 풀숲 은신 : 찔레덩굴과 같은 가시가 있는 곳 숲 종류는 무관	풀, 싹, 잎, 열매	먹을 물 : 소량의 고인 물 노는 물 : 대량의 물
멧토끼	땅에서 20~30cm의 초지나 관목숲, 숲 내부 를 왔다갔다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서식지 크기 필요함.	풀, 찔레나무, 싸리나무의 껍질	물이 없어도 됨.
너구리	갈숲, 관목숲, 바위틈, 나무구멍 / 새끼굴 필요함.	모든 것	
삵	인간영향 적은 곳	쥐	
족제비	물가, 인가, 굴, 나무뿌리, 돌 밑	열매, 쥐, 곤충, 파충류	
쥐	초지, 인간 영향이 적은 곳, 산		

서식지 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포유류의 서식 조건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포유류 서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량화할 수 있는 서식지 변수를 추출하였다.

〈표 54〉 포유류 서식지 변수 추출

구분		은신처	먹이	물	인간 영향
포유류	내부종	숲의 크기(+) 중 · 하층 식생 피도(+) 지형 다양성(+)	열매 양(+) 중 · 하층 식생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숲 경계, 등산로로부터 거리(+)
	가장자리종	가장자리의 양(길이)(+) 가장자리의 질(중 · 하층식생 피도)(+) 숲으로부터 거리(−) 주위의 초지/숲 비율(∧) 남향(+) 경사(−)	열매 양(+) 중 · 하층 식생 양(+) 농작물, 음식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숲 경계, 등산로로부터 거리(+)
	일반종	조건 없음.	열매 양(+) 중 · 하층 식생 양(+) 농작물, 음식 양(+) 곤충 양(+) 양서파충류 양(+) 쥐 양(+)	이용가능한 물까지 접근편익/비용(+)	인간영향요소로부터 거리/강도(+)

포유류 서식지 모형화는 조사된 모든 포유류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현장조사된 자료로부터 포유류의 활동도와 다양도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종다양도와 종중요도는 다람쥐를 1로 했을 때 다른 종들의 상대적인 비교치를 나타내는 값이며, 흔적중요도는 발자국, 털, 목격을 1로 했을 때 다른 흔적들의 상대적인 비교치를 나타내는 값이다. 활동도는 종중요도와 흔적중요도의 합으로 구하였다.

〈표 55〉 포유류 다양도 및 활동도 산출

종	종다양도	종중요도
멧돼지	5	5
노루	5	5
멧토끼	4	3
고라니	3	3
오소리	3	3
족제비	3	2
너구리	2	2
두더지	2	2
청설모	2	1
다람쥐	1	1

흔적	흔적중요도
발자국	1
뿔질	1
털	1
목격	1
올무	1
배설물	2
먹이흔적	3
잠자리	4
다양한 흔적 동시 발견(잠자리 포함)	5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 중 57개 지점의 자료를 모형 구축에 사용하였다.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공간자료로 구축하였다.

〈표 56〉 포유류 서식지 모형 변수

변수	지점	주변	지점/주변 비
식생활력도	ndvi	ndvi_fs	ndvi_r
인간영향	inshum_m	inshum_m_fs	inshum_m_r
산림까지 거리비용	fordis_m	fordis_m_fs	fordis_m_r
초본피도	sw_all_hc	sw_all_hc_fs	sw_all_hc_r
경사도			slope_r

모형화 결과, 구축된 포유류 활동도 모형은 다음과 같다.

$$
\begin{aligned}
\text{ma_act} = 5.40745 &+ [\text{fordis_m_fs}] * (-0.00000638) \\
&+ [\text{ndvi_fs}] * (8.789) \\
&+ [\text{ndvi}] * (0.864) \\
&+ [\text{inshum_m}] * (-0.005) \\
&+ [\text{sw_all_hc_fs}] * (0.052) \\
&+ [\text{slope_r}] * (-.225)
\end{aligne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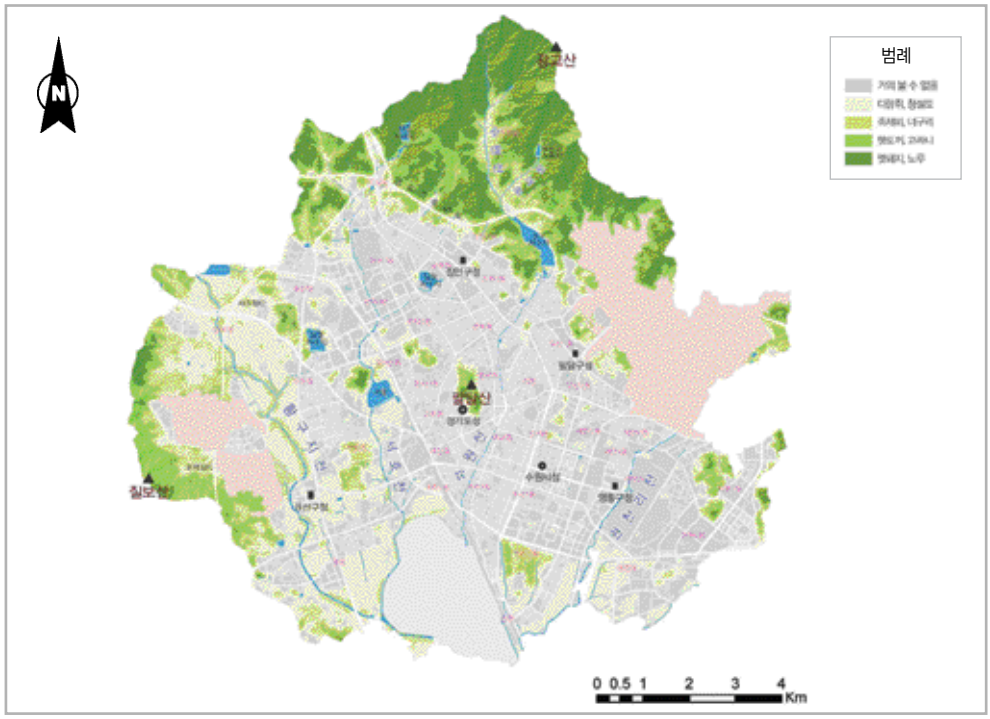
$R^2 = 0.693$

구축된 포유류 종다양도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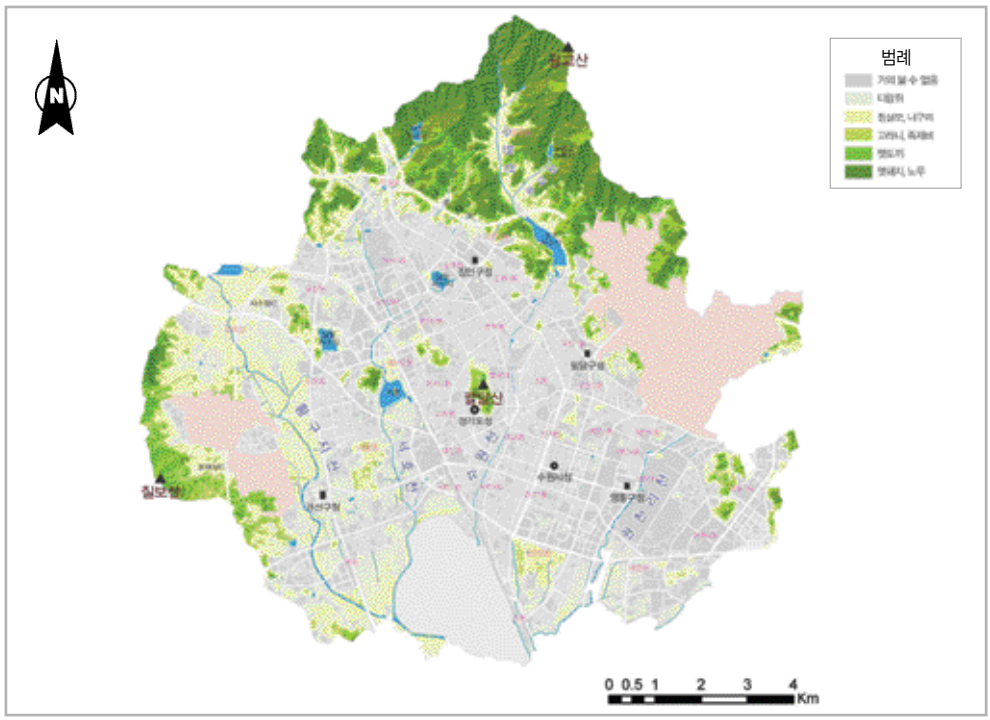
$$
\begin{aligned}
\text{ma_div} = 9.74524 &+ [\text{fordis_m_fs}] * (-0.00000786) \\
&+ [\text{ndvi_fs}] * (3.748) \\
&+ [\text{ndvi}] * (6.371) \\
&+ [\text{inshum_m}] * (-0.010) \\
&+ [\text{sw_all_hc_fs}] * (0.021) \\
&+ [\text{slope_r}] * (-0.453)
\end{aligned}
$$

$R^2 = 0.472$

구축된 모형을 대상지 전 공간에 적용하여 포유류 다양도와 활동도를 예측하였다. 바탕지도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포유류가 많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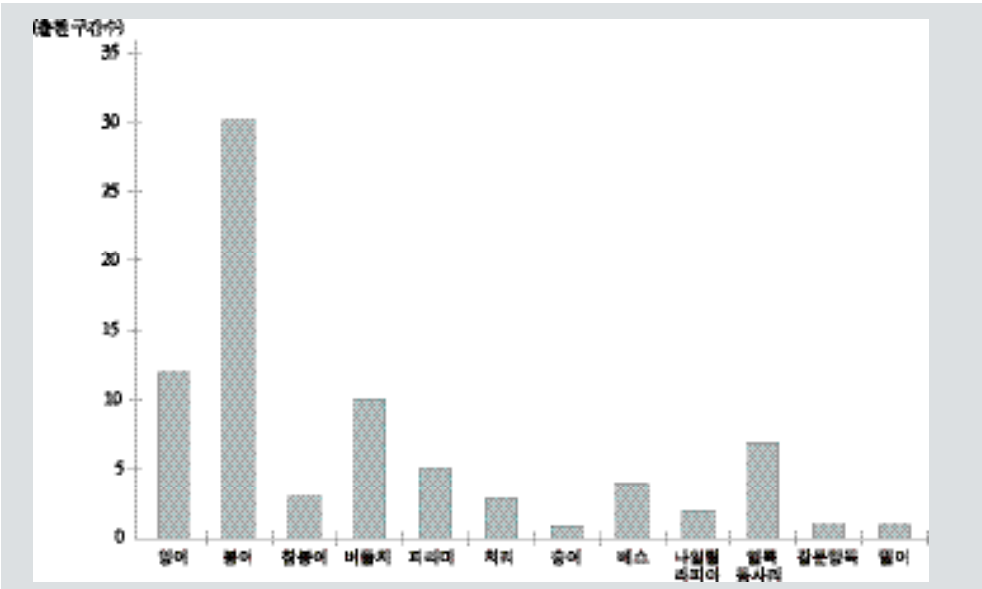
〈그림 57〉 포유류 활동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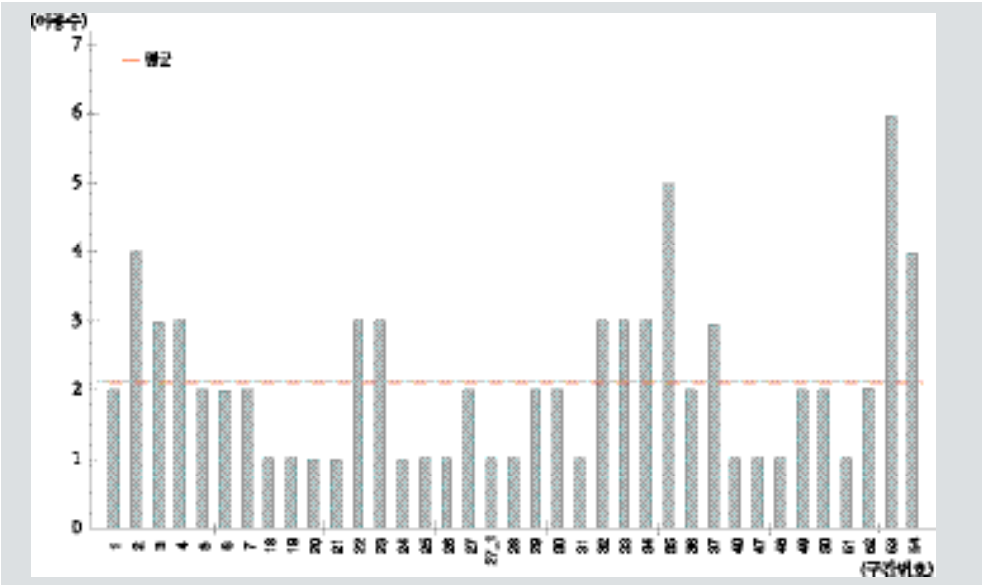
〈그림 58〉 포유류 다양도 모형

5) 어류상과 서식지 모형

수원시 하천에서 55개 구간을 대상으로 어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개 구간에서 7과 12종이 조사되었으며, 구간평균 2.1종이 조사되었다. 잉엇과로 잉어(*Cyprinus carpio*), 붕



〈그림 59〉 전체 하천 어종별 출현 구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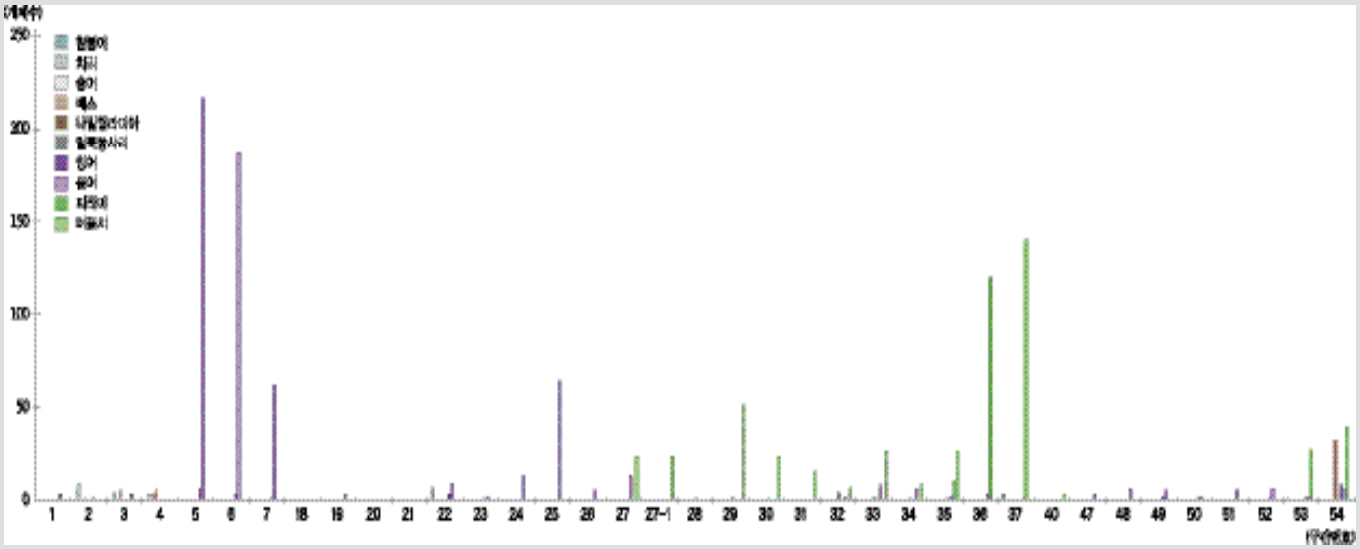


〈그림 60〉 전체 하천 구간별 출현 어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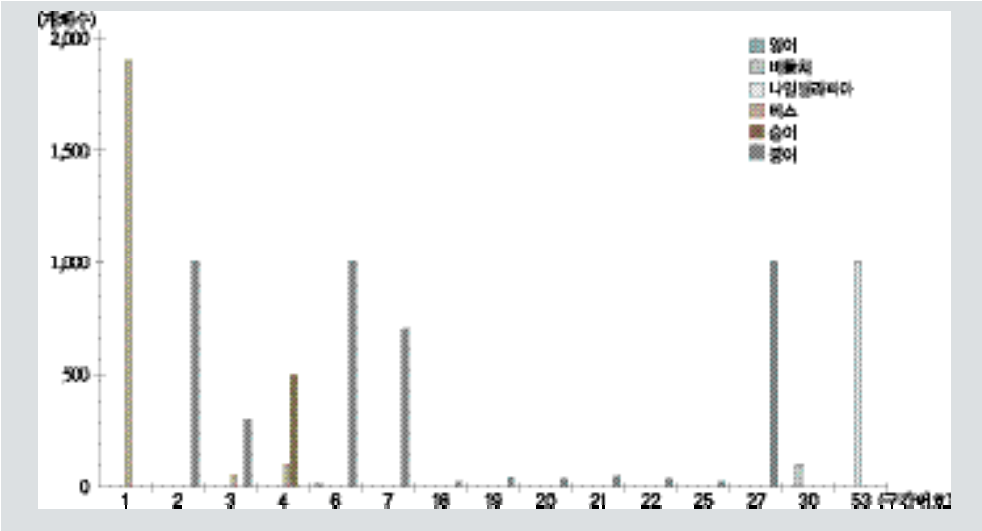
어(*Carassius auratus*), 참붕어(*Pseudorasbora parva*), 버들치(*Rhynchocypris oxycephalus*), 피라미(*Zacco platypus*)가 조사되었다. 강준칫과의 치리(*Hemiculter eigenmanni*), 숭엇과의 숭어(*Mugil cepphalus*), 검정우럭과의 베스(*Micropterus salmoides*), 시클리과의 나일틸라피아(*Oreochromis niloticus*), 동사릿과의 얼룩동사리(*Odontobutis interrupta*), 망둑엇과의 갈문망둑(*Rhinogobius giurinus*), 밀어(*Rhinogobius brunneus*)가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조사된 어종은 붕어로 30개 구간에서 조사되었고, 잉어는 12개 구간, 버들치 9개 구간, 얼룩동사리 7개 구간, 피라미, 베스, 참붕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유종으로는 얼룩동사리가 있으며, 외래종으로는 베스와 나일틸라피아가 조사되었다.

34개 구간 중 3개 종 이상 조사된 구간은 12개 구간이며, 6종인 구간은 53번(잉어, 붕어, 참붕어, 피라미, 나일틸라피아, 밀어) 구간, 5종인 구간은 35번(잉어, 붕어, 버들치, 피라미, 얼룩동사리), 4종인 구간은 54번(잉어, 붕어, 피라미, 나일틸라피아), 2번(붕어, 잉어, 치리, 베스) 구간, 3종인 구간은 3번(붕어, 치리, 베스), 4번(치리, 숭어, 베스), 22번(잉어, 붕어, 참붕어), 23번(잉어, 붕어, 갈문망둑), 32번(붕어, 버들치, 얼룩동사리), 33번(붕어, 버들치, 얼룩동사리), 34번(붕어, 버들치, 얼룩동사리), 37번(붕어, 참붕어, 피라미)으로 조사되었다. 외래종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54, 53번 구간(원천리천 하류)에서는 나일틸라피아가 조사되었고, 1번, 2번, 3번, 4번(황구지천 상류)에서는 베스가 조사되었다. 고유종이 나타난 구간은 28번, 29번, 30번, 32번, 33번, 34번, 35번 구간(수원천 상류-중류 구



〈그림 61〉 전체 하천 구간별 출현 어종 및 개체수(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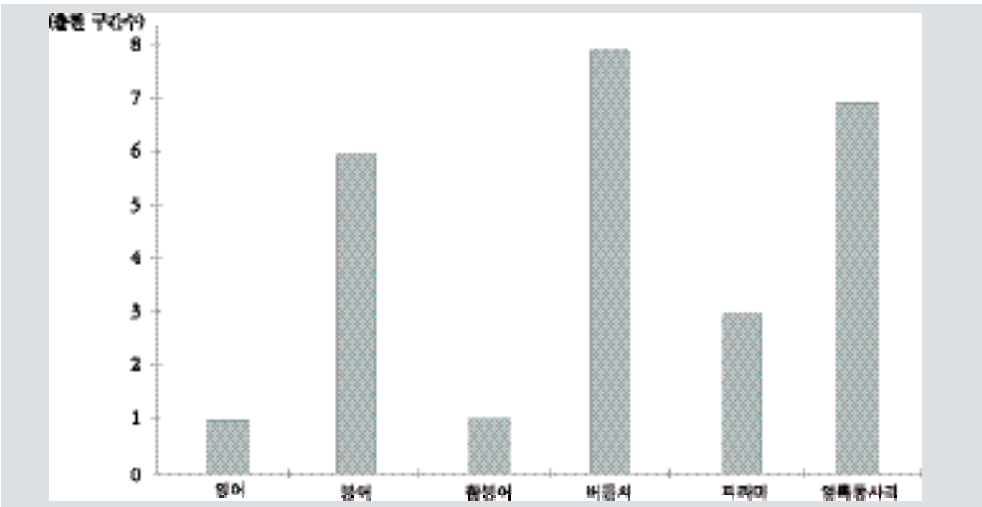


〈그림 62〉 전체 하천 구간별 출현 어종 및 개체수(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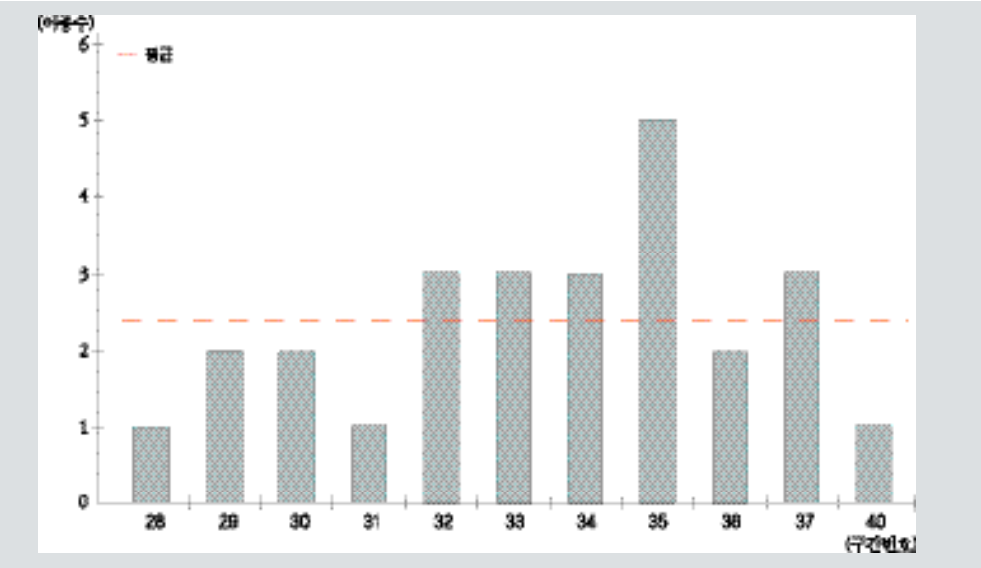
간)에서 조사되었다. 수원시 하천에서는 전체적으로 잉어, 붕어, 버들치, 피라미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1) 하천의 어류상

수원천(지류 포함)은 11개 구간을 조사하였다. 출현종은 2과 6종으로 조사되었고 구간마다 평균적으로 2.4종이 나타나고 있다. 잉엇과로 잉어 · 붕어 · 참붕어 · 버들치 · 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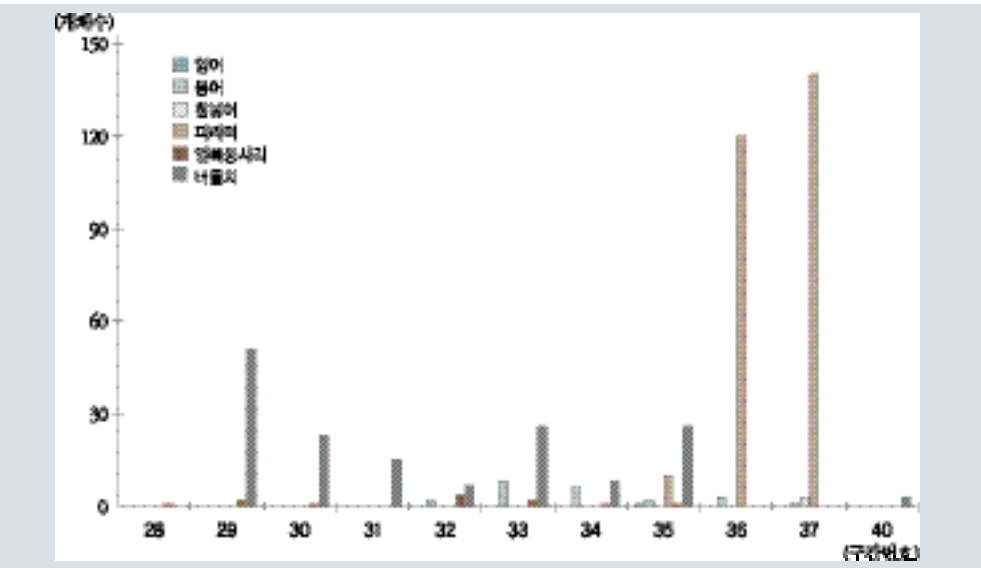
〈그림 63〉 수원천 어종별 출현 구간수



〈그림 64〉 수원천 구간별 출현 어종수

미, 동사리과로 얼룩동사리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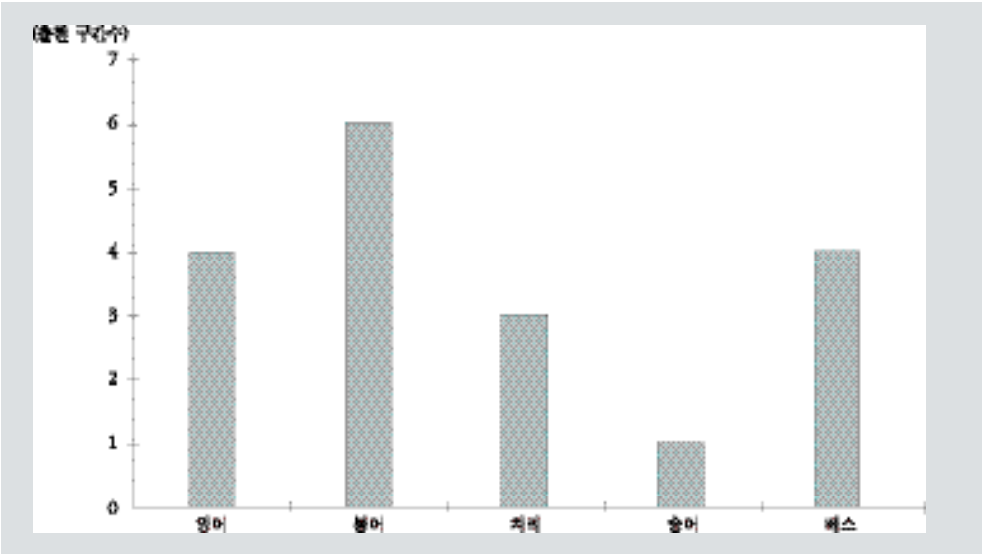
수원천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어종은 버들치로 8개 구간에서 조사되었고 얼룩동사리가 7개 구간에서 조사되었으며, 붕어는 6개 구간에서 조사되었다. 참붕어와 잉어는 각각 1개 구간에서 조사되었으며, 외래종은 수원천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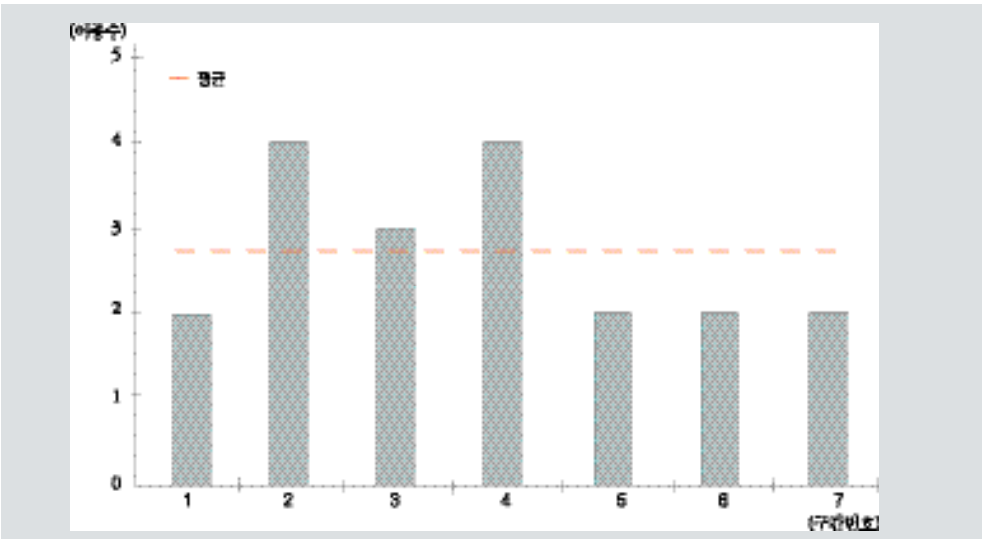
〈그림 65〉 수원천 구간별 출현 어종 및 개체수

황구지천에서는 총 7개 구간을 조사하였으며, 출현종은 4과 5종의 어류가 조사되었고, 구간평균 2.6종이 나타나고 있다. 잉엇과의 잉어와 붕어가 조사되었고, 강준칫과의 치리, 숭엇과의 숭어, 검정우럭과의 베스가 조사되었다.

황구지천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어종은 붕어로 6개 구간에서 조사되었고, 잉어와 베스는 각각 4개 구간, 치리는 3개 구간, 숭어는 1개 구간에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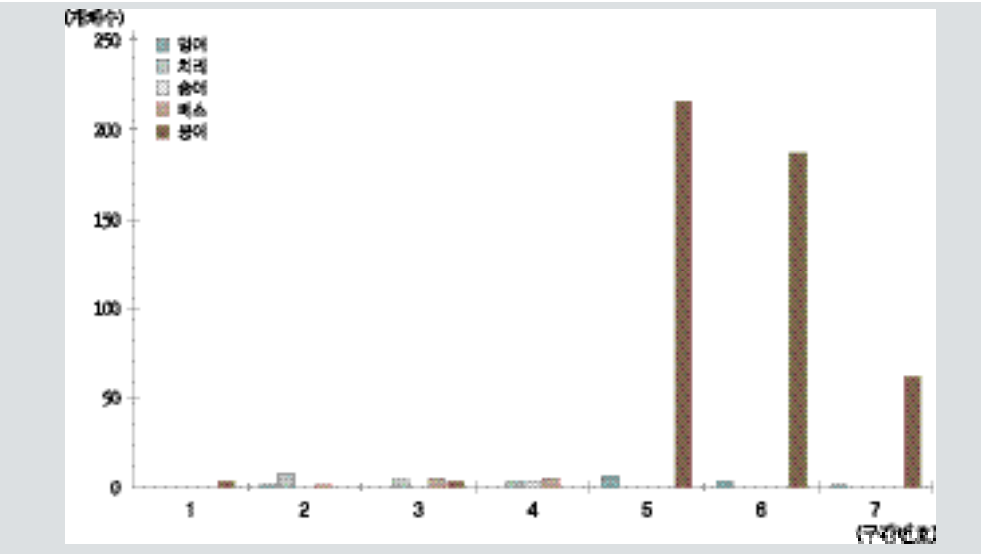


〈그림 66〉 황구지천 어종별 출현 구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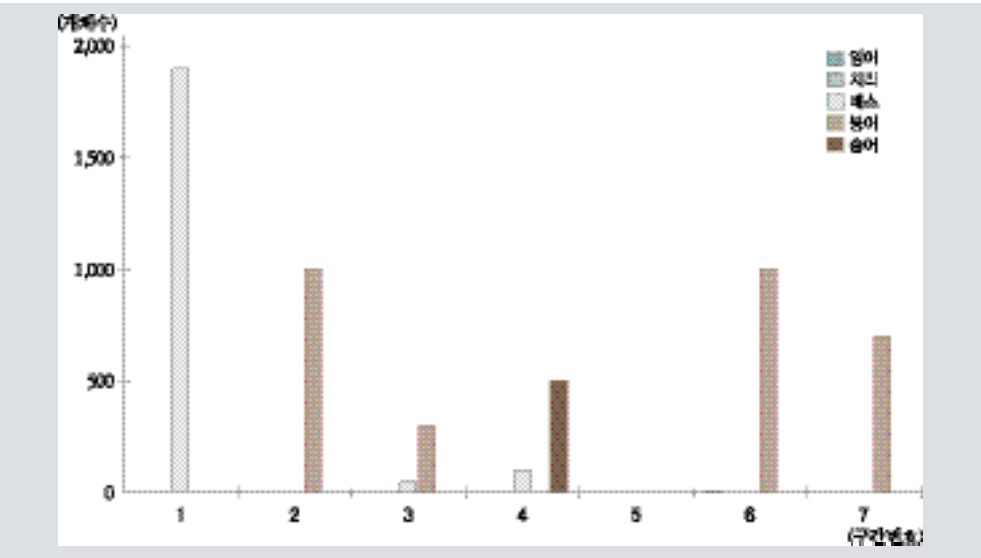


〈그림 67〉 황구지천 구간별 출현 어종수

황구지천에서는 붕어와 잉어, 베스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붕어는 조사된 전 구간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중류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잉어도 마찬가지로 하류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스의 경우 중점적으로 중 · 상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치어가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치리는 상류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숭어는 1개 구간에서 성어와 치어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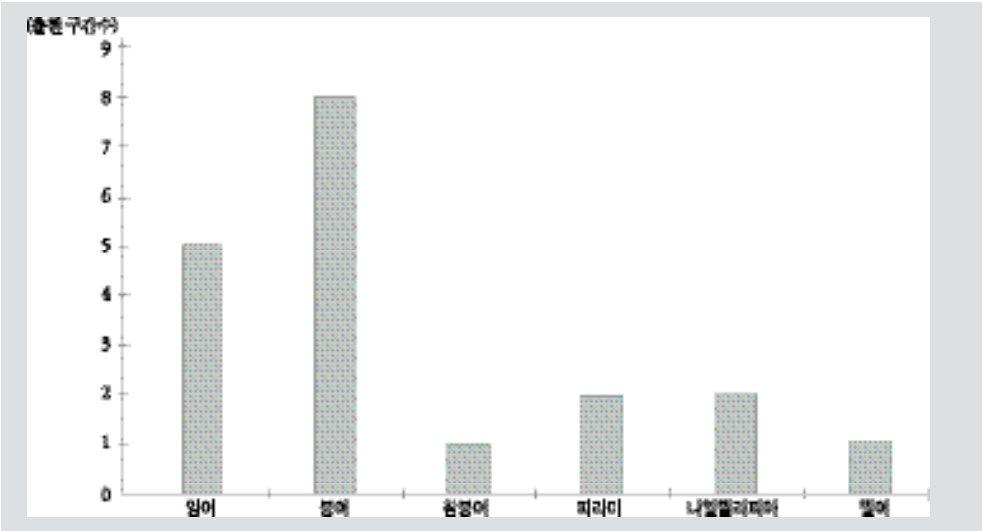
〈그림 68〉 황구지천 구간별 출현 어종 및 개체수(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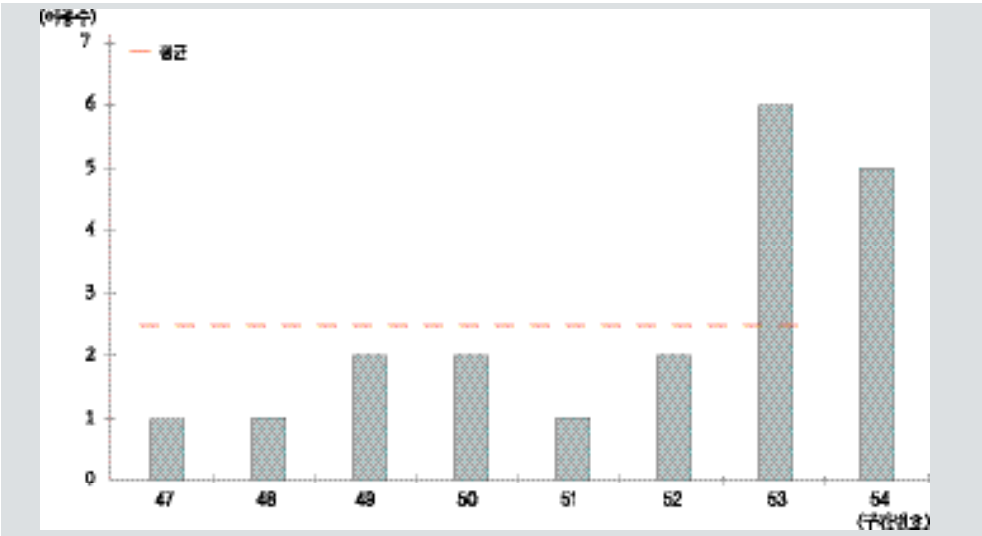
〈그림 69〉 황구지천 구간별 출현 어종 및 개체수(치어)

원천리천은 총 8개 구간을 조사하였으며, 구간평균 2.5종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어종은 3과 6종이 조사되었는데, 잉엇과의 잉어 · 붕어 · 참붕어 · 피라미, 시클리과의 나일틸라피아, 망둑엇과의 밀어가 조사되었다.

원천리천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어종은 붕어로 8개 구간에서 조사되었고, 잉어는 5개 구간, 피라미와 나일틸라피아가 2개 구간, 다음으로 참붕어와 밀어가 각각 1개 구간에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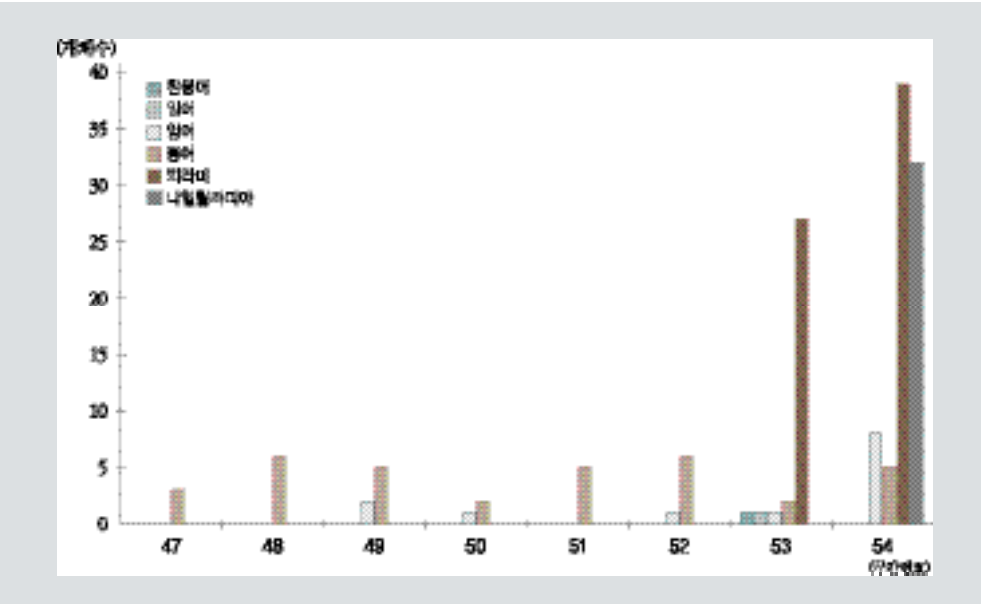


〈그림 70〉 원천리천 어종별 출현 구간수



〈그림 71〉 원천리천 구간별 출현 어종수

원천리천의 어류 분포는 붕어가 지배적으로 조사된 전 구간에서 조사되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상류보다는 하류 지역에 더 많은 어종이 분포하고 있다. 중 · 상류 지역은 붕어와 잉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하류로 갈수록 피라미 · 밀어 · 참붕어 등이 조사되고 있다. 치어는 나일틸라피아가 1,000마리 정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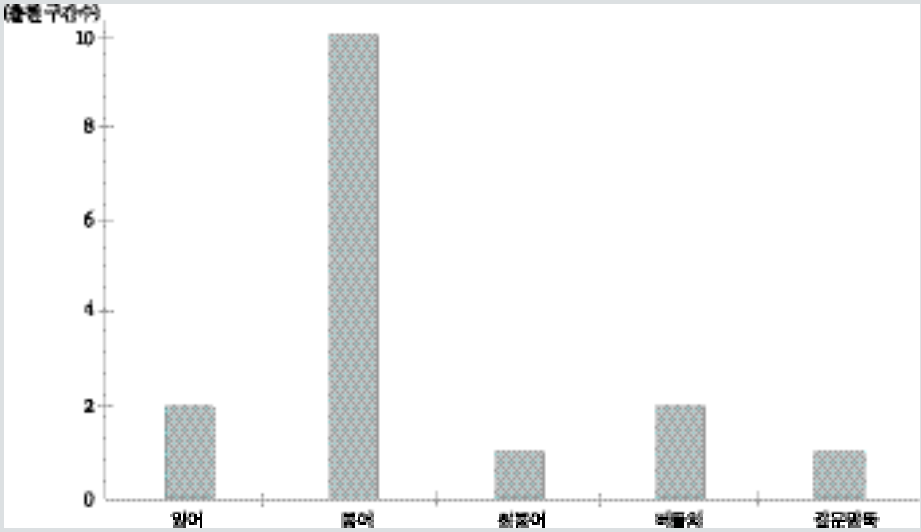


〈그림 72〉 원천리천 구간별 출현 어종 및 개체수(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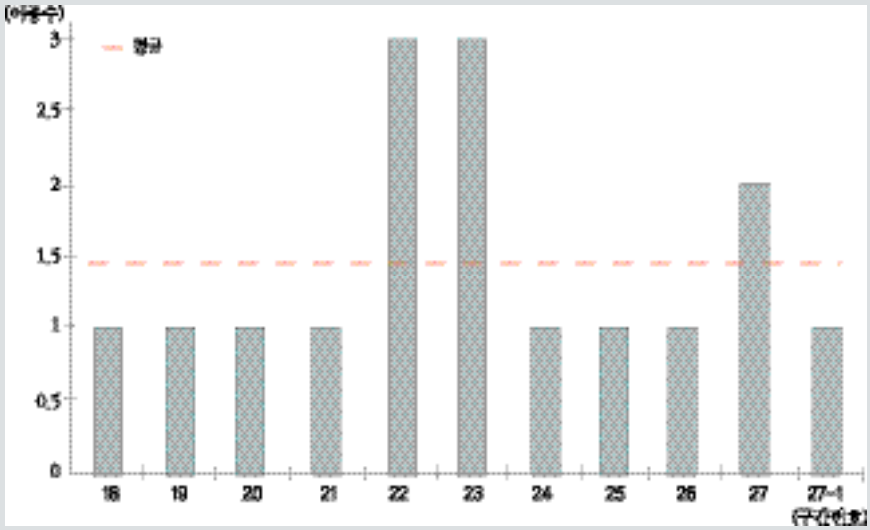
서호천은 총 11개 구간을 조사하였으며, 구간평균 1.4종이 나타났고, 2과 5종이 조사되었다. 잉엇과의 붕어 · 잉어 · 참붕어 · 버들치가 조사되었고, 망둑엇과의 갈문망둑이 조사되었다.

서호천의 우점종은 붕어이며, 10개 구간에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잉어, 버들치가 2개 구간으로 나타나며, 참붕어와 갈문망둑이 1개 구간에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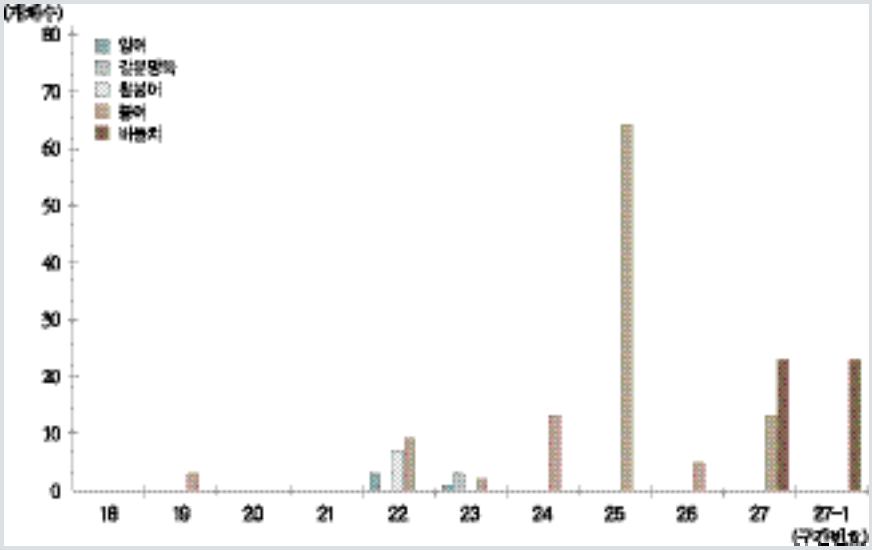
서호천 어류의 분포 상황은 중류지역에서 잉어, 갈문망둑, 참붕어, 붕어가 나타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류지역은 붕어만 조사되었고, 하류지역은 붕어와 버들치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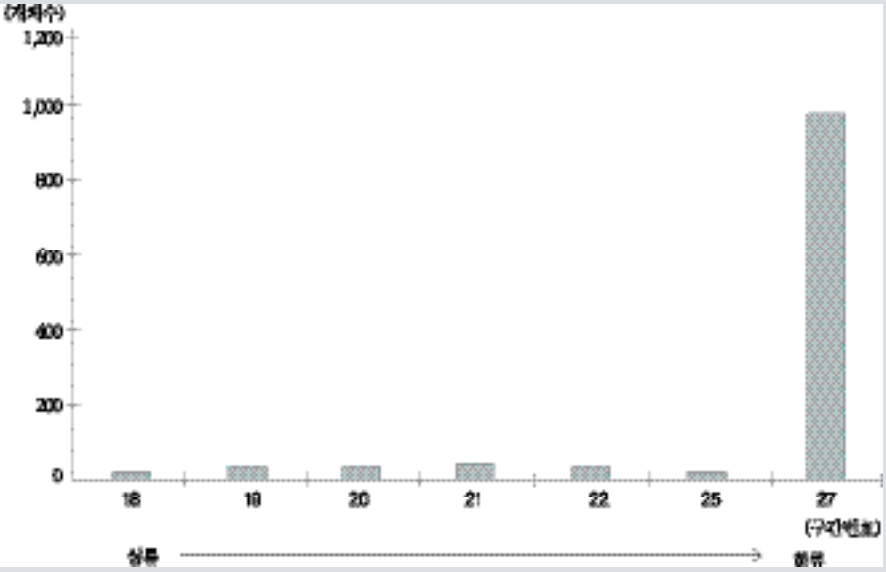
〈그림 73〉 서호천 어종별 출현 구간수



〈그림 74〉 서호천 구간별 출현 어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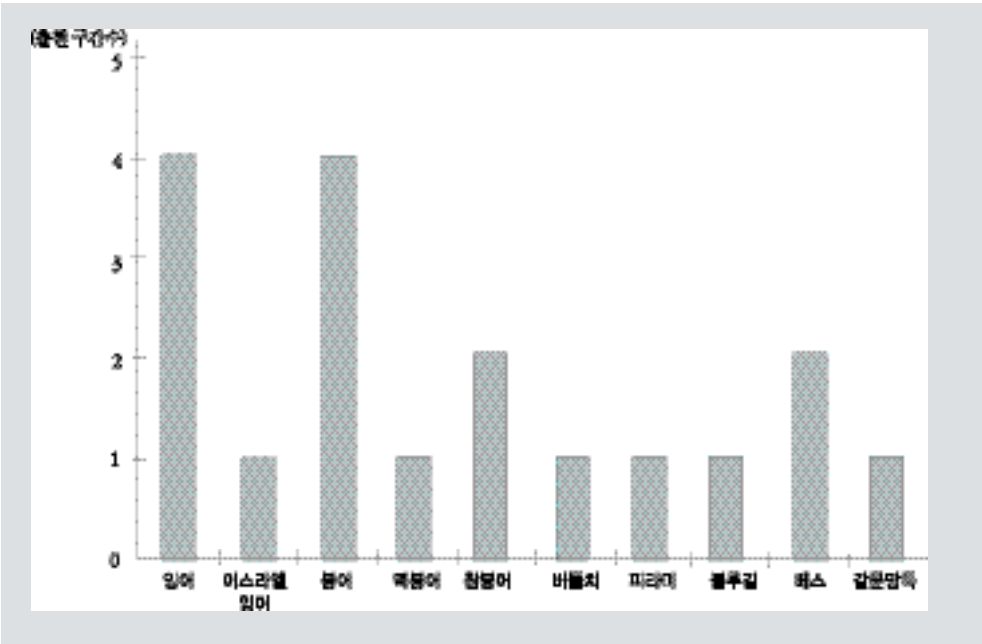
〈그림 75〉 서호천 구간별 출현 어종 및 개체수(성어)



〈그림 76〉 서호천 구간별 출현 붕어 개체수(치어)

(2) 저수지의 어류상

수원시 저수지에서 조사된 어류는 총 3과 10종이 조사되었고, 평균 3.6종이 나타나고 있다. 잉엇과로 잉어, 이스라엘잉어(*Cyprinus carpio nudus*), 붕어, 떡붕어(*Carassius cuvieri*), 참붕어, 버들치, 피라미가 조사되었다. 검정우럭과는 블루길(*Lepomis macrochirus*)과 베스가 조사되었고, 망둑엇과로 갈문망둑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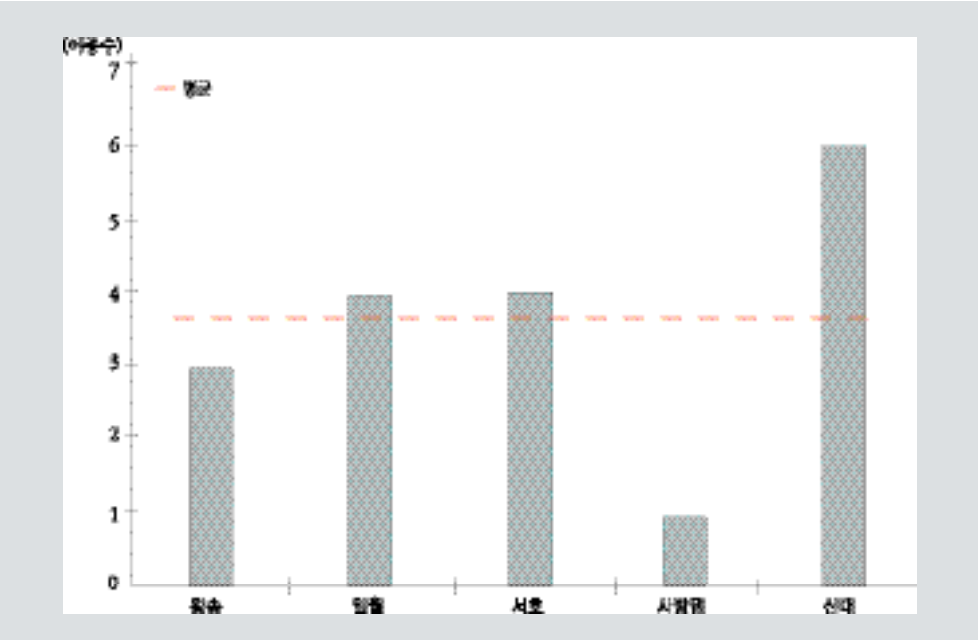


〈그림 77〉 전체 저수지 어종별 출현 구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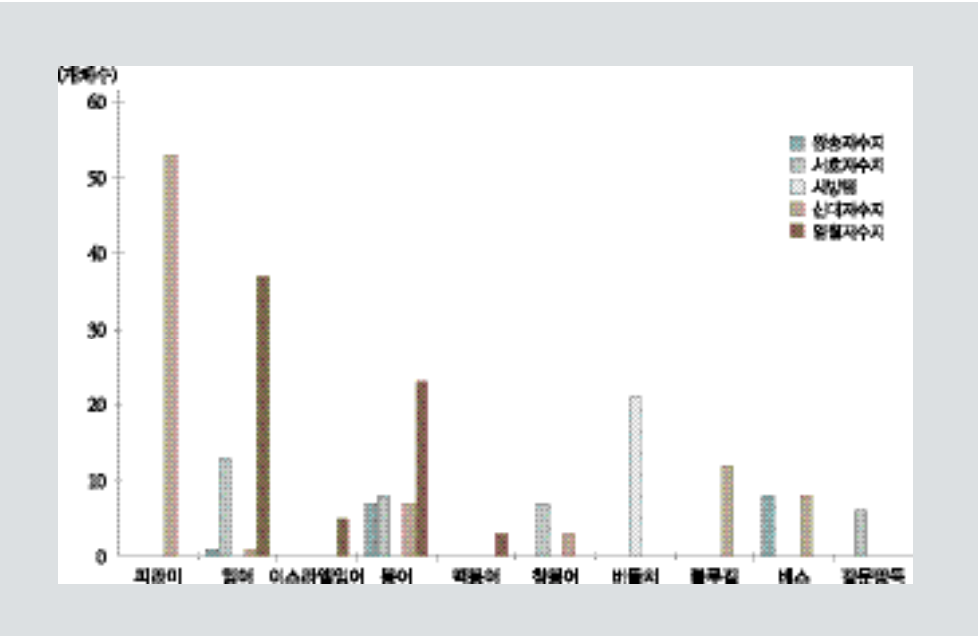
저수지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어류는 잉어 · 붕어이며, 다음으로 참붕어 · 베스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버들치, 피라미, 블루길, 갈문망둑이 조사되었다. 이 중 외래종으로 블루길과 베스 · 떡붕어 · 이스라엘잉어가 조사되었고, 한국의 고유종으로 얼룩동사리가 조사되었다.

저수지별로 보면 신대저수지가 6종으로 가장 많고, 서호저수지 4종, 일월저수지 4종, 왕송저수지 3종, 사방댐 1종으로 조사되었다. 수원시 저수지에서는 주로 잉어, 붕어, 참붕어, 베스, 이스라엘잉어가 나타나고 있다.

왕송저수지는 유역면적 1,555ha, 만수면적 96ha, 인가면적 564ha이며, 수원시에 유출구 부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원천리천으로 흘러들어 가며, 저수지 평가 등급은 향상으로



〈그림 78〉 저수지별 출현 어종수



〈그림 79〉 저수지별 어종 및 개체수(성어)

조사되었고, 저수지 서쪽과 동쪽으로 산림이 있다. 호안 주변으로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거지가 주변에 혼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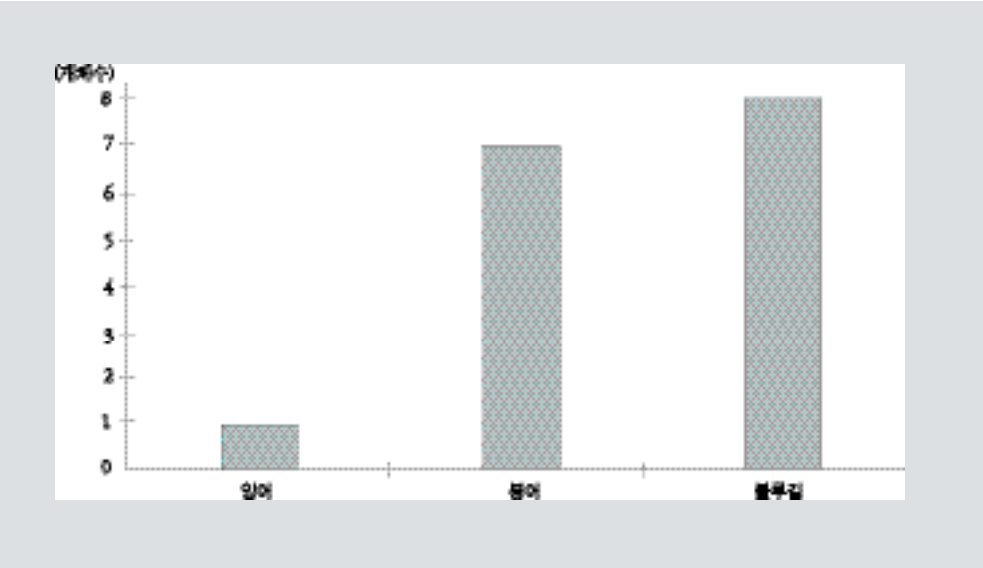
왕송저수지에서 조사된 출현종은 2과 3종의 어류가 조사되었다. 잉엇과의 잉어 1마리, 붕어 7마리, 검정우럭과의 베스성어 8마리, 치어 2,000마리 이상이 조사되었다. 베스로 인한 피해가 있으며, 다른 저수지에 비해 어류종이 적게 조사되었다.

〈그림 80〉 왕송저수지 서쪽의 산림지역

〈그림 81〉 왕송저수지 동쪽의 산림지역

〈그림 82〉 왕송저수지 제방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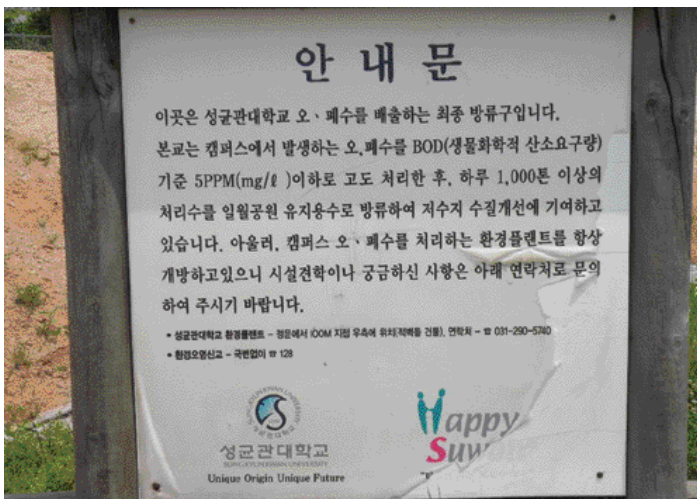
〈그림 83〉 왕송저수지 유출구



〈그림 84〉 왕송저수지 어종 및 개체수

일월저수지는 유역면적 277ha, 만수면적 18ha, 유효저수량 299㎥이며, 주변이 모두 도시지역이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 오 · 폐수를 방류하는 최종 방류구이며, 공원화되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다. 북쪽으로 도로가 있으며, 서쪽으로 산림이 있다. 남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수변에 갈대와 줄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림 85〉 일월저수지 주변 운동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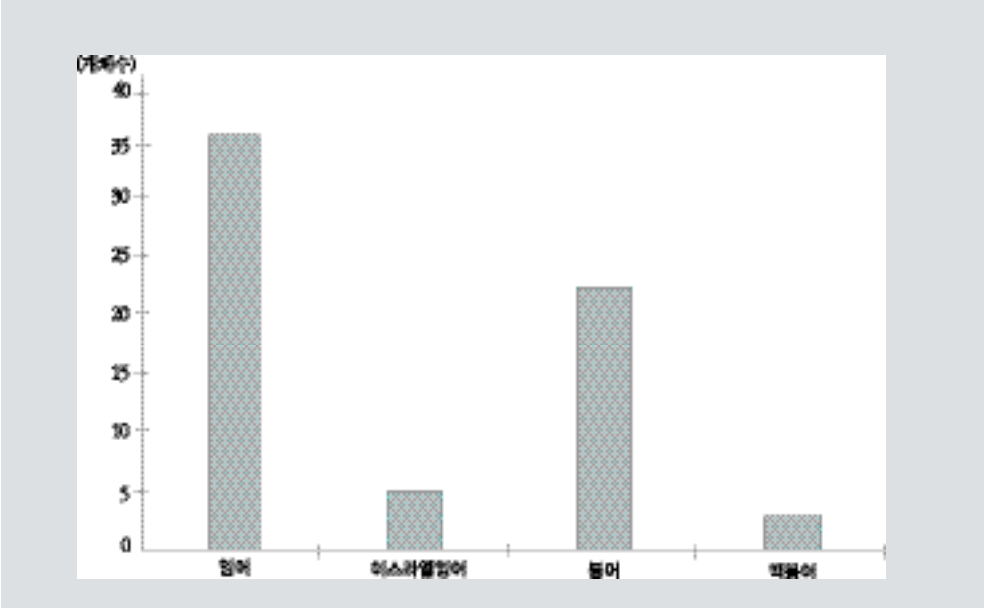


〈그림 86〉 일월저수지 오 · 폐수 방류 안내문

〈그림 87〉 일월저수지 식생군락

〈그림 88〉 일월저수지 전경

조사된 어종은 잉어가 37마리로 가장 많고, 붕어가 23마리, 이스라엘잉어가 5마리, 떡붕어가 3마리로 조사되었다.



〈그림 89〉 일월저수지 어종 및 개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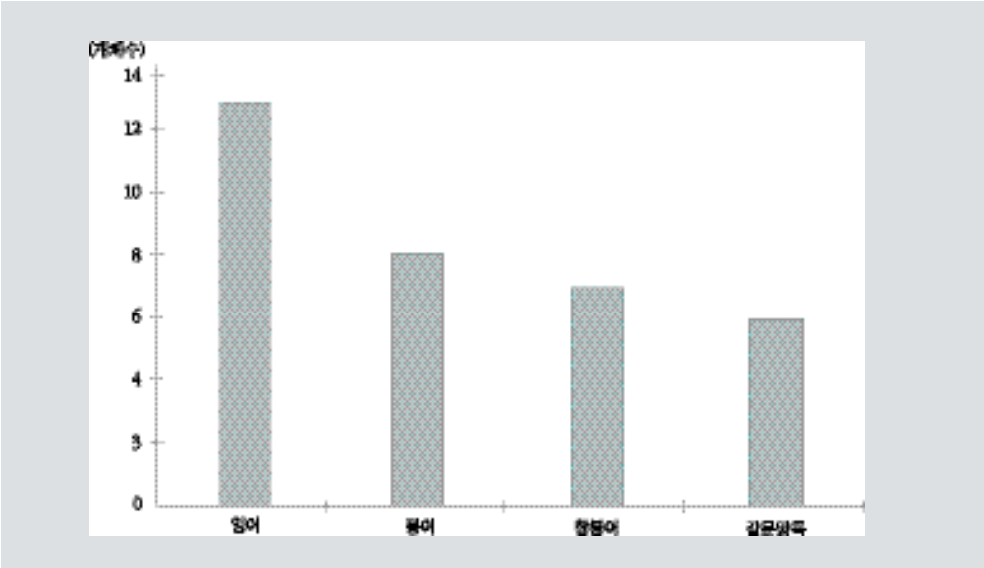
〈그림 90〉 서호공원

〈그림 91〉 서호공원 산책로

〈그림 92〉 서호저수지 전경

〈그림 93〉 서호저수지 전경

서호저수지는 유역면적 2,065ha, 만수면적 3.7ha, 인가면적 107ha이며, 서호천의 중류에 위치하며, 농사시험연구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 현황은 남쪽 유출구 주변으로 농사시험을 위한 농경지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철도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북쪽인 유입구 주변에는 농경지와 공원 · 농민회관이 있다. 서쪽으로는 산림과 농촌진흥청이 위치하고 있다. 저수지 제방으로는 서호근린공원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으며, 운동과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림 94〉 서호저수지 어종 및 개체수

서호저수지는 잉어가 13마리로 가장 많으며, 붕어 8마리, 참붕어 7마리, 갈문망둑 6마리로 4종이 조사되었다. 외래종인 베스나 나일틸라피아는 조사되지 않았다.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사방댐은 습지의 규모는 약 0.2ha로 농경을 위해 물을 모아 둔 인공제방에 의해 형성되었고, 광교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등산객을 위한 휴식

〈그림 95〉 광교산 사방댐 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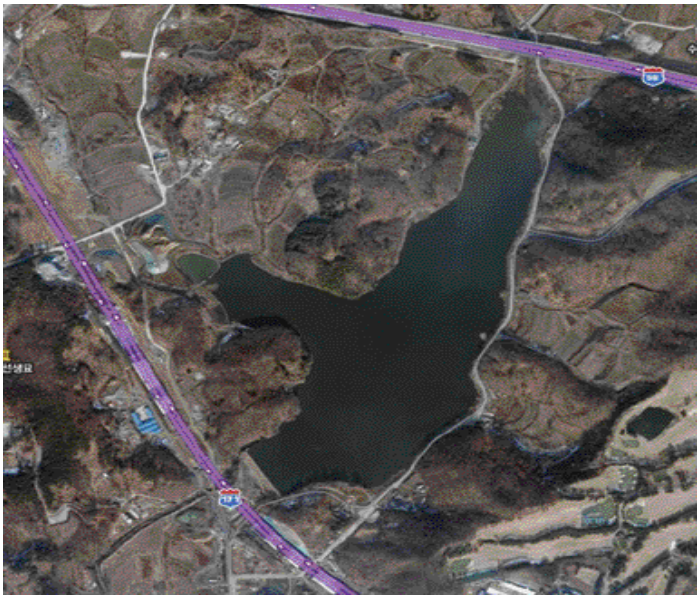
〈그림 96〉 광교산 사방댐 주변 산림

〈그림 97〉 광교산 사방댐 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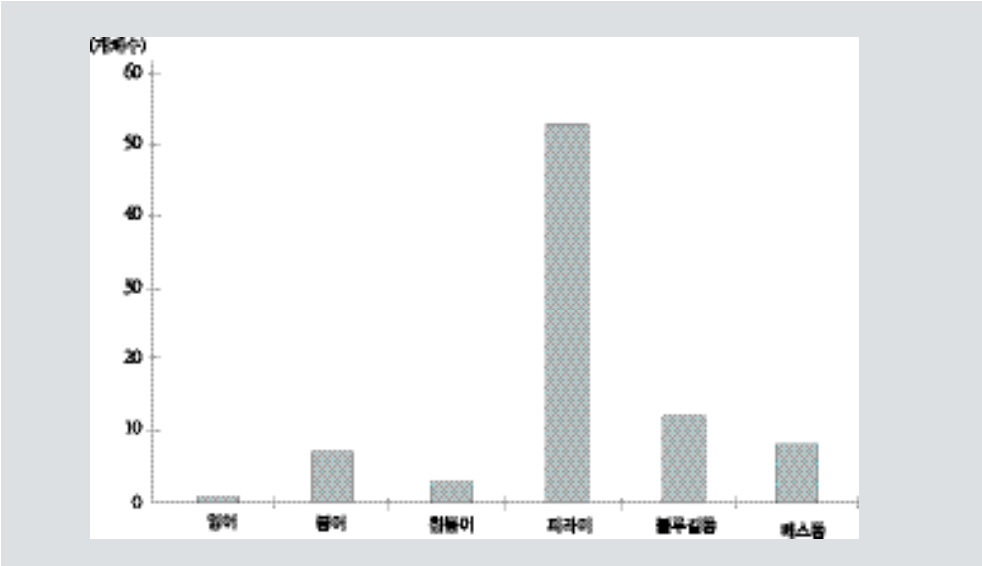
〈그림 98〉 광교산 사방댐 전경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식생은 소나무, 아까시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붓꽃, 갈대, 회양목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토양은 미사질 양토와 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다. 사방댐의 어류는 버들치만 조사되었으며, 21마리가 조사되었다.

신대저수지는 유역면적 647ha, 만수면적 34ha이다. 유입구와 유출구 주변으로는 고속도로가 있어 주변과 단절시키고 있다. 신대저수지에서는 6종이 조사되었는데, 잉어, 붕어, 참붕어, 피라미, 블루길, 베스가 조사되었으며, 피라미가 53마리로 가장 많았다.



〈그림 99〉 신대저수지 항공영상



〈그림 100〉 신대저수지 어종 및 개체수

5. 비오톱 분류 및 생태계 평가

수원시 비오톱 유형 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대분류와 중분류 유형은 환경부 표준안을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 중 수원시에서 나타나지 않는 농공단지, 항만 및 공항시설, 해안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소분류 유형은 중분류 유형 내에서 수원시의 토지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였다. 수원시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13개의 대분류에 59개의 소분류로 구분된 비오톱 유형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표 57〉 비오톱 유형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코드	분류기준
주거지(A)	단독주택지	불투수포장 비율 높은(70% 이상) 단독주택지	A01	불투수 포장 비율
		불투수포장 비율 낮은(70% 미만) 단독주택지	A02	
	공동주거지		A03	
상업업무지(B)	중심상업지역		B01	
	일반상업지역		B02	
공업지(C)	공단지역		C0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코드	분류기준
혼합지(D)	주거상업 혼합지역		D01	
	주거공업 혼합지역		D02	
공급처리지(E)	물관련시설	하수처리장	E01	
		배수지	E02	
		유수지	E03	
		정수장	E04	
	폐기물관련시설		E05	
	에너지 및 통신시설	에너지 및 통신시설	E06	
		기타 도시기반시설	E07	
공공시설지(F)	교육시설		F01	
	체육시설		F02	
	병원 · 요양기관		F03	
	행정 · 연구기관		F04	
	기타 공공시설		F05	
교통시설지(G)	철로 시설지역	철도시설	G01	
	도로 시설지역	도로 및 부속시설	G02	
공원녹지(H)	조성된 공원녹지	근린공원	H01	
		어린이공원	H02	
		완충녹지	H03	
		경관녹지	H04	
		연결녹지	H05	
		광장	H06	
	기타 녹지	유원지	H07	
		골프장	H08	
		묘지	H09	
		기타 녹지	H10	
	문화유적지	문화유적지	H11	
수공간(I)	하천	산지형 하천	I01	하천 인접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구분
		농촌형 하천	I02	
		도시형 하천	I03	
	저수지		I04	
농경지(J)	논		J01	
	밭		J02	
	묘포장		J03	
	과수원		J04	
	축산시설지역		J05	
	특수재배지역	시설농경지	J06	
	목초지	방목지	J07	
산림(K)	자연림	침엽수 자연림	K01	교목층의 상관식생을 바탕으로 잎의 모양과 수종 구성에 따라 분류
		활엽수 자연립	K02	
		혼효 자연림	K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코드	분류기준
산림(K)	자연림	침엽수 인공림	K04	
		활엽수 인공림	K05	
		혼효 인공림	K06	
	조림지	조림지	K07	
	초지	자연초지	K08	
	노출지	묘지, 광산 등	K09	
유휴지(L)	도시지역 유휴지	공지	L01	
기타(M)	택지개발지구		M01	
	보안지역		M02	
	공사지역		M03	
	군사시설		M04	
	미분류		M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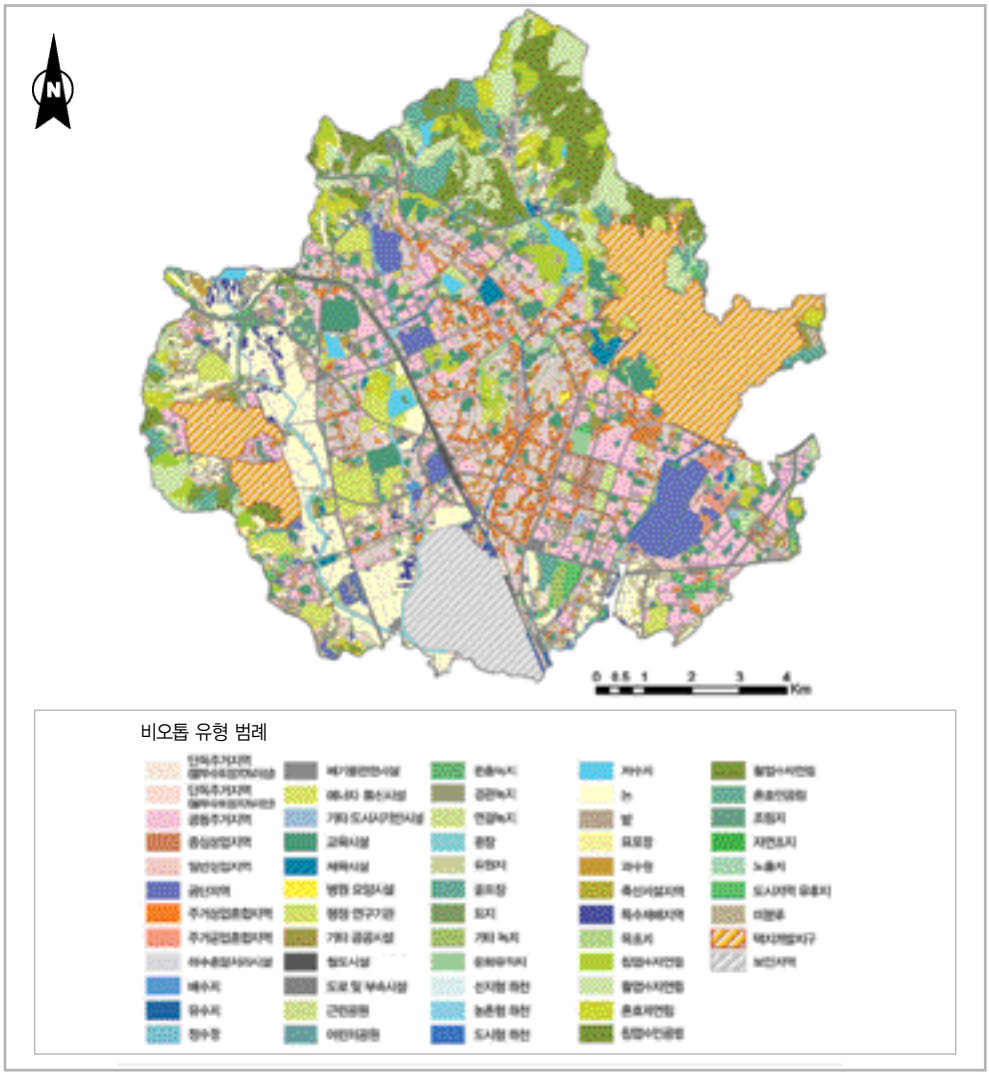
1) 비오톱 유형화

비오톱 유형 분류체계에 따라 수원시를 구분한 결과는 〈표 58〉과 같이 나타났다. 소분류별로는 활엽수자연림이 11.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엽수 인공림 9.20%, 도로 및 부속시설 9.1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택지개발 중인 지역이 8.58%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지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58〉 수원시 비오톱 유형 분포

소분류	분류코드	비율(%)
불투수포장 비율 높은(70% 이상) 단독주택지	A01	4.58
불투수포장 비율 낮은(70% 미만) 단독주택지	A02	0.12
공동주거지	A03	5.56
중심상업지역	B01	0.22
일반상업지역	B02	3.22
공단지역	C01	2.40
주거상업 혼합지역	D01	2.76
주거공업 혼합지역	D02	0.30
배수지	E02	0.04
정수장	E04	0.04
폐기물관련시설	E05	0.05
에너지 및 통신시설	E06	0.01
기타 도시기반시설	E07	0.11
교육시설	F01	2.84

소분류	분류코드	비율(%)
체육시설	F02	0.44
병원 · 요양기관	F03	0.09
행정 · 연구기관	F04	2.68
기타공공시설	F05	0.53
철도시설	G01	0.29
도로 및 부속시설	G02	9.18
근린공원	H01	0.88
어린이공원	H02	0.17
완충녹지	H03	1.02
경관녹지	H04	0.18
연결녹지	H05	0.00
광장	H06	0.01
유원지	H07	0.02
골프장	H08	0.32
묘지	H09	0.31
기타녹지	H10	0.25
문화유적지	H11	0.26
산지형 하천	I01	0.01
농촌형 하천	I02	0.98
도시형 하천	I03	0.27
저수지	I04	0.71
논	J01	6.31
밭	J02	3.77
묘포장	J03	0.36
과수원	J04	0.19
축산시설지역	J05	0.04
시설농경지	J06	0.64
방목지	J07	0.00
침엽수 자연림	K01	3.19
활엽수 자연림	K02	11.26
혼효 자연림	K03	6.42
침엽수 인공림	K04	9.20
활엽수 인공림	K05	0.19
혼효 인공림	K06	3.14
조림지	K07	0.36
자연초지	K08	0.07
묘지, 광산 등	K09	0.00
공지	L01	0.93
택지개발지구	M01	8.58
보안지역	M02	3.80
공사지역	M03	0.56
군사시설	M04	0.15
미분류	M05	0.00
계		100.00



〈그림 101〉 비오톱 유형도

2) 비오톱 평가

비오톱을 평가하여 보전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해 그 생태계를 보전할 것인지 복원할 것인지 또는 향상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태계 건강성(Ecosystem Health)이란 자신의 고유한 구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교란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회복하는 특성을 말하며, 생태계 건강성의 평가는 그 생태계가 지

니는 생물종의 구성, 서식지의 질,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면적 등을 주요 지표로 한다. 보전등급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충분한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개발지로부터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향상, 복원 전략을 취하게 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공간 관리에 적용 가능한 세밀한 축척의 보전등급 구분이 필요하다. 평가 과정 및 방법은 생태자연도와 토지적성평가 등 기존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 결과는 세분화되어 도시생태계 관리가 구체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평가 방향

수원시 생태계 특성은 도시화로 인하여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핵심지역의 생물 서식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전이지역 또한 부족하다. 인접지와 연결되는 생태계 대부분이 경부고속도로, 국도, 수원시 내부도로 등의 도로로 단절되어 있다. 하천생태계의 자연성 및 물질순환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① 잠재성과 안정성이 큰 핵심 생물 서식지를 발굴하여 보전하고, 기능을 향상시킨다.
② 가장자리와 완충지역의 생물 서식기능을 보전한다.
③ 생물다양성과 희소성이 있는 생물 서식지를 보전한다.
④ 물질순환체계 기능을 보전하여 생물 서식 기반 확보, 오염물질 정화, 생활환경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⑤ 도시민의 이용가치가 높은 비오톱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2) 평가 목표

생물 서식지 기능, 물질순환체계 기능, 도시민 이용성을 고려하여 각 비오톱의 보전등급을 평가하였으며, 비오톱 보전등급이 도시계획과 환경관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적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가 방법

평가의 공간적 단위는 단위 비오톱으로 한다. 단위 비오톱은 토지 이용 및 토지 피복을 근간으로 하기에 인간 활동과 일치된다. 비오톱 보전등급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평가 부문을 도출하였다.

① 생물 서식지 기능 : 핵심 생물 서식지, 완충지역, 희귀생물 서식지와 서식지 기능 보전

② 물질순환체계 기능 : 자연적인 물순환체계 및 대기순환체계 보전, 오염물질 정화기능 보전
③ 도시민 이용성 : 도시민의 생활환경 질과 여가, 학습활동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의 보전과 배치

〈표 59〉 평가부문의 설정

평가부문	내 용
생물 서식체계의 보전	주요 생물 서식지, 비오톱 유형을 보전 생태거점 및 완충지대를 보존지역으로 설정 희귀종의 서식지역, 희귀 비오톱 유형을 보전 주요 생태거점을 블루네트워크(하천)로 연결 녹지 및 하천 기능 · 구조의 재해석을 통해 보전방안 도출
물질 순환체계의 보전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를 최소화 자연적인 물질 순환체계 보전 주요 지천의 상류지역을 보전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친환경적 도시개발	기존 자연환경의 기능과 구조를 도시개발에 반영 자연요소의 위락, 학습 기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전용도의 토지 이용을 배치

각 평가부문 대한 평가지표를 〈표 60〉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60〉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내 용
생물 서식 환경의 보전	육상 생태계	공통	건강성	생태계의 생산, 소비, 분해 기능이 원활한 지역
			다양성	육상생태계의 수직적 구조 다양성이 높은 지역
			연계성	생물 서식의 핵심지역과 잘 연결된 지역
	수생태계		생물종 서식	생물종의 개체수와 다양도가 높은 지역
			안정성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교란되지 않는 지역
			자연성	수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물질 순환 체계의 보전	수순환기능			자연적인 수순환체계의 유지와 회복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 지역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시민 이용성			시가지 내에서 도시민의 자연 체험과 휴양에 큰 기능을 하는 지역

각 보전 목표 간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61〉 환경보전 목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구분	생물 서식환경 보전	물질 순환체계 보전	친환경적 도시개발
생물 서식환경 보전	1	2	4
물질 순환체계 보전	1/2	1	2
친환경적 도시개발	1/4	1/2	1

〈표 62〉 육상생태계 생물 서식환경 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구분	건강성	다양성	연계성	생물종 서식
건강성	1	3	1	1/3
다양성	1/3	1	1	1
연계성	1	1	1	2
생물종 서식	3	1	1/2	1

〈표 63〉 수생태계 생물 서식환경 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구분	자연성	안정성	연계성	생물종 서식
자연성	1	1	1	1/2
안정성	1	1	2	1
연계성	1	1/2	1	1
생물종 서식	2	1	1	1

각 보전 목표와 평가지표 간의 이원비교 결과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64〉 지표 간 가중치 산출

보전 목표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생물 서식환경 보전	0.57	육상생태계	건강성	0.26
			다양성	0.19
			연계성	0.27
			생물종 서식	0.28
			소계	1.00
		수생태계	자연성	0.21
			안정성	0.29
			연계성	0.21
			생물종 서식	0.29
			소계	1.00
물질 순환체계 보전	0.29	수순환기능		1.00
친환경적 도시개발	0.14	도시민 이용성		1.00
계	1.00	–		–

평가척도는 각 평가지표별로 〈표 65〉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각 지표는 5m 해상도의 격자 형태 공간자료로 구축하였다.

〈표 65〉 평가지표별 평가 척도

정책목표	평가지표		평가 척도
생물 서식 환경의 보전	육상 생태계	건강성	식생활력도
		다양성	중하층 식생의 피도
		연계성	큰 산림까지 연결성
		생물종 서식	생물 서식지 모형화 결과 이용
	수생태계	안정성	하천 상하류 맥락(하류일수록 안정됨)
		자연성	하천 구조의 자연성
		연계성	산림까지 연결성
		생물종 서식	생물 서식지 모형화 결과 및 어류 조사결과 이용
물질 순환 체계의 보전	수순환기능		표면유출(표면유출 적을수록 기능 큼) 유출축적(유출축적 많을수록 기능 큼) 하변구역이면 수순환기능 큼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시민 이용성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3) 육상생태계

육상생태계 건강성은 식생활력도를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식생활력도는 2006년 Landsat TM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생물서식지 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중하층 식생의 피도는 현존식생 유형별로 할당된 중층 식생 피도와 하층 식생 피도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육상생태계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큰 산림까지의 연결성은 대상지의 주요 핵심지역(광교산, 칠보산)까지 접근하는 데 필요한 최소거리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각 격자의 이동비용은 동물이 이동할 때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계수로, 토지 피복에 따라 할당하였다.

육상생태계의 생물종 서식 지표는 생물 서식지 모형화 결과를 표준화한 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ER-ANI=\left\{\begin{array}{c}(\text{곤충종수})\times 2+(\text{양서류 개체수})\times 2+\\(\text{조류종 다양도})\times 2+(\text{포유류 활동도}+\text{포유류 다양도})\end{array}\right\}\times\frac{1}{8}$$

4) 수생태계

수생태계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하천의 상하류 맥락은 지형에 의한 흐름축적으로 계산

하였다. 흐름축적은 하류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므로, log10을 취한 후 사용하였다. 수생태계의 자연성은 다음 표와 같이 하천 유형에 따라 할당하였다.

〈표 66〉 수생태계 자연성

구분	7	6	5	4	3	2	1
하천			자연도3등급		자연도4등급		자연도5등급
저수지			보전		향상		
지천, 세류	계곡부			경사지			평지
논	계곡부			경사지			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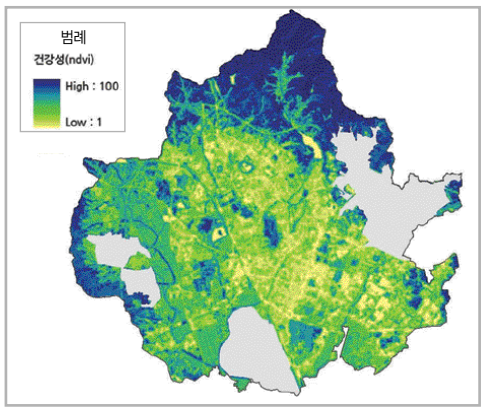
수생태계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산림까지의 연결성은 산림까지 접근하는 데 필요한 최소거리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각 격자의 이동비용은 동물이 이동할 때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계수로, 토지 피복에 따라 할당하였다. 수생태계 생물종 서식 지표는 생물서식지 모형화 결과를 표준화한 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어류 조사 결과가 있는 구간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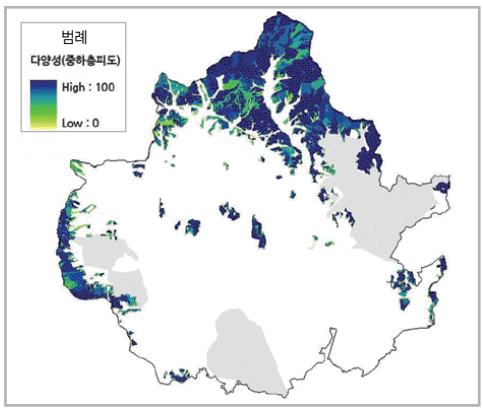
$$TER-ANI=\left\{\begin{array}{c}(\text{어류 개체수})\times 2+(\text{양서류 개체수})\times 2+\\(\text{조류종 다양도})\times 2+(\text{포유류 활동도}+\text{포유류다양도})\end{array}\right\}\times\frac{1}{8}$$

어류 조사 결과가 없는 구간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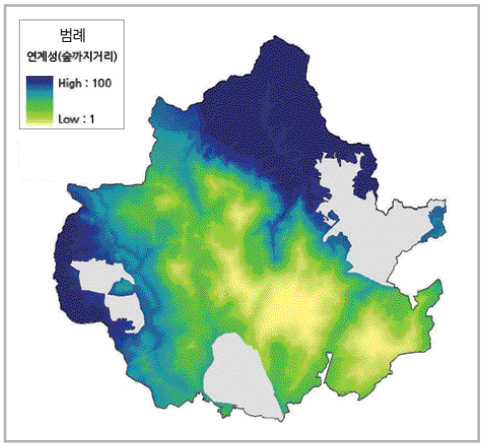
$$TER-ANI=\left\{\begin{array}{c}(\text{양서류 개체수})\times 2+\\(\text{조류종 다양도})\times 2+(\text{포유류 활동도}+\text{포유류 다양도})\end{array}\right\}\times\frac{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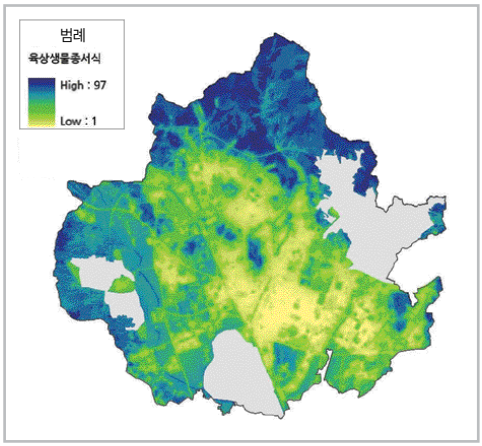
〈그림 102〉 육상생태계 건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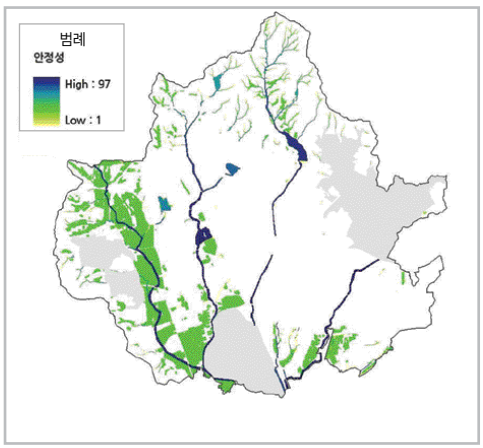
〈그림 103〉 육상생태계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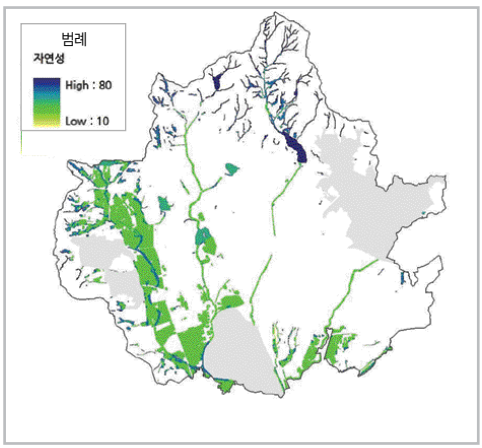
〈그림 104〉 육상생태계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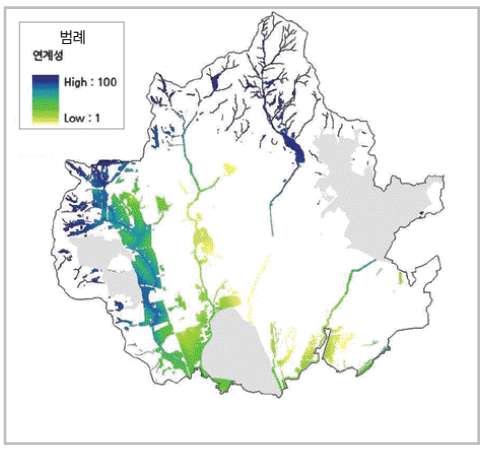
〈그림 105〉 육상생태계 생물종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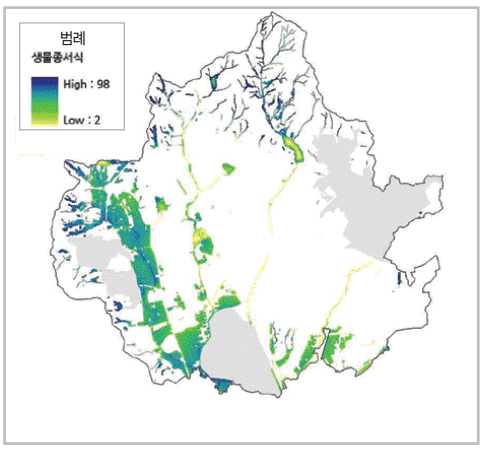
〈그림 106〉 수생태계 안정성



〈그림 107〉 수생태계 자연성



〈그림 108〉 수생태계 연계성



〈그림 109〉 수생태계 생물종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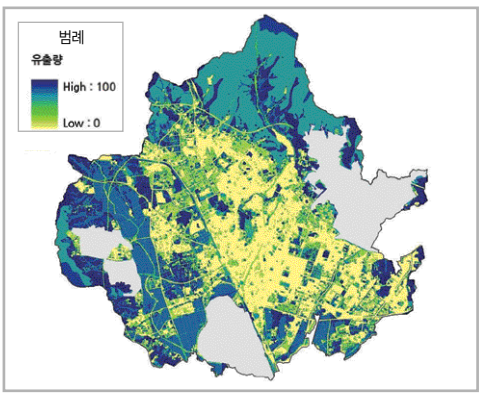
5) 수순환기능

표면유출은 앞서 구축한 수환경주제도 중 유출량을 사용하였다. 유출축적은 앞서 구축한 수환경주제도 중 유출축적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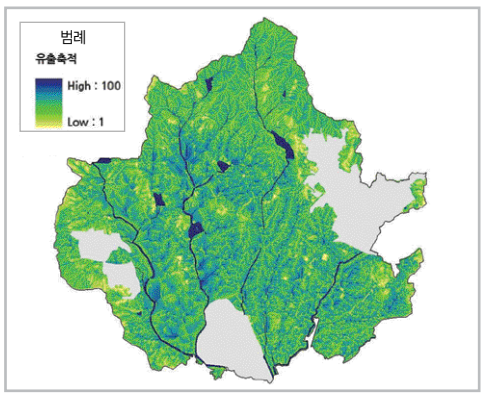
〈표 67〉 하변구역 점수

구 분	하변구역 폭	하변구역 점수
본류	양안 100m	85
지류	양안 50m	75
계류	양안 30m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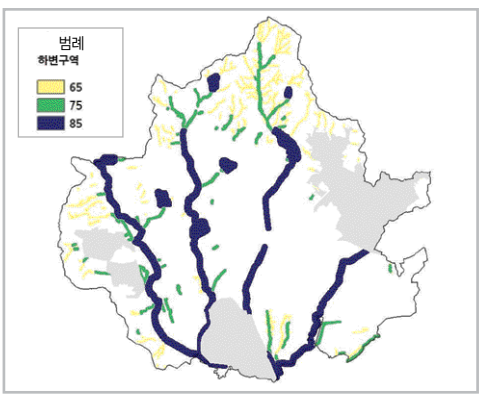
하변구역 점수는 〈표 67〉과 같이 하천 유형에 따라 할당하였다. 도시민 이용성 점수는 토지 이용과 토지 피복에 따라 할당하였으며, 토지 이용도와 토지 피복도에 표현되지 않은 식생은 식생활력도(NDVI) 값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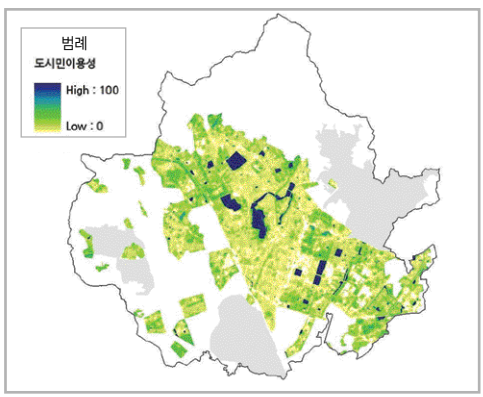
〈그림 110〉 수순환기능(유출량)



〈그림 111〉 수순환기능(유출축적)



〈그림 112〉 하변구역



〈그림 113〉 도시민 이용성

〈표 68〉 도시민 이용성 점수

구 분	이용성 점수	구 분	이용성 점수
근린공원	100	공공공지	50
어린이공원	70	토지 이용도 기타 녹지	40
완충녹지	60	토지 피복도 기타 녹지	40
산림	60	그 외 NDVI값 0 이상	NDVI * 100

6) 생태계 평가

생태계 구성원을 고려한 평가를 위하여 지표별 이원비교를 통해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표별로 점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평가목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① 생물 서식환경 보전

육상생태계 점수와 수생태계 점수를 산출하여 최대값을 생물서식환경 보전 점수로 사용하였다. 육상생태계는 대상지 전 지역에 대해 산출하였으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육상생태계 점수} = (0.26 \times \text{건강성}) + (0.19 \times \text{다양성}) + (0.27 \times \text{연계성}) + (0.28 \times \text{생물종 서식})$$

수생태계는 다음의 산출식에 의해 계산된 수생태계 점수와 육상생태계 점수를 비교하여 최대값을 취하였다.

$$\text{수생태계 점수} = (0.21 \times \text{자연성}) + (0.29 \times \text{안정성}) + (0.21 \times \text{연계성}) + (0.29 \times \text{생물종 서식})$$

② 물질 순환체계 보전

물질 순환체계 보전은 수순환기능에 대한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수순환기능 점수는 표준화된 유출량 점수와 유출축적 점수를 1:1로 평균한 값과 하변구역 점수 중 최대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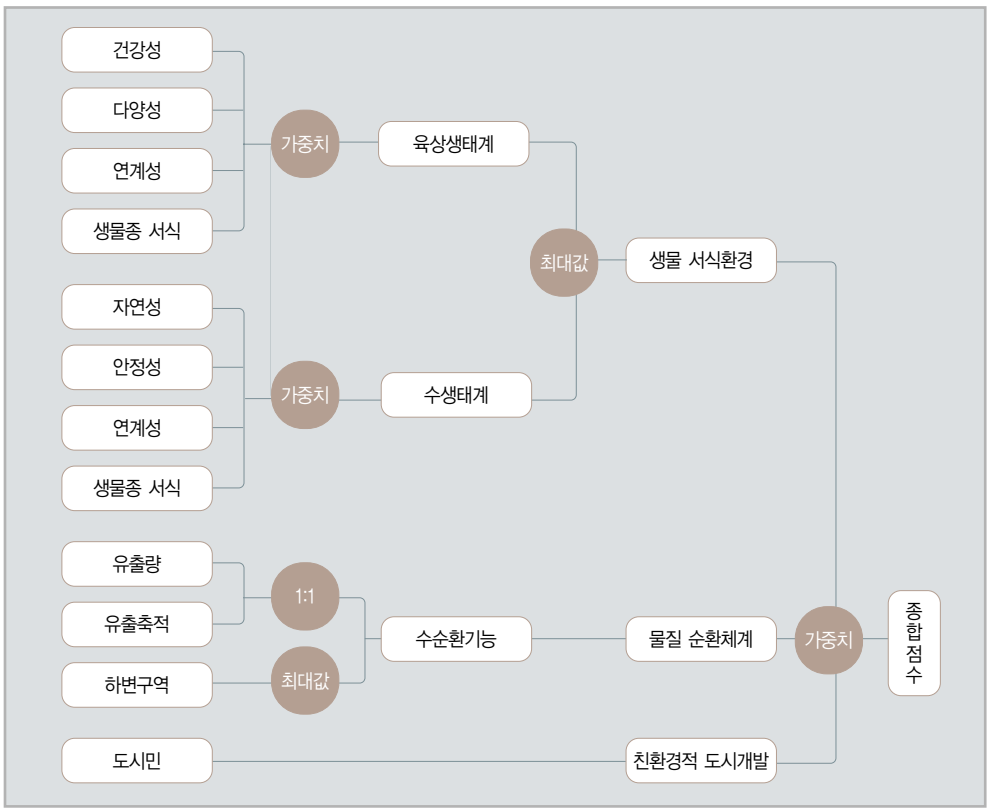
③ 친환경적 도시개발

도시민 이용성의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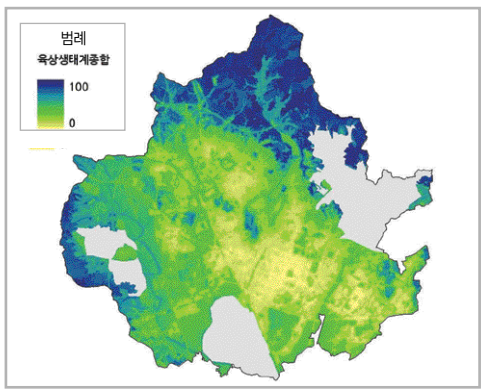
④ 종합점수 산정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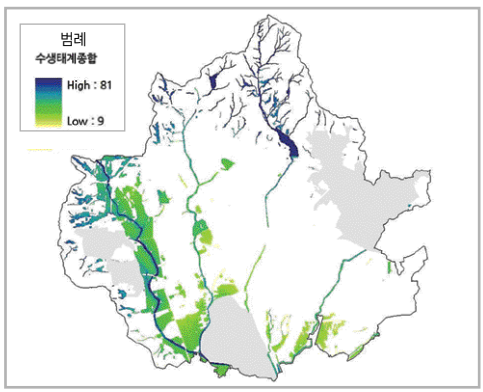
종합점수 = (0.57× 생물서식환경) + (0.29× 물질순환체계) + (0.14× 친환경적 도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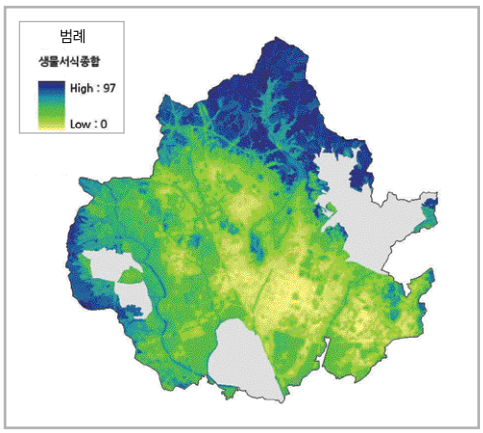
〈그림 114〉 평가 과정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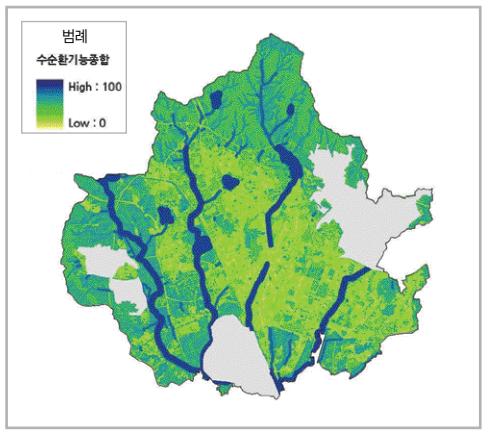
〈그림 115〉 육상생태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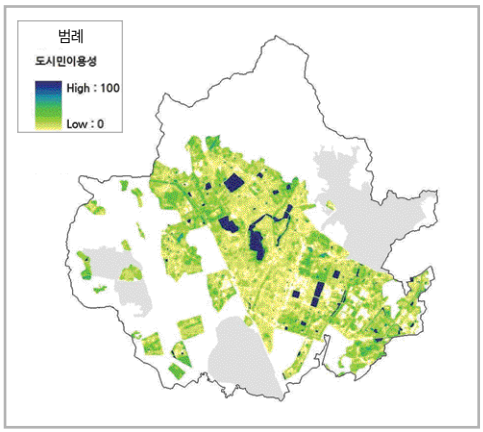
〈그림 116〉 수생태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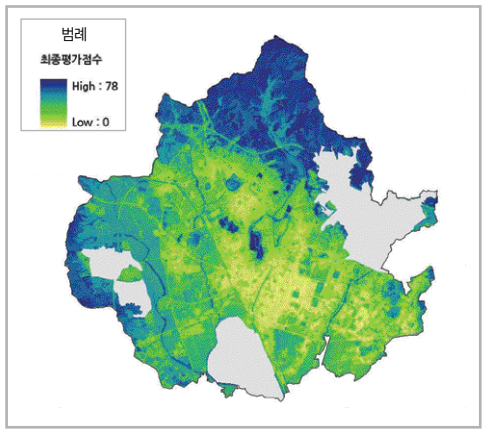
〈그림 117〉 생물 서식환경



〈그림 118〉 물질 순환체계



〈그림 119〉 친환경적 도시개발



〈그림 120〉 종합점수

⑤ 종합평가

5m 격자 형태의 종합점수를 폴리곤 형태의 단위 비오톱에 할당하였다. 1에서 100점 까지의 연속적인 값을 갖는 보전 점수를 1에서 5등급까지의 보전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단위비오톱 내의 격자 중 가장 많은 격자의 등급을 단위비오톱의 대표 등급으로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오톱 보전등급별 관리방안은 〈표 69〉와 같다. 보전지역 면적에 따라 3개의 대안으로 보전등급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안1이 보전 면적이 큰 대안이고, 대안3이 보전 면적이 적은 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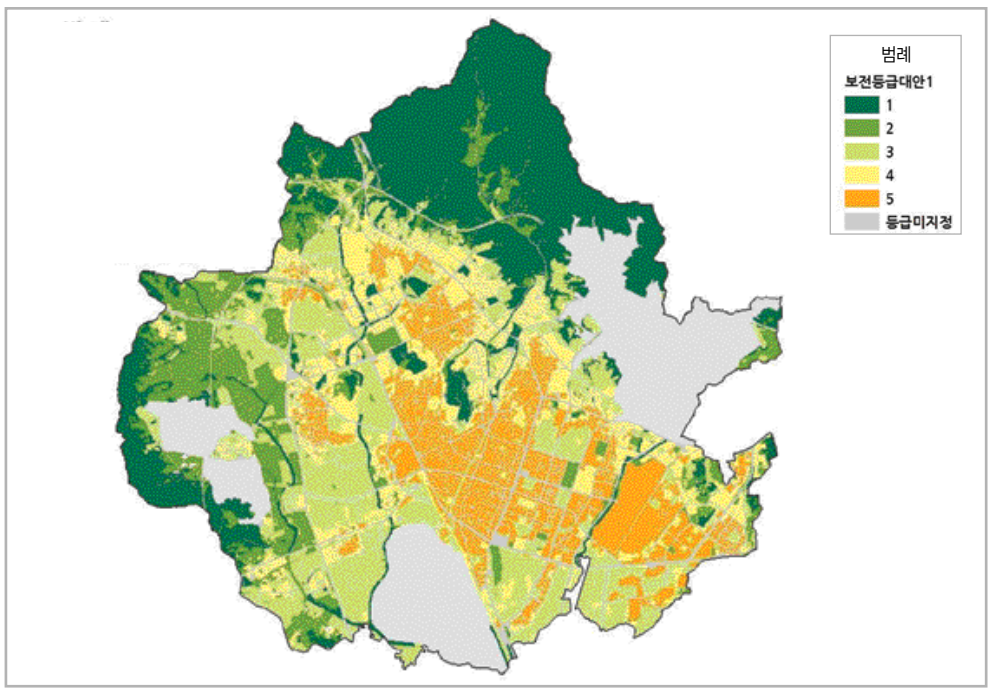
수원시 협의를 거쳐 대안1을 최종 보전등급으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비오톱 보전등급을 수원시 공원녹지계획과 비교 검토하였다.

〈표 69〉 비오톱 보전등급별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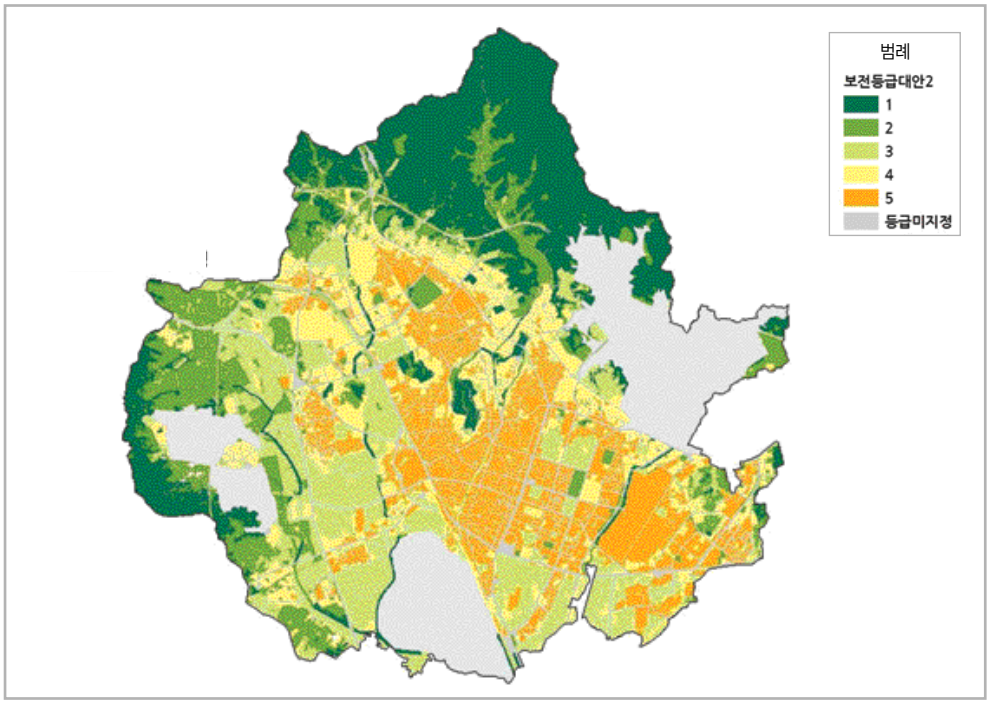
구분	관리방안
등급 I	보존가치가 높은 비오톱, 개발제한
등급 II	환경교육, 휴양, 생태관광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활동 이외에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등급 III	완충지역으로 제한적 소규모 개발
등급 IV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부분적 보전지역 지정관리하고, 그 외 개발허용
등급 V	개발허용

〈표 70〉 대안별 보전등급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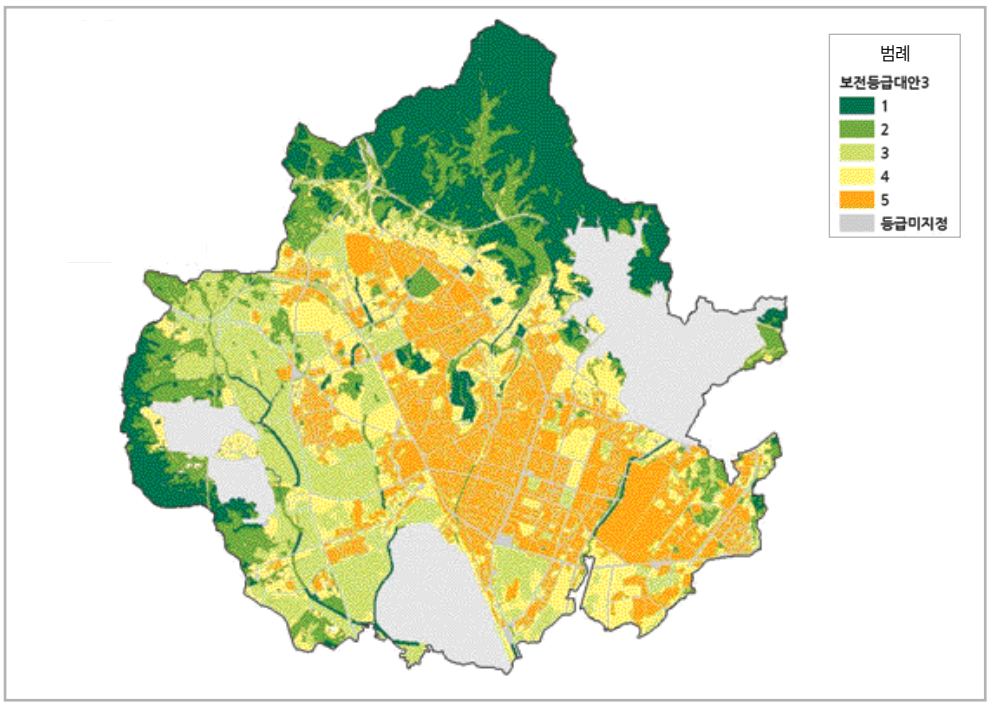
구분 / 등급	대안1			대안2			대안3		
	면적 (㎢)	면적비 (수원시 전체)	면적비 (등급부여 대상지)	면적 (㎢)	면적비 (수원시 전체)	면적비 (등급부여 대상지)	면적 (㎢)	면적비 (수원시 전체)	면적비 (등급부여 대상지)
1	27.16	22.4%	30.4%	23.07	19.0%	25.8%	20.56	16.9%	23.0%
2	12.66	10.4%	14.2%	14.92	12.3%	16.7%	13.68	11.3%	15.3%
3	21.26	17.5%	23.8%	19.23	15.8%	21.5%	16.93	13.9%	18.9%
4	13.10	10.8%	14.7%	13.72	11.3%	15.3%	16.27	13.4%	18.2%
5	15.21	12.5%	17.0%	18.44	15.2%	20.6%	21.93	18.1%	24.5%
등급 미부여	32.00	26.4%		32.00	26.4%		32.00	26.4%	
계	121.38	100.0%	100.0%	121.38	100.0%	100.0%	121.38	100.0%	100.0%



〈그림 121〉 비오톱 보전등급 대안1



〈그림 122〉 비오톱 보전등급 대안2



〈그림 123〉 비오톱 보전등급 대안3

〈표 71〉 비오톱 보전등급과 공원녹지계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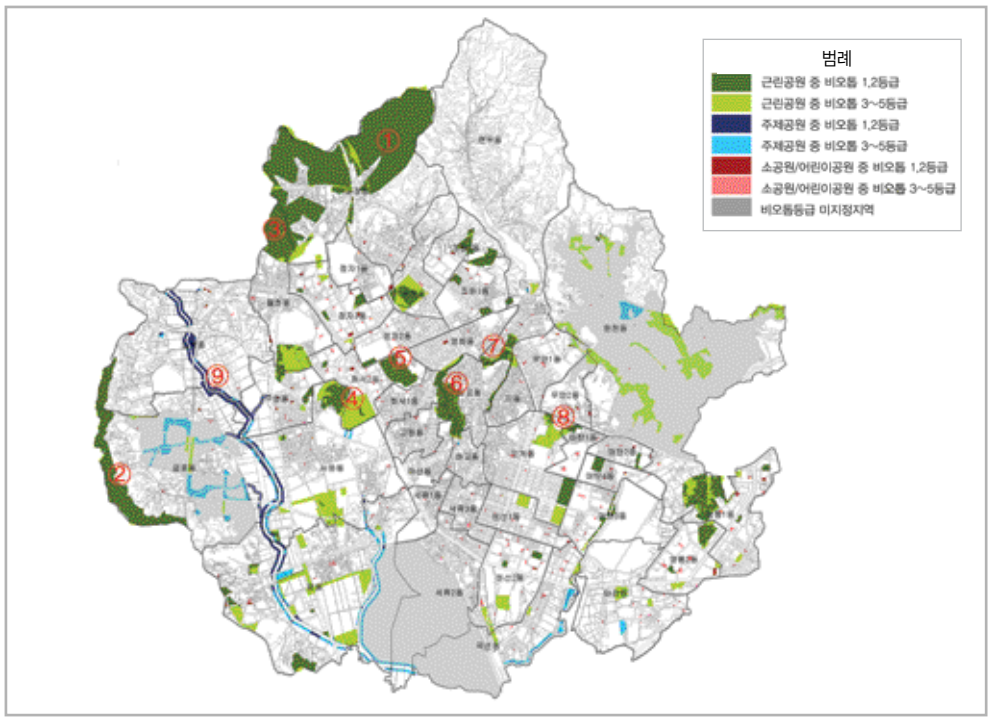
(단위 : ㎢)

비오톱등급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계
1	6.63(58.59%)	0.04(6.39%)	0.04(2.99%)	6.70(51.22%)
2	1.74(15.34%)	0.08(14.59%)	0.62(50.68%)	2.44(18.61%)
3	2.67(23.55%)	0.25(45.00%)	0.49(40.37%)	3.41(26.02%)
4	0.23(2.02%)	0.11(19.86%)	0.07(5.88%)	0.41(3.13%)
5	0.06(0.49%)	0.08(14.15%)	0.00(0.08%)	0.13(1.02%)
계	11.32(100.00%)	0.55(100.00%)	1.22(100.00%)	13.09(100.00%)

비고 : 비오톱등급 미지정지역은 제외

〈표 72〉 주요 공원별 비오톱 등급과 특성

공원 구분	위치	비오톱등급	특성
근린공원	광교산①, 칠보산②	1	산림 내부
	광교산 주연부③ 등	1~2	산림 주연부
	여기산④, 팔달산⑤, 숙지산⑥, 동공원⑦	1~3	도시민 이용성 큰 녹지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⑧	5	건물 및 포장지
주제공원	황구지천⑨	1~3	하천변



〈그림 124〉 비오톱 등급과 공원녹지계획 비교

제2부

역사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연혁과 영역

제2장 조선 후기 수원의 풍수지리

제3장 18~19세기 읍지로 본 수원

제4장 문화경관으로 본 수원팔경의 형식과 의미

김종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연혁과 영역의 이해와 지도화
2. 삼국시대 수원의 연혁
3. 고려시대 수원의 연혁
4. 조선 초기 수원의 연혁
5. 조선 후기 수원의 연혁
6. 1831년 수원부 행정구역의 복원
7. 일제시기 수원의 연혁
8. 해방 후 수원시의 연혁

제1장

수원의 연혁과 영역

1. 연혁과 영역의 이해와 지도화

한국은 오래 전부터 읍지에 '연혁'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각 지역의 변천사를 일괄(一括)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연혁 항목의 주요 기능은 단위 행정구역의 이름, 읍격(邑格), 소속, 치소(治所), 영역의 변동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에는 치소(오늘날 시 · 군청 소재지)의 이동이나 소속의 변경 또는 군현의 분리나 통 · 폐합에 따른 영역의 변동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혁 항목은 대부분 이름과 읍격(부 · 목 · 군 · 현)의 변화를 기술하는 데 할애되곤 하였다.

군현의 이름이나 읍격의 변화는 명칭의 변화이기 때문에 공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치소의 이동은 점(point)의 변화이고, 군 · 면 간 통 · 폐합이나 상급 행정 단위의 소속 변화는 선(line)과 영역(polygon)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생겨난다. 예컨대 일제시기에 한성부는 경성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경성부청의 위치도 이전의 한성부청과 달라졌다. 또한 한성부는 도(道)에 속하지 않는 직할지였으나 일제시기에는 경기도 관내가 되어 소속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영역의 측면에

서도 한성부가 도성 밖 성저십리까지 관할했던 것과 달리 경성부는 도성 내부와 용산 지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경성부에서 제외된 옛 한성부 도성 밖의 성저십리는 고양군에 편입됨으로써 고양군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연혁조를 읽을 때 명칭의 변동은 쉽게 이해되지만, "○○면 · □□면 · △△면이 yyyy년에 ㉮㉯군에서 ㉰㉱군으로 편입되었다."는 식의 영역 변동에 대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을 알려 줄 뿐 실상이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는다. 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동 사항을 지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도는 인접한 지역 간 영역 변동이 실제 공간 속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 준다. 지역사에서 연혁을 다루면서 명칭과 위치는 물론 지도화를 통한 영역의 변동을 추적하는 작업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 행정구역을 복원하여 지도화하는 일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전근대에는 각종 지명과 시설의 위치가 군현 단위로 기록 · 관리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행정 경계가 현재의 지도 위에 표시되면 전근대 위치를 현 위치에 비정하는 작업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원에서 18세기 말까지 개설되다가 소멸한 장터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시장이 개설되던 지점이 당시에는 수원 소속이지만 지금은 평택시에 속해 있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당시의 행정구역도를 입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다른 검색 행태를 보여 줄 것이다. 전자는 검색해야 할 대상 지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우선 수원시부터 검색하고, 이어서 화성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엔 수원 · 화성과 접경하고 있는 안산 · 안양 · 의왕 · 용인 · 오산 · 평택 등 주변 지역을 차례로 검색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시장이 월경지(越境地)에서 개설되고 있었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사람이 수원의 연혁을 읽고 옛 수원의 영역을 알게 되었더라도 지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크다. 둘째, 행정구역 복원은 밀도 값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행정구역은 면 개념이기 때문에 면적 값을 갖는다. 전근대 군 또는 면 단위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면 각 통계에 대한 밀도 값 또한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A군의 인구와 경지가 B군보다 두 배 많다고 해서 A의 생산력이 B군보다 더 높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 A군의 면적이 B군보다 열 배 이상 넓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영역은 항상 면 단위 개념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상을 문자로 기술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일제시기를 지나 현대로 올수록 행정구역의 변화는 더욱 빈번했기 때문에 전 시기에 걸친 변화상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영

〈그림 1〉「수원시 관내도」(2001)

〈그림 2〉「화성시 관내도」(2001)

LEGEND

역이 바뀔 때마다 당시의 상황을 지도로 제작해 놓았다면 현 시점에서 연혁을 기술하고 지도화하는 일이 한결 수월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요 시점의 변화상을 지도화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수원시 연혁을 시 · 공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수원의 연혁을 살피는 데 가장 유용하고 기본적인 자료는 시대별 지리지와 고지도를 포함한 근현대 지형도이다. 현재 한국에서 면 경계까지 그려진 최초의 가장 정확한 지도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1:50,000 지형도이다. 이 지도는 수원시 연혁을 공간화하는 데 기본 지도로 사용되었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군현도인 『해동지도』, 『1872년 지방지도』와 『대동여지도』 등의 고지도와 1890년대 상황을 반영하는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95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1:50,000 지형도 및 1:25만 지세도(地勢圖) 역시 해당 시점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시 승격 이후 행정동의 분동 과정은 2001년에 수원시에서 발행한 「수원시행정지도」와 화성시에서 발행한 「화성시행정지도」를 베이스맵으로 삼았다.

지표 위에 부착된 모든 지명은 특정 지점 또는 한정된 범위를 점유한다. 이러한 지명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 공간성과 공간적 역사성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수원이라는 지명도 시간에 따라 상이한 공간적 범위를 갖고 있었고,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역사성도 여러 변이를 거듭해 왔다.

선사시대의 수원과 고대의 수원, 고려와 조선의 수원 그리고 근대 이후의 수원은 각 시대마다 고유의 지역성을 형성해 왔을 것이다. 수원의 연혁을 엄밀히 다루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명칭과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증을 넘어 그 땅 위에서 만들어진 수원의 역사와 지리, 나아가 수원의 지역정체성에 접근하는 데 다양하고 귀중한 정보와 단서를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공간은 역사적으로 한정된 지표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왕조를 거치면서 시대 통치에 필요한 형태로 다른 지역과 병합되거나 재조직되었다. 이 점에서 『수원시사』를 편찬하면서 그 범위에 대한 역사적 규명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기술되는 수원의 연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삼국시대 수원의 연혁

삼국시대에 수원의 이름은 수성군으로,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

> 수성군은 본래 고구려 매홀군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수성군으로) 고쳤다. 지금(고려)의 수주이다.
> 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2]

경덕왕(재위 742~765년)이 수성군으로 이름을 고친 것은 재위 16년인 757년 때의 일이다. 경덕왕은 군현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행정구역의 이름을 모두 중국식 한자로 바꾸었다. 오늘날 행정 지명이 거의 대부분 두 글자로 통일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매'는 물, '홀'은 골과 연관된 고어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매는 조수의 드나듦을 표현할 때 '한 매(한 물)', '두 매(두 물)' 식의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홀은 성(城)의 의미였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골ㅎ[洞]'로, 현대 국어에서는 '골', '고을'로 사용되고 있다. 신라 때의 수성군은 한주(漢州)에 속하였고, 수성군의 중심지는 대체로 현 화성시 봉담읍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매홀이라는 지명은 수원·화성·오산 일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매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 매홀 지명을 쓰는 여러 시설이 오산시 수청동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수원부 초평면, 청호면, 산성면, 문시면 4개 면이 1914년에 수원군 성호면으로 통합되었는데〈그림 28 참조〉, 1941년에 성호면이 오산면으로, 1960년에 오산읍으로, 1998년에 오산시로 승격하였다. 현재 봉담읍사무소와 오산시청은 직선거리로 13㎞ 정도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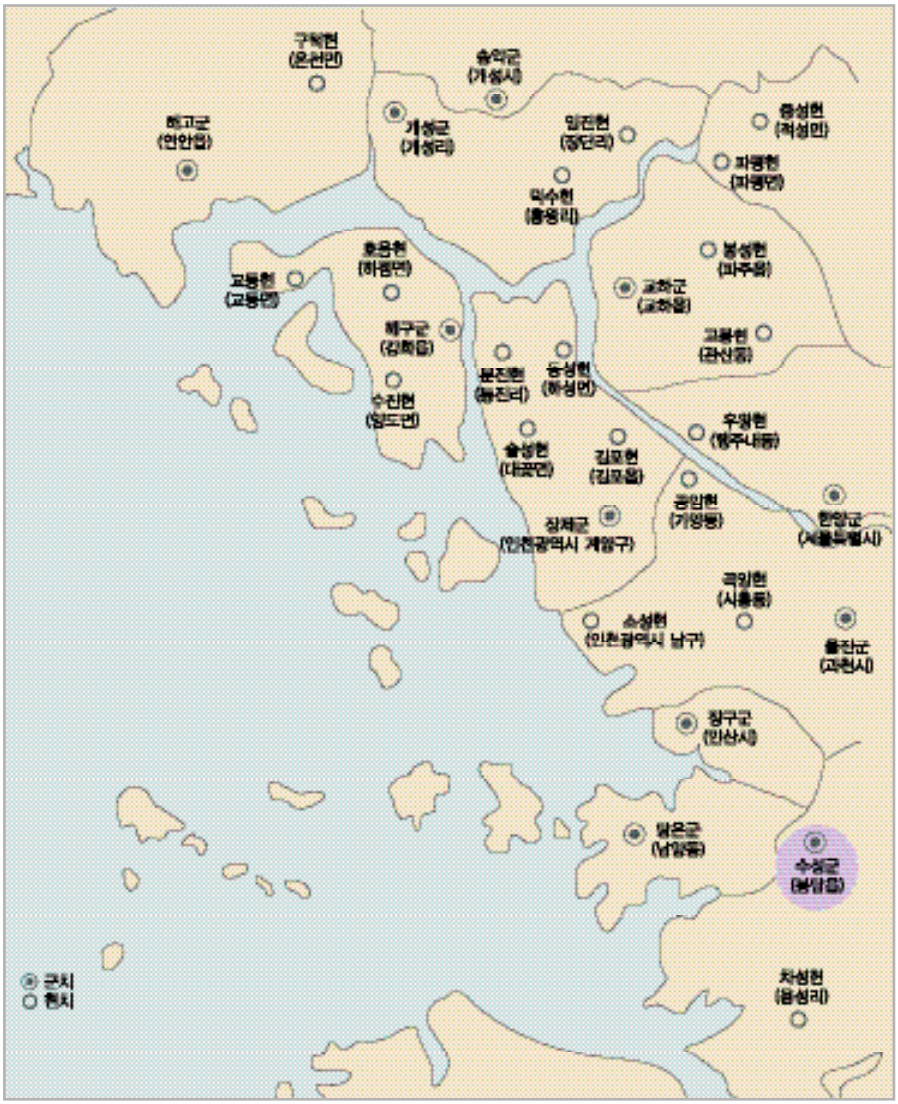
『삼국사기』에는 수성군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다.

> (헌덕왕) 15년 2월에 수성군과 당은현을 합하였다.
> 十五年 二月 合水城郡 唐恩縣[3]

헌덕왕 15년은 823년이다. 경덕왕이 지명을 개정한 뒤 66년이 지나 수성군은 당은현과

---

1 이하 『삼국사기』 인용문은 모두 http://www.koreaa2z.com(동방미디어)을 이용하였다.
2 『삼국사기』 권53, 잡지4, 지리2, 신라 한주.
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5년.



〈그림 3〉 신라 한주의 소속 군현[4]

통합되어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려 준다. 『삼국사기』에 당은현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4 『역주 삼국사기』(http://www.koreaa2z.com). 수성군 읍치의 위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봉담읍 일대로 비정하는 의견과 평택 일대로 보는 의견, 독성산성으로 보는 의견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봉담읍 지역에 읍치를 표시하였다.

당은군은 본래 고구려 당성군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당은군으로) 고쳤다. 지금(고려)은 예전대로 회복하였다. 영현이 둘이다.
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領縣二[5]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829년(흥덕왕 4)에 당은군을 당성진(唐城鎭)으로 삼고 사찬 극정(極正)을 보내 진을 지키게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6] 당성진은 오늘날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 위에 쌓은 당성(사적 217호), 즉 당항성(黨項城)을 일컫는다. 서신면은 조선시대에 남양군 소속으로 1914년에 서여제면(西如堤面)과 신리면(新里面)이 합쳐진 면이다. 한편 당은군에 소속된 영현 둘은 차성현과 진위현이다. 두 현은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차성현은 본디 고구려의 상(상은 차라고도 쓴다.)홀현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차성현으로) 고쳤다. 지금(고려)의 용성현이다.
車城縣 本高句麗上忽縣 上(一作車)忽縣 景德王改名 今龍城縣

진위현은 본디 고구려의 부산현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진위현으로) 고쳤다.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
振威縣 本高句麗釜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차성현과 진위현은 팽성읍을 제외한 현재의 평택시로 이어졌다. 이 중 차성현은 평택시 청북면, 고덕면 일부,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일대의 평택 서부 지역으로 비정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수원부에 속했던 곳이다. 1914년에 진위군으로 편입된 뒤 지금 평택시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진위현은 현재의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일부)과 송탄동, 서정동 등의 10개 동 지역인데, 삼국시대의 진위현이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 · 화성 지역은 고대시대에 수성군, 당은군, 차성현인 것으로 정리된다. 진위현은 당은군의 영현이었을 뿐 수원의 영역에 들어온 적이 없다. 차성현은 대대로 수원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1914년에 진위군으로, 그리고 현재는 평택시에 속해 있다. 위의 세 군현이 『삼국사기』에 모두 본디 고구려 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 그렇

5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한주 당은군.
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4년.

다는 것일 터이다. 즉 신라가 이 지역을 정복한 시점을 반영한 듯하다. 아마 그 이전에는 당연히 백제의 영토에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수원시와 화성시는 차례로 백제, 고구려, 신라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당항성이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된다.

〈표 1〉 수원시와 화성시의 삼국시대 군현

통일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	일제	지역
수성군	매홀군	수주	수원부	수원군	수원시+오산시+화성시 북 · 동 · 남부 지역
당은군	당성군	당성군	남양부	수원군	화성시 남양동 일대(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경기만 도서)
차성현	상홀현(차홀현)	용성현	수원부	진위군	평택시 서부 지역(청북면, 고덕면 일부,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일대)
진위현	부산현	진위현	진위현	진위군	평택시 동부 지역

따라서 〈표 1〉과 같이 삼국시대의 수성군은 현재의 수원시와 오산시 그리고 남양 일대를 제외한 화성시로, 당은군은 화성시 남양동을 포함 10개 동 지역과 비봉면 · 마도면 · 송산면 · 서신면 지역으로, 그리고 차성현은 평택시 서부의 읍면 지역으로 비정된다.

3. 고려시대 수원의 연혁

통일신라는 685년(신문왕 5)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조직하고, 주 아래에 군과 현을 두었다. 수성군, 당은군, 차성현 등이 한주에 속했던 것과 같다. 고려 초 940년에 태조는 군현제를 주 · 부 · 군 · 현으로 세분하여 체계화하였다. 오늘날 도급에 해당하는 주(州)는 성종 대에 12목(牧)으로 재편되었고, 12목은 다시 995년(성종 14)에 열 개의 도(관내, 중원, 하남, 강남, 영남, 영동, 산남, 해양, 삭방, 패서도)로 개편되었다. 도 아래에는 주 · 부 · 군 · 현 외에 특수구역으로서의 관방, 역참, 강하, 포구 등이 더 있었다. 이들을 포함하면 단위 지역은 모두 580여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10도제는 1018년(현종 9)에 다섯 개의 도와 두 개의 계로 재편되었다. 5도(양광, 경상, 전라, 교주, 서해도)와 양계(동계, 북계) 아래에는 520여 개의 고을이 있었다. 5도 양계 체제의 골격은 조선 태종이 8도제를 시작하는 1413년까지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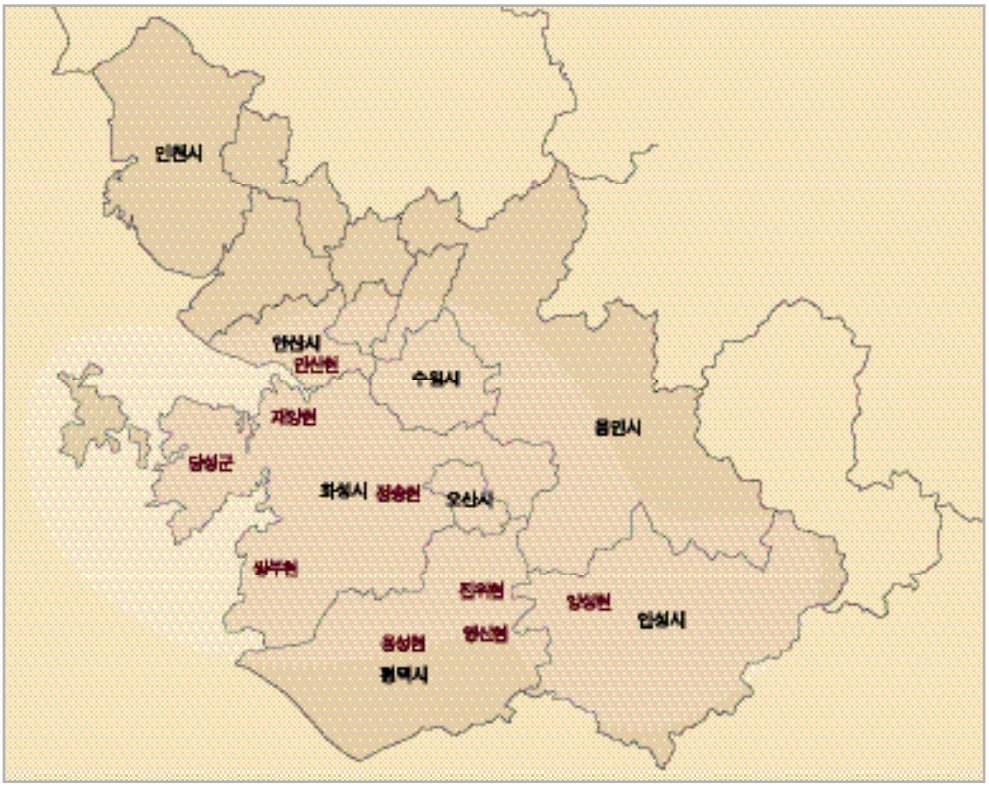
수원 지역은 고려시대에 양광도에 속하였다. 양광도는 12목이었던 양주와 광주 두 도회

의 이름을 합쳐 만든 것이다. 양광도는 경(京) 1개, 목 3개, 부 2개, 군 27개, 현 78개를 관할하였다. 5도 양계 체제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수성군은 수주(水州)로, 당은군은 당성군으로, 차성현은 용성현으로 이어졌다. 『고려사』는 이들을 각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7]

> 수주는 본디 고구려의 매홀군인데 신라 경덕왕이 수성군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가 남방을 정벌할 때 이 군 사람인 김칠, 최승규 등 200여 명이 태조에게 귀순하여 협력하였으므로 그 공로로 수주로 승격시켰다. 성종 14년에 도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에 없앴으며 현종 9년에 지주사로 다시 고쳤다. 원종 12년(1271)에 책랑(寨梁) 주둔 몽골 군사들이 대부도에 침입하여 그곳 주민들을 약탈하므로 섬사람들이 격분하여 원한을 품고 몽골 군사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부사 안열이 부대를 동원하여 폭동군을 진압하였는바 그 공로로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수주목(水州牧)으로 되었다가 충선왕 2년에 전국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수원부로 되었다. 공민왕 11년(1362)에 홍건적이 선봉 부대를 파견하여 양광도 내 각 주, 군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을 때 이 부 사람들이 맨 먼저 적군을 맞아들여 항복하였으므로 마침내 낮추어 군으로 되었는데, 이 군 사람인 재신 김용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부로 고치게 되었다. 한남[성종이 정한 명칭이다.] 혹은 수성이라고도 부르는바 소속된 현이 7개이다.
>
> 水州 本高句麗買忽郡 新羅景德王改爲水城郡 太祖南征郡人金七崔承珪等二百餘人歸順效力以功陞爲水州 成宗十四年 置都團練使 穆宗八年 罷之顯宗九年 復知州事 元宗十二年 窄梁防戍蒙古兵入大部島侵略居民島人憤怨殺蒙兵以叛副使安悅率兵討平之以功陞爲水原都護府後又陞爲水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降爲水原府 恭愍王十一年 紅賊遣先鋒招降楊廣道州郡府最先迎降遂降爲郡郡人重賂宰臣金鏞復爲府 別號漢南[成廟所定]又號隋城屬縣七[8]

고구려의 매홀군은 통일신라시대에 수성군으로,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수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앞의 기사는 수주가 수원도호부로 승격하면서 '수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이 고려시대 1271년(원종 12)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준다. 전근대에는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읍격의 승강이 잦았다. 수원의 명칭과 읍격도 고려시대 이후에 수주 → 도단련사 → 지주사 → 수원도호부 → 수주목 → 수원부 → 수원군 → 수원부 등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고려 말 1310년(충선왕 2) 이후에는 읍격의 승강은 있었지만 수원이라는 이름은 계속 유지되었다. 고려 때 수원은 '한남(漢南)'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었다. 한남은 '한강 이남'이라는 뜻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이 도내 한강 이남의 제1도회였다는 의미

7 이하 『고려사』 인용문은 모두 한국의 지식콘텐츠, 누리미디어(http://www.krpia.co.kr)를 이용하였다.
8 『고려사』 권56, 지리1, 양광도 수주.



〈그림 4〉 고려시대 수주의 영역(현종 9년)

로 받아들일 만하다.

> 당성군은 원래 고구려의 당성군인데 신라 경덕왕이 당은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옛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수주(水州)의 소속군으로 되었다가 후에 본 인주에 소속시켰다.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고 충렬왕 16년(1290)에 홍다구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지익주사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강녕도호부로 되었고 34년에 또다시 승격시켜 익주목으로 되었는데 충선왕 2년에 전국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남양부로 되었다. 대부도, 소우도, 선감미도, 영흥도, 소물도, 승황도, 인물도, 이즉도, 잡량곶도, 사야곶도, 난지도, 목력도 등이 있다.
>
> 唐城郡 本高句麗唐城郡 新羅景德王改爲唐恩郡 高麗初復古名顯宗九年 爲水州屬郡後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忠烈王十六年 以洪茶丘內鄕陞知益州事後又陞爲江寧都護府三十四年 又陞爲益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降爲南陽府 有大部島小牛島仙甘彌島靈興島召勿島承黃島仁物島伊則島雜良串島沙也串島難知島木力島[9]

당성군의 관할구역은 조선시대 남양도호부의 영역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성군은 823년에 수성군과 합쳐졌는데 고려시대에는 인주(현 인천)에 속하게 되었다. 당성군이 따로 기술된 것으로 보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823년 이후 언젠가 두 군이 다시 분리된 듯하다. 당성 역시 수성과 마찬가지로 명칭과 읍격에 잦은 변화를 거쳐 1310년(충선왕 2)에 남양부가 되었다. 이후 남양은 1914년 수원군에 병합되기 전까지 독립된 지역으로 존립해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의 당성군 설명에 다수의 섬을 수록한 것이 특이하다. 대부도, 영흥도, 난지도(현 당진군 석문면) 등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름이다. 소우도는 선재도, 선감미도는 선감도, 소물도는 자월도, 승황도는 승봉도, 인물도는 덕적도, 이즉도는 대이작도, 사야곶도는 소야도이다. 이들은 당성군 앞바다에 분포해 있지만 대부도와 선감도는 현재 안산시 소속이고, 난지도는 당진군,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이다.

이 도서는 조선시대까지 남양부 소속이었다. 1914년에 부천군(영흥면, 덕적면, 대부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부천군이 없어질 때 옹진군으로 넘어갔다. 이 중 대부면은 1994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소속을 옮겼다. 제부도는 일제시기에도 수원군 서신면에 속하였다. 최소한 고려시대부터 1914년까지 조선시대의 남양부(현재의 화성시)에 속했던 섬들이 지금은 제부도를 제외하고 모두 타 시군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화성시는 23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인도는 서신면에 속한 제부도(제부리), 우정읍에 속한 국화도와 입파도(이상 국화리) 세 개이다.

> 재양현은 옛날의 안양현이다. 현종 9년에 지금 명칭으로 부르고 수주에 속하게 하였다가 후에 본주(인주)에 소속시켰다.
> 載陽縣 古安陽縣 顯宗九年 稱今名屬水州任內後來屬[10]

> 용성현은 본디 고구려의 상홀현[차홀이라고도 한다.]이다. 신라 경덕왕이 차성으로 고쳐서 당은군의 영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본주(수주)에 소속시켰다.
> 龍城縣 本高句麗上忽縣[一云車忽] 新羅景德王改名車城爲唐恩郡領縣 高麗初改今名顯宗九年來屬[11]

당성군은 수주가 아니라 인주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바닷길에 대한 중요도가 조선

9 『고려사』 권56, 지리1, 양광도 인주.
10 『고려사』 권56, 지리1, 양광도 인주.
11 『고려사』 권56, 지리1, 양광도.

시대보다 컸던 듯하다. 당성군이 인주에 속한 것도 해로가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주는 당성군 외에 영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곧 재양현이다. 『고려사』에 옛 안양현이라 하였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안양현'이라는 지명이 검색되지 않아 실상을 가늠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옛 안양현이 1018년(현종 9)에 이름을 재양현으로 바꾸고 수주에 속했다가 나중에 인주로 소속을 바꾸었음을 알려 준다. 현 비봉면 자안리 일대로 비정된다. 『고려사』에 수록된 용성현은 내용이 『삼국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일신라의 차성현이 고려 초기에 용성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4. 조선 초기 수원의 연혁

조선시대에 들어 수원은 일대 변화를 맞이하였다. 잘 알려졌듯이 18세기 말에 수원은 치소를 화산에서 현재의 수원시로 옮기고 읍격도 달라진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수원의 조선 초기 상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인데, 신라가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가 남정(南征)할 때, 고을 사람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 200여 사람이 귀순(歸順)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수주(水州)로 승격시켰으며,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 8년 을사[곧 송나라 진종(眞宗) 경덕(景德) 2년]에 이를 파하고, 현종(顯宗) 9년 무오에 다시 지수주사(知水州事)로 삼았다. 충경왕(忠敬王) 12년 신미[곧 원나라 세조(世祖) 지원(至元) 8년]에 몽골 군사가 대부도(大部島)에 침입하여 백성을 노략질하니, 섬 사람들이 분함을 못 이겨 몽골 군사를 죽이고 반(叛)하매, 주관(州官)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평정하였으므로, 그 공으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그 뒤에 또 목(牧)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忠宣王) 2년 경술[곧 원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3년]에 모든 목(牧)을 없앰에 따라 수원부(水原府)로 강등시켰다. 공민왕(恭愍王) 11년 임인[곧 원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22년]에 홍건적(紅巾賊)이 선봉(先鋒)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청하매, 양광도(楊廣道)의 주군(州郡) 가운데서 수원이 맨 먼저 항복하여 (적을) 맞아들였으므로, 적의 형세가 더욱 퍼졌기 때문에 군(郡)으로 강등시켰는데, 고을 사람들이 재상 김용(金鏞)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서 얼마 안 되어 다시 부(府)로 되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가 되었다[별호는 한남(漢南)이니,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혹은 수성(隋城)이라고도 한다]. 속현(屬縣)이 5이니, 쌍부(雙阜)[옛날의 육포(六浦)임]·영신(永新)[혹은 영풍(永豐)이라고도 함]·정송(貞松)[옛날의 송산부곡(松山部曲)임]·용성(龍城)[본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차성(車城)으로 고쳐서 당은군(唐恩郡)

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위의 4현은 현종(顯宗) 9년에 모두 수주(水州) 임내(任內)에 붙였다.] · 광덕(廣德)이다[현종 9년 (고을을) 분속(分屬)시켰을 때에는 이 이름이 없다.]. 향(鄕)이 3이니, 공이(工二) · 주석(柱石) · 분촌(盆村)이요, 부곡(部曲)이 4이니, 육내미(陸內彌) · 포내미(浦內彌) · 사량(沙梁) · 쟁홀(爭忽)이요, 처(處)가 5이니, 사정(奢井) · 금물촌(今勿村) · 유제(楡梯) · 양간(楊干)[본래 인천(仁川)에 속하였는데, 태종(太宗) 무술에 내속(來屬)되었다.] · 심곡(深谷)이며, 장(莊)이 3이니, 오타(五朶) · 종덕(宗德) · 신영(新永)이다[처음에 양성(陽城)에 속하였는데, 태조(太祖) 7년 무인에 (지형이) 개의 이빨처럼 어긋나게 들어왔으므로 내속(來屬)시켰다. 위의 향(鄕) · 부곡(部曲) · 처(處) · 장(莊)은 다만 옛 이름만 있으므로, 모두 본부에 붙여서 직촌(直村)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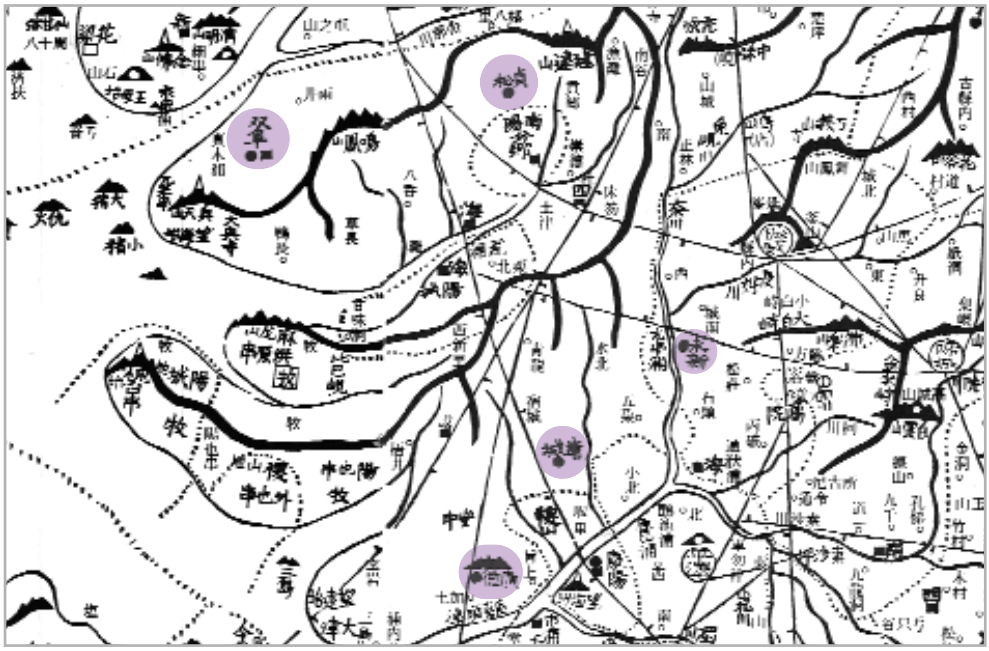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 사후 실록 편찬과 함께 1454년에 간행되었지만 1420년대 조선 초기의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보다는 고려의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는 편찬 시점에 큰 차이가 없어 연혁조에 기술된 내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5개의 속현과 향 3처, 부곡 4처, 처 5처, 장 3처 등의 특수구역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 초기 수원의 속현과 특수구역

형태	이름	형태	이름
속현(5)	쌍부, 영신, 정송, 용성, 광덕	처(5)	사정, 금물촌, 유제, 양간, 심곡
향(3)	공이, 주석, 분촌	장(3)	오타, 종덕, 신영
부곡(4)	육내미, 포내미, 사량, 쟁홀		

주현(州縣)에 대비되는 속현(屬縣)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행정구역을 의미한다. 지방관 파견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지만 전국적인 양상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 초기까지 속현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수원은 모두 다섯 개의 속현을 갖고 있었다. 이들 속현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지도표(地圖標)」(오늘날 범례)에 이들을 '고현'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쌍부현(雙阜縣)은 마한 54국의 하나로 수원의 속현으로 있다가 조선 성종 대에 남양도호부에 편입되었다. 현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로 비정된다. 조선 후기에 수원부의 초장면과 장안면(이상 현 장안면), 그리고 우정면과 압정면(이상 현 우정읍)이었다. 쌍부라는 지명이 현재 쌍부산(117m)으로 남아 있다. 쌍부산은 쌍봉산이라고도 하는데,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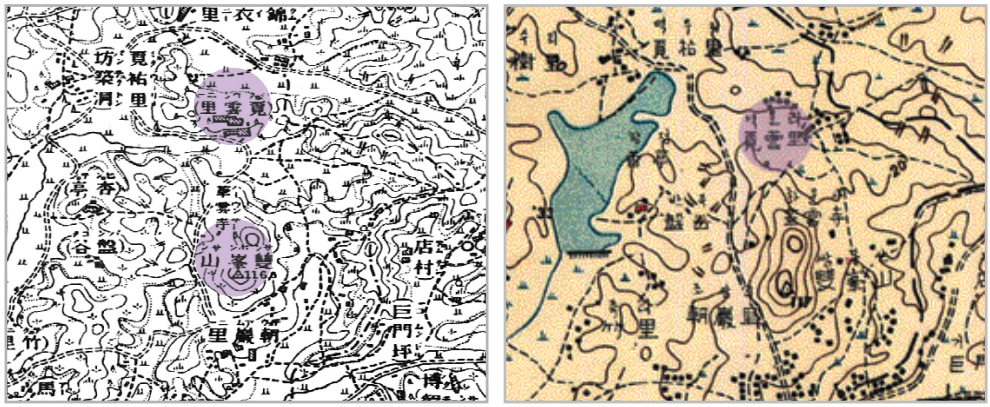


〈그림 5〉『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수원의 속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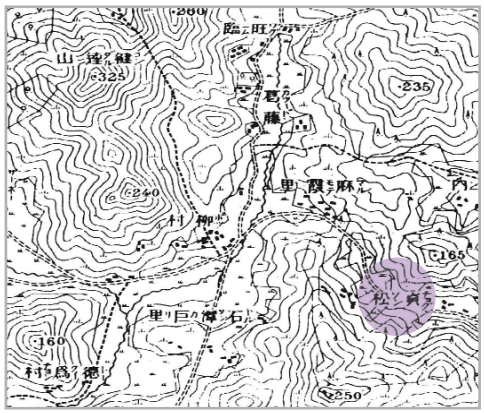
시 우정읍 조암리와 멱우리 경계에 있다. 산이 봉우리 두 개로 이루어져 쌍봉산이 되었으며, 쌍부현의 주산으로 알려져 있다.[12] 『대동여지도』에 쌍부는 고현 범례와 함께 창고 범례가 표시되어 있다. 지금은 멱우리에 편입된 옛 멱운리에 창말(창촌)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쌍부현 치소는 멱운리에 있었던 듯하다.

영신현(永新縣)은 현재의 평택시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 자세히 알 수 없다. 오타 또는 영풍으로 불리기도 했다는데 장(莊) 3처 중의 하나인 오타장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대동여지도』에는 진위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영신현은 다섯 개 속현 가운데 중심지를 추정하기가 가장 어렵다. 그나마 도움을 주는 단서는 영신리에서 찾을 수 있다. 영신리는 조선시대에 진위현 여방면에 속한 리 중의 하나였다. 한편 진위군은 1914년에 평택군을 병합하면서 11면으로 재편되는데, 이때 여방면 영신리는 송탄면 칠괴리(현 평택시 칠괴동)와 병남면 동삭리(현 평택시 동삭동)에 각기 분할 편입되었다. 이로부터 추정하자면 영신현은 현 평택시 칠괴동 · 영신동 일대로 비정할 수 있겠다.[13]

12 『한국지명총람 – 경기 · 인천편』 권18, 화성군 산천조, 486쪽.
13 『대동지지』, 진위현, 고읍조.



〈그림 6〉 쌍봉산과 쌍부현 치소가 있던 멱운리(1910년대-좌, 1950년대-우)



〈그림 7〉 정송현(1890년대, 『구한말한반도지형도』)

〈그림 8〉 용성현(1910년대, 1:50,000 지형도)

정송현(貞松縣)은 『대동여지도』에 건달산 남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정송현은 언젠가 정송면이 되어 행정지명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정송면은 19세기 초반 즈음에 남곡면에 병합된 듯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한편, 1890년대 후반 상황을 보여 주는 『구한말한반도지형도』에는 정송이라는 지명이 취락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1910년대 1:50,000 지형도에는 누락되어 보이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에는 화성군 정남면 백리의 지명 유래를 "본래 수주에 딸린 송산부곡인데, 고려 초에 정송현이 되었"으며 "정송, 잣골 또는 백동이라 한다."고 설명하였다.[14] 오늘날 화성시 정남면 백리이다.

용성현(龍城縣)은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에 나오는 상홀현 및 차성현과 같

1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권18, 1986, 524쪽.

〈그림 9〉 **광덕현**(1890년대-좌, 1910년대-우)

다.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용성 고현의 위치는 1914년 군현 통폐합 당시 진위군 청북면 용성리로 비정된다. 이 청북면은 그 이전 청룡면과 수북면 그리고 토진면, 감미면, 율북면 등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면이다.[15] 이 중 용성리는 청룡면 소속이었다. 즉 용성현의 영역은 조선시대 수원부 청북면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성지』(1831) 건치연혁에도 용성이 "부의 남쪽 80리 청룡면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용성리는 현재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로 이름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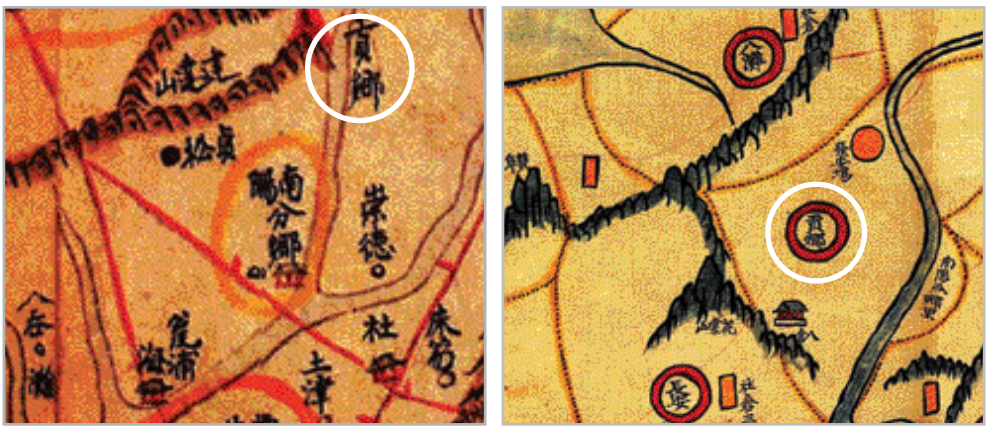
광덕현(廣德縣)은 『대동여지도』에 안중의 남쪽에 표시되어 있다. 광덕현은 『호구총수』(1789년)에 수원부 50개 면 중의 하나였으니 늦어도 18세기 후반 이전에 면으로 재편되었다. 광덕면은 이후 한 번도 명칭이나 소속의 변동이 없다가 1914년에 안외면, 가사면, 현암면, 포내면, 승양면 등과 통합되어 현덕면이 되었다. 광덕면에는 대안리 · 신왕리 · 덕목리가 있었는데, 리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 재밌는 사실은 1890년대 측도된 『구한말한반도지형도』에 오늘날 안성천 이름이 광덕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 초기 수원부 안에는 속현 외에 특수구역으로서의 향이 세 곳 있었다. 공이향(工二鄕), 주석향(柱石鄕), 분촌향(盆村鄕)이 그것이다. 공이향은 『수원부읍지』(1785년경)와 『호구총수』(1789년)에 수록된 공이향면(工以鄕面)과 같은데, 늦어도 18세기 후반에는 수원 관할 면으로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이향면은 19세기 자료부터 이(以)자가 떨어지고 공(工)자가 공(貢)자으로 바뀌어 공향면(貢鄕面)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향면은 김정호의 『동여도』(1850년대)와 『1872년 지방지도』의 「수원부지도」[16]에 남양도호부의 월경지였

15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77쪽.

〈그림 10〉 조선 초기 수원의 속현

던 분향면 북동쪽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지명총람』[17]은 공향면을 분향면 서남쪽인 지금의 팔탄면 해창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로 비정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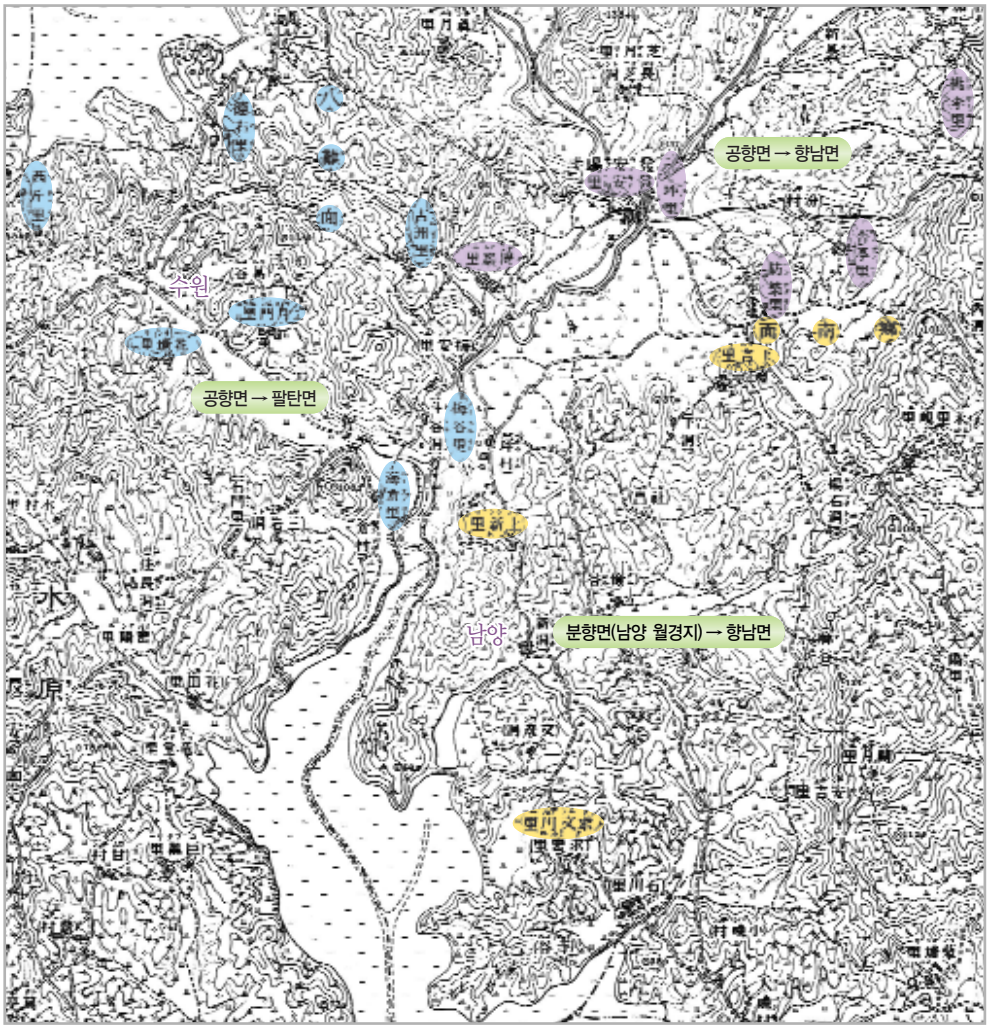


〈그림 11〉 공향면과 분향면(좌 : 『동여도』, 19세기 중반, 우 : 『1872년 지방지도』)

16 규10360, http://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GZD.
1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권18, 1986, 531쪽.

다. 이 서로 다른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첫 번째는 두 자료의 위치가 모두 맞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향면에 속했던 행정리, 평리, 발안리, 방축리, 도이리, 제암리 등 6개 리는 1914년에 향남면으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공향면에 속했던 해창리, 매곡리, 월문리, 화당리, 서근리, 덕우리, 고주리 7개 리는 팔탄면으로 편입되었다. 아마도 위 고지도에 표시된 공향면(현 향남읍 일부)과 『한국지명총람』에서 비정하는 해창리 일대의 공향면(현 팔탄면 일부)은 결국 팔탄면과 향남면의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다〈그림 12. 참조〉. 그렇다면 두 자료는 서로 다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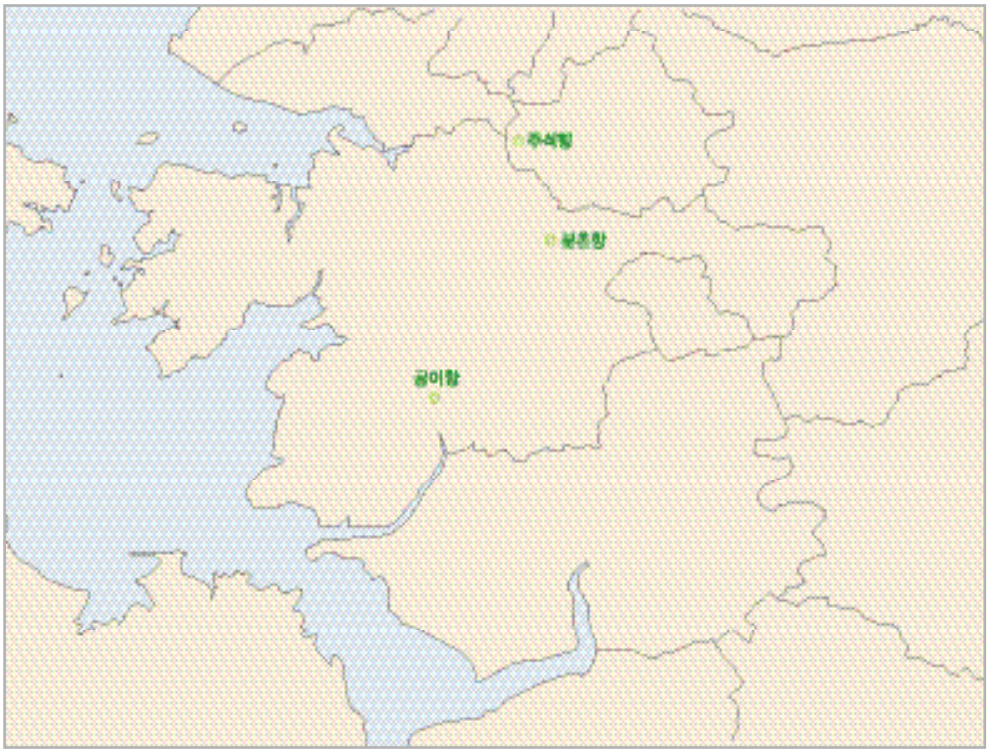


〈그림 12〉 공향면과 분향면(남양 월경지)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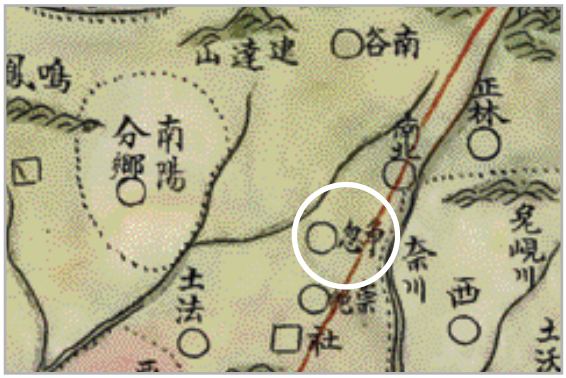
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치 정보가 모두 맞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자료 중 하나만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향면은 1914년에 향남면과 팔탄면으로 분리 병합되었다. 그런데 공향면은 이전에 서북면(西北面)을 병합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이 『화성지』(1831년) 방리조에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1791년 『수원부읍지』에 서북면이 존재하므로 공향면이 서북면을 병합한 시점은 1791~1831년 사이가 될 것이다. 한편 『수원부읍지』(1791년) 방리조에는 공이향면이 부 남쪽 27리, 서북면이 부 서남쪽 20리 지점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로부터 추정하면 공이향면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1914년에 팔탄면으로 편입된 지역이 원 공향면 지역이고, 향남면으로 편입된 지역은 구 서북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추론이 적절하다면 『동여도』와 1872년 「수원부지도」보다는 『한국지명총람』의 서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주석향과 분촌향은 조선시대 지리지나 고지도에서 잘 찾아볼 수 없다. 주석향은 매송면



〈그림 13〉 수원의 특수구역(향)



〈그림 14〉 **쟁홀면**(쟁홀부곡, 『청구도』)

금곡리[18]에, 분촌향 역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19]에 지명만 남아 있다.

부곡(部曲)으로는 육내미(陸內彌), 포내미(浦內彌), 사량(沙梁), 쟁홀(爭忽) 등 네 곳이 있었다. 육내미는 남아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 대강의 위치조차 찾기 어렵다. 『화성지』에도 "고적이 있는 지명이라 하는데 문헌으로 징험할 수 없어서 고찰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취를 감춘 지가 이미 오래인 듯하다. 부곡 포내미는 조선시대에 면으로 재편되어 포내면이 되었다. 『화성지』에도 포내면이 옛 포내며(浦內於)부곡임을 밝히고 있다. 조선 후기에 포내면이 관할했던 리로는 당두리(棠頭里), 곡교리(曲橋里), 거산리(巨山里), 무수리(舞袖里), 감탕리(甘湯里), 운정동(雲井洞), 둔내리(屯內里) 등이 있었는데 오늘날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도곡리, 원정리 일대에 해당한다.

사량은 봉담읍 상기리로 비정되는데, 상기리에 있는 사반마을이 사량부곡이었다고 전해 온다. 포내미부곡처럼 쟁홀부곡도 조선 후기에는 쟁홀면이었다. 쟁홀면은 『수원부읍지』와 『호구총수』 단계까지 유지되다가 상홀면으로 이름을 바꾼 듯하다. 『화성지』(1831년) 단계 이후의 자료에는 모두 상홀면이다. 그러나 1834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쟁홀면이 표시되어 있어 자료 간 혼동을 보이기도 한다. 현 양감면 송산리, 정문리, 사창리 일대에 걸쳐 있던 상홀면은 1914년에 양간면 · 감미면 · 토진면 등과 함께 양감면이 되었다.

처 다섯 곳은 사정(奢井) · 금물촌(今勿村) · 유제(楡梯) · 양간(楊干) · 심곡(深谷)이다. 사정처는 『수원부읍지』와 『호구총수』 단계까지 사정면으로 이름이 남아 있었다. 사정면은 18세기 말에 이름을 우정면으로 바꾸는데, 『수원부읍지』(1791년) 이후의 자료는 모두 우정면이라 나온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우정면 원안리 널우물마을에 사정향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금물촌도 면이 되어 『호구총수』 단계까지 금물촌면이었는데, 『화성지』(1831년) 단계부터는 오타면에 병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타면은 종덕면과 합쳐 고

1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496쪽. 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501쪽.

〈그림 15〉 수원의 특수구역(부곡)

〈그림 16〉 수원의 특수구역(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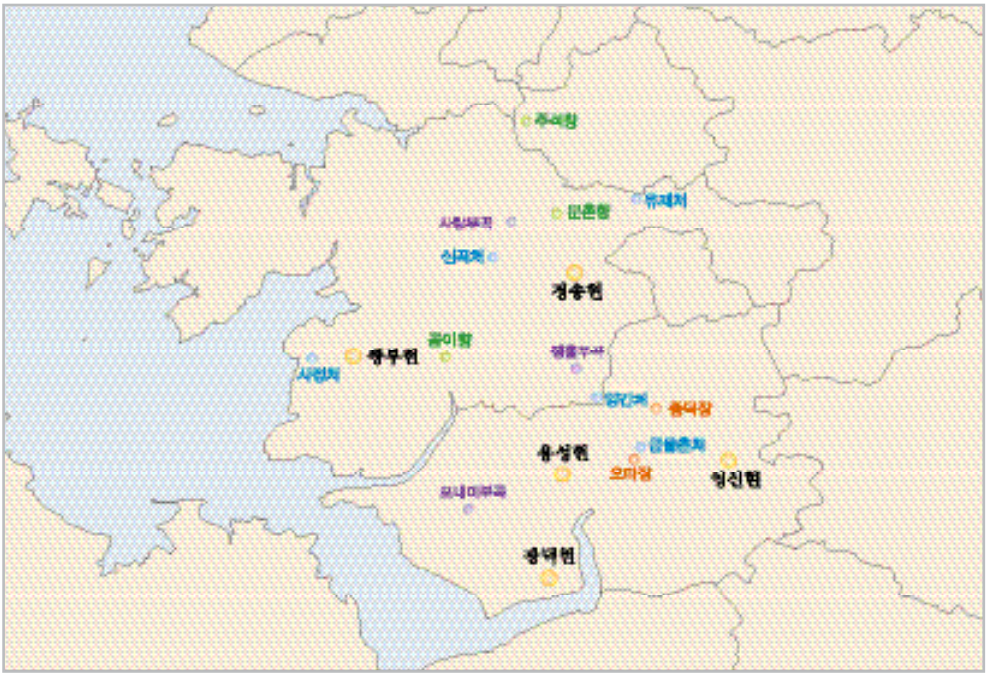
덕면이 된다. 오타면은 오늘날 고덕면 남부 지역의 궁리, 방축리, 해창리 일대인데, 금물촌처도 이 일대에 걸쳐 있었을 것이다. 유제처는 현 화성시 황계동 일대로 추정된다. 옛 태안면 황계리에 유제처라는 지명이 마을 이름으로 남아 있다. 황계리는 "고려 때 유제처가 있어 느릅재, 유제처, 유제 또는 황계동이라 하였"다.[20]

양간의 중심지는 양감면 용소리로 비정된다. 용소리에 양간(소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양간소 또는 양간처가 있던 곳이라 전해 온다.[21] 『세종실록지리지』에 양간은 "본래 인천에 속했는데 1418년(태종 18)에 수원부가 되었다. 수원 남쪽 30리에 있다."고 적혀 있다. 남쪽 30리라 하였으니 1418년 이전에 양간은 인천의 월경지(越境地)였음이 거의 확실하다. 언제인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양간처 역시 양간면으로 재편되었다. 1785년 『수원부읍지』에 양간면이 있다. 양간면은 상홀면 및 감미면과 합쳐 1914년에 양감면이 된다. 1914년 양감면 관할 내 총 10개 리 가운데 용소리 · 신왕리 · 요당리 · 대양리 등이 양간면에 속했는데, 요당리에는 양감면사무소가 있었다. 양감면 요당리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 심곡은 팔탄면 기천리로 비정된다. 이곳에 "키처럼 생겼다." 하여 키울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는데, 고려 때 심곡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온다.[22]

장(莊) 세 곳은 오타(五朶) · 종덕(宗德) · 신영(新永)이다. 오타와 종덕은 오늘날 평택시 고덕면 일대이다. 오타의 중심지는 고덕면 궁리였던 듯하다. 지금도 오타장(五朶莊)이라는 지명이 마을 이름으로 남아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옛 종덕은 오늘날 고덕면 당현리 · 두릉리 · 문곡리 일대로 비정된다. '종덕'이라는 이름은 당현리에 '종덕장(宗德莊)'이라는 마을, 두릉리에 종덕초등학교, 문곡리에 종덕학교노인회 등의 명칭으로 전해 오고 있다. 종덕은 본래 양성현(陽城縣)에 속했다가 1417년(태종 17)에 수원으로 이속(移屬)되었다. 신영장은 고지도나 읍지, 지명사전류, 백과사전류나 인터넷 정보망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평택시 포승읍에 신영리(新榮里)가 있고, 이곳에 5일장인 신영장(新榮場)이 섰지만 신영장(新永莊)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이상 수원의 속현과 향 · 부곡 · 처 · 장 등 특수구역의 중심지 또는 대강의 영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권18, 1986, 527쪽.
2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권18, 1986, 513쪽.
2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권18, 1986, 529쪽.

〈그림 17〉 수원의 특수구역(장)



〈그림 18〉 수원의 속현과 특수구역

〈표 3〉 수원의 속현과 특수구역의 위치

구역	이름	중심지	일제시기	비고
속현	쌍부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수원군 우정면 멱우리	쌍부산(쌍봉산) 아래
	영신	평택시 칠괴동, 동삭동 일대	진위군 송탄면 영신리	
	정송	화성시 정남면 백리	수원군 정남면 백리	건달산 남쪽(『대동여지도』)
	용성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진위군 청북면 용성리	부 남쪽 80리(『화성지』)
	광덕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진위군 현덕면 대안리	
향	공이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수원군 팔탄면 해창리	『화성지』에 공향면
	주석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군 매송면 금곡리	
	분촌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수원군 봉담면 분천리	
부곡	육내미			
	포내미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일대	진위군 포승면 석정리	조선 후기 포내면
	사량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수원군 비봉면 상기리	사반마을
	쟁홀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정문리, 사창리 일대	수원군 양감면	쟁홀면=상홀면
처	사정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수원군 우정면	원안리 널우물마을
	금물촌	평택시 고덕면 마분리, 금성당리	수원군 고덕면	오타면에 병합
	유제	화성시 황계동	수원군 안룡면 황계리	느릅재
	양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양간[소동]마을
	심곡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수원군 팔탄면 기천리	기천리 키울마을
장	오타	평택시 고덕면 궁리	진위군 고덕면 궁리	궁리 오타장마을
	종덕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진위군 고덕면 당현리	당현리 종덕장마을
	신영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5. 조선 후기 수원의 연혁

18세기가 되면 전국 각 군현의 면리 현황을 살필 수 있다. 조선은 초기부터 각 지방 군현 단위까지 지방관(수령)을 파견,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군현 아래에 면을 두고 면임(面任, 현재의 면장)으로 하여금 면내를 관리케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면리제(面里制)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조선 중기에는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으로는 18세기 중·후반부터 전국적인 면·리 현황을 살필 수 있다. 하나의 군현에 면이 적은 곳은 5~6개에 불과했지만 많은 곳은 40~50개에 달하였다. 수원은 전국에서도 면이 많은 대표적인 군이었다. 수원의 면리 현황을 알려 주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4〉 18세기 후반~20세기 초 수원의 면리 현황 수록 자료

읍지	편찬연대	발행처와 소장처	비고
수원부읍지	1785년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 10743	읍지, 필사본
호구총수	1789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호구 통계자료
수원부읍지	1791년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 17364	읍지, 필사본
화성지	1831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915.12-H991j	읍지, 필사본
수원군읍지	1899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rh915.12-Su93g	읍지, 필사본
민적통계표	1910년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호구 통계자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년	태학사 영인본	행정구역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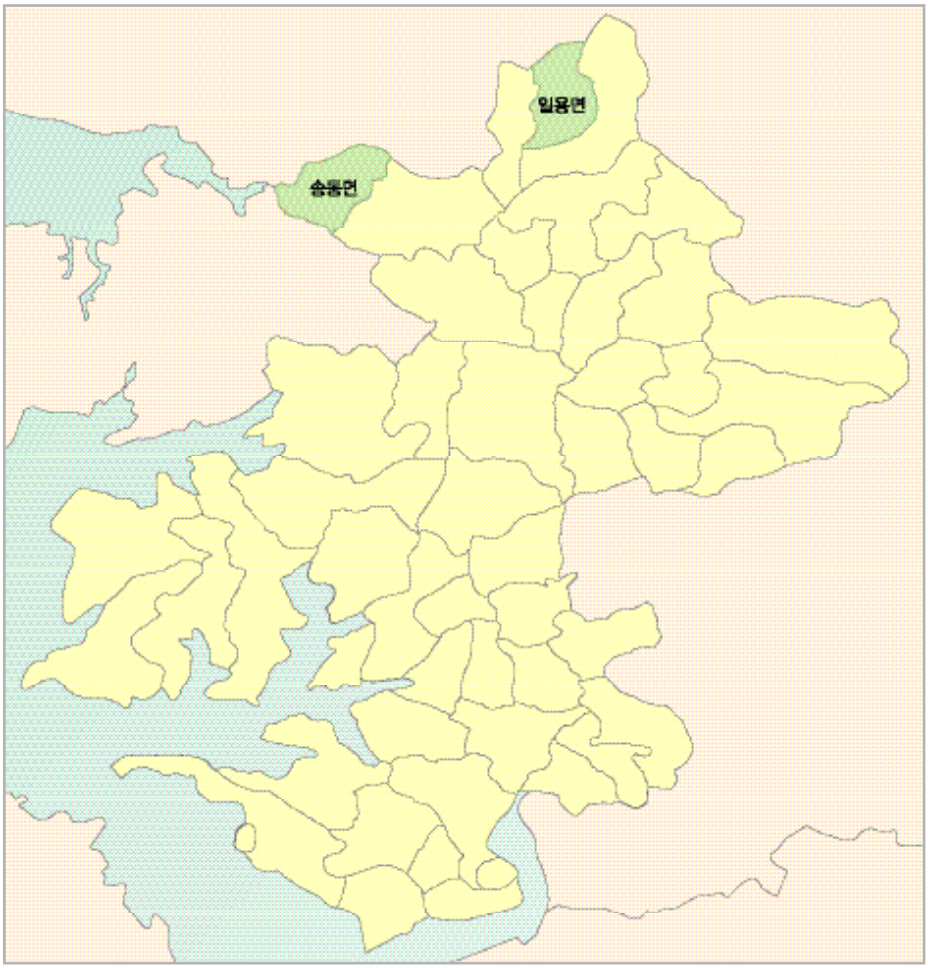
1) 수원부 면의 원형(1785년)

전국적인 면 상황을 알려 주는 최초의 자료는 1760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이다. 『여지도서』는 1760년경에 편찬되었으나 전국의 군현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일부 군현이 누락되었는데, 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여지도서』 영인본(影印本)을 간행할 때 수원과 같이 누락된 군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읍지를 '보유편'으로 묶어 같이 펴냈다. 여기에 수원은 1785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수원부읍지』가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부내면, 안녕면, 남곡면, 정송면, 모지면, 삼봉면, 호매절어량천면, 용복면, 고등촌면, 공석면, 광교면, 장족면, 산성면, 초평면, 청호면, 삼며곡면, 정림면, 어탄면, 동북면, 태촌면, 쟁홀면, 동면, 양간면, 금물촌면, 종덕면, 오타면, 토법면, 북방면, 청룡면, 숙성면, 오정면, 감암면, 광덕면, 포내면, 가사곶면, 공이향면, 서북면, 모전면, 팔탄면, 갓등면, 화방면, 수류면, 마정면, 초장면, 사정면, 팔라곶면, 압장면 등 모두 47개 면이 올라 있다. 이때는 아직 현륭원 천장(遷葬) 이전이라 치소(治所)가 화산(花山) 아래에 있었고, 부내면 역시 그 일대에 걸쳐 있었다. 부내면은 다시 문수당(文殊堂) 1수(授), 3수, 5수, 6수 네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었는데, 문수당이나 '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2) 천장과 면의 편입(1785~1789년)

『여지도서』 이후의 전국적인 면 현황을 알려 주는 자료로 『호구총수』(1789년)가 있다. 『호구총수』에 수원은 모두 50개 면이 수록되어 『수원부읍지』(1785)와 면수에서 3개의 차



〈그림 19〉 송동면과 일용면의 위치

이가 난다. 이 차이는 『호구총수』에 기존의 부내면이 없어지고(−1), 문수당면 · 시봉면 · 송동면 · 일용면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이다(+4). 신설된 4개 면 중 송동면과 일용면은 현륭원 천장(1789년) 후 광주에서 이속해 온 것이고(『화성지』 건치연혁조), 문수당면과 시봉면은 1785년의 부내면이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동면은 1914년에 매곡면과 통합하여 매송면이 되는데 야목리, 원리, 송라리가 옛 송동면 관할이었고, 일용면은 1914년에 형석면 등과 통합하여 일형면이 되는데 파장리, 정자리, 송죽리(일형면소재지)가 옛 일용면의 관할이었다. 결국 오늘날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원리, 송라리 일대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동, 송죽동 일대가 수원 땅이 된 것은 이제 220년이 조금 넘었다.

3) 면명의 개칭(1789~1791년)

『호구총수』 이후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1791년경에 편찬된 『수원부읍지』가 있다. 여기에도 수원부는 50개 면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호구총수』에 있던 동면과 북방면이 사라지고, 남면과 장안면이 새로 등장하는 변동이 있었다. 사라진 동면과 북방면, 그리고 새로 등장한 남면과 장안면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남면은 1914년에 향남면으로 통합되었고, 장안면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호구총수』에 있는 동면과 북방면이 실제 읍치의 동쪽과 북쪽에 위치했다면 이 두 면은 새로 등장한 남면 및 장안면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호구총수』 단계의 동면과 북방면은 그 일대의 다른 면에 흡수되었고, 1791년의 『수원부읍지』에 새로 등장한 남면과 장안면 역시 그 일대의 다른 면에서 분할되었거나 특수구역으로 존재하던 지역이 면으로 재편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두 자료 사이에서 면의 총합은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면 이름이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두 자료의 시차가 2년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면명이 무려 16개 면에서 바뀌는 것은 이

〈표 5〉 조선 후기 면명의 변화(1789→1791년)

변경유형	면명 변경부	『호구총수』(1789)	『수원부읍지』(1791)
음은 동일하나 한자가 바뀐 경우	어탄면	어탄면(漁呑面)	어탄면(漁灘面)
	팔탄면	팔탄면(八呑面)	팔탄면(八灘面)
	양간면	양간면(楊干面)	양간면(楊澗面)
	모전면	모전면(芼田面)	모전면(茅田面)
	모지면	모지면(芼旨面)	모지면(茅旨面)
	태촌면	태촌면(苔村面)	태촌면(台村面)
음과 한자 모두 바뀐 경우	쟁홀→상홀	쟁홀면(爭笏面)	상홀면(床笏面)
	토법→토진	토법면(土法面)	토진면(土津面)
	수류→수북	수류면(水流面)	수북면(水北面)
	감암→현암	감암면(甘巖面)	현암면(玄岩面)
	사정→우정	사정면(奢井面)	우정면(雨井面)
	압장→압정	압장면(鴨長面)	압정면(鴨汀面)
	공석→형석	공석면(空石面)	형석면(荊石面)
	장족→장주	장족면(長足面)	장주면(章洲面)
	갓등→갈담	갓등면(笠等面)	갈담면(葛潭面)
음절이 탈락된 경우	팔라곶→나곶	팔라곶면(八羅串面)	나곶면(羅串面)

례적이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18세기 후반 수원에서 벌어졌던 면명 변경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사례처럼 干→澗, 芼→茅, 苔→台와 같이 음이 바뀌지 않고 다른 글자로 대체된 경우는 동일한 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동일 군으로 추정되지만 수류와 수북, 감암과 현암, 사정과 우정, 공석과 형석, 갓등과 갈담 사이의 개칭 현상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이때 변경된 면명은 1914년까지 유지된다.

4) 읍치 이전과 면 변동(1791~1831년)

지금까지의 면 변동 사례는 모두 수원의 읍치 이동 이전 상황이다. 수원은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都護府 : 종3품)가 되고, 1793년에는 유수부(留守府 : 종2품)가 된다. 유수부는 서울을 중심에 두고 사방에 하나씩 설치되었는데, 가장 일찍 유수부가 된 개성(세종 20, 1438년)에 이어 강화(인조 5, 1627년)와 수원(정조 17, 1793년) 그리고 광주(정조 19, 1795년)가 각기 서울의 동 · 서 · 남 · 북에 위치하였다. 유수부는 지방에 설치하였지만, 부윤의 품계는 경관직 종2품으로 정3품직인 목과 대도호부보다 높았다. 종2품은 관찰사와 같다. 수원의 읍격이 도호부(종3품)에서 유수부로 수직 상승한 데에는 정조의 화성 건설과 맞물린다.

정조는 1789년에 천장하고 1794년 2월부터 1796년 9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화성을 완성한다. 이후 수원의 행정 기능은 화성으로 완전히 이전해 가는데,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전에 수원의 읍격을 유수부로 승격시켜 놓았던 것이다. 『화성지』(1831년) 읍치조에는 구읍치와 신읍치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구읍치(舊邑治) : 화산(花山) 아래 오늘날 용복면(龍伏面)에 있다. 정조 기유년(1789 – 필자 주) 현륭원이 천봉한 뒤에 읍을 옮겼다.
- 신읍치(新邑治) : 팔달산 아래 신기리에 있으며 좌향이 유좌(酉坐)이고 읍의 둘레는 4,600보이다. 정조 갑인년(1794 – 필자 주)에 그 둘레를 따라 성을 쌓았다.

읍격의 상승과 읍치의 이전으로 수원의 면 체제는 여러모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읍치가 이전했으므로 부내면이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수원의 면 변동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화성지』에 구읍치로 명기된 용복면은 줄곧 면을 유지하다가 1914년에 안룡면이 된다. 이때 안룡면은 1791년 기준 안녕면(배양리 · 안녕리 · 송산

리 · 황계리 · 대황교리 · 반정리 · 곡반정리)과 고등촌면 일부(평리 · 세리 · 장지리), 그리고 용복면(고색리 · 기안리 · 오목천리)이 합쳐진 것이다. 한편 1785년 『수원부읍지』에 수록된 부내면(문수당 1 · 3 · 5 · 6수)은 『호구총수』(1789년) 및 『수원부읍지』(1791년)에 문수당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호구총수』 단계에 새로 등장한 시봉면과 1785년부터 있었던 삼며곡면(=삼미면) 세 면이 합쳐져 『화성지』(1831년) 단계에 문시면이 된다. 『화성지』에 용복면과 문시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용복면(龍伏面) : 남으로 15리 떨어져 있다. 모두 4개 동이 있다. 기전리(旗田里), 상송리(上松里), 신촌(新村), 고색리(古索里)
- 문시면(文市面) : 남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모두 8개 동이 있다. 옛 시봉(市峰), 삼미(三美) 2개 면이었다가 지금 여기에 합해졌다. 명학동(鳴鶴洞), 죽담점(竹潭店), 묵암동(墨巖洞), 신촌(新村), 옹동(瓮洞), 평촌(坪村), 세교(細橋), 관음동(觀音洞)

『화성지』에 신읍치가 팔달산 아래 신기리에 있다고 하였지만 신기리가 어느 면에 속하는지 『화성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화성지』에 의거하면 읍치 이전(移轉) 이후의 남부와 북부 두 면이 화성 내외 지역을 관할하므로, 이들이 곧 부내면 격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소가 있는 면을 읍격에 따라 부내면 · 읍내면 · 군내면 등으로 불렀지만, 북부면 · 남부면, 성내면 · 성외면, 동변면 · 좌변면 등의 대칭 면명을 써서 읍내를 규정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화성지』에 남부면과 북부면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남부(南部) : 부내에 있다. 모두 20개의 동이 있다. 옛날 고등촌면(古等村面)은 지금 이곳에 합해졌다. 남창동(南倉洞), 남수동(南水洞), 매향동(梅香洞), 구천동(龜川洞), 산루동(山樓洞), 교동(校洞), 하류천(下柳川), 장지촌(長芝村), 향목정(香木亭), 독산리(禿山里), 상류천(上柳川), 하지장포(下芝長浦), 상지장포(上芝長浦), 벌리(泧里), 세동리(細洞里), 권동(權洞), 천동(川洞), 내동(內洞), 우만리(牛滿里), 신폭(新幅)이다. 부내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 옛날에는 남리(南里), 북리(北里)로 일컫다가, 정조 병진년 성역(城役)이 완성된 뒤에 남부(南部), 북부(北部)로 개칭하였다. 신풍교(新豊橋) 남변으로부터 팔달문(八達門) 안의 서쪽 편 및 팔달문 밖 동서쪽으로부터 향교동(鄕校洞)에 이르기까지를 남성자내(南城字內)로 삼았다. 신풍교 북쪽으로부터 장안문 안 서변 및 화서문(華西門) 밖에 이르기까지 서성자내(西城字內)로 삼았다. 십자거리 동북 귀퉁이부터 장안문 안 동쪽 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보십곶(甫十串)의 북으로부터 장안문 밖에 이르기까지 북성자내(北城字內)로 삼았다. 열십자거리 동남 귀퉁이에서 팔달문 안 동변 및 천의 동쪽 위 아래에 이르기까지 동성자내(東城字內)로 삼았다. 이것으로 경계를 정하고 남부와 북부 양부에 분속시켰다.

• 북부(北部) : 부내에 있다. 모두 14개의 동이 있다. 옛날 광교면(光敎面)은 지금 이곳에 합해졌다. 보시동(普施洞), 북수동(北水洞), 장안동(長安洞), 군기동(軍器洞), 신풍동(新豊洞), 관길동(觀吉洞), 역촌(驛村), 용연동(龍淵洞), 지소동(紙所洞), 광교동(光敎洞), 서둔동촌(西屯東村), 고양동(高陽洞), 화산동(花山洞), 서둔촌(西屯村)

새로 읍치가 된 곳은 기존의 고등촌면과 광교면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름을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바꾼 셈이다. 남부면과 북부면은 성내뿐만 아니라 동 · 서 · 남 · 북성내자라는 구역을 설정하여 성 밖까지 관할하였다. 이른바 도성의 성저십리(城底十里)와 같은 개념을 적용한 듯하다. 남부면은 1914년에 수원면 · 일형면 · 태장면 · 안룡면으로 분화되고, 북부면은 수원면과 일형면으로 분화되었다. 한편 1785년 『수원부읍지』에는 고등촌면과 광교면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고등촌면(古等村面) : 부(府)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졌으며 316호 내에 남자 904명, 여자 1,100명이다.
• 광교면(光敎面) : 부(府)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졌으며 285호 내에 남자 510명, 여자 478명이다.

읍치 이전 이후의 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면 개수의 축소이다. 1785년 『수원부읍지』, 1789년 『호구총수』, 1791년 『수원부읍지』에 수원의 면은 각각 47개, 50개, 50개였다. 그런데 『화성지』에 수원의 면은 40개로 대폭 줄어든다. 아래 『화성지』 방리조, 도입문에 40개 면이 열거되어 있다.

모두 40개 면 440개 동이다.[23] 각 면에 풍헌(風憲)과 약정(約正), 기찰(譏察), 이정(里正), 권농(勸農) 각 1인씩을 두고 오직 형석면(荊石面)의 풍헌만은 일용면(日用面)을 겸하여 감찰하게 하였다. 조적(糶糴)은 창고가 부근 면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분속하여 그곳에서 거둬들이게 하였다. 남부면(南部面), 북부면(北部面), 일용면(日用面), 장주면(章洲面), 형석면(荊石面), 안녕면(安寧面), 용복면(龍伏面), 매곡면(梅谷面), 태촌면(台村面), 송동면(松洞面), 삼봉면(三峯面), 문시면(文市面), 남곡면(南谷面), 갈담면(葛潭面) 등 14개 면은 1창에 배속하고, 산성면(山城面), 어탄면(漁灘面), 동북면(東北面), 청호면(晴湖面), 초평면(楚坪面), 정림면(正林面) 6개 면은 5창에 배속하였다. 상홀면(床笏面), 남면면(南面面), 양간면(楊澗面), 종덕면(宗德面), 토진면(土津面), 수북면(水北面), 오타면(五朶面) 등 7개 면은 6창에 배속하고, 청룡면(青龍面), 숙성면(宿城面), 오정면(梧井面), 포내면(浦內面), 현암면(玄巖面), 광덕면(廣德面), 가사면(佳士面) 등 7개 면은 7창에 배속하였다. 공

23 『화성지』 방리조에는 수원이 40개 면 440개 동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면별 동리는 451개가 기재되어 있다.

향면(貢鄕面), 팔탄면(八灘面), 장안면(長安面) 등 3개 면은 8창에 배속하고, 우정면(雨井面), 초장면(草長面), 압정면(鴨汀面) 등 3개 면은 9창에 배속하였다.

이 40개 면 가운데 읍치 이전과 관련된 남부면, 북부면, 문시면 등은 1791년에는 없던 새로운 면이다. 이 밖에도 전과 다른 이름이 있지만 이들은 면의 통합이나 분할보다는 음절탈락이나 동음이자에 의한 개명 사례로 판단된다. 예컨대 초평면의 草가 楚로, 일용면의 一이 日로, 호매절면이 매곡면으로, 가사곶면이 가사면으로, 공이향면이 공향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술했듯이 고등촌면과 광교면은 각각 남부면과 북부면이 되었고, 문수당면과 시봉면 그리고 삼미면은 문시면으로 통합되었다(−2).

남곡면은 정송면을, 오타면은 금물촌면을, 공향면은 서북면을, 팔탄면은 모전면을, 장안면은 마정면을, 우정면은 팔라곶면과 화방면을, 삼봉면은 모지면(−8)을 병합하였다. 즉 3개 면이 1개 면으로 통합되었고, 8개 면이 다른 7개 면에 병합됨으로써 50개 면이 40개 면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면 간 통합에 대한 내용이 『화성지』에 기술되어 있다. 『화성지』는 특히 방리조에서 광덕면을 기술하면서 "이곳이 고려 때 쌍부현과 용성현 땅인데, 쌍부현은 지금의(『화성지』 단계) 우정읍에 있었고 용성현은 청룡면에 있었으며, 두 면의 경계는 광덕 옛길이었을 것"이라고 고증하는 면밀함을 보여 준다. 『화성지』의 면 현황은 약 30년이 지나 1864년에 편찬된 김정호의 『대동지지』와 다시 약 35년이 지나 1899년에 편찬된 『수원군읍지』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5) 월경지 정리와 면 이속(1831~1910년)

1905년 조선에 설치된 통감부는 1909년 3월에 호적에 관한 「민적법(民籍法)」을 반포하고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호구조사 이후 1789년에 펴낸 『호구총수』에 전국의 행정구역이 명시되었듯이 1910년에 편찬된 『민적통계표』에도 전국의 면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909년 호구조사 당시 수원의 면은 여전히 40개였으나 『수원군읍지』(1899)와 『민적통계표』(1910) 사이 10년 동안 수원의 면 체제는 월경지 정리와 함께 적잖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1831년부터 1899년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40개 면 가운데 34개 면은 『민적통계표』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태촌면(台村面)이 태림면(台林面)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오기(誤記)이거나 개명에 의한 듯하다. 나머지 6개 면은 다른 군으로 소속을 바꾸었고, 동시에 다른 군에서 6개 면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면수에 변동이 없었다.

〈표 6〉 19세기 말~20세기 초 수원의 면 변동(1899~1910년)

유형	면	비고
유지 (34)	가사면, 갈담면, 공향면, 광덕면, 남곡면, 남부면, 동북면, 매곡면, 문시면, 북부면, 산성면, 삼봉면, 샹홀면, 소동면, 수북면, 숙성면, 안녕면, 양간면, 어탄면, 오정면, 용복면, 일용면, 장주면, 정림면, 종덕면, 청룡면, 청호면, 초평면, 태림면, 토진면, 포내면, 현암면, 형석면, 남면	태림은 태촌의 오기로 보임.
소멸(6)	압정면, 우정면, 장안면, 초장면, 팔탄면	남양군으로 옮겨 감.
	오타면	진위군으로 옮겨 감.
신설(6)	감미면, 서신리면, 율북면, 언북면, 안외면, 천양면	타 군현의 월경지를 수원군으로 이속함. 천양은 승양의 오기로 보임.

밖으로 나간 6개 면은 압정면, 우정면, 장안면, 초장면, 팔탄면, 오타면이다. 이 중 앞의 5개 면은 남양군으로, 그리고 마지막의 오타면은 진위군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반대로 감미면 · 서신리면 · 율북면 · 천양면(승양면)과 언북면 · 안외면이 수원군에 포함되었다. 앞의 4개 면은 본디 양성현 땅이고 뒤의 2개 면은 직산현 땅으로, 수원부 내 해안가에 위치한 월경지(越境地)였다.

월경지는 해당 군에 속하는 일부 지역이 본 군의 경계를 넘어 타 군의 영역 안에 자리잡은 구역을 일컫는다. 월경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생성 요인이나 기원 시점 등이 아직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 「지방구역정리에 관한 건」에 의거 월경지가 모두 소멸되었다. 이때까지 유지된 월경지는 약 70여 개에 달했는데, 특히 남양만 · 아산만 일대는 어염과 관련하여 월경지가 많은 지역이었다. 월경지가 소멸하는 방식은 당연히 속지(屬地)한 군의 행정단위로 편입되는 것이었다. 월경지는 『대동여지도』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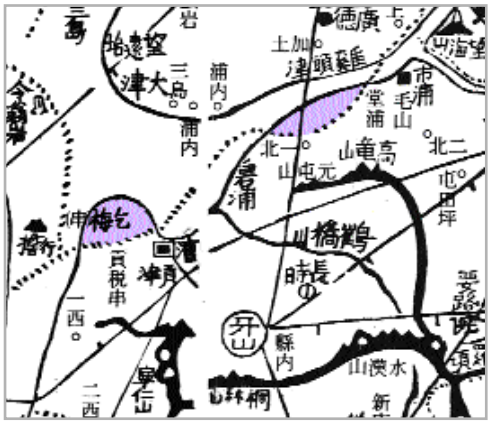
양성의 월경지 4개 면은 모두 현재 평택시에 속해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조선총독부, 1912)에 따르면, 감미면은 청북면 고념리 · 옹포 일대이고, 서신리면은 동면 어소리 · 현곡리 · 한산리 일대, 율북면은 서탄면 황구지리와 고덕면 동청리 일대, 그리고 천양면(승양면)은 포승읍 희곡리 · 방림리 일대와 서쪽의 만호리 너머 원정리 일대이다. 한편 직산의 월경지였던 언북면은 오성면 교포리 · 당거리 · 창내리 일대이고, 안외면은 포승리 · 만호리 · 송내리 · 신대리 일대이다. 안외면이 천양면(승양면)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수원군 압정 · 우정 · 장안 · 초장 · 팔탄면이 남양군으로 이속된 것도 1906년의 일이다. 이 5개 면은 1914년에 남양군 전체가 수원군에 병합되면서 8년 만에 다시 수원 땅으로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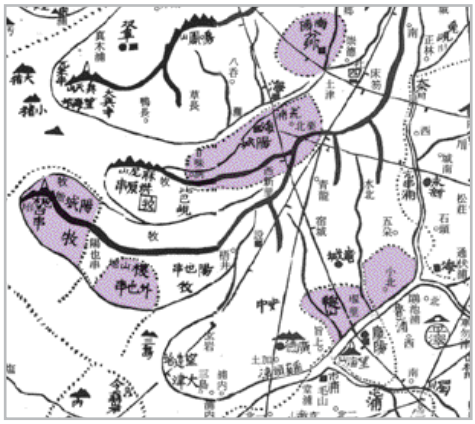
〈그림 20〉 조선 말기 수원에 들어와 있는 다른 군현의 월경지

아온다. 이때 팔탄면은 공향면을, 장안면은 초장면을, 우정면은 압정면을 병합한다. 한편 진위군으로 넘어간 오타면은 1914년에 진위군 고덕면이 된다. 오늘날 평택시 고덕면 궁리 · 방축리 · 동고리 일대이다. 한편 수원 관내에 있던 남양의 월경지 분향면은 1906년 월경지 정리 때 자연스럽게 남양군에 속하였다.

이 밖에 비록 일부 지역이지만 1906년에는 수원군 광덕면의 신흥포 · 신성포와 가사면의 삼도오동이 아산군으로 편입되었다. 신흥포는 1914년에 아산군 둔포면 신남리에 편입되었는데 오늘날에도 남창초등학교 위에 신흥포라는 마을 이름이 남아 있다. 신성포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신흥포 부근으로 짐작된다. 두 포구 마을은 『대동여지도』에 백석포



〈그림 21〉 아산군으로 편입한 수원군 땅(1906)



〈그림 22〉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수원 내 타 군현의 월경지

와 시포 사이의 해안가로 비정되는데, 일종의 월경지와 같은 곳이라 1906년에 아산군으로 이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삼도오동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6. 1831년 수원부 행정구역의 복원

행정구역의 변동 요인은 다양하고,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 변동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한성부가 경성부로, 경성부가 다시 서울시로 이름을 바꾼 사례나, 2009년에 영월군 서면이 한반도면으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관할 소속을 바꾸는 사례이다. 조선 초기에 철원이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소속을 바꾼 것, 금산군과 울진군이 1963년에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소속을 바꾼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변동 요인으로는 읍격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읍격의 승강이 특히 빈번하였다. 군에서 현으로 강등된다거나, 군에서 도호부로 승격하는 등의 사례를 일컫는다. 수원면이 수원읍(1931년)으로, 수원읍이 수원시(1949년)로 승격하는 것 또한 읍격의 변동 사례에 포함될 것이다. 네 번째는 위치의 변동이다. 정조 때 화산 아래 있던 수원의 읍치가 지금의 화성으로 위치를 옮겨 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러한 치소의 위치 이동은 지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음에도 잘 기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에도 그러하다. 다섯 번째로는 영역의 측면에서 행정구역 변동에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양근군

과 지평군이 합쳐서 양평군이 된다거나, 안산군의 일부 면이 수원군으로 편입된다거나 이 반대의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구역의 변동 양상은 생각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변동 양상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대부분 연쇄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원읍이 수원시가 된 것은 '읍'이 '시'가 되었으므로 읍격 변동의 사례에 속하지만 단순히 읍격 상승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원시가 만들어지면서 수원군은 화성군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명칭 변동의 사례가 수반되었으며, 기존 수원군의 입장에서는 수원시가 빠져나갔으므로 관할 면적이 줄어들어 영역에도 변화가 있었다.

행정구역의 변동 양상을 명칭, 소속, 읍격, (치소의) 위치, 영역의 다섯 가지 범주에서 평가하면,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은 읍격의 승강은 매우 빈번했으되 영역의 변동은 별로 없었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실 영역 변동이 가장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 사례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데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조선 후기 수원의 영역을 면 단위로 복원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해 보고자 한다.

1413년에 수립된 8도제에 전국 단위의 변화가 처음 찾아온 것은 482년이 지난 1895년 윤5월 1일(개국 504년, 칙령 98호, 1895년 5월 26일 공포)이었다. 이때 여덟 개의 도가 23개의 부로 재편되었고, 부·목·군·현으로 구분했던 읍격도 모두 군으로 통일하였다. 이에 유수부 수원은 수원군이 되어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칙령 97호). 이를 계기로 수원이 유수부에서 군으로 강등되었다고도 하지만 23부제는 기존의 읍격을 군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반드시 강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읍격을 통일한 대신 각 군을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수원은 2등군이었다. 전국 337개 군 중 1등군은 17개였고, 경기도에서는 강화군이 유일하였다. 23부제는 군현 간 통·폐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8개 도를 23개의 부로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였다. 도급 소속의 변동을 제외하면, 영역의 측면에서 23부제는 행정구역에 별 변동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23부제는 시행 1년 만에 폐지되고 1896년에 새로 13도제가 실시되었다. 13도제는 8도제로의 복귀와 다를 바 없었다. 옛 8도 가운데 황해·강원·경기도를 제외한 평안·함경·충청·전라·경상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뉘어 모두 13개의 도를 만든 것이다. 이로써 수원은 다시 경기도로 환속되었다. 각 도에는 관찰부를 설치하고 관찰사를 파견했는데, 수원에 부청이 있었다. 전술했듯이 1793년에 수원은 유수부가 되면서 이미 경기 남부 제1의 도회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1896년에 경기도관찰부까지 유치함으로써 경기 남부를 넘어 경기도의 대표 도시가 되었다. 이전까지 경기감영(도청)은 한성부에 소재하고 있었다. 그

〈표 7〉 1785~1914년 수원의 면 변동

번호	1785	1789	1791	1831	1864	1910	1912	1914	1914년 소속 리	비고
1	가사곶(佳士串)	–	–	가사(佳士)	–	–	–	(현덕)	두매리, 권관리, 기산리*	진위군으로 감.
2	갓등(䟽等)	–	갈담(葛潭)	–	–	–	–	봉담	당하리, 유리, 덕리, 하가등리, 마하리, 왕림리, 세곡리, 덕우리	
3	공이향(工以鄕)	–	–	공향(貢鄕)	–	–	–	향남	행정리, 평리, 발안리, 방축리, 도이리, 제암리	
4	서북(西北)	–	–					팔탄	해창리, 매곡리, 월문리, 화당리, 서근리, 우리, 고주리	
5	광덕(廣德)	–	–	–	–	–	–	(현덕)	대안리, 신왕리	진위군으로 감.
6	남곡(南谷)	–	–	남곡(南谷)	–	–	–	正南	괘양리, 보통리, 관항리, 오일리, 백리, 귀래리, 문학리, 계향리, 발산리,* 신리	①
7	정송(貞松)	–	–							
8	고등촌(古等村)	–	–	남부(南部)	–	–	–	水原	남창리, 남수리,* 산루리, 매산리	②
								일형	고등리, 서둔리	
								태장	지리, 인계리	
								안룡	평리, 세리, 장지리	
9	광교(光敎)	–	–	북부(北部)	–	–	–	수원	북수리, 신풍리	
								일형	지소리, 동리, 영화리, 상광교리, 하광교리, 조원리	
10	동북(東北)	–	–	–	–	–	–	東灘	중리, 목리, 신리, 영천리, 청계리, 석우리, 반송리, 오산리*	③
11	호매절 어양천(好梅折於良川)	호매절(好梅節)	–	매곡(梅谷)	–	–	–	梅松	호매실리, 금곡리, 숙곡리, 어천리, 원평리, 천천리(*)	④
		송동(松洞)	–	–	–	–	–	매송	야목리, 원리, 송라리	광주에서 옴(1789).
12	부내(府內)	문수당(文殊堂)	–	문시(文市)	–	–	–	성호	외삼미리, 금암리, 내삼미리, 수청리	
		시봉(市峰)								
13	삼며곡(三旂谷)	삼미(三美)	–							
14	산성(山城)	–	–	–	–	–	–	성호	양산리, 서랑리, 지곶리, 세교리	

번호	1785	1789	1791	1831	1864	1910	1912	1914	1914년 소속 리	비고
15	모지 (茅旨)	芼旨	–	삼봉 (三峯)	–	–	–	峰潭	내리, 상리, 수영리, 분천리, 동화리,* 수기리, 와우리	⑤
16	삼봉 (三峯)	–	–							
17	쟁홀 (爭忽)	–	상홀 (床笏)	–	–	–	–	양감	송산리, 정문리, 사창리	
18	수류 (水流)	–	수북 (水北)	–	–	–	–	(청북)	어연리, 백봉리	진위군으로 감.
19	숙성 (宿城)	–	–	–	–	–	–	(오성)	양교리,(*) 죽리, 숙성리, 안화리	진위군으로 감.
20	안녕 (安寧)	–	–	–	–	–	–	安龍	배양리, 안녕리, 송산리, 황계리, 대황교리,* 반정리, 곡반정리	⑥
21	압장 (鴨長)	–	압정 (鴨汀)	–	–	(→남양군 압정면)		雨汀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화산리,* 조암리, 국화리	1914년 이전에 남양군으로 감. ⑦
22	양간 (楊干)	–	楊間	–	–	–	–	楊甘	용소리, 신왕리, 삼당리,* 대양리	⑧
23	어탄 (魚呑)	–	漁灘	–	–	–	–	성호	궐리	
								동탄	방교리, 송리, 금곡리, 산척리, 장지리	
24	오정 (梧井)	–	–	–	–	–	–	(오성)	금곡리, 대반리, 길음리, 삼정리, 안중리, 학현리	진위군으로 감.
25	오타 (吾朶)	–	–	五朶	–	(→진위군 고덕면)		(고덕)	궁리, 방축리, 동고리, 해창리*	1914년 이전에 진위군으로 감.
26	금물촌 (今勿村)	–	–							
27	용복 (龍伏)	–	–	–	–	–	–	안룡	고색리, 기안리, 오목천리	
28	사정 (奢井)	–	우정 (雨井)	雨井	–	(→남양군 우정면)		우정	멱우리, 화촌리, 주곡리, 원안리, 호곡리, 운평리, 한각리	
29	팔라곶 (八羅串)	–	나곶 (羅串)							
30	화방 (禾方)	–	–							
31	마정 (馬井)	–	長安 장안 (長安)	長安	–	(→남양군 장안면)		長安	석포리, 수촌리, 독정리, 장안리*	⑩
32	장족 (長足)	–	장주 (章洲)	–	–	–	–	태장	권선리, 신리, 영통리, 원천리, 매탄리	
33	정림 (正林)	–	–	–	–	–	–	정남	내리, 음양리, 수면리, 고지리, 용수리, 금복리, 망월리, 제기리, 덕절리	

번호	1785	1789	1791	1831	1864	1910	1912	1914	1914년 소속 리	비고
34	종덕 (宗德)	–	–	–	–	–	–	(고덕)	당현리, 두릉리, 문곡리, 동청리	진위군으로 감.
35	청룡 (靑龍)	–	–	–	–	–	–	(청북)	용성리, 덕우리, 옥길리, 후사리	진위군으로 감.
36	청호 (靑好)	–	–	晴湖	–	–	–	城湖	부산리, 원리, 오산리*	⑪
								(북면)	갈곶리	진위군으로 감.
37	초장 (草長)	–	–	–	–	(→남양군 초장면)		장안	덕다리, 사랑리, 사곡리, 노진리, 어은리, 금의리	
38	초평 (草坪)	–	–	楚坪	–	–	–	성호	가장리, 청학리, 서리, 가수리, 누읍리, 벌음리, 두곡리, 탑리	
39	태촌 (苔村)	–	태촌 (台村)	–	–	台林	台村	台章	망포리,* 반월리, 능리, 병점리, 진안리, 기산리	⑫
40	토법 (土法)	–	토진 (土津)	–	–	–	–	양감	고잔리	
								(청북)	토진리, 어소리, 현곡리,* 한산리	진위군으로 감.
41	모전 (茅田)	芼田	茅田	八灘	–	(→남양군 팔탄면)		八灘	하저리, 기천리, 창곡리, 구장리,* 가재리, 율암리, 노하리, 덕우리, 지월리	
42	팔탄 (八灘)	八呑	八灘							
43	포내 (浦內)	–	–	–	–	–	–	(포승)	홍원리, 도곡리,(*) 원정리, 석정리, 내기리, 만호리	진위군으로 감.
								(현덕)	운정리	진위군으로 감
44	감암 (甘巖)	–	현암 (玄巖)	–	–	–	–	(포승)	희곡리	진위군으로 감.
								(현덕)	화양리, 인광리, 도대리, 방축리	진위군으로 감.
45	공석 (空石)	–	형석 (荊石)	–	–	–	–	일형	이목리, 율전리, 천천리, 탑리, 구운리	
46	동(東)	–	–	?	–	–	–			
		일용 (一用)	–	日用	–	–	–	日荊	파장리, 정자리, 송죽리*	광주에서 옴(1789). ⑨
47	북방 (北方)	북방	–	?	–	–	–			
48		남(南)	–	–	–	–	–	鄕南	수직리, 백토리, 증거리, 갈천리, 길성리, 송곡리, 동오리, 관리,* 화리현리, 상두리	
49					(양성)	감미 (甘味)	–	양감	고념리, 삼계리	
								(청북)	삼계리, 고잔리	진위군으로 감.

번호	1785	1789	1791	1831	1864	1910	1912	1914	1914년 소속 리	비고
50					(양성)	서신리 (西新里)	–			
51					(직산)	안외 (安外)	–	(현덕)	덕목리	진위군으로 감.
52					(직산)	언북 (堰北)	–	(오성)	당거리, 창내리, 신리, 교포리	진위군으로 감.
53					(양성)	율북 (栗北)	–	(서탄)	황구지리	진위군으로 감.
								(청북)	율북리	진위군으로 감.
54					(양성)	천양 (舛陽)	승양 (升陽)	(포승)	신영리, 방림리	진위군으로 감.
								(현덕)	황산리	진위군으로 감.
55						(→남양에서 옴)	분향리	향남	상신리, 하길리, 구문천리	
56							음덕리	隱德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57							화척지	음덕	신외리, 장전리, 수화리, 문호리, 시리, 송림리, 원천리	
58							둔지곶	음덕	장덕리, 안석리, 무송리, 활초리, 온석리	
59							쌍수리	麻道	송정리, 두곡리, 석교리*	
60							마도	마도	쌍송리, 청원리, 해문리, 백곡리, 금당리, 우모리, 슬항리	
61							송산	松山	우포리, 중송리, 천등리, 독지리, 마산리,(*) 지화리	
62							수산	송산	삼존리, 봉가리, 사강리, 육일리	
63							세곶	송산	고정리, 용포리, 쌍정리, 신천리	
64							서여제	서신	칠곡리, 전곡리, 상안리, 광평리, 장외리, 송교리	
65							신리	西新	홍법리, 사곶리, 용두리, 궁평리, 백미리, 매화리, 제부리	
66							며지곶	飛鳳	유포리, 남전리, 양노리, 쌍학리, 구포리, 삼화리	
67							저팔리	비봉	자안리, 청삼리, 상기리	

번호	1785	1789	1791	1831	1864	1910	1912	1914	1914년 소속 리	비고
68						(→광주에서 옴)	의곡	의왕	학의리, 포일리, 내손리, 청계리	
69							왕륜	儀旺	오전리, 이리, 왕곡리, 삼리, 고천리*	
70						(→안산에서 옴)	월곡	반월	사사리, 상수리, 초평리, 월암리, 입북리	
71							북방	半月	대야미리, 속달리, 둔대리, 도마교리, 건건리, 팔곡1리, 팔곡2리	
72							성곶	반월	일리, 이리, 사리, 본오리	
	47면	50면	50면	40면	40면	40면		21면		

러나 도청은 1910년 8월 29일에 다시 경성부 광화문통으로 옮겨 간다. 합병과 함께 경성부가 경기도에 소속되면서 도청을 다시 유치하게 된 것이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자 경성부 역시 더 이상 수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옮겨 간 도청은 이후 1967년 6월 23일까지 서울에 있었다. 1896년에 시작된 13도제는 현재까지도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1413년에 시작된 8도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조선시대 수원의 연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읍치가 옮겨 간 것이라 생각된다. 읍치 이전은 새로운 부내면 설치를 불가피하게 했고, 연쇄적으로 면의 명칭이나 이속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읍치 이전(移轉) 이후에 편찬된 1831년 『화성지』 단계의 행정구역을 면 단위까지 복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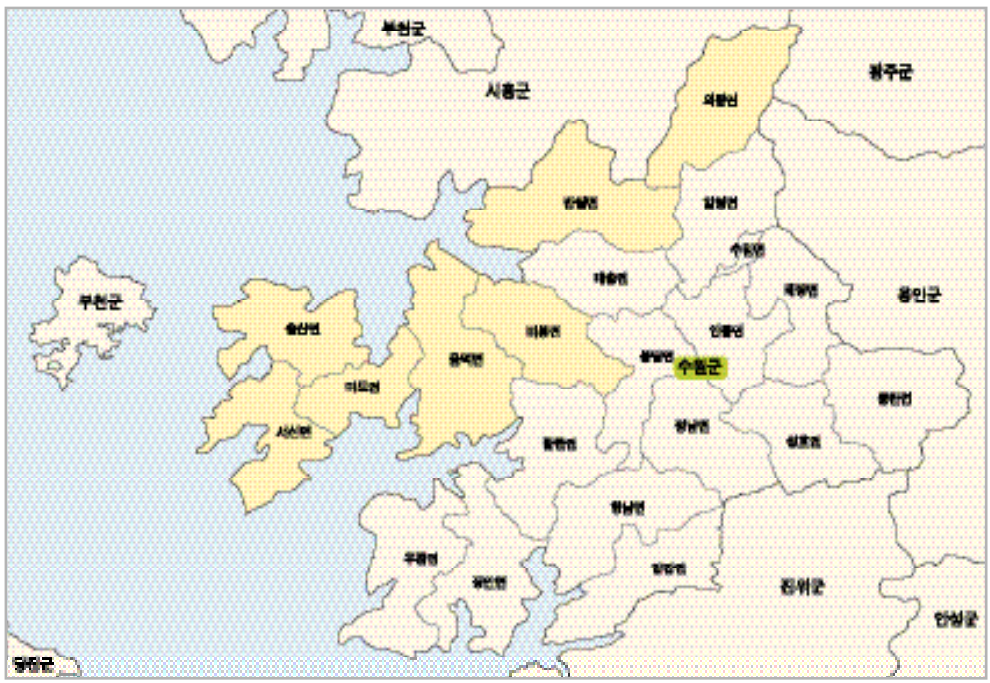
조선 후기 면 단위 행정구역 복원의 단서는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1914년 변동의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자연마을 단위까지 상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1914년을 출발점으로 삼고 1831년을 도달점으로 삼아 그 사이의 면 변동 사항을 소급해 올라가면서 추적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면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 두 시점 사이에서 발생한 변동 사건은 『대동지지』(1864년), 『민적통계표』(1909년), 『구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1912년)을 이용하였다. 예컨대 대대로 수원부에 속했던 압정면은 『대동지지』 단계 이후 언젠가 남양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에 다시 수원군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1914년 직전 상황을 반영하는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압정면이 남양군에서 수원군으로 이속되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복원 시점은 1831년이므로 압정면이 남양군이 아닌

수원군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1831년과 1914년 사이의 변동 이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1831년에 수원부가 관할한 면은 모두 40개이고, 1914년에 수원군이 관할한 면은 모두 21개이다. 이제부터 기술할 내용은 이제 21개 면을 어떻게 40개 면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21개 면이 그대로 40개 면으로 전화되지 않는다. 첫째, 21개 면 가운데 일부는 본래 수원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연히 본 소속의 군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둘째, 본래 수원 소속이었던 면 가운데 일부는 1914년에 수원군이 아닌 인접 군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 찾아와 수원군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월경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기술할 때 상술한다.

1) 1914년 당시 21개 면 가운데 본디 수원 소속이 아니었던 면

1914년 현재 21개 면 가운데 7개 면은 그 이전에 수원 소속이 아니었다. 의왕면(1)은 광



〈그림 23〉 1914년에 남양군, 안산군,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된 면

주군에서, 반월면(1)은 안산군에서, 비봉면 · 음덕면 · 마도면 · 송산면 · 서신면(5)은 남양군에서 각각 수원군으로 들어온 지역이다. 따라서 1831년 기준 행정구역 복원도에서 위 7개 면은 수원 소속이 아니므로 원 소속이었던 광주 · 안산 · 남양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2) 본디 수원군 땅이었다가 남양군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편입된 면

남양군 장안 · 우정 · 팔탄 3개 면은 1914년에 수원군에 편입된다. 그러나 이 3개 면은 대대로 수원군에 속해 있다가 1906년 9월 24일(칙령 49호)에 남양군으로 넘어간 지역이다. 그러다가 8년 후인 1914년에 다시 수원군 소속이 된 것이다. 그런데 1914년에 수원군이 되면서 장안면은 초장면을, 우정면은 압정면을 병합했기 때문에, 결국 장안 · 초장 · 우정 · 압정 · 팔탄 5개 면은 1831년에 수원군 40면의 5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초장면과 압정면 역시 대대로 수원군 땅이었다가 1906년에 남양군으로 넘어간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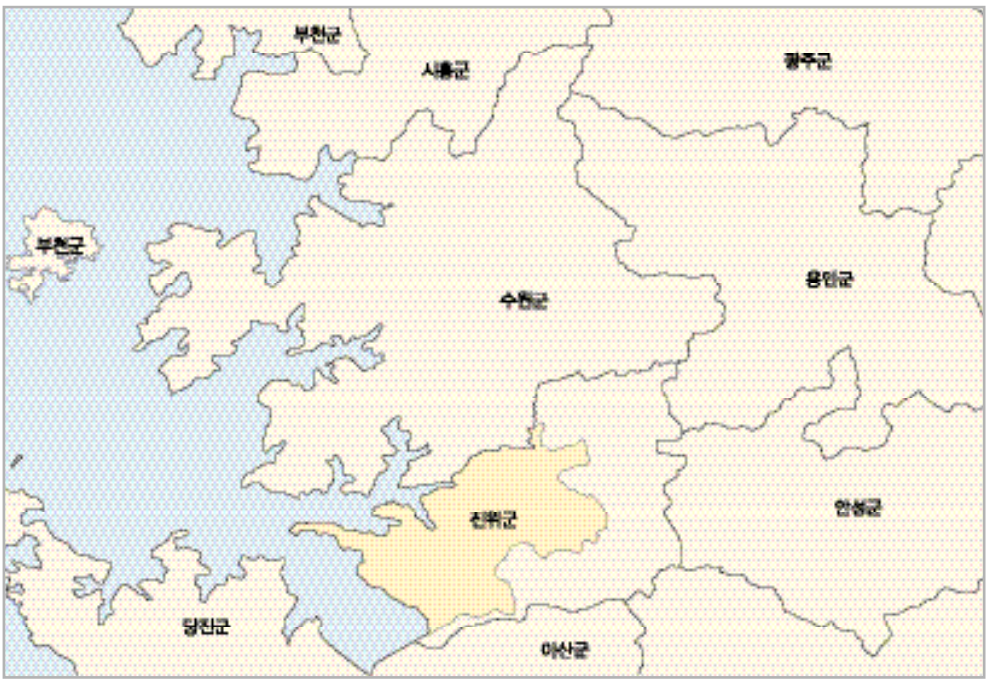
〈그림 24〉 원래 수원 땅이었으나 1906년 남양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다시 수원군에 편입된 면

3) 본디 수원 땅이었으나 1914년에 진위군으로 넘어간 면

진위군은 1914년에 평택군 전역과 수원군 일부를 병합하여 11개 면으로 편성된 새로운 진위군으로 재탄생한다.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1914년 기준 진위군 땅에 다음 15개 면, 즉 토진, 수북, 청룡, 포내, 광덕, 가사, 현암, 오정, 숙성, 종덕, 서신리, 율북, 승양, 안외, 언북면이 원 수원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위 15개 면 가운데 서신리 · 율북 · 승양 · 안외 · 언북 5개 면은 각기 다른 군에 속한 월경지였다. 전술했듯이 1906년에 월경지가 일괄적으로 정리될 때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위 5개 면이 수원군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즉 1906년 이전까지 서신리 · 율북 · 승양 3개 면은 양성현 땅이었고, 안외 · 언북 2개 면은 직산 땅이었다. 결국 1831년 당시 이들 다섯 지역은 수원의 영역 밖에 두어야 한다. 즉 15면 가운데 월경지 5면을 제외한 10개 면이 수원 소속인 것이다.

진위군에는 수원군 면이 하나 더 숨어 있다. 오타면이다. 본디 수원군 소속이었으나 1906년에 진위군으로 이속되었다가 1914년에 고덕면의 일부가 되는데, 궁리 · 방축리 · 동고리



〈그림 25〉 1914년에 진위군으로 넘어간 수원 땅

일대로 추정된다. 결국 1831년 수원부 행정구역도에는 오타면을 포함하여 진위군에 속한 11개 면과 월경지 5개 면이 그려져야 한다. 정리하자면, 1914년에 수원군 토진 · 수북 · 청룡 · 율북면은 청북면으로, 수원군 포내 · 승양면은 포승면으로, 수원군 안외 · 광덕 · 가사 · 현암면은 현덕면으로, 수원군 오정 · 숙성 · 언북면은 오성면으로, 수원군 종덕면은 진위군 고두면과 함께 고덕면으로 통합되어 진위군이 된 것이다. 다만 서신리면은 실체가 잘 잡히지 않는다. 오늘날 평택시 청북면 어소리와 한산리 일대로 추정만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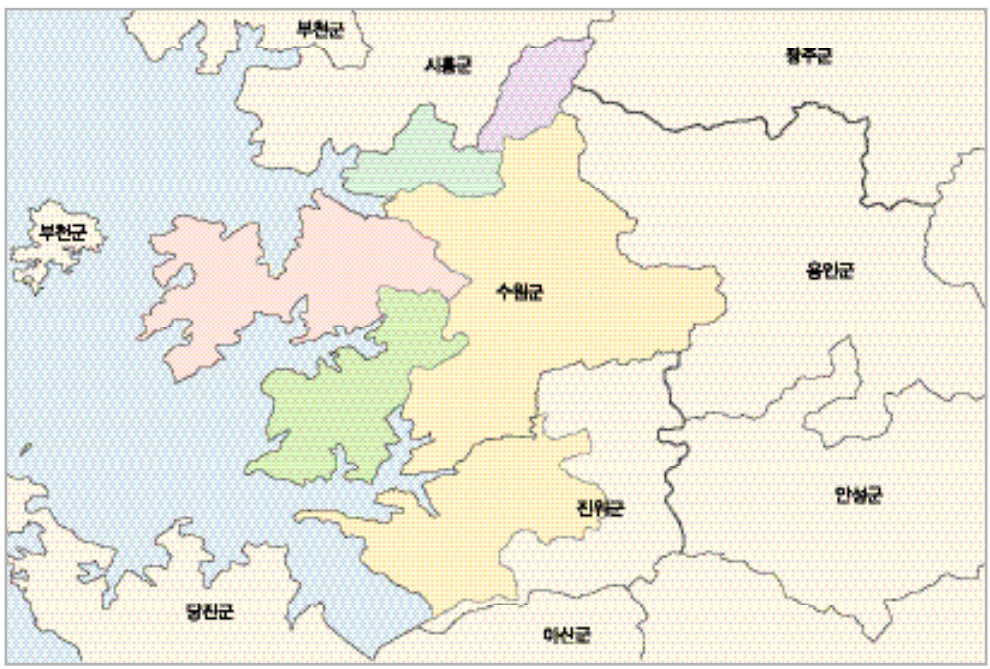
4) 계속 수원에 머물러 있는 면

지금까지 1831년 기준 40개 면 가운데 16개 면을 찾았다. 나머지 갈담면, 공향면, 남곡면, 남부면, 북부면, 동북면, 매곡면, 문시면, 산성면, 삼봉면, 상홀면, 안녕면, 양간면, 어탄면, 용복면, 장주면, 정림면, 청호면, 초평면, 태촌면, 형석면, 송동면, 일용면, 남면 등 24개 면은 계속 수원에 남아 1914년에 11개 면으로 재편되었다. 전술했듯이 24개 면 가운데 송동면과 일용면은 1789년에 광주군에서 수원군으로 옮겨 온 것이다. 만약 복원 시점이 1789년 이전이라면 두 면은 광주군 소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1831년 기준 수원군의 면 상황을 1914년과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그림 26〉 1914년에 수원군 소속이 바뀌지 않은 면

〈표 8〉 1831~1914년 면 변동 현황

1831년	1831년(40면)	1914년(21면)	비고
수원(24면)	갈담면, 공향면, 남곡면, 남부면, 북부면, 동북면, 매곡면, 문시면, 산성면, 삼봉면, 상홀면, 안녕면, 양간면, 어탄면, 용복면, 장주면, 정림면, 청호면, 초평면, 태촌면, 형석면, 송동면, 일용면, 남면	1831년 이후 1914년까지 계속 수원군 소속	수원군 정남면 · 수원면 · 동탄면 · 매송면 · 봉담면 · 안룡면 · 양감면 · 성호면 · 태장면 · 일형면 · 향남면이 됨(11).
수원(11면)	가사면, 광덕면, 수북면, 숙성면, 오정면, 종덕면, 청룡면, 토진면, 포내면, 현암면, 오타면	오타면은 1914년 이전에, 나머지 10개 면은 1914년에 진위군 소속이 됨.	진위군 현덕면 · 청북면 · 오성면 · 고덕면 · 양감면 · 포승면이 됨.
수원(5면)	압정면, 우정면, 장안면, 초장면, 팔탄면	남양군에서 넘어왔지만 1831년에는 수원군 소속이었음.	수원군 우정면 · 장안면 · 팔탄면이 됨(3).
양성(월경지)	율북면, 승양면, 서신리면	월경지 폐지에 따라 1906년 수원으로 편입	진위군 서탄면 · 청북면 · 포승면 · 현덕면이 됨.
직산(월경지)	안외면, 언북면		진위군 현덕면 · 오성면이 됨.
광주	의곡면, 왕륜면	1914년에 광주군 → 수원군	수원군 의왕면이 됨(1).
안산	월곡면, 북방면, 성곶면	1914년에 안산군 → 수원군	수원군 반월면이 됨(1).
남양	음덕리면 외 13면	1914년에 남양군 → 수원군	수원군 음덕면 · 마도면 · 송산면 · 서신면 · 비봉면이 됨(5).



〈그림 27〉 1914년 수원군 일대 행정구역 변동

7. 일제시기 수원의 연혁

역사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때면 으레 행정구역이 조정되곤 하였다. 일제 역시 합병 3년 반 만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 개편안은 1913년 12월 29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공포되고 이듬해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330개 군이 220개 군으로 통·폐합되었고, 12개의 부(府)가 신설되었다. 12부는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 진남포, 신의주, 청진, 원산, 경성, 평양, 대구이다. 처음에 12개로 시작된 부는 해방 직전 22개까지 늘어난다. 당시 부는 오늘날 시(city)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군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충청도이다. 기존의 54개 군이 24개 군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군이 수원군으로, 양지군이 용인군으로, 양천군이 김포군으로, 교동군이 강화군으로, 교하군이 파주군으로, 풍덕군이 개성군으로, 영평군이 포천군으로, 적성군과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양성군과 죽산군이 안성군으로, 그리고 과천군과 안산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었다. 1914년 개편 직후 수원군은 21개 면 279리를 관할하였고, 군청은 수원면 신풍리(팔달구 신풍동)에 있었다. 기존의 행궁 그대로를 군청으로 사용한 듯하다.

수원군의 1914년 개편안은 영역 변동의 측면에서, 첫째 영흥면 및 대부면을 제외한 남양군 전역과 광주군 및 안산군 지역의 일부를 병합한 것, 둘째 기존 수원군 땅이었던 일부 지역을 진위군(현 평택시)에 넘겨준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내준 것보다는 받아들인 것이 더 넓어 관할면적은 이전보다 약간 늘어났다. 반면 면은 40개에서 21개로 축소되어 면 통합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면은 4,500여 개에서 2,500여 개로 줄었으니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은 군보다 면이 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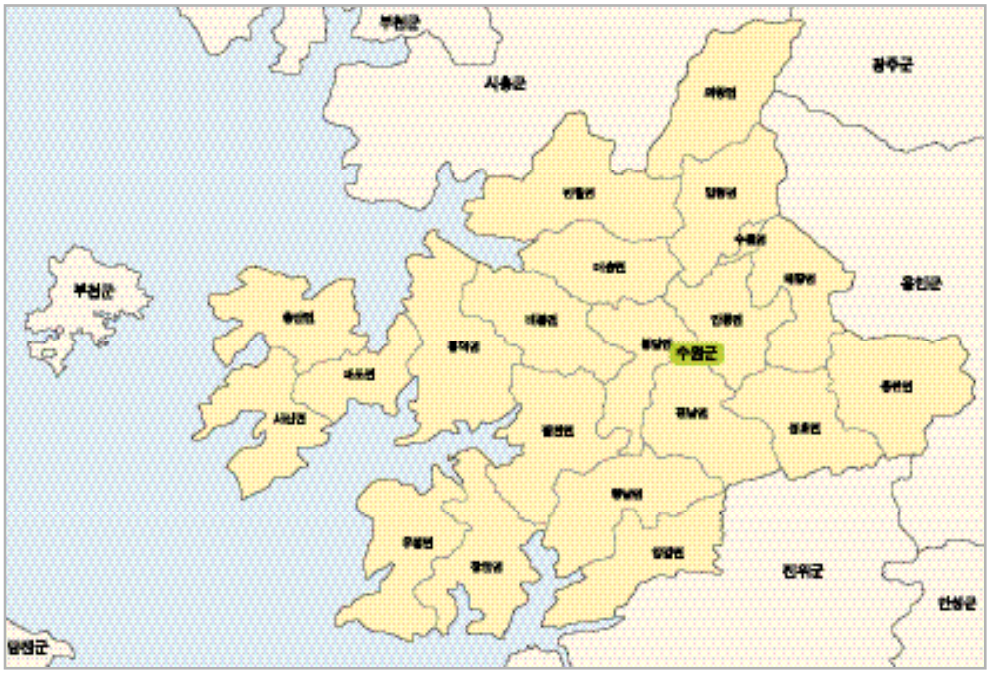
1914년 21면 가운데 수원면, 일형면, 매송면, 안룡면, 태장면, 동탄면, 성호면, 정남면, 봉담면, 팔탄면, 향남면, 양감면, 장안면, 우정면 등의 14면은 본디 수원군 땅이었고,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음덕면, 비봉면 5개 면은 남양군에서, 반월면은 안산군(월곡면+북방면+성곶면)에서, 그리고 의왕면은 광주군(의곡면+왕륜면)에서 넘어온 것이다. 반면 1914년에 진위군에 편입된 포승면, 현덕면, 오성면과 일부 고덕면은 그전까지 수원군 땅이었다. 소속 리가 가장 많은 면은 20리를 관할한 향남면과 성호면이었고, 기존 면 가운데 가장 많이 분할된 면은 수원면·일형면·태장면·안룡면 4개 면으로 갈라진 남부면이었다. 이상 1914년 직전과 직후의 면 통합 현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1914년 수원군 면의 통 · 폐합[24]

1914년 면(리수)	통합 전 군	통합 전 소속 면	면소재지	비고
수원면(6)	수원	남부, 북부	남수리	읍(1931), 영역 확장(1936)
일형면(16)	수원	남부, 북부, 일용, 형석	송죽리	일왕면(1931)
태장면(13)	수원	남부, 장주, 태촌	망포리	
안룡면(13)	수원	남부, 안녕, 용복	대황교리	
매송면(9)	수원	매곡, 송동	천천리	
봉담면(15)	수원	삼봉, 갈담	동화리	
향남면(20)	수원	남면, 공향	관리	
	남양	분향리		
양감면(10)	수원	상홀, 양간, 감미, 토진	요당리	
음덕면(15)	남양	음덕리, 화척지, 둔지곶	남양리	
마도면(10)	남양	쌍수리, 마도	석교리	
송산면(14)	남양	송산, 수산, 세곶	마산리	
서신면(13)	남양	서여제, 신리	매화리	
비봉면(9)	남양	여지곶, 저팔리	양노리	
팔탄면(16)	남양	팔탄	구장리	
	수원	공향		
장안면(10)	남양	장안, 초장	장안리	
우정면(13)	남양	우정, 압정	화산리	
의왕면(9)	광주	의곡, 왕륜	고천리	일왕면(1931)
정남면(19)	수원	남곡, 정림	발산리	
성호면(20)	수원	어탄, 초평, 청호, 산성, 문시	오산리(烏山里)	오산면(1941)
동탄면(13)	수원	동북, 어탄	오산리(梧山里)	
반월면(16)	안산	월곡, 북방, 성곶	팔곡1리	
21면 279리				

일제시기 수원군의 연혁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수원면에 집중된다. 수원면에서 포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1931년 수원면의 읍 승격과 1936년 수원읍의 영역 확장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지방행정구역 단위로서 읍을 설치한 것은 1931년이 처음이다. 1917년 10월 1일(조선총독부령 제1호, 1917년 6월 9일 공포)에는 그 전신으로 면을 일반면과 지정면(指定面)으로 구분하는 지정면 제도를 실시하는데, 지정면은 대체로 일본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1931년 4월 1일(조선총독부령 제12호, 1930년 12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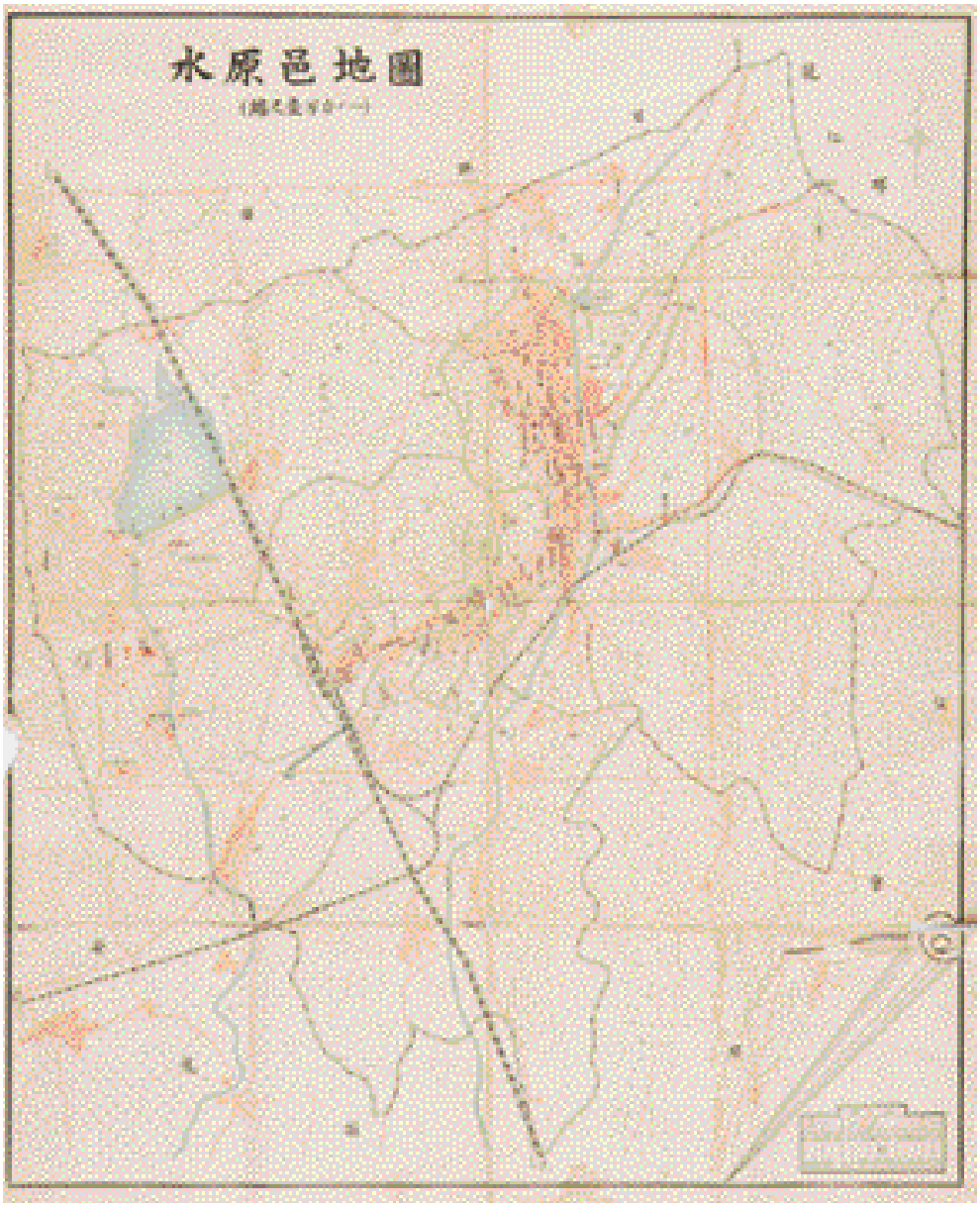
24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 반월면사무소 표시가 없다. 한편 1910년대 1:50,000 지형도에는 '반월장' 옆에 '면사무소'가 기호(범례) 없이 명칭만 기입되어 있다. 당시 반월장은 팔곡1리에서 개설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 반월면사무소도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을축년(1925) 홍수 이후 면사무소가 건건리로 이전하였다(『향토문화전자대전』, 안산시, http://ansan.grandculture.net).



〈그림 28〉 1914년 수원군 영역

일 공포) 지정면이 읍으로 개칭되면서 수원면이 수원읍이 된 것이다(조선총독부령 제103호, 1930년 12월 29일 공포). 이때 전국의 약 2,500개의 면 가운데 35개 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읍과 영등포읍 두 곳이었다. 1917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여 이때 승격한 읍은 부(府)와 더불어 한국 도시사에서 공식적인 시(city)로 분류할 만하다. 원조 읍이라 할 수 있는 35읍은 대부분 일찍이 시가 되었지만, 최근까지 강경읍 · 철원읍 · 조치원읍만 읍으로 남아 있다가 조치원읍은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다. 수원면 외의 지역에서는 1931년에 일형면과 의왕면이 일왕면으로 통합하였고, 1941년에는 성호면이 오산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산면은 1960년에 오산읍으로, 1989년에 오산시로 승격하였다.

한편 1936년 10월 1일 수원읍의 기존 리 · 동 명칭이 일본식인 남창정, 본정, 남수정, 궁정, 영정, 남부정, 구천정, 매산정, 북수정, 매향정, 장안정, 신풍정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남창정 · 남수정 · 매산정 · 북수정 · 매향정 · 장안정 · 신풍정 등은 기존의 리 이름에 '정'자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일본 본토 지명의 이식이나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일식 지명은 다른 지역에서만큼 많지는 않았다. 이들 일본식 지명은 해방과 함께 다시 원래의 이



〈그림 29〉 1936년 이후 수원읍 영역

름을 찾거나 새로운 한국식 이름이 붙었다.

또한 1936년 10월 1일(조선총독부령 제94호, 1936년 9월 26일 공포) 수원읍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수원읍은 접경하고 있는 일형면 고등리, 영화리, 지소리, 동리, 서둔리와 안룡

면 세리, 평리 일부, 그리고 태장면 지리, 인계리, 권선리 일부 등의 지역을 편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고등정, 영화정, 지소정, 화서정, 서둔정, 지야정, 우만정, 인계정, 세류정, 대평정 등의 새로운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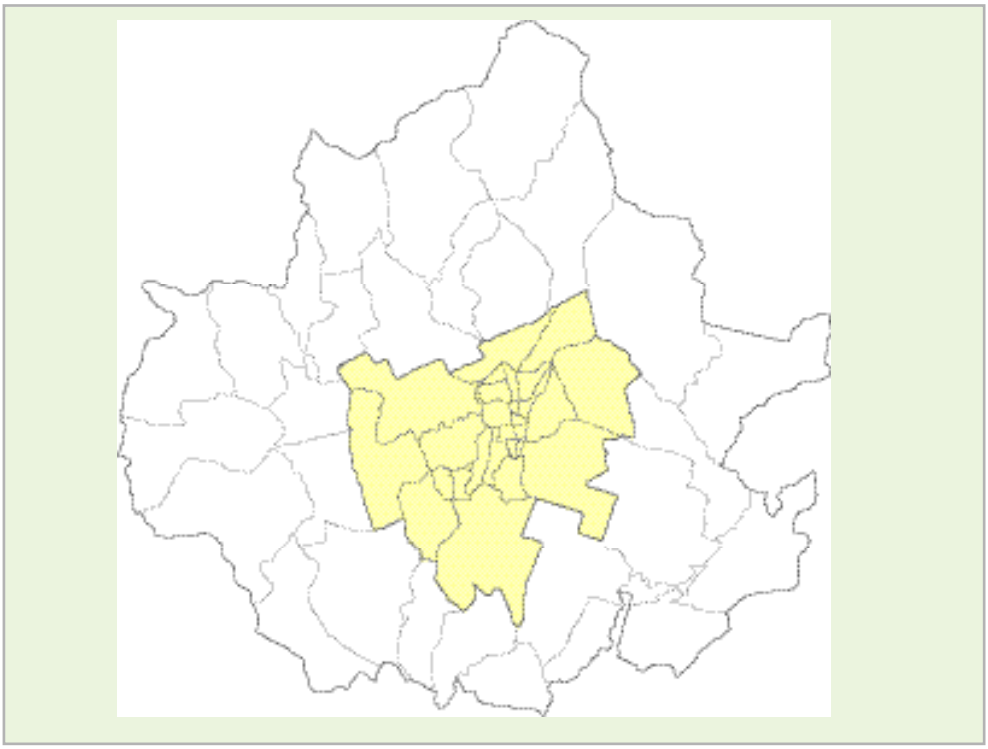
8. 해방 후 수원시의 연혁

1) 시 승격과 시역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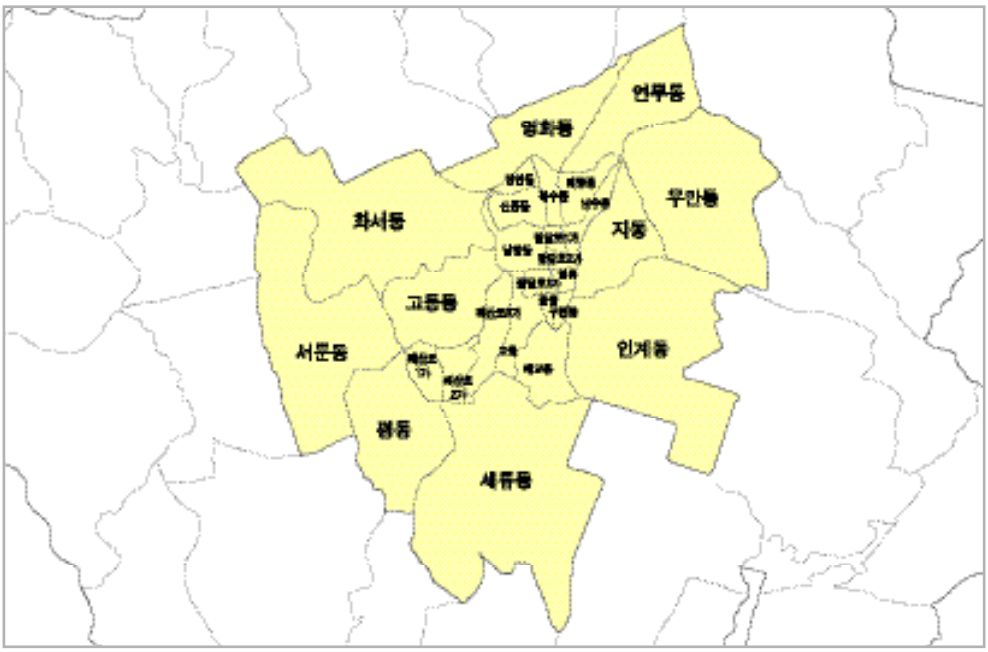
해방과 함께 들어선 미군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미군정기에는 춘천읍(1946년), 청주읍(1946년), 이리읍(1947년)이 부가 되었고,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하였으며(1946년), 경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다(1946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 행정구역은 1특별시 9도 14부 218군으로 편제되었다. 이듬해 여수읍 · 순천읍 · 포항읍 · 김천읍 · 수원읍 등 5개 읍이 부로 승격하였고, 1949년 8월 15일에 부의 명칭이 시로 바뀌면서 수원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 된 19곳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나 읍이 시로 승격할 때 시명이 기존 군명을 사용할 때에는 군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수원군은 고려시대부터 써 오던 이름을 시에 넘겨주고 화성군이 되었다. 이후 수원군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수원시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수원 '시'는 처음에 27개의 동으로 출발하였다. 최초 수원시의 영역은 1936년에 확장된 수원읍과 같았다. 남창정은 남창동이 되었고, 본정은 팔달로1~3가로 분화되었으며, 남수정은 남수동으로, 궁정은 중동으로, 영정은 영동으로, 남부정은 매교동으로, 구천정은 구천동으로, 매산정은 매산로1~3가로, 북수정은 북수동으로, 매향정은 매향동으로, 장안정은 장안동으로, 신풍정은 신풍동으로, 고등정은 고등동으로, 서둔정은 서둔동으로, 지소정은 연무동으로, 화서정은 화서동으로, 영화정은 영화동으로, 지야정은 지동으로, 인계정은 인계동으로, 우만정은 우만동으로, 대평정은 평동으로, 세류정은 세류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왜색을 떼어 냈다.

1914년과 비교하면, 27개 동 가운데 연무 · 영화 · 화서 · 서둔 · 고등동은 일왕면 소속(5)이었고, 우만 · 인계 · 지동은 태장면(3), 세류동과 평동은 안룡면(2), 그리고 나머지 17개 동은 수원면 소속이었다. 수원시는 1963년에 시역이 크게 확장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때의 영역 확장은 수원시 역사에서 가장 큰 범위에 걸친 것이었다. 수원시



〈그림 30〉 1949년 수원시 영역



〈그림 31〉 1949년 수원시 법정동

는 1963년 1월 1일(법률 1175호, 1962년 11월 21일 공포) 시역 확장으로 무려 20개 동을 포섭, 관할 동이 모두 47개로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20개 동은 일왕면 11개 리, 태장면 3개 리, 안룡면 6개 리가 편입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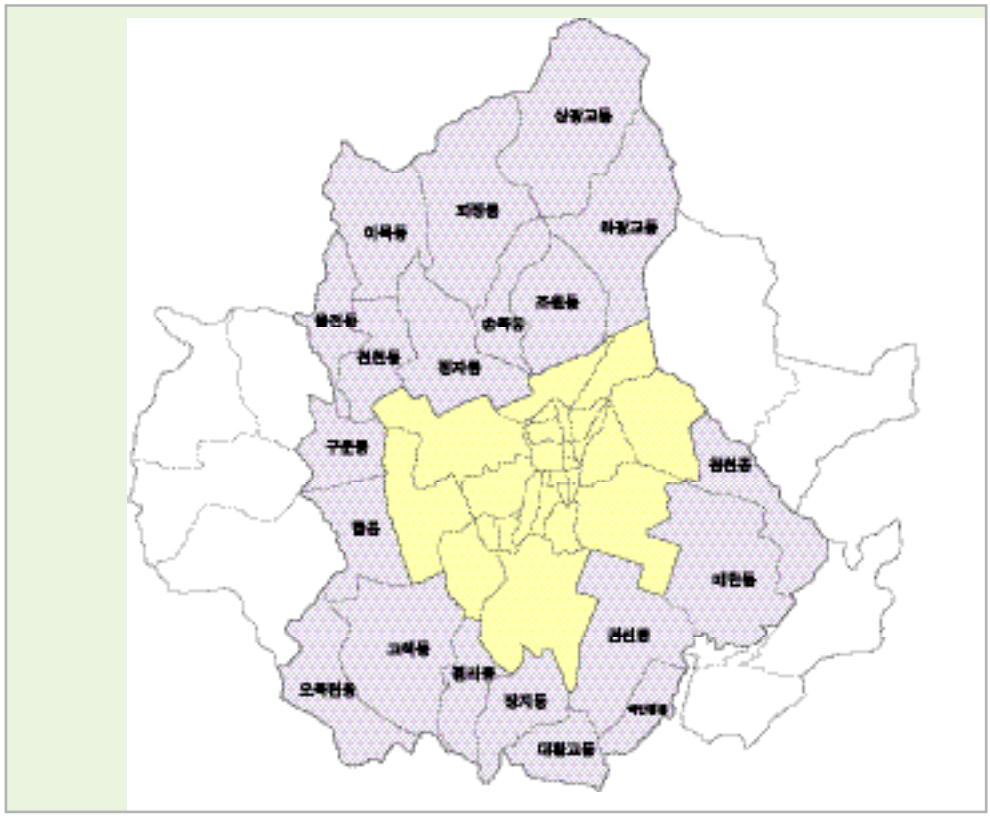
최초의 수원시는 1914년 기준, 수원면을 근간으로 하고 일형 · 태장 · 안룡 세 면에서 각 일부 지역을 떼어 내 만들었다. 일형면은 1931년에 의왕면과 합쳐 일왕면이 되는데, 1963년에 일형면 전역이 수원시로 편입되자 일왕면은 옛 이름을 찾아 다시 의왕면이 되었다. 이로써 1914년 기준 일형면은 수원면과 함께 전역이 수원시가 되었다.

1963년의 시역 확장은 동쪽을 제외한 전 방향으로 확장되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방향은 역시 서울과 연결되는, 그리고 1번 국도가 종관하는 북쪽 방향이었다. 1963년 이후에도 수원의 영역은 1983년, 1987년, 1994년, 1995년에도 확장되었지만, 가장 크게 확장된 때는 1963년이었다. 최초 수원시의 면적은 약 23㎢였는데, 1963년에 85㎢로 약 3.7배가 늘었다. 현재 수원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121㎢이다.

수원시 역사에서 1963년은 시역 확장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법률 제1538호, 「경기도 위치 변경에 관한 법률」, 1963년 12월 16일). 이에 의거하여 도청이 1967년 6월 23일에 수원으로 왔다. 1413년에 경기도가 편성된 이후 경기감영은 수원에 설치되었다가 세종조에 광주로 이전되었고 1460년 한성부로 옮겨졌다. 경기도청은 1896년 13도제 실시와 함께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나왔는데, 그 첫 자리가 수원이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1910년에 도청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도청을 수원시가 다시 유치하기까지 57년이 걸렸고, 유치한 지는 45년이 넘었다.

1983년 2월 15일에는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와 하리가 수원시 이의동과 하동으로 편입되었고(대통령령 11027호, 1983년 1월 10일 공포), 4년이 지난 1987년 1월 1일에는 화성군 매송면의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금곡동과 호매실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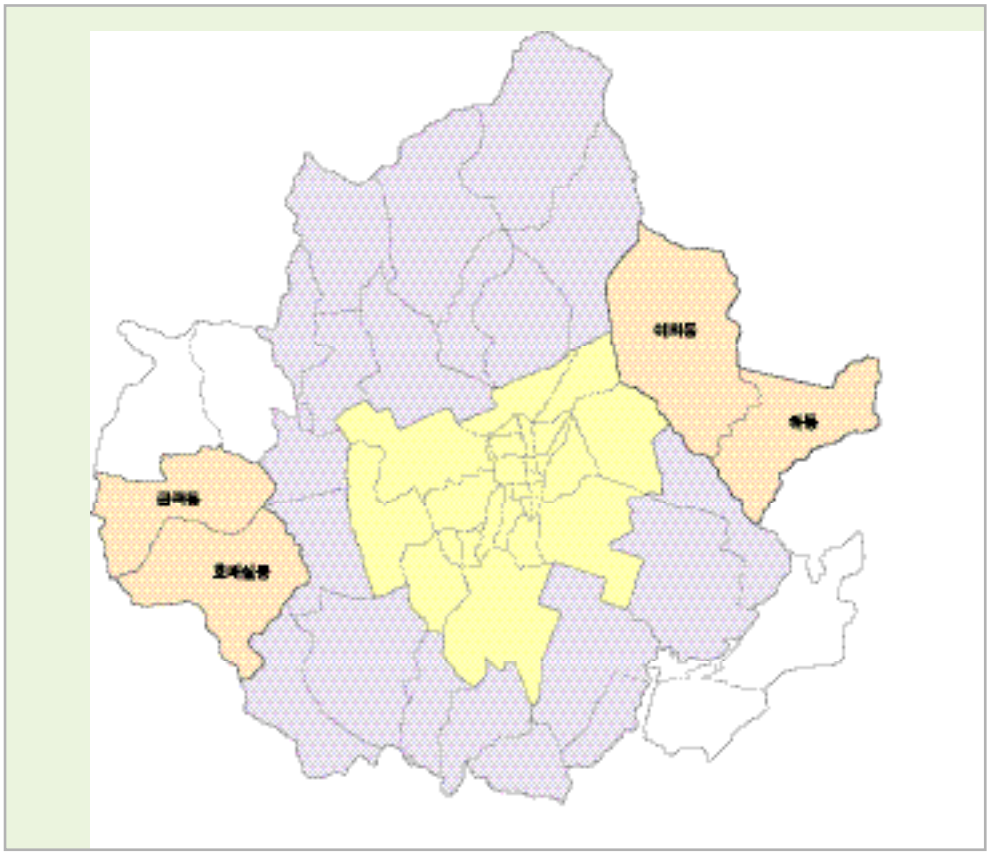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거하면 수원의 인구는 시로 승격된 1949년에 약 5만 3,000명, 그리고 1966년에 약 12만 8,000명이었다. 1949년 시 승격 이후 1990년까지 수원의 인구는 12배 이상, 2010년까지는 20배가 증가하였고, 1949~2010년에 면적은 5.3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1985년 대비 1990년 인구증가율은 49.7%에 달해 5년 사이에 인구가 1.5배까지 급증하였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수원은 43만 세대, 115만 명에 달해 일반시(一般市)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인구 100만이 넘는 일반시로 수원 외 창원이 있지만, 창원은 2010년 마산시 및 진해시와의 통합에 기인한다. 이처럼 1970~198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수원은 1988년에 구(區)가 설치되었다.



〈그림 32〉 1963년 수원시 영역의 확장

〈표 10〉 수원시의 영역 확장

연도	1914	1936	동명
1949	수원면(17)	수원읍	남창동, 팔달로1가, 팔달로2가, 팔달로3가, 남수동, 구천동, 중동, 영동, 매교동, 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매산로3가, 북수동, 매향동, 장안동, 신풍동
	일형면(5)	수원읍	고등동, 서둔동, 연무동, 화서동, 영화동
	태장면(3)	수원읍	지동, 인계동, 우만동
	안룡면(2)	수원읍	평동, 세류동
1963	일형면(11)	일왕면	상광교동, 하광교동, 조원동, 파장동, 정자동, 송죽동,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탑동, 구운동
	태장면(3)	태장면	권선동, 원천동, 매탄동
	안룡면(6)	안룡면	평동, 장지동, 고색동, 대황교동, 곡반정동, 오목천동
1983	용인군 수지면(2)	수지면	이의동, 하동
1987	매송면(2)	매송면	호매실동, 금곡동
1994	태장면(1)	태장면	영통동
	반월면(2)	반월면	당수동, 입북동
1995	태장면(2)	태장면	망포동, 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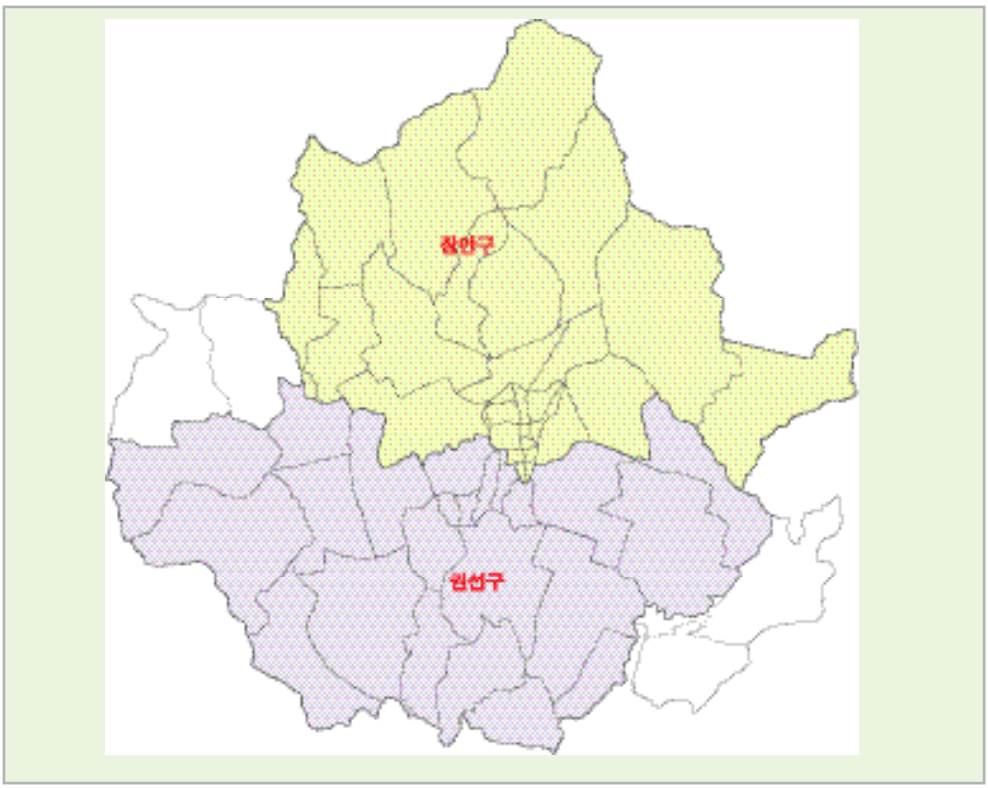
〈그림 33〉 1983년과 1987년 수원시 영역의 확장

〈표 11〉 수원시의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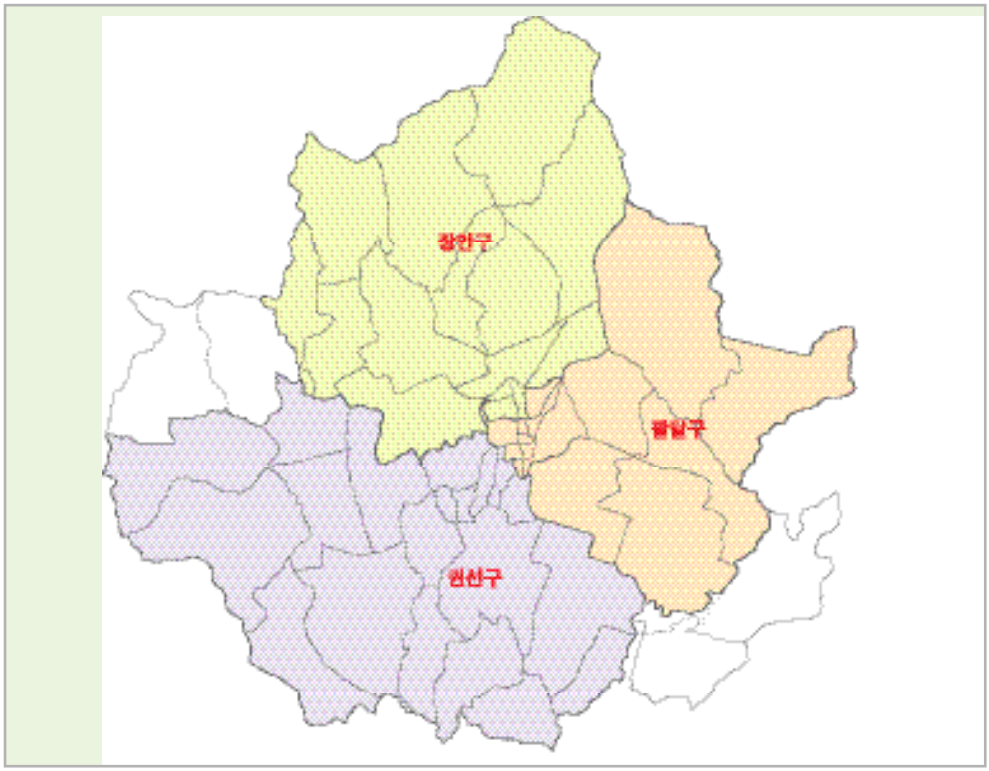
연도	인구(명)	인구밀도(명/㎢)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1949	52,772			수원시 승격(27동)
1955	81,304		54.1	
1960	90,801	3,941.0	11.7	면적 23.04㎢ / 1963년 84.66㎢(47동)
1966	127,733	1,508.8	40.7	면적 84.66㎢
1970	169,967	2,035.5	33.1	면적 83.50㎢
1975	223,718	2,673.8	31.6	면적 83.67㎢
1980	310,104	3,680.8	38.6	면적 84.25㎢ / 1983년 96.67㎢(49동)
1985	430,487	4,451.3	38.8	면적 96.71㎢ / 1987년 105.55㎢(51동)
1990	644,622	6,106.7	49.7	면적 105.56㎢ / 1994년 117.13㎢(54동)
1995	754,670	6,225.6	17.1	면적 121.22㎢(56동)
2000	944,239	7,795.3	25.1	면적 121.13㎢
2005	1,039,233	8,585.2	10.1	면적 121.05㎢
2010	1,054,053	8,709.0	1.4	면적 121.03㎢

2) 구의 설치

한국의 시는 인구 50만이 넘으면 구(區)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시에 설치된 최초의 구는 부천시 중구(원미구)와 남구(소사구)이다(1988년 1월 1일). 두 번째 구는 이보다 정확히 6개월 늦은 1988년 7월 1일(수원시 조례 1452호, 1988년 6월 30일 공포)에 만들어진 수원시 권선구와 장안구이다. 1988년 수원의 인구는 54만 명이었다. 처음 구가 설치되고 5년이 지난 1993년 2월 1일(수원시 조례 1837호, 1993년 1월 20일 공포)에 세 번째로 팔달구가,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2003년 11월 24일(수원시 조례 2456호, 2003년 11월 8일 공포)에 네 번째로 영통구가 설치되었다. 2012년 현재 수원시에는 4개의 구와 법정동 57동(행정동 40동)이 있다. 1949년 시 승격 당시 27개 동이었으니 약 60년 동안 동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동의 증가는 시역의 확장과 분동(分洞)에 따른 것이고, 분동은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34〉 1988년 장안구와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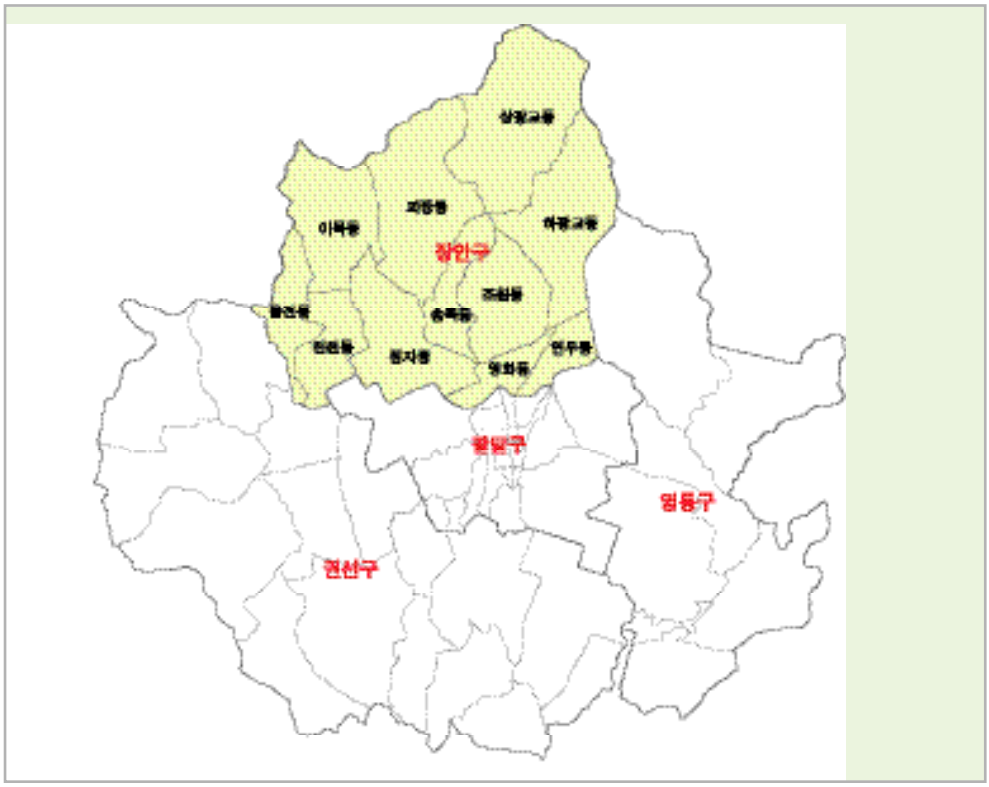
〈그림 35〉 1993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그림 36〉 2003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1) 장안구

장안구는 처음에 파장동, 정자동, 영화동, 송원동, 연무동, 지만동, 팔달동, 남향동, 이의동, 신안동, 화서1동, 화서2동 등 모두 12개 동을 관할하였다. 파장동에서 율천동이, 정자동이 정자1동 · 정자2동으로, 지만동이 지동과 우만동으로(이상 1990년 1월 1일), 송원동이 송죽동과 조원동으로 분동하여(1990년 5월 20일) 2년 만에 동수가 4개 증가하여 16개가 되었다. 수원시는 인구가 70만 명이 넘으면서 1993년에 장안구의 남부 지역과 권선구의 북부 지역 일부를 떼어 팔달구를 만드는데, 이때 팔달동 · 남향동 · 지동 · 우만동 · 이의동 등 5개 동이 팔달구로 이속되면서 장안구의 동수가 11개로 줄었다. 이후 10년 동안 장안구는 동수에 변동이 없다가 2003년에 정자1동에서 정자3동이, 조원동이 조원1동 · 조원2동으로 분동하면서 13개로 늘었다(2003년 2월 10일). 그러나 같은 해 11월 24일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팔달구 일부가 영통구로 이속되자 장안구 신안동과 화서1동 · 화서2동이 팔달구로 옮겨 가면서 2012년 현재 10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그림 37〉 1988년 장안구 법정동



〈그림 38〉 2003년 장안구 법정동

행정동 파장동은 법정동 이목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동 율천동은 법정동 율전동과 천천동으로 나뉘어 있다. 연무동은 법정동 연무동과 상광교동, 하광교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다. 2012년 현재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은 상광교동(5.8㎢)이고, 파장동(5.1㎢)과 하광교동(4.8㎢)이 뒤를 잇는다. 같은 해 인구는 장안구 전체 29만 2,000명 가운데 정자3동이 4만 7,000명으로 가장 많다. 율천동이 4만 6,000명, 정자2동이 3만 4명, 그리고 조원1동이 3만 3,000명으로 4개 동이 구 인구의 55%를 차지하였다. 장안구청은 조원동(송원로 101)에 있다.

(2) 권선구

권선구 역시 처음에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곡선동, 매탄동, 인계동, 원천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등 모두 12개 동으로 시작하였다. 매탄동이 매탄1동과 2동으로(1990년 1월 1일), 매탄2동에서 매탄3동이(1990년 12월 7일), 서둔동에서 구운동이

〈그림 39〉 1988년 권선구 법정동

〈그림 40〉 2003년 권선구 법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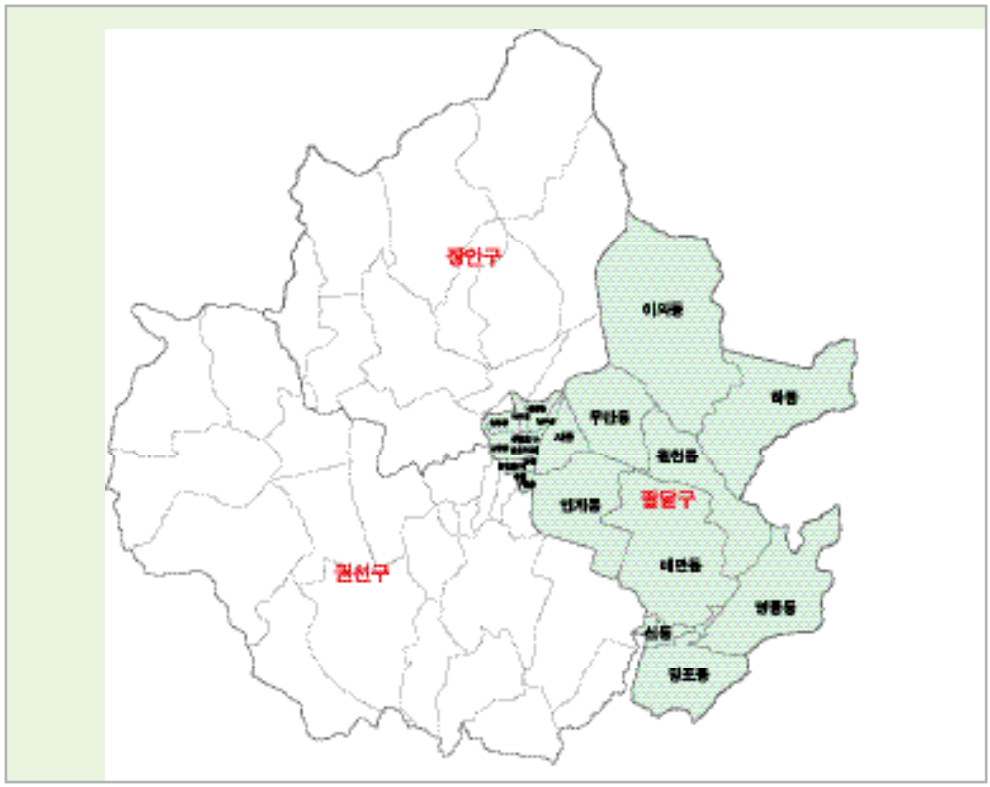
(1991년 9월 5일) 분동하여 15개로 늘었다가 1993년 팔달구가 신설될 때 인계동 · 매탄1동 · 매탄2동 · 매탄3동 · 원천동 등 5개 동을 팔달구로 넘겨주었다(10동). 1994년에는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를 편입하여 입북동을 신설(11동), 영역이 넓어졌고, 1996년에는 곡선동에서 권선동이(12동), 2003년에는 곡선동에서 권선2동이(13동), 구운동에서 금호동이(14동)이 분동하였다. 한편 2003년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1993년에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넘어간 다섯 개 동 가운데 인계동을 제외한 네 개 동이 영통구로 이속되자 권선구에서는 매교 · 매산 · 고등동 등 3개 동을 또 팔달구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권선구는 2012년 현재 11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권선구청은 탑동(호매실로 12)에 있다.

권선구의 법정동은 16개이다. 행정동 세류1동 · 세류2동 · 세류3동이 법정동 세류동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세류2동은 법정동 장지동을 관할하고, 평동이 고색동 · 오목천동 · 평리동을, 서둔동이 탑동을, 입북동이 당수동을 관할한다. 한편 행정동 금호동은 법정동 금곡동과 호매실동으로 편제되었고, 행정동 곡선동은 법정동 곡반정동과 권선동, 대황교동을 관할하는데, 권선동은 다시 행정동 권선1동 · 권선2동으로 편제되어 있어 좀 복잡한 구조를 띤다. 권선구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곳은 구운동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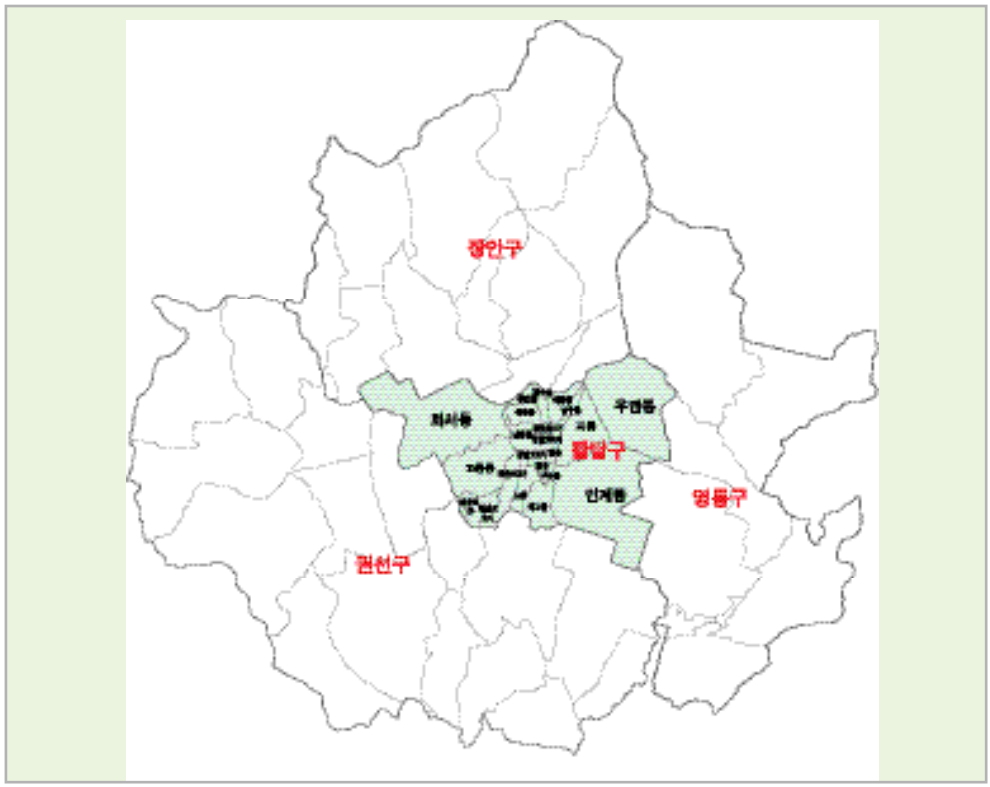
2013년 1월 1일 법정동 기준으로 관할면적이 가장 넓은 동은 권선구 면적 47.3㎢의 약 10%에 달하는 호매실동(4.76㎢)이고, 고색동(4.68㎢), 권선동(4.2㎢), 금곡동(4.1㎢)이 4㎢를 넘는다. 행정동 기준으로는 평동이 10.3㎢로 가장 넓고, 금호동(8.9㎢)과 입북동(7.2㎢)이 다음으로 넓다. 권선구의 인구는 2012년 12월 33만 3,000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많다. 동별로는 금호동이 5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권선2동과 서둔동이 4만 2,000명으로 4만 명이 넘는다.

(3) 팔달구

1993년 2월 1일 수원시는 장안구와 권선구의 일부를 떼어 팔달구를 만든다. 처음 팔달구는 지동, 우만동, 팔달동, 남향동, 이의동(이상 장안구에서 이속), 매탄1동 · 매탄2동 · 매탄3동, 인계동, 원천동(이상 권선구에서 이속) 등 모두 10개 동을 관할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우만동이 우만1동과 우만2동으로(11동), 1994년에 매탄2동에서 매탄4동이(12동), 1999년에 원천동에서 영통동이(13동), 2000년에 영통동이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14동), 2003년에는 매탄3동에서 태장동이 분동하여 15개 동을 관할하게 되는데, 이해 11월 24일 영통구가 신설되자 매탄1동 · 매탄2동 · 매탄3동 · 매탄4동 · 원천동 · 이의동 · 영통1동 · 영통2동 · 태장동 등 9개 동을 영통구에 넘겨주고(6동) 장안구에서 신안동과 화서1동 · 화서2동을, 그리고 권선구에서 매교동 · 매산동 · 고등동을 편입하였다(12동). 2007



〈그림 41〉 1994년 팔달구 법정동



〈그림 42〉 2003년 팔달구 법정동

년에는 팔달동 · 남향동 · 신안동을 합쳐 행궁동(행정동)으로 통합하여 2012년 현재 10개 동을 관할하고 있다. 한편 1994년에는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와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 신리 일부, 망포리 일부를 편입하여 원천동에 소속시켰고, 이듬해에는 신리와 망포리를 매탄2동에 편입시킨 바가 있다.

행정동 행궁동은 수원에서 가장 많은 법정동을 관할한다. 팔달로1가, 팔달로2가, 팔달로3가, 남창동, 영동, 중동, 구천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등 처음 수원이 시가 되었을 때 시내 중심부에 있던 동들을 모두 행궁동으로 묶은 것이다. 행정동 매교동은 교동을, 매산동은 매산1동 · 매산2동 · 매산3동을 법정동으로 갖고 있으며, 화서1동 · 화서2동은 법정동 화서동으로, 우만1동 · 우만2동은 법정동 우만동으로 묶여 있다. 팔달구청은 우만동(월드컵길 285)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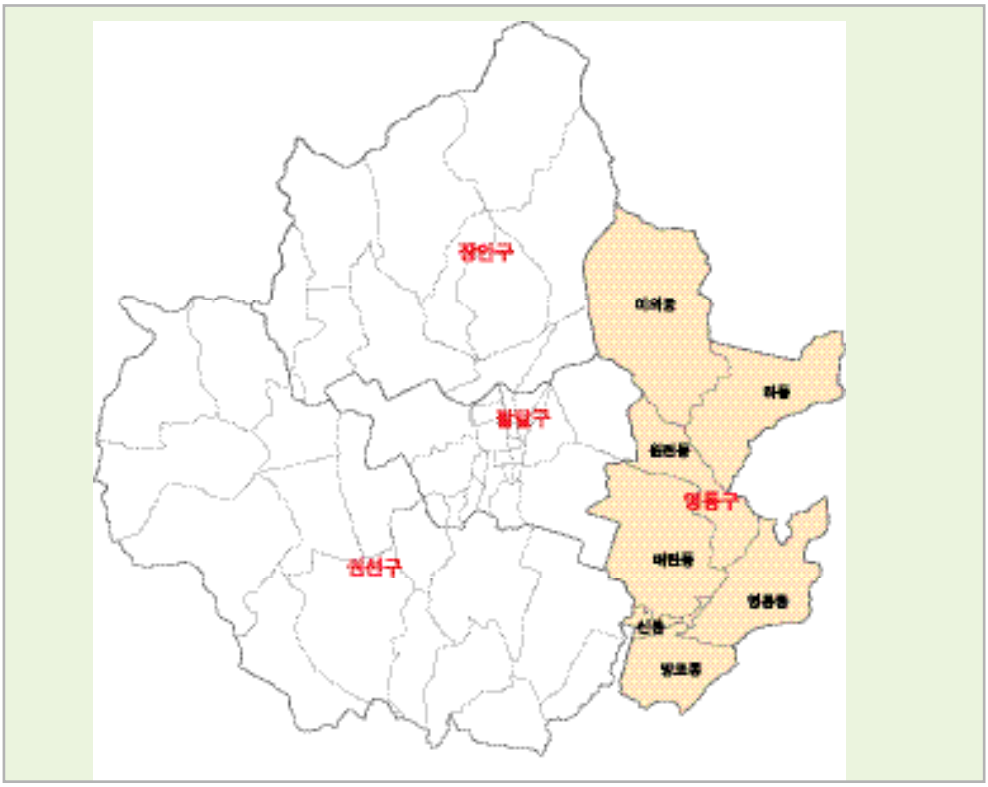
팔달구의 면적은 12.9㎢로 4개 구 중 가장 작다. 가장 넓은 동은 화서동(2.9㎢)이고, 인계동(2.9㎢), 우만동(2.1㎢), 고등동(1.0㎢)이 1㎢를 넘는다. 2012년 말 팔달구의 인구는 20만 7,000명으로 역시 4개 구에서 가장 적다. 동별로는 인계동이 4만 2,000명으로 가장 많고, 화서1동(3만 명), 화서2동(2만 7,000명), 우만1동(2만 4,000명)이 뒤를 잇는다.

(4) 영통구

영통구의 이름은 영통리에서 왔다. 영통리는 면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시대에 장주면, 1914년에 태장면, 1964년에 태안면에 각각 속해 오다가 1994년 12월 26일(대통령령 제14434호, 1994년 12월 22일 공포)에 수원시에 편입하여 원천동에 속하게 되었고, 1999년에 영통동이 분리되었다. 2003년에는 팔달구에 속해 있던 매탄1동 · 매탄2동 · 매탄3동 · 매탄4동 · 원천동 · 이의동 · 영통1동 · 영통2동 · 태장동 등 9개 동이 영통구로 분구되었다. 이후 영통구는 분동 없이 2007년 8월 6일 이의동이 광교택지개발에 따라 원천동에 통합되었다가(8동), 2012년 12월 26일에 법정동 하동과 함께 행정동 광교동이 되어 현재 9개 행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행정동 매탄1동 · 매탄2동 · 매탄3동 · 매탄4동과 영통1동 · 영통2동은 각각 법정동 매탄동과 영통동으로 묶여 있으며, 행정동 광교동은 법정동 이의동과 하동을, 행정동 태장동은 법정동 신동과 망포동을 관할하고 있다. 영통구청은 매탄동(효원로 407)에 있다.

영통구 면적은 27.7㎢로 4개 구 중 세 번째로 넓다. 이의동이 8.0㎢로 가장 넓고, 매탄동이 5.1㎢, 하동이 4.2㎢로 뒤를 잇는다. 이의동은 수원시의 56개 법정동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영통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4만 9,000명의 영통2동이고, 영통1동(4만 4,000명)과 태장동(4만 3,000명)이 4만 명을 넘어, 3동이 전체 28만 9,000명의 47%를 차지한다.



〈그림 43〉 2003년 영통구 법정동

경기 남부, 한강과 진위천 사이에 위치한 수원은 저평하고 완만한 지대에 황구지천이 만들어 놓은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오래 전부터 도회가 형성, 발달하였다. 고려시대부터 공식적으로 수원이라는 이름을 써 왔으니, 지명만을 기준으로 수원의 역사를 기술해도 천 년의 역사에 달한다. 조선 건국 이후 수원은 하나의 독자적인 군현으로 자리를 잡았고,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인 상업 발달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며 삼남 지방과 통하는 도로망의 결정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대도회적 면모를 조금씩 갖춰 나갔다. 때마침 정조 때 조성된 화성 신도시 건설과 함께 유수부로 승격, 수원은 명실공히 경기 남부의 맹주임을 자부하게 되었다.

한때 개항의 여파로 인천부에 속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곧 독자적인 단위 지역으로 기능하면서 해방 직후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가장 일찍 시가 된 전국의 몇 안 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수원은 일제시기에 이미 경부선 · 수인선 · 수여선으로, 그리고 산업화시대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경수 · 수인산업도로로 사통팔달하는 도시의 전통을 이어 갔고, 여기

〈그림 44〉 2013년 수원시 행정동

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1967년에 경기도청을 유치함으로써 경기 남부를 넘어 경기도 내의 최고 중심도시로 등극하게 되었다.

수원은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가 되었다. 1990년 이후 인구 성장률이 1970~198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이는 이미 수원이 독자적이고 자급적인 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4개의 구와 50개가 넘는 동의 분화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수원은 이제 경기도의 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날 시점에 서 있다. 물론 경기도를 넘어 지구적 안목에서 세계도시로 부상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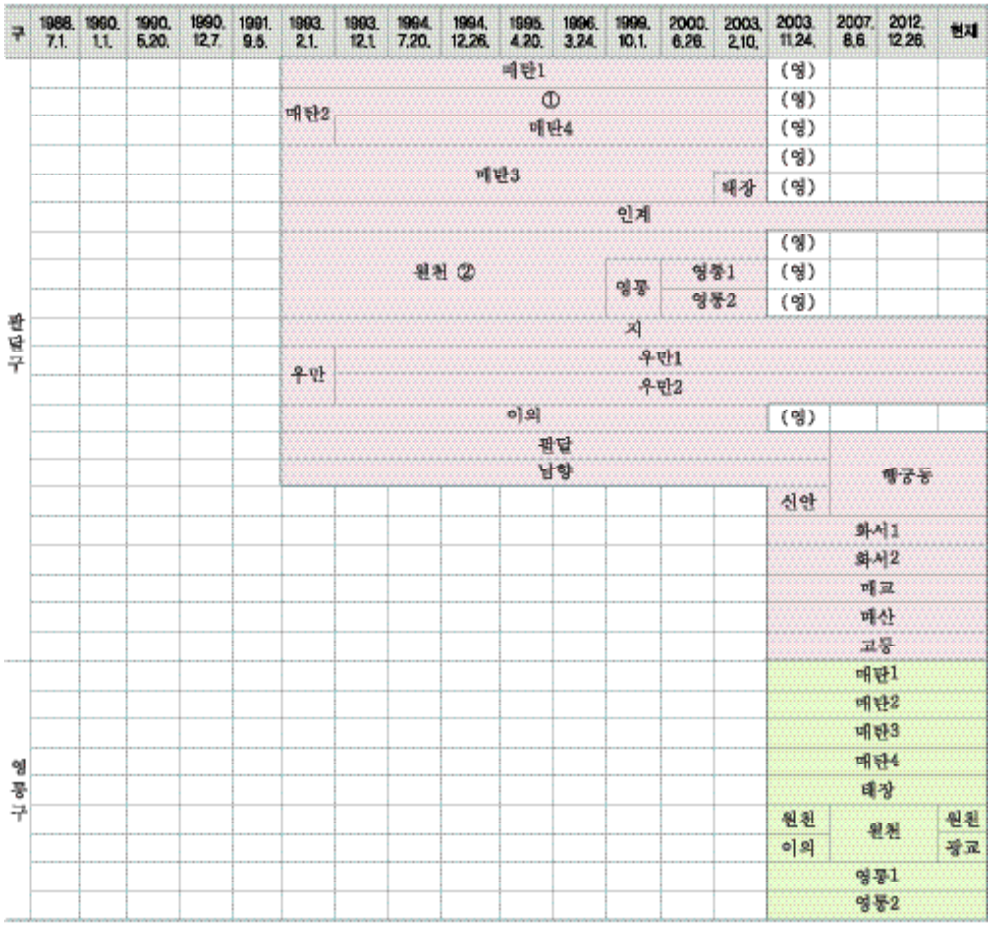
수원시청 전경

수원 시가지 전경

〈표 12〉 구 설치 이후의 동 이력[25]

구	1988. 7.1.	1990. 1.1.	1990. 5.20.	1990. 12.7.	1991. 9.5.	1993. 2.1.	1993. 12.1.	1994. 7.20.	1994. 12.26.	1995. 4.20.	1996. 3.24.	1999. 10.1.	2000. 6.26.	2003. 2.10.	2003. 11.24.	2007. 8.6.	2012. 12.26.	현재
장안구	파장	율천																
	정자	정자1												정자3				
		정자2																
	영화																	
	송원	송죽																
		조원												조원1				
														조원2				
	연무																	
	지만	지				(폐)												
		우만				(폐)												
	풀달					(폐)												
	남향					(폐)												
	이의					(폐)												
	신안														(폐)			
	화서1														(폐)			
	화서2														(폐)			
권선구	세류1																	
	세류2																	
	세류3																	
	평동																	
	서둔	구운												금호				
	곡선													권선2				
											권선			권선1				
	매탄	매탄1				(폐)									(영)			
		매탄2				(폐)									(영)			
			매탄3			(폐)									(영)			
	인계					(폐)												
	원천					(폐)									(영)			
	매교														(폐)			
	매산														(폐)			
	고등														(폐)			
									입북									

25 ① 1995년 4월 20일 신리, 망포리를 매탄2동에 편입, ② 1994년 12월 26일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일부, 망포리 일부를 원천동에 편입.


구
1988. 7.1.
1960. 1.1.
1990. 5.20.
1990. 12.7.
1991. 9.5.
1993. 2.1.
1993. 12.1
1994. 7.20.
1994. 12.26.
1995. 4.20.
1996. 3.24.
1999. 10.1.
2000. 6.26.
2003. 2.10.
2003. 11.24.
2007. 8.6.
2012. 12.26.
현재
판암구
대단1
①
대단2
대단4
대단3
태장
인계
원천 ②
영풍
영풍1
영풍2
지
우만
우만1
우만2
이의
판달
남향
(영)
빌공동
신안
화서1
화서2
매교
매산
교동
영풍구
대단1
대단2
대단3
대단4
태장
원천
이의
원천
광교
영풍1
영풍2

김혜정 대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의전담요원

1. 풍수지리와 수원 지역의 이해
2. 수원의 풍수지리 형세
3. 음택 풍수지리 길지, 현륭원(顯隆園)
4. 양택 풍수지리 길지, 화성(華城)과 수원
5. 조해공진(朝海拱辰) 천조지설(天造地設)의 길지, 수원

제2장

조선 후기 수원의 풍수지리

1. 풍수지리와 수원 지역의 이해

수원은 풍수지리[1]를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시대의 계획도시이다. 화성 건설은 정조의 생부, 즉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원인 현륭원을 보호하고 정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열망에 부응한 것이었다. 정조가 활약했던 조선 후기는 주지하다시피 풍수지리가 사회·문화현상 가운데 거의 중심으로 기능한 사회였고, 정조는 풍수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우 적극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실제로 합당한 입지를 결정짓는 소점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1 풍수지리는 풍수와 지리가 합쳐진 말이다. 풍수라는 명칭은 초기 풍수경전인 『청오경』과 『장서(금낭경)』에 모두 보이며, 지리라는 명칭은 지표면 위에 조성된 물결과 같은 형상의 의미로서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주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주역·계사』에 "머리를 들어 하늘의 별자리 운행을 관측하고, 고개를 숙여 지리를 관찰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을 『주역정의(周易正義)』에서는 "땅에는 산천과 원습(原隰)이 있고 각각의 조리(條理)가 있기 때문에 이(理)라 칭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理)는 원래 옥석에 나타나는 결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풍수지리는 지리학 관련 연구에서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했던 하나의 생활철학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존재했던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전통지리관으로 정의되고 있다(장성규, 「조선왕조실록의 풍수지리문헌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쪽).

구읍치에 마련된 현륭원은 정조가 몸소 그 입지를 결정하였는데, 선대의 무덤은 왕가 기틀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현륭원을 보호할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1789년 현륭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신하들이 길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마련되었고, 정조는 수원의 새 터전으로서 현재 화성과 행궁이 자리하고 있는 팔달산 아래를 선택하였다. 그 후 1793년(정조 16)에 수원부의 명칭은 화성(華城)으로 바뀌고, 점차 한양에 버금가는 중요 도시로 떠오르게 된다.

수원, 즉 화성이 계획도시로 조성된 것은 비록 당시의 사회 · 경제 · 정치적인 상황이 우선된 것이지만, 화성의 전체 모양이나 각루, 사대문, 행궁, 민가의 위치 등은 무엇보다도 풍수지리 이론에 입각하여 건립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풍수지리가 건국 초기부터 조선시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 양성을 위한 유학, 무학, 역학, 의학, 음양학, 산학, 율학, 화학, 도학, 악학 등 십학(十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풍수지리는 왕, 사대부, 평민, 노비 등 전 계층을 망라하여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풍수학 관료는 국가의 정식 과시를 통해 선발되었다.

조선시대와 풍수지리는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궁궐이나 종묘사직, 왕릉, 사대부의 가옥, 사찰, 향교 등은 모두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전체 사회 · 문화적 현상에서 풍수지리가 주요한 기능학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풍수지리가 고려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활용된 바에 힘입은 바 크다.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또한 건국 초기부터 풍수지리가 담당했던 역할은 매우 컸다. 그 점은 역대 왕들의 국가정책 요체인 고려의 「훈요십조」 둘째 조목(사원의 창건은 산천역순을 추점(推占)한 도선(道詵)의 풍수비보설에 따라 제한할 것)과 다섯째 조목(삼한 산천의 음우로 이루어진 대업의 안녕을 위해, 아국 지맥의 근본이며 만대 대업의 터인 수덕조순(水德調順)한 서경을 네 중월(仲月)마다 100일 이상 순주(巡駐)할 것)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풍수지리는 고려 건국은 물론 서경천도설로 대표되는 국가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으며, 조선의 수도 입지 결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서 조선 중기까지 1,000여 년에 이르는 선현들의 풍수지리 지혜와 경험은 다시금 신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것은 길지 수원이 역사 전면에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후기 당쟁 결과로 희생된 사도세자는 정조 효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현륭원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화성은 초기 현륭원의 보호 영역을 넘어 점차 길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현륭원과 화성은 모두 풍수지리 음택과 양택의 길지라는 판단하에 선택되었는데, 그것은 정조는 물론 윤선도, 유형원,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홍낙성 및 풍수관료 등과 같은 사대부들의 견해가 모두 일치한 결과였다.

역사적 문헌은 현륭원과 화성 선정에 관여된 인물들과 시기, 길지로서의 면모, 선현들의 입지 평가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수원의 풍수지리 면모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풍수지리가 사회 · 문화의 중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리했던 조선시대 학자들의 판단을 통한다면, 수원의 풍수지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원 풍수지리 형세의 조건을 시작으로 현륭원과 풍수지리, 화성과 풍수지리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길지 수원을 이해하는 근본임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창조로 이어지는 문화적 가교 역할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본다.

2. 수원의 풍수지리 형세

수원은 예나 지금이나 풍수지리 길지로 인정받고 있다. 원래 수원의 읍치는 현 화성시 안녕동에 조성되어 있었다. 구읍치 지역은 화산, 발점산, 홍법산 등으로 둘러싸여 기본적으로 장풍(藏風)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신도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부족한 면모가 있었다. 이에 비해 광교산(光敎山)[2]을 진산(鎭山)으로, 팔달산(八達山)[3]을 현무로 기대어 배산임수로 조성된 신도시 화성은 사통팔달의 형상으로서, 풍수지리적 요건 이외에 경제 · 문화 · 교통 · 정치적 요소 등 현대적 관점으로 볼 때에도 전혀 손색없는 지역이다. 또 수원의 위치 자체가 주변 도시들과 골고루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문화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펼치기에도 매우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수원 전 지역은 화산과 팔달산[4]을 중심으로 24방위에 걸쳐 모두 전도양양한 미래를 전개할 수 있는 요소를 골고루 갖추었다.

수원의 진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연히 자리하고 있는 광교산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산으로 해발 582m이다. 광교산맥의 주봉이기도 한 광교산은 생기 충만한 좌절우곡의 기세로 우뚝 솟아올라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수원의 에너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의왕시 · 성남시 · 용인시에 걸쳐 풍만한 내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

2 광교산이라는 이름은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정복한 후 귀경길에 이 산에서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른 것을 보고 명명하였다고 전한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는 진산을 광악산(光岳山)으로 표기하였다(『동국여지지』 2권, 경기, 수원, 형승).

3 산이 높거나 크지도 않지만 평지 위로 우뚝 솟아올라 사통팔달한 것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동국여지지』 2권, 경기, 수원, 풍속).

4 팔달산은 정상부가 비교적 평탄하여 토형(토체, 토성)의 산으로 볼 수 있다. 산을 오행에 따라 목 · 화 · 토 · 금 · 수로 분류하는데, 토체 산의 영향은 사람들의 심성을 매우 인자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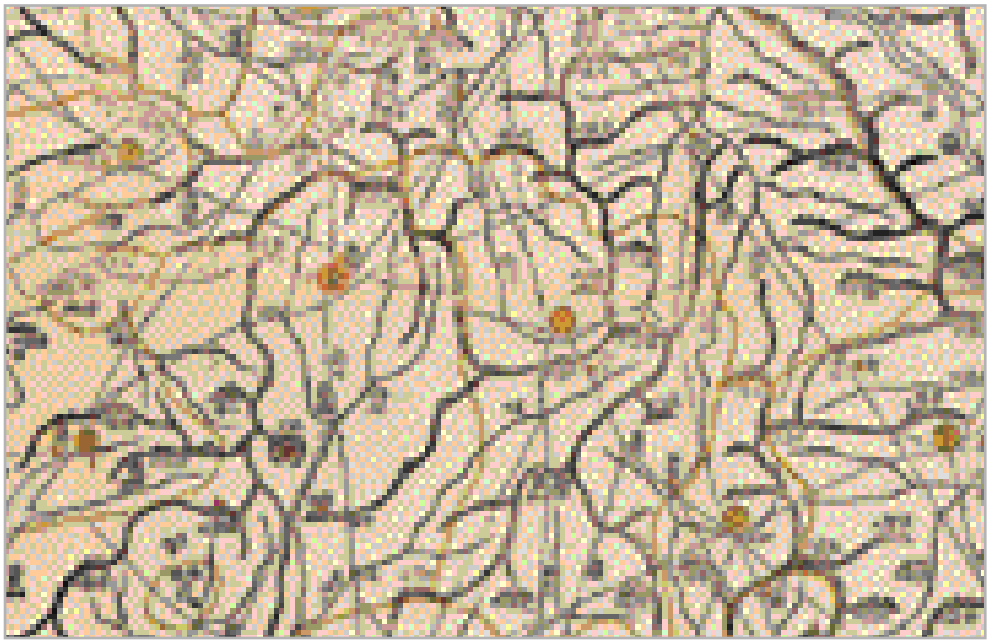
광교산의 지세와 수원(2000년)

수원의 진산 광교산

광교산은 팔달산 정상에서도 그 형상이 뚜렷이 보이는데, 넉넉한 품의 산자락을 좌우로 크게 벌려 수원시를 북쪽에서 싸안고 있는 형세이다. 광교산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형제봉 · 청명산 · 매미산 지맥 · 홍국사 · 매탄동 지맥이 청룡을 이루고 있고, 오른쪽으로 백운산 · 칠보산 · 고금산 · 화산 지맥이 백호를 이룬다. 광교산을 중심으로 멀리 보면 화산이 안산이 되고, 독성산이나 발점산 등이 조산의 형국을 이루게 된다. 즉 수원 전역은 광교산에서 비롯된 청룡, 백호, 안산, 조산 등이 완만하게 조성한 형국으로 생기 충만한 길지의 형국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은 광교산을 바탕으로 청룡 · 백호가 잘 환포하고 있는데, 광교산은 풍경 면에서도 뛰어나고 겨울 경치가 빼어나 수원팔경[5]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광교산은 수원 전체 지역의 진산, 즉 고을이나 성시를 수호해 주는 근간이 되는 산으로서, 수원 전역에 내맥의 생기를 흩뿌려 주는 모체이자 주요 배경이다. 광교산의 지맥들은 수원으로 하여금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 기능은 물론 그 자체로서 중추적인 발전을 거듭

5 광교적설(光敎積雪), 즉 광교산의 눈 쌓인 모습이 수원팔경의 하나로 꼽힌다.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수원 광교산, 상류천, 대황교, 유천 등의 지명이 보인다.

하도록 자양분을 제공해 왔다. 광교산의 주맥은 잠룡의 형국으로 진행하다 수원 한가운데서 팔달산으로 맺혀 있는데, 팔달산은 화성의 현무산이면서 진산의 역할을 한다.

광교산은 남쪽을 향해 개면한 형국이며, 화성의 행궁은 팔달산을 의지하여 배산임수로 조성되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궁성은 현무산을 의지하여 자오선을 바탕으로 정남을 선호해 왔는데 중국의 자금성(고궁)이나 우리나라의 경복궁은 모두 자좌오향, 즉 남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즉 산이 생기를 흩뿌려 놓은 자연의 지형지세를 따라 인위적 조형물들도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것이다.

광교산 내룡(來龍)의 근원은 『대동여지도』에 자세하다. 『대동여지도』에 따르면 광교산의 태조산(大祖山)은 백두산이며, 중조산은 백두대간의 주봉 가운데 하나인 태백산이다. 태백산의 한 줄기는 낙동정맥으로, 다른 한 줄기는 소백산을 형성하고, 소백산의 내맥은 다시 속리산 문장대에 이른다. 문장대에서 내맥의 한 줄기는 구봉산, 추풍령을 지나 덕유산에 이르고 지리산으로 이어지며, 지리산부터는 낙남정맥이 펼쳐진다.

속리산 문장대의 다른 한 내맥은 회유치를 지나 선도산, 거죽산, 좌구산, 보광산, 증산, 마곡산, 보현산을 거쳐 칠현산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줄기는 금북정맥을, 다른 한 줄기는 한남정맥을 이룬다. 한남정맥은 백운산에서 세 갈래로 나뉘는데, 그중 북향하

는 내맥이 수유산, 부아산, 보개산, 석성산을 거쳐 수원의 광교산으로 이어진다. 광교산으로 이어진 내맥은 안산의 수리산 내맥과 청계산, 관악산의 두 내맥으로 나뉘며, 최종적으로 수원의 화산으로 이어진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수원의 진산을 광교산으로 표시하였고, 광교산의 백호 끝자락에 화산이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대동여지도』에 수원은 청룡과 백호가 뚜렷하게 환포한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광교산에서 발원하고 청룡 안팎에서 흘러내려 오는 두 수류가 만나 유천(柳川)을 이루고, 다시 백호 쪽에서 내려온 상류천과 만나 대황교에서 합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원은 천 리 만 리를 달려온 내룡이 끊임없이 이어져, 완이이복하고 좌절우곡하면서 용트림하는 광교산을 배경으로 다시 팔달산으로 멈춘 완전한 형국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풍수학자들에게 완미한 형국으로 찬양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길지로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로 수원은 성시로서의 활발한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훌륭한 인물들을 대거 배출해 내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광교산을 중심으로 마치 봉황의 날개와 같이 양쪽으로 펼쳐진 청룡 · 백호의 두 내맥은 수원시를 완연하게 감싸고 있는데, 중심 출맥의 열매와 같은 곳이 팔달산이다. 팔달산은 그 사방팔방으로 현재의 수원시가 평지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독산의 형상처럼 우뚝 솟아 있다. 이것은 광교산의 중심 맥이 잠룡의 형국으로 잠시 숨을 고르며 진행하다가 그 정기를 팔달산에 대거 뭉쳐 놓는 바람에 이와 같이 기기묘묘한 형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팔달산 앞으로 펼쳐진 평평한 장소는 팔달산이 마치 여기에 머무르는 듯, 슬그머니 소매를 당기는 듯, 빼어난 양택지로 형성되어 있다. 또 생기 충만한 팔달산으로 하여금 더욱 완성도를 높여 주는 것은 수원천을 통해 계수즉지(界水則止)[6]의 형국이 완성되어 팔달산의 정기가 더욱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원래 내룡의 빼어난 정기는 그 가볍고 맑은 성질 때문에 계속 진행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때 앞쪽에서 둥글게 환포해 주는 물길은 정기로 하여금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물이 경계를 지어 주면 내맥의 생기는 그 흐름을 멎는다는 계수즉지는 길지의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데, 수원의 팔달산은 그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완미한 팔달산의 전체 포국에 대해서 선현들은 하늘의 중심에 북극성이 있고 그 주위를 뭇별들이 받들어 돌고 있는 조해공진(朝海拱辰)[7]의 길지로 이해하였다. 즉 "산이 둥그스름하게 높이 솟아서 화

6 빼어난 산의 정기를 앞쪽에서 둥글게 환포해 주는 물길이 머물게 한다는 것이 계수즉지의 요점인데, 그 출전은 『장서』이다.
7 조해공진은 모든 물이 바다로 모여들고 뭇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조응하며 도는 것 같은 길지의 형국을 이루는 말이다.

수원의 주산이자 화성의 진산인 팔달산

성의 진산이 된 것은 팔달산이다. 팔달산 정상에 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 보면 멀고 가까이에 산봉우리들이 둘러 있는 것이 마치 뭇별들이 북극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과 같다."[8]는 것이다.

조해공진, 천조지설(天造地設)[9]의 길지인 수원에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포국의 크기가 좀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는 산수의 조화, 완정한 형국을 통한 추길피흉(趨吉避凶)[10]이 중요할 뿐 포국의 대소가 길흉의 관건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바람은 결코 길지 수원에 대한 부정일 수는 없다. 오히려 광교산을 진산으로 해서 잠룡으로 진행하다 수원 중앙에서 우뚝 솟아오른 팔달산의 기세는 그야말로 가히 생기 충만한 혈처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전기지지(全氣之地)[11]의 혈처를

8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68~369쪽).

9 하늘이 짓고 땅에 갖추어져 있는 길지로서 때가 되고 그것을 활용할 마땅한 인물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출전은 『청오경』의 "天造地設, 留與至人, 前賢難說"이다.

10 추길피흉은 풍수지리의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 말로서, 형국이나 포국이 풍수지리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완미한 장소를 선택하여 인사에서 길함을 추구하고 앞으로 닥칠 만약의 흉화를 피한다는 의미이다. 인사에서 길흉을 인식하고 길함을 위해 만전을 기울인다는 것이 풍수지리의 요점이지만, 길흉에 대한 체계적 대비에 따른 인식은 이미 『주역』에서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1 전기지지는 풍수지리 길지의 형국이 매우 완미한 것을 이른다. 즉 형과 세, 그리고 적합한 좌향까지 모두 길한 요건을 지닌 장

여러 차례에 걸친 관찰과 답습을 통해 기어이 찾아내고 활용한 선인들의 지혜에 저절로 경외심이 들 따름이다.

3. 음택 풍수지리 길지, 현륭원(顯隆園)

조선시대는 궁궐이나 왕릉의 조성과 같은 국가대사를 풍수지리 이론에 입각하여 정하였다. 궁궐이나 왕릉의 입지는 단순히 지관뿐만 아니라 삼정승은 물론 학식이 깊은 유학자도 참여하여 치밀한 관찰하에 선정하였는데, 특히 풍수학 관료는 국가의 정식 시험을 통과한 뒤 선정되었다. 시험과목은 『청오경』, 『장서』, 『동림조담』, 『호순신』, 『감룡경』, 『의룡경』, 『착맥부』, 『명산록』, 『경국대전』 등이었으며, 시험기간은 물론 풍수학 관료의 품계와 정원, 교육체계, 역할과 기능 등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또 왕릉의 입지 선정과 축조 시에는 산릉의궤도감을 두어 그야말로 치밀하고 질서정연하게 감독하였다.

조선시대에 풍수지리는 수도, 정궁, 왕릉의 조성과 같은 국가의 대소사는 물론 정치, 경제, 의례, 행정, 교육,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주요 현상으로 자리하였으며 조선 초기부터 매우 중시되었다. 따라서 현륭원의 조성에 풍수지리 이론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던 당시의 경험과 지혜가 총동원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더군다나 그 조성 시기가 풍수지리가 중시되다 못해 오히려 사회적 폐단까지 성했던 조선 후기이며, 그 입지 선정이 풍수지리 식견이 월등했던 정조에 의해 직접 마련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현륭원의 입지야말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수원의 구읍치, 즉 현륭원이 축조되어 있는 지역이 풍수지리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관료들의 치밀하고 반복적인 판단을 거쳐 추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륭원 입지 판단에서 주효한 것은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견해였다. 윤선도는 현륭원이 조성되기 100여 년 전에 그 입지가 매우 길지인 것으로 자신의 소견을 밝혔는데, 『홍재전서』에는 그것이 풍수지리 형기론과 이기론에 모두 합당한 조건을 지녔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현륭원이 풍수지리 길지로서 참으로 완미한 형국이라는 판단이 결코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풍수경전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역시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졌던 판별이었음이 확인된다.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원은 『장서』이다.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활용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할 것은 외형의 조건, 즉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했을 때 그 형세가 어떠한지이다. 이것을 세와 형을 판단한다고 해서 형세론(形勢論) 또는 형기론(形氣論)이라 하는데, 그 원류는 형법가(形法家)이다. 사물을 판단할 때 그 외형을 중시하는 형법가 내용은 풍수지리 핵심이기 전에 생활 속의 전통이었음이 일찍이 『한서 · 예문지』에 보인다.

일정한 포국이나 형국을 이루는 형과 세를 판단하는 풍수지리 이론에서, 형세론이라 할 때는 음택(분묘, 왕릉과 같은 망인의 거주처)이나 양택(가옥, 사무실 등과 같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주처)의 혈처(핵심장소)를 구성하는 혈처 및 주위, 그리고 그 형국을 이루기까지의 내룡의 흐름의 외형적 모양을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형기론이라 할 때는 형세론과 대동소이하지만, 형국의 외형과 내재된 기의 상관관계를 직접 상기시키는 의미가 강하다.

음택이나 양택의 입지 활용에서 형세론 또는 형기론으로 보았을 때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순서는 어떤 좌향(음택이나 양택의 후면과 전면)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기론의 판단 과정이 수반된다. 이때 적합한 좌향을 놓을 수 있는 길지로 결정되었으면, 그다음 단계는 길일을 골라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다. 즉 택일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풍수지리에서는 형기론, 이기론, 선택론의 세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사도세자의 능묘나 화성은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윤선도는 형기론과 이기론은 물론 형국의 판단에 앞서 점혈의 중요성, 물형론까지 고려하면서 수원 구읍치 입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여[12]의 법에 비록 진룡의 대지라 하더라도 혹 혈을 짚는 데 착오가 있거나 혹 좌향에 착오가 있으면 길하고 흉함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니,[13] 옛사람이 징험한 일과 관계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수원의 산은 큰 풍수로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감히 흠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혈을 짚을 때 보는 바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산세를 바라보고 용을 찾기는 쉽고 산에 올라 혈을 짚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또 이르기를, "3년을 배워 용을 찾을 수는 있으나 10년을 배워도 혈을 짚지는 못한다." 하였으니, 이 산이 입수(入首)[14]하는 맥은 명백하여 의심이 없으나, 맥 아래에 유두가 있고 유두 아래에 평탄한 곳이 있으며, 평탄한 곳 아래

12 풍수지리학은 감여학(堪輿學) · 감여 · 청오 · 청오자 · 상지학(相地學) · 지학 · 지술(地術) · 풍수학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풍수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전에는 감여라고 하였는데, 감여는 하늘과 땅의 이치와 연관된 것이다. 명대(明代)에는 청오의 전적을 습득하는 것을 일컬어 감여라고 하였다.

13 초기 풍수경전의 대표격인 『청오경』에서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청오경』의 원문은 "向定陰陽, 切莫乖戾, 差之毫釐, 謬以千里(향으로 음양을 정하니, 절대로 어긋나고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털끝만한 차이가 천리만큼의 오류를 낳는다.)"라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14 내맥이 혈처로 들어가는 장소를 입수라고 하는데, 내룡이 그 머리를 혈처로 들여 넣었다는 의미이다.

에 요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두는 달리고 희롱하는 기세가 그치지 않고 또 둥글게 뭉친 곳이 없으며, 청룡과 백호가 점점 낮아져서 흡족하지 못하니, 혈이 맺힌 곳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곳은 형체가 구불구불하니 여기가 진실로 둥글게 뭉친 뜻이 있고, 청룡·백호가 흡족하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니 여기에 혈을 맺은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만약 좌향을 논한다면 구슬을 안대하여 빈 곳으로 향을 놓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정리입니다. 전설에 옥룡국사가 이 산을 "서린 용이 구슬을 희롱하는 격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용은 진실로 복룡의 대지이고 국을 이룬 형세는 완연히 서린 용과 같고 하나의 둔덕은 앞에서 구슬이 되니,[15] 이는 고격(古格)에서 말하는 품 안으로 들어온 안대(案對)이니, 전설의 말이 헛되지 않은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둔덕은 낮고 작아 중시할 것이 못 된다고 하지만, 고격에 이르기를, "천 길이나 되는 높은 산이라도 평지의 한 둔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낮고 작다 하여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물건의 형상은 이치가 있으니, 지형이 물건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형상이 천지를 본받는 것입니다.[16] 이 둔덕은 이미 용의 턱 아래 구슬을 형상한 것이니, 하필 커야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작을수록 더욱 귀한 것입니다. …… 형국은 본체가 되고 음양은 작용이 됩니다. 진실로 참된 형국과 바른 좌향을 얻는다면[17] 스스로 천연적인 자연의 묘용에 합하므로 음양은 구구하게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구슬을 안대로 하고 빈 곳을 향으로 하여 좌우로 미루어 옮긴다면 어찌 음양에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18]

정조보다 100여 년을 앞서 살다 간 윤선도의 견해는 현종의 명에 따라 효종의 능묘 조성을 위해 수원의 산세를 살핀 것이다. 윤선도는 수원의 산세에 대해 「산릉의(山陵議)」[19]를 올려 수원 구읍치가 영릉에 다음 가는 대길지로서 손색이 없음을 임금에게 고하였고, 이후 조선 22대 왕 정조에 이르러 비로소 수원부에 현륭원이 조성되었다. 결국 정조가 1789년 7월 11일에 사도세자의 옛 능원인 영우원(永祐園)을 수원부의 화산자락으로 천장한 것은 그 산세가 길격임을 누대에 걸쳐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윤선도의 간산 내용이다.

15 이와 같은 형국을 풍수지리에서는 흔히 '반룡농주(盤龍弄珠)'라고 한다.

16 천지의 기에 따라 사물의 형태와 성질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땅의 입지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특정 입지는 사람들의 고유한 성품을 결정짓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이미 『공자가어』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풍수지리와 유가 경전 내용이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특정 장소와 기질 등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로 보는 전통적 인식은 중국에서 유비관(類比觀)으로 정리되어 있다.

17 위 내용은 풍수지리 형기론과 이기론 모두를 중시한 견해인데, 조선시대에 형기론 관련 문헌은 청오경과 장서가 중시되었고, 이기론 관련 문헌은 동림조담, 호순신 등이, 택일 관련해서는 천기대요가 중시되었다.

18 정조, 『홍재전서』, 한국문집총간 권54, 한국고전번역원.

19 왕의 능묘 조성을 위해 신하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이다. 일찍이 송대(宋代) 주자는 효종의 능묘 조성을 위해 「산릉의장」을 지어 바침으로써 유학자의 기본 덕목으로서 풍수지리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었다. 주자의 「산릉의장」은 1800년 정조의 구 능원인 건릉 조성에 따른 폐해가 있어 건릉을 현륭원 서쪽 능성이로 천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문장이다. 송나라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와 맞물려 있는데, 송대의 채원정이나 오징과 같은 대유학자가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손수 편집하기도 했던 『장서』는 이후 조선시대 주요 풍수학 시험과목으로 채택된다.

현륭원(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 안팎으로 주밀하게 짜인 길격임을 여러 술관이 모두 진달하였기에 신은 재차 상세하게 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그 형국은 세종대왕의 능묘인 영릉(英陵)에 버금가는 형국으로서, 주자(朱子)가 말했던 "종묘사직이 오래도록 영원할 계획" 이라는 말이 진실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20]

또 『홍재전서』에는 수원의 입지를 활용할 때 백성들의 안위를 우선 생각해야만 풍수지리에서 표방하는 음덕이 가능하다는 윤선도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수원 지역이야말로 왕릉 조성에 적합한 곳이며, 그것은 도선이나 무학과 같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풍수지리가뿐만 아니라 당대의 학자 및 지관들도 공통된 의견임을 피력하였다.

> 국가에서 꼭 수원의 산을 쓴다면 모름지기 거기에 사는 이주민으로 하여금 즐겁게 여기며 이주하는 괴로움을 잊도록 하여야 인심이 안정되고 음복이 이를 것이니, 그 백성들로 하여금 즐겁게 여기며 이주하는 괴로움을 잊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을 해 주어 그들의 생업을 넉넉하게 하고, 또 10년 동안 복호(復戶)해 주는 일뿐입니다.[21]
>
> 성주(聖主)의 의관을 묻는 곳을 만일 진선진미한 곳으로 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신자(臣子)가 전

20 정조, 『홍재전서』, 한국문집총간 권54, 한국고전번역원.
21 정조, 『홍재전서』, 한국문집총간 권54, 한국고전번역원.

하께 충성하고 선왕에게 보답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세히 보아도 전혀 마음에 드는 곳이 없고, 오직 수원의 산이 눈을 들면 놀랄 지경이고 자세히 점검하고 반복해서 헤아려 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상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용이 크고 바람을 막으며 물을 얻는 것은 영릉에 비하여 조금 미치지 못할 뿐이고, 입수한 용절 뒤의 퇴사는 아주 좋으며 지축은 바깥으로 멀고 북신이 매우 귀하니, 도선과 무학이 다시 태어나도 이 말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윤강, 이최만과 여러 지관들도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찬양하기를 마지않습니다.[22]

정조는 시대를 앞서간 윤선도의 견해는 물론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재참고할 만큼 사도세자의 능원 조성에 신중하였다. 이에 정조는 다시 김익 등에게 명하여 화산의 산세를 살피도록 명하였다. 이에 김익 등은 수원이 길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진달하게 되는데, 이때 물형론 및 계좌정향(癸坐丁向)이라는 좌향까지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3일(정유)에 김익 등이 수원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관 만드는 일을 관장하는 여러 신하와 지사를 거느리고 위로는 주봉으로부터 아래로는 혈 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혈 자리의 약간 높은 곳에 앉아 둘러보니, 국세가 평탄하고 반듯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청룡·백호가 에워싸지 않은 것이 아니나, 평탄하고 반듯한 속에 너무 넓고 크다는 느낌이 없지 않고, 에워싼 속도 역시 견고하게 결속된 형세가 약간 모자랐으며, 안계도 조밀하고 번잡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평탄한 곳에 내려와 앉아서 둘러보니, 앞서 본 곳과는 지척 사이에 불과하였지만 국세가 평온하고 청룡과 백호가 긴밀하며 또 혈의 좌우에는 매미가 날개를 양쪽으로 펼친 듯한 형국이 있으며, 안계도 충분히 여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야 속에 작은 둔덕이 혈 자리와 직선으로 대치해 있는데, 이곳이 본래부터 칭송되어 온 서린 용의 형상이고, 이 둔덕은 서린 용이 희롱하는 구슬의 형국이 됩니다. 안대는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만약 봉우리로 향을 놓아 안산으로 삼으면 두 봉우리의 기세를 모두 끌어들이지 못할 것 같고, 두 봉우리 사이의 빈 곳으로 향을 놓으면 두 봉우리의 기운이 합쳐 온전한 하나의 안대가 될 터이니, 예로부터 이른바 '구슬을 안대하여 빈 곳으로 향을 놓는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계좌정향(癸坐丁向)은 여러 지사의 말이 통일되었으니 진실로 나라의 무한한 복입니다." 하였다. 좌의정 이성원은 "한 마디로 총괄하여 말하면, '하늘이 높은 산을 만들어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우의정 채제공은 아뢰기를, "산세를 두루 살펴보고 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으니, 옛사람이 말한 공중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양쪽의 끝을 잡아서 그 중도를 쓰면 편벽되지 않고 기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답사한 여러 신료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신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선진미란 말은 요순만이 칭송을 받았는데 선인들이 이 산에 대하여 곧바로 이 네 글자를 썼으니, 극진한 뜻으로 공경하고 탄식한 것을 대략 생

22 정조, 『홍재전서』, 한국문집총간 권54, 한국고전번역원.

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관상감 제조 김종수는 "거듭 청룡 · 백호가 감싸 돌면서 정감이 있고 사방의 봉우리가 천백 개나 솟아 있어 이 형국을 위하여 교묘하게 설치한 것 같으니, 이른바 8백의 제후국이 주나라에 조회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잘 형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정조가 "자나 깨나 걱정이 되어 항상 마음으로 헤아려 스스로 백전 만전의 땅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여러 사람의 말을 옛사람이 논한 말과 비교하면 도리어 더 나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자, 김익 등은 "그림으로는 뜻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글로는 그 국세를 다 형용할 수 없으니, 대길하고 극귀한 격에 대해 어떻게 감히 지나치게 미화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23]

4. 양택 풍수지리 길지, 화성(華城)과 수원

현륭원이 조성된 후 정조는 화성 건설을 위해 현 수원의 입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륭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컸다. 화성은 팔달산의 지맥을 바탕으로 그 지형지세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배산임수의 형국을 잘 살리고 있다. 특히 행궁은 팔달산 바로 아래에서 좌우 지맥을 마치 날개인 듯 뒤로 하고, 성 자체의 건축학적인 미는 물론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민생을 우선으로 한 위민 정신이 잘 반영된 완미한 성곽이다. 화성의 완미한 조화는 현재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은 행궁을 중심으로 볼 때 서포루 · 서북각루 · 화서문 · 장안문으로 이어지는 자락이 청룡의 역할을 하며, 서포루 · 서삼치 · 남포루로 이어지는 자락이 백호의 기능을 한다. 또 수원천은 행궁의 앞을 완만하게 환포하며 흐르고 있다.

즉 수원 화성의 조성은 팔달산의 좌우 지맥 위에 전체 성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인공이 혼연일체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양택 입지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뭇별들이 도는 형상, 즉 조해공진의 길지로 인식되어 조성되었다. 화성 화서문의 상량문을 보면 "백 개의 담장을 설치하여 현륭원을 보호함은, 뭇별들이 북극성을 향하여 둘러싼 것과 같네."[24]라고 하여, 화성이 하늘의 중앙에서 뭇별들을 호령하는 북두칠성과 같은 길지이므로 현륭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즉 정조는 화성의 입지가 현륭원 수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지로 보고 화성을 축조하였는데, 다음의 기록은 그 이름의 유래와 동기를 알 수 있게 한다.

23 정조, 『홍재전서』, 한국문집총간 권57, 한국고전번역원.
24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30쪽).

능원은 화산(花山)에 있고 이 수원부는 유천(柳川)이니, 화산 사람들이 성인을 축하한다는 뜻〔華人祝聖〕을 따서 이 성을 '화성'이라 이름 하였다. 화(花)와 화(華)는 음과 뜻이 모두 같다. 화산이라는 의미는 대체로 800개의 산봉우리가 현륭원이 있는 산등성이를 삥 둘러 보호하기 때문에 취한 것으로, 꽃잎이 꽃의 한 가운데로 향하여 모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유천의 성 또한 마땅히 남북으로 약간 길쭉하여 버들잎과 같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25]

정조는 현륭원이 조산들의 조응을 받는 길지이며, 그것을 보호해야 할 화성은 성인축하의 길지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화성은 참으로 치밀한 입지 검토와 관찰 후에 이루어졌다. 원래 성의 축조는 여러 사람이 살 만한 곳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인데, 화성 또한 그 막중함을 알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 검증을 통해 조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음지와 양지를 살피고, 흐르는 샘물을 살펴서, 습지와 언덕을 헤아리고, 큰 시내를 끼고서, 여러 계책을 지휘하셨네."[26]라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 내용은 『시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나라의 시조인 공류가 빈 땅에 새로이 정착할 때 그 땅을 오랜 시간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관찰한 후 결정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 입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노래한 것이다. 『시경』에는 "공류께서는, 여기저기 온갖 샘을 가 보고, 혹은 넓은 들판을 살펴보고, 어떤 날은 남쪽 언덕에 올라가셨고, 또 높은 지대에서 바라보시다가 이야말로 여러 사람 살 만하기에, 모두모두 있을 집 지어 내었네."[27]라는 기록이 있다. 또 공류가 해의 그림자를 통해 땅의 경계, 음지와 양지, 남북 그리고 유수(流水)도 관찰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데,[28] 화성의 조성은 이와 같이 3,000여 년 전의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표방하고 있다. 즉 백성을 아끼고 존중하며 번영을 기원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화성은 축조되었다.

정조는 화성에 성을 쌓아 현륭원을 받드는 일이 중국 한나라 때 고조 유방이 새로이 나라를 건국하고 장안(현재의 중국 시안)에 도읍을 정했으나, 부친이 자신의 고향 땅 풍현을 잊지 못하자 장안 근처에 풍현을 그대로 재현해서 부친을 거주하게 했다는 고사와 동일한 맥락임을 밝힌 바 있다.

화성에 성을 쌓아 우리 원묘(園墓)를 받드는 것은 이곳을 마치 중국 한나라 때의 풍산(豐山)과 패수(沛水)와 같이 생각한 것이다.[29]

25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194쪽).
26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25~326쪽).
27 정현(鄭玄) 전(箋), 공영달 등 정의, 『모시정의』, 북경대학출판사, 2000, 1309~1310쪽.
28 정현 전, 공영달 등 정의, 『모시정의』, 북경대학출판사, 2000, 1314쪽.

팔달산 아래에 자리 잡은 화성행궁

화성행궁

화성의 입지는 윤선도는 물론 실학자로 유명한 반계 유형원도 길지로 판단하고 활용가능성이 충분함을 피력하였는데, 정조는 둘의 견해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화성 축조를 진행하게 된다. 『홍재전서』에는 정조가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隧錄)』에 담긴 수원 지역에 대한 평가를 보고 매우 흡족했다는 기록이 있다. 윤선도와 유형원은 모두 수원의 뛰어난 풍수지리적인 면모 이외에도 현대적 지리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손색없고 오히려 신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을 지닌 장소로 판단하였다. 다음은 정조가 이미 고인이 된 윤선도와 유형원의 견해에 대해 찬탄해 마지않는 내용이다.

> 고 처사 증집의 겸 진선 유형원은 그가 지은 『반계수록』의 보유편에서, "수원도호부에 광주 아래 지역인 일용면 등을 더해 주고 치소를 평야로 옮겨 내를 끼고 지세를 따르도록 하면 읍성을 지을 수 있다. 거기에다 읍치의 규모와 평야의 대승을 더하면 진실로 대번진의 기상을 가진 땅이 될 것이니 안팎으로 1만 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성을 쌓는 부역은 향군이 정번하면서 내는 재물로 충당해야 한다." 하였다. 대개 그 사람은 유용한 학문으로 경제에 관한 글을 지었던 것이다. 기이하도다. 그가 수원의 형편을 논함에 있어 읍치를 옮기자고 한 계획과 성을 쌓자고 한 방책은 1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던 것이니, 면을 합치고 정번에서 나오는 재물을 쓰자고 하는 등의 세세한 절목과 일에 있어서도 모두 병부처럼 딱 들어맞았다.[30]

이와 같이 화성은 당대 최고 학자들의 판단을 통해 그 입지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결국 조선시대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조선시대 신도시는 성곽의 축조가 반드시 수반되었으므로 화성은 축조될 수 있었고, 그 과정은 풍수지리 관점을 바탕으로 조상에의 숭봉, 신시대로의 추구라는 면모가 상호 조합되어 비로소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수원 화성의 입지는 현재에도 여전히 길지로 인정받고 있음은 물론이다.[31]

팔달산을 등에 업고 축조된 화성은 그 전 과정이 『화성성역의궤』[32]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문헌에는 화성의 입지에 대한 당시 사대부가의 풍수지리 견해가 기록되어 있어서 수원의 풍수지리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훌륭한 자료가 된다.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홍예 사이에는 돌계단을 설치하여 들어가는 곳은 높고 나오는 곳은 낮게 만들었는데, 지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3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원 화성은 세부적인 면까지도 지세

29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187쪽).
30 정조, 『홍재전서』, 한국문집총간 권34, 한국고전번역원.
31 지창룡, 『옥형한국지리총람』, 명문당, 1977, 345쪽.
32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3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59쪽).

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인데,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세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활용할 입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자연의 지형지세를 보존한다는 생각은 매우 중시되었다. 심지어 화성 동쪽과 서쪽 가장자리의 돌을 쌓아 만든 것도 풍수지리의 자연 보존 인식에서 출발하였음을 다음의 기록은 전하고 있다.

> 동쪽과 서쪽의 가장자리는 그 터가 대부분 주봉(主峰)과 안산(案山)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 흙으로 쌓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주봉과 안산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지세이기 때문에, 그 흙을 파내거나 뚫거나 하여 산맥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땅에서 흙을 파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용이 돌을 떠서 쌓는 것보다 더 들 것이고, 성 자체로 말하더라도 돌이 흙보다 나을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동쪽·서쪽의 가장자리도 남쪽·북쪽의 가장자리와 같이 돌로 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34]

위의 기록에서 산맥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지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풍수지리에서는 지맥 손상을 매우 꺼리는데, 그것은 『청오경』과 『장서』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청오경』과 『장서』에서는 지맥이 단절된 단산(斷山)의 지형은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됨을 말하였다. 지맥을 손상하는 것은 바로 땅 속 지맥 속에 담긴 생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5] 지맥 손상은 생기가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는 입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풍수지리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반된다.

풍수지리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이론으로 정착하였기 때문에 그 활용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특히 어려운 풍수지리 이론이 점차 임의로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핵심 이론은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산수의 외형판단법, 즉 형기론이 중요하다. 형기론은 지형지세의 보존을 바탕으로 한 입지 활용법으로서, 그것이 풍수지리 형기론의 요체라면 음택이나 양택의 구체적인 공간 배치는 풍수지리 이기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음택이나 양택의 좌향을 결정할 때 이기론의 좌향법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34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202쪽).

35 지맥 손상을 꺼리는 것은 그것이 인화(人禍)를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맥 손상에 따른 인화는 이미 기원전에 저술된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사기』의 「몽염열전」에는 진시황을 도와 진나라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몽염 장군이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가운데 요동지역의 산맥을 어쩔 수 없이 끊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산천의 영에 대해 죽어 마땅한 죄라고 자조하면서 사약을 기꺼이 받아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즉 산맥의 단절은 사람으로서 큰 죄이며, 그것은 바로 인화를 초래한다는 인식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풍수지리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고, 다시 조선시대 화성의 건립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화홍문을 통해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원천

화홍문을 지나 화성을 관통하여 남류하는 수원천과 남수문(「화성도」, 수원박물관 소장)

좌향을 논할 때는 수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수구지점이 관건인데, 화성의 조성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기론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즉 "대천(大川)이 화홍문에서 곧바로 750보를 흘러 구천(龜川)에 이르러 성의 수구(水口)가 되었다."[36]라는 것이다.

수구라는 용어는 풍수지리에서 물이 흘러 나가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수파 또는 파구라고도 한다. 일견 이 내용은 단순해 보이지만 조선시대 수도의 위치가 '물이 흘러 나가는 지점', 즉 수구가 놓인 방위에 의해 계룡산 부근에서 한양으로 바뀌게 된 사실[37]을 참작한다면 조선 후기 화성의 조성에서 수구의 위치가 거론되었음은 화성 조성에서 풍수지리 이기론 또한 충분히 거론되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현륭원의 입지 판단에서 윤선도가 좌향을 거론한 것 또한 화성 축조에서도 정문의 방향이나 행궁의 좌향 등이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을 뒷받침한다. 좌향은 화성의 사당, 즉 성신사(城神祠)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즉 "팔달산 오른쪽 기슭의 병풍바위 위에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병진년 봄에 특교(特敎)로써 터를 잡고 택일하여 이 사당을 지었다."[38]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유좌묘향이라는 것은 건물의 뒤쪽이 유방위이고 앞쪽이 묘 방위라는 의미로서, 동향을 했다는 의미이다. 좌향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곳을 향해 주요 건축물이 배치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좌향을 통해 이후 길한 인사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성신사에 관한 이 기록에는 화성 부속건물의 조성에서 택일의 과정, 즉 선택론을 활용했음도 나타난다. 택일이라는 것은 동양의 오랜 습속으로서 국가나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 길한 날짜를 골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풍수지리는 동양의 오랜 문화적 전통으로서 당연히 택일이 주요 내용이 된다. 택일은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지만, 특히 풍수지리에서는 택길, 선택, 선택론이라 하여 길일선택은 응당 있어야 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즉 입지의 형세를 판단하는 형기론 또는 형세론에 입각하여 길지라는 판별이 내려지면, 실제로 어떤 좌향으로 건물을 놓을 것인가 하는 이기론이 대두되고, 좌향을 결정하면 바로 공사시행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화성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속건물의 축조 시는 물론 성 쌓는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돌 뜨는 날, 터를 다지는 날까지 길일을 택해 시행하였다. 특히 산신령께 제사를 드려 아뢰는 과정 등은 풍수지리의 내용과 그대로 맞

36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65쪽).

37 조선 건국 초기 하륜은 계룡산 부근으로 수도의 입지를 정하고 터를 닦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호순신의 수법이론에 비추어 볼 때 생향(물이 흘러들어 와야 하는 지점으로 간주한다.)으로 오히려 물이 흘러 나가므로 수도 입지 불가론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조선의 수도는 이후 현재의 연세대 위치와 한양, 개성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양으로 결정되었다.

38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99쪽).

성신사 성신사는 화성의 수호신을 모신 사당으로, 일제시기에 훼손되었다가 2009년에 복원되었다.

닿아 있다.[39]

조심태가 말하기를, "화성의 성 쌓는 일을 시작할 길일은 돌을 뜨는 데서부터 여러 곳의 터를 다지는 날까지 모두 일관(日官)[40]에게 좋은 날을 가리게 하여 그 즉시 초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는 마땅히 먼저 고유제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제사 용품은 방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갖추어 놓고 향과 축문과 폐백은 임금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감히 이에 우러러 아룁니다."라고 하였다.[41]

화성의 성 쌓는 일을 시작할 각 날짜를 일관에게 택하게 하니, "성터의 터를 닦는 날짜는 정월 25일 오전 6시와 2월 13일 같은 시간이 좋다 하고, 남쪽 · 북쪽 성의 두 문루의 공사 시작은 2월 13일 오전 6시와 오전 8시가 좋다 하며, 수문의 공사 시작은 2월 25일 오전 6시와 26일 오전 8시가 좋다 하고, 돌을 뜨는 공사 시작은 정월 초7일과 13일이 좋겠다고 하며, 각각 공사 시작 일에 먼저 고유제를 지낸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에 거행할지를 몰라 감히 글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42]

39 조선시대 택일서로 대표적인 것은 명나라 임소주가 찬한 『천기대요』가 있다.
40 일관은 택일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 관리이다. 택일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기원전 400~500년 전 『묵자』에서도 보이는데, 당시에는 일자(日子)라고 하였고, 이후 『사기』에서도 일자라고 하였다.
41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205쪽).
42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206쪽).

화성에는 성신사와 함께 성신묘도 조성되었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묘를 짓고 정성껏 배향하면 조상신의 음덕으로 후손들이 더욱 번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상신에게 후손은 정성을 다하고, 조상신은 후손에게 번영을 약속한다는 내용은 경복궁을 조성할 때 그 명칭을 삼았을 정도로 궁궐 조성의 핵심 내용이다.[43] 다음은 성신사 · 성신묘의 축조와 제사 중시, 둘 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기록이다.

> 사당이 이루어지자, 화성 성신의 신주를 만들고 탁자를 갖추어 사당 안, 정면 간에 봉안하였다. 이날 향과 축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 해마다 봄 · 가을의 맹삭에 제사를 지낸다.[44]

> 성제(城制)가 이미 정해지고 누로(樓櫓)와 이 또한 모두 차례차례 진행되는 지금, 첫째의 할 일은 좋은 날을 점쳐서 먼저 성신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후에 때에 맞추어 향을 내리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만세에 흔들리지 않는 터로 정하면 신이나 사람이 함께 화락하고, 나에게 수(壽)를 주며, 나에게 복을 주어, 화성(華城)이라는 명칭과 명실상부할 것이다. 그리고 세세토록 이 땅을 살피시고 그들의 청대로 축원을 들어 줄 것이니, 경은 이것을 알아서 터를 개척하여 공사를 경영함이 마땅할 것이다.[45]

> 숙지산(孰知山)에서 돌 뜨는 까닭을 고하는 제문
> 건륭 59년 해의 차례로 갑인년(1794) 정월 치국삭 초7일 을미일에 나라 임금은 신하 행부호군 이유경을 보내 삼가 숙지산의 신령에게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하늘이 물건을 만듦은 그 뜻이 나라를 위함이라. 이 봉우리의 돌이 아니면 성을 쌓을 수 없으니 원컨대 신령께서는 아끼지 마시옵소서. 삼가 희생과 폐백으로 단술을 갖추고 찰밥을 담아서 몇 가지 음식을 진열하여 밝게 올리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46]

> 성터의 공사를 시작하는 까닭을 고하는 제문
> 공경히 높으신 신령께 고합니다. 음식의 향그러움에 신령께서 힘을 내셔서 나라를 위해 영험을 보이시어 사나운 객귀를 막아 주시고 국경을 튼튼히 하여 주옵소서. 삼가 희생과 폐백으로 단술을 갖추고 찰밥을 담아 몇 가지 음식을 공경히 진열하여 밝게 올리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47]

---

43 경복궁의 명칭은 『시경』에서 유래하는데, 『시경』의 소아, 곡풍지십, 초자에는 "기장도 무성하고 피도 잘 되어 창고에 가득 차고 노적도 많아라. 술과 음식 장만하여 제물 차려 제사 지내며 시동 세워 (조상님께) 술을 권하면 (혼신께서) 큰 복을 내리신다네〔我黍與與 我稷翼翼 我倉旣盈 我庾維億 以爲酒食 以享以祀 以妥以侑 以介景福〕." 와 같이 제사, 조상님의 혼신, 시동, 큰 복(경복)의 역학관계가 상세히 노래되어 있다.
44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101쪽).
45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187쪽).
46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08쪽).
47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08쪽).

앞의 제문을 지어 바친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채제공(蔡濟恭)은 화성의 입지에 대해 『청오경』에서 언급된 바 있는 숨겨진 길지에 합당하다고 설파하였다. 『청오경』에는 "두꺼비나 방합조개같이, 도시나 시골의 융융하고 은은함을, 뉘라서 그 근원을 찾겠는가? 마치 끊길 듯하다 다시 이어지고 가는 듯하다 도로 머무는 기이한 형상은 천금으로도 구하기 어렵다. 잘라 낸 연뿌리에 실을 꿴 듯, 참된 기미는 떨어짐이 없고, 혈에 이르러 평탄해지니, 형상은 헤아려 내기가 어렵다. 트인 곳을 막고 이지러진 곳을 보완하여, 하늘이 만들고 땅이 베풀어 지인에게 남겨 주니 선현이라도 설명하기 어렵다."[48]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제공은 "팔달산 서변에 또 한 산이 있는데 중턱에 석재가 이미 많고 또 좋아서 무진장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산 이름은 숙지(孰知)이고, 면 이름은 공석(空石)입니다. 산과 면의 이름이 심히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귀신이 아끼고 감추었다가 오늘을 기다린 것으로 생각됩니다."[49]라고 진달하였다.

정조 또한 앞의 『청오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수원 화성이야말로 해당 지역임을 밝힌 바 있다.

> 갑인년(1794) 정월 22일, 임금께서 화성부로부터 환궁함에 신하들이 배석하였다. 이때 임금께서 군복을 갖추고 가마를 타고 팔달산에 올라 두루 성터의 형세를 살펴보기를 마치고, 감동당상 조심태에게 하교하기를 "장대의 터는 높고 우뚝하여 바라보기에 마땅하며, 모양은 웅장하고 밝아서 참으로 이른바 하늘이 만들고 땅이 설치한 것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50]

『청오경』의 내용은 영의정이었던 홍낙성도 인용하여 거론하였다. 즉 "신이 이 땅을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아직도 이와 같이 잘 갖추어진 땅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형세의 둘러 있는 모양이나 규모의 웅장함을 보고 비로소 하늘이 만드셨음을 알았습니다. 높은 산은 오로지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하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니, 공격이나 수비가 모두 편하여 정말로 삼남의 요충이요, 엄연히 서울의 보장지지(保障之地)로서 참으로 이른바 만세에 길이 의지할 만한 터입니다."[51]라는 기록이다.

조선시대는 황희, 신숙주, 윤선도, 유형원, 홍낙성과 같은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풍수지리에 관심이 깊었는데 정조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조가 풍수지리에 밝았

48 『청오경』. "蝦蟆老蚌 市井人烟 隱隱隆隆 孰探其源 若乃斷而復續 去而復留 奇形異相 千金難求 折藕貫絲 眞機莫落 臨穴坦然 形難捫度 障空補缺 天造地設 留與至人 前賢難說."
49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192쪽).
50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195쪽).
51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198쪽).

팔달산과 화성 화성은 팔달산을 그대로 이용하여 산의 동쪽으로 성곽을 쌓았으며, 팔달산 정상 부근에 성신사를 세웠다.

음은 다음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곧이어 말을 타고 출발하여 행궁의 안산(案山)에 이르러, 조심태에게 하교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이른바 일자문성(一字文星)[52]자리인데, 여러 의론도 이곳을 문성 자리로 여기고 있다."[53]

수원 화성은 곳곳마다 풍수지리 인식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반룡완주[54] 형국으로 설명했다거나 만마명당(萬馬明堂)[55]의 대길지로 인식했다거나 청오가 상서로움을 고한 자리[56]라는 등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과거 주나라 성왕 때 소공이 상택하고 주공이 치밀한 현장답사 후에 복택의 결과가 길하였다는 『서경』[57]의 내용과도 부합

52 일자문성이란 음택이나 양택에서 바라보는 봉우리의 형상이 마치 일자(一字)처럼 평평한 것을 이르는데, 안산이 한 일(一)자와 같은 형상이면 학식과 문장이 빼어난 인물이 태어난다고 본다. 일자문성에서 문성은 문장가를 능히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산봉우리라는 의미이다. 이때 별 성(星)의 의미는 산봉우리라는 의미로서, 풍수지리에서는 종종 산을 성이라고도 한다. 흔히 말하는 오성체니 구성체니 하는 용어에서 '성'자는 산의 의미이다. 산을 성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밤하늘에 별들이 생기의 집약체인 것처럼 지상의 산 또한 생기집결처로서 눈에 띄게 솟아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53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95쪽).

54 풍수지리에서는 어떤 형국을 사물의 형상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물형론이라고 한다. 갈마음수, 장군대좌, 비룡승천, 맹호출림, 선인완화 등의 명칭이 그것인데 화성은 반룡완주형으로 묘사되었다.

55 『장서』에서는 "勢如萬馬 自天而下"라고 하여 만 마리의 말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형세를 매우 길한 형국으로 보고 있다.

56 조선시대에 청오는 뛰어난 풍수지리가, 대표적인 풍수지리 술법, 풍수전적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뛰어난 풍수지리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할 만큼 수원은 대길지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58]

> 이 화성은 큰 도읍지요 수호해야 할 땅이니, 실로 우리나라의 우부풍이라. …… 아름답구나. 나라에 산하의 보배가 있으니, 과연 성인이 묻힐 만한 땅인 현륭원을 하늘이 만들었으니, 신령스런 용이 턱 아래의 구슬을 희롱하는 현륭원의 모습이라네.
>
> 먼저 북쪽과 남쪽의 방위를 정하고, 드디어 하늘과 땅의 문을 열었다네, 북두칠성[59]을 따라 위치를 바르게 하니, 선기옥형(璿璣玉衡)이 아래로 드리우고, 명당(明堂)을 살펴 지도를 만드니, 현무(玄武)는 왼쪽으로 열렸구나. …… 그대로 만 마리의 말을 매어 놓은 마당인 듯하네.
>
> 창룡문 상량문 : 땅은 신령한 지역의 기운을 열었고, 푸른 까마귀 상서로움을 고하니 하늘이 성인의 터를 주셨네, 점을 치니 용이 서린 것처럼 길하다 하고, 점괘가 또 거북점에 들어맞는구나.
>
> 동장대 상량문 : 그러다 참 용이 천 년의 신비를 열었고, 신령스런 거북은 세 번이나 점쳐도 좋다고 하네.[60]
>
> 화홍문 상량문 : 봉황이 춤추고 용이 나는 듯이, 소수(笤水)를 천목산에서 끌어오고, 교룡이 둥글게 서려 앉고 호랑이가 걸터앉은 듯이.[61]

5. 조해공진(朝海拱辰) 천조지설(天造地設)의 길지, 수원

수원은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시대의 계획도시이다. 신읍치 수원은 물론 구읍치 또한 풍수지리 길지로 인식되어, 현재 음택과 양택의 주요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하고

57 주나라의 무왕이 죽자 그의 동생인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은 나이 어린 성왕을 좌우에서 보필하게 된다. 이후 성왕이 주공을 낙읍(洛邑)의 유수로 명하자 주공은 소공이 상택을 끝낸 낙읍이 도읍지로 길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나라 초기의 복택 모습이 보인다. 원래 낙읍은 이전의 무왕이 도읍하고자 9정(鼎)을 이미 옮겨 놓은 곳이었다. 당시 성왕은 풍읍(豐邑)에서 낙읍으로 천도하려고 소공에게 먼저 상택하게 하였고, 이에 소공이 주공에 앞서 낙읍을 상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서경』 낙고(洛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주공이 낙수 일대의 길한 여부를 거북점을 세 번 쳐 보았더니 모두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다. 이에 성왕 또한 주공에게 거북점이 길한 결과를 보인 것은 낙읍이야말로 주나라의 기틀을 완성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대로 번영할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낙읍으로 천도하게 된다. 낙읍은 바로 낙수가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의 오랜 수도로 유명한 낙양 지역이 바로 그 부근이다.

58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14~319쪽).

59 북두칠성은 풍수지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 좌향을 재는 나반의 바늘이 바로 북두칠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60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47쪽).

61 『화성성역의궤』 상(경기문화재단, 2005, 338쪽). 위 기록은 『장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朱雀翔舞 青龍蜿蜒白虎馴頫"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광교산과 팔달산 그리고 수원천이 어우러져 만든 수원

있다. 구읍치에 마련된 현륭원은 정조가 몸소 그 입지를 결정하였는데, 정조가 활약했던 조선 후기는 주지하다시피 풍수지리가 사회 · 문화현상 가운데 거의 중심으로 기능한 사회였고 왕은 물론 사대부, 평민, 심지어 노비조차도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활용한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화성, 즉 현재 수원의 입지는 현륭원을 보호하는 성이자 민생보호, 수도방어기능을 통합한 길지로서 판단되었고, 현재까지 길지의 기능을 아낌없이 수행하고 있다. 수원, 즉 화성이 계획도시로 조성된 것은 비록 당시의 사회 · 경제 · 정치적인 상황이 우선된 것이지만, 화성의 전체 모양이나 각루 · 사대문 · 행궁 · 민가의 위치 등은 무엇보다도 풍수지리 이론에 입각하여 건립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시대 풍수지리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 양성의 10학(學) 가운데 하나였던 면모 외에 궁궐이나 종묘사직, 왕릉, 사대부의 가옥, 사찰, 향교 등이 모두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던 사회 · 문화적 환경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의 수원 조성에서 동기가 되었던 현륭원은 음택 풍수지리의 길지로서, 화산을 진산으로 마치 북극성을 중심으로 뭇별들이 조응하는 듯한 조해공진, 천조지설의 형국을 갖추고 있다. 현륭원의 길지 판단은 당시의 사대부가 및 정조의 직접적인 풍수지리 안목에 의해 선정되었다. 현륭원이 음택 풍수지리 길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면 화성을 중

심으로 한 수원은 양택 풍수지리 길지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수원 전역의 진산은 광교산이며, 현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팔달산이다.

광교산은 광교산맥의 주봉으로서 생기 충만한 좌절우곡의 기세로 우뚝 솟아올라 장구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수원에 힘찬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교산의 넉넉한 품에서 중심 출맥한 팔달산은 잠룡의 행보를 통해, 사통팔달이 가능하도록 솟아 있어 행궁으로 하여금 배산임수로 조성될 수 있게 하였다. 팔달산의 뭉친 정기는 화성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의 흐름을 통해 계수즉지의 형국으로서, 그 빼어난 산수의 정기를 화성은 물론 수원 전역으로 아낌없이 흩뿌리고 있다.

이러한 길지는 생기 충만한 장소로서 그것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풍수지리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양택 길지의 활용은 현재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만, 미래의 전도양양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원의 풍수지리는 결국 자연환경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한 자연 순응, 자연과 인간의 혼연일체를 통한 미래 재창조이며, 그것이야말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외래교수

1. 18세기 수원 지역 읍지
2. 19세기 수원 지역 읍지

제3장

18~19세기 읍지로 본 수원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이후 수원 지역 읍지는 정조 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편찬되었는데, 현재까지 5종의 읍지가 알려져 있다.[1] 18세기 전반기 수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영조 대에 편찬된 『해동지도(海東地圖)』의 「수원부지도」가 몇 가지 항목의 기록을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2] 읍지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정조 대에 편찬된 읍지는 『수원부읍지』라는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여지도서』 보유편으로 실린 『수원부읍지』(규 10743)가 읍치를 이전하기 전에 편찬된 것이고, 규장각 청구기호 17364의 『수원부읍지』는 1791년(정조 13) 이읍 후에 기록된

1 최홍규, 「조선 후기 수원지방의 읍지」, 『경기향토사연구』 제2집, 1998; 정해득, 「정조 대 수원 이읍과 이후의 변화양상」, 『경기사학』 2, 1999. 최홍규는 5종의 읍지에 대한 서지(書誌)적 검토를 하였고, 정해득은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여러 사실을 논증하였다.

2 『해동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영인본)의 「수원부지도」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장은 각 방면의 거리와 면명(面名), 원호(元戶), 원전답(元田畓), 곡물총수(穀物總數), 군병총수(軍兵總數), 독성산성(禿城山城) 등을 지도와 함께 기록하였고, 다른 한 장에는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산천(山川), 고적(古跡), 역원(驛院), 불우(佛宇), 토산(土産) 등을 남양부(南陽府)와 함께 기록하였다.

것이다. 이들 2종의 읍지는 형태상 군현지(郡縣誌)[3]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원부 이읍을 전후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수원 지역의 사회 변화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19세기에 편찬된 읍지는 1831년에 편찬된 『화성지』를 비롯하여, 1894년 『기전영지』의 「수원부읍지」, 1899년의 『수원군읍지』 등 3종이 있다. 1793년 화성유수부로 승격된 이후 경관직으로 편입된 행정구역이 되어 19세기에 편찬된 『경기지』, 『경기읍지』, 『기전읍지』 등 경기도지(京畿道誌)의 편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화성지』는 독립된 읍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1894년에 편찬된 『기전영지』의 「수원부읍지」는 진영지(鎭營誌)의 형태로 편찬되었다. 그리고 유수영이 폐지된 이후 1899년 편찬된 『수원군읍지』는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군현지에 해당된다. 그 외 김정호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대동지지』에도 내용은 소략하지만 1860년대 수원 지역 자료를 기록하고 있어 몇 가지 유용한 기록을 본문에서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18~19세기에 편찬된 읍지를 중심으로 화성 건설을 전후로 하여 수원 지역의 사회적 변동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1〉 18~19세기 편찬된 수원 읍지류

읍지명	권수	편찬시기	소장처	편찬자	비고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1책 28장	1785년	규장각, 규 10743		필사본, 지도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1책 20장	1791년경	규장각, 규 17364		필사본
화성지(華城誌)	4권 2책 부편 3권	1831년	규장각, 고 915.12-H991j	박기수(朴綺壽)	필사본, 1~2권만 현존
기전영지(畿甸營誌)	1권 30장	1894년	규장각, 규 12187		필사본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1책 63장	1899년	규장각, 고 915.12-Su93g	이범선(李範善)	필사본
	1책 102장	1899년	장서각, 장 2-4251		

3 읍지의 종류는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20쪽. 〈표 II-3〉 '한국의 지리지의 종류' 참조.

1. 18세기 수원 지역 읍지

1) 1785년 『수원부읍지』

(1) 편찬 시기와 목적

『수원부읍지』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편찬시기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선생안(先生案)」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경무(李敬懋 : 1728~1799)의 재임기간(1792~1793)을 참작하여 1793년 혹은 1794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여 왔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1785년에 편찬된 것으로 밝혀졌다.[4] 이 읍지의 기록에 조선 후기 수원 지역의 대사건인 현륭원의 조성과 이읍에 관계된 기록이 전혀 없고, 읍지에 수록된 「수원부지도」에는 부내(府內), 향교

1785년 『수원부읍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4 최홍규는 「조선 후기 수원지방의 읍지」(『경기향토사연구』 제2집, 1998)에서 연대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정해득은 1785년 편찬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등이 화산(花山) 아래에 위치한 옛 읍치 지역에 표시되어 있으며, 수원부 관직 가운데 1786년 설치된 중군(中軍)[5]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점과 읍지에 기재된 가장 후대의 사실은 「공해(公廨)」의 은약헌(隱若軒 : 동헌)과 어목헌(御牧軒), 강무당(講武堂) 등에 수원부사 이복영의 재임기간(1784~1786) 중 관아건물을 대대적으로 중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178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생안」에 이경무까지 기록된 것은 후일 다시 필사(筆寫)하는 과정에서 이경무까지만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89년 원침을 수원부 읍치에 정할 것을 논의할 때 읍지를 상고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논의된 읍지가 바로 이 읍지로 추정된다.[6]

『여지도서』와 비슷한 체제로 편찬된 1785년의 『수원부읍지』에서 총 37개의 항목과 「수원부지도」를 제작하여 함께 수록한 것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로 염두에 두고 있던 수원부의 지형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수원부 읍치에 원침을 천봉할 경우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방리」에서 부내에 거주하던 호구를 각 수(授)별로 세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자연지리 항목

1785년 당시 수원부의 면적을 나타낸 폭원(幅圓)은 둘레[周回] 530리, 남북 120리, 동서 110리였다. 뛰어난 명승지를 기록하는 항목으로 「형승」은 금당암(金堂巖), 망운대(望雲臺), 망월봉(望月峯) 등이 있었다. 수원부의 성(城)은 읍성과 독산성[禿城山城]이 있었다. 읍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도 허물어졌다고 하였기에 이미 오래 전부터 피폐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독산성은 "둘레 5리, 성첩 303첩, 높이 3장(丈), 수첩군 11명, 사령 14명, 아전 13명, 지인 9명, 군뇌 4명, 비자 2명"으로 규모와 수호인원을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연못은 옛 읍치의 어목헌지(御牧軒池), 관청 앞 연못[官廳前池], 사창 앞 연못[司倉前池], 문루 앞 연못[門樓前池], 사창 뒤 연못[司倉後池] 등만 기록되어 있고 읍치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機池), 손항지(孫項池), 도제지(刀梯池), 방하지(方下池) 등의 연못은 「산천」에서 다루었다. 「산천」은 산과 하천 외에도 진도(津渡), 도서(島嶼) 등이 읍치로부터의 방향과 거리가 기록되어 있어 수원부의 지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1791년 『수원부읍지』(규 17364), 「중군(中軍)」.
6 『수원부하지초록』, 기유 9월 3일의 "又考邑誌 則置標在花山下麓云"은 곧 1785년 『수원부읍지』, 「산천(山川)」의 "花山 本府主山 國陵置標在下麓."의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3) 행정과 경제 항목

수원부의 수령은 유수부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정3품의 품계에 병마좌방어사(兵馬左防禦使)와 토포사(討捕使)를 예겸하는 도호부사였다. 수원부사가 다스리는 「방리」는 부내 문수당(文殊堂)과 46개의 면이 호구와 함께 기록되었다. 구읍치 부내는 "문수당 일수(一授), 삼수(三授), 오수(五授), 육수(六授)"로 나뉘어 있고, 각 수(授)별로 호구수를 기록하였다.[7] 이를 보면 구읍치는 문수당이라 하여 4개의 수로 나누어 관리하였는데, 여기서 수는 리(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수원 이읍 이전에 쓰던 관청시설은 「공해」에 정리되어 있는데, 객사(1645년 중건), 은약헌(동헌 1721년 개건, 1785년 중건), 어목헌(1671년 영건, 1785년 중건),[8] 강무당(1671년 영건, 1785년 중건) 등 4개의 주요 건물과 각 건물과 관계된 제영(題詠)이 붙어 있고 「누대」와 「창고」 기록에 애련당(愛蓮堂), 공극루(拱極樓 : 1740년 중건)와 사창(司倉), 군향고(軍餉庫), 군기고(軍器庫) 등이 소개되어 있다. 수원부 옛 관아의 규모는 『현륭원등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읍치의 관아 중에서 현륭원 재실(齋室)로 재사용된 옛 건물이 58칸이고, 헐어 낸 건물이 내아 14칸, 내아행각 10칸, 비장청 11칸, 비장청행각 7칸, 공수 8칸, 사령방 7칸, 내외삼문 6칸, 전배청 6칸, 누상고 9칸, 공방 4칸, 하인청 3칸, 방영청 12칸, 집사청행랑(초가) 5칸, 어목헌삼문 3칸 등 105.5칸으로 나타나 구읍치의 관아 규모는 모두 163.5칸에 이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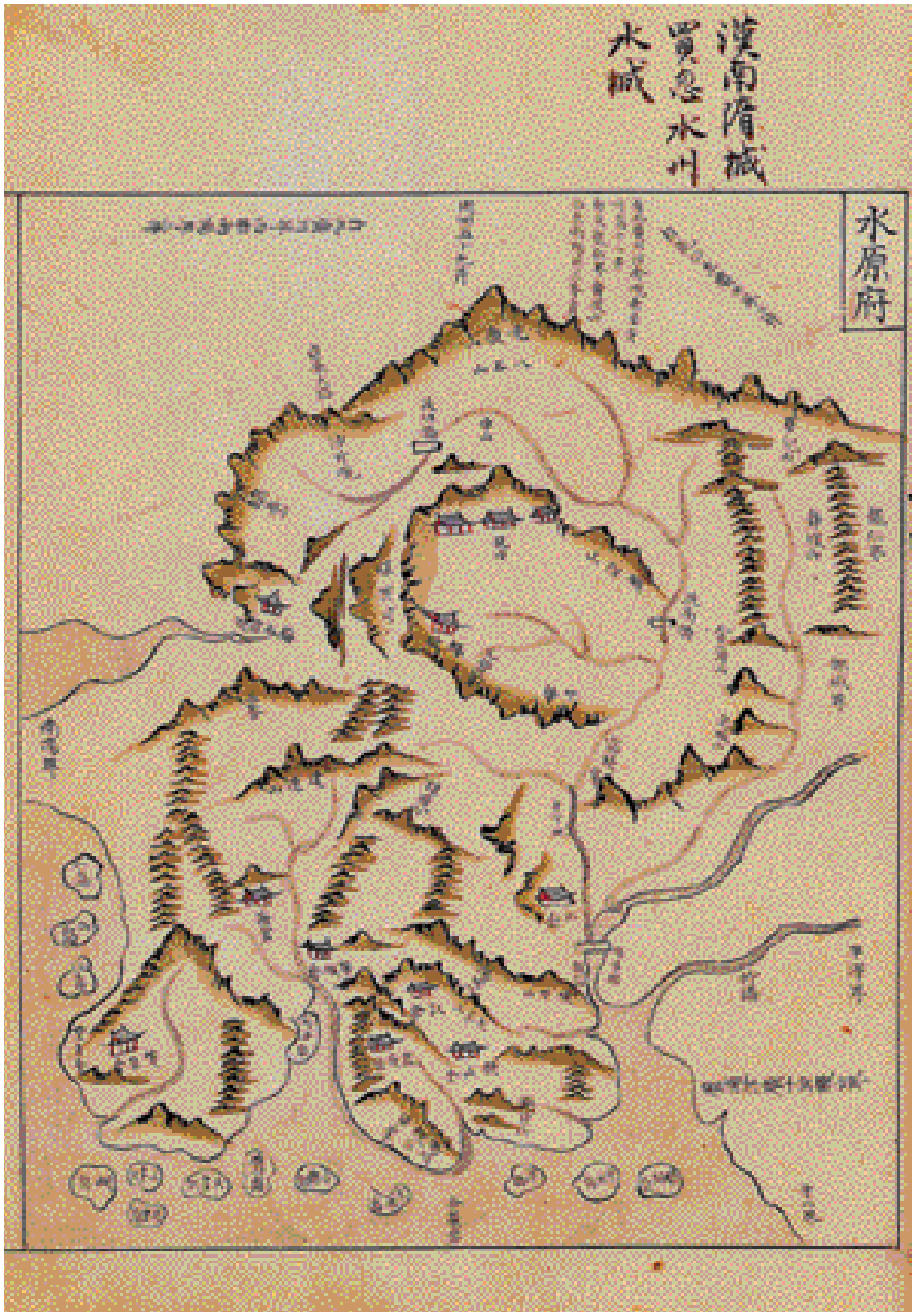
수원부의 「전결」은 한전(旱田)과 수전(水田)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였는데, 한전이 6,328결 87부이고 수전이 5,275결 74부로 모두 1만 1,604결 61부의 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안에 기록된 원결수(元結數)를 기록한 것이어서 실제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원부의 주요 시설 가운데 「창고」는 세금징수, 구휼 등에 중요한 시설로서 모두 8개가 있었다. 부내에 사창, 군향고, 군기고 등 3개가 있었고 독산성의 산창(山倉), 쟁홀면의 사창(社倉), 공이향면의 해창(海倉), 청룡면의 설창(設倉), 화방면의 쌍창(雙倉) 등 5개가 기록되어 있다. 「교량」은 3개로 서울에서 옛 읍치로 연결되는 후평대교(後坪大橋)와 소교(小橋), 그리고 독성산성과 연결되던 세남교(細南橋)[9]가 있었다. 농업 생산과 긴밀한 관계

7 수원 지역의 호구에 대해서는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을 참조.

8 1785년 『수원부읍지』, 「공해(公廨)」. 어목헌(御牧軒)은 수원부의 내아(內衙)로 사용된 건물로서 숙종과 영조가 온천행차 시에 이곳에서 묵었다.

9 1791년 『수원부읍지』에는 세람교(細藍橋)로 표기되었다. 세람교는 한양에서 삼남으로 연결되는 대로에 위치한 중요 교량이었다.



「수원부」(『광여도』, 1767~177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읍내, 향교, 홍법산, 도고산, 성황산, 매곡서원, 해창, 세남교, 독성산 등의 지명이 보인다

가 있는 「제언」의 경우는 부내를 중심으로 23개소의 제언이 위치한 방향과 거리 및 제언의 둘레와 깊이 등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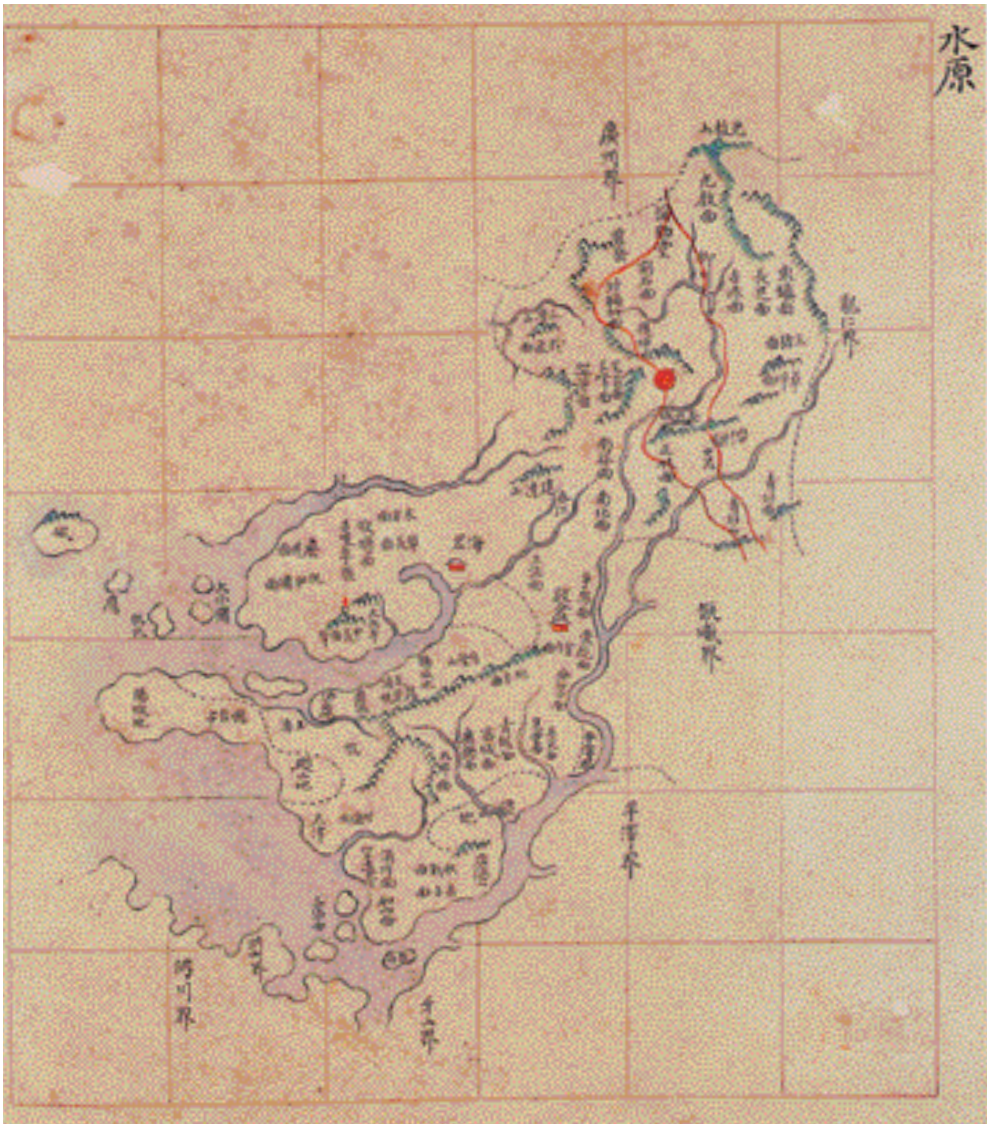
조선시대 교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우역(郵驛)」은 수원부에 3곳이 있었다. 동화역(同化驛 : 大馬一匹 卜馬四匹 奴八名), 장족역(長足驛 : 大馬一匹 騎馬二匹 卜馬二匹 奴五名), 청호역(靑好驛 : 大馬二匹 卜馬三匹 奴七名) 등이 있어서 각각 남양, 용인, 안성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봉수」는 압장면에 위치한 홍천산봉수 1곳이 기록되었는데, 이 봉수는 남쪽의 양성현 괴태곶과 서쪽의 남양부 염불산봉수와 호응하는 봉수였다. 「목장」은 홍원목장(洪原牧場)을 기록하고 있는데,[10] 남쪽 70리 지점의 포내면에 있으며, 둘레 25리, 면적 182결, 원전답은 76결 49부 6속, 목자 75명, 말 1필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매년 상사(上司 : 사복시)에서 분정하는 대로 상납하였다.

(4) 사회와 문화 항목

「단묘」에는 옛 읍치 지역에 있던 사직단(社稷壇)을 비롯하여 문묘(향교),[11] 여단, 성황사 그리고 매곡서원이 기록되어 있다. 문묘조항에는 이경원(李慶遠)이 지은 「명륜당중수기」가 붙어 있다. 「누정」은 유락의 장소로 이용되는 대표적 시설로, 옛 수원부 관아의 외삼문으로 사용하였던 공극루와 독산성의 남문인 진남루를 기록하였다. 각각 이정보(李鼎輔 : 1693~1766)가 지은 「(공극루)중건상량문」과 이정구(李廷龜 : 1564~1635)가 지은 「(진남루)기문(記文)」이 붙어 있다.

수원부에 있던 「사찰」은 만의사(萬儀寺)를 비롯하여 오동사(梧桐寺), 정수암(淨水菴), 신복사(新福寺), 만봉암(萬峯菴), 백산암(栢山菴) 등 6개의 사찰과 폐사된 창선사(彰善寺)와 반룡산사(盤龍山寺), 가지사(迦支寺) 등의 사명이 기록되었다. 「고적」은 주로 폐현(廢縣)과 부곡(部曲), 향(鄕)과 면(面)의 이속관계가 기록되었다. 수원부에 흡수되어 없어진 현은 정송(貞松 : 원문은 빈칸이다.)과 광덕(廣德)이 있었고, 부곡(部曲)은 포내며(浦內旀), 쟁홀(爭笏), 육내미(陸內彌), 제촌(提村), 청구(靑丘), 사량(沙梁), 공촌(公村) 등 7개소가 있었으며, 향(鄕)으로는 석향(石鄕), 분촌향(盆村鄕), 공이향(工以鄕)이 있었다. 가장 기초적인 행정구역이었던 면의 이속(移屬)이 있었던 곳은 사정면(奢井面), 금물촌면(今勿村面), 양간면(楊干面), 삼봉면(三峯面), 고등촌면(古等村面), 오타면(五朶面), 종덕면(宗德面) 등으로 각 면들이 수원부에 편입된 내력을 소략하게 기록하였다. 이 외에 심곡(深

10 1785년 『수원부읍지』, 「목장」.
11 1785년 『수원부읍지』, 「단묘」. "文廟 舊在府西三里 顯宗二年移建 于府南二里 禿坑山."



「수원부」(『조선지도』, 1767년 이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읍치 이전의 수원부지도로, 각 관할면의 명칭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谷), 유제(楡梯)가 고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고적조의 서술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계승한 것이다.

수원부의 「풍속」은 "무사의 기예를 좋아하고, 인심은 다혈질이다. 문사가 적고 밭 경작을 좋아한다[好武技 人心多質 小文而好田作]"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1724년(영조 즉위) 9월 대사헌 이명언(李明彦)의 상소 중에 "수원의 7천 병마는 본래 날래고 사납다고 하니

「수원부」(『동국여도』, 1800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수원부의 지명, 고적, 포구, 장시 개시일 등을 지도 여백에 기록하였다.

급할 때에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12]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부를 비롯하여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요 「성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12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9월 갑자.

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자연촌락별로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수원 지역의 집성촌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긴 하지만 본관을 기록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2〉『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수원도호부의 성씨

지역명	성씨
본부	최(崔), 김(金), 이(李), 서(徐), 백(白), 최(崔), 방(方), 하(河)
쌍부(雙阜)	서(徐), 송(宋), 박(朴), 이(李), 심(沈), 신(愼)
용성(龍城)	차(車), 송(宋), 임(任), 장(張)
청구(靑邱)	정(鄭), 박(朴), 이(李)
공리(公利)	김(金)
육내미(陸內彌)	이(李)
심곡(深谷)	차(車)
오타(五朶)	여(呂), 김(金)
주석(柱石)	송(宋), 김(金), 최(崔), 차(車)
쟁홀(爭笏)	이(李), 김(金), 박(朴)
정송(貞松)	이(李), 김(金), 최(崔), 윤(尹)
양간(楊干)	박(朴), 김(金)
사정(奢井)	도(都)
금음촌(今音村)	여(呂), 이(李)
종덕(宗德)	유(柳), 서(徐), 이(李), 차(車)
분촌(盆村)	백(白), 전(田)
사량(沙梁)	견(堅), 김(金), 송(宋)
공이향(工以鄕)	송(宋)
유제(楡梯)	차(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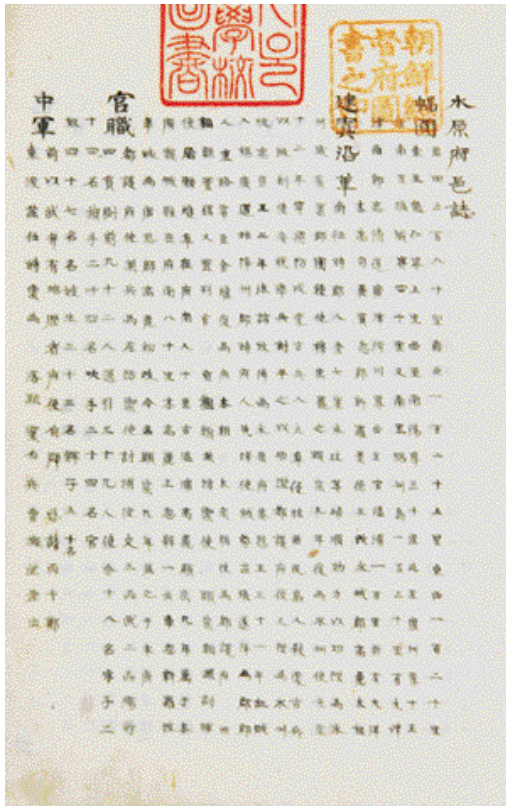
「인물」은 고려조의 최자성(崔滋盛 : 1065~1143)과 최영규(崔永奎 : 수원 최씨 시조) 등 2명과 조선조의 공서린(孔瑞麟 : 1483~1541)을 비롯한 55명이 기록되었는데, 조선조 인물 중 38명이 무과급제나 전공이 있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 「풍속」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2) 1791년 『수원부읍지』

(1) 편찬 목적과 시기

이읍 후에 편찬된 『수원부읍지』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정확한 편찬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785년 『수원부읍지』와 마찬가지로 「부사선생안」의 마지막 인물인 김노영(金

魯永)의 재임기간(1788~1789)을 참작하여 178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13] 그러나 1790년에 완공된 신읍치 관아 건물의 규모가 상세하게 실려 있고, 「단묘(壇廟)」 성황단(城隍壇)의 완성시기가 '신해년 가을'(1791)로 기록된 점, 그리고 1791년 7월에 경기관찰사에게 내린 유지(有旨)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1791년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읍지의 편찬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791년 정월부터 1792년 정월까지 수원부사로 재임하였던 김사목(金思穆 : 1740~1829)이 1789년 수원부사에 임명되어 읍치 이전을 주관하였던 조심태(趙心泰 : 1740~1799)의 도움을 받아 읍지를 편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91년 『수원부읍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791년은 읍치를 옮기고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여 현륭원 조성공역이 마무리되고, 현륭원 화소(火巢) 구역의 식목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14] 신읍치에서는 관청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이주민(移住民)의 가옥이 마련되는 등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특히 「관해(官廨)」에서는 새로 건설된 수원부 관아의 건물 명칭과 규모 · 용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화성행궁(華城行宮)이 건립되기 이전 수원부 관아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수원부에 새로 설치한 시전 및 현륭원과 용주사의 건립, 그리고 수원 이읍과 관련된 정조의 「전교(傳敎)」, 「유지(有旨)」, 「윤음(綸音)」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읍지는 현륭원 조성과 수원 이읍이라는 대사건이 일단락되는 시기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읍에 따른 수원부의 변화와 발전을 수록하였고, 이읍 직후에서 1794년(정조 18) 화성 성역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잘 나

13 동아문화연구소,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1965, 1128쪽.
14 식목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정해득, 「제3장 현륭원의 경계 설정과 공역」,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2009 참조.

타나 있다.

이 읍지는 「폭원」에서부터 「읍선생안」까지 총 48개 항목과 10개의 「전교」, 「유지」, 「윤음」 기록을 남기고 있다. 1785년의 읍지에 비해 외견상 내용이 대폭 확대된 듯 보이지만 한 항목으로 다루었던 것을 세분하였기 때문에 항목이 늘어난 것이며,[15] 실제 추가된 항목은 「원침(園寢)」, 「중군」, 「시전」, 「사례」, 「전교」, 「유지」, 「윤음」 정도이다.

(2) 자연지리 항목

1789년 광주부의 일용면(日用面)과 송동면(松洞面)이 수원부로 편입되었다. 늘어난 면적은 그대로 읍지에 반영되어 수원부의 「폭원」을 보면 둘레 580리, 남북 125리, 동서 120리가 되었다. 둘레 50리, 남북거리 5리, 동서거리 10리가 각각 더 늘어났다. 「형승」에서는 수원이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임을 뜻하는 "북쪽으로는 한양을 막아 지키고 남쪽으로는 영남과 호남을 아우른다[北控漢京 南配湖嶺]."고 기록하여 수원의 지리적 특징만을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읍 이후 「성지」를 보면 그 중요성이 사라진 옛 읍성이 기록에서도 제외되고 독성산성 관련 기록이 강화되었다. 독산성에서 권율 장군의 승전 사실과 사도세자의 임어(臨御) 사실, 1790년(정조 14) 원행 때 정조가 운주당(運籌堂)에 임어하였던 사실 등 독산성의 역사적 중요 사실들이 기록된 것이다. 1789년 이읍 이후 독산성은 새로운 읍치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역사적으로는 물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성이라는 사실이 부각된 것이다.

연못에서도 옛 읍치 지역에 있던 연못들은 제외되고 신읍치에 새로 조성된 득중정지(得中亭池), 작청지(作廳池), 방영지(防營池)[16] 등과 자연상태로 있던 용연 등 신읍치에 새로운 연못들이 조성되었다. 현륭원을 조성하면서 수원부 옛 관아에 있던 연못 가운데 곤신지(坤申池) 1개만이 개축되었고,[17] 나머지 연못들은 현륭원 조성에 따라 모두 매립되었다. 그리고 제1지, 제2지, 제3지 등의 연못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읍치의 주산이 된 팔달산과 현륭원 석물 조성에 필요한 석재를 떠낸 앵봉(鶯峯)이 「산천」에 기록되었다. 팔달산과 앵봉은 읍치를 옮기기 전에는 작은 야산으로 치부되었을 것인데, 새로운 읍치에서는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진도」는 당포진(唐浦津)·

15 1785년 『수원부읍지』, 「산천」에서 「산천」과 「진도(津渡)」, 「도서(島嶼)」, 「지(池)」 등을 함께 다루었던 것을 1791년 『수원부읍지』에서는 「산천」, 「진도」, 「도서」, 「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16 이들 연못은 모두 1790년에 신착(新鑿)한 것으로, 득중정지(得中亭池)는 석축(石築)으로 연꽃을 심었다.

17 『현륭원등록(顯隆園謄錄)』 권1(藏 2-2381), 「신해(辛亥)」. "坤申池 改築 …… 第一池 新築 …… 第二池 新築 …… 第三池 新築."이라 기록하고 있다.

화포진(火浦津)·이포진(里浦津) 등 3곳이 있었는데, 각기 아산·당진·평택을 연결해 주는 나루였다. 「도서」에 기록된 구화도(仇火島), 풍도(楓島), 아주도(鵝洲島), 오동도(梧桐島) 등은 세곡(稅穀) 운반항로에 위치한 주요 섬이었다.[18] 이 가운데 아주도와 오동도는 만력(萬曆) 연간에 해조(海潮)로 모래가 쌓이고 주민이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19]

(3) 행정과 경제 항목

읍치를 옮기는 경우 모든 일이 번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원부는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으며, 수원부사가 거느리는 이속(吏屬)을 통해 많은 일을 지휘하였다. 수원부에는 향소(鄕所)의 향임 4명, 아전 92명, 통인 39명, 사령 18명, 뇌자(牢子) 24명, 기수(旗手) 24명, 취수(吹手) 24명, 관노 17명, 기생 23명, 비자(婢子) 50명 등 총 315명에 달하는 이속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러한 규모의 이속은 유수부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수원부가 기보(畿輔)의 중진으로서 12진을 관장하고 있는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라는 위상을 표현한다고 하겠다.

수원부의 군사적 거점은 독산성이었고, 이곳에 '중군'이 배치되어 관할하였다. 중군은 정동준(鄭東浚)이 수원부사로 재임하던 1786년 독산성의 중영(中營)을 관리하는 총융청 소속의 관직으로 병조의 의망(擬望)을 거쳐 선발하게 되었다.[20] 수원 중군의 설치는 1783년 이석하(李錫夏)가 올린 상소에서 "수원의 중군은 곧 영·호남의 인후와 같은 것인데 전조(銓曹)에서 차임(差任)하여 보내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계청하여 보내기 때문에 자급이 낮고 물망이 가볍게 되므로, 대부분 도임했다가 바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다른 곳의 예대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낙점을 받게 한다면, 처지와 물망이 묵직해지게 되고 군무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21]라고 하였는데, 1786년 정동준의 계청으로 무관 정3품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이읍 이후 수원부의 행정구역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1791년 읍지에는 부내에 북리(北里)와 남리(南里) 등 2리가 만들어졌고, 4면이 증가한 50면이 기록되었다. 신읍치에서 각 면의 거리가 다시 산정되어 기록되었으며, 증가된 면은 과거 수원의 중심지였던 문수당의 1수, 3수, 5수가 통합되어 문수당면(文殊堂面)이 되고, 6수가 시봉면(市峰面)으로 분

18 『수원부계록』, 함풍 3년 10월 18일. 풍도 근처에서 조선(漕船)의 침몰사고가 있었으며, 무진 5월 25일에도 풍도(楓島) 앞바다에서 조선(漕船)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 1791년 『수원부읍지』, 「도서(島嶼)」. "…… 萬曆間海潮飜沙 成鵝洲梧桐兩島 有居民焉."
20 1791년 『수원부읍지』, 「중군(中軍)」. "前以武弁有地歷者 府使自辟 啓請 丙午鄭東浚莅仕時 稟爲落點 稟自兵曹擬望差出."
21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10월 계유.

리되면서[22] 2면이 늘어났고 광주부의 일용면과 송동면이 편입되어 2면이 늘어난 결과 모두 50면으로 확대된 것이다.

새로 건설된 수원부 관아가 읍지에 기록되는데, 장남헌(행궁), 중약문(내삼문), 좌익문(중삼문), 팔달관(객사), 복내당(내아), 은약헌(隱若軒), 참좌헌(叅佐軒), 어승마랑(御乘馬廊), 향청, 강무당, 군기고, 집사청, 초관청, 고마고(雇馬庫), 작청(作廳), 토포청(討捕廳), 방영청(防營廳), 관청(官廳), 영선(營繕), 공수(公需), 장춘각(藏春閣), 감옥 등 독립 건물만도 20여 채가 넘는 667칸의 대규모 시설로 나타난다.[23] 이 기록은 『수원부하지초록』에 기록된 관청[24] 건물보다 늘어나 있는 것으로 1790년 2차로 완공된 건물까지 포함하여 기록된 것이다. '화성행궁'의 기본 구조가 이때 갖추어졌고, 화성 성역에 따라 수원부 관아는 재배치되었으며 건물의 명칭에도 변화가 있었다.

수원 이읍 이후의 「전결」은 1만 1,821결 61부로서 한전이 6,426결 50부 3속이고, 수전이 5,395결 11부로 기록되었는데, 일용면과 송동면의 편입으로 늘어난 토지 면적이 반영되어 전체 원장부수(元帳簿數)가 증가하였다. 이들 전답 가운데 잡탈(雜頉)이 모두 6,291결 43부 2속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여 실제 수세면적은 5,000여 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부에 대한 정조의 세금 감면 지시로 감해진 액수와 일용면과 송동면의 편입으로 증가된 액수가 총액수에 반영되어 숫자상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791년 읍지에는 「창고」의 규모를 밝히고 있는데, 독산성의 산창이 26칸, 쟁홀면 사창이 90칸, 청룡면 설창이 23칸, 공이향면 해창이 팔창(40칸)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화방면 쌍창이 27칸, 부내에 있는 사창이 47칸, 군향고가 38칸이었고, 1791년에 신설된 내수고(勑需庫)가 10칸이었다. 각 창고는 각기 감관(監官) 1인, 색리(色吏) 1인, 고자(庫子) 1명을 두어 관리하였다. 이 외에 광주창 65칸, 용인창 46칸이 부내에 있었고 용주사에 승창이 세워지는 등 수원부 소속의 창고가 확대되고 있었다.

수원 이읍 이후 읍지에 기록된 「교량(橋梁)」은 대왕교(大王橋), 유천교(柳川橋), 배양교(培養橋), 황교(黃橋) 등이다. 이 중 대왕교는 1791년에 석축으로 새로 건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가된 교량은 정조의 원행 필로에 위치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원 지역 교통망의 확충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수원의 상업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언」은 새로 추가된 것이 없으나 몇몇 제언의 경우 명칭이 약간 변화되었다. 사사리

22 1785년 『수원부읍지』, 「방리」. 『호구총수』에 나타난 문수당면의 호구수와 문수당 1·3·5수(授)의 합(合)이 같고, 시봉면의 호구수와 6수의 호구수가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23 1791년 『수원부읍지』, 「공해」. "…… 以上大小官廨六百六十七間 己酉府使趙心泰始役 庚戌工訖."
24 『수원부하지초록』, 기유 9월 26일조; 『수원부하지초록』, 경술 5월 7일.

(寺寺里)제언이 적사리(赤寺里)제언으로, 도마교(道馬橋)제언이 도마리(道馬里)제언, 독동(獨洞)제언이 광동(光洞)제언으로 표기된 것이다. 1785년 읍지에 기록된 이들 제언의 규모가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읍지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며, 제언이 위치한 면(面)을 기록하였다.

읍치의 이전에 따라 교통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하였다. 1790년 동화역이 장족역에 흡수됨에 따라 장족역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청호역은 말 1필과 노 1명이 줄어들었다.[25] 수원부의 중심적인 역은 읍치에서 가까운 장족역이 되었으며, 청호역이 장족역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91년 읍지에는 봉수를 지키는 홍천산봉수의 봉군의 규모를 추가로 기록하였다. 별장 1원, 감관 5인, 군사 25명, 감고 1명, 산직 5명, 표하군 10명이 지키고 있었으며, 매달 초하루와 연말에 순영과 통어영에 보고하였다.

「진관」 항목에는 수원부가 부평 · 인천 · 남양 · 통진 · 안산 · 김포 · 양천 등 7읍의 토포(討捕)를 겸하고, 진위 · 용인 · 안성 · 양성 · 금천 등 5읍의 군사를 관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26] 수원부는 유사시 경기도 서남부의 수비를 책임지는 중진으로서 광주부와 함께 그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따라서 주변의 12읍을 거느리는 군사행정의 중심지였다.

(4) 사회와 문화 항목

「단묘」 가운데 신읍치 주변에 신축된 사직단과 여단, 성황사 등은 1791년에 신축되었다고 기록되었고, 향교는 1789년 겨울에 건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부하지초록』에는 향교가 1789년 9월 14일에 영건을 마쳤으며, 정조가 직접 제문을 지어 보내[27] 관심을 표명하였다. 구읍치에 있던 「누정」 가운데 공극루는 옛 수원부 관아의 훼철과 함께 사라졌고, 독성산성의 진남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신읍치에 새로 건설된 득중정과 산정(미로한정의 옛 이름), 관아의 외삼문인 진남루(후에 신풍루로 개명)가 기록되었으며, 홍양호(洪良浩 : 1724~1802)가 지은 「득중정상량문」이 붙어 있다. 「누정」에 관청에 있는 누대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수원 지역의 자연경관이 누정을 세워 감상할 만큼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85년 읍지에 기록되어 있던 6개 사찰은 계속 읍지에 기록되었으나 1791년 읍지에는 3

25 1791년 『수원부읍지』, 「우역(郵驛)」.
26 1791년 『수원부읍지』, 「진관십이읍(鎭管十二邑)」.
27 『수원부하지초록』, 기유 9월 14일; 『수원부하지초록』, 기유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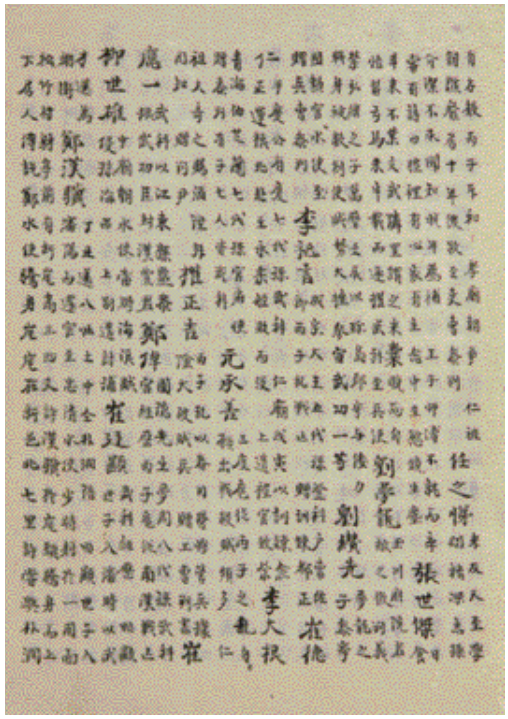
용주사 상량문(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

개의 폐사는 삭제되었다. 현륭원의 원찰로 세워진 용주사가 「사찰」의 첫머리에 기재되어 창건의 배경과 각 건물의 명칭, 건물의 규모,[28] 채제공이 지은 상량문을 기록하여 용주사 창건 당시의 면모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용주사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수원부하지초록』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다.[29] 『수원부하지초록』 경술 10월 6일조에는 건물의 편액(扁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규모가 145칸이고, 중문(中門) 9곳, 담장[牆垣] 249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용주사 영건에 참여하였던 각 부분의 감동관리 명단과 공사에 참여한 날짜까지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중 주목되는 것은 불상후탱(佛像後幀) 감동(監董)으로 김홍도(金弘道 : 1745~?)와 김득신(金得臣 : 1754~1822), 이명기(李命基) 등 당대의 이름난 화가들이 참여하였으며,[30] 각 건물의 현판(懸板) 제작도 감독관리를 두어 제작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용주사는 왕실의 원찰로서 승통(僧統)을 정할 수 있었으며, 원거승(願居僧)의 접제(接濟)에 필요한 경비의 마련과 용주사 승려의 가자(加資) 등의 특전이 베풀어져 경기 남부의 중심 사찰로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31]

수원 이읍 이후 1785년 읍지에 기록된 고적 외에 신읍치 주변에서 망천(忘川), 학사정(學士井), 조대(釣臺), 권선리(勸善里) 등 새로운 고적이 비교적 소상하게 채록되었다. 이 고적들은 이고(李皐 : 1341~1420) 관련 유적지로서 "고려 공민왕 대에 문과에 급제하고 공양왕 때 수원 광교산 남쪽 탑산(塔山) 밑에 은거하여 살았는데, 탑산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연못에서 물고기를 낚고, 망천에 나아가 인근에 은거한 조견(趙狷 : 1351~1425)과 이집(李集 : 1314~1387) 등과 벗하여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태조 이성계가 이고를 등용하려 하였으나 이고가 출사하지 않아 화공(畵工)을 시켜 그려온 탑산을 보고 '역시 아

28 1791년 『수원부읍지』, 「사찰」.
29 용주사의 창건 과정에 대해서는 정해득, 「제4장 용주사와 어진봉안각」,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2009 참조.
30 용주사의 불화와 관련하여서는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1998 참조.
31 『수원부하지초록』, 경술 10월 7일.

름다운 산이다.'하며 그 산을 팔달산이라 명명하였다."는 고사가 1791년 읍지에 실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읍치의 주산인 팔달산과 깊은 인연을 가진 이고와 관계된 유적들이 「고적」조에 실리게 된 것이며, 정조는 이고를 '팔달산주인'에 비유하였던 것이다.[32]


1791년 『수원부읍지』, 「인물」

이와 같은 추세는 「인물」 관련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1791년 읍지에는 고려조 인물 2명이 동일하게 실렸을 뿐 조선조 인물은 25명으로 줄어들면서도 정한기(鄭漢驥)의 기록에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1785년 읍지에서 정한기는 "무과 수사(水使)"로 간단하게 기록하였으나, 1791년 읍지에는 "소현세자를 배종하여 청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신읍에 편입된 일용면 송죽촌에서 활쏘기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채집되어 기록된 것이다.[33] 이것은 「고적」에서 이고와 관계된 유적이 채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읍 이후에 수원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 적극적으로 채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791년 읍지의 「풍속」은 "무사의 기예를 좋아하고, 힘써 농사를 짓는다. 사람들은 다혈질이고, 문사가 적다[好武技 力作農 人物多質 小文]."라고 하여 1785년 읍지에 비해 표현이 약간 바뀌었으나 뜻은 같다. 1790년(정조 14) 정조가 수원 부근의 유생과 무사들을 시험 보게 하고 시취하는 규정을 정하면서 "수원은 평소 무술을 숭상하는 고을로 일컬어져 왔다."[34]고 지적한 것에서도 수원이 무예에 뛰어난 고장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수원의 무사들은 1730년(영조 6) 영조의 여주 영릉 행차 시에 어가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으며,[35] 후일 정조에 의해서 설치된 장용외영은 이러한 수원의 무사를 기반으로

32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御製」, 八達山主人處士李皐墓遣官致祭文.
33 1791년 『수원부읍지』, 「인물」.
34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3월 경인.
35 『영조실록』 권25, 정조 6년 2월 갑자.

능원침내금양전도(『건릉지』, 18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건릉 능침 내에서 나무나 풀을 베지 못하도록 능침의 범위를 규정한 그림으로 용주사, 대왕교 등의 지명이 보인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1791년 읍지에는 1789년 조성한 현륭원에 대해 「원침」 항목에 기록하였다. 화산 아래 현륭원이 천봉됨으로써 수원 지역은 왕실의 능원이 자리 잡은 고장이 되었으나 이로써 수원 지역은 이읍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원침」은 현륭원의 위치와 천봉시기, 그리고 원침 주변의 풍수지리를 간단하게 기록하고,[36] 원소에 들어선 정자각을 비롯한 각 건물의 규모와 「정자각상량문」 및 건물과 관계된 사실을 부기하였다. 현륭원에 세워진 건물의 규모를 밝히고 있는 자료는 이 읍지 외에도 1789~1797년에 기록된 『현륭원등록』과 1829년에 편찬된 『현륭원사례』 등이 있다.

현륭원 주변에는 특별관리구역인 화소가 설정되었다. 1790년 2월 2일부터 대규모의 식목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정조는 수원부와 속읍 수령이 군사를 지휘하여 식목을 한 자리에 표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식목 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숫자와 말라죽은 숫자를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경계하였다.[37] 3월 24일에는 현륭원에 식목감관을 두어 식목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1790년 9월 23일에는 가을철 식목 때는 소나무를 위주로 식목할 것과 식목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굳이 식목만 할 것이 아니라 종자를 파종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식목사업을 현륭원 주변의 기세를 보완하는 작업

36 1791년 『수원부읍지』, 「원침」. "顯隆園 …… 盖花山龍脈 自光敎山彌勒峴 過來逶迤西北 行百餘里 中幹南推爲雉岳山 北爲中祖峯 而落下平岡廣野 行龍左盤右旋 屈曲屢十里 起洪範山 枝葉蔓延 一枝西走爲乾達山 一枝巽去爲鳳鳥山 卽外案 一枝飜身迂局 北旋南落 爲癸坐之原 世稱花山神龍弄珠之形 至是 果園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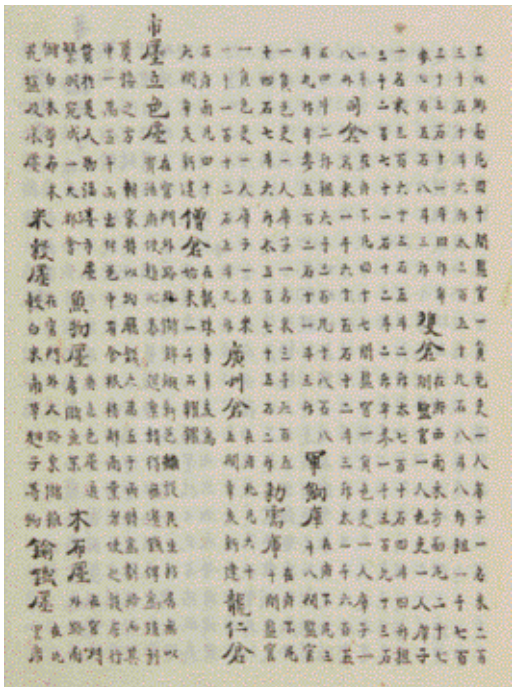
37 『수원부하지초록』, 경술 2월 2일.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38]

1791년 읍지에는 「사원」에 조익(趙翼 : 1579~1655), 조복양(趙復陽 : 1609~1671), 조지겸(趙持謙 : 1639~1685)을 배향하는 명고서원(明皐書院)이 추가되었다. 명고서원은 광주부 송동면에 소재하였던[39] 서원으로 송동면이 수원부에 편입되면서 읍지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지란(李之蘭 : 1331~1402)을 배향한 청해백사(靑海伯祠)가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건립이 추진되어 오다가 1790년(정조 14) 정조의 원행 때 승인을 받아 수원부 초평면(草坪面)에 건립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40] 이지란의 후손들은 수원 지역의 유력한 가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지란의 7대손으로서 부사를 지내고 참판의 증직을 받은 이대근(李大根)과 그 아들 7명이 모두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1785년 읍지 「인물」에 기록되어 있다.

(5) 추가 항목

1789년 신읍치로 이전한 후 그 이듬해인 1790년 2월부터 시전(市廛) 설립이 추진되었다.[41] 그해 5월에는 수원부사 조심태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전이 설립되었다.[42] 이읍 후 민생의 자활을 위해서 부사 조심태가 정조에게 균역청의 돈 6만 5,000냥을 수원부에 획급하여 시전을 설립하고, 그중 1만 5,000냥은 수원부 상인에게 대부하여 주고 기반이 잡힌 후 갚도록 하는 방안을 청하였는데 시전을 중심으로 수원 지역의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일대도회를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1791년 『수원부읍지』 시전 관련 부분

이때 설립된 시전의 점포들은 1790년

38 『수원부하지초록』, 경술 9월 23일.
39 1791년 『수원부읍지』, 「사원」, 명고서원; 『전고대방』 권4, 「서원향사록」, 광주(廣州).
40 1791년 『수원부읍지』. "靑海伯祠 卽李之蘭祠 而其子孫所刱者 在府南三十里 草坪面 英廟庚午溫行時 及當今庚戌園幸時 因其子孫上言 遣官賜祭物 仍改命建."
41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경오.
42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5월 정유.

득중정 편액(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입색전(立色廛 : 錦, 緞), 어물전(魚物廛 : 魚, 果), 목포전(木布廛 : 白木, 苧布, 木花), 염급상전(鹽及床廛 : 소금과 상), 미곡전(米穀廛 : 雜穀, 白米, 南草, 麵子等物), 유철전(鍮鐵廛), 관곽전(棺槨廛)이 들어섰으며, 1791년에 지혜전(紙鞋廛)이 설립되어 수원부는 시전이 들어선 구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일대도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시전이 들어선 위치는 관문(진남루) 밖 북쪽에 입색전과 어물전이 들어서고, 남쪽에 목포전이 마주하였으며, 미곡전과 관곽전 · 지혜전이 대로(지금의 팔달로) 동쪽에 위치하여 십자대로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유철전이 지금의 장안문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례」에 기록된 특별 과시(科試)와 연례적인 시취규정은 타 지역과 달리 과거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신읍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수원 지역에 대한 우대책에서 나온 것으로 수원에 대한 정조의 배려였다. 1790년 2월 현륭원에 행차한 정조가 과시를 베풀어 수원과 연로의 광주, 과천의 선비 이덕승(李德升) 등 5인과 무사 175인을 선발하고 시취규정을 제정하였고, 수원부 행궁에 머물며 활쏘기를 한 후 장남헌, 복내당, 득중정의 현판을 직접 써서 걸게 하였다.[43]

수원부 읍치의 이전에 따른 정조의 「전교」, 「유지」, 「윤음」 등이 읍지의 부편처럼 「읍선생안」 뒤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읍치 이전에 따른 수원 부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시책을 정리한 것이다.

43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9일. 정조는 현판을 쓰고, 11일 과시를 설행하였으며, 3월 10일에 시취하는 규정을 정하였다.

2. 19세기 수원 지역 읍지

1) 1831년 『화성지』

(1) 편찬 목적과 성격

1831년(순조 31) 화성유수 박기수(朴綺壽 : 1774~1845)에 의해서 편찬된 『화성지』는 1793년 화성유수부 승격과 화성 성역 이후의 변화 양상을 본문 4권에 부편(附編) 3권으로 기록하였으나, 제3권과 제4권 및 부편이 일실되어 현재 1권과 2권만이 남아 있다. 다행히 『화성지』에는 박기수가 쓴 서문과 범례, 목록이 남아 있어 읍지의 편찬 목적과 전체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박기수는 서문에서 수원이 화성유수부로 승격된 지 근 40년이 지나도록 읍지가 편찬되지 않아 '화성 성역'의 의미가 망각될 것을 우려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44] 곧 『화성지』의 편찬은 화성 성역과 관계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둠으로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쯤으로 치부되고 말지도 모를 '화성 성역'의 정신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성지』, 「범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와 같은 의도는 「범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13조의 범례 가운데 첫 번째 조목에서 "읍지는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갖추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화성유수부의 3대 사건인 이읍과 승영, 축성 사실을 부편 3권에 편찬하였던 것이다.[45] 범례 12번째 조목에는 『화성성역의궤』가 정서(正書)이긴 하지만 혹 탈락된 것이 있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개역(改易)한

44 『화성지』, 「서(序)」. "府舊有誌病於太略 且華自陞營 卽是新造 而誌在陞營以前 卽是無誌也 陞營今且四十年 華人之及見當時者 往往矣而詢以事實 茫然殆無所省記 所存儀軌等書 各主一事 不足以悉一府之事 余懼愈久 而愈無徵 ……."

45 『화성지』, 「범례(凡例)」. "凡邑誌之書 分彙立目 記名識物 只得考工明度之體 終欠惇史摭實之法 殊非所以記事實 而備考據也 況華有事實之大者三焉 移邑也陞營也築城也."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추가하여 수록한다고[46] 하여 화성 성역 이후의 변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선생안」의 작성에서도 유수부 승격 이전의 「부사선생안」을 기록하지 않고 「유수 및 판관선생안」만을 작성하여,[47] 경기도 소속의 수원부였던 과거와는 분명한 차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화성지』는 수원부가 화성유수부로 승격되고 화성 성역을 비롯한 순조 대 수원의 변화가 수록된 종합자료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48]

(2) 자연지리 항목

『화성지』, 「산천」에는 하천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데 매향교천(梅香橋川), 상류천(上柳川), 진목천(眞木川), 대황교천(大皇橋川), 오목천 등의 하천이 추가로 기록된 것이다. 매향교천은 화성 화홍문과 남수문 사이에 놓인 매향교에서 따온 수원천의 별칭으로서 수원의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이고, 상류천은 수원천이 남수문 부근[龜川]을 지나면서 붙인 또 다른 별칭으로 이 부근에 남제(南堤)를 축조하였다. 만석거로 흘러들어 가는 진목천이 또한 중요 하천으로 기록되었고, 대황교천은 국왕의 능원 행차 시에 지나가는 대황교 주변의 하천으로 읍지에 실리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오목천은 1789년 현륭원을 천봉하고 1790년 현륭원에 행차하던 정조가 오목천(梧木川)이던 명칭을 오목천(鰲木川)으로 개명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기록되었다. 18세기 읍지에 누락되어 있던 이들 하천은 화성 성역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화성지』에 기록되었는데, 읍지에 기록된 산천의 증감(增減)은 당대에 중요시되던 산천의 변화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진도」에는 충청도 당진(唐津)으로 연결되던 대포진(大浦津)이 한진(漢津)으로 이름이 바뀌어 기록되었는데, 대포진이나 한진은 모두 '큰 나루'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지에 옮기는 과정에서 대포진이 한진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도서」에는 거매도(巨梅島)가 추가되고 아주도(鵝洲島)와 오동도(梧桐島)가 삭제되었다. 가사면(佳士面)에 있던 거매도, 아주도, 오동도 3개의 섬을 삼도(三島)로 칭하였는데, 해일로 아주도와 오동도가 침몰되고 거매도만 남게 되어 거매도를 곧 삼도로 칭한다고 기록하여[49] 자연재해에 따른

46 『화성지』, 「범례」. "華城儀軌 卽刊正之書 而或有脫落 且如行宮官廨之 或埃或聽 今多改易 故脫落處措語 而釐正之改易處 捨舊而新圖之 至於舊誌太半註誤 不足憑信 輒據今改錄 亦不一一措語."

47 『화성지』, 「범례」. "府旣陞營 職名與品階亦殊 府所置先生案 斷自陞營而別之 故今亦只載留守判官案 而府使案則不錄."

48 고종 대에 편찬된 2개의 읍지는 이 읍지를 내용에 따라 거의 전사(轉寫)하거나, 축소하여 기록하고 약간의 새로운 사실을 첨부하여 편찬한 것이었다.

49 『화성지』, 「도서」. "巨梅島 在府南百里佳士面 自該面水路十里 舊有巨梅鵝州梧桐三島 鵝州梧桐海溢沈沒 今只有巨梅 猶稱三島."

지형의 변화가 읍지에 반영되었다.

(3) 행정과 경제 항목

「건치연혁」은 수원부가 1789년 현륭원 천봉 후에 광주의 일용면과 송동면이 편입되고 1793년 유수영으로 승격되면서 장용외영과 판관을 설치한 후 1796년 경기감영 소속의 양재역(良才驛)을 이설하여 영화도역(迎華道驛)을 설치하였으며 1801년 장용영이 혁파된 사실이 기록되었다. 또한 진관 12읍은 유수영 승격 이후에 진관을 남양부(南陽府)로 이속하고 속5읍과 충청도 평신진(平薪鎭)이 군무로 속읍진이 되었다. 「읍명」에는 화성이 추가로 기재되었는데 "정종 갑인년 명명(命名)"이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화성의 명명은 1793년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정조가 명명했던 것으로,[50] 1년의 차이가 있다.

수원의 관직과 이속을 살펴보면 수원유수는 문관 정2품 이상의 대신(大臣)이 임명되었고 무신의 경우는 반드시 특지(特旨)를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는 경관직(京官職)으로서 비변사제조와 장용외사, 행궁정리사를 예겸하였고 1801년 화령전 건립 이후에는 화령전 제조를 겸하였다. 1802년 장용영 혁파 이후에는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의 겸직이 없어졌고 총리사를 겸직하게 되었다. 수원유수를 보좌하기 위해 1793년에 종5품의 판관[51]과 종9품의 검률(檢律)이 설치되었고, 1796년에는 양재도역을 영화역으로 옮기면서 종5품의 찰방(察訪)이 임명되었다. 1801년 화령전 건립과 함께 종9품의 수문장(守門將) 2명이 배치되어 중앙에서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관원만 중군까지 7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임(儒任)으로는 도유사(都有司) 1인, 유사 4인, 장의(掌議) 8인, 색장(色掌) 4인, 훈장(訓長) 2인 등 19명이 있으며, 향관(鄕官)은 좌수(座首)와 각창감관 6명, 각 면에 풍헌(風憲) 39명 등 46명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관청에 소속된 서리 90명, 청직[청지기] 50명, 사령 40명, 관노 46명, 관비 40명 등이 화성유수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여기에 장용영이 혁파된 이후에도 겸직을 제외한 장관(將官)이 403명으로 나타나 화성유수부는 총 734명의 관원과 이속이 유수 아래 배치되어 있는 대규모 행정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속 가운데는 유수부의 설치와 함께 아전과 통인의 명칭이 각각 서리와 청직으로 개칭되었으며, 향소의 인원이 4명에서 19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유임(儒任)의 직임 가운데

50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1월 병오.

51 『화성지』 권1, 「관직」. "判官 一員 蔭從五品 癸丑置 初兼壯勇外營從事官 丁巳兼管城將 辛酉兼華寧殿令 壬戌壯勇外營從事官減下 改兼總理營從事官."

훈장은 승격 이전에 1명을 두었는데 1798년 특교(特敎)로 1명을 더 두어 청직을 훈도하게 하였다.[52] 이러한 조치는 화성행궁의 각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청지기를 훈장으로 하여금 궁중[行宮]의 격식을 교육하려는 의도였다.

화성유수부는 화성의 방비를 위해 「속읍」을 두었는데, 진위현, 용인현, 안산군, 과천현, 시흥현 등이다. 또한 영화도역과 충청도 평신진이 각각 「속우(屬郵)」와 「속진(屬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5읍의 수령은 각 방면의 위장을 겸하였는데, 1798년에 진위현령은 팔달위장, 용인현령은 창룡위장, 안산군수는 화서위장, 과천현령을 장안위장, 시흥현령은 협수위장으로서 화성의 용도(甬道)를 지키게 하였으며 영화도찰방은 척후장, 평신진장은 둔아병의 파총(把摠)을 겸직하였던 것이다. 5읍의 수령 및 영화도찰방, 평신진장 등이 임명되면 화성유수가 전령을 내려 지휘하며 군무에 대한 인사고과를 작성함으로써[53] 속읍의 수령을 지휘하게 하였다.

『화성지』에는 유수영으로 승격된 이후에 2부 38면 449동으로 개편되었다. 즉, 부내를 이루고 있던 남리는 고등촌면과 합쳐 남부(南部)로, 북리는 광교면과 합쳐 북부(北部)로 편제되었는데 읍치와 그 주변이 확장되어 대도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구읍치의 문수당면과 시봉면 그리고 인근의 삼미면을 합쳐 문시면(文市面)이 되었으며, 남곡면에 정송면이 편입되고, 오타면에 금물촌면이, 공이향면[공향면]에 서북면, 팔탄면에 모전면, 장안면에 마정면, 우정면에 나곶면과 화방면이 편입되었다. 이렇듯 광역화된 면리조직은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 각 면에는 풍헌과 약정, 기찰, 이정, 권농을 각 1인씩 두었는데, 다만 형석면(공석면)의 풍헌이 일용면의 풍헌까지 겸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9개의 창(倉)에 부근의 면을 소속시켜 세곡의 수납을 관리하게 하였다.

「성곽」은 화성의 전체 규모와 주요 시설물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는데 『화성성역의궤』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던 어제시(御製詩)와 상량문을 각 시설물과 관계된 시문(詩文)과 함께 수록하여 위치, 건립시기, 시설물의 구조, 어제시, 상량문의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산성」은 18세기 읍지에서 독성산성의 규모와 군사의 숫자, 위치와 역대 사실만을 기록하였던 것에 비하여 『화성지』에서는 이정구, 이우신(李雨臣 : 1670~1744), 이의풍(李義豊), 박기수 등이 지은 기문(記文)을 정리하고 독성산성의 여러 시설물을 기록하였다. 독성산성의 규모는 둘레 1,010보에 4개의 문(남문과 서문에는 문

52 『화성지』 권1, 「유임」. "訓長 舊有一員 訓導吏胥子侄 正宗戊午因 特敎 增置一員 分設南北堂 使之訓導廳直 自營差出 有料."
53 『화성지』 권1, 「관직」. "…… 縣令新除後 自本營成傳令差下 以軍務磨勘殿最 五邑一郵一鎭 皆同."

루가 있었음)과 암문(1805년 건립) 등이 설치되었으며, 군사가 주둔할 수 있도록 총 167.5칸이 넘는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1792년(정조 16)에 한 차례 중수한 독성산성은 순조 대에도 관청의 건립과 군기고의 개건, 진남루의 중수가 이루어졌다. 독성산성은 수원유수부의 중군이 예겸하는 별장 아래 유진장(留鎭將) 1명, 궁전감관(弓箭監官) 1명, 각 창고감관 3명, 별군관 6명, 성문장 4명, 초관 5명, 아전 21명, 통인 10명, 사령 7명, 관노 7명, 관비 2명, 순뇌(巡牢) 7명, 성문 군졸 4명, 산직 5명 등의 상비 행정조직과 수성군(守城軍) 2,226명, 납미군(納米軍) 1,941명으로 편제된 군사조직을 갖추고 화성과 협수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성내에 126호, 성외 인근에 127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1831년 『화성지』 화성성곽

「교량」은 화성행궁 앞에 1789년에 신축된 신풍교가 1791년 읍지에 누락되었다가 『화성지』에 기록되었다. 매향교는 처음에 오교로 불리던 나무로 만든 다리였으나 1814년(순조 14) 석교로 건립된 다리로 화성행궁에서 창룡문 방향으로 통행하는 교량이다. 매교(梅橋 : 1825년 이건), 여의교(如意橋 : 진목정교를 1796년 개명), 목욕동교(沐浴洞橋), 괴목정교(槐木亭橋), 오목천교(鰲木川橋 : 1805년 건립), 유근교(逍覲橋 : 1795년 개명) 등 국왕의 능원행차가 지나가는 필로에 위치하였던 다리들이 대부분이다.

「봉수」는 정조 대 읍지에 홍천산봉수만 기록되었던 것이 『화성지』에서는 건달산(乾達山)봉수와 안산(案山)봉수가 추가로 기재되었다. 건달산봉수는 1796년에 설치한 서봉산 간봉(間烽)이 1821년(순조 21) 건릉을 현재의 자리로 천봉한 후 봉수의 불빛이 건릉에서 보이기 때문에 건달산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연결 봉수는 서봉산과 마찬가지로 홍천산봉수와 안산봉수이다.[54] 안산봉수는 화성의 봉돈을 일컬으며 서쪽의 건달산봉수와 동쪽의 용인 석성산봉수와 호응하며 화성행궁과 직접 연결된다.[55]

54 『화성지』 권2, 「봉수」. "乾達山烽燧 在府南三十里 葛潭面 正宗丙辰置間烽於棲鳳山 當宁辛巳 遷陵後移置於此 西準興天山烽 東應案山烽."

「제언」에 나타난 변화는 자못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세기 읍지에 기록된 23개의 제언은 대부분 3석락에서 15석락 내외의 중소 규모 제언이었는데 그중 수금제(水今堤), 방답제(方畓堤), 신영제(新永堤), 지의제(知義堤) 등 4곳의 제언은 이미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화성지』에는 정조 대에 축조된 만석거, 축만제, 만년제와 더불어 순조 대에 축조한 남제(1825년)가 추가로 기록되었다. 각 제언은 감관 1인과 감고(監考) 1명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는데, 만석거와 축만제의 감관은 장교 가운데서 차출하였다.

『화성지』에서는 수원부 재정 중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던 「둔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조 대에 설치한 대유둔을 비롯하여 축만제둔, 유천둔 및 순조 대에 설치한 둔전까지 기록되어 있다. 각 둔전은 화성부의 각 고(庫) 및 소(所)에 소속되어 이들 관청의 경비를 마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둔전의 명칭과 면적, 설치 연도, 담당관청, 세전(稅錢) 등은 〈표 3〉과 같다.

필로는 국왕의 능원 행차 시에 잠시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지점으로 『화성지』에는 지지현–지지대–주필대–괴목정교–일용리–여의교–만석거–기하동–대유평–영화역–관길야–장안문–행궁–팔달문–매교–만화현–건장동–하유천–황교(소황교)–옹봉–대황교(황교 1795년 改命名)–능원소화소–유첨현–안녕리–유근교–만년제–능원소동구 등 27개 지점으로 지지현으로부터 행궁까지의 거리는 12리, 행궁에서 현륭원은 28리, 건릉은 29리가 된다고 하였다.

필로의 각 지점에는 표석[56]과 장승[長柱][57]을 세워 이정표로 삼았는데, 지지대와 주필대는 대면(臺面)에 글자를 새겼다. 표석은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처음에 18지점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58] 표석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16지점에 세워졌다.[59] 그런데 『화성지』에서는 상류천, 옹봉, 유첨현 등이 제외되고, 영화역과 능원소화소가 추가되어 『화성지』 편찬 당시에는 옹봉과 유첨현의 표석이 장승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지』에는 해당 지점과 관계된 사실을 각 지점별로 기록하였는데, 특히 매교의 이건(移建)이 주목된다. 매교 부근의 길이 습지인 까닭에 1825년 유수 김이양(金履陽 : 1755~1845)에 의해서 100여 보 북쪽으로 옮겨 가설하여 필로의 노정에도 약간의 변화를

55 『화성지』 권2, 「봉수」. "案山烽燧 在府東城 丙辰置 西準乾達山烽 東應龍仁石城山烽."

56 『화성지』, 「필로」에 의하면 수원 지역에 표석으로 세워진 곳은 지지현, 괴목정교, 여의교, 만석거, 대유평, 영화역, 관길야, 매교, 하유천, 황교, 대황교, 능원소화소, 안녕리, 유근교, 만년제 등 15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57 『화성지』, 「필로」. 장승이 세워진 곳은 일용리, 기하동, 만화현, 건장동, 옹봉, 유첨현, 능원소동구 7곳이다.

58 『화성성역의궤』 부편2, 「내관(來關)」 2, 병진 2월 2일.

59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財用)」 하, 실입(實入)3, 각항별하조(各項別下條). "지지현, 괴목정, 여의교, 만석거, 대유평, 관길야, 매교, 상류천, 하유천, 옹봉, 소황교, 대황교, 안녕리, 유첨현, 유근교, 만년제 합 16처"

〈표 3〉 둔전 소속의 변화

둔명	설치 시기	원 소속	1831년	1899년	면적	세전
유천둔(柳川屯)	1796	장용영	분봉상시(分奉常寺)	선희궁(宣禧宮)	전답 12결 58부 4속	100냥
신천둔(信川屯)	1796		분봉상시	경부(京府)	전답 38결 65부	700냥
평산둔(平山屯)	1799		분봉상시	경부	전답 12결 36부	130냥
송동둔(松洞屯)	1801	건릉	건릉	궁내부(宮內府)	전답 32석 12두 1승락	180냥
시흥둔(始興屯)			건릉	궁내부	답 18석 11두 5승락	100냥
안성둔(安城屯)			건릉	궁내부	답 22석 3두 5승락	500냥
진위둔(振威屯)			건릉	궁내부	전답 113석 18두락	720냥
양성둔(陽城屯)			건릉	궁내부	답 18석 16두락	
연산둔(連山屯)	1796		관천고(莞千庫)	경부	답 25결 21부 8속	700냥
오타둔(五朶屯)	1802 이속(移屬)	장용영	수리소(修理所)	선희궁	전답 10결 64부 7속	104냥 5전
용인둔(龍仁屯)		장용영	수리소	경부	전답 5결 38부 9속	75냥 4전 4푼
안산둔(安山屯)		장용영	수리소	선희궁	전답 4결 6부 9속	42냥 6전 8푼
대유둔(大有屯)	1795	수성고	수성고	선희궁	답 12석 12두 4승락	764석 6두 5승
축만제둔(祝萬堤屯)	1799	수성고	수성고	선희궁	답 83석 15두 4승락	556석 14두 4승
신천마정둔(信川馬井屯)	1797	군기고	군기고	경부	답 4결 3부 7속	60냥
신천가곶방둔(信川加串坊屯)	1800	군기고	군기고	경부	답 7결 11부 8속	45냥
은율광암둔(殷栗廣巖屯)	1796	은율현	군기고	경부	답 34결 42부 7속	50냥
백령대소청둔(白翎大小靑屯)	1793		군기고	경부	정철(正鐵) 광산(鑛山)	대전(代錢) 30냥
삼도둔(三島屯)	1796		책응고(策應庫)	궁내부	언답(堰畓) 24결 47부 7속	400냥
결성둔(結城屯)	1813		팔색고(八色庫)	경부	답 4결 38부 5속	40냥
포내둔(浦內屯)	1789 이전		고마고(雇馬庫)	궁내부	답 2결 35부 6속	8석 7두 2승
평신진둔(平薪鎭屯)	1794	목장 이속	영고(營庫)	경부	전답 388결 70부 9속	3,000냥
용인험천둔(龍仁險川屯)	1798 이속	수어청(守禦廳)	호방	경부	전답 17결 13부 3속	71냥 9전 4푼
용인부곡둔(龍仁釜谷屯)			호방	화령전	전답 61결 11부	349냥 4전 7푼
용인도촌둔(龍仁道村屯)			호방	경부	전답 14결 62부 7속	91냥 6전 9푼
용인모현둔(龍仁慕賢屯)			호방	궁내부	전답 20결	90냥 4전 9푼
과천안양둔(果川安養屯)			호방	경부	전답 4결 42부 5속	39냥 7전 2푼
석장둔(石場屯)	1793 이속	진휼청	호방	선희궁	답 31결 7부	130냥
숙성수포둔(宿城搜浦屯)	1797		호방	선희궁	언답 5결 33부	16석
양향둔(糧餉屯)	1793	양향청	이아(貳衙)	선희궁	전답 36결 45부 5속	80석

가져왔다.[60] 즉, 매교에서 상류천을 거쳐 하류천으로 가던 길이 만화현과 건장동을 거쳐 하류천으로 지나가게 된 것이다.

2) 1894년 『기전영지』「수원부읍지」와 『기전영사례』「수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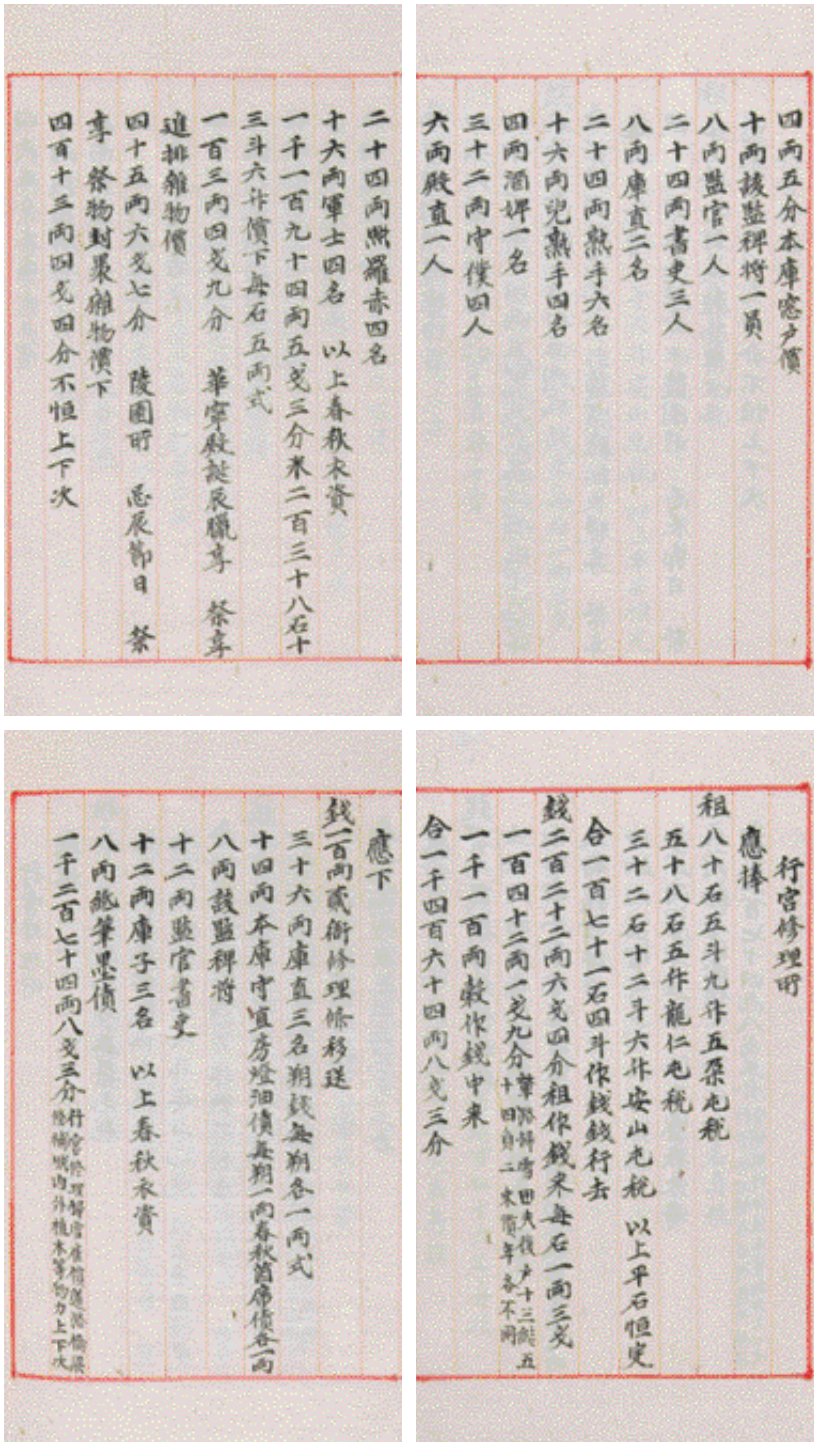
(1) 편찬 목적과 성격

고종 대에는 1871년, 1894~1895년, 1899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읍지가 편찬되었는데, 유수부는 경기도와 별개의 행정구역이었으므로 1871년에 편찬된 『경기읍지』에서 제외되었다. 1894년(고종 31)에는 경기도읍지로 편찬된 『기전읍지』와는 별도로 유수부 지역을 별도로 모아 『기전영지』를 만들 때 「수원부읍지」가 작성되었다. 1894년의 읍지들은 각 군현의 현황 파악보다는 고종 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으로 이어지는 제반 사회경제개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사례(事例)」에 비중을 두어 작성되었다. 수원 지역은 개성, 강화, 광주, 수원 등의 4유수부의 재정 운영을 수록한 『기전영사례』(규 12200)의 제4책으로 작성되어 『기전영지』의 「수원부읍지」와 『기전영사례』의 「수원사례」를 합하게 되면 당시 전국적으로 작성된 각 지방의 읍지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다.

『기전영지』는 총 45개 항목 가운데 부세, 재용, 세입, 환향진곡 등의 항목이 비교적 자세할 뿐이고, 나머지 항목은 『화성지』에서 제외하였던 「부사선생안」을 명단만 다시 기록하였다. 『화성지』의 자세한 설명을 빼고 각 항목별로 중요한 시설물이나 사실을 간략하게 축소하여 『화성지』의 편찬 이후 60여 년간의 사회 변화를 폭넓게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화성지』를 토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기전영지』에서는 여의교가 1854년(철종 5)에 석축으로 재건된 사실과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혁파령으로 말미암아 수원 지역에 있던 사원이 혁파된 사실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등 수원 지역의 변화상이 일부 들어 있으나 내용이 너무 소략한 단점이 있다.

「수원사례」는 수원부의 각 고(庫)와 각 소(所)별로 수입과 지출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갑오개혁 이전의 수원의 재정 및 경제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되며, 각 둔전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읍지의 편찬은 1894년 당시 수원부유수였던 조병직(趙秉稷 : 1833~1901)이 주관하여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0 『화성지』 권2, 「필로」, 매교(梅橋).



『기전영사례』의 「수원사례」 각 고와 소별 수입과 지출 부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 내용적 특성

1894년 읍지에는 용연을 비롯하여 만석거, 축만제, 곤신지 외에 남창지와 동창지가 추가로 기록되었다. 남지, 북지와 함께 화성 성역 당시에 조성되었던 동지(東池)가 19세기 읍지에는 누락되어 있다. 「봉수」에서는 건달산봉수 대신에 형제봉(兄弟峰)봉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봉의 위치를 보면 "형제봉봉수 부 남쪽 35리에 있다." 고 하여 건달산과 거리가 같은 것으로 보아 건달산의 별칭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누대」에는 화성의 성곽 시설이기도 한 방화수류정과 각건대, 화양루 및 화성행궁 안의 미로한정, 만석거 옆의 영화정, 축만제 옆의 항미정 등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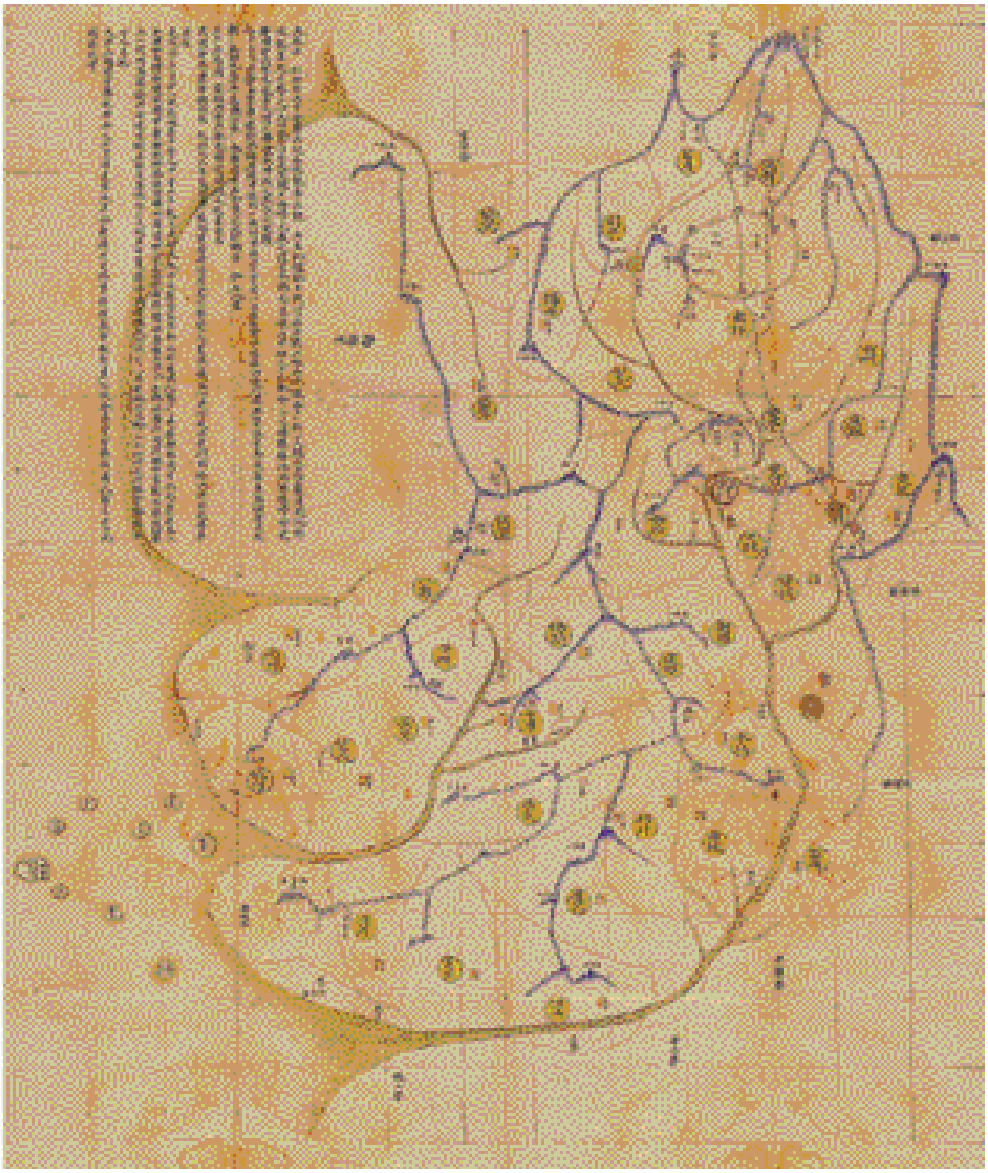
「고적」은 팔달산, 광교산, 학사정(學士井), 조대(釣臺), 독성여왕릉(禿城麗王陵), 세마대(洗馬臺), 삼천병마동(三千兵馬洞) 등이 기록되었다. 1791년 읍지에 수록되었던 망천과 권선리가 제외되고 독성여왕릉이나 세마대, 삼천병마동이 새로 채록된 것은 1831년 『화성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행궁」에는 각 건물과 출입문의 명칭이 잘 기록되어 있으나 위치와 방향, 건물칸수만 기록하여 내용이 소략한 단점이 있다. 「전우」에는 화령전을 건립하기까지의 연혁과 어진(御眞) 봉안 등의 사실이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향교」에는 홍선대원군의 사원혁파 조치 이후 궐리사에 봉안되어 있던 공자영정 3본을 수원향교 대성전으로 옮겨 봉안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영정은 1793년 창건 당시 내각에서 내어 주었던 영정이 낡아 1851년 강릉의 오봉서원과 제천현에 있던 영정을 옮겨 봉안한 것이다.[61]

과거 항목을 보면 수원유수부에서는 문무과 별시를 비롯하여 공도회, 도시(都試), 취재도시(取才都試), 화포과(火砲科) 등 5종류의 과거가 치러졌다. 문무과는 행행 시에 반드시 특지(特旨)를 받아 시행하는 별시로 문과는 수원 부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무과는 속5읍을 포함하여 거행하였다. 매년 겨울에 공도회를 열어 제술(製述)과 강(講)을 시험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시부(詩賦)로 4인을 선발하였다. 또한 도시는 별효사와 장교들을 대상으로 춘추로 설행하였고, 매년 6월에는 별군관을 대상으로 취재도시가 열렸다.

화포과는 1866년 병인양요를 겪은 후 1868년부터 만들어져 매년 춘추 도시 때에 1인을 선발하여 직부전시하게 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수원부계록』에 의하면 1867년에 이미 화포과가 실시되고 있어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62] 1869년에는 「화포과절목」이 반포되어 실력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63] 이때 육성된 포군은 수원 지역에 이양선

61 『수원부계록』 제1책, 함풍 원년 8월 25일.
62 『수원부계록』 제2책, 정묘 2월 25일.



「수원부지도」(1872년, 수원박물관 소장)

(異樣船)이 출현하였을 때 출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64]

63 『화영신정식절목』, 「화포과절목」.
64 『수원부계록』 제2책, 무진 4월 19일.

「각고속둔」 조항에는 새로 설치된 둔전이 기록되어 있어 순조 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둔전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화성지』에 기록되지 않았던 안산둔(安山屯)이 영고(營庫) 속둔으로 250석락(31결 7부)이었으며, 논 32결 90부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신환둔(新換屯)[65]은 흥선대원군이 수원부 포군(砲軍)의 육성을 위하여 1870년에 설치한 신집복고(新執復庫)에 소속된 둔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66]

신해통공의 시행 후 100여 년이 지난 후에 편찬된 『기전영지』에는 「시전」 조항이 없어지고 「장시」가 대신 기록되었다. 시전이 있던 십자로(지금의 종로사거리)를 벗어나 남문외장(남암문 부근으로 현재의 남문시장과 영동시장 일대)이 열리고 있었으며, 수원부 외곽으로 세람장(細藍場 : 안녕면), 오산장(청호면), 팔탄장(팔탄면), 판교장(板橋場 : 토진면), 안중장(오정면), 사사곶장(沙士串場 : 초장면) 등 7곳의 장시가 5일 간격으로 수원부의 각 지역에서 시장이 열렸다. 장시에 대한 기록은 『대동지지』와 일치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개설된 장시가 계속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1899년 『수원군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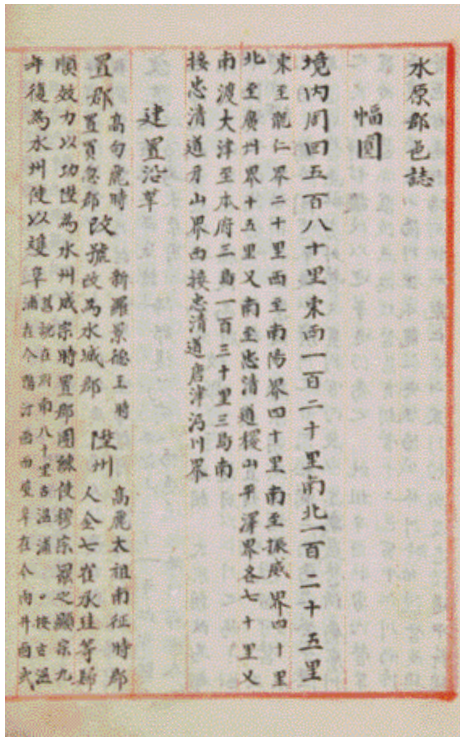
(1) 편찬 목적과 성격

『기전영지』의 편찬 이후 5년이 지난 1899년(광무 3)에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읍지 편찬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부의 읍지가 만들어졌다. 당시 수원군수 이범선(李範善)이 편찬하였다. 중앙에 2부씩 필사하여 올린 것으로 그중 『수원군읍지』는 규장각에 1부가 소장되어 있고, 다른 1부는 장서각(장 2-4251)에 소장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같다. 수원부는 1895년 5월 유수부가 폐지되고 수원군으로 편제되어 읍지의 명칭도 『수원군읍지』로 바뀌는 변화를 가져 왔다. 이 읍지 역시 『화성지』를 전사하는 데 그쳤지만, 『기전영지』보다 충실하게 『화성지』를 전사함으로써 『화성지』 가운데 일실(逸失)된 3권과 4권의 상당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는 『기전영지』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을미개혁의 결과 각 항목의 내용 중에 1895년 이후의 사실이 추가되었는데 관직, 각 창의 폐지와 부세, 군총, 성곽 순라제의 변화 등이 기록되었다. 또한 관찰부, 지방영, 우체사, 소학교 등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고 선생안에도 관찰사, 수원군수 항목이 신설되어 시대의 변화를

65 『기영사례』 제4책, 「수원사례」, 집복고(執復庫).
66 흥선대원군의 군비 강화에 따른 수원의 포군 설치에 관해서는 연갑수,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제8호, 1997, 80~81쪽 참조.

반영하였다.

『수원군읍지』의 기록을 통해 19세기 여러 변화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건치연혁」에서 1895년 을미개혁으로 유수영이 폐지되면서 속5읍과 속진(屬鎭)체제도 함께 해체되고, 수원군으로 강등되었다. 1896년에는 (경기도)관찰부가 수원군에 설치되는 등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이 있었다. 수원 지역은 1793년 화성유수부로 승격된 후 100여 년 만에 경기도 수원군으로 편입되는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관직」에서는 『화성지』를 전사하고 각 관직 밑에 "을미폐(乙未廢)"라고 부기하였으며, 면별로 임명되었던 풍헌, 약정, 기찰, 이정, 권농 각 1인씩의 향임(면리임)이 폐지되고 면장, 이장, 권농 각 1인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67] 「성곽」의 방어는 화성의 4대문(팔달문, 장안문, 창룡문, 화서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군졸 13명이 1895년 폐지된 후 순검 1명씩 윤회하며 검찰하는[68] 것으로 변화한 내용이 있어 화성 수비체제가 을미개혁 이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水原郡邑誌
幅圓
境內周四五百八十里東西一百二十里南北一百二十五里
東至龍仁界二十里西至南陽界四十里南至振威界四十里
北至廣州界十五里又南至忠清道稷山平澤界各七十里又
南渡大津至本府三島一百三十里三島南
接忠清道舟山界西接忠清道唐津沔川界
建置沿革
置郡 高句麗時 新羅景德王時 改 改為水城郡 陵州 高麗太祖南征時郡
順效力以功世為水州成宗時置郡圍繞使移宗 眞之顯宗九
年復為水州使以遵 卒 在今南井面

1899년 『수원군읍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적 통신수단인 전신(電信)이 들어오게 되자 「봉수」가 담당하던 비상연락 업무를 우체사(郵遞司)가 대신하였기 때문에 수원 지역에 있던 3곳의 봉수가 모두 폐지되었고 역(驛)도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69] 수원 지역의 여러 둔전도 을미개혁 이후 관리관청이 선희궁과 궁내부, 한성부, 화령전으로 기록되어 있어 왕실 재정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내용적 특성

「전우(殿宇)」에 기록된 화령전은 제조를 비롯한 관원 및 분봉상시(分奉常寺)에서 전내

67 『수원군읍지』, 「방리」. "凡四十面四百四十九洞 各面風憲約正議察里正勸農各一人 今廢只面長里長勸農 各一人."
68 『수원군읍지』, 「성곽(城郭)」. "四城門將各一員 卒十三名 乙未廢止以後巡檢一人式輪回檢察."
69 『수원군읍지』, 「역우(驛郵)」. "迎華驛 …… 今廢."

(殿內)에 소요되는 물품을 마련하고, 제조와 위장이 매달 5일 간격으로 봉심하고 3개월마다 초1일에 대봉심하며 탄신일(誕辰日)과 납향일(臘享日)에 제사하는 규정 등이 있는데 자세한 봉심장소와 화령전의 물품, 제사의례 등은 『화령전응행절목』[70]에 기록되어 있다. 사원의 성격상 「단묘」에서 다뤘어야 할 성신사[71]와 성황사가 「사원」에 기록되어 있고, 「단묘」에 신실(神室)[72]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읍지에서도 「과거」 조항이 없어졌다.

장서각 소장의 『수원군읍지』에는 속편으로 「화성행궁」과 「화성지 속편(續編)」이 부록으로 붙어 있다. 「화성행궁」은 화성 성역과 을묘년 원행, 고종의 능원 행차 중에 지어진 시문을 정리한 것이다. 1795년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맞아 정조가 지은 「자궁행화성행궁 진찬일 악장」과 「장락오장」, 채제공이 지어 올린 「관화오장(觀華五章)」을 수록하였고 그 뒤로 1870년 3월 고종의 능원 행차 시에 지은 이유원(李裕元), 김병학(金炳學), 이최응(李最應), 이재원(李載元), 이재면(李載冕), 조성□(趙成□), 남정순(南廷順), 한경원(韓敬源), 이세용(李世用), 정범조(鄭範朝), 조경호(趙慶鎬), 이능섭(李能燮), 송희정(宋熙正), 김성근(金聲根), 홍원식(洪遠植), 이유승(李裕承), 이종진(李鍾晉), 이명응(李明應), 이근수(李根秀), 이기호(李起鎬), 김성균(金性均), 박호양(朴顥陽), 조병호(趙秉鎬), 박정양(朴定陽), 이승우(李承宇), 황보연(黃普淵), 박용대(朴容大) 등 고종의 여러 신하들이 지은 글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1804년 이만수(李晩秀)가 정조의 시에 차운한 「정묘어제(正廟御製) 목갑(木匣) 게행궁실중(揭行宮室中)」, 정조의 1796년 수원부에 내린 윤음(綸音), 봉수당 상량문, 수원부 읍치 이전 당시에 수원부에 내린 각종 윤음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석형의 「운금루시(雲錦樓詩)」와 이정구의 「어목헌시(御牧軒詩)」를 정조가 어필(御筆)로 써서 병풍으로 만들어 화성행궁에 비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화성지 속편」은 화성의 장안문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동장대 · 창룡문 · 팔달문 · 서장대 · 화서문 등 주요 시설물과 화성행궁의 각 건물에 걸린 각종 현판과 상량문 · 중수기 등을 수록하였고, 항미정과 영화정 · 지지대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여의교 · 만석거는 항목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미완성기록인 것으로 짐작된다. 「화성지 속편」은 항미정에 1872년 유수 신석희(申錫禧)가 지은 「중수항미정기(重修抗眉亭記)」와 1897년 관찰사 오익영(吳益泳)이 지은 「중건기(重建記)」가 실려 있어 『화성지』 편찬 이후

70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규 3240).
71 『화성성역의궤』 권1, 「전교(傳敎)」 병진 9월 17일. 정조는 화성의 성역이 완성되는 대로 성신사(城神祠)를 먼저 세우라고 명하였다.
72 『수원군읍지』, 「단묘」. "神室 在于華觀(客舍)之東 辛卯(1831)重修三間 繚以方垣 前設小門."

의 각종 시문을 종합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이 단행됨으로써 10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수원유수부가 수원군으로 강등되는 변화를 맞이하였으나 고종 대 읍지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화성지』가 편찬된 이후에 있었던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일제의 침략을 맞았다. 「풍속」에서 보았듯이 문예기반이 취약한 수원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지지(地誌)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화성 성역의 결과 일어난 많은 역사적 사실과 유적들이 오늘에 이르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

1. 팔경의 문화현상적 함의(含意)와 텍스트성
2. 수원팔경을 보는 시각과 관점
3. 수원팔경의 형성 배경과 내용
4. 문화경관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제4장

문화경관으로 본 수원팔경의 형식과 의미[1]

수원 화성(사적 제3호)은 정약용(1762~1836)의 『성화주략(城華籌略)』을 바탕으로 1794년(정조 18)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축성되었다. 400년 전 한양 정도(定都 : 1394년)를 의식하여 이루어진 화성 건설은 왕조 중흥의 사명의식, 사도세자에 대한 국왕의 효심, 관료학자와 예술가들의 능력과 과학기술의 성과가 총동원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2] 화성은 다른 성곽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방어시설 등 여러 측면의 뛰어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04년에는 미국토목학회(ASCE)로부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계단식 논(Ifugao Rice Terrace)에 이어 두 번째로 역사적 토목구조물로 선정되었다.[3] 이와 같은 토건적 위업 이외에 화성의 또 다른 성과는 도시경관의 계획적 배려에서 찾을 수 있는데 화성은 러시아의 성 페테르부르크, 미국의 워싱턴과 함께 18세기 조성된 세계 3대 신도시 구상으로 평

1 이 글은 2008년 『조경학회지』 36권 1호에 발표되었던 졸고 「수원팔경의 형성배경과 문화경관적 함의(含意)」를 바탕으로 심화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2 박현모,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화성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34, 2001, 65~100쪽.
3 이태식 · 김정현 · 이동욱, 「역사적 토목 구조물 수원 화성」, 『자연과 문명의 조화』 52(9), 2004, 97~101쪽.

가받기도 한다.[4] 또한 하워드(Howard : 1850~1928)가 영국에서 전원도시 구상을 발표한 것이 1898년이며 이 구상이 신도시 레치워스에서 실현된 것은 1946년이었음을 볼 때 화성 전원도시 구상은 이보다 100여 년 앞서고, 그 실천은 무려 150여 년이 앞선다. 화성을 신도시 또는 전원도시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첫째로 수도 한양을 모도시로 조성한 위성도시였고, 둘째로 신도시의 번성을 위해 수도 기능 일부를 이전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자족적인 도시로 키우려고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5] 특히 자족 · 자립형 도시 육성을 목표로 용수의 공급, 관개시설과 둔전의 설치를 통한 자족성의 확보,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하면서 식재와 녹지계획을 구상하였다는 점[6] 등에서 전원도시적 발상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용미학, 경관생태학적 접근 과정 속에서 이 시기 화성 내외부에는 화성춘 · 추팔경으로 꼽힐 만큼 수려한 풍경이 새로 구축되었고, 이후 수원팔경의 원전(原典)이자 수원의 대표적 경관상의 모태로 회자되어 왔다. 그러나 정조 사후 시세 위축과 정체를 겪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수원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화성과 화성팔경 및 그 주변부는 본래 모습의 상당 부분이 변질되었거나 소실되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성의 복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 복원만이 아닌 화성 원형경관 이해를 전제로 한 의미복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18세기 후반 화성의 도시원형 복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옛 모습 재현사업'과 화성 관련 '7대 핵심사업'[7]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화성의 원경관 파악과 경관정체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도 근대 역사문화도시의 풍경 복원과 보전을 위해 주민 합의로 지역경관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한 오타루시(小樽市)의 성공적 사례[8]를 필두로 일본 문화청에서는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개념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시 문화재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9] 최근에는 아오키(青木陽二)와 사카키바라(榊原映子)[10] 등이 주축이 되어 일본 팔경의 분포는 물론 최근의 연구동향을 정리함으로

4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 복원과 전망 : 21세기 한국문화의 위상과 성찰」, 『인문콘텐츠』 제8호, 2006, 197~213쪽.

5 손정목, 「세계최고의 계획된 신도시– 화성; 신도시 화성건설의 이념과 수법」, 『도시문제』 11(9), 1976, 51~86쪽; 안경환, 「수원화성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제16집, 2001, 87~94쪽.

6 윤종태, 「수원화성(유천성) 원형경관에 나타난 버드나무에 관한 연구」, 한경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백종철, 「정조시대 화성의 가로, 녹지, 수리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7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 관련 7대 핵심사업은 ① 팔달산 회주도로 정비, ② 화성행궁 앞마당 조성, ③ 수원천 정비, ④ 역사유적 복원, ⑤ 옛길 역사문화거리 조성, ⑥ 수원 화성 문화콤플렉스 조성, ⑦ 팔달로 보행광장 조성 등이다.

8 양성욱, 「아름다운 근대역사문화도시의 풍경보전」, 『건축』, 2007년 5월, 46~50쪽.

9 오민근, 「역사 · 문화의 경관관리에 의한 공간문화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형성」, 문화경관 보존과 형성/전주시 Artpolis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자료, 전주시 · 전북대학교, 2007, 69~82쪽.

써 지역 내 각 팔경의 특성과 지정배경[11]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앞으로의 문화경관 지정 및 보존의 기초 자료화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전하는 수원팔경에 대한 것은 일제강점기 '집경설(集景說)'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의견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또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화성 축조 이후 수원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화성춘·추팔경'의 내용과 의미를 밝히는 한편, 지금까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수원팔경'으로 정착되었는지 등을 모색함으로써 '문화경관 수원팔경'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1. 팔경의 문화현상적 함의(含意)와 텍스트성

1) 팔경의 의미

자연은 주체자의 기호에 따른 인식 대상이자, 특히 산수(山水)는 누구나 좋아하는 미적 관조대상이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우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변도 하나의 소우주로 생각하여, 자신이 기거(寄居)하는 곳의 특이한 경물(景物)이나 물상(物象)을 인간 삶의 형태와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미적 가치개념의 표출로 형성된 것이 바로 전래 팔경(八景)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명승지를 시와 노래, 그림으로 세상에 알려 왔는데, 그 승경(勝景)은 주로 48·36·12·10·9·8·6·4경 등으로 불린다. 이 중에서도 8경을 가장 많이 택하였는데, 팔경이란 단순히 여덟 곳의 승경을 가리키지만은 않는다. 팔경은 팔방의 아름다움이자 아름다운 지역경관의 대명사이자 지역별로 선택된 경관의 전부를 뜻한다. 곧 그 고장의 팔경은 그 지역 자연 또는 문화경관의 정수(精髓)를 말한다. 우리 민족은 여덟 팔(八)자를 좋아한다. 이상주[12]는 팔경과 팔경시가 주역 팔괘의 이론을 토대로 구성되었음을 확신한 바 있다. 팔괘(八卦), 팔진(八鎭), 팔도(八道), 팔고(八苦), 팔면(八面), 팔자(八字), 팔난(八難) 등의 어휘에 내재된 '팔(八)'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팔'이라는 숫자에 내재되어 있는 동양적 수리관의 한 단면을 읽어 낼 수 있다. 팔이라는 숫자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과

10 青木陽二·榊原映子, 「八景の分布と最近の研究動向」, 『日本國立環境研究所研究報告』 第197號, 2007, 93~105쪽.
11 横谷賢一郎은 「近江八景之內」 唐崎夜雨의 배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石田尾博夫와 包淸博之는 「坊津八景의 경관적 의의(Requirements for their Revitalizatio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이상주 편역,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 동일, 2008, 9~24쪽.

현상의 모든 국면을 포괄하며 아우르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팔자를 좋아해 각 마을마다 팔경이 있고 긍지도 대단하며, 지역 주요 명승지와 연계된 팔경은 전원에 담긴 소박한 정신세계에 산수의 자연스런 형상세계를 아우르며 뿌리 깊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 고장 수원에도 수원팔경이 전해지고 있다.

수원팔경도 수원이라는 자연풍토의 토대 아래 문화적 정서가 담겨 있으며, 수원 지역 토착민의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수원팔경은 그 보존관리와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문화생태경관을 포괄하는 경영계획과 관광계획의 귀중한 지표이자 방향타로서 매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필자는 경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매우 장황한 표현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마다치 않는다. "경관이란 자연 또는 인공의 아름다움으로, 지각을 통한 체험의 대상으로 단순히 물리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거쳐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하는 제 과정의 복합적 산물이다." 즉 이러한 경관 정의는 경관의 대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재의 물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 등 오감(五感)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며, 과거에 생성되어 부가된 역사성과 상징성 등의 의미가 함축된 살아 있는 생물체와 같이 시대사조와 그 경관을 향유하는 경관주체에 의해 덧칠되고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최근 지역마다 역사적으로 전래되어 온 팔경을 조명해 단장하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아 경승지를 창조해 홍보하는 등 팔경 브랜드시대[13]를 맞고 있다. 수원팔경의 기원 또한 조선시대 정조의 화성 건설과 그 기원이 맞닿아 있음으로써 그 중요성과 고유 경관 브랜드로서의 가치 증폭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13 김종하와 배현미(「현대팔경(現代八景)의 선정특성에 따른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통권 148, 2006년 4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80년 이후 선정된 '현대8경'을 대상으로 그 선정 배경, 선정 과정상의 특성 그리고 활용실태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역 팔경의 선정은 '지역 경관의 활용'이 주목적이며, 1996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한 '볼거리 제공'이 주목적이었다. 조사 팔경 52개 중 '8경'으로 이루어진 집경은 39개로 75%를 차지하며, '10경' 6개(11.5%)로 나타나 이들 2개 형식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12경'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8경의 명칭은 전통팔경, 즉 '소상전형'이나 '소상유사형'에 따르지 않고 '명승지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 배경은 '이미지 개선', '비전 제시'와 '지역 경관의 자원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선정목적은 대외 이미지 앙양과 관광용이 80% 이상의 주목적임이 밝혀졌으며 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팔경의 원조 소상팔경과 그 문화현상

한 시대의 문화는 집단적인 수용 과정을 통해 축적된 공통 지식과 보편화된 경험의 상호작용을 거쳐 대중에게 확산되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전승 · 발전됨으로써 일정한 문화현상으로 정착하게 된다. 국내 팔경의 원조라고 알려진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동정호(洞庭湖) 주변의 절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 기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북송 때의 송적(宋迪)에 의해 1078년 그 형식이 정착되었다."[14]고 알려져 왔으나 그보다 한 세기 앞선 육국시대 이성(李成 : 이영구, 919~967년)이 처음 그렸다는 사실이 2006년 새롭게 밝혀졌다.[15]

소상팔경도는 실경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중국에서도 점차 이념화 · 이상화 · 관념화되면서 회화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중요한 시제(詩題)가 되었으며, 소상팔경은 아름다운 경치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승경의 상징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소상팔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래의 실경적 성격은 점차 잃었지만 그 속에서도 시각적 · 언어적 결속어를 유지한 채[16] 팔경문화는 전승되었고, 오랜 세월 다양한 계층과 예술 장르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문화현상은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현상으로 시간적으로는 1,000년 이상 지속되었고,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 삼국이 공유했으며, 계층적으로는 한 나라의 군주를 포함한 왕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고루 향유하였다. 그 문화 장르만 보더라도 회화는 물론이고, 시가문학에서 한시와 시조 · 가사 · 판소리 · 잡가 · 고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으로 전승되었다.[17] 이를 통해 볼 때 소상팔경은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 풍경 텍스트이자 문화콘텐츠였으나 실제 경치보다는 그 상징을 빌려 높은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관념산수(觀念山水)로 다듬어졌으며, 시대에 따라 미의식(美意識)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상팔경의 문화현상

14 문학 분야에서 이희승(1939년)과 미술사 분야에서 안휘준(「한국의 소상팔경도 연구」, 『한국 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등을 필두로 그 이후 발표된 일련의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줄곧 인용하면서 소상팔경 형성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전경원,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근래의 자료(劉金春, 『악록풍경명승(岳麓風景名勝)』, 中國 湖南文藝出版社, 1998)에는 장학성(章學誠 : 1738~1801)의 『호남통지(湖南通志)』에 실린 미불(米芾)의 「소상팔경도시병서(瀟湘八景圖詩幷序)」를 그 기원으로 보았고, 최초로 「소상팔경도」를 그린 사람은 이성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상팔경으로 시를 지은 최초의 문인이 미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 안휘준, 「한국의 소상팔경도 연구」, 『한국 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175~249쪽; 최기수, 「곡(曲)과 경(景)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진희성 · 노재현, 「팔경의 의미체험에 따른 풍경 개념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1991, 31~43쪽.

17 전경원,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기저에는 '서경(敍景)의 양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소상팔경의 양식화는 이른바 'Landscape in Art'를 성립하였고, 이는 풍경이 시화(詩畵)에 들어 예술이 된 것을 의미한다.[18] 이렇듯 소상팔경이 '관념산수화'에서 '진경산수화'로 '중국의 산수'에서 '조선과 일본의 산수'로 수용과 변용 등의 전승과정을 거치면서 경관 구성은 물론 문학과 미술의 중요 소재가 자리 잡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지역의 경관을 아우르는 보편적 경관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수원팔경 또는 화성춘·추팔경 역시 소상팔경을 원류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팔경 등과 같이 지역의 풍토와 고유의 역사성에 의해 재생산된 지역 고유의 경관 브랜드가 아닐 수 없다.

3) 결속구조로 본 '팔(八)'의 상징성

동양적 수리관(數理觀)과 우주관에 입각해서 볼 때, 수치는 단순히 수를 셈하는 단위가 아니라 삼라만상에 대한 대응 및 조화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홀수와 짝수는 양(陽)인 하늘[天]과 음(陰)인 땅[地]에 대응하는 음양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역경(易經)』의 계사(繫辭) 상(上)에는, "하늘은 칠이요, 땅은 팔이다[天七地八]."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홀수인 '7'을 하늘에, 짝수인 '8'을 땅에 대응시킨 개념이다. 또한 풍요로움 및 다양성과도 연결되는데, 특히 8을 옆으로 뉘어 놓으면 나타나는 무한의 표식은 숫자 8의 풍성함을 극대화해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팔방미인(八方美人)'에서 '팔'은 '모든', '여러' 등으로 쓰이며, 8은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四方)인 4의 배수로서 방향성 중복과 강조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영순[19]도 여덟 팔(八)을 신화적 사유의 상징 의미로 "인간사 전체를 상징하는 신앙의 수를 표상"한다고 전제하고 민간에서 사(四)라는 수는 "자체를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라는 의미로 파악되는데 나아가서 여덟은 이 뜻을 배가시키고 중복한다는 의미로 동서남북 사방의 배수인 팔방(八方), 사팔허통(四八虛通), 사통팔달(四通八達), 사주팔자(四柱八字) 등의 의미를 중복함으로써 '전체'를 보다 강조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런 의식은 일본의 호리카와(堀川貴司)의 연구[20]에서도 동일하게 표출되고 있다.[21] 이에 따르면 '팔(八)'이라는 숫자는 팔방(八方), 팔굉(八紘), 팔황(八荒), 팔주(八州)라고 하는 것처럼 공간적으로 '모든 방향',

18 최진원, 『팔경과 구곡 : 한중팔경구곡과 산수문화』, 이회출판사, 2004, 9쪽.
19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세계』, 도서출판 훈민, 2006, 247~253쪽.
20 堀川貴司, 『瀟湘八景 — 詩歌と繪畵に見る日本化の樣相』, 臨川書店, 2002.
21 전경원,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모든 토지'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숫자 8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 방향(토지), 풍요, 부, 성장 등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덧붙여 경을 이야기할 때 팔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으로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사계절을 각각 두 개의 경씩 배열하기 위한 의도가 전제되어 있으며, 8폭 병풍 제작 의도와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원팔경을 보는 시각과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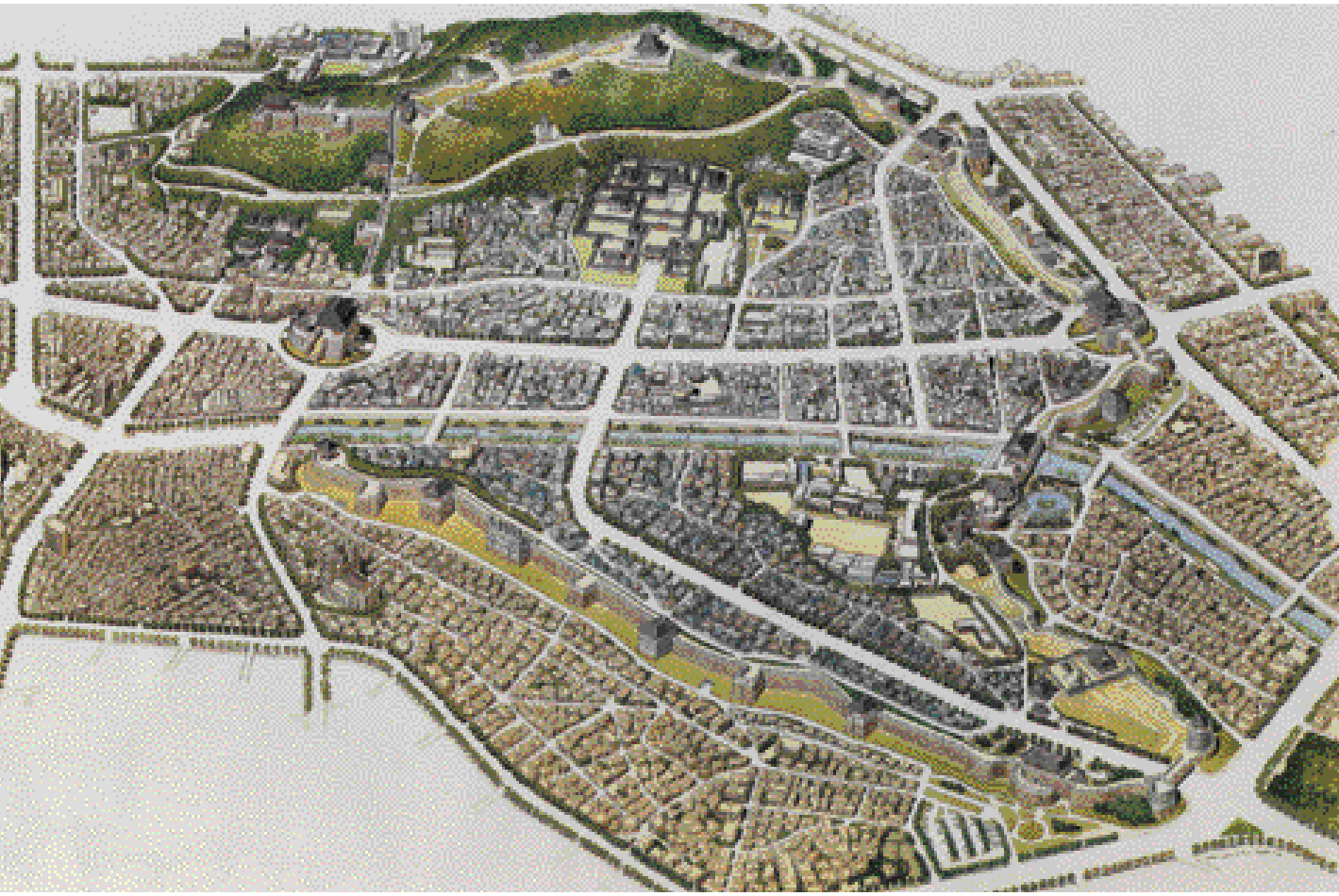
1) 수원팔경을 보는 관점과 내용

이 글에서는 현재에 남겨진 '수원팔경'이라는 문화경관을 주요 연구대상이자 단서로 하여 과거로부터의 경관 변화를 추적하는 퇴행적 방법(retrogressive approach)을 취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그림 1〉과 수원의 팔경 형성과 변모 과정을 통해 수원팔경 등 문화경관을 외관상으로는 '형태적(morphological)'인 동시에 정조 대 이후 그리고 수원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과 물질 관계를 표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이며 상징적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수원팔경시나 수원팔경도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등장시기를 제시하긴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성춘 · 추팔경이 수원팔경에 앞서 알려졌고, 또한 수원팔경의 원형적 경관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팔경(도)의 형성 및 제작시기와 화성신도시 건설의 시대표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춘 · 추팔경(도)은 화성 성역의 완성시기와 때를 맞추어 제작 또는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화성춘 · 추팔경은 수원팔경 형성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의 관점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서술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수원 화성의 경관계획적 시도에 대한 정조시대의 노력과 그 성과의 탐구, 둘째는 화성춘 · 추팔경이 수원팔경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본 경관상의 변모와 수원 화성과의 관련성 검토, 그리고 셋째는 화성춘 · 추팔경과 수원팔경의 형식성과 상징성 분석을 통한 수원팔경의 등장 배경에 따른 함의(含意)의 파악이다.

이 글은 문헌조사와 고지도 분석 그리고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자료 및 인용문헌으로 화성 관련 연구논문과 『화성성역의궤』,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



〈그림 1〉 「화성전도」를 기반으로 현대기법으로 재구성한 2000년 화성 전경

등의 고문헌을 재인용하였으며, 고지도는 「화성전도」(『화성성역의궤』), 「화성도」, 1872년 「수원부지도」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분석하였다. 화성춘 · 추팔경과 수원팔경의 각 경관내용을 장소와 풍물로 나누어 분석하고 화성의 시설요소와 관련성을 검토하는 한편, 화성춘 · 추팔경에 대한 기호론(semiotics)적 측면에서 각 경의 지칭 사항, 수단 그리고 전달된 함의 등의 파악을 통한 경관의미를 추론하고 조선 초기 한양도읍을 찬양한 정도전의 「신도팔경」의 경관내용과 비교하였다. 한편 정조의 팔경 향유 경향을 검토하고,[22] 화성

22 안장리, 「조선시대 왕의 팔경 향유 양상」, 『동향학』 제4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43~65쪽.

〈표 1〉 화성춘 · 추팔경(도)과 수원팔경

연구대상		조성 및 제작시기	작자 (정자)	출전	관련 내용	비고
화성춘 · 추팔경	서(書)	미상	미상	• 홍길주(1786~1841년)의 시문집인 『표롱을첨(標聾乙懺)』(수원시 · 수원문화원, 1999, 249쪽)	화성춘 · 추팔경 중 8개 그림 초본에 대해 논평. 8폭의 중병(中屛)으로 제작.	1795년 이전의 설정으로 추정됨. 화성춘 · 추팔경도 소표제로 등장함.
	화(畵)	1795년	김홍도	•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財用)」 하(下) •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2002, 423쪽.		
수원 팔경	서(書)	19세기 이후로 추정	미상	• 수원시,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 1991, 146~148쪽. •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844~850쪽. • 유봉학 · 정해득, 『수원지명총람』, 1999, 249~257쪽. • http://tour.suwon.ne.kr/		별도의 제화시는 전해지지 않음.
	화(畵)	20세기 말로 추정	미상	• http://tour.suwon.ne.kr/		유화(油畵)
화성성곽		1794~1796년	정조	•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2002, 81쪽.		
저수지	북지	1794년	정조	•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2002, 174~181쪽.	북은구 내 연못	현재 만석거
	하남지	1796년			성곽 내	
	만년제	1798년			융릉 근처	
	축만제	1799년			서호낙조(西湖落照)의 대상	축만제→서호

춘 · 추팔경병풍도의 제작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화성의 경관계획적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지도 분석을 통해 화산과 화성의 입지공간적 인식과 수원팔경에 주요 모티브가 되는 물(水)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화성춘 · 추팔경과 수원팔경의 경관의미와 그 과정 속에 내재된 함의를 추적하였다.

2) 최근의 연구 동향

한 지역의 경관을 "인간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권력 간의 순간적 균형이자 평행상태를 대변하며, 시대성 · 지역성을 반영하는 지리적 실체"[23]로 파악할 때, 수원 화성의 건설

23 전종한,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논총』 제10집, 2006, 65~87쪽.

과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관계획도 이 시기 정치 · 사회적 변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영진[24]이 조경사 연구의 소중한 대상으로 화성 성역의 가치를 평가한 이래, 손정목[25]은 세계 최고의 계획도시로서 화성을 조명하였다. 정기호,[26] 박춘균과 이재근,[27] 안경환,[28] 박천우와 김은진[29]은 화성의 건축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고, 윤종태[30]는 화성 원형경관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버드나무 식재경관의 의도를 밝혔다. 김영모[31] 등은 화성 내 핵심시설인 행궁 식생경관 복원에 대하여, 손민호[32] 등은 방화수류정 권역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대하여, 허소영,[33] 김동훈과 강건희[34]는 수원 화성의 보전과 개발방안에 대하여, 김현정과 김정태[35]는 화성 성곽의 야간경관 조명실태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박동석[36] 등은 화성의 조망점과 조망경로를 고려한 경관보존과 관리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백종철[37]은 수원 화성의 계획적 가로체계와 식재수종과 의미 분석을 통해 녹지계획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김동욱[38]과 박정혜[39]는 각각 『화성성역의궤』의 건축 및 회화사적 의의를 고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수원 화성의 건축 토목적 측면과 녹지, 식재경관의 조성과 그 공간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있으나 윤종태와 백종철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화성의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성과는 드물다. 특히 화성의 시설 배치와 공간 구성 그리고 시각 구성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 일환으로 수원의 대표적 문화경관인 수원팔경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하여 팔경 형성 배경이나 화성 경관계획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

24 최영진, 「화성 성역 당시의 식수조경에 관하여」, 『기전문화연구』 제3집, 1973, 163~171쪽.
25 손정목, 「세계최고의 계획된 신도시-화성; 신도시 화성건설의 이념과 수법」, 『도시문제』 11(9), 1976, 51~86쪽.
26 정기호, 「수원 화성축조계획의 분석 개략」, 『생명자원과학연구』 1(1), 1994, 33~37쪽.
27 박춘균 · 이재근, 「지형, 지세가 성곽축성 높이에 미치는 영향 ;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8(1), 2000, 1~10쪽.
28 안경환, 「수원 화성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제16집, 2001, 87~94쪽.
29 박천우 · 김은진, 「화성 축성에 관한 연구; 정다산의 성설을 중심으로」, 『장안대학 장안논총』 제23집, 2003, 524쪽.
30 윤종태, 「수원화성(유천성) 원형경관에 나타난 버드나무에 관한 연구」, 한경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1 김영모 · 이선 · 진상철 · 장종수, 「화성 행궁의 식생경관 복원을 위한 고증과 복원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2004, 39~53쪽.
32 손민호 · 최종희 · 이우균, 「수원성 방화수류정 권역의 입지와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2004, 103~111쪽.
33 허소영, 「도시문화유산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수원시 화성의 문화유산 보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4 김동훈 · 강건희, 「역사적 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8권 제10호, 2002, 35~42쪽.
35 김현정 · 김정태, 「성곽의 야간경관조명 실태조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조명 · 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49~56쪽.
36 박동석 · 정종수 · 이재근 · 최종희, 「수원 화성의 조망점 및 조망 경로를 고려한 경관보존 · 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2007, 1~25쪽.
37 백종철, 「정조시대 화성의 가로, 녹지, 수리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38 김동욱,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집, 2002, 473~495쪽.
39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집, 2002, 413~471쪽.

한편 수원팔경의 형성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 연구가 있는데,[40] 수원 화성의 춘팔경과 추팔경을 합한 16경의 내용과 현전하는 수원팔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연구의 요지는 수원팔경이 수원의 근대사 전공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발전하는 수원』(1914년)에서 처음으로 집경하였고, 이러한 집경은 1927년 나이토(內藤倫政)의 『고적(古蹟)과 풍속(風俗)』에 그대로 전승된 것으로 수원팔경의 원전으로 회자되는 화성 춘·추팔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수원팔경을 언급하고 그것이 신문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또한 지속적으로 수원팔경을 수원관광의 홍보자료 정도로 비하하는 등 문화 훼손을 자행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 덧붙여 김용국[41]은 나혜석이 1935년 집경한 ① 광교적설(光敎積雪), ② 화홍잔벽(華虹潺澼), ③ 나각대월(螺閣待月), ④ 동산석봉(東山夕烽), ⑤ 병암간수(屛巖澗水), ⑥ 유천장제(柳川長堤), ⑦ 서호낙조(西湖落照), ⑧ 북지상련(北池賞蓮)의 수원팔경 또한 그 이전 일제강점기의 수원팔경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수원팔경이 일본인의 저작(著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팔경이 일본인 저작이라는 데에 대한 반론이 곧 제기되었다. 한동민은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발전하는 수원』(1914년)에서 후지노 군잔(藤野君山 : 1863~1943년)이 1913년 '수원팔경'을 읊었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지만, 이는 조선 말엽 또는 대한제국기에 조선인들이 이미 지어 놓은 수원팔경을 이 시기에 일본인들이 수용하여 확산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증거로 후지노 군잔이 수원을 찾아 수원팔경을 읊은 1913년 이전인 1912년 4월 7일 『매일신보』에 현재와 같은 구성의 「수원팔경가(水原八景歌)」가 이미 실렸음을 제시하였다. 매일신보사 편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각지의 기문(奇聞)·시·소설 등을 현상 공모하였는데, 이에 당시 수원군 남부면 남창리 17통 4호에 거주하는 이원규(李元圭)가 '속요(俗謠)' 「수원팔경가」를 제출하여 2등으로 당선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원규의 수원팔경 역시 그의 창작품이 아니라 수원 지역에서 회자되던 수원팔경을 채록한 것으로, 이미 수원에 널리 알려진 수원팔경을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사 이원규가 채록하여 『매일신보』에 실었고, 일본인들도 이러한 수원팔경을 글자만 몇 자 바꾸어 책자에 게재함으로써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보았다.[42]

---

40 김용국, 「수원팔경의 역사와 의의」, 수원 춘·추 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2, 7~25쪽; 김용국, 「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화훼손 : 수원팔경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2집, 2012, 87~103쪽.

41 김용국, 「수원팔경의 역사와 의의」, 수원 춘·추 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2, 7~25쪽.

42 한동민, 「수원팔경의 역사적 전개와 근대적 변용」, 『수원역사문화연구』 2, 수원박물관, 224~226쪽.

〈그림 2〉「수원팔경가」(『매일신보』, 1912년 4월 7일)

이원규가 『매일신보』에 실은 '수원팔경'은 화산두견(花山杜鵑 : 화산 숲속에 슬피우는 두견새 소리), 나각망월(螺角望月 : 방화수류정에서 본 동북각루의 달), 화홍관창(華虹觀漲 : 화홍문의 수문에 쏟아지는 물보라), 남제장류(南堤長柳 : 수원천 긴 제방에 늘어진 수양버들), 북지상련(北池賞蓮 : 만석거에 핀 아름다운 연꽃), 광교적설(光敎積雪 : 광교산에 쌓여 있는 흰 눈), 서호낙조(西湖落照 : 서호에 비치는 노을), 팔달제경(八達霽景 : 팔달산의 맑게 갠 풍경)이었다.

3. 수원팔경의 형성 배경과 내용

1) 화성춘 · 추팔경의 구성과 변천

(1) 화성의 조경의지

「화성행궁도」를 보면, 행궁은 팔달산 정상 서장대 아래의 산기슭을 중심으로 경사지가 펼쳐져 우측 뒤편에서 시냇물이 전면 흘러가며, 후면 산기슭과 좌우 담장 내 · 외에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다수의 수종을 식재하는 등 계획적 조경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팔달산 일원에는 1794년부터 1797년까지 매년 봄과 가을에 모두 7회의 파종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파종된 수종은 단풍나무, 솔, 상수리와 함께 탱자, 뽕나무, 밤, 자두, 복숭아, 살구 등의 유실수였다.[43]

43 수원시, 『국역 화성성역의궤』, 1994.

〈그림 3〉 「화성행궁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임수』에 의하면 노송으로 우거진 팔달산은 우리나라의 도시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었다고 전한다.[44] 1795년(정조 19)에 한양으로 향해 조성된 신작로(일명 노송지대)는 8년간 식재와 파종을 거듭하여 완공하였다. 화성 축성기인 1794년에서 1797년에는 단풍종자 1섬, 소나무종자 2섬, 오디[桑 : 상심] 2섬 반, 밤 2섬, 상수리 42섬 13두, 탱자 1섬, 자두 2,350주, 복숭아, 살구 기타 유실수 582주를 봄에는 파종하고 가을에는 묘목을 식재하고 예찰을 철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개체목당 팻말을 붙여 특별 관리[45]하는

44 장미아 · 김남기 · 배재수 · 김진성, 『역주 조선의 임수』, 지오북, 2007, 889~900쪽; 수원시, 『화성기본계획』, 2000.
45 최영진, 「화성 성역 당시의 식수조경에 관하여」, 『기전문화연구』 제3집, 1973, 163~171쪽.

〈그림 4〉 수원천 주변의 버드나무 띠숲(사카이 마사노스케, 『화성지영』, 1915)

〈그림 5〉 향미정과 서호(수원박물관 소장)

등 조경계획과 시공뿐만 아니라 조경 관리의 의지까지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방화수류정과 수원천 일대에는 소나무와 꽃나무 ·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승경의 창출의지뿐만 아니라 수원천을 이용한 생태하천계획이 돋보이며, 남 · 북수문을 설치하여 물 흐름의 관리와 돌다리의 기능을 겸하였다. 수원팔경의 하나인 '남제장류'는 봄이 되면 맑은 물 흐르는 수원천(柳川)의 물안개와 매향교 부근에 핀 꽃구경 그리고 화홍문에서 남수문까지 긴 제방 버드나무 가지의 긴 행렬을 지칭하는 승경이다〈그림 4〉. '서호낙조'의 주요 대상인 서호는 화성 축성 당시 관계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인공호수로, 여기산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칠 노을 무렵의 절경은 마치 아름다운 기생의 자태에 비유되었고, '수원의 눈썹'으로 상징되어 중국 항주의 미목(眉目)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불렸다〈그림 5〉. 이 밖에도 화성 성내에는 상남지, 하남지, 북지, 동지, 상동지 등 모두 5개의 연못이 시차를 두고 조성되었다.[46] 이렇듯 정조는 화성 식수 조경정책과 문화적 안목, 그 가운데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며,[47] 결과적으로 경승의 조성과 치수를 목적으로 한 식재와 물의 도입과 활용은 수원 화성의 중요한 계획요소이자 형태와 기능을 겸비한 경관계획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46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178쪽.
47 윤종태, 「수원화성(유천성) 원형경관에 나타난 버드나무에 관한 연구」, 한경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9쪽.

(2) 화성춘 · 추팔경의 구성과 변천

화성의 도시기반시설, 각종 성곽시설, 행궁 등의 조성뿐만 아니라 식목에 의한 조경사업 그리고 인공구조물들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표현한 화성춘 · 추팔경 등의 경관상[48]은 홍길주(洪吉周 : 1786~1841년)의 문집 『표롱을첨(標聾乙帖)』[49]에 화성춘팔경과 화성추팔경 8개의 그림 초본에 대해 논평한 「제화봉팔관도[분본]후(題華封八觀圖[粉本]後)」[50]라는 글이 있어, 그 면모를 추정할 수 있다.

『표롱을첨』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김홍도에게 화성의 8경을 다시 그리도록 명하였다. 정조의 명을 받은 김홍도는 화성의 춘8경 5폭과 추8경 3폭으로 『화봉팔관도(華封八觀圖)』를 그렸다."[51]고 하였다. 『화봉팔관도』의 제작시점을 추적해 보면 적어도 화성을 완성한 1796년에서 1800년 사이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52] 그리고 『표롱을첨』은 저자인 홍길주가 50세까지의 저작을 직접 편집한 것[53]이라고 하니 적어도 『화봉팔관도(華封八觀圖)』의 그림은 1836년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54]

한편 『화성성역의궤』에 방화수류정을 그린 「동북각루외도」와 만석거 주변의 풍경을 묘사한 「영화정도」, 「영화역도」 그리고 남지를 그린 「은구도」 등으로 그 잔영을 찾을 수 있다. 1796년(정조 20) 화성 축조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화성행궁에 비치하였던 화성춘 · 추팔경도 병풍 2좌(坐)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內入大屛三坐 紬本華城全圖每坐價錢一百五十兩 行宮排設中屛二坐 紬本華城春秋八景圖每坐價錢五十兩
>
> 春八景 華山瑞靄 柳川晴烟 午橋尋花 吉野觀桑 新豊社酒 大有農歌 華郵散駒 荷汀泛鷁
>
> 秋八景 虹渚素練 石渠黃雲 龍淵霽月 龜巖返照 西城羽獵 東臺畵鵠 閒亭品菊 陽樓賞雪[55]

---

48 수원시, 『화성기본계획』, 2000.

49 필사본의 16권 7책으로 구성된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으로, 간행 연대와 간행 경위는 알 수 없다. 홍길주의 『현수갑고(峴首甲藁)』, 『표롱을첨』, 『항해병함(沆瀣丙函)』 등의 문집은 30세 이전, 30~50세까지, 50세 이후의 저작들을 모은 일련의 문집으로 내용은 잡저 · 기 · 전 · 행장 · 술 · 묘지명 · 묘갈 · 서(序) · 제발 · 서(書) · 진향문 · 제문 · 찬 · 명 · 송 · 변려 · 시 · 총비기 · 잡문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0 유봉학 · 정해득, 『수원지명총람』, 수원시 · 수원문화원, 1999, 249쪽.

51 박무영 외, 『표롱을첨』 상, 태학사, 2006, 375~376쪽.

52 홍길주의 『표롱을첨』에 수록된 「제화봉팔관도[분본]후(題華封八觀圖[粉本]後). 우리 돌아가신 임금께서 화사(畵師) 김홍도에게 화성의 여덟 경치(景致)를 그려 바치도록 명(命)하였는데, 그 초본(初本)이 지금 김홍도 아들 양기(良驥)의 집에 있다. 그 그림은 백성(百姓) 일에 조심(操心)하고 힘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반 년 동안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53 박무영 외, 『표롱을첨』 상, 태학사, 2006, 13쪽.

54 김용국, 「수원팔경의 역사와 의의」, 수원 춘 · 추 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2, 7~25쪽; 김용국, 「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화훼손 : 수원팔경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2집, 2012, 87~103쪽.

55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 하, 실입(實入)3, 내입화병급당랑계병(內入畵屛及堂郞稧屛).

화성춘팔경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화산의 정경[花山瑞靄], 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천의 풍경[柳川晴烟], 꽃놀이가 한창인 매향교[午橋尋花), 뽕나무 숲이 아름다운 관길야[吉野觀桑], 향음주례가 행해지는 신풍루 광경[新豊社酒), 농요 소리 드높이 농사가 한창인 대유둔의 들녘[大有農歌], 말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영화역의 풍경[華郵散駒] 그리고 연꽃 사이로 물새가 떠다니는 연못 정경[荷汀泛鷁]의 여덟 경관이다. 또한 화성추팔경은 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 장쾌한 화홍문의 경관[虹渚素練],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물결을 이룬 만석거 주변 풍경[石渠黃雲], 맑은 하늘 달 밝은 가을 밤의 용연[龍淵霽月], 저녁볕 찬란한 구암[56]의 경치[龜巖返照], 겨울 사냥이 한창인 화서문 밖의 풍경[西城羽獵],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정경[東臺畵鵠], 국화꽃 벌여 놓고 완상하는 미로한정의 가을 풍경[閒亭品菊] 그리고 늦가을의 화양루 눈구경[陽樓賞雪] 등이다.

〈그림 6〉의 밑그림 「화성전도」는 팔달산과 유천, 맞은편 안산을 중심으로 구획된 대도회(大都會)의 전경을 부감법으로 표현하고 있다.[57] 팔경 요소의 포치분석 결과, 화성춘 · 추

〈표 2〉 화성춘 · 추팔경의 구성과 경관 특성

구분	소표제	경관 내용	장소(대상)	풍물	화성과의 관련성
춘팔경	① 화산서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화산의 정경	화산	아지랑이	성외(융릉)
	② 유천청연	맑은 날 물안개 낀 수원천 풍경	유천	물안개	성내
	③ 오교심화	꽃놀이가 한창인 매향교	매향교	꽃놀이	성내
	④ 길야관상	뽕나무숲이 아름다운 관길야	관길야	뽕나무숲	성외
	⑤ 신풍사주	향음주례가 행해지는 신풍루 광경	신풍루	향음주례	성내(행궁)
	⑥ 대유농가	농요 소리 드높이 농사가 한창인 대유둔 들녘	대유둔	농요	성외
	⑦ 화우산구	말들이 이리저리 뛰노는 영화역 풍경	영화역	뛰노는 말	성외(역참)
	⑧ 하정범익	연꽃 사이로 물새가 노니는 연못 정경	남지	연꽃과 물새	성내
추팔경	① 홍저소련	흰 비단을 펼친 듯 물살 장쾌한 화홍문 경관	화홍문	물살	성곽
	② 석거황운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물결 이룬 만석거 주변	만석거	황금 들녘	성외
	③ 용연제월	맑은 하늘 달 밝은 가을밤의 용연	용연	달맞이	성곽
	④ 구암반조	저녁별 찬란한 구암 경치	구암	저녁별	성외
	⑤ 서성우렵	가을 사냥이 한창인 화서문 밖 풍경	화서문 밖	사냥	성외
	⑥ 동대화곡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정경	동장대	활쏘기	성곽
	⑦ 한정품국	국화꽃 벌여 놓고 완상하는 미로한정의 풍경	미로한정	국화 완상	성내(행궁)
	⑧ 양루상설	늦가을의 화양루 눈구경	화양루	눈구경	성곽

56 구암(龜巖)은 팔달문 밖 영동시장 근처에 있었던 산으로 구천동 10 - 44번지 일대를 지칭한다. 현재는 중동사거리에서 신갈 방향으로 난 원천로와 녹산빌딩 등이 들어서 있어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거북산당이라는 당 이름을 통해 그 자취를 살필 수 있다. 문헌 기록이나 옛 지도를 보면 거북산은 구산(龜山), 구봉(龜峰) 등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http://www.suwoncity.net).

57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집, 2002, 413~471쪽.

〈그림 6〉 화성춘팔경과 화성추팔경의 화성 내 포치 형태 밑그림은 『화성성역의궤』 중 목판화 「화성전도」를 기본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은 춘팔경, ○는 추팔경 표시이다.

팔경은 성내경관 5개소, 성곽경관 4개소 그리고 성외경관 7개소 등으로 성 내외 요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수문과 방화수류정을 중심으로 성 북동부와 수원천 주변에 다수 포치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화성 성곽 및 그 주변에서 빼어난 경관을 만들어 낸 곳과 성곽 신축과 관련하여 의미가 깊은 곳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화성의 유천과 오교, 화성 성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대상인 방화수류정과 용연, 화홍문 그리고 구암, 서장대 · 동장대, 화양루 등 탁 트인 경관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성곽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궁의 정문 신풍루와 후원의 미로한정도 들어 있다. 또 관길야, 대유둔, 만석거 등 새로 개간한 넓은 농지와 저수지, 들판과 뽕나무숲, 영화역 주변의 번성함과 함께 성내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연못 등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도시 건설에 따른 이상향을 지향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등의 형체요소는 물론 산(山), 지(地), 수(水) 그리고 사람(人) 등의 다양한 의미요소와 풍물요소가 망라되어 있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춘추팔경에서 지시사항과 그 함의를 해석해 볼 때 정조의 부친을 모신 화산 융릉이 길지임을 지시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도시 화성의 상서로

움을 의미한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길야관상 · 대유농가 · 석거황운 · 양루상설 등은 농사의 풍년과 산업적 번성을 의미하며, 화우산구 · 서성우렵 그리고 동대화곡 등은 수성(守城)을 위한 무예의 연마와 활기찬 기상의 표현을 통해 성곽도시 화성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교삼화, 하정범익, 용연제월 그리고 한정품국은 자연완상을 통한 평화와 풍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3〉 화성춘 · 추팔경의 지시내용

구분	소표제	지시사항	수단	전달된 의미
춘팔경	① 화산서애	화산 융릉의 반룡농주형 풍수 형국	상서로운 기운	길지(사도세자 능원의 상서로움)
	② 유천청연	맑게 갠 날	햇빛	희망과 신비함.
	③ 오교심화	꽃놀이	꽃과 놀이	번영과 아름다움.
	④ 길야관상	누에치기의 분주함.	뽕나무숲	산업 장려
	⑤ 신풍사주	유생들의 향약에 따라 예를 실천하는 행사	향음주례	백성의 교화와 풍요
	⑥ 대유농가	국영농장 대유둔의 모내기 농요	노래	풍요
	⑦ 화우산구	역동적인 역마들의 움직임	건장한 역마	활기와 국방 안녕
	⑧ 하정범익	평온하고 아름다운 정경	연꽃과 익조	평화
추팔경	① 홍저소련	장엄하게 쏟아지는 물살	펼쳐진 흰 비단	장쾌함.
	② 석거황운	만석거(국영농장 대유둔) 주변의 황금 물결	풍년	수확의 풍요로움.
	③ 용연제월	맑은 하늘, 달 밝은 가을 밤	용연의 정취	여유와 풍류
	④ 구암반조	저녁별 찬란한 구암의 풍광	거북	사령신의 하나
	⑤ 서성우렵	겨울 사냥	사냥	무예의 연마, 강성함.
	⑥ 동대화곡	활쏘기가 벌어진 동장대	활쏘기	활기찬 기상, 무예연마
	⑦ 한정품국	국화꽃 완상	국화 향기	행궁의 낭만
	⑧ 양루상설	화양루의 눈구경	평야에 쌓이는 눈	명년 농사의 풍요

조선 창업과 함께 정도전은 「신도팔경(新都八景)」으로 새 도읍 한성부의 풍광을 찬양하였다. 「한도십영(漢都十詠)」은 1398년(태조 7) 신도읍 한성부의 모습을 그린 병풍을 하사받아 완성된 도성의 풍광을 정도전, 권근, 권우 등이 시로 읊은 것으로 양자는 모두 새로 창업하는 신도시의 승경을 찬양, 고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국내 팔경에서도 꾸준히 유전하게 되는데 조선왕조 창업과 함께 새 도읍 한성부의 풍광을 찬양한 정도전의 「신도팔경(新都八景)」〈표 4〉에서도 기전산하(畿甸山河), 도성궁원(都城宮苑), 열서성공(列署星拱), 제방기포(諸坊碁布), 동문교장(東門敎場), 서강조박(西江漕泊), 남도행인(南道行人), 북교목마(北郊牧馬)로서 전승되며, 궁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풍경을 배열함으로써 "조선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전체로

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를 엿보게 된다. 또한 8경(八詠 포함), 10경 그리고 12경 등의 배열은 각각 4방, 8방, 8방+상하 그리고 십이지(十二支)와 관련된 것으로 방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신도팔경」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고 있는데 조선왕조의 건국의 정당성과 천도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 창작된 작품으로 정치적 목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때,[58] 혁명적 정권교체와 도읍 이전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고 천도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화성춘 · 추팔경의 형성배경 및 지시사항과 전달된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신도팔경」이 새로운 도읍 한양의 지형과 정치제도, 풍물 등의 민관군(民官軍)의 풍요와 번영을 염원하며 희망에 찬 새 도읍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새 왕조의 번영을 예감하였듯이 화성춘 · 추팔경 또한 신도시 화성의 '미래경관상'을 염원하는 자부심의 표현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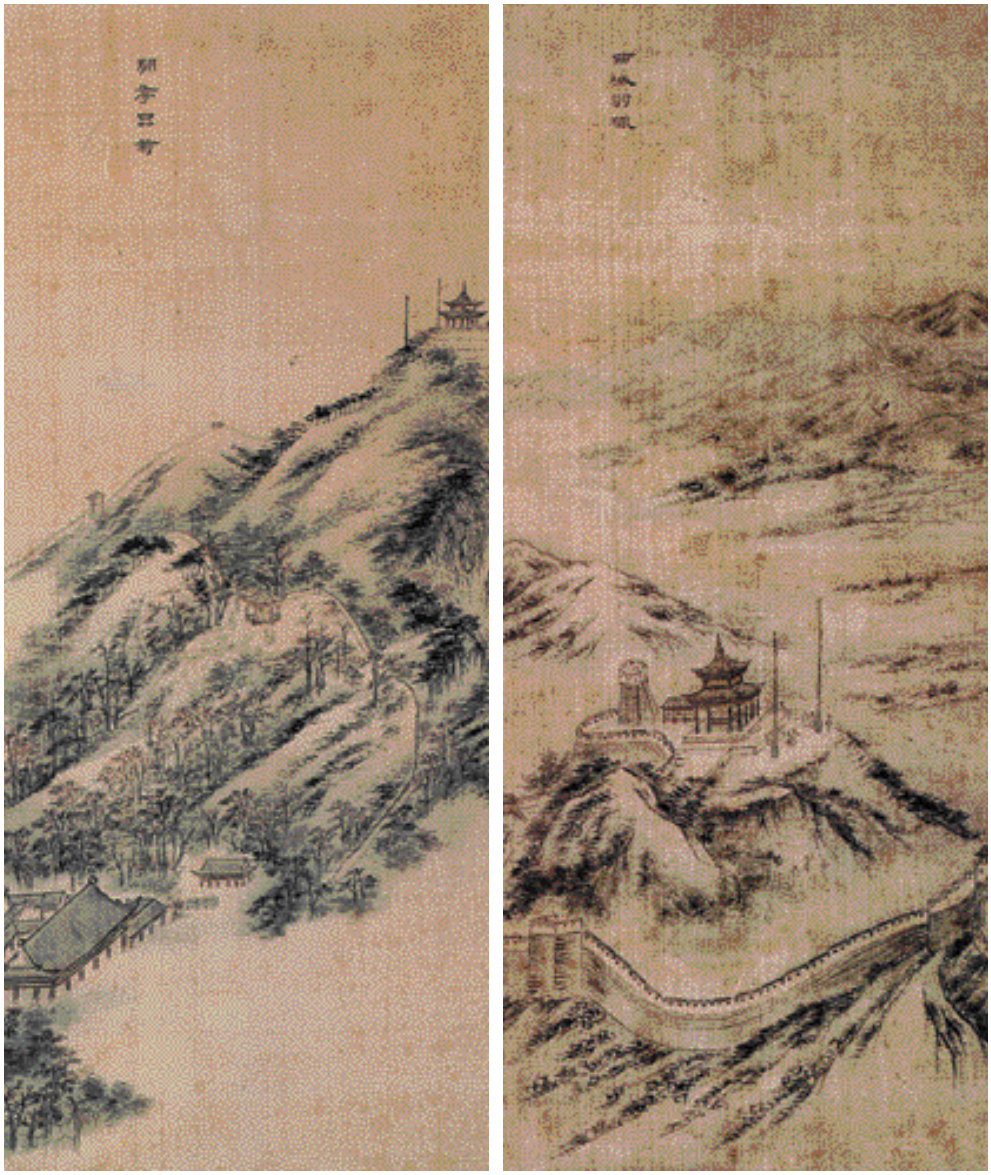
〈표 4〉 「신도팔경」의 경관 및 지시내용

소표제	경관내용	지시내용(상징의미)	분류
기전산하(畿甸山河)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산천경개	도읍지로서 손색없는 지형지세	지형
도성궁원(都城宮苑)	배치된 성곽과 궁궐의 모습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성	관
열서성공(列署星拱)	육조거리 여러 관아들의 정연히 배열	잘 정비된 정치제도	관
제방기포(諸坊碁布)	한성부 여염집들의 질서정연함	주거와 식량의 풍요로움	민
동문교장(東門敎場)	동대문 밖 살곶이벌의 국립목장	장엄한 훈련원의 경관	군
서강조박(西江漕泊)	삼개나루 서강에 정박한 배들의 모습	물산 등 경제적 풍요	민
남도행인(南道行人)	한강을 건너 도성으로 들어오는 행인	한강나루의 활기	민
북교목마(北郊牧馬)	북쪽 교외목장의 군마들의 모습	새 왕조의 번영	군

(3) 화성춘팔경과 화성추팔경의 지시내용

화성 건설의 주역인 정조가 이미 세손 시절 「상림십경(上林十景)」, 「국도팔영(國都八詠)」, 「소상팔경」, 「규장각팔경」 등을 향유한 점[59]은 매우 흥미롭다. 화성춘팔경과 화성추팔경의 등장은 정조를 중심으로 개혁적 성역을 이끈 신진사대부에 의해 관치적 입장에서 신도시 홍보를 위한 촉진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에는 1796년 10월 16일, 화성 성역의 낙성연을 진행할 당시에 화성 성역의 주역들은 화성춘팔경과 화성추팔경을 열여섯 병풍그림으로 그려 행궁에 배설(排設)해 놓고 화려한 낙성연

58 최은주, 「조선전기 팔경 시의 창작경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11쪽.
59 안장리, 「조선시대 왕의 팔경 향유 양상」, 『동향학』 제4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14쪽.



〈그림 7〉 화성추팔경의 「한정품국도」(좌)와 「서성우렵도」(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을 벌인 것[60]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병풍 그림들은 그 당시 각 50냥씩, 100냥이라는 적지 않은 값[61]을 치르고 사들였음이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정작 병풍을 그린

60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집, 2002, 413~471쪽.

화공은 밝히지 않았으나 다행히 서울대학교박물관에는 「한정품국」[62]과 「서성우렵」[63]〈그림 7〉이라는 그림 두 폭이 전하고, 화제 또한 화성춘 · 추팔경과 일치한다.

이 두 그림은 행궁과 서장대 등 성곽시설의 아름다움과 계절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기원근법과 거리감을 강화하여 현실감 있는 신도시 화성의 핵심경관적 구도를 보여 주고 있다. 화제 아래 찍힌 '신(臣) 홍도(弘道)'라는 단원의 낙관으로 보아 단원 김홍도의 국왕 진상용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홍도는 당시 궁중 화가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어진도사(御眞圖寫)에 2번이나 참여하는데, 이는 후원자였던 정조의 문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정조의 팔경 문예에 대한 감수성, 새 도읍과 신도팔경의 창작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화성춘 · 추팔경의 병풍 제작에 투자된 거액의 비용, 당시 도화서의 비중 있는 화가 김홍도가 그렸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화성춘 · 추팔경의 설정과 제작 이면에는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도시 건설 홍보의 포석이자 앞으로의 도시경관 미래상에 대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또는 슬로건(slogan)의 표상으로서 '화성16경 선정'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따라서 화성이 특정한 설계 의도에서 창조된 의장(意匠)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면 화성 축성 직후의 모습을 담은 화성춘 · 추팔경은 당시 정조를 비롯하여 화성 성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마음에 비추어진 화성 부흥의 희망을 표현한 일종의 소망경관(desired landscape)으로 보인다.

2) 수원팔경의 형식성과 상징성

(1) 수원팔경의 형식

팔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팔경의 도입 및 형성시기에 따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팔경은 이 땅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들을 둘러싼 수려하고 특징

61 『화성성역의궤』, 「부편」 권3에 의하면 화성 성역에 충당된 인건비(감독관급료와 장인모금노임)가 29만 7,132냥에 쌀 1,495석, 재료비에 32만 2,566냥이 충당된 점(김동욱,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집, 2002, 497쪽)에 비하면 병풍 1점의 가격으로 400~800냥을 지불한 것은 상당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62 「한정품국」을 보면 중심 화재인 미로한정을 성곽의 북쪽에서 바라보되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로부터 행궁의 낙남헌에 이르는 넓은 시야 속에 작게 포치하였다. 미로한정에서 북쪽으로 50보 떨어진 곳의 내포사, 낙남헌 부속의 장춘각 등의 주변 건물도 세심하게 그려져 있지만 품국의 모습은 정자 앞의 약간의 국화로 표시될 뿐 강조되지 않았다. 당시 도화서에 퍼져 있던 김홍도 화풍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화성행궁에 배설된 병풍 2좌도 실제의 경치를 보는 듯한 이 그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63 「서성우렵」은 서장대 및 노대로부터 서포루, 서치성, 포사(서남암문)로 이어지는 성곽의 남서 부분을 화양루 쪽에서 포착한 것이다. 화면 상반부에는 안개가 낮게 드리워진 화서문 밖의 산과 들을 전개하였는데, 사냥하는 장면은 몇몇의 인물들로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있는 경관을 명료하게 나타내 보인 전통적인 표현방식이었다. 단양팔경과 같이 경승 여덟 곳으로써 그 일대의 광활한 경관을 모두 정리해 보인 대표적인 팔경이 있는가 하면, 무수히 많은 정자에서 그 주변의 풍광을 여덟 수의 사언절구 또는 차운시를 읊는 방식으로 있어 온 팔경(편의상 정자팔경이라 칭함.) 또는 특정한 읍성(또는 읍치)을 두고 특징적인 장소나 대상 그리고 의미 있는 곳 등 여덟 곳을 택하여 노래한 팔경(이하 읍치팔경이라 칭함)과 같이 간략히 분류할 수 있다. 읍치팔경은 수원 화성 축성과 연계되어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팔경과 같이 개별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그 고장의 특징 있는 풍광을 표현한 것으로 다분히 공적인 의미에서 노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적인 경우로 나타나는 정자팔경과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팔경의 형식과 내용의 분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최기수[64]의 기준에 따른 팔경의 내용을 보면 최기수는 곡(曲)과 경(景)에 나타난 한국 전통 경관의 구조 해석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승경을 바라본 기본 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자연과 인공요소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그리고 삶의 일부로서의 경을 그 본질로 파악한 점이라 하겠다.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팔경에 내재된 경의 요소를 '자연요소로서의 경', '인공요소로서의 경', '자연현상으로서의 경'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서의 경'으로 구분 제시하였는데 이는 주경관요소의 속성상 다시 형체요소, 의미요소 그리고 풍토요소 등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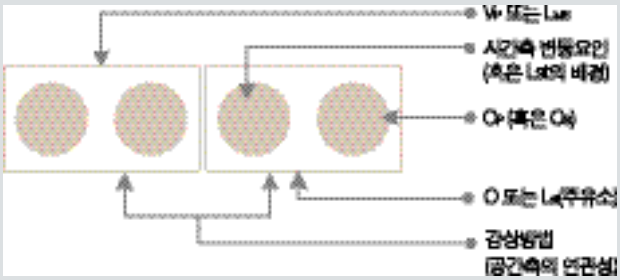
두 번째로 『동국여지승람』 팔경시의 내용을 통해 팔경의 대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자연을 대상으로 한 기본형 : 송도팔경(松都八景), 울주팔경(蔚州八景), 봉산십이영(鳳山十二詠), 청안팔경(淸安八景), 문경팔경(聞慶八景), 공주십경(公州十景), 대구십경(大邱十景) 등
- 인문을 대상으로 한 기본형 : 남산팔경(南山八景), 영해십이영(寧海十二詠)
- 자연을 대상으로 한 변이형 : 삼척팔경(三陟八景), 통진팔경(通津八景), 한도십영(漢都十詠)
- 인문을 대상으로 한 변이형 : 한산팔영(韓山八詠), 금사팔영(金沙八詠), 신도팔영(新都八詠), 경주십이영(慶州十二詠), 여주팔경(驪州八景)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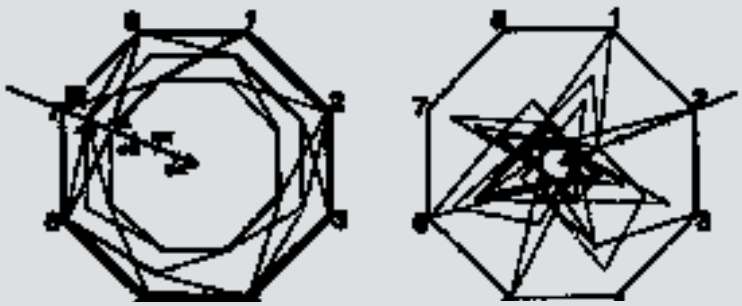
세 번째로 팔경의 표제어 구성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진희성과 노재현[65]은 상기 분류상의 '의미론적 경'과 관동팔경이나 단양팔경 등과 같이 경물 그 자체를 읊은 '실체론

64 최기수, 「곡(曲)과 경(景)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65 진희성 · 노재현, 「팔경의 의미체험에 따른 풍경 개념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1991, 31~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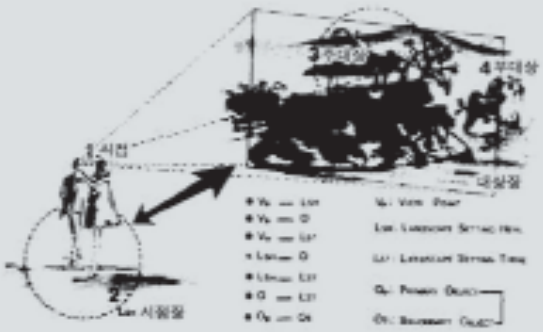
적 경'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팔경 소표제의 경관 구성요소를 시점, 시점장(LSH), 대상장(LST) 그리고 주대상과 부대상으로 구분한 조작론적 분리를 통해 팔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소표제의 구성은 4자의 한자 성어 중 전기 2자는 시점 또는 시점장이 되며 후기 2자는



〈그림 8〉 팔경 소표제의 해체에 의한 조작론적 의미 파악 틀



〈그림 9〉 실체론적 경과 의미론적 경의 내용 비교도



〈그림 10〉 조작적 경관론에 입각한 경관 구성요소의 세분

주대상이 되는데, 세 번째 수식어는 주로 시간축의 변동요인이나 대상장의 배경으로서 구성되는 전형적 특성을 보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체론적 경은 불편성이 강한 순서로 토목건축 요소, 지형 · 지모 요소가 주경관요소로 등장하는 반면, 의미론적 경은 주로 의미요소 및 풍토요소에 의해 경관성이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네 번째로 소상팔경의 결속력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다. 강영조와 김영란[66]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영편에 수록된 전국 23처의 팔경 230경을 대상으로 팔경 형식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팔경의 형식을 ① 소상팔경과 동일한 소상전형, ② 소상팔경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내용적으로 유사한 소상유사형, ③ 이름난 장소와 행위가 조합된 명소체험형, ④ 기이한 경물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적합한 시설물 등을 지정한 명승지형, ⑤ 기타로 분류하였다. 지역의 팔경 구성에서 소상유사형+명소체험형, 소상유사형+명소체험형+명승지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팔경 선정처의 입지조건으로는 산지형, 수변형, 인공시설물형 그리고 평지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원팔경은 형체요소, 의미요소 그리고 풍토요소 등 인문과 자연적 요소를 적정히 혼합한 형태의 읍치팔경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미론적 팔경에 범주에 해당되며, 소상팔경과의 결속력을 볼 때 소상유사형+명소체험형에 가까운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도 지적하였다시피 경관은 시대사조와 경관주체의 필요성에 의해 가변성을 띤 산물이다. 특히 지역의 팔경은 그 지역의 변천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정서에 부흥하지 않았다면 전승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관광 홍보의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기 수원팔경은 지역민의 공감을 통해 수원의 명소로 인정되고 구전되었다고 보며 이때 지정된 팔경을 민족문화 훼손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의 확대라고 보인다. 팔경은 우리의 시대상을 담는 수원 고유의 대표적 승경으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수원팔경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동시대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7년에 간행된 『수원시사』의 경우는 1986년 『수원시사』를 근거로 하여 기술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해에 간행된 자료이지만 1997년 『수원시사』는 일정 부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중권과 하권에서 수원팔경에 대한 기술의 순서나 의미 등에서 서로 차이를 드러냈다.[67]

---

66 강영조 · 김영란,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2, 1991.

〈표 5〉『수원시사』에 기재된 수원팔경

순서	1986년 『수원시사』	1997년 『수원시사』 중	1997년 『수원시사』 하
①	팔달청풍(八達晴風)	팔달청풍(八達淸風)	광교적설(光敎積雪)
②	화홍관창(華虹觀漲)	화홍관창(華虹觀漲)	팔달청풍(八達淸風)
③	용지대월(龍池待月)	용지대월(龍池待月)	남제장류(南堤長柳)
④	남제장류(南堤長柳)	남제장류(南堤長柳)	화산두견(花山杜鵑)
⑤	북지상련(北池賞蓮)	북지상련(北池賞蓮)	북지상련(北池賞蓮)
⑥	서호낙조(西湖落照)	서호낙조(西湖落照)	서호낙조(西湖落照)
⑦	광교적설(光敎積雪)	광교적설(光敎積雪)[68]	화홍관창(華虹觀漲)
⑧	화산두견(花山杜鵑)	화산두견(花山杜鵑)	용지대월(龍池待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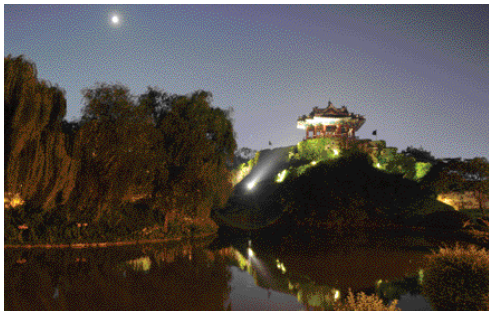
이렇듯 기존에 발간된 『수원시사』에서 수원팔경은 흰 눈 덮인 광교산의 장관[光敎積雪], 연꽃 곱게 피어난 북지[北池賞蓮], 장쾌한 물보라가 넘쳐 나오는 화홍문[華虹觀漲], 방화수류정 옆 용연에서의 달맞이[龍池待月], 남제의 긴 버드나무 숲길[南堤長柳], 남기(嵐氣)에 감싸여 신비로운 팔달산[八達晴嵐], 해질녘 낙조 드리운 서호[西湖落照], 화산 숲속에 슬피 우는 두견새 소리[花山杜鵑] 등으로 정리되었다. 수원팔경은 화성춘팔경과 화성추팔경을 원전으로 하거나 최소한 모티브(Motiv)로 삼아 정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19세기 말엽이나 1900년대에 지금의 팔경 구도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내용을 세분해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산서애'는 이후 수원팔경 '화산두견'의 아쉬움으로, '유천청연'과 '오교삼화'는 '남제장류'의 대상장(對象場)으로 되살아났으며 추팔경의 '홍저소련'은 '화홍관창'으로 '석거황운'은 만석거의 연꽃을 상찬한 '북지상련'으로, '용연제월'은 관찰자의 입장을 묘사한 '용지대월'로 전환되었다.

'국왕의 화성 행신과 화성의 건축물과 관련된 주제'는 1881년(고종 18)까지 운영된 규장각의 차비대령화원제(差備待令畵員制)의 녹취재 제목으로 출제되었다. 정조 연간 이후 19세기에 출제된 것의 예를 들면 만석거(현 정자동 일왕저수지) 근처에 있는 정자인 '영화정'(순조 19년 10월)과 동장대에서 야간에 군사를 조련하는 '동장대야로'(헌종 9년 6월) 등이 시험문제로 출제되었는데, 화성에 이르는 길과 화성의 좋은 경치는 명소로서 화원들이 많이 다루었던 주제[69]로 계속 유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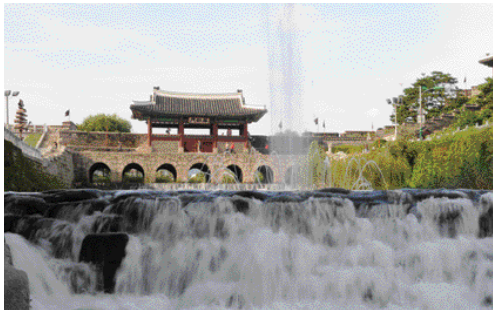
화성춘·추팔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표적 수원의 지형경관이자 랜드마크인 광

67 김용국, 「수원팔경의 역사와 의의」, 수원 춘추 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2, 7~25쪽.
68 『수원시사』에 광교적운(光敎積雲)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타로 보인다.
69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집, 2002, 413~471쪽.

① 화산두견(花山杜鵑)



② 용지대월(龍池待月)[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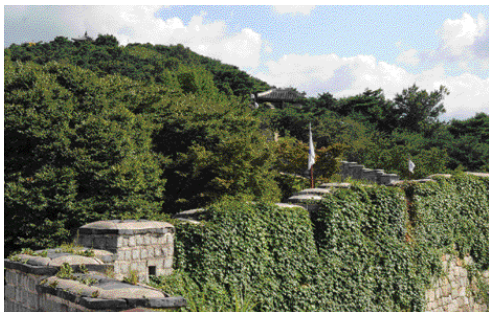
③ 화홍관창(華虹觀漲)

④ 남제장류(南堤長柳)

⑤ 북지상련(北池賞蓮)

⑥ 광교적설(光敎積雪)

⑦ 서호낙조(西湖落照)



⑧ 팔달청람(八達晴嵐)[71]

〈그림 11〉 수원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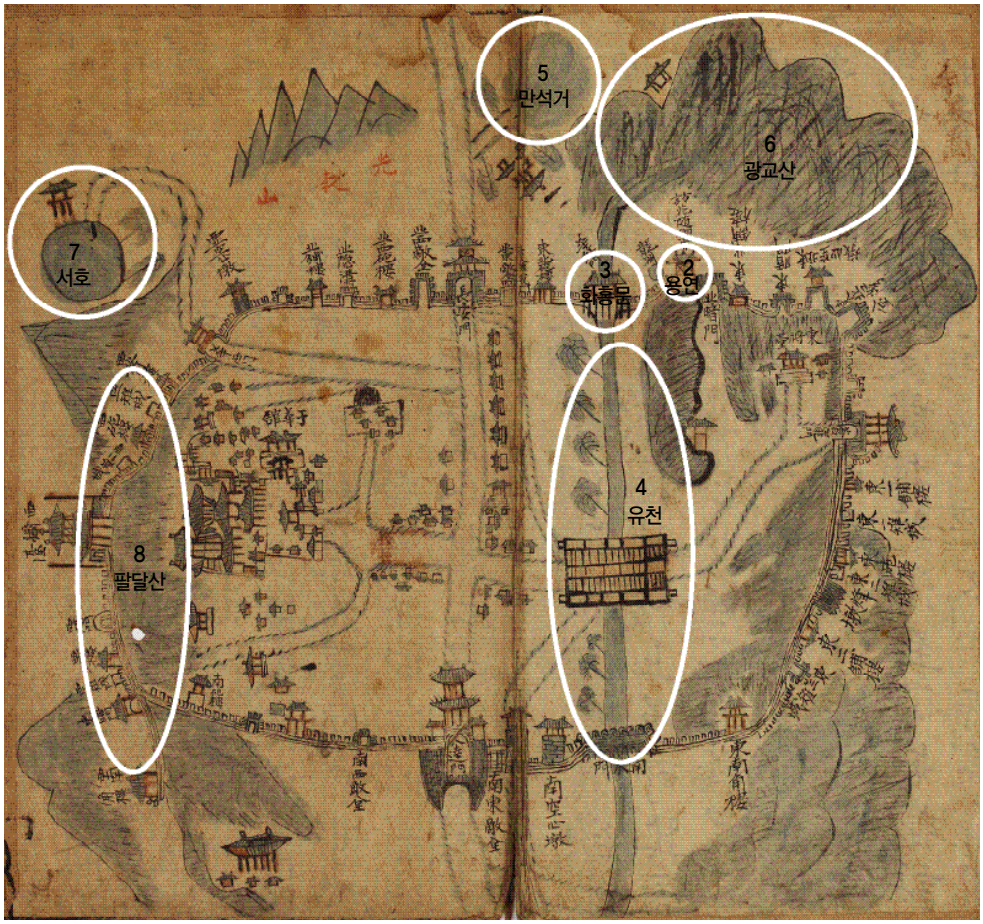
70 이원규의 「수원팔경가」에는 나각망월(螺角望月)로 표현되었는데, 나각은 동북공심돈을 지칭한다.
71 이원규의 「수원팔경가」에는 팔달제경(八達霽景)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12〉 **방화수류정과 용연** 용연 일대의 지형 변화로 입수구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교산과 팔달산을 주 대상으로 한 '광교적설'과 '팔달청람'이 추가되었다. 특이한 것은 광교산과 팔달산의 명명자가 각각 고려와 조선의 창업자인 왕건과 이성계라 전해지고 있다는 점[72]과 수원의 조산(祖山)과 안산(案山)이라는 풍수형국 그리고 네이밍(Naming)이 갖는 의미경관의 중의적 특성을 보여 준다. 수원팔경 중 계절적 변동이 큰 경관은 '광교적설'(겨울), '북지상련'(여름), '화홍관창'(여름) 등이며,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형요소 및 시설인 팔달산, 남제, 융릉, 만석거, 축만제, 화홍문 그리고 방화수류정의 부속연못인 용연 등이 화성춘·추팔경의 대표적 경관요소로 포함되어 있다〈그림 13〉.

한편 팔경의 주시점을 추론할 때, 북지상련은 만석거 주변에 조성된 별칭 교구정(交龜亭)[73]인 영화정(迎華亭)으로, 1996년 만석거를 공원화하면서 원래 영화정지에서 동서 방향 200m 지점으로 옮겨 복원되었다. 그리고 '서호낙조'는 축만제 주변에 조성한 정자 항미정(杭眉亭)[74]으로 보인다. 축만제에 담긴 물을 서호라 하였으며 축만제둔(祝萬堤屯)을 서둔

72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844·846쪽.
73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844쪽.
74 서호 항미정(杭眉亭)의 유래는 송대 문장가 소식(蘇軾)이 항주의 태수를 지내며 서호가 항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미목이라 했던 데서 유래하며(유봉학·정해득, 『수원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234쪽), 서호를 월나라의 미인 서시(西施)



〈그림 13〉 수원팔경의 분포

(西屯)이라 하였고 지금도 서둔동이란 지명으로 불려진다. 나머지 6개 경의 주시점은 '화홍관창', '용지대월', '남제장류'의 부감적 조망이 가능한 방화수류정으로 파악된다. 그뿐만 아니라 방화수류정은 '광교적설'의 시각체험을 위한 거리와 조망각이 유효한 시점이자 팔달산을 앙관(仰觀)할 때 지형경관적 체험이 가장 유효한 시점이기도 하다〈그림 14〉.

북지상련의 주대상인 북지는 화성 성곽의 북은구 안에 있는 연못으로 다양한 화목을 배식하여 『화성성역의궤』「은구도」에 실려 있는 '남지'와 같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였

에 비유해서 서자호(西子湖)라고 불렀다. 양귀비와 함께 중국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서시가 항주의 미인이라는 데서 서호를 서시에 비유한 것이다(http://jbs.p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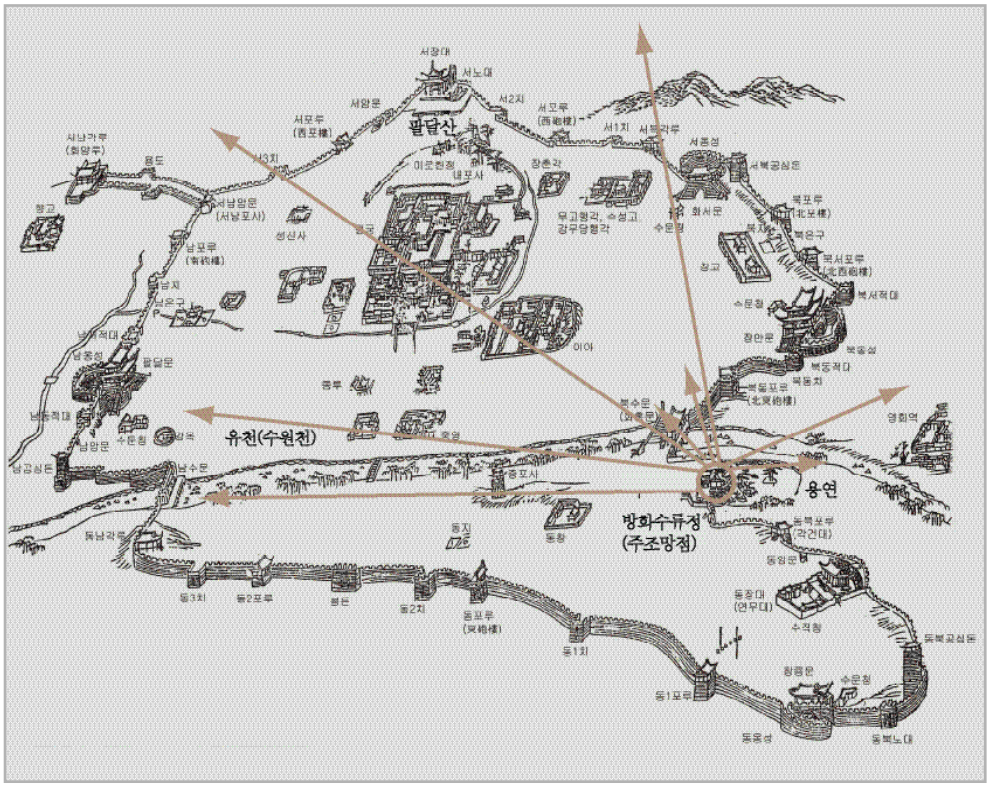
〈표 6〉 수원팔경의 경관 구성과 화성춘 · 추팔경의 관계

수원팔경	경관 내용	화성춘 · 추팔경과의 관계	주시점	주대상	부대상	비고
① 화산두견	화산의 두견새 울음소리	화산서애(춘팔경)	구읍치	화산	두견새 울음	꽃뫼
② 용지대월	용지에서 바라보는 월출	용연제월(추팔경)	방화수류정	달	방화수류정	용연
③ 화홍관창	화홍문의 폭포수 무지개	홍저소련(추팔경)	방화수류정	화홍문	무지개	화홍문
④ 남제장류	수원천 긴 제방에 늘어선 버드나무	유천청연 · 오교심화(춘팔경)	방화수류정	수원천	버드나무 띠숲	수원천
⑤ 북지상련	북쪽 연못의 희고 붉은 연꽃	석거황운(추팔경)	영화정	만석거	백련, 홍련	지칭 오류
⑥ 광교적설	눈 덮인 광교산	추가	방화수류정	광교산	흰 눈	광교산
⑦ 서호낙조	서호에 드리운 여기산 그림자	추가	항미정	축만제	여기산 그림자	서호
⑧ 팔달청람	안개에 감싸인 팔달산	추가	방화수류정	팔달산	안개와 구름	팔달산

다. 그런데 〈표 6〉과 달리 실제로는 화성춘 · 추팔경이 이후 수원팔경에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만석거가 북쪽에 위치한다 하여 만석거를 북지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이는 만석거 주변은 이미 춘팔경의 '대유농가'와 추팔경의 '석거황운'이라는 명소가 있었던 만큼 북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면서 일제시기에 만석거와 북지를 동일시한 결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도시와 같이 수원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도시공간구조와 토지 이용의 변모가 초래되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화성 내부의 전통적 중심시가지는 침체된 반면,[75] 외곽 수원팔경의 주대상인 서호와 남제 그리고 북지(만석거) 등의 경관시설이자 치수시설은 조선 후기 수리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업기술의 발달 성과에 부응한 측면이 크며, 근대화 과정을 지나면서 농업 중심도시 수원의 실용적 경관으로 계속 진화하였다. 따라서 초기 '의장화된 경관'으로서의 화성춘 · 추팔경은 수원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으로 주민의 산업 행위와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evolved landscape)'인 수원팔경으로 서서히 변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화산두견'의 주요 대상인 화산 융릉은 시거리상 팔달산의 서장대 근방에서만 시지각 체험이 가능한 상징적 경관이라 판단되고, 방화수류정은 화성춘 · 추팔경의 홍저소련과 용연제월의 시점이며, 이후 수원팔경의 남제장류 · 화홍관창 · 용지대월을 근경 또는 중경에서 적나라하게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승경의 요처로 각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5 윤효진 · 이종호, 「한일 양국에 있어 역사적 계획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형태특성 및 변화과정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화성과 일본 히코네 성의 사례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7(4), 2007, 525~533쪽.



〈그림 14〉 방화수류정의 조망 중심성

(2) 수원팔경의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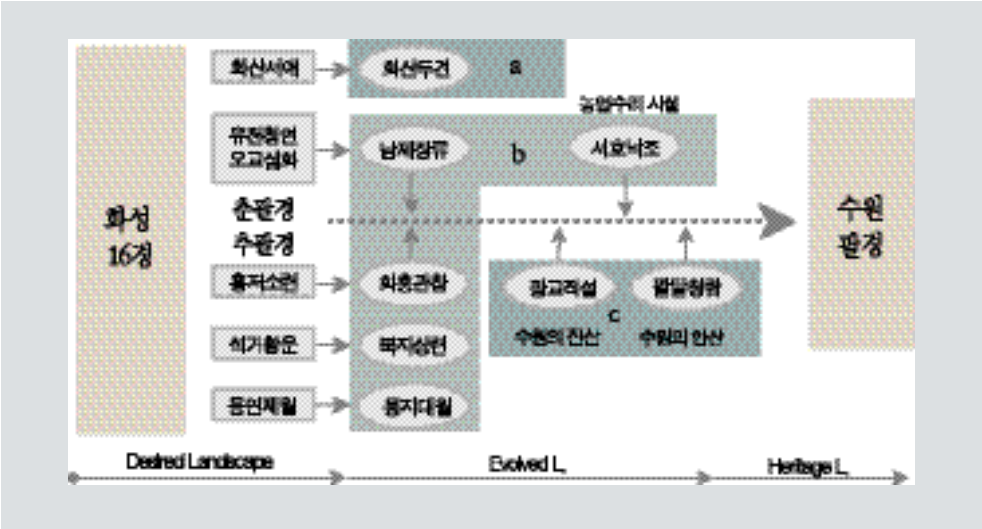
수원 화산은 이미 윤선도가 효종(재위 1649~1658)의 능지로 강력하게 추천한 곳이며, 읍치의 이전과 화성 건설에는 반계 유형원의 주장이 수용되었다.[76] 1872년 제작된 「수원부지도」〈그림 15-②〉는 화산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남산이 자리 잡고 남산과 독산성 사이로 물길이 지나고 있다. 지도에서는 화산의 풍수적 입지조건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현륭원과 건릉을 에워싸고 감아 도는 화산의 풍수적 장풍국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 화성은 교통의 요충지로 개방적 지형조건을 보이고 있다. 『해동지도』 중

76 그의 저서 『반계수록(磻溪隨錄)』 군현제 수원도호부조에서 "북쪽의 들 가운데 임천한 곳의 지세를 보고 판단하건대 현 읍치도 좋기는 하나 북쪽에 있는 들(북평)은 산이 크게 굽고 땅이 태평하여 현 읍치에 비하여 천지의 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가 깊고 넓으며 규모 또한 굉원(宏遠)하여 성을 쌓아 읍치로 하게 되면 실로 큰 번진(藩鎭)이 될 수 있는 기상이며 읍내외에 가히 만호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성동환, 「현륭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사학』 제17집, 2001, 144쪽 재인용).

〈그림 15〉 고지도로 본 화산과 화성의 관계성 ① 『대동여지도』의 화성과 화산 ② 1872년 「수원부지도」의 화성과 화산

「수원부지도」에는 읍치가 성황산, 도고산, 남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읍치를 둘러싼 이들 산 바깥으로 물길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다 읍치의 수구방향에서 다시 남으로 흘러간다. 또 『대동여지도』의 수원 부근〈그림 15-①〉을 보면 역시 과장되어 표현되고 있지만 상당히 개방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거시적 풍수 국면은 광교산에서 뻗어 온 팔달산을 주산으로 삼아 기대고[背山], 앞으로는 유천을 끼고[臨水], 동으로는 광교산으로부터 뻗은 지맥을 안산으로 하고 있다.

화성춘팔경의 제1경이었던 '화산서애(花山瑞靄)'는 수원팔경의 제4경인 '화산두견(花山杜鵑)'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사도세자-융릉-비운에 가신 아버지-슬픔(서글픔)이라는 공통적 모티브를 통해 재현되었으며, 이는 결국 수원 제팔경이 화성의 건설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단지 정조시대 '화산을 뒤엎은 상서로운 아지랑이'는 점차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또는 '화산 두견새의 울음'으로 감정이입되며 사도세자와 정조의 효심과 이루지 못한 열망의 메타포(metaphor)로 전환된 듯하다.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춘·추팔경(화성16경)이 화성 축성 시기의 바람을 담은 소망경관(desired landscape)이라면, 이후의 가감된 경관은 수원의 농업 진흥과 수리 그리고 지형 및 풍수경관적 대표성을 부가하며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evolved landscape)'으로, 그



〈그림 16〉 **수원팔경의 형성과 변모과정 모식도** a : 천장지(遷葬地)의 주산, b : 치수 및 수리 · 관상시설, c : 수원의 지형경관 랜드마크

리고 현재의 수원팔경은 사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규정되는 화성과 깊이 관련된 유산경관(heritage landscape)으로 그 가치를 논할 수 있다.

수원은 우선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이 깊은 도시로서 모수, 매홀, 수성, 수주 등 고대 지명도 물과 관련되어 있다. 삼한시대의 모수국(牟水國)이라는 부족국가에서 삼국시대 고구려가 점령하던 시기(5세기 말엽에서 신라 통일까지)에는 매홀(買忽)이라 불렸고, 통일신라시대 경덕왕시기(757년)에 이르러 수성군(水城郡)으로 개칭되고, 다시 고려시대 수주(水州)가 되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수원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지금의 수원이 아닌 예전부터 수원이라 불리던 화성시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수원이란 이름의 유래는 바로 이 서쪽 지방, 그러니까 갯벌 마을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낮은 야산으로 이루어져 물이 출렁거리던 곳에서 바닷물이 차츰 빠지면서 생긴 포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물나라, 즉 모수국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그림 15-②〉. 따라서 정조로서는 구읍치에 편안히 잘 살고 있던 백성들을 강제 이주케 한 측은함과 한 해에 두 번 이상 행차하면서 생긴 친근감이 공존했을 것이다. 이런 심정을 기저로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고 본래 주거지의 고을 이름을 새 도시에서 재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극대화함으로써 화산과 화성의 장소 동질성, 더 나아가서 장소 일체감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화산 융릉의 곤신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팔경은 수원천(유천)의 발원처, 치수공간, 관계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와 치수 및 감상을 목적으로 한 홍예문과 연못 그리고 정조 사후의 제례용 수원 등 직·간접적으로 물과의 관련성을 보인다. 이는 수원을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에 걸맞을 만큼 도시의 풍광을 아름답게 조성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77] 또한 화산두견의 대상장인 융릉 주변에 조성된 원형 연못 곤신지〈그림 17〉는 1789년 융릉이 천장되면서 아버지 사도장헌세자(추존 장조)가 왕이 되지 못한 한을 풀어 드리

〈표 7〉 수원팔경과 물의 관련성

수원팔경	물과의 관련성			건립시기	비고
	대상요소	구현 형태	기능과 의미		
① 화산두견	융릉과 곤신지	원형연못	형국 보완	1789년	정조 13년
② 용지대월	용지	반자연형 연못	유흥상경	1796년	방화수류정 부속연못
③ 화홍관창	화홍문	홍예(수)문	수로 유도, 관상	1795년	수원천의 북수문
④ 남제장류	수원천	유천의 뚝방	치수	1796년	버드나무경관
⑤ 북지상련	만석거	인공저수지	관계용수 공급	1795년	0.36㎢ 규모
⑥ 광교적설	광교산	유천의 발원지	수원의 진산		△ 582m
⑦ 서호낙조	축만제	인공저수지	관계용수 공급	1799년	0.19㎢ 규모
⑧ 팔달청람	팔달산	어정(御井)의 발원지	제례용 수원	1801년	화령전 내

77 윤종태, 「수원화성(유천성) 원형경관에 나타난 버드나무에 관한 연구」, 한경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7쪽.

고자 융릉의 반룡농주(盤龍弄珠) 풍수 형국을 보완[78]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연못임을 볼 때 물(水)은 구 수원부의 공간적 이동에도 불구하고 화성 신도시를 동일한 장소적 영역과 소속감으로 연결 유대시킨 결정적 경관의미의 본질이자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원팔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볼 때 수원팔경의 원형경관 보전 및 복구는 화성이라는 사적(史蹟)으로, 국제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과 긴밀하게 연계된 유산경관(heritage iandscape)으로서의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원팔경의 내적 의미를 물과 관련한 상징성으로 고찰하였지만 도출된 추론을 보다 강화하고 의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 관점에서 자료 발굴과 논리적 고증 과정이 요구된다.

4. 문화경관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이 연구는 수원팔경의 형성과정과 그 이면에 내재된 의도와 상징성 등 경관 함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화성춘 · 추팔경과 이후 수원팔경의 의미가 주는 형식성과 상징성 등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수원팔경의 형성과정과 의미 등 수원팔경 속에 담긴 정치 · 사회적 담론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정조시대 화성의 경관계획적 성과로 방어와 조경을 위한 축성기술이 결합한 '경관 창조의 지혜'와 '치수 및 농업 진흥을 위한 수리기술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성곽 접점부에 창의적 시설을 구축하여 물, 수목, 성곽 등 건축물이 만나 이루어 내는 실용적 사고와 미학적 사고가 조화를 이룬 공간 창출로 나타났다. 후자는 수원천 준설 및 정비 그리고 경관생태적 식재기법의 도입과 조림, 저수지의 휴양위락공간 활용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도시경관의 미래상 화성춘 · 추팔경의 경관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도시 건설을 위한 성곽 등의 형체요소는 물론 풍물, 행사 등 다양한 의미요소와 풍물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승의 조성 및 치수를 목적으로 한 식재, 물의 도입과 활용은 수원 화성의 중요한 계획요소이자 경관계획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화성춘 · 추팔경은 왕권 차원에서 앞으로의 도시경관 미래상에 대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8 성동환, 「현륭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사학』 제17집, 2001, 136쪽.

또한 수원팔경 연원에 관한 협애한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원팔경은 근 1세기 가깝게 수원의 대표적 경승으로 자리 잡은 수원의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일제의 잔재나 문화경관의 말살정책으로 생성된 관광자료로 폄하하는 일 또한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원팔경이 수원의 대표적 승경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이면에는 지역 정서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원팔경은 전환기시대의 문화와 경관주체의 소망을 담는 그 지역의 문화현상이자 고유 경관 브랜드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수원팔경의 구성요소를 보면 화성의 지형요소 및 시설인 팔달산, 남제, 융릉, 만석거. 축만제, 화홍문 그리고 방화수류정의 부속연못인 용지 등 대부분의 모티브는 화성춘 · 추팔경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수원의 대표적 산악이자 랜드마크인 광교산과 팔달산을 주요 대상으로 한 '광교적설'과 '팔달청람'이 추가되었다. 한편 수원팔경의 8개 경은 수원천(유천)의 발원처, 치수 및 관계용수 공급을 위한 인공저수지, 융릉의 비보풍수 그리고 정조 사후의 제례용 수원(水源) 등과 같이 직 · 간접적으로 물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등장함을 볼 때, 정조 사후에도 물(水)은 융릉의 화산 그리고 구 수원부와 화성 신도시를 동일한 장소적 영역과 소속감으로 연결시키는 결정적 매개체이자 경관의미의 본질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성이 정조시대 특정한 설계 의도로 '창조된 의장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면 화성 축성 직후의 모습을 담은 화성춘 · 추팔경은 미래의 경관상을 그린 '소망경관(desired landscape)'이며, 지금의 수원팔경은 수경관(water landscape)이 지극히 강조된 경관으로 주민의 영농과 치수 행위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evolved landscape)'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수원팔경의 문화경관적 함의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성의 완전한 복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원팔경 등 화성 원형경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 복원을 통한 문화경관의 본질 회복이 요망된다.

제3부

사회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인구와 주민 구성 변화

제2장 수원의 토지 이용 변화

제3장 수원의 도로망과 도로교통 변화

제4장 수원의 철도교통 변화

제5장 수원의 촌락 형성과 발달

손승호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1. 조선시대의 인구 변화
2. 개항기의 인구와 인구 구성
3. 일제시기의 인구와 인구 구성
4. 수원시 승격 이후의 인구
5. 수원시 주민 구성의 변화

제1장

수원의 인구와 주민 구성 변화

인구는 정치적 · 경제적으로 구획된 일정 지역 내 주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자국의 주민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포함하며,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인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인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한다.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증감요소가 포함되기도 하고, 전입과 전출이라는 사회적 증감요소에 의해서도 인구는 변화하게 된다. 수원에서의 인구 변화는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 원인이 단순한 자연적 증감일 수도 있지만, 행정구역의 변동이라는 정치적 · 행정적 요인도 인구 변화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구 변화는 정부에 의한 인구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에 호적편성제도가 마련되어 3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사에서 최초의 것으로 전해진다.[1]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조사에 대한 문헌은 조선시대가 되어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호구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52쪽.

조사의 결과는 조선왕조실록에 도별 · 성별 인구수와 호수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 『여지도서』 · 『대동지지』 등의 지리지와 지도류, 그리고 『호구총수』 · 『증보문헌비고』 등의 문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각 지방별 남녀 인구수와 호수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는 『경상도지리지』와 함께 조선시대 최초로 지방호구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경상도지리지』가 1개의 도에 대한 기록이라면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 8도를 총망라한 기록물인 셈이다. 한편, 『호구총수』(1789년)는 면(面) 단위까지의 호수와 남녀 인구수를 기록하였고, 『여지도서』(1760년대)는 군현에 따라 인구조사의 단위지역이 상이한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군현에서는 리(里) 단위까지의 호구수가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기록된 수원부의 인구는 면 단위까지 조사되었으며, 호수와 남녀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전근대의 인구자료는 정확성의 관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문헌에 기록된 인구수가 당시에 거주하였던 실제 인구 현황을 정확히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인 1404년(태종 4)에 호구조사가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의 조사대상은 국역과 부세대상인 남정(男丁 : 15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으로 국한되었고, 1가구를 1호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결(田結)이나 신분에 따라 3정을 1호로 추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역시 징병 · 과세 · 부역 등과 무관한 여성인구는 배제하고 남자의 수만 기록하였다. 결국 여성을 비롯하여 15세 미만의 유소년층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한 인구자료는 부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호수에 대한 자료는 신빙성이 있지만 인구수에 대한 자료는 신빙성이 결여된 실정이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기인 1925년부터 근대적인 인구조사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5년 간격으로 실시되던 인구총조사는 1944년, 1949년, 1966년을 제외하고는 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형태로 인구는 물론 주택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조선시대의 인구 변화

1) 조선 전기의 인구

조선 초기의 인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세종실록지리지』가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 8도의 부목군현별로 호수와 인구를 기록하였다. 당시 경기도에 목(牧)

은 광주목 하나뿐이었고, 수원을 포함하여 8개의 도호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군은 안성을 비롯한 8개가 있었고, 현은 이천을 비롯한 24개가 있었다. 개성 역시 경기도에 포함되었지만, 개성의 도성(주현)과 소속현(속현)의 자료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수록되었다. 개성의 호수는 모두 5,663호이고 인구는 1만 39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속현의 호수는 844호이고 인구는 2,021명이었다. 개성을 포함하면 당시 경기도의 인구는 2만 6,547호에 6만 745명 수준이었고, 호당 인구는 2.3명에 인구밀도는 4.7명/㎢에 달하였다. 이를 토대로 당시 경기도 각 군현의 평균 인구 규모를 산출해 보면, 평균 632호에 1,446명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출된 호당 인구는 현재의 가구당 인구수보다 적은 규모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인구조사가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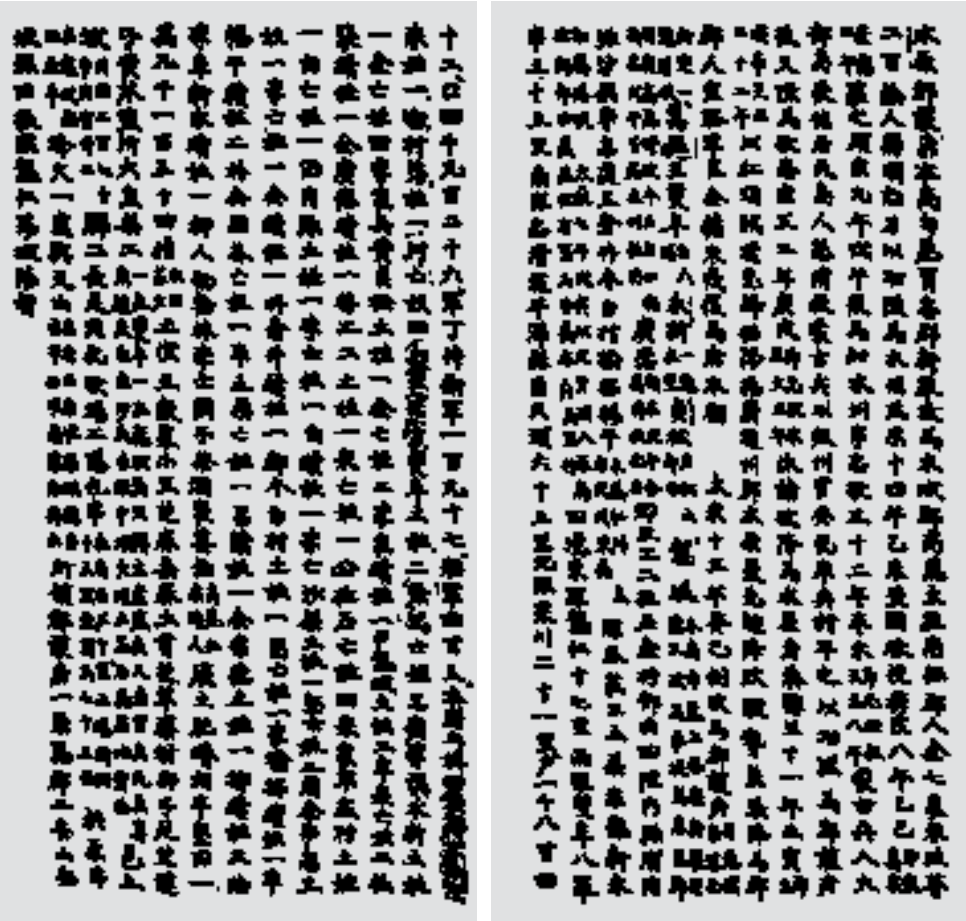
경기도의 군현 가운데 호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화도호부로 2,445호였고, 가장 적었던 지방은 138호가 있던 영평현이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방은 수원도호부로 4,926명이 거주하였으며, 연천현은 인구가 360명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내었다. 수원도호부의 호수는 강화도호부에 이어 2위였지만, 인구 규모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아 당시에도 수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초 수원의 인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지만, 호당 인구수는 2.7명으로 도내에서 18위에 해당하였다. 안성이나 양근 등지에서는 호당 인구수가 4명을 넘어섰지만, 수원의 호당 인구수는 경기도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당시 수원도호부의 면적은 688.63㎢로 추정되는데, 이는 군 평균 관할면적 308.2㎢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7.2명/㎢으로 당시 도내에서 11위였으며, 경기도 평균 4.0명/㎢을 훨씬 상회하였다. 수원은 경기도의 중부에 위치하여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였고 지세가 저평하여 일찍부터 사람들의 가거지로 선호되었으며 다른 지방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조선 초기 수원의 인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자랑하였고 인구밀도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호당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15세기 초 경기 지방의 호구

구분	지방	면적(㎢)	호	인구(명)	호당 인구(명)	인구밀도(명/㎢)
목	광주	888.45	1,436	3,100	2.2	3.5
도호부	수원	688.63	1,842	4,926	2.7	7.2
	강화	291.46	2,445	3,283	1.3	11.3
	양주	1,110.42	1,481	2,726	1.8	2.5

구분	지방	면적(㎢)	호	인구(명)	호당 인구(명)	인구밀도(명/㎢)
도호부	원평	292.93	494	1,316	2.7	4.5
	여흥	257.41	538	1,144	2.1	4.4
	부평	177.20	429	954	2.2	5.4
	남양	224.63	487	778	1.6	3.5
	철원	718.48	351	770	2.2	1.1
	소계	3,761.16	8,067	15,897	2.0	4.2
군	안성	231.13	424	1,763	4.2	7.6
	양근	539.24	388	1,686	4.3	3.1
	인천	139.00	357	1,412	4.0	10.2
	해풍	262.38	792	1,381	1.7	5.3
	삭녕	401.80	233	722	3.1	1.8
	김포	98.90	318	651	2.0	6.6
	안산	111.69	302	588	1.9	5.3
	양천	55.67	222	509	2.3	9.1
	소계	1,839.81	3,036	8,712	2.8	4.7
현	이천	312.16	1,026	3,898	3.8	12.5
	교하	144.74	590	1,629	2.8	11.3
	고양	218.08	679	1,314	1.9	6.0
	천녕	385.71	413	1,234	3.0	3.2
	포천	326.31	371	1,222	3.3	3.7
	양성	161.06	425	1,210	2.8	7.5
	용인	396.86	457	1,168	2.6	2.9
	음죽	149.98	390	1,088	2.8	7.3
	가평	713.32	288	987	3.4	1.4
	통진	190.19	458	971	2.1	5.1
	금천	125.42	327	937	2.9	7.5
	임강	172.04	364	878	2.4	5.1
	과천	139.18	244	743	3.0	5.3
	임진	266.86	274	613	2.2	2.3
	양지	159.96	346	600	1.7	3.8
	교동	44.16	221	562	2.5	12.7
	진위	153.49	221	535	2.4	3.5
	지평	504.84	267	515	1.9	1.0
	마전	97.89	146	484	3.3	4.9
	장단	325.62	170	467	2.7	1.4
	영평	410.74	138	419	3.0	1.0
	안협	244.20	140	410	2.9	1.7
	적성	171.20	212	380	1.8	2.2
	연천	178.05	186	360	1.9	2.0
	소계	5,992.06	8,353	22,624	2.7	3.8
계		12,481.48	20,892	50,352	2.4	4.0



〈그림 1〉『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

2) 조선 후기의 인구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선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찬지리지(官撰地理誌)인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 지리지에는 인구와 관련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후 전국적인 수준에서 인구 현황을 기록한 문헌은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이다. 『호구총수』에는 조선 중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면리제(面里制)에 따라 면 단위로 호수와 남녀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가 작성되기 이전인 1777년(정조 원년)에 서울 이외의 경외호구(京外戶口)는 170만 5,371호에 723만 8,522명이었다.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에는 175만 2,837

호에 남자 360만 7,376명, 여자 379만 6,230명으로 모두 740만 3,606명의 인구 기록이 있다. 이들 자료에 앞서 1760년대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서』가 있다. 『여지도서』에는 각 군현의 방리조(坊里條)에 호수와 남녀 인구수가 함께 기록되어 있지만 군현에 따라 인구 측정의 단위 지역이 서로 상이하여, 상세하게 작성된 군은 면은 물론 리의 인구 자료까지 명확하게 조사되었다.

『여지도서』는 영조 대인 1757~1765년에 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 295개의 읍지(邑誌)와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鎭誌)가 포함되어 있다. 『수원부읍지』는 본래 누락되었으나, 누락된 군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읍지들을 모아 따로 보유(補遺)편으로 묶는 방식에 따라 『호구총수』의 발행시기보다 늦은 1793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지도서』에 수록된 수원의 인구는 다른 군현보다 늦은 1780년대 중반 이후의 자료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지도서』에 수록된 수원의 인구 현황은 『호구총수』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면이 많으며, 일부 면에서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수원의 인구는 1만 4,696호에 남자 2만 8,373명, 여자 2만 7,325명으로 모두 5만 5,698명이었다. 이 인구는 『여지도서』에 수록된 당시의 경기도 군현별 인구 가운데 한성 다음으로 많은 규모이며, 한성을 제외하면 경기도에서 수원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셈이다. 호당 인구수는 3.8명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었던 인구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호당 인구수 2.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수원의 호수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이었고,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매우 높았다. 남자인구와 여자인구의 비율인 성비는 103.8로 경기도 전체의 성비인 97.8보다 높아, 수원에는 남자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원의 면적이 688.6㎢이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구밀도를 도출하면 80.9명/㎢의 규모이다. 인구밀도는 당시 경기도에서 9위에 해당한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인구자료를 통해 보면, 수원은 당시 경기도에서 수위도시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밀도 역시 도내에서 9위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조밀지역이었다.

조선 후기 수원의 인구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호구총수』에는 각 군현의 면 단위 호구가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인구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도의 인구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15만 9,178호에 남자 32만 4,888명, 여자 31만 7,180명으로 모두 64만 2,068명에 달하였다. 이는 『여지도서』에 수록된 경기도의

〈표 2〉『호구총수』에 수록된 18세기 말 경기 지방의 호구

지방	면적(㎢)	호	인구(명)			성비	호당 인구	인구밀도 (명/㎢)
			남	여	계			
개성	461.84	11,525	23,827	25,796	49,623	92.4	4.3	107.4
강화	291.46	9,801	18,866	15,365	34,231	122.8	3.5	117.4
광주	888.45	10,568	24,402	26,106	50,508	93.5	4.8	56.8
양주	1,110.42	12,465	30,210	30,215	60,425	100.0	4.8	54.4
여주	643.12	6,654	21,106	10,462	31,568	201.7	4.7	49.1
파주	292.93	3,227	5,485	4,669	10,154	117.5	3.1	34.7
수원	688.63	15,139	28,240	29,420	57,660	96.0	3.8	83.7
남양	244.63	6,315	8,436	14,982	23,418	56.3	3.7	95.7
교동	44.16	1,808	3,762	3,808	7,570	98.8	4.2	171.4
장단	764.51	5,332	9,035	7,108	16,143	127.1	3.0	21.1
풍덕	262.38	3,193	6,477	4,545	11,022	142.5	3.5	42.0
부평	177.20	3,169	6,109	5,480	11,589	111.5	3.7	65.4
통진	190.19	3,372	6,139	5,326	11,465	115.3	3.4	60.3
인천	139.00	4,096	7,505	7,061	14,566	106.3	3.6	104.8
이천	312.16	4,967	12,995	12,343	25,338	105.3	5.1	81.2
죽산	249.23	4,223	10,234	11,655	21,889	87.8	5.2	87.8
고양	218.08	3,301	6,401	6,662	13,063	96.1	4.0	59.9
교하	144.74	2,474	3,871	4,126	7,997	93.8	3.2	55.3
가평	713.32	1,922	3,587	2,866	6,453	125.2	3.4	9.0
삭녕	401.80	2,792	5,801	5,095	10,896	113.9	3.9	27.1
마전	97.89	1,011	2,207	1,398	3,605	157.9	3.6	36.8
안성	231.13	4,589	8,173	8,855	17,028	92.3	3.7	73.7
김포	98.90	1,679	3,388	3,339	6,727	101.5	4.0	68.0
안산	111.69	2,758	6,406	5,520	11,926	116.1	4.3	106.8
양근	539.24	3,586	5,991	6,225	12,216	96.2	3.4	22.7
용인	396.86	4,859	10,473	10,646	21,119	98.4	4.3	53.2
양천	55.67	802	1,415	1,378	2,793	102.7	3.5	50.2
진위	153.49	2,137	3,484	3,609	7,093	96.5	3.3	46.2
영평	410.74	1,549	3,430	3,441	6,871	99.7	4.4	16.7
양성	161.06	3,104	3,924	3,522	7,446	111.4	2.4	46.2
금천	125.42	1,934	3,360	3,885	7,245	86.5	3.7	57.8
과천	139.18	3,273	5,919	8,260	14,179	71.7	4.3	101.9
적성	171.20	1,698	3,123	2,786	5,909	112.1	3.5	34.5
포천	326.31	2,598	4,955	5,443	10,398	91.0	4.0	31.9
연천	178.05	1,342	2,622	2,156	4,778	121.6	3.6	26.8
양지	159.96	1,685	4,288	5,269	9,557	81.4	5.7	59.7
지평	504.84	2,168	5,211	4,514	9,725	115.4	4.5	19.3
음죽	149.98	2,063	4,031	3,844	7,875	104.9	3.8	52.5
계	12,249.86	159,178	324,888	317,180	642,068	102.4	4.0	52.4

인구 59만 3,522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호수는 경상도(36만 220호), 전라도(31만 9,160호), 평안도(30만 904호), 충청도(22만 625호)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고, 인구는 경상도(159만 973명), 평안도(129만 6,044명), 전라도(122만 804명), 충청도(86만 8,219명), 함경도(69만 6,275명)에 이어 6위를 기록하였다.

조선 초기와 달리 18세기 후반에 경기도의 부군은 38개로 감소하였다. 수원은 1만 5,139호에 남자 2만 8,240명, 여자 2만 9,420명으로 모두 5만 7,660명의 인구를 보유하였다. 이는 호수 면에서는 경기도에서 1위이고, 인구 면에서는 양주(6만 425명)에 이어 2위의 자리에 해당한다. 당시에 경기도의 부군별 평균 호수는 4,189호였고 평균 인구는 1만 6,887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수원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호수와 인구가 가장 적었던 지방은 양천으로 802호에 남자 1,415명, 여자 1,378명으로 모두 2,793명이 거주하였다.

남자인구와 여자인구의 비율에 해당하는 성비는 경기도 전체에서는 102.4로 여자인구에 비해 남자인구가 약간 많았으며, 지방별로 성비의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을 지녔다. 성비가 높은 지방은 여주 · 마전 · 풍덕 · 장단 · 가평 등지였고, 성비가 낮은 지방은 남양 · 과천 · 금천 · 죽산 등지였는데, 여주는 성비가 201.7을 기록한 반면, 남양은 56.3에 불과하였다. 수원의 성비는 96.0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으며, 도에서 28위에 자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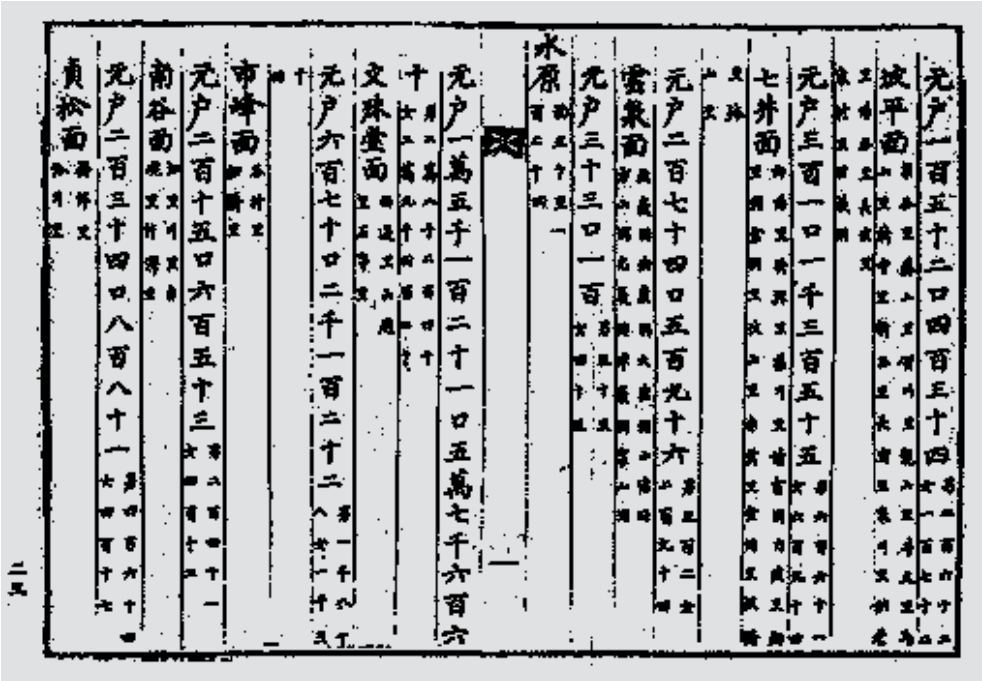
경기도의 호당 평균 인구는 4.0명으로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한 3.6명보다 증가하였다. 도내에서 호당 인구수가 큰 지방은 5.7명을 기록한 양지를 비롯하여 이천 · 죽산 등지인데, 이들 지방은 대체로 넓은 농경지를 기반으로 농업생산량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높은 인구부양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호당 인구수가 작은 지방은 2.4명으로 가장 작았던 양성을 비롯하여 장단 · 교하 등지였다. 수원의 호당 인구수는 3.8명으로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도내에서 20위에 지나지 않았다. 인구밀도는 경기도 평균이 52.4명/㎢이었는데, 교동이 171.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평이 9.0명/㎢으로 가장 낮았다. 수원의 인구밀도는 83.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으며, 도내에서 9위에 해당하였다. 조선 전기와 비교해 보면, 수원의 호당 인구는 2.7명에서 3.8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으며, 인구밀도는 7.2명/㎢에서 83.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원은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역이었지만, 인구 규모의 순위가 도내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고 인구밀도가 9위에 해당하였음은 당시에 수원의 인구부양력이 양호하여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여력이 있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이제부터는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18세기 말 수원을 구성하던 50개 면의 인구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호구총수』에 수원부 전체 호수는 1만 5,121호로 기록되

〈표 3〉『호구총수』에 수록된 18세기 말 수원의 호구

인구순위	면명	호수(호)	인구수(명)			성비	호당인구(명)	인구순위	면명	호수(호)	인구수(명)			성비	호당인구(명)
			남	여	계						남	여	계		
1	문수당	670	1,088	1,034	2,122	105.2	3.2	27	갓등	284	522	559	1,081	93.4	3.8
2	고등촌	316	904	1,100	2,004	82.2	6.3	28	초평	265	575	506	1,081	113.6	4.1
3	호매절	395	837	856	1,693	97.8	4.3	29	사정	340	538	523	1,061	102.9	3.1
4	동	534	826	837	1,663	98.7	3.1	30	장족	275	518	533	1,051	97.2	3.8
5	태촌	352	752	773	1,525	97.3	4.3	31	정송	335	539	455	994	118.5	3.0
6	포내	398	745	776	1,521	96.0	3.8	32	북방	262	511	480	991	106.5	3.8
7	압장	496	773	722	1,495	107.1	3.0	33	금물촌	225	441	537	978	82.1	4.3
8	종덕	367	718	768	1,486	93.5	4.0	34	팔탄	251	488	490	978	99.6	3.9
9	화방	243	755	729	1,484	103.6	6.1	35	모전	159	499	474	973	105.3	6.1
10	동북	503	739	725	1,464	101.9	2.9	36	숙성	269	484	488	972	99.2	3.6
11	삼미	322	703	755	1,458	93.1	4.5	37	청호	336	461	503	964	91.7	2.9
12	오정	432	710	744	1,454	95.4	3.4	38	양간	266	426	535	961	79.6	3.6
13	안녕	451	676	711	1,387	95.1	3.1	39	토법	230	456	489	945	93.3	4.1
14	팔라곶	275	663	694	1,357	95.5	4.9	40	광교	265	410	478	888	85.8	3.4
15	가사곶	365	675	656	1,331	102.9	3.6	41	송동	185	428	456	884	93.9	4.8
16	광덕	274	668	641	1,309	104.2	4.8	42	남곡	234	464	417	881	111.3	3.8
17	수류	313	581	694	1,275	83.7	4.1	43	공석	338	401	458	859	87.6	2.5
18	마정	276	601	660	1,261	91.1	4.6	44	산성	249	363	424	787	85.6	3.2
19	청룡	301	605	648	1,253	93.4	4.2	45	어탄	274	361	351	712	102.8	2.6
20	쟁홀	310	639	584	1,223	109.4	3.9	46	용복	221	348	328	676	106.1	3.1
21	초장	253	595	589	1,184	101.0	4.7	47	시봉	215	241	412	653	58.5	3.0
22	감암	270	566	575	1,141	98.4	4.2	48	일용	171	291	355	646	82.0	3.8
23	오타	282	529	592	1,121	89.4	4.0	49	삼봉	192	266	340	606	78.2	3.2
24	정림	296	511	598	1,109	85.5	3.7	50	모지	148	276	265	541	104.2	3.7
25	공이향	287	553	538	1,091	102.8	3.8	계		15,139	28,240	29,420	57,660	96.0	3.8
26	서북	169	521	565	1,086	92.2	6.4								

었으나 전체 면별 호수를 합하면 1만 5,139호로 계산되어 차이를 보인다. 수원의 면별 평균 호수는 303호에 달하였고, 면별 평균 인구는 1,153명(남자 565명, 여자 588명)이었다. 면별 호수가 수원의 평균을 넘어선 곳은 19개 면이었고, 인구가 수원 평균을 넘어선 곳은 21개 면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은 2,122명이 거주하였던 문수당면(文殊堂面)이었는데, 문수당면은 그 이전에 수원의 부내에서 문수당일수, 문수당삼수, 문수당오수로 나뉘어 있던 곳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읍내 또는 도회지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그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컸던 곳은 팔달산의 서쪽 사면에 자리한 고등촌면이었는데, 이 일대는 현재의 고등동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고등촌면의 북쪽에 위치한 삼봉면과 모



〈그림 2〉『호구총수』에 보이는 수원의 인구 현황

지면은 당시 수원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적었던 면에 해당한다. 인구 규모별 분포는 500~1,000명이 20개 면, 1,000~1,500명 24개 면, 1,500~2,000명 4개 면, 2,000명 이상이 2개 면으로, 인구 규모 1,000~1,500명인 면이 가장 많았다.

호수가 가장 많았던 면은 문수당면(670호)이었고, 그 뒤를 이어 동면 · 동북면 · 압장면 등이었다. 동북면은 수원 동쪽의 진위와 경계를 형성하는 곳이고, 압장면은 서해에 면한 곳이다. 호수가 가장 적은 곳은 모지면(148호)이었는데, 가장 많은 문수당면과의 차이는 522호에 달하였다. 호수의 규모별로는 100~200호인 곳이 6개 면, 200~300호 24개 면, 300~400호 14개 면, 400~500호 3개 면, 500~600호 2개 면, 600호 이상이 1개 면이었다. 200~300호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녀 인구 구성은 성비가 96.0으로 남자인구보다 여자인구가 다소 많았다. 그러나 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비의 범위는 매우 광범한 편이다. 가장 높은 성비를 나타낸 곳은 정송면의 118.5인 데 반해, 가장 낮은 성비를 가진 시봉면은 58.5에 불과하였다. 남자인구가 많아 성비가 100을 넘었던 곳은 정송면을 비롯하여 초평면 · 남곡면 · 쟁홀면 · 압장면 · 모전면 등 모두 18개 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2개 면에서는 여자인구가 남자보다 많아

〈그림 3〉 『팔도군현지도』, 「수원」(176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비가 100에 미치지 못하였다.

수원부 전체의 호당 평균 인구수는 3.8명이었지만, 면별 편차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였다. 호당 인구수의 편차는 성비의 편차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북면으로 6.4명을 기록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공석면으로 2.5명에 불과하였다.

호당 인구가 수원 평균보다 많은 면은 24개 면이었고, 26개 면에서는 평균보다 적었다. 특히 고등촌면 · 화방면 · 서북면 · 모전면 등 4개 면의 호당 인구는 6명을 상회하였다. 반면 공석면 · 어탄면 · 청호면 · 동북면의 호당 인구는 3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호당 인구수가 6명 이상인 곳은 4개 면, 4~5명 16개 면, 3~4명 26개 면, 3명 이하 4개 면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 개항기의 인구와 인구 구성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기 이전부터 조선에 대한 강력한 식민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1909년 4월에 실시된 「민적법」에 의거하여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료는 『민적통계표』에 수록되어 있다. 『민적통계표』는 각 군의 면 단위 지역에 대하여 호수를 비롯하여 남자인구, 여자인구, 그리고 각 호주의 직업을 11개로 세분하여 조사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직업별 인구 구성을 통해 당시의 직업 분화 패턴도 알 수 있다.

20세기 초에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서울(경성)을 포함하여 33개로 감소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평균 호수는 6,629호에 달하였고, 평균 인구는 3만 960명(남자 1만 6,290명, 여자 1만 4,670명)이었다. 경기도의 호당 인구수는 4.7명으로 『호구총수』에 비해 0.7명이 증가하였으며, 성비는 111.0으로 『호구총수』에 비해 7.6이 높아졌다. 한편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90.8명/㎢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을 제외하고 호당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지방은 풍덕(5.0명)이었고, 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시흥(126.1), 그리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수원의 서쪽에 위치한 남양(217.6명/㎢)이었다.

1909년의 수원 인구는 1만 5,352호에 남자 3만 9,375명, 여자 3만 5,286명으로 모두 7만 4,661명이 거주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양주 다음으로 많은 인구 규모였다. 수원의 인구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구총수』의 8.9%에서 7.5%로 감소하였다. 당시 수원의 호당 인구수는 4.9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많았으며, 성비는 111.6을 기록하였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108.4명/㎢으로 증가하였다. 호당 인구수를 비롯하여 성비와 인구밀도가 『호구총수』에 비해 높아졌지만, 인구밀도의 순위는 9위에서 13등으로 밀려났다. 수원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인구밀도의 순위가 하락하였음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수원의 인구 증가가 다른 지방보다 더디게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해 준다. 도내에서 수원의 면적이 차지하던 비중이 5.6%였음에 비

〈표 4〉『민적통계표』에 수록된 20세기 초 수원군의 면별 호구[2]

인구 순위	면	호수	인구(명)			성비	호당 인구
			남	여	계		
1	남부	1,358	3,314	3,148	6,462	105.3	4.8
2	북부	1,051	2,493	2,441	4,934	102.1	4.7
3	남곡	719	1,645	1,481	3,126	111.1	4.3
4	포내	494	1,408	1,332	2,740	105.7	5.5
5	안녕	553	1,361	1,233	2,594	110.4	4.7
6	매곡	497	1,386	1,182	2,568	117.3	5.2
7	삼봉	497	1,321	1,233	2,554	107.1	5.1
8	동북	561	1,315	1,222	2,537	107.6	4.5
9	남	504	1,309	1,182	2,491	110.7	4.9
10	어탄	476	1,175	1,125	2,300	104.4	4.8
11	승양	429	1,129	1,080	2,209	104.5	5.1
12	태촌	421	1,152	1,035	2,187	111.3	5.2
13	공향	483	1,160	972	2,132	119.3	4.4
14	문시	399	998	845	1,843	118.1	4.6
15	초평	407	935	847	1,782	110.4	4.4
16	오정	322	902	771	1,673	117.0	5.2
17	형석	326	903	770	1,673	117.3	5.1
18	정림	333	845	805	1,650	105.0	5.0
19	장주	317	870	753	1,623	115.5	5.1
20	토진	310	823	742	1,565	110.9	5.0
21	가사	260	828	731	1,559	113.3	6.0
22	광덕	276	843	695	1,538	121.3	5.6
23	송동	286	760	707	1,467	107.5	5.1
24	안외	201	781	671	1,452	116.4	7.2
25	현암	261	733	697	1,430	105.2	5.5
26	용복	284	750	640	1,390	117.2	4.9
27	청룡	271	705	641	1,346	110.0	5.0
28	숙성	268	720	617	1,337	116.7	5.0
29	종덕	271	684	639	1,323	107.0	4.9
30	일용	258	691	628	1,319	110.0	5.1
31	청호	350	678	610	1,288	111.1	3.7
32	갈담	227	760	436	1,196	174.3	5.3
33	상홀	244	550	480	1,030	114.6	4.2
34	율북	229	548	449	997	122.0	4.4
35	양간	255	560	426	986	131.5	3.9
36	감미	212	489	429	918	114.0	4.3
37	산성	242	492	421	913	116.9	3.8
38	언북	172	483	412	895	117.2	5.2
39	수북	167	448	385	833	116.4	5.0
40	서신리	161	428	373	801	114.7	5.0
계		15,352	39,375	35,286	74,661	111.6	4.9

2 붉게 표시된 면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에, 나머지 면은 진위군에 이속되었다.

〈그림 4〉 한말~일제 초기 수원군 행정구역(국가기록원 소장) 한말 수원군의 면별 행정구역이 일제 초기에 변경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추어 보면, 수원은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조밀지역이었다.

『민적통계표』에 수록된 수원군 각 면의 호구자료는 〈표 4〉에 정리해 놓았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행정구역의 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면 가운데 상당수는 일제시기인 1914년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당시에 진위군으로 이속되었으며, 현재는 평택시에 편입되었다. 여기에서는 1909년 당시 수원군의 행정구역에 속한 곳의 호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원의 면별 호수 평균은 384호이고, 평균 인구는 1,866명(남자 984명, 여자 882명)이었다. 평균 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면은 13개 면에 불과하였고 인구 규모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미루어, 당시 수원의 인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수가 100~200호인 곳은 3개 면, 200~300호 16개 면, 300~400호 7개 면, 400~500호 8개 면, 500~600호 3개면, 700호 이상 3개 면 등이었다. 인구가 1,000명 이하인 곳은 7개 면, 1,000~2,000명 20개 면, 2,000~3,000명 10개 면, 3,000명 이상 3개 면이었다. 호당 인구는 3~4명인 곳이 3개 면이고, 4~5명인 곳은 15개면, 5~6명 20개 면, 6명 이상 2개 면이었다.

호수가 가장 많은 면은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이들 두 지역의 호수는 다른 면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으며 인구 규모 역시 다른 면에 비해 매우 컸다. 남부면과 북부면이 인구밀집지역을 형성한 것은 이들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다. 즉 수원 화성으로 읍치를 옮기고 난 후 새롭게 건설된 화성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이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들 두 지역은 수원의 중심기능이 밀집해 있는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근대에 들어서서 이들 지역은 다시 여러 동으로 분리되었고, 수원의 중심시가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호수가 적은 곳은 서신리면을 비롯하여 수북면 · 언북면 · 산성면 등이었다. 호수와 인구수는 대체로 정(+)의 상관을 나타내어, 호수가 적은 면의 인구 규모 역시 적었다. 성비는 수원 전체에서 111.6을 나타내었듯이, 모든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100을 상회하였다.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북부면의 성비가 102.1로 가장 낮았으며, 어탄면 · 승양면 · 정림면 등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성비를 나타내었다. 반면 갈담면은 남자인구가 월등히 많아 성비가 174.3을 기록하였으며, 양간면 · 율북면 · 광덕면 등지에서도 120 이상의 높은 성비를 나타내었다. 호당 인구수는 청호면 · 산성면 · 양간면 등지에서 4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던 반면, 안외면과 가사면에서는 6명을 넘었다. 특히 안외면은 호당 인구수가 7.2명을 기록하여 다른 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민적통계표』에 포함되어 있는 면별 호주의 직업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표 5〉『민적통계표』를 통해 본 20세기 초 수원군의 면별 직업 구성[3]

(단위 : 명)

면명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어업	일가	합계
남부	60	5	16	752	525	13	68	1,439
북부	48	24	2	265	598	2	186	1,125
남곡	1	6	4	2	715	1	1	730
포내	1	1	0	6	488	0	0	496
안녕	1	0	8	10	541	0	2	562
매곡	1	7	0	20	477	0	0	505
삼봉	1	3	0	4	493	0	0	501
동북	1	3	1	3	554	2	2	566
남	3	1	2	8	492	1	3	510
어탄	1	1	1	6	470	0	0	479
승양	1	0	0	11	418	0	0	430
태촌	1	2	12	4	417	0	0	436
공향	1	5	5	24	451	3	5	494
문시	1	0	4	1	393	1	4	404
초평	1	1	0	5	402	0	0	409
오정	0	1	0	15	307	0	0	323
형석	1	2	1	0	326	0	0	330
정림	1	2	1	2	331	0	0	337
장주	2	18	0	1	316	0	0	337
토진	0	0	0	2	308	0	0	310
가사	1	0	0	4	256	0	0	261
광덕	1	2	0	2	274	0	0	279
송동	1	11	0	6	262	0	18	298
안외	1	0	0	2	199	0	0	202
현암	1	3	0	3	258	0	0	265
용복	1	5	0	2	282	0	0	290
청룡	1	1	0	2	269	0	0	273
숙성	1	1	0	8	260	0	0	270
종덕	1	1	0	4	267	0	0	273
일용	1	12	15	2	256	0	0	286
청호	1	2	0	70	243	11	26	353
갈담	1	5	0	6	221	0	0	233
상홀	1	1	0	7	235	2	0	246
율북	1	0	0	2	227	0	0	230
양간	1	0	0	7	247	1	0	256
감미	1	0	0	3	209	0	0	213
산성	1	0	6	3	239	0	0	249
언북	1	1	0	1	171	0	0	174
수북	1	0	0	2	165	0	0	168
서신리	1	0	0	7	154	0	0	162
계	147	127	78	1,284	13,716	37	315	15,704

3 직업 분류상 공업 · 광업 · 기타 · 무직도 있으나, 수원에서는 해당자가 없다. 일가(日稼)는 날품팔이를 의미한다.

수원의 경제활동을 짐작해 보도록 하겠다. 수원의 호수는 1만 5,139호였지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모두 1만 5,704명이었다. 이는 한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직업을 가진 경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에서 당시에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 모두 24만 4,664명이었으므로, 수원의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차지한 비중은 6.4%에 달하였다.

수원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직업은 농업이었는데, 전체의 87.3%에 달하는 1만 3,716명의 호주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은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상업이었고, 세 번째로는 일가(날품팔이)가 2.0%를 차지하였다. 당시 경기도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호주의 비율이 85.8%였고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6.2%였음을 고려하면, 수원에서는 농업 종사자와 상업 종사자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직업 가운데 수원에는 종사자가 분포하지 않았던 공업 · 광업 · 기타 등을 제외하면 어업 종사자가 0.2%로 가장 적었으며, 그다음으로 유생, 양반, 관공리의 순으로 종사자가 적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당시 수원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한눈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부면과 북부면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공서가 많이 입지하였고, 현대와 같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당시에는 대부분의 관공리가 직장과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남부면과 북부면에는 수원군 관공리의 73.5%가 거주하였다. 남부면과 북부면이 자리한 수원 화성은 시가지가 발달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기에 화성 내부와 외부에 각각 시장이 형성되어 번창하였다. 이는 남부면과 북부면에 상업에 종사한 호주가 많았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면에서는 상업에 종사한 호주가 많지 않았지만, 남부면과 북부면에는 수원군 상업 종사자의 79.2%가 집중하였다. 또한 남부면과 북부면에는 일가(날품팔이)도 많았는데, 수원 전체 일가 종사자의 80.6%가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대의 도시구조이론에서 언급되는 주거지 분화가 당시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거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인들의 주거지,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날품팔이의 주거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거지가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농업에 종사한 호주의 수는 남곡면에서 가장 많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토진면이었다. 토진면에서는 310명의 호주 가운데 308명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 외에 형석면 · 율북면 · 청룡면 · 안외면 등을 포함하여 모두 14개 면에서 농업호의 비중이 98%

를 상회하였다. 전체 40개 면 가운데 30개 면에서 농업호의 비중이 95%를 상회하였으며, 90%를 상회한 곳은 34개 면에 달하였을 정도로 대부분의 면에서 농업호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수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남부면과 북부면에서는 농업호의 비중이 각각 36.5%와 53.2%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청호면에서도 농업호의 비중이 68.8%에 불과하였다. 청호면에서는 상업에 종사하는 호주가 70명으로,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를 차지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수원 지역에는 크고 작은 장시가 발달하였다. 수원 화성의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남문외장과 북문내장이 있었고, 오산장 · 발안장 · 안중장 등이 있었다.[4] 이 가운데 남문외장은 남부면에 자리하였고, 수원천변에 형성된 북문내장은 북부면에 자리하였다. 오산장은 당시 청호면에 위치하여 청호장이라고도 불렸으며, 팔탄장이라고도 불렸던 발안장은 당시 공향면에 자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장시의 입지는 면별 직업 구성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호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상에서 볼 때, 수원에서 직업 구성이 가장 다양하였던 지역은 군청 등의 관공서를 비롯하여 주요 시장 및 농경지가 분포함에 따라 수원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던 남부면과 북부면이다. 특히 남부면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호주도 상대적으로 많아 남부면의 직업 구성이 가장 다양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대의 오산시에 속하는 청호면 역시 장시의 발달과 함께 직업 구성이 다양한 지역이었다. 이에 반해 직업 구성이 가장 단순하였던 곳은 농업과 상업 종사자로만 구성되었던 토진면이고, 농업 · 상업 · 관공리 종사자로만 구성된 초평면 · 승양면 · 가사면 · 안외면 · 서신리면 · 수북면 · 율북면 · 감미면 등지도 직업 구성이 단순하였던 곳에 포함된다.

3. 일제시기의 인구와 인구 구성

일본은 1910년에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1914년 3월 1일을 기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원군에 속하였던 상당수의 지역이 진위군(현 평택시)에 편입되었고 해안가를 끼고 있던 남양군과 광주군의 일부가 수원군에 이속됨으로써, 수원군은 21개 면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20년대부터 의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일제시기

4 이정일, 「조선 후기 수원지역의 장시 연구—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제6권, 2002, 199~222쪽.

에 수원군의 인구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1910년에 우리나라의 호구는 280만 4,103호에 1,331만 3,017명이었고,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는 23만 6,861호에 110만 3,803명이었다. 그 가운데 수원의 호수는 40개 면에 1만 5,352호이고, 인구는 남자 3만 9,375명 여자 3만 5,286명으로 모두 7만 4,661명이었다. 경기도에서 수원의 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5%,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이었다. 인구가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적통계표』에 수록되었던 7.5%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1915년에는 우리나라의 호구는 311만 7,362호에 1,627만 8,389명이었으며, 수원의 호구는 1만 6,085호에 남자 4만 3,806명, 여자 4만 1,899명으로 모두 8만 5,705명이 되었다.

〈표 6〉 1910~1920년 수원군 인구 변화[5]

구분 / 연도	인구(명)			비율(%)	
	전국(A)	경기도(B)	수원군(C)	전국 대비(C/A)	경기도 대비(C/B)
1910	13,313,017	1,103,803	74,661	0.56	6.76
1920	17,288,989	1,785,675	141,023	0.82	7.90
인구 증가율(%)	29.9	61.8	88.9		

1920년에는 우리나라의 호수와 인구가 각각 329만 2,979호와 1,728만 8,98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원에서는 2만 6,485호에 14만 1,023명이 거주하였다. 그 가운데 일본인은 785호에 3,108명이 거주하였다. 특히 수원의 중심지였던 수원면에는 2,088호에 9,908명이 거주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본인은 351호에 1,396명이었다. 1920년의 우리나라 인구는 1910년에 비해 29.9%가 증가하였고 경기도 인구는 61.8%가 증가하였지만, 수원의 인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88.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표 6〉. 한편 수원 인구가 경기도에서 차지한 비중은 1910년의 6.8%에서 1920년에는 7.9%로 증가하였다. 즉 일제 초기에 수원의 인구 증가가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인구총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1925년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졌고, 호구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인구조사는 5년 간격으로 실시되었다. 해방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구총조사는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5번에 걸쳐 실시되었다.[6]

5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의 인구를 제외한 것이다.
6 1945년에 실시되어야 할 인구조사가 1944년에 실시된 이유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전시동원을 목적으로 미리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표 7〉 일제하 인구총조사에 의한 수원군의 인구 변화

구분 / 연도	행정구역	가구(호)	인구(명)			성비	가구당 인구(명)
			남자	여자	계		
1925	전국	3,720,773	10,020,943	9,502,002	19,522,945	105.5	5.2
	경기도	391,163	1,043,655	975,453	2,019,108	107.0	5.1
	수원군	28,277	78,566	74,661	153,227	105.2	5.4
1930	전국	3,985,953	10,763,679	10,294,626	21,058,305	104.6	5.3
	경기도	412,054	1,113,354	1,044,059	2,157,413	106.6	5.2
	수원군	29,166	81,957	77,547	159,504	105.7	5.5
1935	전국	4,298,353	11,662,657	11,236,381	22,899,038	103.8	5.3
	경기도	459,723	1,263,852	1,187,839	2,451,691	106.4	5.3
	수원군	30,901	88,507	84,680	173,187	104.5	5.6
1940	전국	4,586,565	12,266,230	12,060,097	24,326,327	101.7	5.3
	경기도	531,677	1,456,368	1,408,021	2,864,389	103.4	5.4
	수원군	31,459	87,408	86,983	174,391	100.5	5.5

1925년에서 194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1,952만 2,945명에서 2,432만 6,327명으로 24.6%가 증가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5년에서 1940년 사이에 경기도의 인구는 201만 9,108명에서 286만 4,389명으로 41.9%가 증가한 반면, 수원군의 인구는 15만 3,227명에서 17만 4,391명으로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원의 인구 증가는 경기도 인구 증가율은 물론 전국 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5년의 0.8%에서 1940년에는 0.7%로 감소하였고,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6%에서 6.1%로 감소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수원의 인구가 다른 지방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발달한 신흥도시의 출현 때문이다. 일제시기에는 조선시대부터 행정 중심지로 발전해 온 전통도시의 성장이 다소 뒤쳐진 반면, 경제적 중추관리기능의 입지가 탁월하였던 신흥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즉 개항장으로 지정된 항구도시를 비롯하여 공업이 발달한 도시와 내륙의 철도교통 요지에 자리한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수원과 같은 전통도시의 성장은 다소 뒤쳐진 면이 없지 않다. 그나마 수원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부선 철도를 비롯하여 수인선과 수여선의 철도결절점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남녀별 인구 구성에서는 남자인구에 비해 여자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남녀 간의 성비는 대체로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며,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가구당 인구는 5명을 약간 상회하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1935년 수원군 행정구역별 인구[7]

읍면명	가구(호)	인구(명)			성비	가구당 인구(명)
		남자	여자	계		
수원읍	2,776	6,919	7,135	14,054	97.0	5.1
일형면	1,798	5,186	4,738	9,924	109.5	5.5
의왕면	869	2,524	2,365	4,889	106.7	5.6
반월면	1,662	4,706	4,567	9,273	103.0	5.6
매송면	981	2,954	2,696	5,650	109.6	5.8
봉담면	1,009	2,901	2,801	5,702	103.6	5.7
비봉면	1,144	3,222	3,171	6,393	101.6	5.6
음덕면	1,643	4,789	4,607	9,396	104.0	5.7
마도면	946	2,804	2,627	5,431	106.7	5.7
송산면	1,636	4,636	4,522	9,158	102.5	5.6
서신면	1,177	3,416	3,310	6,726	103.2	5.7
팔탄면	1,310	3,802	3,634	7,436	104.6	5.7
장안면	1,195	3,457	3,339	6,796	103.5	5.7
우정면	1,700	4,989	4,777	9,766	104.4	5.7
향남면	1,486	4,437	4,203	8,640	105.6	5.8
양감면	893	2,661	2,623	5,284	101.5	5.9
정남면	1,490	4,405	4,273	8,678	103.1	5.8
성호면	2,129	6,304	5,709	12,013	110.4	5.6
동탄면	1,208	3,636	3,463	7,099	105.0	5.9
태장면	1,953	5,311	5,073	10,384	104.7	5.3
안룡면	1,896	5,448	5,047	10,495	108.0	5.5
전체	30,901	88,507	84,680	173,187	104.5	5.6

해방 이전에 실시된 인구총조사 자료 가운데 읍면별 인구가 정확하게 기록된 1935년의 인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1940년과 1944년의 인구총조사 자료는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조사는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구 항목은 보통세대(普通世帶)와 준세대(準世帶)로 구분되어 있었고, 인구 역시 보통세대와 준세대가 별도로 조사되었다. 이 글에서는 가구와 인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1935년 당시 수원군에는 1읍(수원읍) 20면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수원읍은 1931년 4월 1일에 수원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다. 수원군의 인구는 17만 3,187명(남자 8만 8,507

7 이들 지역 가운데 수원읍이 1949년에 수원시로 승격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분리되었다. 그 후 의왕면은 의왕시가 되었으며, 반월면은 안산시 · 수원시 · 군포시로 나뉘어 편입되었다.

〈그림 5〉 1930년대 수원군관내도(수원박물관 소장)

명, 여자 8만 4,68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성비는 104.5를 기록하였으며, 가구당 인구는 5.6명이었다. 21개 읍면 가운데 수원읍이 가구나 인구 면에서 단연 우위를 차지하였다. 수원읍에 이어 성호면 · 안룡면 · 태장면 등지의 인구도 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의왕면 · 마도면 · 양감면 등의 인구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녀별 인구 구성은 수원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많은 남초현상을 나타내었다.

4. 수원시 승격 이후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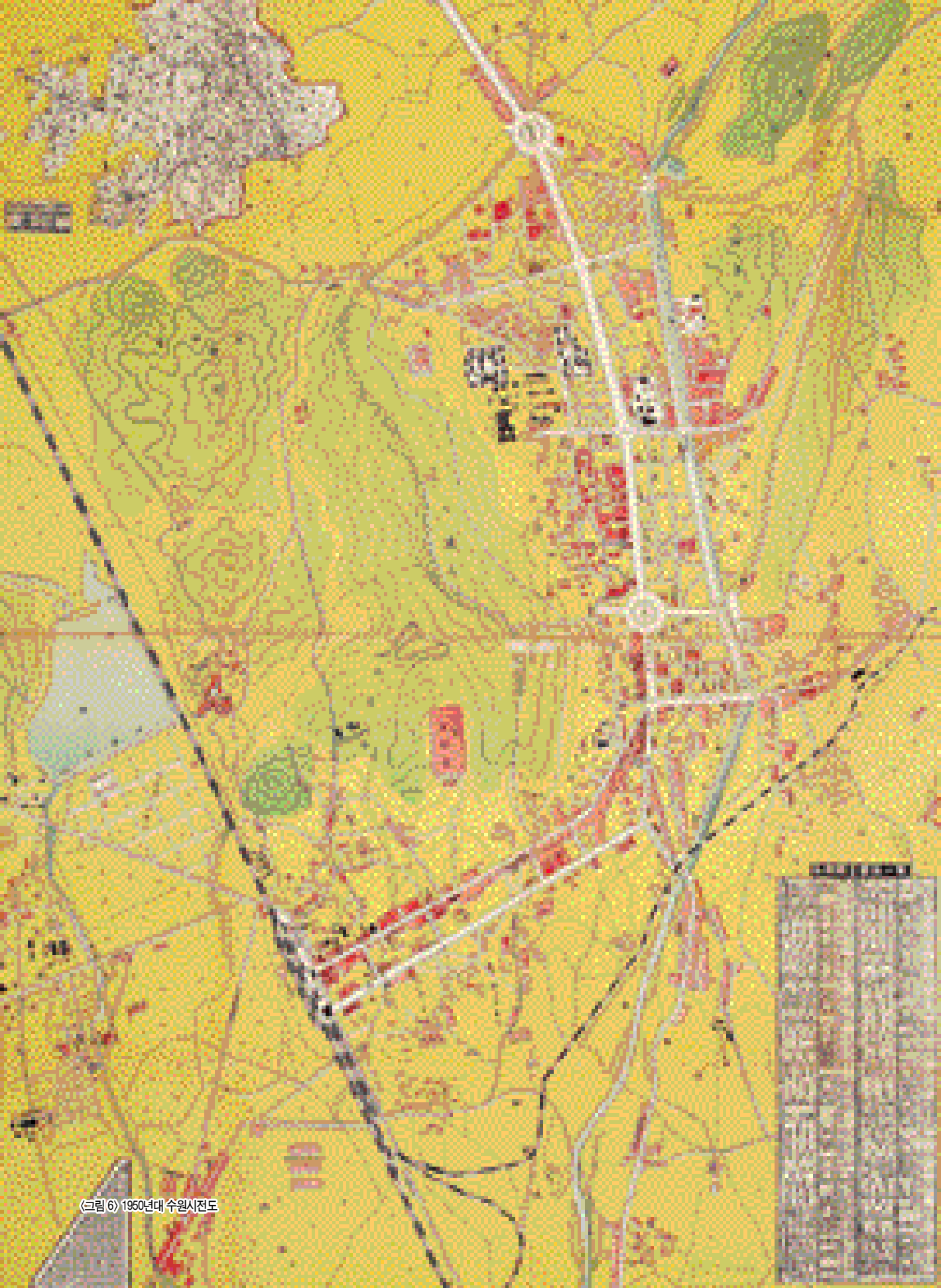
1) 1950년대 인구

수원군 수원읍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일인 1949년 8월 15일에 수원시로 승격되었으며, 그 아래에 27개의 동이 신설되었다. 시 승격과 동시에 수원군에 속해 있던 대부

분의 면은 신설된 화성군으로 이속되었다. 따라서 1949년 이후의 통계는 그 범위가 현재의 수원시로 국한된다. 그러나 1949년 말에 조사된 인구자료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수원시가 1958년에 『시세일람』을 간행하면서부터 통계행정이 제대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 시기의 수원시 인구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952년에 10만 4,044명이었던 인구는 1953년에 9만 8,820명, 1954년에는 7만 3,004명으로 감소하였다가 1955년에는 7만 1,991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현존하는 기록으로서 가장 오래된 1957년 12월 기준의 수원시 동별 가구 및 인구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9〉 1957년 수원시의 행정구역별 인구

구분 / 동	가구(호)	총인구(명)			한국인(명)			외국인(명)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팔달로1가	165	461	576	1,037	447	563	1,010	14	13	27
팔달로2가	191	452	526	978	450	524	974	2	2	4
팔달로3가	182	515	565	1,080	496	558	1,054	19	7	26
영동	103	255	291	546	238	284	522	17	7	24
중동	123	304	350	654	284	335	619	20	15	35
구천동	186	487	536	1,023	487	536	1,023	0	0	0
남수동	759	1,772	1,983	3,755	1,763	1,977	3,740	9	6	15
매향동	332	816	835	1,651	815	835	1,650	1	0	1
북수동	459	1,207	1,351	2,558	1,207	1,351	2,558	0	0	0
장안동	309	789	923	1,712	789	923	1,712	0	0	0
신풍동	559	1,472	1,507	2,979	1,465	1,499	2,964	7	8	15
남창동	304	770	897	1,667	762	890	1,652	8	7	15
교동	495	1,241	1,453	2,694	1,221	1,441	2,662	20	12	32
매교동	597	1,504	1,606	3,110	1,499	1,604	3,103	5	2	7
세류동	1,579	3,876	3,992	7,868	3,827	3,961	7,788	49	31	80
평동	242	748	826	1,574	738	820	1,558	10	6	16
서둔동	481	1,485	1,441	2,926	1,470	1,433	2,903	15	8	23
매산로1가	558	1,421	1,530	2,951	1,398	1,512	2,910	23	18	41
매산로2가	350	929	974	1,903	914	961	1,875	15	13	28
매산로3가	489	1,264	1,380	2,644	1,250	1,375	2,625	14	5	19
고등동	905	2,377	2,625	5,002	2,375	2,624	4,999	2	1	3
화서동	280	786	850	1,636	786	850	1,636	0	0	0
영화동	755	2,033	2,028	4,061	2,033	2,028	4,061	0	0	0
연무동	806	1,859	1,964	3,823	1,859	1,964	3,823	0	0	0
지동	1,410	3,603	3,846	7,449	3,602	3,845	7,447	1	1	2
인계동	1,165	2,956	3,223	6,179	2,956	3,223	6,179	0	0	0
우만동	117	296	302	598	296	302	598	0	0	0
계	13,901	35,678	38,380	74,058	35,427	38,218	73,645	251	162	413



〈그림 6〉 1950년대 수원시전도

1957년의 수원시 인구는 1만 3,901가구에 남자 3만 5,678명, 여자 3만 8,380명으로 모두 7만 4,058명이 거주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인은 7만 3,645명이었고, 외국인은 413명이었다. 세류동과 지동은 인구 규모가 7,000명을 넘었지만, 영동 · 중동 · 우만동 등지는 인구 규모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외국인은 세류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매산로1가 · 매산로2가 · 매산로3가에도 비교적 많이 거주하였다.

1957년의 인구 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시 전체의 성비가 100을 훨씬 밑돌았다는 것이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시의 성비는 100을 상회하였지만, 1950년대에 들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자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57년의 성비는 93.0에 불과하여,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수는 93명에 지나지 않았다. 성비가 100을 넘어선 지역은 서둔동(103.1)과 영화동(100.2)뿐이었으며, 평균 성비를 상회한 곳은 10개 동에 불과하였다. 한편 1957년의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3,254명/㎢이었고, 가구당 인구는 5.4명이었다.

2) 1960~1970년대 인구

수원시의 행정구역은 1963년에 확장되었다. 1962년까지 면적이 22.76㎢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3년 1월 1일에 일왕면 · 안룡면 · 태장면 일부 지역을 수원시에 편입시킴으로써 면적은 83.67㎢로 넓어졌고 인구도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즉 수원의 인구는 1961년에 8만 7,438명에 인구밀도는 3,842명/㎢이었던 것이 1963년에 인구는 11만 8,763명으로 증가하였지만 행정구역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밀도는 1,419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960년대에 수원시의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69년에는 16만 1,001명이 되었다. 인구 증가율은 1962년을 제외하면 1968년에서 1969년 사이에 13.4%로 가장 높았으며, 1964년에서 1965년 사이에 0.9%로 가장 낮았다.

1970년대에 수원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4년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세대당 인구는 매년 줄어서 1974년 이후에는 5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에 3만 3,451세대에 인구는 17만 명을 넘어 17만 518명(남자 8만 4,431명, 여자 8만 6,087명)이 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2,000명을 넘어섰다. 1975년에는 4만 6,645세대에 22만 4,177명(남자 11만 667명, 여자 11만 3,510명)으로 증가하였고, 인구밀도는 2,679명/㎢이 되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4.8명으로 감소하였다. 1979년에는 6만 16세대에 인구는 29만 272명(남자 14만 2,658명, 여자 14만 7,614명)으로 증가하였고, 인구밀도는 3,445명/㎢이 되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4.8명이었다. 인구밀도는 1978년 들어 단위면적당 3,000명을 넘어섰다. 요컨대 수원의 인구는 1961년 들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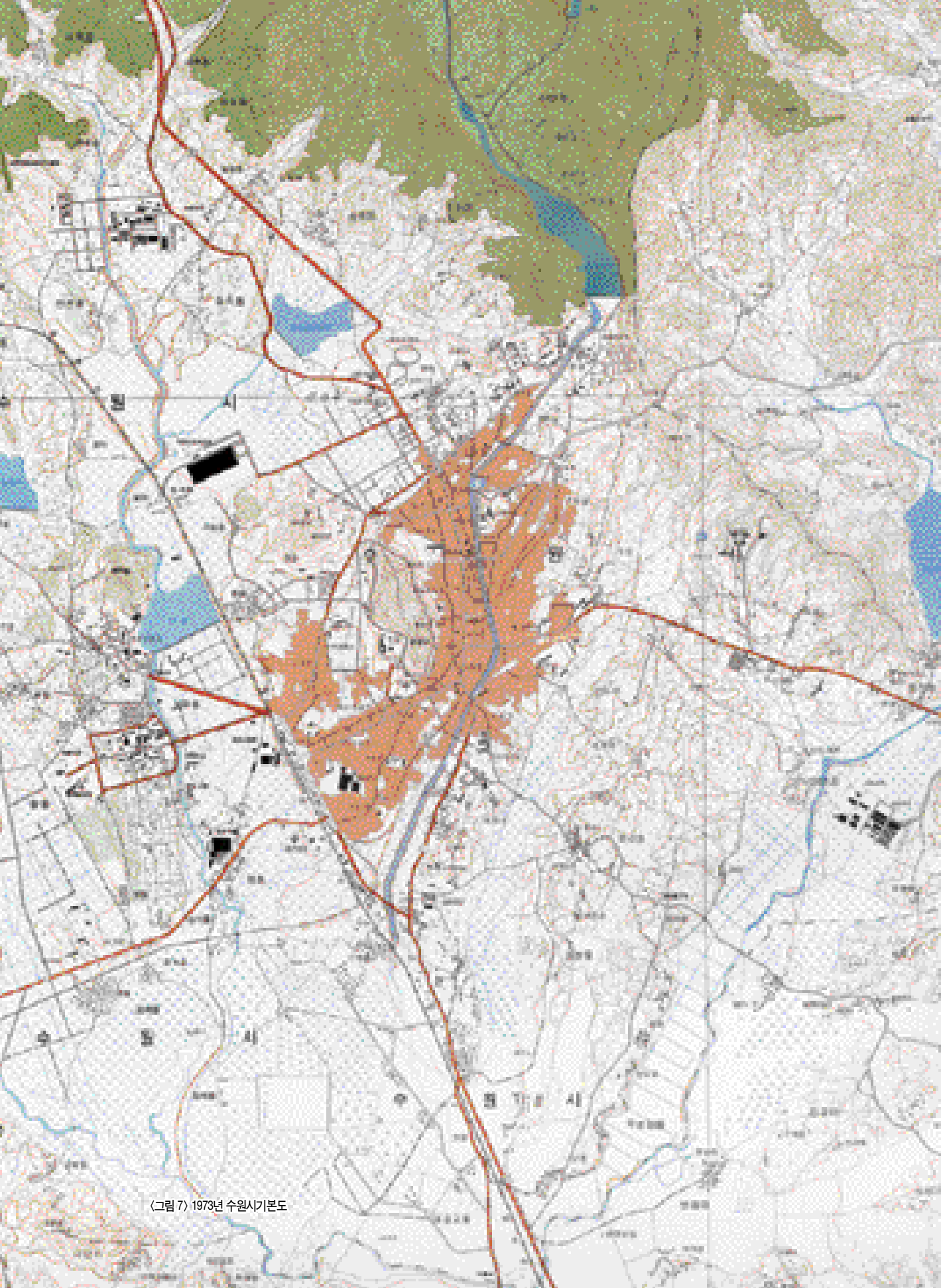
〈표 10〉 1960~197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8]

구분 / 연도	세대수 (세대))	인구(명)			세대당 인구(명)	인구밀도 (명/㎢)
		남자	여자	계		
1960	16,498	45,241	45,565	90,806	5.5	3,990
1961	15,870	42,723	44,715	87,438	5.5	3,842
1962	20,340	56,421	57,489	113,910	5.6	1,361
1963	20,877	58,724	60,039	118,763	5.7	1,419
1964	21,204	60,606	61,419	122,025	5.8	1,458
1965	21,665	60,860	62,274	123,134	5.7	1,472
1966	23,169	64,024	64,328	128,352	5.5	1,534
1967	23,600	64,685	66,346	131,031	5.6	1,566
1968	26,495	70,354	71,647	142,001	5.4	1,697
1969	29,481	79,824	81,177	161,001	5.5	1,924
1970	33,451	84,431	86,087	170,518	5.1	2,038
1971	34,264	86,708	89,007	175,715	5.1	2,100
1972	35,747	90,371	92,500	182,871	5.1	2,186
1973	37,799	94,460	97,216	191,676	5.1	2,291
1974	42,763	103,691	106,567	210,258	4.9	2,513
1975	46,645	110,667	113,510	224,177	4.8	2,679
1976	47,812	114,396	120,763	235,159	4.9	2,811
1977	49,989	120,924	127,645	248,569	5.0	2,949
1978	54,771	130,299	135,836	266,135	4.9	3,158
1979	60,016	142,658	147,614	290,272	4.8	3,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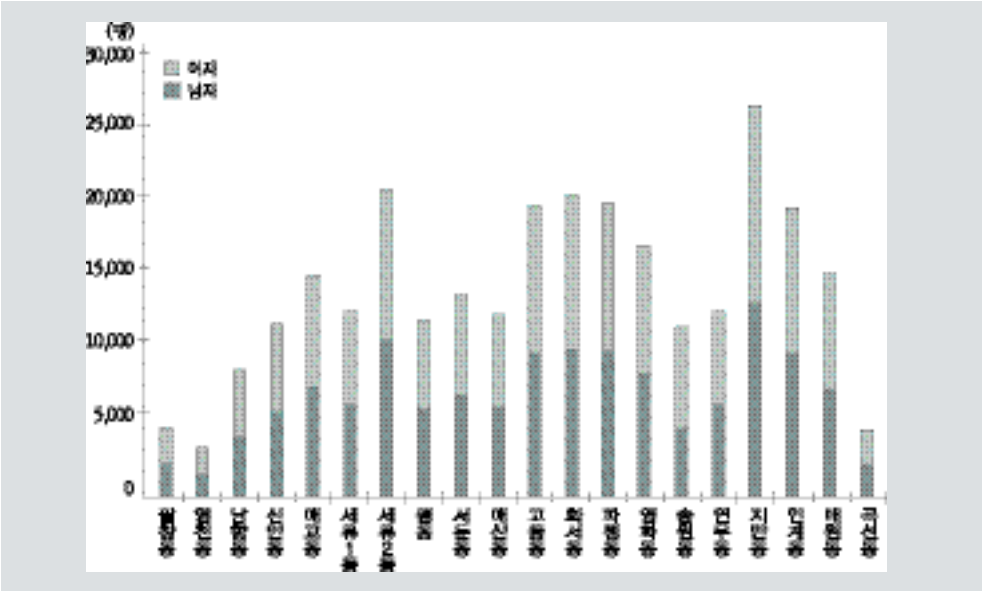
꾸준히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매년 7% 내외의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행정구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세류동이었으나, 세류동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66년에 세류1동과 세류2동으로 분동되었다. 세류동이 분동된 후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지동이었지만, 1972년에 지동과 우만동이 지만동(池滿洞)으로 통합되면서 1970년대 말에는 지만동의 인구가 가장 많아졌다. 지만동은 1990년에 다시 지동과 우만동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구가 가장 적었던 동은 영천동과 팔창동 등이었는데, 영천동은 영동 · 중동 · 팔달로3가를 통합한 것이고 팔창동은 팔달로1가 · 팔달로2가 · 남창동을 통합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수원 화성에 자리한 곳으로 수원이 시로 승격된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인구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8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그림 7〉 1973년 수원시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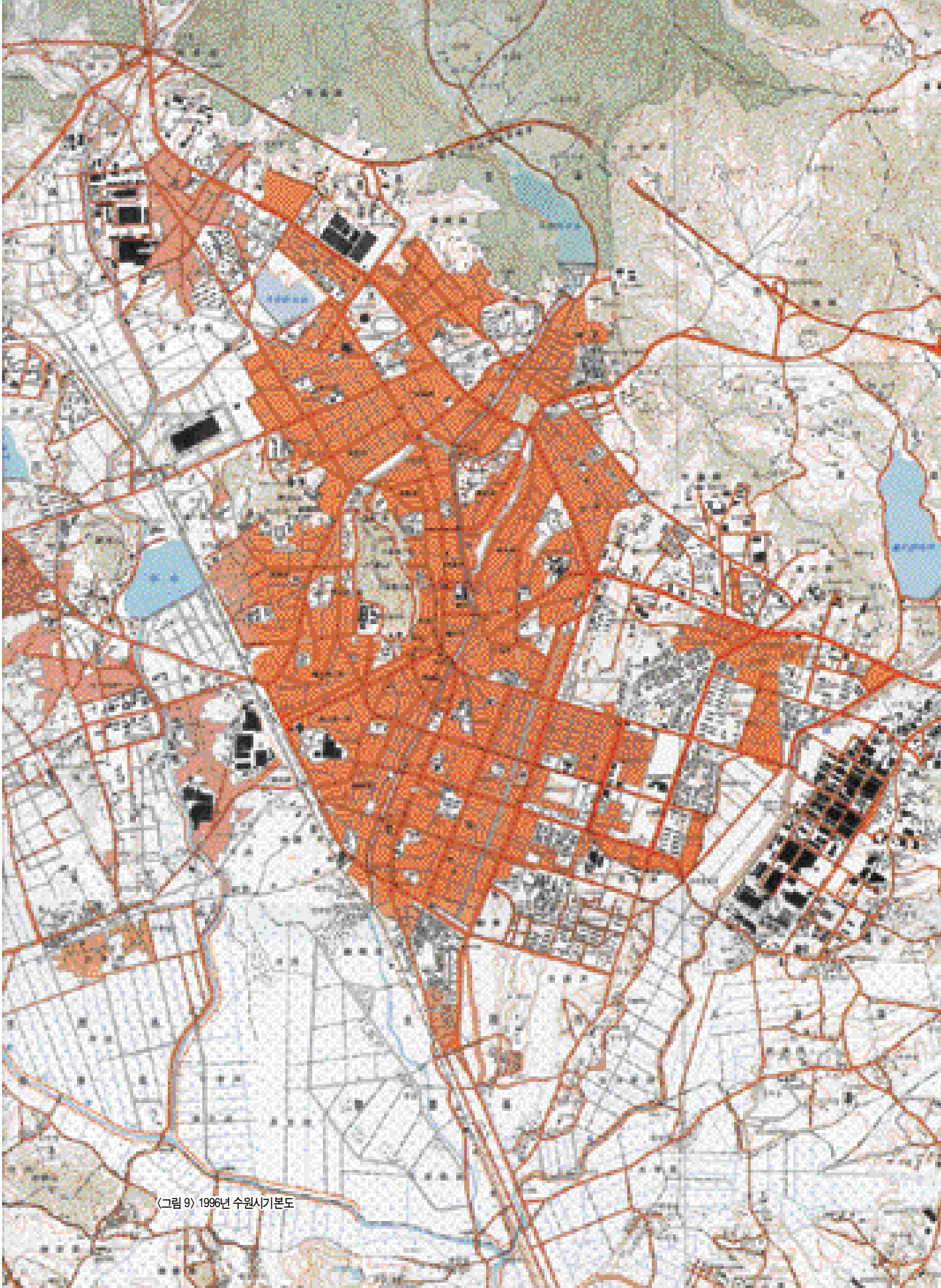
〈그림 8〉 1979년 수원시 행정구역별 인구[9]

3) 1980~1990년대 인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수원의 면적은 4차례에 걸쳐 인접 지역의 행정구역을 이속시킴에 따라 확장되었으며, 현재의 수원시 행정구역 경계가 거의 획정된 시기는 1995년이라 할 수 있다. 즉 1983년과 1987년에는 용인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으며, 1994년과 1995년에는 용인군과 화성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다. 1980~1990년대 수원시 인구는 자연증가를 비롯하여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증가, 그리고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전입인구의 증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 수원에서는 가구수의 증가현상도 두드러졌다. 1980년에 7만 1,154가구를 기록하여 최초로 7만 가구를 넘어섰고 1983년에는 8만 5,833가구로 8만 가구를 넘어섰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수원의 세대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인구는 3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수원의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는 1989년이다. 1988년에 53만여 명이었던 인구는 1989년에 11.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9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80.



〈그림 9〉 1996년 수원시기본도

그동안 수원에서 진행된 택지개발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전입인구가 크게 증가한 데 그 요인이 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 서울 주변에 수도권 5개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건설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함에 따라 수원에서의 인구 증가는 1990년대 중반까지 다소 주춤하였다.

〈표 11〉 1980~199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10]

구분 / 연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명)			세대당 인구(명)	인구밀도(명/㎢)
			남자	여자	계		
1980	84.25	71,154	153,736	157,021	310,757	4.4	3,689
1981	84.24	71,844	159,640	164,585	324,225	4.5	3,849
1982	84.22	76,575	171,306	176,855	348,161	4.5	4,134
1983	96.67	85,833	185,882	187,754	373,636	4.4	3,865
1984	96.67	93,694	200,614	201,705	402,319	4.3	4,162
1985	96.71	106,909	216,067	214,767	430,834	4.0	4,455
1986	96.79	114,226	230,172	232,344	462,516	4.0	4,779
1987	105.54	124,735	251,153	254,907	506,060	4.1	4,795
1988	105.55	136,844	270,469	273,273	543,742	4.0	5,152
1989	105.55	154,033	302,352	302,873	605,225	3.9	5,734
1990	105.56	171,885	322,729	322,239	644,968	3.8	6,110
1991	105.57	206,644	337,228	333,098	670,326	3.2	6,349
1992	105.53	217,065	351,407	345,883	697,290	3.2	6,607
1993	105.51	224,525	360,112	354,160	714,272	3.2	6,770
1994	117.12	232,151	368,464	361,848	730,312	3.1	6,236
1995	121.22	216,757	379,960	375,590	755,550	3.5	6,233
1996	121.21	250,640	389,758	382,507	772,265	3.1	6,372
1997	121.19	263,259	404,206	396,980	801,186	3.0	6,611
1998	121.14	279,121	431,133	425,271	856,404	3.1	7,070
1999	121.14	297,479	458,919	453,778	912,697	3.1	7,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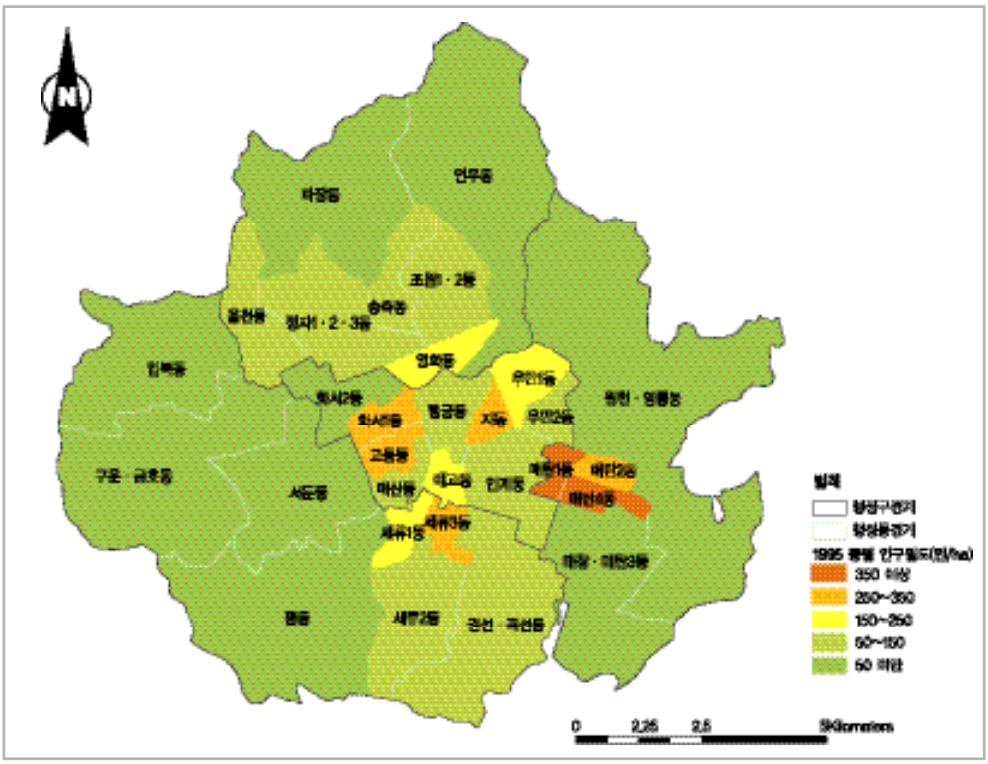
그 이후 1990년대 말에 들어서서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과 1999년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년대비 인구 증가율은 높지 않았지만, 증가한 인구 규모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89년에 이어 많은 규모이다. 이 두 시기에 각각 4만 5,000여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통·신시가지를 비롯한 수원에서의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수원의 인구는 1993년에 70만 명을 넘어섰고, 1997년과 1999년에

10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각각 80만 명과 90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의 인구는 1980년대에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하였던 것이 1990년대 중반에는 10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1999년에는 전국의 시급도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으며, 인구 순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이어 전국 8위로 상승하였다.

수원에서는 수도 서울의 과밀인구 분산정책과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난 해소정책에 따라 1981년에 현 영통구 매탄동 일원이 최초로 매탄(구 신매탄)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매탄1 ·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동수원(현 시청 주변) 신시가지 개발과 낙후된 서수원권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구운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총 7개 지구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는 한편 대도시 내부에 더 이상 개발 가능한 토지가 고갈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공약과 관련하여 영통택지개발사업 지구를 비롯하여 모두 13개 장소에서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수원 시내에서 실시



〈그림 10〉 1995년 수원시 동별 주민등록 인구밀도

된 택지개발사업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영통지구였다. 영통지구 개발사업은 1997년 12월에 마무리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인구가 전입됨에 따라, 1998년과 1999년에 수원으로 전입한 인구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1999년에 영통동의 인구는 8만 646명이었는데, 이는 당시 수원시 총인구의 8.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에 대하여 구제(區制)를 실시한다. 수원은 1987년 말에 인구가 50만을 넘어섬에 따라 1988년부터 구제가 실시되어,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었다. 1993년에는 인구가 70만 명을 상회함에 따라 팔달구가 신설되었다. 이들 3개 구를 중심으로 〈표 12〉에 제시된 1999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개의 구 가운데 면적은 권선구가 가장 넓었으며, 인구 역시 권선구가 가장 많았다. 인구밀도는 팔달구가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가 가장 희박하였다.

장안구의 인구가 수원에서 가장 적은 규모였지만, 구간의 인구 편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장안구에서는 조원동과 율천동의 인구가 4만 명을 넘었으며, 정자1동의 인구가 3만 명을 상회하였다. 이에 반해 신안동의 인구가 7,013명으로 구내에서 가장 적었다. 신안동은 수원 화성 내부에 자리한 동으로 조선시대에는 수원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던 지역이다. 세대당 인구는 신안동과 영화동을 제외하고 모두 3명을 넘었다. 장안구의 성비는 시에서 가장 낮은 100.2를 기록하였는데, 율천동이 105.2로 가장 높았고 신안동이 94.0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밀도는 8,112명/㎢로 시 평균보다 높았는데, 화서1동 · 정자2동 · 영화동 등지에서 높았던 반면 연무동과 파장동에서는 아주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권선구의 인구는 30만 8,560명으로 수원시 내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물리적으로 구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구운동의 인구가 6만 2,9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의 동쪽에 위치하였던 곡선동의 인구도 3만 8,324명으로 규모가 컸다. 이에 반해 매산동(현재는 팔달구 소속)의 인구가 8,299명으로 구내에서 가장 적었으며, 구의 서북쪽에 자리하였던 입북동의 인구도 1만 명을 넘지 못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시의 중심지에 자리한 매산동, 고등동, 매교동(이상 현재 팔달구 소속), 세류1동 등지에서 3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권선구의 성비는 시내에서 가장 높은 101.9를 기록하였는데, 매산동과 고등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100을 넘어섰으며 평동이 104.9로 가장 높았다. 인구밀도는 6,175명/㎢으로 시에서 가장 낮았는데, 고등동 · 권선동 · 세류3동 등지에서 높았던 반면 도시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던 시의 서쪽에 자리한 입북동을 비롯하여 평동 · 서둔동 등지에서는 아주 낮게 형성되었다.

팔달구는 1999년 당시 수원의 행정중심지를 비롯하여 중심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수원 화성 내의 팔달동과 남향동을 비롯한 구시가지를 많이 포함하였던 지

〈표 12〉 1999년 수원시 인구[11]

지역	구분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명)			세대당 인구 (명)	인구밀도 (명/㎢)
				남자	여자	계		
장안구	신안동	0.50	2,617	3,398	3,615	7,013	2.7	14,026
	화서1동	0.83	9,617	14,192	14,579	28,771	3.0	34,664
	화서2동	2.12	5,245	8,752	8,850	17,602	3.4	8,303
	파장동	8.59	8,061	12,492	12,316	24,808	3.1	2,888
	율천동	3.74	13,411	20,829	19,793	40,622	3.0	10,861
	정자1동	2.29	10,677	17,027	17,206	34,233	3.2	14,949
	정자2동	1.44	9,110	14,285	14,230	28,515	3.1	19,802
	영화동	1.28	8,317	11,402	11,786	23,188	2.8	18,116
	송죽동	1.66	6,460	9,840	9,706	19,546	3.0	11,775
	조원동	2.90	13,436	21,800	21,783	43,583	3.2	15,029
	연무동	11.64	9,863	14,704	14,572	29,276	3.0	2,515
	계	36.63	96,814	148,721	148,436	297,157	3.1	8,112
권선구	매교동	0.71	4,240	5,731	5,574	11,305	2.7	15,923
	세류1동	0.93	4,509	6,492	6,293	12,785	2.8	13,747
	세류2동	3.58	10,975	16,615	15,966	32,581	3.0	9,101
	세류3동	1.29	9,017	13,583	13,305	26,888	3.0	20,843
	평동	9.92	9,373	15,307	14,593	29,900	3.2	3,014
	서둔동	5.92	7,969	12,784	12,327	25,111	3.2	4,242
	구운동	11.28	18,258	31,639	31,345	62,984	3.5	5,584
	매산동	0.77	3,191	4,129	4,170	8,299	2.6	10,778
	고등동	1.01	9,170	12,726	12,948	25,674	2.8	25,420
	권선동	1.03	8,401	13,183	13,136	26,319	3.1	25,552
	곡선동	6.26	11,013	19,306	19,018	38,324	3.5	6,122
	입북동	7.22	2,457	4,204	4,186	8,390	3.4	1,162
	계	49.97	98,573	155,699	152,861	308,560	3.1	6,175
팔달구	팔달동	0.60	1,561	2,068	2,065	4,133	2.7	6,888
	남향동	0.46	2,203	3,054	3,109	6,163	2.8	13,398
	지동	0.79	7,115	9,953	10,052	20,005	2.8	25,323
	우만1동	1.21	9,419	13,555	13,745	27,300	2.9	22,562
	우만2동	1.05	3,963	5,862	5,806	11,668	2.9	11,112
	인계동	2.94	13,811	19,977	19,814	39,791	2.9	13,534
	매탄1동	1.21	7,548	10,587	10,562	21,149	2.8	17,479
	매탄2동	0.80	5,992	9,101	9,154	18,255	3.1	22,819
	매탄3동	5.64	9,348	14,120	13,496	27,616	3.0	4,896
	매탄4동	0.76	9,516	14,726	14,388	29,114	3.1	38,308
	원천동	2.78	6,430	9,110	8,876	17,986	2.8	6,470
	영통동	3.87	24,154	40,802	39,977	80,779	3.3	20,873
	이의동	12.43	1,032	1,584	1,437	3,021	2.9	243
	계	34.54	102,092	154,499	152,481	306,980	3.0	8,888
수원시		121.14	297,479	458,919	453,778	912,697	3.1	7,534

11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2000.

역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중심업무지구나 구시가지에는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은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팔달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당시에 세대당 인구수가 3명에 미치지 못하는 동이 다른 구에 비해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시가지에서는 과거의 자연마을이 하나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동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특징을 보이는데, 팔달구 역시 면적이 좁은 동이 다른 2개의 구에 비해 많은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팔달구에는 구시가지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신시가지가 많아 인구 규모가 그리 작은 편은 아니었다. 게다가 영통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팔달구의 인구는 30만 명을 상회하였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영통동의 인구가 8만 7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계동의 인구도 4만 명에 육박하였다. 이에 반해 구시가지 또는 도시화의 수준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았다. 시의 동북쪽에서 용인시와 경계를 형성하는 이의동의 인구가 3,02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수원 화성 내의 팔달동과 남향동의 인구 규모도 매우 작았다. 세대당 인구는 근소한 차이지만 3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구의 평균을 상회하는 동이 4개(영통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3동)에 불과하였다. 팔달구의 성비는 시 평균보다 약간 높은 101.3을 기록하였는데, 매탄3동이 104.6으로 가장 높았고 남향동이 98.2로 가장 낮았다. 인구밀도는 8,888명/㎢으로 수원시에서 가장 높았는데, 3만 8,308명/㎢으로 가장 높았던 매탄4동을 비롯하여 지동 · 매탄2동 · 우만1동 등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4) 2000년대 인구

거대도시(metropolis)란 인구 규모가 100만 명을 넘고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중심지기능이 주변 지역까지 파급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하여 사회 ·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010년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거대도시는 442개였으며, 우리나라에는 모두 8개가 있었다. 수원의 인구는 2002년 4월 25일에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0년 말 인구 규모의 순위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이고 지구상에서는 364번째에 해당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수원의 인구(107만 1,913명)는 전국 인구(4,858만 293명)의 2.2%이고, 경기도 인구(1,137만 9,459명)의 9.4%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매 5년과 1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매년 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통계연보』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원의 경우, 2010년의 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07만 1,913명으로 조사되었지만, 시에서 작성한 『통계연보』에

〈표 13〉 200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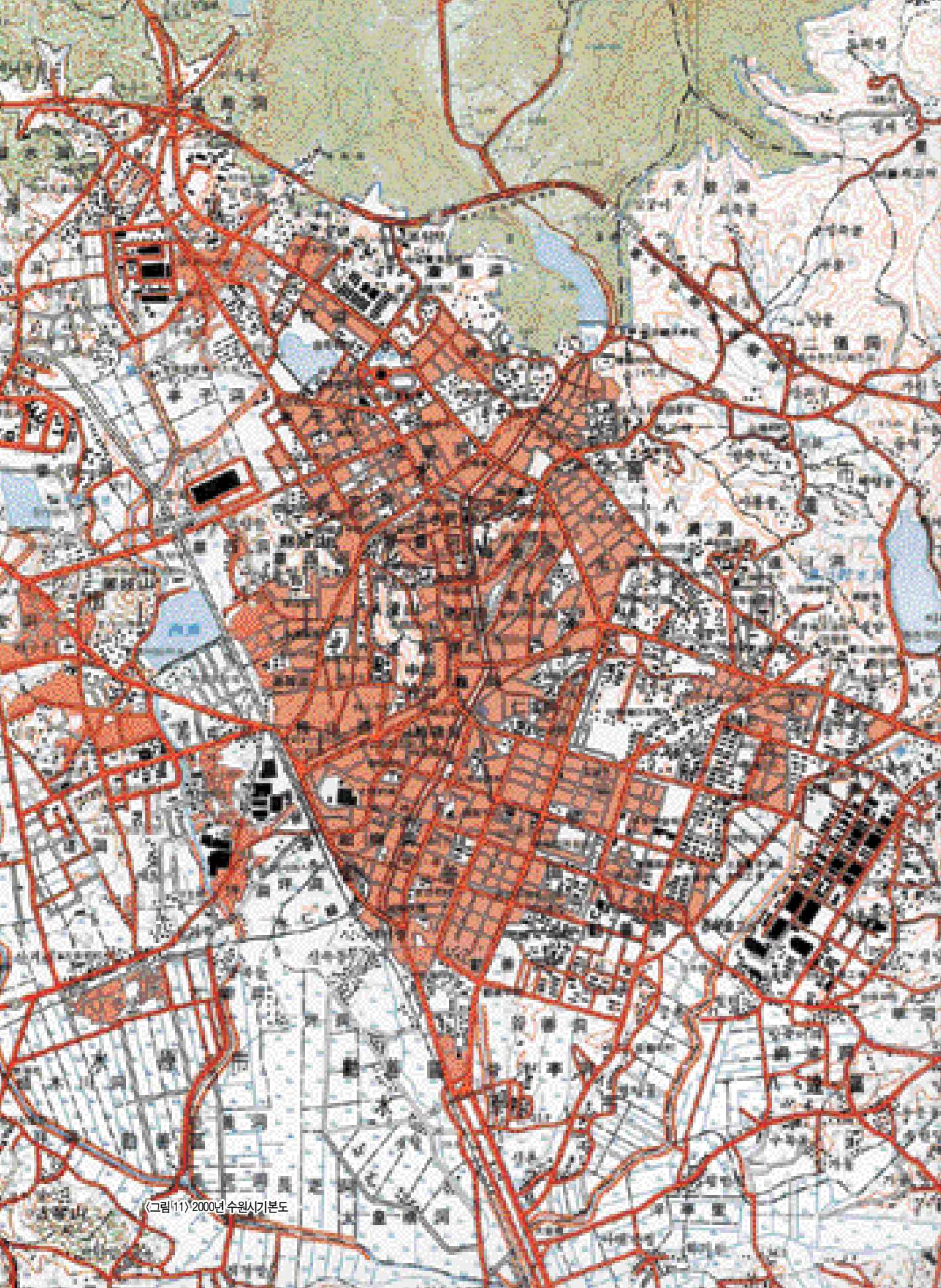
구분 / 지역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명)			세대당 인구(명)	인구밀도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명)
			남자	여자	계			
2000	121.13	285,511	476,639	470,065	946,704	3.3	7,816	39,724
2001	121.10	322,621	492,366	486,332	978,698	3.0	8,082	43,438
2002	121.09	345,411	515,074	508,801	1,023,875	3.0	8,455	47,327
2003	121.07	359,103	522,912	517,311	1,040,223	2.9	8,592	50,433
2004	121.05	365,667	523,215	518,917	1,042,132	2.8	8,609	53,228
2005	121.05	346,371	525,544	518,569	1,044,113	3.0	8,625	56,214
2006	121.05	395,615	543,739	538,532	1,082,271	2.7	8,941	61,223
2007	121.05	399,898	545,910	541,085	1,086,995	2.7	8,979	66,604
2008	121.01	402,462	547,640	543,038	1,090,678	2.7	9,013	69,005
2009	121.01	406,565	552,285	546,164	1,098,449	2.7	9,077	71,734
2010	121.01	412,253	556,870	547,800	1,104,670	2.7	9,129	74,853
2011	121.01	416,036	563,276	554,944	1,118,220	2.7	9,241	78,587

서는 110만 4,670명으로 조사되었다.

100만 도시가 된 후 수원의 인구 증가 속도는 1990년대에 비해 다소 느려졌다. 2002년까지는 신시가지에 입주하는 주민이 많아 인구 증가율이 3~4%대를 유지하였지만 그 이후의 인구 증가율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 미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인구 증가는 지속되어 2010년에는 11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말의 인구는 111만 8,220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와 함께 세대수도 증가하였지만, 세대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2001년에 8,000명/㎢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9,000명/㎢을 넘어섰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사망률이 감소하였음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수원에서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5만 명과 7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에는 7만 8,587명이 되었다. 2011년의 노인인구는 2000년의 약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2008년까지 매년 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수원에서의 노인인구 비율을 꾸준히 상승시켜, 2004년에 5%를 넘었고 2011년에는 총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 연도.



〈그림 11〉 2000년 수원시기본도

7%를 넘어섰다.

UN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4%를 넘는 사회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와 선진국은 이미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대부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일본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1.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원은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에 7%를 넘어섬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10년 늦은 시기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따라서 수원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11년 말에 조사된 수원의 인구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원에서는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3년에 영통구가 신설되어 행정구역은 4개 구에 3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4〉. 그 과정에서 구간 경계조정이 실시되고 일부 행정동은 통합되거나 분동되어 1999년과 2011년의 구별 인구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팔달구는 매탄1·2·3·4동, 영통1·2동, 원천동, 태장동을 영통구로 분리한 대신 권선구에 속하였던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과 장안구에 속하였던 화서1·2동을 편입하였다. 이렇게 해서 팔달구의 면적은 크게 감소하였다.

시의 북쪽에 자리한 장안구의 인구는 29만 6,285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권선구에 이어 두 번째의 인구 규모였다. 구의 서쪽에 위치한 율천동의 인구가 4만 7,2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의 남쪽에 위치한 정자3동의 인구도 4만 7,204명으로 규모가 컸다. 모든 동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세대당 인구는 평균 2.7명이며, 정자3동과 조원2동이 3.3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연무동이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성비는 101.1을 기록하였는데, 구 평균을 넘는 동은 율천동(111.7)과 파장동(104.6)뿐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동에서는 성비가 100을 넘지 못하였다. 구의 인구밀도는 8,930명/㎢으로 시 평균 인구밀도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구의 북부에 위치하여 의왕시와 경계를 형성하는 파장동과 연무동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인구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장동과 연무동을 제외하거나 도시화된 지역만을 상정하면 장안구의 인구밀도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

시의 서남부에 자리한 권선구의 인구는 32만 7,878명으로 인구 규모가 가장 컸다. 구의 서쪽에 위치한 금호동의 인구가 4만 7,8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의 동쪽에 위치한 서둔동의 인구도 4만 3,908명으로 규모가 컸다. 세류1동과 입북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었다. 세대당 인구는 평균 2.7명이며, 권선2동이 3.2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류2동이 2.3명으로 가장 작았다. 성비는 101.7을 기록하였는데, 곡선동이 108.7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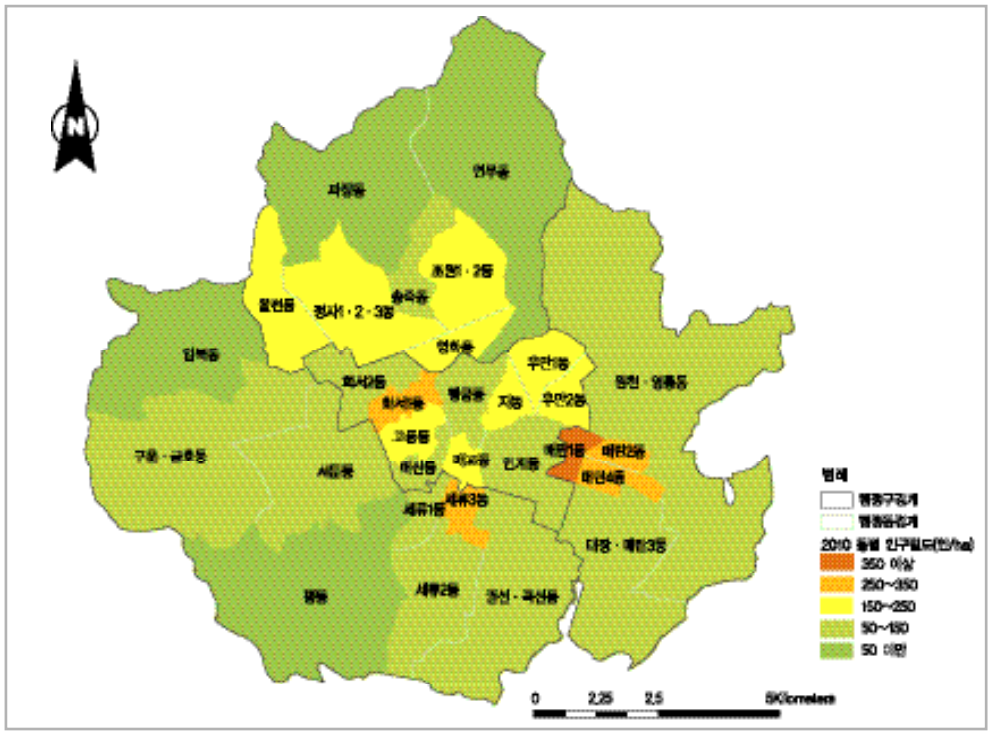
〈표 14〉 2011년 수원시 인구[13]

지역	구분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명)			세대당 인구 (명)	인구밀도 (명/㎢)
				남자	여자	계		
장안구	파장동	8.63	8,534	11,011	10,531	21,542	2.5	2,496
	율천동	2.98	19,182	24,910	22,308	47,218	2.5	15,845
	정자1동	1.27	9,058	12,463	12,662	25,125	2.8	19,783
	정자2동	1.44	12,164	17,146	17,288	34,434	2.8	23,913
	정자3동	1.44	14,440	23,421	23,783	47,204	3.3	32,781
	영화동	1.28	10,325	11,853	12,133	23,986	2.3	18,739
	송죽동	1.65	7,879	10,052	10,244	20,296	2.6	12,301
	조원1동	1.84	12,627	16,659	16,667	33,326	2.6	18,112
	조원2동	1.07	6,223	10,011	10,417	20,428	3.3	19,092
	연무동	11.58	9,330	11,422	11,304	22,726	2.4	1,963
	계	33.18	109,762	148,948	147,337	296,285	2.7	8,930
권선구	세류1동	0.93	2,141	3,267	3,241	6,508	3.0	6,998
	세류2동	3.58	12,147	14,529	13,946	28,475	2.3	7,954
	세류3동	1.29	10,873	13,231	13,062	26,293	2.4	20,382
	평동	10.77	13,583	19,377	19,109	38,486	2.8	3,573
	서둔동	5.43	16,571	22,148	21,760	43,908	2.6	8,086
	구운동	1.94	10,204	14,430	14,025	28,455	2.8	14,668
	금호동	8.98	16,093	23,689	24,160	47,849	3.0	5,328
	권선1동	1.03	10,732	13,538	13,284	26,822	2.5	26,041
	권선2동	1.81	11,050	17,544	17,729	35,273	3.2	19,488
	곡선동	4.46	14,413	16,256	14,956	31,212	2.2	6,998
	입북동	7.08	4,704	7,320	7,277	14,597	3.1	2,062
	계	47.3	122,511	165,329	162,549	327,878	2.7	6,932
팔달구	행궁동	1.56	6,747	7,467	6,872	14,339	2.1	9,192
	매교동	0.72	5,442	6,414	5,994	12,408	2.3	17,233
	매산동	0.81	6,169	6,948	7,015	13,963	2.3	17,238
	고등동	1.01	6,481	8,299	7,868	16,167	2.5	16,007
	화서1동	0.82	10,460	14,112	14,553	28,665	2.7	34,957
	화서2동	2.12	9,734	14,639	15,267	29,906	3.1	14,107
	지동	0.79	7,384	8,916	8,885	17,801	2.4	22,533
	우만1동	1.28	10,636	12,418	12,581	24,999	2.4	19,530
	우만2동	1.05	6,962	9,610	9,487	19,097	2.7	18,188
	인계동	2.91	18,029	22,242	21,790	44,032	2.4	15,131
	계	13.07	88,044	111,065	110,312	221,377	2.5	16,938
영통구	매탄1동	1.23	7,981	11,420	11,368	22,788	2.9	18,527
	매탄2동	0.8	6,558	9,055	9,141	18,196	2.8	22,745

13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지역	구분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명)			세대당 인구 (명)	인구밀도 (명/㎢)
				남자	여자	계		
영통구	매탄3동	2.34	14,571	20,472	19,254	39,726	2.7	16,977
	매탄4동	0.76	9,628	13,165	13,328	26,493	2.8	34,859
	원천동	15.2	11,688	14,099	13,477	27,576	2.4	1,814
	영통1동	1.96	15,611	23,199	22,606	45,805	2.9	23,370
	영통2동	1.98	15,813	25,196	24,720	49,916	3.2	25,210
	태장동	3.19	13,869	21,328	20,852	42,180	3.0	13,223
	계	27.46	95,719	137,934	134,746	272,680	2.8	9,930
수원시		121.01	416,036	563,276	554,944	1,118,220	2.7	9,241

높았고, 세류2동에서도 104.2로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반면 금호동(98.1)과 권선2동(99.0)은 100에 미치지 못하였다. 구의 인구밀도는 6,932명/㎢으로 시 평균 인구밀도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4개의 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권선구는 시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전되지 않은 곳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면적이 넓은 평동 · 금호동 · 입북동 등은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



〈그림 12〉 2010년 수원시 동별 주민등록 인구밀도

시의 중앙에 자리한 팔달구는 수원 화성을 비롯하여 구시가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도 13.07㎢로 수원에서 면적이 가장 좁은 구에 해당한다. 인구 규모 역시 22만 1,377명으로 시에서 가장 적다. 구의 동쪽에 위치한 인계동의 인구가 4만 4,0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의 서쪽에 위치한 화서1동과 화서2동의 인구도 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편이었다. 동별 인구 분포의 편차가 가장 작은 구이다. 세대당 인구는 평균 2.5명으로 시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화서2동이 유일하게 3명을 넘었다.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행궁동을 비롯하여 매교동과 매산동 등지에서는 세대당 인구가 2.3명 미만으로 아주 낮았다. 성비는 100.7을 기록하였는데, 오래 전부터 수원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던 행궁동(108.7)·매교동(107.0)·고등동(105.5) 등은 남자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구의 인구밀도는 1만 6,938명/㎢으로 시에서 가장 높았는데, 구내에서는 화서1동이 3만 4,957명/㎢으로 가장 높고 행궁동이 9,192명/㎢으로 가장 낮았다.

시의 동쪽에 위치하며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여 2003년에 신설된 영통구의 인구는 27만 2,680명이었다. 구의 동남쪽에 위치한 영통2동의 인구가 가장 많으며, 인접한 영통1동과 태장동의 인구도 4만 명을 상회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평균 2.8명으로 시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영통2동(3.2명)과 태장동(3.0명)이 높은 반면 시가지 개발수준이 미미한 원천동(2.4명)이 가장 낮았다. 성비는 102.4로 4개의 구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매탄2동(99.1)과 매탄4동(98.8)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100을 넘었다. 구의 인구밀도는 9,930명/㎢을 기록하였으며, 매탄4동이 3만 4,859명/㎢으로 가장 높았고 원천동이 1,814명/㎢으로 가장 낮았다.

5. 수원시 주민 구성의 변화

1) 연령별 인구 구성

최근에 조사되는 인구의 연령 자료는 한 살 간격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각 연령별 인구 속성을 상세하게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매세 간격의 인구자료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특정의 인구집단이 가지는 연령 분포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집단을 다른 구분 방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즉,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0~14세에 이르는 연령층을 유소년층,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층을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노년층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각 연령층을 다시 5세 간격으로

세분하여 남녀 간의 구성비까지를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연도의 인구 구성을 연령별로 분석하는 동시에 시계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인구 구성의 변화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연령층별 인구 구성을 먼저 살펴본 후 인구피라미드를 고찰함으로써 수원시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겠다.

(1) 연령층별 인구 구성

수원의 연령층별 인구 구성을 파악하고자 각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를 산출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원이 시로 승격한 직후부터의 연령층별 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구축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199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살펴보았다. 수원의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성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유소년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유년사회를 벗어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원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2010년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변화에 비해 약 10년 정도 늦다. 수원의 연령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0~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20%를 훨씬 웃돌았다. 수원에서도 2005년까지 유소년층의 비율이 21.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소년층 비율은 19.1%를 기록하였고 경기도에서는 21.5%를 기록하여, 수원의 유소년층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경기도의 유소년 비율이 18.2%로 감소하고 수원에서는 17.8%로 감소함에 따라, 수원의 유소년층 비율이 경기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수원의 유소년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연령층은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수와 구성 비중이 감소한 어린 연령층이다. 특히 10세 미만 연령층의 비율은 2010년에 10.5%로서, 20.4%를 기록한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청장년층은 경제활동인구로도 분류되는 연령층으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동 단위에서는 높지만 면 단위에서는 낮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장년층 비율은 동 단위에서 74.3%로 가장 높았으며, 읍 단위는 68.1%, 면 단위는 60.5%를 차지하였다.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동(洞)부와 읍(邑)부에서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면(面)부에서는 2005년에 비해 청장년층의 비중이 감소한 수치이다. 수원의 청장년층 비율은 1995년에 70%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75%를 상회하였다. 청장년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1990년에는 25~29세층,

〈표 15〉 수원시 연령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14]

(단위 : %)

연령층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유소년층	0~4세	10.2	9.6	8.4	5.8	5.1
	5~9세	10.2	7.9	9.2	7.6	5.4
	10~14세	8.2	8.1	7.2	8.5	7.3
	소계	28.6	25.6	24.8	21.9	17.8
청장년층	15~19세	9.0	8.4	7.8	7.0	8.1
	20~24세	9.8	10.1	8.3	8.2	7.1
	25~29세	13.1	11.1	9.7	8.9	8.6
	30~34세	11.8	11.5	10.8	9.7	8.7
	35~39세	7.7	10.4	10.9	10.1	9.4
	40~44세	5.4	6.7	9.0	10.0	9.6
	45~49세	4.1	4.6	5.6	8.0	9.1
	50~54세	3.2	3.3	3.8	4.8	7.1
	55~59세	2.3	2.7	2.8	3.4	4.4
	60~64세	1.8	2.0	2.3	2.6	3.1
	소계	68.2	70.8	71.0	72.7	75.2
노년층	65~69세	1.4	1.4	1.7	2.1	2.4
	70~74세	1.8	1.1	1.2	1.5	2.0
	75~79세	–	0.6	0.7	1.0	1.3
	80~84세	–	0.3	0.4	0.5	0.8
	85세 이상	–	0.2	0.2	0.3	0.5
	소계	3.2	3.6	4.2	5.4	7.0

30~34세층의 순이었는데, 2010년 들어서는 40~44세층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35~39세층으로 변화하였다. 청장년층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45세 이상의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인구 구성 변화는 노년층의 인구 구성 변화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수원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구성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3.2%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7.0%로 상승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가장 최근의 201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11.3%에 달하였는데, 이는 수원시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수원의

14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990년 70~74세층은 7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다.

노인인구 비율은 경기도의 노인인구 비율인 8.9%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면 단위에서 27.8%로 가장 높았으며, 읍 단위는 13.5%, 동 단위는 9.2%를 기록하였다. 즉 농촌지역에서의 고령화 진행상태가 매우 빠르고, 도시지역일수록 고령화 속도는 느리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령층별 인구 구성은 수원시 전체의 것만을 시계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동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지금부터는 2010년 행정동별 연령층의 인구 구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고령화현상의 지역적 전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16〉을 통해 먼저 각 구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영통구(20.8%)이며 가장 낮은 구는 팔달구(14.7%)로서, 구간 차이가 큰 편이다. 한편 청장년층의 비율은 팔달구가 76.3%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장안구가 74.0%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비율은 팔달구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영통구에서 4.3%로 가장 낮았다. 이를 보면, 도시 내에서 구시가지이거나 도시 중심부일수록 단독가구 또는 2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기동력이 저하되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지만, 신시가지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유입으로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노년층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 수원에서도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입북동으로, 그 비율은 25.7%에 달하였다. 2010년도 경기도의 유소년층 비율인 18.2%를 상회하는 동은 전체 43개 동 가운데 13개이며 신시가지가 개발된 영통구에 가장 많은 6개 동이 있다. 우리나라 동 단위의 평균치인 16.5%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18개 동이며, 구시가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팔달구에 7개 동이 있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동은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수원 화성의 구시가지에 자리한 행궁동(9.3%)과 매산동(9.4%)이다.

청장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2.0%를 기록한 원천동이었고, 그 뒤를 이어 매산동(81.7%)과 곡선동(81.2%)에서도 80%를 상회하였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시에서 가장 높았던 입북동은 청장년층의 비율이 68.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72.9%를 기록하였는데, 수원에서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 동은 7개 동에 불과할 정도로 수원의 청장년층 비율은 높은 편이다.

노년층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기성시가지나 도시 중심부에서 높은 편이다. 이는 수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동은 전통적으로 수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행궁동(15.8%)을 비롯한 세류1동(14.1%), 매교동(13.1%), 지동(12.8%), 고등동(11.8%) 등지와 도시화의 수준

〈표 16〉 2010년 수원시 행정구역별 연령층의 인구 구성[15]

(단위 : 명, %)

행정구역	연령층	유소년	청장년	노년	행정구역	연령층	유소년	청장년	노년
장안구	파장동	2,888(14.3)	15,121(74.8)	2,201(10.9)	권선구	세류1동	469(10.0)	3,578(76.0)	663(14.1)
	율천동	8,172(17.6)	35,565(76.5)	2,757(5.9)		세류2동	3,436(13.3)	20,127(77.9)	2,275(8.8)
	정자1동	4,347(17.9)	17,952(73.9)	1,981(8.2)		세류3동	3,686(14.6)	19,286(76.6)	2,212(8.8)
	정자2동	6,454(19.6)	23,886(72.5)	2,591(7.9)		평동	6,771(18.2)	27,148(73.1)	3,202(8.6)
	정자3동	11,175(23.9)	33,343(71.2)	2,280(4.9)		서둔동	7,154(17.4)	30,818(74.9)	3,184(7.7)
	영화동	2,391(11.2)	16,688(78.0)	2,306(10.8)		구운동	4,495(16.3)	21,060(76.5)	1,967(7.1)
	송죽동	3,076(15.7)	14,864(76.0)	1,622(8.3)		금호동	7,690(21.6)	25,365(71.3)	2,545(7.1)
	조원1동	5,758(18.0)	23,236(72.6)	3,019(9.4)		권선1동	3,945(14.4)	21,763(79.6)	1,619(5.9)
	조원2동	3,884(19.3)	14,627(72.6)	1,645(8.2)		권선2동	5,457(19.3)	21,507(76.1)	1,283(4.5)
	연무동	2,853(12.8)	16,446(73.9)	2,956(13.3)		곡선동	4,936(15.4)	25,977(81.2)	1,059(3.3)
	계	50,998(17.8)	211,728(74.0)	23,358(8.2)		입북동	3,610(25.7)	9,576(68.1)	885(6.3)
팔달구	행궁동	1,078(9.3)	8,684(74.9)	1,833(15.8)		계	51,649(17.3)	226,205(75.7)	20,894(7.0)
	매교동	1,108(11.0)	7,671(76.0)	1,319(13.1)	영통구	매탄1동	4,338(19.8)	16,394(74.8)	1,173(5.4)
	매산동	1,243(9.4)	10,841(81.7)	1,192(9.0)		매탄2동	2,918(17.2)	12,915(76.0)	1,160(6.8)
	고등동	1,971(11.3)	13,464(77.0)	2,058(11.8)		매탄3동	7,793(19.8)	29,844(76.0)	1,653(4.2)
	화서1동	4,497(17.2)	19,411(74.1)	2,284(8.7)		매탄4동	5,084(19.8)	19,300(75.2)	1,296(5.0)
	화서2동	5,900(20.3)	21,394(73.5)	1,806(6.2)		원천동	3,071(14.0)	17,948(82.0)	879(4.0)
	지동	1,871(12.4)	11,237(74.7)	1,929(12.8)		영통1동	10,055(22.2)	33,456(74.0)	1,684(3.7)
	우만1동	3,454(14.3)	18,473(76.6)	2,177(9.0)		영통2동	11,788(24.3)	35,076(72.2)	1,690(3.5)
	우만2동	3,606(17.7)	15,562(76.6)	1,159(5.7)		태장동	8,740(22.5)	28,423(73.2)	1,658(4.3)
	인계동	6,360(14.6)	34,247(78.4)	3,056(7.0)		계	53,787(20.8)	193,356(74.8)	11,193(4.3)
	계	31,088(14.7)	160,984(76.3)	18,813(8.9)	수원시		187,522(17.8)	792,273(75.2)	74,258(7.0)

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연무동(13.3%)과 파장동(10.9%) 등지이다. 반면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신시가지가 조성된 곡선동(3.3%), 영통2동(3.5%), 영통1동(3.7%), 원천동(4.0%), 매탄3동(4.2%) 등지는 시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구 차원에서도 확연해 신시가지가 많이 건설된 영통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4.3%에 지나지 않았다.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점진적으로 고령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세 간격으로 본 2010년 최다연령층도 1990년에 비해 15세가량 상승하였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시가지의 성격, 도시화 수준, 도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수원에서도 도시화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나 도시화의 수준이 낮은 외곽의 일부지역에서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시가지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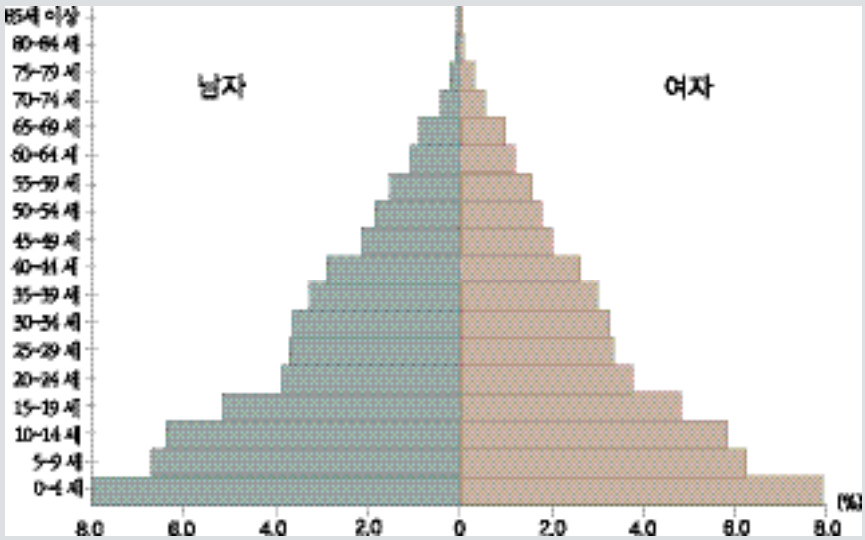
15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지역에서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게 형성되었다.

(2)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인구피라미드는 인구의 연령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비롯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전입 · 전출 등 인구 이동의 결과는 물론 출산력과 사망력의 변동 등에 따른 인구 변화 현상 등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인구피라미드는 모양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뉜다. 도시형은 선진국형과 같은 모양으로 청장년층의 유입이 많거나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다. 농촌형은 개발도상국형과 같은 모양으로 청장년층의 유출이 많기 때문에, 유소년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감소하는 삼각형의 모양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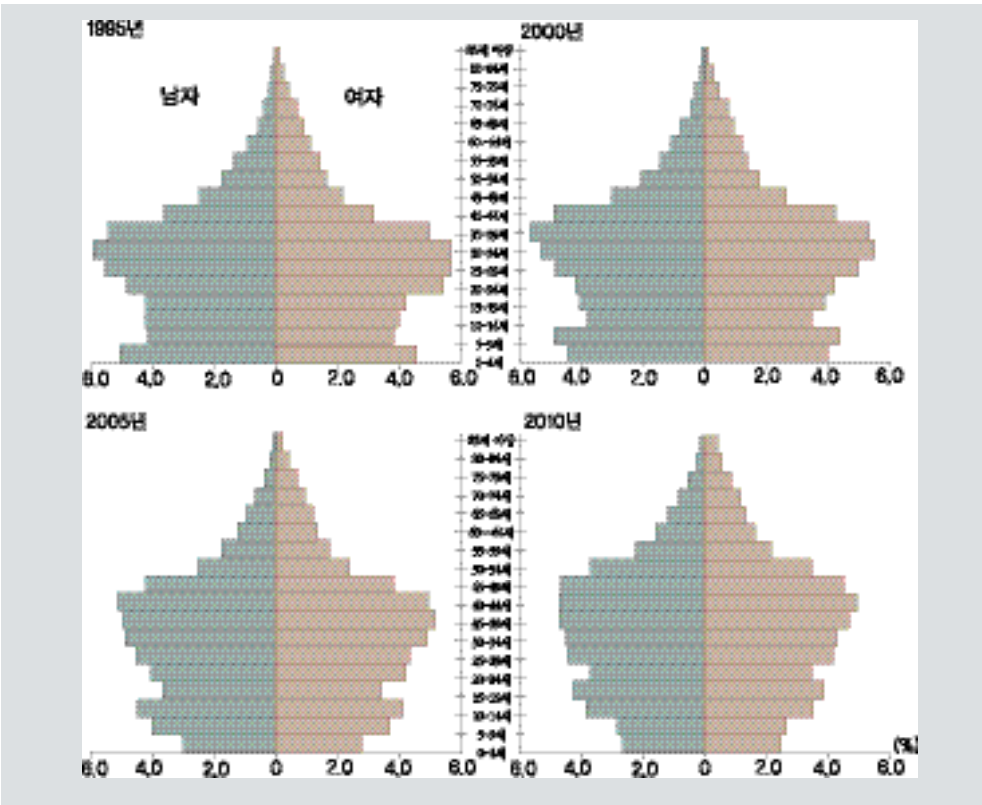
먼저 성별 · 연령별 인구자료가 존재하는 1925년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25년은 수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화 수준이 낮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시기이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구성은 농촌형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수원의 인구피라미드 역시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구성 비율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모양을 나타내었다. 특히 0~4세층의 비



〈그림 13〉 1925년 수원군 인구피라미드

율은 남녀 모두 8%에 이를 정도로 유소년층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성비는 105.2를 기록하였는데, 50~54세층까지는 남자인구의 비율이 높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여자인구의 비율이 높게 형성되었다. 1925년 이후의 인구자료 가운데 인구피라미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성별 · 연령별 속성이 포함된 자료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교적 정확하게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1995년 이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14〉와 같이 인구피라미드를 작성해 보았다.

1995년 이후 시의 인구피라미드는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청장년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별 모양에서 항아리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5년만 해도 0~4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상위 연령층에 비해 높았지만, 2000년부터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 2010년에는 0~4세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층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에는 30~34세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00년과 2005에는 35~39세층의 인구비



〈그림 14〉 1995~2010년 수원시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중이 가장 컸고, 2010년 들어서는 40~44세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구성 비율인 성비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대체로 101을 기록하였고 남녀 간의 인구 구성에 큰 차이가 없이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서 인구피라미드가 좌우 대칭의 형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특정 연령층부터는 여자인구가 많아지는데, 1995년과 2000년에는 55세 이상의 연령층부터 여자인구가 많아지다가 2005년부터는 60세 이상의 연령층부터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

수원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에 대하여 조사한 최종 학력에 대한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본래는 각 학교급별 졸업 · 재학 · 수료 · 중퇴 등의 항목별로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각 학교급을 통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수준에 대한 조사는 1990년까지 실시되지 않았기에 그 이전 시기는 대학교(4년제 이상)에 대학원의 학력을 지닌 인구까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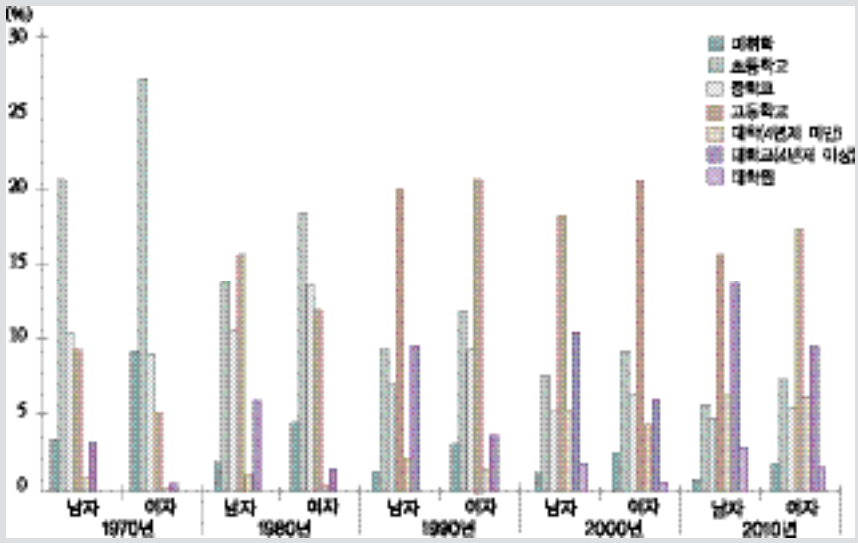
〈표 17〉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수원 시민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최종 학력의 고학력화, 미취학률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최종 학력의 고학력화는 학교급별 구성 비중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수준이 1970년에는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이었지만 2010년 들어서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은 1970년의 5.1%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40.7%로 증가하였다. 최종 학력이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 · 중퇴 · 수료 · 휴학 · 졸업 등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에 고등학교 학력 소유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970년에 12.7%이었으나 2010년에는 2.6%로 감소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의 교육수준을 전국 및 경기도와 비교해 보아도 수원의 교육수준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사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15.9%이고 경기도에서는 14.5%로 수원시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중학교 역시 수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31.2%이고 경기도에서 33.4%를 기록하여 수원의 비율인 33.0%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은 수원에서 28.0%인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25.4%이고 전국적으로는 24.8%에 불과하여 수원 거주자의 고학력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6%로 경기도의 3.2%나 전국의 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17〉 1970~2010년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의 변화[16]

(단위 : 명, %)

구분 \ 교육수준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1970	남자	5,069(3.4)	30,602(20.7)	15,469(10.5)	13,947(9.4)	1,349(0.9)	4,843(3.3)	
	여자	13,752(9.3)	40,314(27.3)	13,469(9.1)	7,694(5.2)	422(0.3)	846(0.6)	
	계	18,821	70,916	28,938	21,641	1,771	5,689	
1980	남자	5,390(2.0)	37,085(13.9)	28,357(10.6)	41,745(15.6)	2,812(1.1)	15,967(6.0)	
	여자	12,321(4.6)	49,379(18.5)	36,509(13.7)	32,170(12.0)	1,443(0.5)	3,954(1.5)	
	계	17,711	6,464	64,866	73,915	4,255	19,921	
1990	남자	7,424(1.3)	53,374(9.4)	40,898(7.2)	112,400(19.9)	12,590(2.2)	54,819(9.7)	
	여자	17,995(3.2)	67,502(11.9)	53,082(9.4)	116,427(20.6)	8,335(1.5)	21,102(3.7)	
	계	25,419	120,876	93,980	228,827	20,925	75,921	
2000	남자	10,160(1.2)	65,490(7.7)	44,504(5.3)	154,038(18.2)	45,358(5.4)	88,912(10.5)	16,141(1.9)
	여자	21,842(2.6)	79,214(9.3)	54,343(6.4)	173,456(20.5)	37,469(4.4)	51,966(6.1)	4,692(0.6)
	계	32,002	144,704	98,847	327,494	82,827	140,878	20,833
2010	남자	7,802(0.8)	57,323(5.8)	48,542(4.9)	154,137(15.6)	63,790(6.4)	136,313(13.8)	29,449(3.0)
	여자	17,958(1.8)	74,196(7.5)	55,803(5.6)	172,250(17.4)	62,477(6.3)	95,792(9.7)	15,047(1.5)
	수원시	25,760	131,519	104,345	326,387	126,267	232,105	44,496
	경기도	330,843(3.2)	1,523,550(14.5)	1,158,693(11.1)	3,501,408(33.4)	1,308,705(12.5)	2,275,656(21.7)	383,734(3.7)
	전국	1,971,837(4.3)	7,214,170(15.9)	5,413,129(11.9)	14,150,318(31.2)	5,438,453(12.0)	9,581,757(21.1)	1,578,911(3.5)



〈그림 15〉 1970~2010년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의 변화

16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괄호 안의 비율은 해당 연도 6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이다. 학교급별 재학생 · 졸업생 · 중퇴 · 수료자가 포함되었고, 1990년까지는 대학원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다.

수원 인구의 전반적인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확인하였지만, 남녀 간의 교육수준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초등학교까지만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모든 시기에 걸쳐 여자가 많았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980년까지 남자가 높았지만, 1990년부터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대학 · 대학교 · 대학원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은 모든 시기에 걸쳐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수원시 거주자들의 남녀 간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정규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 역시 남녀 간에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자의 수가 남자의 두 배를 상회한다.

손승호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1. 도시계획의 변화
2. 한말과 일제시기의 토지 이용
3. 해방 후의 토지 이용
4.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5. 지목별 토지 이용의 변화
6. 도시공간의 특성

제2장

수원의 토지 이용 변화

도시 내에서의 토지 이용은 인간활동이 지표면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가시적인 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 도시경관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역사적 진행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인간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물 · 가로망 · 토지 이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토지 이용은 도시의 지표상에 펼쳐진 주거공간, 상업공간, 업무공간, 생산공간, 공공공간, 농경지, 도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수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중심지이며 서울 남쪽의 관문 역할을 해 온 역사도시이기도 하고, 현재는 경기도청이 입지하고 있는 행정중심지이다. 또한 수원은 문화도시로서의 도시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1967년 6월 23일에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 · 경제 · 사회 · 문화의 중심지 기능과 함께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에는 다른 중소도시와는 달리 상당히 다양한 기능이 입지하고 있다. 신도시로 건설된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제1의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원은 1990년대부터 고밀개발, 대규모 택지개

발사업, 첨단산업의 성장, 북서 축 및 남동 축으로 도시의 성장방향 설정, 고속교통망 건설 등의 요인으로 가시적 경관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원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인간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토지 이용의 변화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수원의 인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토지 이용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수원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토지 이용의 변화는 토지 지목에 따라 각 지목별 토지면적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1. 도시계획의 변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대상의 공간범위에 따라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순으로 좁아지며, 이들 3가지는 토지 이용체계에 의거하여 지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자리하는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zoning system)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에 의해서 최초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수원에서는 1944년에 수립된 '수원시가지계획'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는데, 당시에는 토지 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녹지지역만 지정되었다. 1944년 8월 10일 총독부고시 제1053호로 고시된 계획에서 지정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은 29.39㎢이었으며, 계획인구는 10만 명이었다. 참고로 당시 수원에는 7,572호에 3만 6,146명이 거주하였다.

수원에서 체계적인 용도지역계획이 수립된 시기는 1962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 1967년에 '수원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당시의 도시계획에서는 계획구역 면적을 83.67㎢로 확장하여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등으로 나누어 지정하였다. 1967년에는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을 121.66㎢로 확장하여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의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에 새롭게 편입된 신갈지구 등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당시의 시가화구역은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30%를 상회하는 40㎢에 달하였다. 1972년과 1974년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용인군과 화성군, 그리고 시흥군의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어 그 면적이 202.99㎢까지 확장되었으며 주거지역 위주로 시가화구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5년에 이르러 도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수도권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을 120.39㎢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1976년에는 농지보전을 위한 농경지 잠식 방지를 목적으로 시가화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에 용도지역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84년에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용도지역 제도는 향후 20년간의 토지 이용 구상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용도지역을 확장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1986년에는 수원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었다. 이 시기에 「도시계획법」의 개편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주거전용지역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율천동 일대가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기존 도심부와 동부의 신시가지에 상업지역이 지정되었으며, 매원동 일대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매탄지구를 시작으로 21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었다. 도시 내 미개발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신시가지의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원의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조원동 일대의 준공업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 등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동수원 중심부의 일반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매탄동 일대에 주거단지와 혼재된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팔달공원의 확장에 따라 공원에 편입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간의 용도가 조정되기도 하였다. 1995년의 재정비 결정 이후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수원시의 시가화구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대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용도지역의 세분화, 규제내용의 상세화, 광역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신설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종전의 3개 용도지역에서 6개로 세분되었으며, 수원시에서도 2003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주민제안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진행되었고, 2006년에는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

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결정 · 고시하였다. 2008년에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한말과 일제시기의 토지 이용

1890년대에 일제에 의해 제작된 『구한말한반도지형도』에 나타난 수원 지역의 모습이 〈그림 1〉이다. 당시에는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성곽의 내부와 팔달문 남쪽으로 소규모의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뿐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즉 팔달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완사면 또는 평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부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북쪽에서 흘러내려 오는 주요 하천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수원 지방의 인구부양력을 증대시켜 주었으며, 주요 취락은 농경지 주변의 완사면에 분산된 집중의 형태로 입지하였다. 취락이 집중되어 있음은 공동노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토지 이용이 주로 논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수의 취락이 입지하였으며, 남쪽으로 흘러내려 가는 유천(柳川 : 현 수원천)을 따라 하천 주변에 농경지와 소규모의 마을이 입지하였다. 서쪽의 황구지천과 서호천을 따라 하천 양쪽의 토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었으며, 하천에서 다소 떨어진 완사면과 구릉지의 주변 지역은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었다. 북쪽의 광교산에서 남쪽으로 형성된 사면과 중앙부의 팔달산 기슭에는 밭이 대부분이고, 수원천 동쪽의 넓은 개활지에는 대규모의 논이 조성되어 있다. 19세기 말 수원 지역은 지금처럼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취락은 화성 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주요 구릉지의 완사면과 농경지에서는 소규모의 자연마을이 분산 입지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 작성된 일제시기의 지형도에서 수원 중심부를 살펴보면, 1890년대와 비교하여 화성 내의 시가지가 더욱 확충되어 상당히 고밀도의 토지 이용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3〉. 그리고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 철도가 화성의 서쪽을 남북으로 가로지름에 따라 화성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함께 도로 주변에 새롭게 건설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부선 철도가 수원시가지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화성의 팔달문에서 수원역으로 연결된 도로가 완성되었고, 경부선 철도의 서

〈그림 1〉 한말의 수원(1890년대)

〈그림 2〉 장안문과 화서문 안 농가와 농경지(헤르만 산더, 1907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쪽으로는 서호(西湖)가 보강되어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으며, 농사시험장과 수원고농으로 연결되는 직선도로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그림 3〉 일제 초기의 수원(1917년)

경부선 철도가 화성에 입지한 수원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팔달산 서쪽의 평지에 부설됨으로써 화성의 성곽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성곽 내부에서의 토지 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화성행궁이 철거되었으며, 행궁 내에 건설되었던 객사가 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와 간이농업학교로 전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에서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통로가 남쪽의 팔달문이었으므로 화성의 북쪽에 자리한 장안문 주변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리게 진행되어 성곽 밖은 여전히 농경지(논)로 이용되었던 반면, 팔달문 남쪽의 성외시장과 그 주변의 시가지는 더욱 번성하여 시가지가 남서쪽으로 확장되어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둔전으로 조성되었던 경부선 철도 서쪽의 대규모 농경지는 1906년에 일제가 수원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설치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권업모범장은 농촌진흥청의 전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시험 · 조사 · 지도 등을 목적으로

〈그림 4〉 일제시기 팔달문 밖 시가지(수원박물관 소장)

〈그림 5〉 일제시기 수원역 앞 시가지(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설치된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일본의 농법을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정도에 불과한 개선책을 사용하였다. 권업모범장 일대에는 축사 · 과수원 · 농림학교 · 관사 등이 입지함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6〉 권업모범장 전경(수원박물관 소장)

일제시기에는 수원의 중요한 시설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화성행궁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성곽은 방치된 채 곳곳이 무너지고 훼손되었다. 수원 시가지에서는 가로의 본래 모습이 사라져 갔다. 1930년대에 도심지 가로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장안문에서 팔달문을 잇는 도로 폭이 확장되었으며,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우마차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협소한 도로만으로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로변에 입지하였던 상가건물의 상당수가 없어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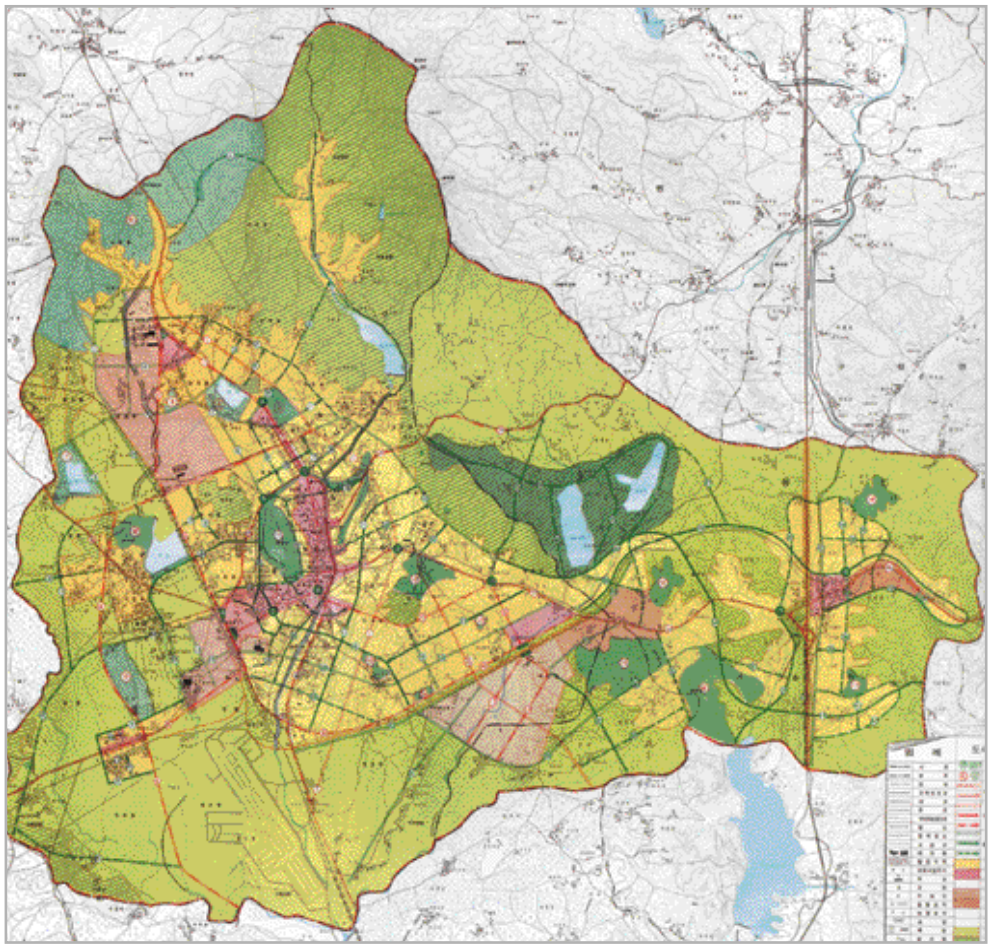
1944년에 시행된 '수원시가지계획'에는 구획정리지구 · 가로 · 녹지지구 · 풍치지구 · 공원 등이 결정되어 있으며, 인구 증가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계획구역은 당초 입안할 당시의 면적 26.84㎢를 약간 확장하는 것으로 수원읍 전체와 일왕면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중 주택이 입지하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설정하여 9.79㎢를 계획하였으며, 주거면적 가운데 기존 시가지의 가옥이 밀집한 지역을 제외한 구획정리지구를 지정하였다. 도로는 광로 1개 노선, 대로 2개 노선, 중로 51개 노선을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도로의 주요 교차점에 7개소의 광장을 계획하였다. 녹지지구는 계획구역 내 주변의 주거지역과 공원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며 작물생산기능까지 보유하도록 지정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풍치지

구는 산림이 풍부하거나 경관을 보전해야 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공원은 팔달산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5개소에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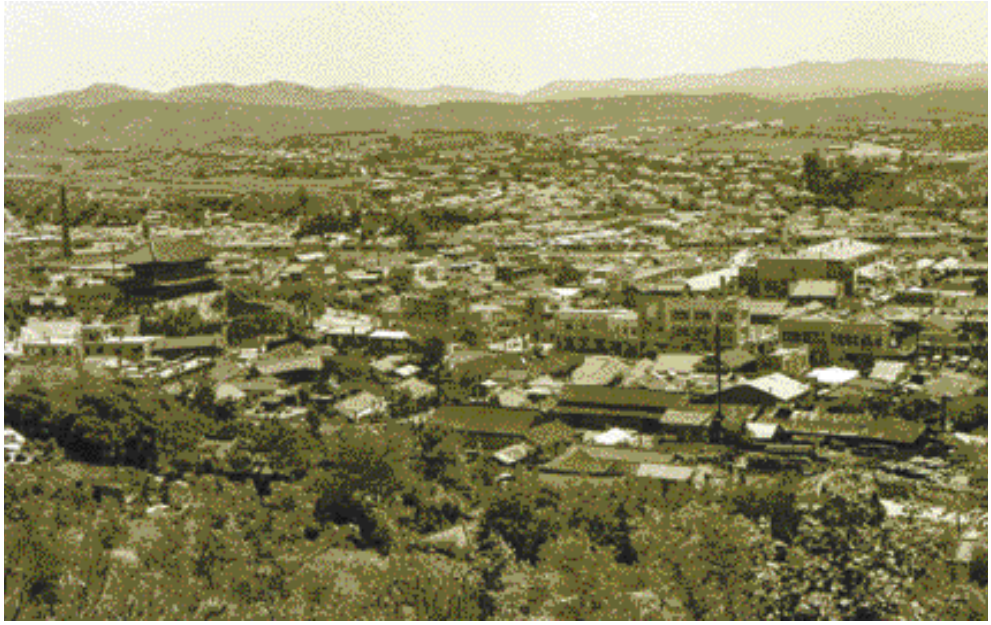
3. 해방 후의 토지 이용

1) 1960년대 토지 이용

1960년대 들어 국가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중심기능



〈그림 7〉 1960년대 말 수원시 도시계획도



〈그림 8〉 1960년대 팔달문 주변 전경(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이 고도화하고 고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수원에서도 이상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주거지역을 합한 개발 면적을 시 전체면적의 30%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1968년 12월 서울–신갈 간 고속도로 개통),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에 따른 도시 중심기능의 확산, 연초제조창을 비롯한 도시 내 경공업의 발달 등으로 수원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수도권 광역계획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기능하며, 행정 · 연구 · 내륙공업 및 역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림 7〉에서 제시된 도시계획도를 통해 1960년대 토지 이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시에는 수원시의 동쪽에 접해 있는 용인군의 일부가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다. 수원 화성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을 따라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도시의 중앙부에는 주거지역이 배치되어 있으며, 도시 주변으로는 녹지지역이 수원을 포위하고 있는 형세의 토지 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만 해도 수원의 시가지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주요 시가지는 도시 중심부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2) 1970년대 토지 이용

1970년대에는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용도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시가화구역의 면적이 도시 전체 면적의 18.8% 수준으로 조정되었

〈그림 9〉 1970년대 수원시가지 전경

〈그림 10〉 1970년대 수원의 농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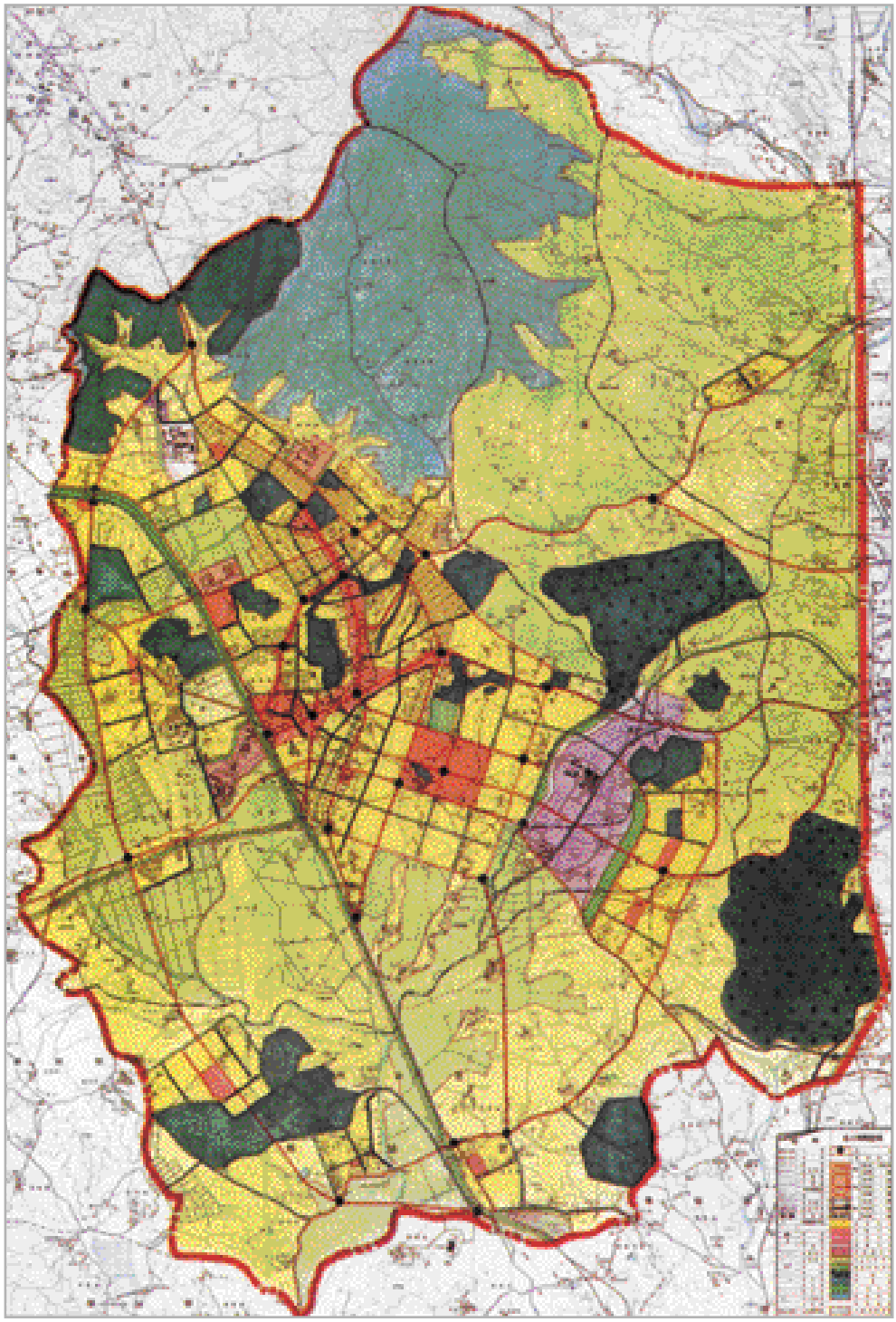
〈그림 11〉 선경합섬 공장이 세워진 정자동 일대 공업지역

〈그림 12〉 조원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다. 또한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지계획을 변경하고, 공업지역의 면적을 늘림으로써 준공업지역을 신설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세류1동에서는 녹지지역 24만 1,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비행장 입지와 더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밀집지역을 주거여건이 양호한 주거지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1973년에는 애초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국가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공업지역의 면적을 확대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우량농지의 보전과 식량 증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가화구역으로 개발하기로 계획되었던 지역 가운데 우량농지가 포함되어 있던 이목동 · 영화동 · 평동 · 인계동 · 매탄동 · 원천동 등지를 녹지지역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여 송죽동 서북쪽의 주거지역과 남쪽의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매산로 · 매교동 · 신풍동 · 영화동 일대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서울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에서 분산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원동 · 매탄동 · 정자동 일대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고등동과 화서동은 고화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 편익을 제공할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된 시장용지(화서시장)를 포함한 주변의 주거



〈그림 13〉 1970년대 말 수원시 종합개발계획도

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시기에 고등동에 입지하였던 구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의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또한 서울 인구증가억제정책에 따라 교육기관(아주공대, 성균관대, 경기대, 신학대학, 연수원 등)이 수원으로 이전해 오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과천과 반월)가 건설됨에 따른 관련 인구의 유입으로, 수원에서는 주택문제의 해결이 우선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외곽의 구릉지와 불량농지로 구성된 권선동 일대에 대하여 대대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 도시개발에 의한 토지 이용은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수원에서는 주거지역이 대폭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중심부를 비롯하여 시 외곽지역에서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수원 화성에서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변과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원천천 동쪽의 매탄동과 신동 일대에 공업지역이 형성된 것이 눈에 띈다.

3) 1980년대 토지 이용

〈그림 14〉 1980년대 매탄지구 택지개발

1980년대 들어 세류동의 비행장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일대에 공무원 연금주택이 건립되었다. 이목동의 자연녹지지역은 그곳에 입지해 있던 공장(해태유업, 대유산업)들로 인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토지용도가 현실화되었다. 1982년에는 매탄동 일원에 국민주택 3,400호의 건설을 위한 매탄지구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자연녹지지역 21만 2,412㎡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림 15〉 1980년대 말 수원시 도시계획도

수원에서는 애초에 계획하였던 예상인구가 1980년대 들어서서 훨씬 큰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의 도시공간은 도시 중앙의 구시가지를 서부생활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상업서비스와 유통기능을 부여하고, 현재 시청이 입지하고 있는 신시가지를 동부생활권 중심으로 지정하여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새롭게 재편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우만동 제2종합운동장(2002 월드컵 축구경기장) 옆의 우만택지개발사업(우만아파트) 시행을 위하여 자연녹지 10만 2,200㎡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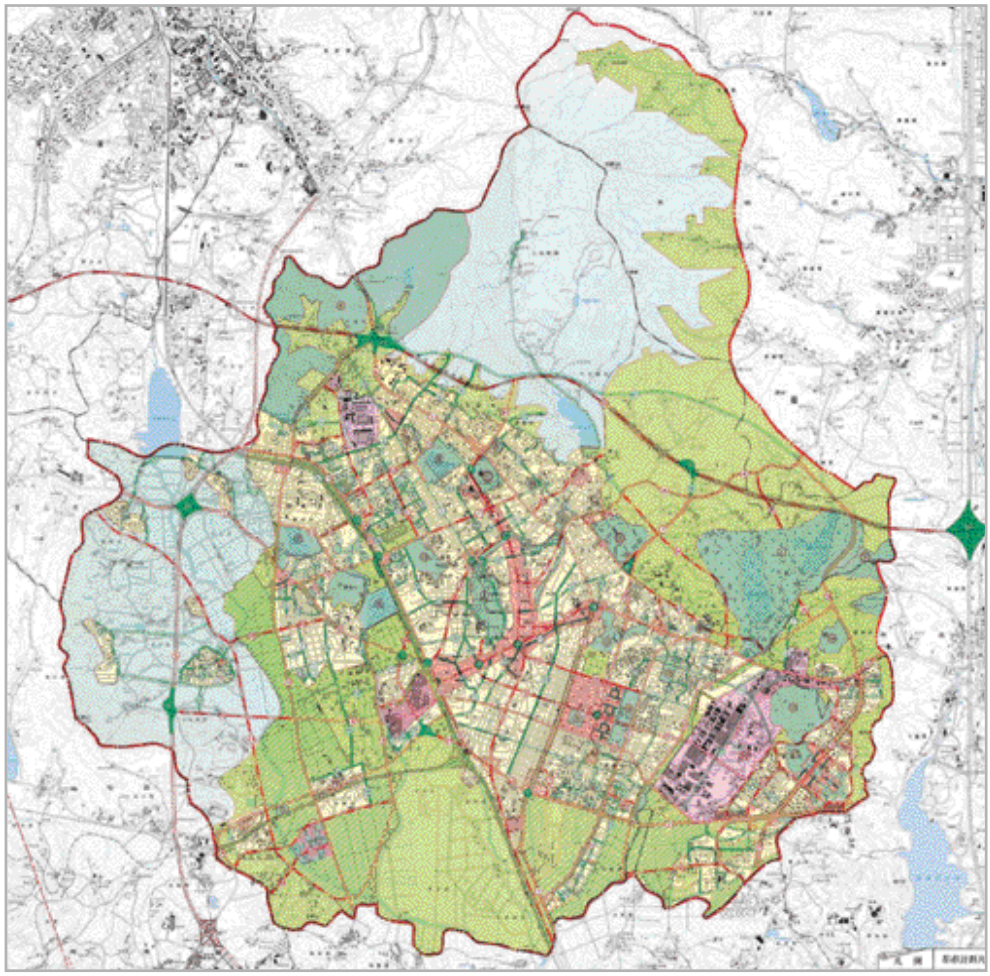
1980년대 들어 수원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동북쪽의 용인군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매탄동과 신동 일대에 공장이 들어섰다〈그림 15〉.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 자리한 서둔동과 천천동 일대가 시가지로 개발됨에 따라 많은 시설이 들어섰으며, 수원역 남쪽에 위치한 세류동 일대의 주거지역에도 시가지가 개발된 것을 볼 수 있다. 시 전체적으로는 중심부의 시가지가 1970년대에 비해 점차 외연적인 확대를 경험하였다.

4) 1990년대 토지 이용

1990년 초반에는 권선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여 대량유통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현대화된 시장을 설치하였다. 1991년에는 원천동과 매탄동 일원에 원천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여 녹지지역 34만 8,360㎡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권선택지개발계획이 시행되어 권선동 일원의 녹지지역 32만 5,485㎡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되면서 수원시는 제한정비권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규모가 예상인구를 훨씬 초과하고 도시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도심, 부도심, 서수원 지역중심, 북수원 지역중심 등으로 구성되는 4개의 다핵구조로 도시공간을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권선동과 천천지구에서 각각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녹지지역 83만 1,641㎡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대단위 택지를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원시의 주택부족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매탄동 · 화성군(영통리) · 용인군(기흥읍) 일대의 328만 4,972㎡가 영통택지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화서동 일대에서는 화서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할 변경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한 계획이 시행되었다. 수원시의 공업지역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지역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도시 내의 시가지나 주거지역에 혼재된 경우가 많았다.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입지한 소규모 공업지역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원역 서쪽에 형성된 평동 공업지역도 외곽으로의 이



〈그림 16〉 1990년대 말 수원시 도시계획도

전을 추진하였다. 당시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제한정비권역에 속하였으므로 공업용지의 총량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신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지 내의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곽지역의 동일 면적을 공업지역으로 대체하여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원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의 고색동과 오목천동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공업지역이었던 조원동과 평동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한편 북수원권의 균형개발과 안정된 택지공급을 위해 화서역과 성균관대역의 동쪽에

〈그림 17〉 1990년대 매탄동 일대 전경

〈그림 18〉 1990년대 정자동 일대 전경 고층 아파트 건축이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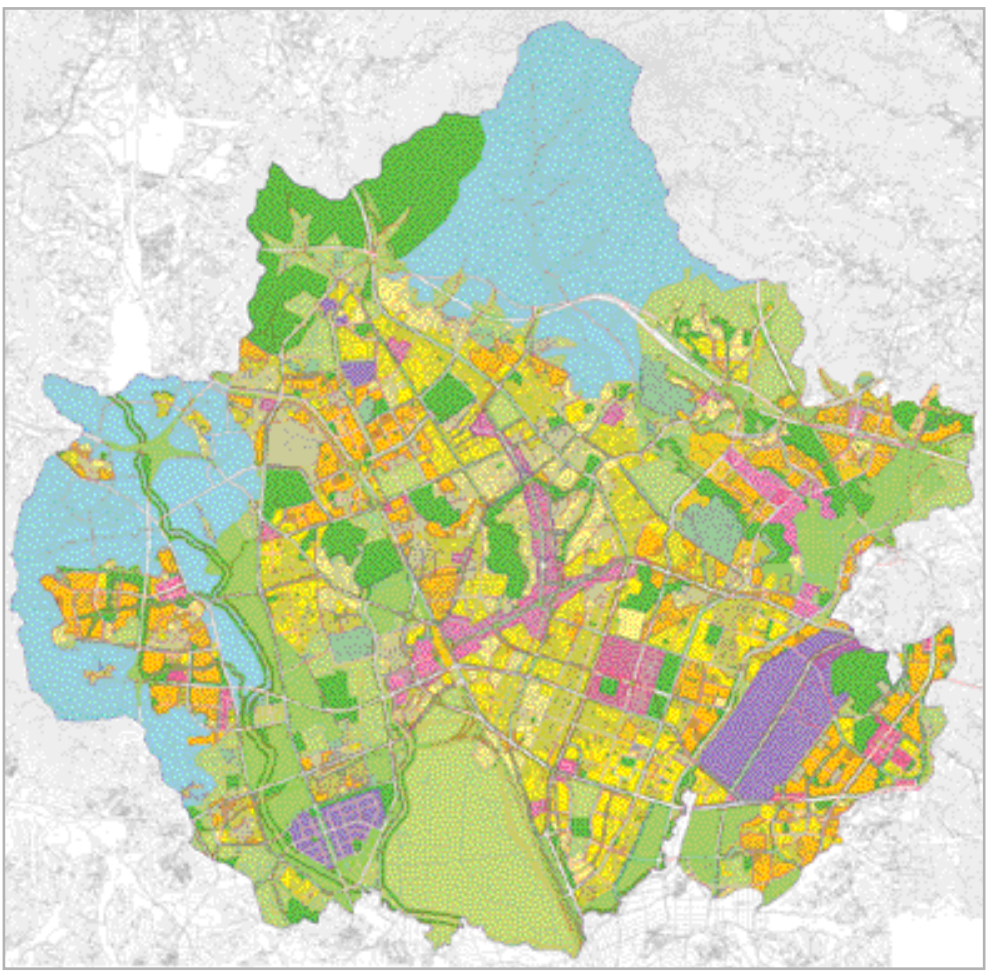
위치한 천천동 · 율전동 · 정자동 일대와 천천동 · 정자동 · 서둔동 일대의 83만 102㎡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8,923세대를 수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다. 권선동과 신동 일대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되어 녹지지역 44만 3,323㎡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곡반정동 일대의 녹지지역에는 일찍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마을이 밀집해 있었는데, 시에서는 곡반정동 일대의 취락을 정비하고 주거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1998년에는 매탄동과 신동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74만 3,701㎡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개발 과정을 통해 수원시의 토지 이용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림 16〉을 통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0년대의 토지 이용과 비교할 때에 가장 큰 차이점은 시 동남부의 영통지구가 개발된 점이다. 용인시 및 화성시와 경계를 형성하는 영통동과 망포동 일대에 대규모의 시가지가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림 15〉와 〈그림 16〉을 비교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가지의 형성과 함께 도로망도 더욱 확충되었다. 그리고 원천천의 서쪽에 자리한 매탄동에서도 대단지의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시 서북부의 정자동 · 화서동 일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자리한 정자동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1980년대에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정자동에 직교형의 가로망을 갖춘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경부선의 서쪽에서 천천동의 남쪽에 자리한 화서동 역시 기존의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5) 2000년대 토지 이용

수원에서는 2000년대 들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 · 고밀의 시가지 개발을 지양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과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서수원권 개발을 통해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호매실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녹지지역 231만 7,191㎡를 주거지역(186만 6,616㎡), 상업지역(34만 3,556㎡), 녹지지역(10만 7,019㎡)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007년에는 고색동 일대의 녹지지역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



〈그림 19〉 2011년 수원시 도시계획도

〈그림 20〉 광교신도시 개발

었으며, 평동 일대에 이미 지정되었던 준공업지역 가운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변경(해제)이 가능하도록 의결한 부지에 한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자족형 신도시 건설 및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계획이 수립되면서 영통구의 이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서는 광교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이 실시되면서 녹지지역 421만 8,610㎡가 주거지역(335만 6,219㎡), 상업지역(83만 9,631㎡), 녹지지역(2만 2,760㎡) 등으로 변경되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은 3만 1,000호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그림 1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시 남서쪽의 고색동 일대에 공업지역(보라색)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인접한 곳에는 1990년대에 개발되었던 시가지의 충진현상이 진행되었다. 시의 서쪽에 자리한 호매실동 · 금곡동(이상 행정동은 구운동) 일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기존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시의 동북쪽에서 용인시로 연결되는 광교지구의 개발은 이의동과 원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대체로 녹지지역이었던 곳이 2000년대 들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으로 분할 변경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4.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1) 용도지역 구성의 변화

일련의 도시계획법 변화에 따른 수원의 용도지역별 변화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67년에 주거지역이 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1%이었다. 1970년대 들어 주거지역의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99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2010년의 주거지역 면적은 42.86㎢로 증가하였고,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높아졌다.

〈표 1〉 수원시 용도지역 구성의 변화[1]

(단위 : ㎢, %)

연도	구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1967	면적	83.67	19.36	2.77	3.15	58.39
	비율	100	23.1	3.3	3.8	69.8
1986	면적	120.38	22.10	2.41	4.43	91.44
	비율	100	18.4	2.0	3.7	76.0
1998	면적	137.04	34.16	4.06	4.38	94.44
	비율	100	24.9	3.0	3.2	68.9
2010	면적	121.10	42.86	5.73	4.12	68.39
	비율	100	35.4	4.7	3.4	56.5

상업지역은 1960년대에 시 면적의 3.3%인 2.77㎢이었던 것이 1986년 들어 면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들어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책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3.84%까지 높아지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상업지역의 비율이 3.34%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1967년의 3.3%에서 2010년에는 4.7%로 증가하였다.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1967년에 3.15㎢를 기록하였으나, 1970년대 초 수원에 각종 공업기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6.98㎢까지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

1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해당 연도.

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4.12㎢로 축소되었으며, 수원의 면적 확대에 공업지역이 동반하여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 그 비율은 3.4%로 감소하였다. 한편 녹지지역은 1967년에 58.39㎢를 기록하였던 것이 시의 면적 확대와 함께 1998에는 94.44㎢까지 확대되었으나,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녹지지역은 다른 용도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에는 시 전체 면적의 56.5%에 해당하는 68.39㎢로 감소하였다.

경기도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주거지역 14.0%,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2.8%, 녹지지역 81.7%이었다. 이를 수원시 용도지역별 면적의 비중과 비교해 보면, 수원의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 도시지역의 평균을 상회하였다. 특히 주거지역의 비중이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수원의 인구규모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녹지지역의 비중이 경기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수원시의 자연환경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가지 확대 등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겠다.

2) 용도지역별 구성

(1) 주거지역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용지는 42.86㎢로 전체 면적의 35.39%를 차지한다. 주거지역의 면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시 도시계획의 변화와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수원시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의 비율이 84%를 넘어섰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공동주택의 비중은 신시가지인 영통구에서 95.1%로 가장 높으며, 구시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팔달구에서 73.4%로 가장 낮다. 정부의 정책과 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단독주택의 선호양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주택 유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용주거지역 가운데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폐율 50% 이하에 용적률은 50~100%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면적은 0.143㎢이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건폐율 50% 이하에 용적률은 100~150%에 해당하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나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00~200%로 건물 높이가 4층 이하인 지

〈그림 21〉 연무동 주택가

〈그림 22〉 영통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역이며, 수원시에는 11.904㎢가 지정되어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50~250%이며 건물 높이는 18층 이하인 지역이다. 수원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178㎢가 지정되어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

층주택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200~300%인데, 9.585㎢가 지정되어 있다. 주거지역 가운데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준주거지역은 2.053㎢에 달한다. 이렇게 볼 때, 수원에는 중층건물 위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고, 그 뒤를 이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순이다.

〈표 2〉 2010년 수원시 용도지역 지정 현황[2]

(단위 : ㎢, %)

구분		면적	비율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0.143	0.12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904	9.8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178	15.84
	제3종 일반주거지역	9.585	7.91
	준주거지역	2.053	1.70
	소계	42.863	35.3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16	3.40
	중심상업지역	1.388	1.15
	근린상업지역	0.226	0.19
	소 계	5.730	4.73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893	3.21
	준공업지역	0.226	0.19
	소 계	4.119	3.4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111	0.92
	생산녹지지역	7.780	6.42
	자연녹지지역	59.500	49.13
	소 계	68.391	56.47
전 체		121.103	100.0

(2)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등의 4가지로 구분된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상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수

2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2011.

〈그림 23〉 매산로 로데오거리

〈그림 24〉 지동 못골시장

원의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3가지로 구성된다.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5.730㎢로, 시 전체 면적의 4.73%에 해당한다. 일반상업지역이 4.116㎢로 가장 넓으며, 중심상업지역이 1.388㎢,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0.226㎢를 차지하였다.

1950년대에는 상업지역이 구도심의 주변 지역에 지정되었으며, 196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상업지역에서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선형(線形)의 상업지역이 형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상업지역에서 서울 방향과 경부고속도로 방향, 그리고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방향의 세 갈래로 상업지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수원시청 주변에 상업지역이 지정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시의 북서쪽과 동남 축을 따라 상업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수원역에서 정면으로 뻗은 매산로를 따라 이어지는 상업지역은 교동사거리를 지나 화성을 가로지르는 정조로의 주변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다. 수원시청 주변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3) 공업지역

도시 내 용도지역 분류에 의하면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등의 3가지로 구분된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300% 이하이다. 일반공업지

〈그림 25〉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김현락 제공)

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350% 이하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을 비롯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에, 용적률 200~400% 이하이다.

수원에서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4.119㎢이며, 이는 시 전체면적의 3.40%에 달한다. 일반공업지역의 면적은 3.893㎢이며,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0.226㎢를 차지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탄동과 원천동 등지이며, 현재는 삼성디지털단지의 배후공업단지에 해당하는 매탄동 공업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공업지역이다. 이 일대의 공업지역은 1969년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주변에 조성되어, 수원의 대표적인 공업지구로 발전하였다.

수원시에서 수립한 '202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매탄동의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변의 매탄동 공업지역은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공장들이 수원 이외의 타지방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공장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탈공업화에 따른 도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일대는 자동차수리업소와 폐차장 등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

〈그림 26〉 오목천동 산업단지

설이 열악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서서히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매탄동에 입지한 공업시설을 서수원권에 재배치하고, 매탄동 일대의 공업지역 1.071㎢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4)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보호,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와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고,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개발을 유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의 확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원에는 이들 3가지 유형의 녹지지역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녹지지역의 총면적은 68.391㎢로 시 전체 면적의 56.47%에 해당하며, 도내의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녹지지역의 비중은 높은 편이 아니다. 자연녹지지역이 59.500㎢로 가장 큰

〈그림 27〉 평동 생산녹지지역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생산녹지지역이 7.780㎢, 보전녹지지역은 1.111㎢를 차지한다. 녹지지역은 시 서남부의 평동과 구운동 일대, 동북부의 원천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오목천동 일대의 녹지지역은 최근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5)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특정의 용도지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는 시가지의 무분별한 시가지 팽창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지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수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수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의 개발제한구역은 33.21㎢로, 시 전체 면적의 27.4%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시 북쪽 연무동을 중심으로 하는 광교산 자락과 서쪽의 구운동과 입북동으로 연결되는 칠보산의 동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북쪽에 위치한 장안구에는 구 면적의 60.69%에 해당하는 20.10㎢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쪽의 권선

〈그림 28〉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광교산 일대

구에는 구 면적의 26.42%에 해당하는 12.51㎢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영통구에는 0.60㎢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중심부에 자리한 팔달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수원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1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후 도시의 무질서한 수평적 팽창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29일에 처음으로 24.3㎢가 지정되었다. 그 이후 1991년과 1996년에 각각 8.06㎢와 7.33㎢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41.15㎢까지 면적이 증가하였지만, 1994년, 2002년, 2005년에 일부 지구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2년에 5.60㎢가 해제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용인시 일부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3.28㎢가 해제되었는데, 이는 시 서부의 입북동 · 금곡동 · 호매실동 등지에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호매실택지개발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2010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은 11개의 행정동(13개의 법정동)에 지정되어 있으며,

시 전체에 408가구 1,024명이 거주하였고 건축물은 1,050동이 있었다. 장안구는 6개 동에 걸쳐 236가구 589명이 거주하였고, 권선구에는 4개 동에 172가구 435명이 거주하였다. 반면 건축물은 권선구에 607동이 있었고, 장안구에는 443동이 있었다. 영통구는 1개 동에 지정되어 있지만, 거주자도 없고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목은 임야가 22.60㎢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논(5.13㎢), 밭(3.00㎢), 대지(0.23㎢), 기타(2.25㎢)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논은 권선구의 황구지천 주변에 펼쳐진 농경지이다.

5. 지목별 토지 이용의 변화

1) 도시 전체의 지목별 토지 이용

여기에서는 1970년대 이후 지목별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원에서는 1970년대 이래로 총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121.01㎢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목별 절대적인 면적의 변화만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주요 도시 내 토지 이용에서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일부 지목에 대하여 면적과 함께 비중의 변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표 3〉 수원시 지목별 토지 이용의 변화[3]

(단위 : ㎢, %)

연도	구분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1970	면적	83.66	14.63	23.86	6.12	7.27	31.78
	비율	100	17.49	28.52	7.31	8.69	37.99
1980	면적	84.26	12.81	20.10	4.86	10.80	35.69
	비율	100	15.20	23.85	5.77	12.81	42.36
1990	면적	105.57	11.42	20.07	31.88	17.53	24.67
	비율	100	10.81	19.01	30.20	16.61	23.37
2000	면적	121.13	12.02	20.64	31.76	23.12	33.58
	비율	100	9.92	17.04	26.22	19.09	27.72
2010	면적	121.01	10.01	15.88	26.98	29.83	38.30
	비율	100	8.27	13.13	22.30	24.65	31.65

3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해당 연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에서의 지목별 토지 이용은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2000년대 들어 그 패턴이 변화하였다. 시의 전체 면적이 100㎢를 넘지 않았던 1980년대까지는 답(沓)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전(田)의 비중이 높았다. 1970년에는 답의 면적이 23.86㎢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52%에 달하였고, 전의 면적은 14.63㎢(17.49%)로, 이들 두 지목이 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상회하였다. 반면 대지의 면적은 7.27㎢로 8.69%에 지나지 않았다. 1980년에는 전 · 답의 면적이 감소함과 동시에 비중 역시 전체 면적의 39%로 감소하였고, 임야의 면적 역시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4.8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지의 면적은 10.80㎢로 증가하였고, 그 비중은 1970년의 8.69%에서 12.81%로 높아졌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수원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그 과정을 거쳐 1990년에 시의 면적은 105.57㎢로 증가하였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임야의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야의 면적 증가분은 시 전체 면적의 증가분보다 많았는데, 이는 시 행정 경계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에 지목 분류상 임야가 많았기 때문이다. 1990년의 임야 면적은 1980년의 4.86㎢에서 31.88㎢로 증가하였으며,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7%에서 30.20%로 크게 높아졌다.

1990년에 수원의 면적은 1980년보다 훨씬 넓어졌지만, 도시적 색채가 약한 전 · 답의 면적은 각각 11.42㎢(10.81%)와 20.07㎢(19.01%)로 감소하여 전 · 답의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대지의 면적은 17.53㎢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중은 16.61%로 높아졌다. 1970년에는 답과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19.83%에 달하였지만, 1990년에는 그 격차가 2.46%로 축소되었으며 답의 비중이 근소하게 높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가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2000년에는 그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대지의 비율(19.09%)이 답의 비율(17.04%)보다 높아졌다.

1990년대 중반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수원의 면적은 1990년의 105.57㎢에서 121.13㎢로 확대되었다. 시의 전체 면적이 넓어지고 전 · 답의 면적도 1990년의 31.49㎢에서 32.66㎢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 · 답이 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은 2000년 들어 오히려 감소하였다. 임야의 비중도 2000년에는 26.22%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적 토지 이용의 감소와 도시적 토지 이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원의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 준다. 즉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적 토지 이용에 해당하는 대지 · 도로 · 학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농촌적 토지 이용에 해당하는 논 · 밭 · 임야의 면적과 비중은 감소한 것이다. 수원에서는 2000년대 들어 농촌적 요소에 해당하는 전 · 답 · 임야의 비중 감소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2009년까지만 해도 임야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임야와 농경지가 크게 감소하여, 2010년 들어서는 수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 2010년 기준으로 대지의 면적은 29.83㎢로 전체 면적의 24.65%를 차지하였고, 임야는 26.98㎢로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30%로 감소하였다. 이 외에 농촌적 토지 이용에 속하는 답의 면적은 15.88㎢(13.13%)로, 전의 면적은 10.01㎢(8.27%)로 각각 감소하였다.

수원시 토지 이용 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지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다. 1970년대에는 대지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1980년대에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임야가 아주 크게 증가하였고 대지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답과 임야가 크게 감소한 반면 대지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대지 면적의 증가가 가장 현저하였고 나머지 주요 지목의 면적은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5.0%에 달하였는데, 도의 동부 산악지방을 비롯하여 서울과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주요 도시(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등)에서도 임야의 비율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였다. 수원의 임야 비율(22.3%)은 부천시(16.8%), 평택시(19.4%)에 이어 도내에서 3번째로 낮은 반면, 대지의 비율(24.6%)은 도 평균(4.7%)을 크게 앞질러 부천시(31.2%) 다음으로 높다. 학교용지가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경기도의 시 ·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8%로 도내에서 부천시(16.3%), 시흥시(11.5%) 다음으로 높았다.

주요 지목별 토지 이용을 통해 볼 때, 수원시는 도시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인구가 밀집하여 농촌적 토지 이용의 성격을 나타내는 전 · 답 · 임야 등의 비율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농촌적 토지 이용의 지표 가운데 비중이 큰 전 · 답 · 임야의 면적을 합한 비중이 시 · 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평균이 78.2%를 기록하였는데, 도내에서 이들 3개의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는 32.0%를 기록한 부천시였다. 부천시에 이어 비중이 낮은 도시가 바로 46.3%를 기록한 수원시였다. 즉 도시면적 대비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부천시 다음으로 도시화 수준이 높은 도시가 수원시라 할 수 있다.

2) 법정동별 지목 구성

지목별 토지 이용에 대한 조사는 행정동 단위로 조사가 실시되는 인구자료와 달리 법정동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원의 56개 법정동

별 주요 지목의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볼 것이며,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수원의 4개 구 단위로 살펴보겠다.

〈표 4〉 2010년 수원시 법정동의 주요 지목별 토지 이용[4]

(단위 : ㎡)

구	법정동	면적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장안구	파장동	5,112,119.4	81,925.0	90,472.0	669,575.9	3,372,187.0	897,959.5
	이목동	3,510,768.9	510,713.0	265,031.0	263,380.0	1,818,566.0	653,078.9
	천천동	1,995,706.1	192,457.1	32,997.0	535,061.4	18,927.0	1,216,263.6
	율전동	1,753,080.1	104,534.0	158,111.0	583,494.0	368,118.0	538,823.1
	정자동	3,383,739.2	31,851.0	13,860.0	1,737,971.4	31,190.0	1,568,866.8
	영화동	1,274,491.4	11,161.0	5,368.0	735,486.2		522,476.2
	송죽동	1,676,727.7	49,586.0	80,622.0	520,107.5	438,174.0	588,238.2
	조원동	2,890,554.0	44,756.0	88,121.4	1,038,512.5	810,108.3	909,055.8
	연무동	947,445.9	6,367.0	22.0	501,207.7	198,397.0	241,452.2
	상광교동	5,826,481.0	392,181.0	203,570.0	37,904.0	4,892,196.0	300,630.0
	하광교동	4,805,640.0	212,864.0	280,517.0	69,633.0	3,649,139.0	593,487.0
	계	33,176,753.7	1,638,395.1	1,218,691.4	6,692,333.6	15,597,002.3	8,030,331.3
권선구	세류동	3,676,112.3	126,777.0	267,578.0	1,555,186.5	11,139.0	1,715,431.8
	장지동	2,123,621.0	7,537.0	346,831.0	11,022.0		1,758,231.0
	오목천동	3,766,099.1	459,356.0	850,537.0	499,167.2	641,561.0	1,315,477.9
	평 동	787,660.0	34,471.0	257,017.0	215,521.0	2.0	280,649.0
	고색동	4,676,820.8	492,497.0	2,168,073.0	619,639.4	99,577.0	1,297,034.4
	평리동	1,683,853.0	8,040.0	378,946.0	6,363.0		1,290,504.0
	호매실동	4,757,600.0	1,102,305.0	1,319,647.0	261,372.0	1,599,096.0	475,180.0
	금곡동	4,078,981.0	879,830.0	1,062,991.0	406,521.0	1,315,567.0	414,072.0
	구운동	1,937,498.0	133,887.0	453,061.0	659,772.5	51,468.0	639,309.5
	서둔동	3,153,585.9	330,415.0	414,810.0	1,005,310.1	354,133.0	1,048,917.8
	탑 동	2,285,920.6	379,757.0	422,085.0	607,588.4	164,796.0	711,694.2
	권선동	4,209,374.5	236,315.0	522,430.0	1,656,408.1	95,199.0	1,699,022.4
	곡반정동	1,306,726.0	127,129.0	353,342.0	341,985.1	1,422.0	482,847.9
	대황교동	1,781,283.0	57,526.0	66,564.0	19,502.0	906.0	1,636,785.0
	입북동	3,316,442.4	696,119.0	1,636,648.0	167,029.3	269,864.0	546,782.1
	당수동	3,757,384.9	999,478.0	1,081,632.0	240,739.7	1,056,747.0	378,788.2
	계	47,298,962.5	6,071,439.0	11,602,192.0	8,273,127.3	5,661,477.0	15,690,727.2
팔달구	팔달로1가	49,237.5			33,351.5		15,886.0
	팔달로2가	46,974.5			30,407.4		16,567.1
	팔달로3가	96,116.6	215.0		67,447.1	443.0	28,011.5

4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구	법정동	면적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팔달구	남창동	268,362.0	382.0		85,909.0	158,109.0	23,962.0
	영 동	40,638.4			25,531.6		15,106.8
	중 동	43,463.0			25,327.0		18,136.0
	구천동	58,686.0			36,013.0		22,673.0
	남수동	187,576.4	29,866.0		100,698.6	9,180.0	47,831.8
	매향동	274,769.0	9,097.0	389.0	107,718.0	27,216.0	130,349.0
	북수동	157,050.0	2,361.0		80,662.0	5,194.0	68,833.0
	신풍동	227,442.0	1,784.0		141,289.0	34,143.0	50,226.0
	장안동	111,962.0	1,400.0		78,583.0	7,732.0	24,247.0
	교 동	291,160.0	387.0		163,381.0	70,595.0	56,797.0
	매교동	423,469.2	2,390.0	820.0	258,593.2	156.0	161,510.0
	매산로1가	241,629.7	96.0		100,470.1		141,063.6
	매산로2가	226,478.8	531.0		187,631.9		38,315.9
	매산로3가	341,091.0	4,393.0		183,400.7	64,349.0	88,948.3
	고등동	1,014,313.0	7,031.0	2,648.0	635,439.6	93.886.0	275,308.4
	화서동	2,943,500.2	37,876.0	89,823.7	1,161,893.9	303,948.0	1,349,959.5
	지 동	793,267.3	24,342.0	6,457.0	543,696.4	12,612.0	206,159.9
	우만동	2,324,470.2	103,080.0	187,840.1	992,011.8	463,895.4	577,642.9
	인계동	2,913,039.9	205,985.0	54,481.0	1,467,276.5	84,896.0	1,100,401.4
	계	13,074,696.7	431,216.0	342,458.8	6,506,731.4	1,336,354.4	4,457,936.1
영통구	매탄동	5,138,351.0	52,919.6	15,968.2	1,890,953.1	21,894.0	3,156,616.1
	원천동	2,775,163.0	196,038.0	109,817.0	619,773.8	558,440.0	1,291,094.2
	이의동	7,806,429.0	766,234.0	1,096,828.0	330,716.0	4,378,984.0	1,233,667.0
	하 동	4,614,645.0	401,117.0	532,683.0	158,289.0	1,827,096.0	1,695,460.0
	영통동	3,938,271.5	38,367.0	62,339.0	1,588,181.8	395,200.0	1,854,183.7
	신 동	563,575.0	43,153.0	142,004.0	95,293.0	17,271.0	265,854.0
	망포동	2,621,726.0	373,259.5	761,553.3	826,628.7	37,826.0	622,458.5
	계	27,458,160.5	1,871,088.1	2,721,192.5	5,509,835.4	7,236,711.0	10,119,333.5
수원시		121,008,573.4	10,012,138.2	15,884,534.7	26,982,027.7	29,831,544.7	38,298,328.1

농경지로 이용되는 전과 답의 면적은 권선구에서 각각 6.07㎢와 11.60㎢로 가장 넓고, 시의 중앙에 자리한 팔달구에서 각각 0.43㎢와 0.34㎢로 가장 작아 구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지의 면적은 권선구에서 8.27㎢로 가장 넓고, 영통구에서 5.51㎢로 가장 좁았다. 임야는 시의 북쪽에 위치한 장안구에서의 면적이 15.60㎢로 가장 크고, 시의 중앙에 위치한 팔달구에서 1.34㎢로 가장 작다. 각 구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지목은 장안구는 임야(47.01%), 권선구는 답(24.53%), 팔달구는 대지(49.78%), 영통구는 임야(26.35%)이다. 시의 중앙에 자리한 팔달구는 대지가 구 전체 면적에서 49.78%를 차지할 만큼 대지의 비중

이 높지만 나머지 구에서는 대지의 비율이 대체로 20% 내외에 불과하였다. 시 북쪽의 광교산 자락에 연결되는 장안구와 영통구에서는 임야의 비율이 높았고, 시의 남서쪽에서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권선구는 전 · 답의 비율(37.37%)이 다른 구(팔달구 5.92%, 장안구 8.61%, 영통구 16.7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법정동별 지목 구성에 대하여, 먼저 밭으로 이용되는 지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의 면적은 시 전체적으로는 10.01㎢인데 전체 면적의 60%가량이 권선구(6.07㎢)에 분포하고, 그다음으로는 영통구(1.87㎢), 장안구(1.64㎢), 팔달구(0.43㎢)의 순이었다. 동별로는 권선구에 속하는 호매실동이 1.10㎢로 가장 넓은 밭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역시 권선구의 당수동 · 금곡동, 영통구 이의동, 권선구 입북동, 장안구 이목동 등의 순이다. 밭의 면적이 가장 적은 팔달구의 팔달로1가 · 팔달로2가 · 영동 · 중동 · 구천동에는 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시 중앙에 위치한 팔달구에 속한 동에서 밭의 면적이 대체로 좁고, 장안구와 권선구에 속한 동에서는 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다음은 논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답의 면적은 시 전체적으로는 15.88㎢인데 전체 면적의 73%가량이 권선구(11.60㎢)에 분포하고, 그다음으로는 영통구(2.72㎢), 장안구(1.22㎢), 팔달구(0.34㎢)의 순이었다. 동별로는 권선구에 속하는 고색동이 2.17㎢로 가장 넓은 논을 보유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권선구의 입북동 · 호매실동, 영통구 이의동, 권선구 당수동 · 금곡동 등의 순이다. 논의 면적이 가장 적은 팔달구에서는 전체 22개의 법정동 가운데 15개 동에 밭이 없다. 시 중앙에 위치한 팔달구에 속한 동의 논 면적이 대체로 좁은 데 비해 권선구와 장안구에 속한 동의 논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대지의 면적은 시 전체적으로는 26.98㎢이다. 권선구에 가장 많은 8.27㎢가 분포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안구(6.69㎢), 팔달구(6.51㎢), 영통구(5.51㎢)의 순이었다. 영통구의 대지 면적이 시에서 가장 작았지만, 인구규모는 가장 작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영통구에서의 토지 이용이 상당히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대단위의 고층아파트 위주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좁은 대지에도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였다. 동별로는 영통구에 속하는 매탄동이 1.89㎢로 가장 넓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장안구 정자동, 권선구 권선동, 영통구 영통동, 권선구 세류동, 팔달구의 인계동 · 화서동 등의 순이다. 한편 대지 면적이 가장 좁은 지역은 수원비행장이 자리한 권선구의 대황교동 · 장지동 · 평리동을 비롯하여 법정동의 면적이 좁은 수원시 중심부에 자리한 팔달구의 중동 · 영동 등이다.

임야의 면적은 시 전체적으로는 29.83㎢이다. 수원의 진산 역할을 하는 광교산(해발 582m)의 남사면에 자리한 장안구에 시 전체의 50%가 넘는 15.59㎢가 분포하고, 그다음으

로는 영통구(7.24㎢), 권선구(5.66㎢), 팔달구(1.34㎢)의 순이다. 수원은 동 · 서 · 북의 3면이 광교산맥에 둘러싸인 채 남쪽만이 넓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계곡에 입지한 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광교산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면서 화서산 · 숙지산 · 여기산 · 칠보산 등으로 연결되었으며, 시가지 중앙에는 조선시대에 건설된 수원화성의 진산 역할을 한 팔달산(해발 143m)이 자리한다.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고려하면 수원의 임야 분포에 대한 이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동별로는 장안구에 속하는 상광교동이 4.89㎢로 가장 넓은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영통구 이의동, 장안구의 하광교동 · 파장동, 영통구 하동, 장안구 이목동, 권선구의 호매실동 · 금곡동 · 당수동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시의 서쪽에 자리한 권선구의 3개 동은 칠보산(해발 239m)의 동사면에 있다.

6. 도시공간의 특성

수원시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인구 100만 명을 상회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그 속도는 여타의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원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수도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고밀도시인 동시에 매우 혼잡한 도시이다. 이와 같은 수원의 특징은 토지 이용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 토지 이용의 혼잡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기존 개발지의 토지 이용 역시 다른 도시에 비해 비효율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수원시 토지 이용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작용을 하였다.

수원은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에 의해 동서로 나뉜다. 경부선 철도는 1905년에 개통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원을 다른 지역과 연결시켜 주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수원의 지리적 이점을 강화시켜 주었지만, 수원 내적으로는 시가지가 양분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도로와 달리 철도교통로는 사람이나 재화가 쉽게 가로질러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시 내의 시가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현재 수원의 토지 이용은 물론 공간구조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경부선 철도의 동쪽은 오래 전부터 개발이 이루어져 토지 이용이 고도화되었지만, 서수원은 개발과 단절된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시작하였다. 또한 수원의 남서부에 입지한 군사시설인 비행장도 시가지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철도와 비행장이 도시 내에 입지함으로써 수원에서는 시가지 개발이 기존 시가지에 이어

〈그림 29〉 수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

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불연속적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는 비지적(飛地的)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곧 시가지의 무질서한 수평적 팽창과 함께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개발지 주변 지역의 난개발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수원에서는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영통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곡반정동과 망포동 일대에서 이러한 난개발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개발지역은 택지개발 또는 구획정리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 획일적인 주거단지로만 구성되고 있어, 침상도시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도시 내의 자족기능은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30〉 수원시 중앙에 자리한 화성

수원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이 도시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수원 화성은 현재 행궁동으로 구성되는 구시가지이다. 도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 내에서는 기성시가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을 실시하여 도시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원 화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성곽 주변의 보호 등 개발억제책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구시가지는 대체로 4층 이하의 중저밀 형태를 나타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화성 주변 지역(지동, 세류동, 고등동, 화서1동)에서도 대부분 4층 이하 단독주택 중심의 중저밀 형태로 개발되어 역시 효율적이지 못한 토지 이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도심의 정주인구 감소와 함께 기존에 형성된 주택지역에서는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로 슬럼화가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시가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고등동에서는 주택이 노후하고 도로기반시설 등이 낙후함에

따라 도시 중심부에서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등동에서는 도시기능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손승호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1. 지리적 위치와 도로
2. 조선시대 광역교통로
3. 조선시대 수원 화성의 도로망
4. 일제시기 교통로
5. 해방 후 도로망

제3장

수원의 도로망과 도로교통 변화

1. 지리적 위치와 도로

일반적으로 한 장소의 위치를 언급할 때에는 지구상의 경 · 위도로 표시되는 수리적 위치, 지표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배치관계를 따지는 지리적 위치,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적 위치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서 지리적 위치라 함은 절대적이거나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속성을 내포하기보다는 주변 지역과의 연결이라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이다. 즉 지리적 위치는 지표상에서의 배치 상태를 통해 보면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지만,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는 상대적 속성을 지닌다. 상대적 속성은 교통이라는 조건을 통해 변화하기 마련이다. 수원은 동쪽으로 용인시, 서쪽으로 안산시와 화성시, 남쪽으로 화성시, 북쪽으로 의왕시와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성쇠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쪽으로는 용인현(龍仁縣)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는 충청도 평택현(平澤縣) 경계까지 50리이고 같은 현 경계

까지 59리, 그리고 진위현(振威縣)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는 남양부(南陽府) 경계까지 20리, 같은 부 경계까지 113리, 북쪽으로 과천현(果川縣) 경계까지 39리, 서울까지는 88리가 된다."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수원과 주변 지역 간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수원은 내륙에 있었지만, 서해에 접한 곳에 월경지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서해안에 일부의 관할구역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수원의 중심지가 입지하였다. 즉 현재의 수원은 조선시대의 구읍이 확대 · 발전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조 대에 새로운 입지를 선택하여 건설된 일종의 신도시인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수원과 조선시대의 수원을 절대적으로 동일시하여 교통이나 도로여건 등을 파악하는 일은 그릇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수원이 태동하게 된 화성 건설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도로망과 도로교통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수원은 지리적으로 조선시대의 도읍이었던 한양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도인 서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또한 수원은 경기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수원은 입지적 장점과 다양한 육상 교통로를 통해 서울과의 기능적 연계가 강력해짐으로써, 서울대도시권에서 도시 간 연담에 의한 코너베이션(conurbation)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왕조는 왜란이나 호란과 같은 외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양 주위에 소위 한성 4진을 설치하고 각각 유수부(留守府)를 설치하였다. 유수부는 동쪽의 광주, 서쪽의 강화, 남쪽의 수원, 북쪽의 개경 등이었다. 이 가운데 남한산성에 위치한 광주부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모두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였으며, 한양과 연결되는 직통 도로가 발달하였다.

수원은 한양으로부터 80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도시 주변의 교지역(郊地域)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한양의 원교(遠郊)에 해당하였다. 즉 수원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도읍지의 영향권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수도권 범위가 확실하게 획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현재의 인천–수원–양평–포천–금촌–통진 일대를 연결하는 선의 외곽지대까지를 포함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1] 분명 수원은 수도 서울의 배후지로서 기능해 왔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경기 남부 지방과 서울

1 최영준,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1997, 271쪽.

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이는 근래에 건설된 수원 주변의 고속교통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 지역이 일찍부터 한양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수원과 한양이 단순히 가까운 곳에 입지했기 때문은 아니다. 국토 전체에 걸쳐 형성된 국가적 수준의 도로망 또는 경기도 내에 형성되었던 광역교통로 덕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시켜 주던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노선이 모두 6개 있었는데, 이는 18세기 후반까지 큰 변동 없이 6대로(六大路)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세기 후반에 10대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0대로는 기존 6대로에서 분기하여 형성된 것으로, 초기에 형성된 6대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다. 이들 모든 도로는 한양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양에서 남부 지방의 제주에 이르는 노선인 제주로(濟州路)가 수원을 통과하였다. 제주로는 한강변의 동작진에서 시작하여 과천 · 수원을 거쳐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 천안 · 공주 · 해남 등지를 경유하여 제주도까지 연결되었다.[2] 제주로에 위치하였던 수원은 한양과의 거리도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접근도가 양호하였고, 서쪽으로는 서해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웠다. 동쪽으로는 조선시대의 제4로에 해당하는 동래로(東萊路)의 주요 길목인 용인에 인접하였으며, 남한강 주변에 자리한 여주 등의 평야지대와도 가까운 거리였다. 한편 수원은 남쪽으로 평택 · 천안 등지로 연결됨으로써, 일찍부터 중부 지방에서 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수원의 지리적 위치는 일제시기에 들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 위치적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1905년에 개통된 경부철도는 서울과 남부 지방 간의 연결관계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경부철도는 수원 시가지가 자리하고 있던 화성을 관통하지 않고 팔달산 서쪽 사면에 형성된 평야지대를 종관하였으며, 수원역도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에서 직선거리로 연결되었다. 또한 일제시기의 육상교통로는 화성을 관통하거나 주변 지역을 경유하도록 건설됨으로써 수원 지역의 접근도는 더욱 향상되었고 서울을 비롯한 인근 지역과의 상호작용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63년 12월 서울에 자리하고 있던 경기도청을 다시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6월 경기도청 신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도시로서 행정 · 경제 · 정치 · 교육 ·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76년에는 경수산업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

2 제주로(濟州路)는 바닷길 970리를 포함하여 총연장 2,016리에 달하였다.

과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물동량의 흐름도 원활해졌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1976년부터 수원역까지 운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수원 남쪽의 화성시를 지나 충청남도 아산시까지 연장 운행함에 따라 수원의 교통여건은 급진전되었다. 조선시대에 도읍지의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수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였고, 근래에는 수도권을 형성하는 중핵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로의 발달에 힘입어 서울대도시권에 자리한 도시들과 함께 시가지가 띠 모양으로 연결된 도시회랑(urban corridor)을 형성하고 있다.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 및 이를 통한 도시의 성장은 교통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공간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통은 경제적 관점에서 장소 · 거리를 극복하여 생산이나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생산력의 증대를 비롯하여 시장의 형성이나 배후지 확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교통 발달은 수송의 신속화와 대량화를 촉진하였으며, 운송비를 절감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보다 합리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심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수원은 경부철도(1905년 개통), 수여선 철도(1931년 전 구간 개통), 수인선 철도(1937년 개통) 등의 개통에 힘입어 일제시기부터 교통의 요지로 기능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경수산업도로, 경인산업도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의 교통로가 시 경계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최대 교통의 요지로 기능하고 있다.

2. 조선시대 광역교통로

1) 조선 초기 교통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통로가 발달하였으나.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교통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사』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역도(驛道)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라를 계승한 고려는 역제를 실시하는 한편, 개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국에 525개의 역과 22개의 역도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경기 지방의 일부라도 관할하는 역도는 8개가 있었으며, 그중 수원에서 충청도의 서북부로 연결되던 충청주도(忠淸州道)가 수원을 통과하였다.[3] 충청주도의 역 가운데 수원에 자리하였던 역은 장족역(長足驛)이 유명하며, 이 역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유지되었다. 장족역은 현재의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이 마을에 역이 있었기 때문에 역 근처의 마을은 '역말' 또는 '역촌'이라 불렸으며, '장족역말'이라고도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도 제작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측량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교통로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신경준이 제작한 『도로고(道路考)』(1770년)를 비롯하여 다양한 고지도에서 조선시대의 교통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거리는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 등에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지방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를 남북 방향으로 건설하였다. 동서 방향의 도로는 백두대간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교통로 건설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반면, 남북 방향의 도로는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한 한강 하류 지역 및 도읍을 가장 최단거리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방사상의 형태로 건설되었다.

조선시대의 역제는 고려시대와 유사하게 역도를 두어 각 소속 역을 관할하였으며, 각 역도의 중심 역을 '찰방역'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기도에 5개의 역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현재의 수원 지역을 지나던 역도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충청북도 음성까지 이어지던 양재도(良才道)이다. 양재도의 찰방역은 과천현에 소속되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영남대로 구간 중 경기도를 관할하였다. 양재도에는 12개의 역이 있었는데, 그중 수원에 자리하였던 역은 장족역(長足驛), 동화역(同化驛), 청호역(菁好驛) 등이다. 이들 역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해 오던 것들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방사상으로 연결하는 X자형의 4대로에서 시작하여 6대로, 그리고 6대로에서 분기한 지선들이 주요 간선도로를 형성함에 따라 조선 후기 들어서는 10대로의 전국 교통로가 건설되었다. 조선시대의 6대로는 18세기 후반까지 유지되다가 19세기 후반에 10대로로 확대되었다. 6대로는 모두 서울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한양-의주 간 제1로(의주로)부터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도로에 번호가 부여되었다. 제2로는 한양에서 함경도로 이어지는 경흥로(鏡興路), 제3로는 한양에서 강원도 동해안의 평해까지 이어지는 평해로(平海路), 제4로는 한양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래로(東萊路), 제5로는 한양에서 전라남도 해남을 지나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제주로(濟州路), 제6로는 한양에서 강화도로 연결되는 강화로(江華路)였다. 이 가운데 수원을 지나는 도로

3 최영준 · 김종혁, 「경기지역의 교통로와 교통의 발달」,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56쪽.

는 제5로(제주로)였다.

제5로는 한양에서 해남을 거쳐 제주도까지 연결되던 도로로서, 과천 · 수원 · 진위 · 평택 등을 경유하였다. 주요 역에는 양재도 관할로 수원에 자리하였던 영화 · 장족 · 동화 · 청호 등을 비롯하여 양성군(현 안성시)에 속하였던 가천역이 있었다. 남쪽으로는 진위(평택)를 거쳐 평택의 소사점(素沙店)으로 이어졌다. 경기 남부에서 이 도로는 현재의 국도 1호선과 대체로 노선이 일치하며, 북으로는 과천-군포를 연결하는 국도 47호선과 서울의 동작대로로 연결된다. 제주로는 양재도가 관할하였지만, 정조 때 수원 화성의 장안문 북쪽에 영화역을 설치하면서 영화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영화역은 현재 영화동으로 그 이름이 남아 있다. 제주로 가운데 평택의 진위에서부터 충청남도의 경계에 이르는 구간은 일제시기 이후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등의 영향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제주로 가운데 수원에 속한 구간은 도시화의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6대로 가운데 가장 빠른 변화를 경험하였다.

2) 조선 후기 교통로

1776년 이전에 제작된 『팔도지도』(古軸 4709-48)에는 각 군현을 연결하는 도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다〈그림 1〉. 이 지도에서는 경기도의 군현을 노란색의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는데, 지도의 중앙에 수원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제5로인 제주로는 한강 이남의 동작을 지나 과천을 거쳐 진위와 성환으로 연결되었으며, 수원 읍치의 북쪽에서 제5로로부터 분기한 듯한 도로가 수원을 관통하여 남쪽의 청호역에 연결되었다. 수원의 서쪽으로는 수원의 구읍치가 속하였던 남양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해 있다. 그러나 수원 동쪽의 용인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수원 읍치에서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고, 남쪽의 청호역에서 동북쪽으로 분기한 도로가 용인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1789~1795년)에 제작된 『여지도』에 기록된 한강 이남 지방의 광역교통로는 『팔도지도』와 다소 상이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지도』에서는 각 군현을 취락의 계층관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색의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적색의 원 안에 군현의 품계를 나타내는 '牧 · 府 · 守 · 令 ……' 등의 한자가 표기되었다. 군현의 이름은 그 주변에 표기하였고, 역참은 적색의 원으로만 표기하였다.

『여지도』에서는 과천에서 이어지는 제주로의 본선에 수원을 위치시킨 것이 『팔도지도』와의 차이점에 해당한다. 광교산 남쪽에 역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곳이 장족역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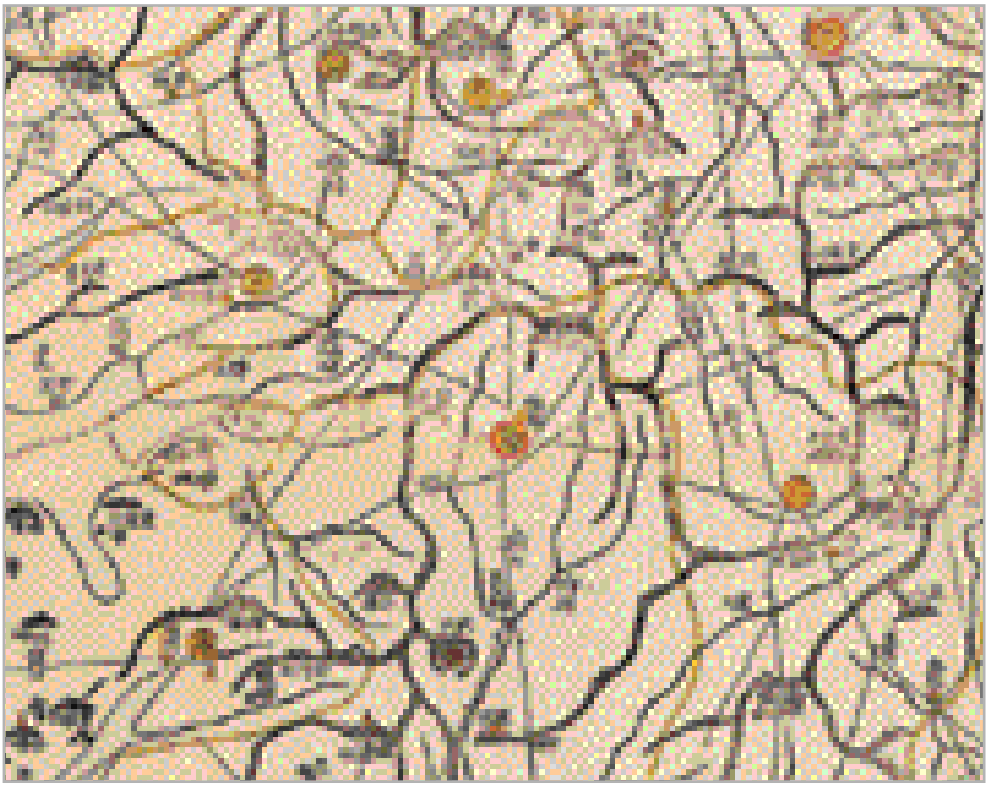
〈그림 1〉『팔도지도』에 나타난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로

〈그림 2〉『여지도』에 나타난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로

〈그림 3〉『동여도』에 나타난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로

당한다. 이 지도가 작성된 시기는 수원이 유수부의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이므로, 과천에서 연결된 도로가 수원을 가로질러 남쪽의 진위로 연결되도록 표시되어 있고, 광교산 남쪽 기슭의 장족역은 제주로에서 분기한 형태로 표기되었다. 수원 서쪽으로는 남양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형성되었고, 제4로인 동래로(영남로)가 지나는 용인 방향으로는 수원과의 연결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수원의 남쪽으로 연결된 도로는 진위에서 분기하여 동쪽으로는 안성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 뻗은 도로는 소사를 지나 평택으로 연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기술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진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도에 수록된 각종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정보는 물론, 교통로도 이전에 비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1857년에 제작된 것으로 〈그림 3〉에 제시된 『동여도』는 도로에 10리마다 방점을 찍어 군현 간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으며,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의 저본



〈그림 4〉『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수원과 그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로

으로 간주되는 지도이다. 『동여도』에서 주요 도로는 붉은 선으로 표시되었으며, 각 군현 간의 경계는 노란색 선으로 구분되었다.

『동여도』에서는 수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수가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전에는 수원을 통과하는 도로가 네 방향으로 퍼져 나갔으나, 『동여도』에서는 6개 방면으로 증가하였다. 남쪽으로 뻗은 도로는 진위로 연결되고 남서쪽으로 뻗은 도로는 남양으로 통하였다. 진위에서 수원을 통과한 도로는 북쪽의 과천을 거쳐 한양으로 연결되었다. 동쪽으로는 3개의 도로가 뻗어 나갔는데, 동남쪽의 용인과 동북쪽으로는 남한산성에 읍치가 있던 광주, 그 중간으로는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 주변에 자리한 경안으로 각각 도로가 연결되었다.

이들 교통로를 따라 가면 북으로는 과천을 경유하여 한양으로 연결되었고, 서쪽으로는 안산을 거쳐 인천으로 또는 과천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분기하여 시흥에 도착하였다. 남쪽으로는 남양을 비롯하여 진위 · 양성 · 평택 등지에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용인을

〈그림 5〉 한말 수원의 도로망(1890년)

지나 양지 · 이천 또는 양근(현 양평), 동북쪽의 광주 등지로 연결되었다. 이 지도에서는 역도에 설치된 노란색이 칠해진 붉은색의 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당시의 역이다. 수원 북부에서는 제주로에 위치하였던 영화역을 확인할 수 있다.

1861년에 초판이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동여도』와 거의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 두 지도의 차이점이라면 『대동여지도』에서는 도로가 검정색으로 표시되었다는 점과 군현의 경계가 붉은색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그림 4〉. 그리고 지명 표기가 간소화되어 『동여도』에 비해 수록된 지명이 많지 않은 특징이 있다. 수원 주변에서의 차이점은 서쪽의 안산으로 분기하는 지점이 『동여도』에 비해 약간 남쪽에 그려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5〉에 제시된 것은 1880년대 중반에 일본 간첩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구한말한반도지형도』이다.[4] 팔달산 동쪽의 화성을 중심으로 수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시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이 도로에서 분기하여 시가지를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눈에 띈다. 성곽 북쪽의 장안문을 지나서는 영화역과 정자

4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 조선말~일제시기』, 법문사, 2011, 25쪽.

동을 지나 과천으로 향하는 도로가 발달해 있으며, 정자동에서 서쪽으로 분기한 소로가 있다. 성곽 남쪽의 팔달문을 지나서는 도로가 동쪽과 남서쪽으로 연결되었는데, 남서 방향의 도로는 수원과 남양을 연결시켜 주었으며, 동쪽 방향의 도로는 원천동을 지나 용인에 연결되었다. 성곽 동쪽의 창룡문과 북쪽의 장안문에서 성곽 밖으로 이어진 도로는 현재의 연무동 일대에서 합류하여 동쪽의 광주로 향하는 도로였다.

3. 조선시대 수원 화성의 도로망

1) 성곽 내의 국지적 도로망

우리나라의 도시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읍을 정할 당시부터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이 적용되었다. 중세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도시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 도시계획은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이다. 『주례고공기』는 도읍지인 한양은 물론 주요 읍취락에도 차용되었던 만큼, 18세기 말에 건설된 수원 화성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을 건설하기 이전에 이미 화성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돌로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인 수레의 통로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성곽 건설 이전에 수레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도로는 화성을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로와도 관련이 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 "장차 수레가 다니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 돌산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성이 있는 곳까지 길을 닦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성을 다하여 길을 닦는데, 숫돌면 같이 판판하고 화살같이 쭉 곧게 내어야 소가 수레를 몰고 끄는 데에 꺾이고 부러짐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이다."라는 기록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일단 남문(팔달문)과 관아를 중심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십자로(十字路)와 북문(장안문)을 일직선이 되게 도로의 선을 계획하였다. 이후 성곽과 문루 공사를 위해 우마차를 통행시키다 보니 보다 폭이 넓은 간선도로를 새롭게 건설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성 내의 도로망이 다소 상이한 모습으로 건설되었다. 동문(창룡문)과 서문(화서문)의 위치는 간선도로망의 계획이 수립된 후에 확정되었다.

조선시대 도로는 크게 도성도로(都城道路)와 외방도로(外方道路)로 나뉘었고, 도성도

로는 다시 대로 · 중로 · 소로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5] 그러나 한양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한양에서와 같은 대로를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폭은 한양의 중로에 해당하는 16척이 기준이었고 가로망도 훨씬 단순하였다.[6] 화성의 도로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지형적 여건, 주민 편의, 성문 배치, 성곽 내부의 하천과 수문, 성곽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운반 등이었다.

화성에는 화성행궁이 중앙부에 자리하며, 화성 건설 초기의 도로망은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골격이 갖추어졌다. 화성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대로와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대로가 화성 중앙부의 '십자로[十字街]'라 불리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十자형 도로망이 초기에 완성되었다. 이 교차점이 현재의 종로사거리이다.[7] 간선도로망에는 남문에서 십자가를 거쳐 북문으로 빠지는 도로와 십자가에서 직교하여 수원천을 횡단하여 동문으로 뻗어 용인 · 광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되었다. 여기에 성의 북쪽에 또 하나의 네거리를 두어 서쪽으로는 화서문으로 연결되고 동북쪽으로는 북수문인 화홍문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도로형태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도로망이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계획되었기 때문이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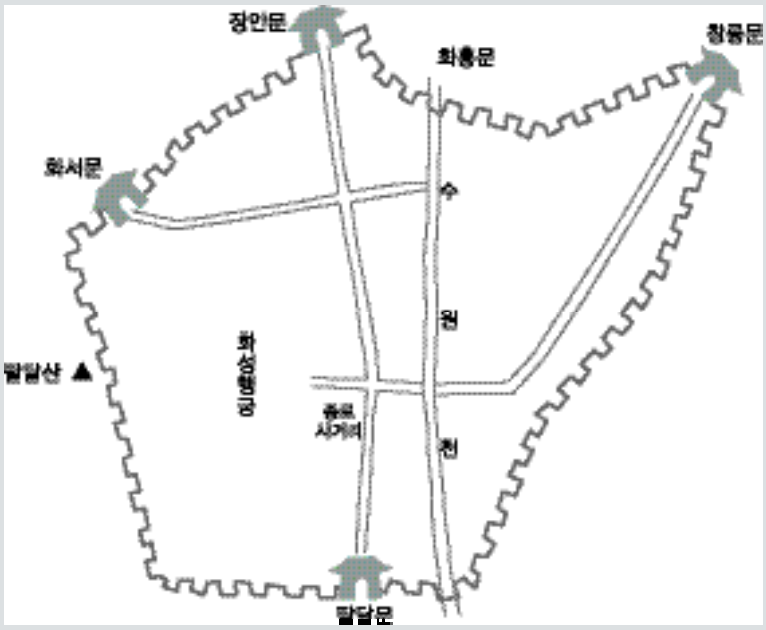
팔달산 동사면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성문이나 도로망이 배치되긴 하였지만, 동문과 서문을 정방향에 위치시키지 않은 것은 성곽 건설에 필요한 건축재의 운반 때문이었다. 동문을 통해서는 남한산성으로 연결되었고 성역공사에 필요한 기와와 벽돌을 광주로부터 운반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서문을 통해서는 팔달산 서쪽에 위치한 숙지산과 여기산(如岐山 : 麗妓山)의 채석장에서 돌을 운반하기가 편리하였다.

동서 방향의 도로는 화성행궁의 정면에 건설된 것으로, 수원천을 횡단하여 동문(창룡문)까지 연결되었다.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남리(南里)로 북쪽은 북리(北里)로 구분되었고, 이후 도성의 예에 따라 각기 남부(南部)와 북부(北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남북 방향의 도로는 남문(팔달문)에서 시작하여 수원천과 거의 평행하게 건설되었으며, 북문(장안문)으로 연결되었다. 동서 방향 도로의 서쪽 끝이 화성행궁이었기 때문에, 서문(화서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남북 방향의 대로로부터 지선 형태로 건설되었다. 즉 화성의 도로망은 남북의 두 문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로에 동서 방향으로 두

5 대로는 56척,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의 노폭으로 규정되었으며, 도로 양편으로는 2척의 도랑을 두도록 하였다. 1척은 31.21㎝이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 환산해 보면 대로는 17m 48㎝, 중로는 5m, 소로는 3m 43㎝, 그리고 도랑은 62.4㎝가 된다.

6 김선범, 「성곽의 도시원형적 해석 : 조선시대 읍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권 제2호, 1999, 21쪽.

7 종로는 화성 축성 후 한양의 종루(鐘樓)와 같이 번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원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종로'라 불리게 되었다.



〈그림 6〉 수원 화성 내의 간선도로망

개의 중로를 약간의 간격을 두고 교차시킴으로써 하천과 산사면의 지형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도로가 수행하는 기능 면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형태이다.

성곽 축조 당시의 정확한 도로 폭을 알기는 어렵지만, 1910년에 일본인이 작성한 지적도에 따르면 남북대로의 폭은 32척(약 10m)에 달하였고, 화성행궁에서 종로사거리까지의 도로 폭은 약 50척(15m 60㎝)이었다. 즉 화성에서는 남북대로보다 행궁에서 정면으로 뻗은 동서 방향의 도로가 더 넓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외에 주택가의 소로는 아주 작고 구불구불하여 한양의 주택가 도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였다.

이처럼 화성 내의 간선도로망은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그것과 약간 다르게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동서남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직교도로가 매우 드물었다. 화성 내부에서의 도로망은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도로를 제외한 소로에서는 전혀 계획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종로사거리에서 동서남북으로 뻗은 대로를 기준으로 화성의 동서남북 구역이 결정되었고, 이들 대로로부터 소로가 발달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조선시대 대부분의 읍성취락에서 나타나는 도로망과 확연히 구별되

는 것이며, 이는 주민의 편의와 축성의 편의를 위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화성의 도로에서 십자가라는 교차점이 중심부가 되는 것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중세도시적 발상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사통팔달의 이념이 담긴 것으로,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완벽하게 관통하지는 않지만 교차하는 십자가를 둠으로써 그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사통팔달 정신은 성곽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문이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건설된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지방의 읍성이 대개 동문 · 서문 · 남문의 세 방향으로 문을 둔 데에 비하여, 화성에서는 네 방향으로 문을 설치하여 사통팔달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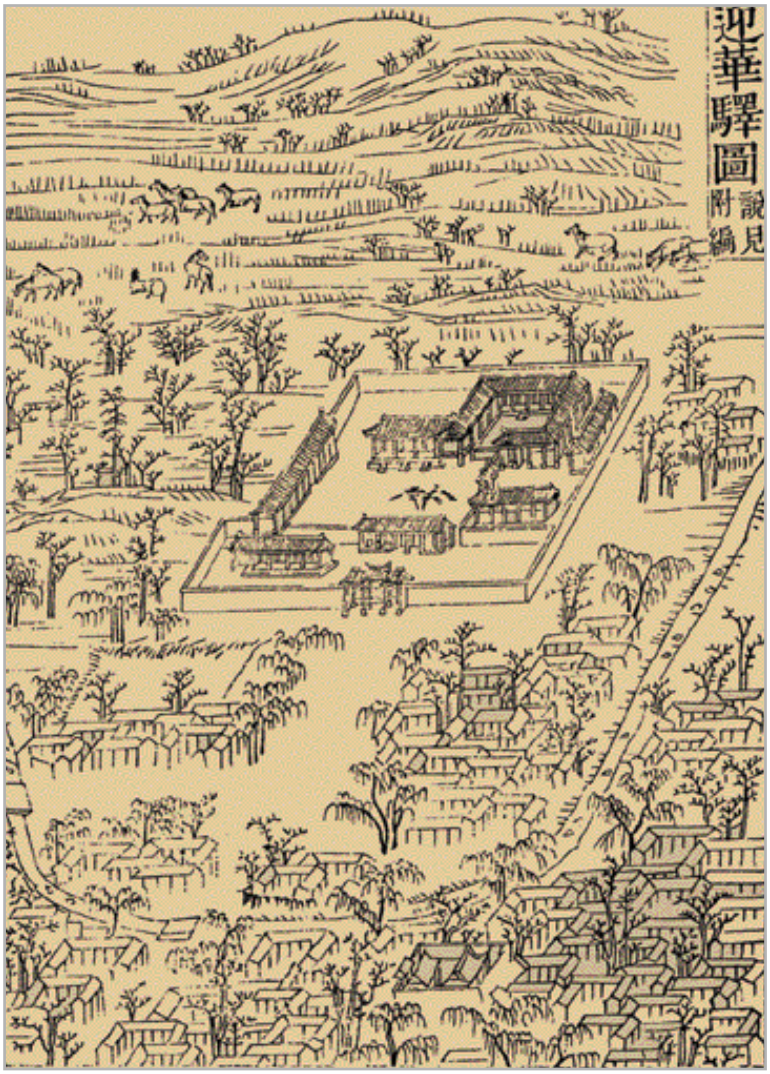
2) 성곽 외부의 광역도로망

화성이 조선시대 최초의 신도시 형태로 건설되었고 신도시 건설을 지시한 정조의 행차가 잦았음은, 화성이 한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유수부로 승격한 수원은 행정 서열상 수도인 한양에 버금가는 준수도(準首都)의 위상을 지녔으며, 주변의 여러 지역을 거느리는 중심지로 성장함으로써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발달하였다. 북문인 장안문을 통과하면 40여 리 떨어진 과천을 거쳐 한양으로 연결되었으며, 동문인 창룡문을 통해서는 동쪽의 용인 · 광주 등지로 연결되었다. 남쪽의 팔달문을 통해서는 진위 · 평택 등지로 연결되었으며, 서쪽의 화서문을 통해서는 남양 · 안산 · 시흥 등지로 연결될 정도로 화성은 당시 한강 이남 지방에서 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화성 북문인 장안문에서 한양 도읍까지의 거리는 대략 80리였다.

경기 지역에서 수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수원과 경계를 맞대고 거리로는 40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용인 · 안산 · 진위 · 시흥 · 과천 등지를 수원의 속읍(屬邑)으로 지정하여 화성을 방어하도록 하였으며,[8] 이들 속읍으로부터는 일정액의 공납을 거두어들였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함께 1796년(정조 20)에 한강 이남에 자리한 경기 지방 전체의 역을 관할하던 양재역을 화성에 인접한 남쪽으로 이전하여 영화역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도 교통에서 수원의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영화역은 장안문의 북쪽 1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수원에서 과천을 경유하여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였다.

정조는 수원 시가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의 거상과 부유층을 화성 내부로

8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2월 17일.



〈그림 7〉 「영화역도」(『화성성역의궤』)

이주시켜 시장을 건설하고 장시를 둠으로써, 수원이 교통과 상품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수원 번영책의 일환으로 수원 주변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설시장이 건설되었으며, 관아에서 운영하는 장시가 정기시장의 형태로 설치되어 개장되었다. 정기시장은 농산물 · 축산물을 위시하여 직물 · 해산물 등을 거래하는 큰 장터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이 가운데 팔달문의 동쪽에 형성된 영동시장은 문밖시장 또는 성외시장(城外市場) 등으로 불리며, 4일과 9일에 장이 섰다. 영동시장은

오래 전부터 수원의 대표적인 장으로, 20~30리 밖에서도 이용할 정도로 배후지의 범위도 넓게 분포하였다.[9]

4. 일제시기 교통로

1) 도로교통의 변화

한말에 김옥균(金玉均)이 치도론(治道論)을 주장하고 실질적인 치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통 부문에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옥균의 치도론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이미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찰방제가 폐지되었고 도로에 관한 규정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국토의 전반적인 도로 골격은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라 할 수 있는 10대로 체계가 거의 유지되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수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906년에는 통감부 산하에 치도국(治道局)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우리나라 내륙 지방의 풍부한 농산물과 임산자원 등을 본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내륙과 항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와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의 지방도를 개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간선 철도교통로가 개설되었으며, 도로교통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작로(新作路)가 건설되었다.

일제가 계획한 제2기 도로개수계획사업이 1908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수원에서는 당시에 제2급 도로였던 수원-강릉 간의 일부 구간인 수원-이천 간의 50㎞ 구간에 대한 개수작업이 실시되었다. 총독부는 1911년 4월에 「도로규칙」을 공포하고 기존의 도로개수계획을 변경하여, 전국의 도로를 1등 도로(4칸, 약 7.3m), 2등 도로(2칸, 약 5.5m), 3등 도로(2칸, 약 3.6m)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는 등외도로로 지정하였다. 이 가운데 1등 도로와 2등 도로의 개수는 국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국도이다.[10] 가장 먼저 1등 도로로 격상된 서울-목포 간 도로가 개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도로는 안양-수원-오산-서정리-평택-천안으로 이어지면서 경부철도와 병행하였

9 손승호, 「수원 화성의 도로망 형성과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6, 79쪽.
10 대한토목학회, 『한국토목사, 도로 및 공항』, 1997, 398~400쪽.

다. 이 사업을 통해 팔달문에서 장안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개수공사가 진행되면서 노폭이 확장되었다. 또한 1938년에 들어서 도로의 구분 방식이 기존의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 도로에서 국도(國道) · 지방도(地方道) · 부도(府道) · 읍면도(邑面道)의 4종으로 변화하면서, 수원 화성을 관통하는 도로는 국도가 되었다.[11]

〈그림 8〉 수원-이천 간 1등 도로(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 초기인 1910~1920년대에 수원 시가지의 대부분은 화성 내부에 입지하였으며, 일부가 팔달문 남쪽에 연접하여 형성되어 있었다〈그림 9〉. 그리고 1905년에 개통한 경부철도의 수원역이 화성 시가지로부터 이탈하여 팔달산 서쪽에 건설됨에 따라 수원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시가지가 형성된 수준이었다.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시설의 입지는 시가지나 취락을 분리시켜 발전시키기도 한다. 경부철도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천안에서 올라오는 육로가 화성 남쪽의 팔달문을 통과하여 팔달로(현 정조로)를 따라 화성 북쪽의 장안문을 통과한 후 영화리를 거쳐 서울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수원 남쪽에 자리한 경기 남부 지역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 전라도와 서울 간의 통행은 화성 시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새롭게 건설되는 교통로가 기존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게 되면, 기성 시가지는 일반적으로 쇠퇴하기 마련이다. 특히 철도역에 역사(驛舍)가 세워지면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기성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공존하는 이중도시가 창출되었다. 일제시기에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신시가지가 조성된 철도역 주변에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였음을 감안하면, 수원에서도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시가지의 성장을 짐작할 수 있다. 경부철도가 개통된 후, 전통적으로 수운교통의 중심지였던 공주나 충주 등지는 중심성이 약화되어 쇠퇴한 반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논산 · 조치원 · 대전 등지가 성장한 것도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집중하는 장소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수원에서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가 일제 말기까지도 번화하게 성장하지 못

1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사』, 보진재, 1981.

〈그림 9〉 일제 초기 수원 지역 도로망(1917년)

하였으며,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 시가지를 비롯하여 팔달문에서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서 시가지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다. 동시에 화성을 통과하는 육상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화성 내부 도로망의 확장공사와 도로 신설사업이 진행되었다. 경부철도와 수원역이 팔달문에서 이격된 장소에 건설됨에 따라, 팔달문은 수원 주민의 중요한 생활터전일 뿐만 아니라 수원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중요한 길목으로 성장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그림 9〉는 1917년에 일제가 제작한 축척 1:10,000의 지형도로,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수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일제시기에 화성 내부에는 남북대로와 동서대로 이외에, 시가지와 주택가 곳곳을 연결하는 소로가 매우 발달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성내시장(城內市場)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성내시장은 정조가 화

성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수원천변에 개설한 것으로, 수원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활기를 띠었다. 특히 이곳의 우시장(牛市場)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종로사거리의 북쪽으로는 시장을 연결하는 도로인 팔부자거리가 만들어졌으며, 이 도로는 장안사거리 북쪽에서 팔달로와 연결되었다. 화성 축성 당시에 전국의 부호들을 끌어들여 화성에서 상업 발달을 도모한 팔부자거리는 화성 내부의 여타 소로에 비해 폭이 넓은 특징이 있다.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부호들의 주거지 인접 지역이 성내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수원 읍내 1등 도로(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화성 내부의 시가지는 일제시기에 현재의 모습을 거의 갖추었다. 팔달로를 비롯한 일부 도로가 반듯한 직선대로로 개수되었으며, 일부 도로는 통과 구간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팔부자거리는 노폭이 축소되었다. 도로 직선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장안길이다. 1910년대의 장안길은 장안사거리에서 서북쪽으로 굽어진 후 다시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화서문으로 연결되었고, 팔달로(현 정조로) 동쪽으로 분기한 도로 역시 수원천에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3년의 도로망이나 현재의 도로망을 보면 장안길은 장안사거리에서 팔달로에 거의 수직으로 직교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화서문으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직선화하여 화서문 인근에서 서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연결되었다. 장안길은 장안사거리에서 수원천에 직선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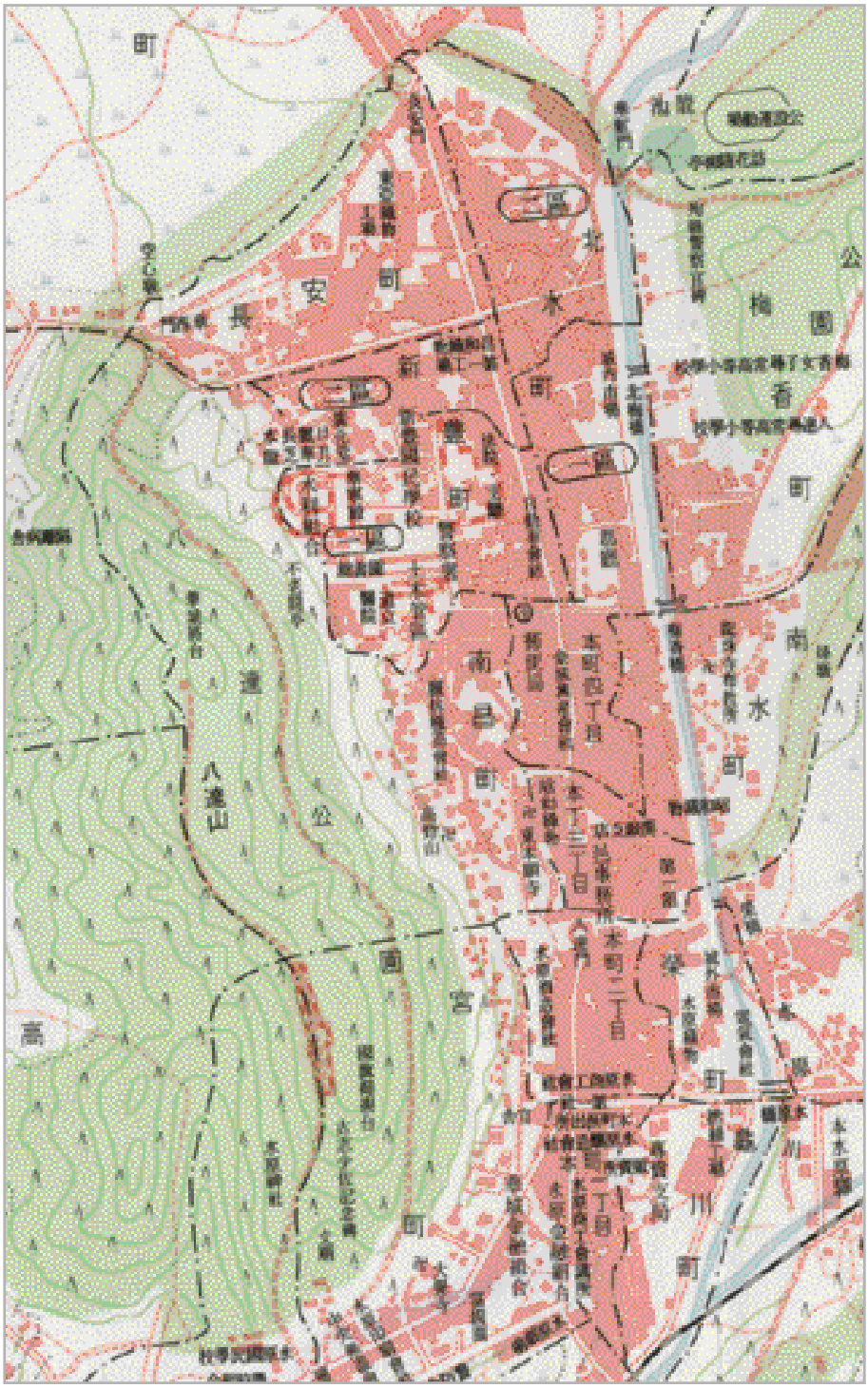
도로가 통과하는 구간이 변경된 것은 종로사거리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창룡문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만 해도 창룡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종로사거리에서 수원천을 지나 남수길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동북으로 방향을 틀어 삼일여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산사면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일제 말기 또는 현재의 도로는 남수길에서 동쪽으로 더 진행하여 남수3길과 만나는 지점에서 동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창룡문에 직선대로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도로는 19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어 오던 도로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구간 변경을 실시한 것이다.

〈그림 11〉 1930년대 화성 안 도로(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이 남부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내륙 지방과 서해안을 오가는 주요 교차점에 입지하고 있음에 따라, 일제시기에 화성 내부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30년대에 도심지 가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팔달문에서 장안문을 연결하는 도로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굴곡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직선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통과교통량의 증가 때문만은 아니었다. 수원의 인구가 증가하고 우마차를 비롯한 자동차의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좁은 도로로는 수원의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로변에 입지하고 있던 시설물을 비롯하여 가로수가 상당수 사라지게 되었다.

일제는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을 제정 · 시행하였다. 이 계획령은 식민착취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를 전국의 도시에 구축하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다.[12] 그러나 수원에서는 이 계획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1944년에 수원시가지계획이 다시 수립되었다. 수원시가지계획에는 가로 · 구획정리지구 · 녹지지구 · 풍치지구 · 공원 등이 결정되어

12 한근배, 『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1997, 5쪽.



〈그림 12〉 1943년 수원읍 내부의 도로망

있었으며, 향후 수원의 인구 증가에 대한 예측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비롯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도로는 광로 1개 노선과 대로 2개 노선, 중로 51개 노선을 결정하였으며, 도로의 주요 교차점에 7개소의 광장을 계획하였다.

1940년대 수원의 도로망은 서울에서 목포로 연결되는 국도가 시가지의 중앙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였으며, 인천에서 수원을 경유하여 광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시가지를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였다. 그리고 남양에서 수원역을 지나 용인과 이천을 경유하여 강릉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화성의 남문 외곽에서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수원시가지 계획에 의거하여 새롭게 건설된 도로 역시 이와 같은 큰 골격을 유지하였으며, 시가지 내의 여러 장소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로의 노선과 폭이 결정되었다.

2) 수여선과 수인선의 등장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에 개통한 제물포(인천)-노량진(서울) 간의 경인선이 최초의 철도이다. 철도는 근대국가를 형성할 때 정치 · 경제 · 군사기능의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인 동시에 도시 발전의 혈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 지배를 당한 국가에서는 각종 자원수탈을 위한 교통로가 개설되고 식민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내륙과 항구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철도가 우선적으로 건설되었다. 일제시기에 실시된 한반도에서의 철도 부설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고 지역 격차를 더욱 고착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공간구조를 왜곡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일제는 경부철도가 수원을 통과하도록 한 후 동서 방향의 교차점 역할을 강화시키기고 내륙의 미곡을 항구로 수송하기 위하여,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여주 간의 수여선(水麗線)과 수원-인천 간의 수인선(水仁線) 철도를 개통하였다. 수여선과 수인선은 명칭이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륙의 여주에서 항구도시인 인천까지 이어지는 단일 노선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수여선은 1930년 12월에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남한강변 여주 일대의 미곡을 교통요지인 수원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수여선은 1931년부터 수원역-여주역의 73.4㎞ 구간을 운행하였는데, 수원역 남쪽의 경부선과의 교차점에서 수원천의 서안을 따라 팔달문의 남쪽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현재의 국도 42호선과 노선을 거의 같이하였다. 이후 원천천을 건너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용인군 신갈로 향하였다. 수원

에서는 수원역을 비롯하여 화성(본수원)역과 원천역을 통과하였다.

수인선은 1937년 8월에 경기 내륙의 철도교통 요지인 동시에 주변 농촌배후지로부터 수집된 농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하던 수원을 항구도시인 인천에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수인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시기에는 수원이 인천보다 큰 도시였다. 수인선은 수원역-남인천역의 52.8㎞ 구간을 운행하였으며, 인천의 송도역 · 소래역 · 군자역 등을 지나 안산을 통과한 후 수원으로 이어졌다. 수원에서는 수원역을 비롯하여 고색역 · 어천역 · 야목역 · 빈정역 · 일리역 등을 통과하였다.

일제시기에 수인선 철도가 경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부설된 이유는 일본이 한국에서의 철도 부설을 앞당기고 수송시설을 확장 · 정비함으로써 수송력을 증강시키고 자동차 및 소규모 운송업을 통제하여 철도교통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정책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즉 수인선 철도가 건설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철도라는 것은 산업경제 · 국방 · 문화개발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원과 인천 간에 철도를 부설하면 인천이나 경부선 연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영등포나 용산을 경유하지 않고 수원이나 인천으로 직접 운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수인선 철도 건설은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부 지방까지 개발함으로써 인천의 상권을 더욱 광역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당시에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선총독부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열차는 일제시기에 수탈의 열차로 불렸다. 경기 동부의 여주와 이천 등지에서 생산된 미곡과 서해안의 군자염전 · 소래염전 · 남동염전 등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빼돌리는 데 사용된 철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시기에 수인선은 수여선과 더불어 내륙의 미곡을 인천까지 수송하는 미곡 수송철도인 동시에, 인천 해안에서 생산된 소금을 내륙으로 수송하는 소금 수송철도로 기능하였다.

〈그림 13〉 오목천동 국립축산과학원 입구의 수인선 철로(수원박물관 소장)

수여선과 수인선의 운행은 남한

강 일대의 수운교통 기능을 약화시켰다. 수원 지역에서는 도로교통의 여객과 화물수송량이 감소하면서 수여선과 수인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여객 · 화물수송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또한 일본 및 만주행 선박과 연계수송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남부의 교통네트워크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 철도교통로는 한국전쟁 이후 시외버스를 비롯한 도로교통의 급성장으로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철도와 도로의 경쟁구간에서는 철도가 약간 우세하였지만 수여선과 수인선 구간에서는 국도가 확대되고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철도와 도로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자가용 승용차가 급증하면서 철도로서의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여 수여선은 1972년에, 수인선은 1995년에 각각 폐선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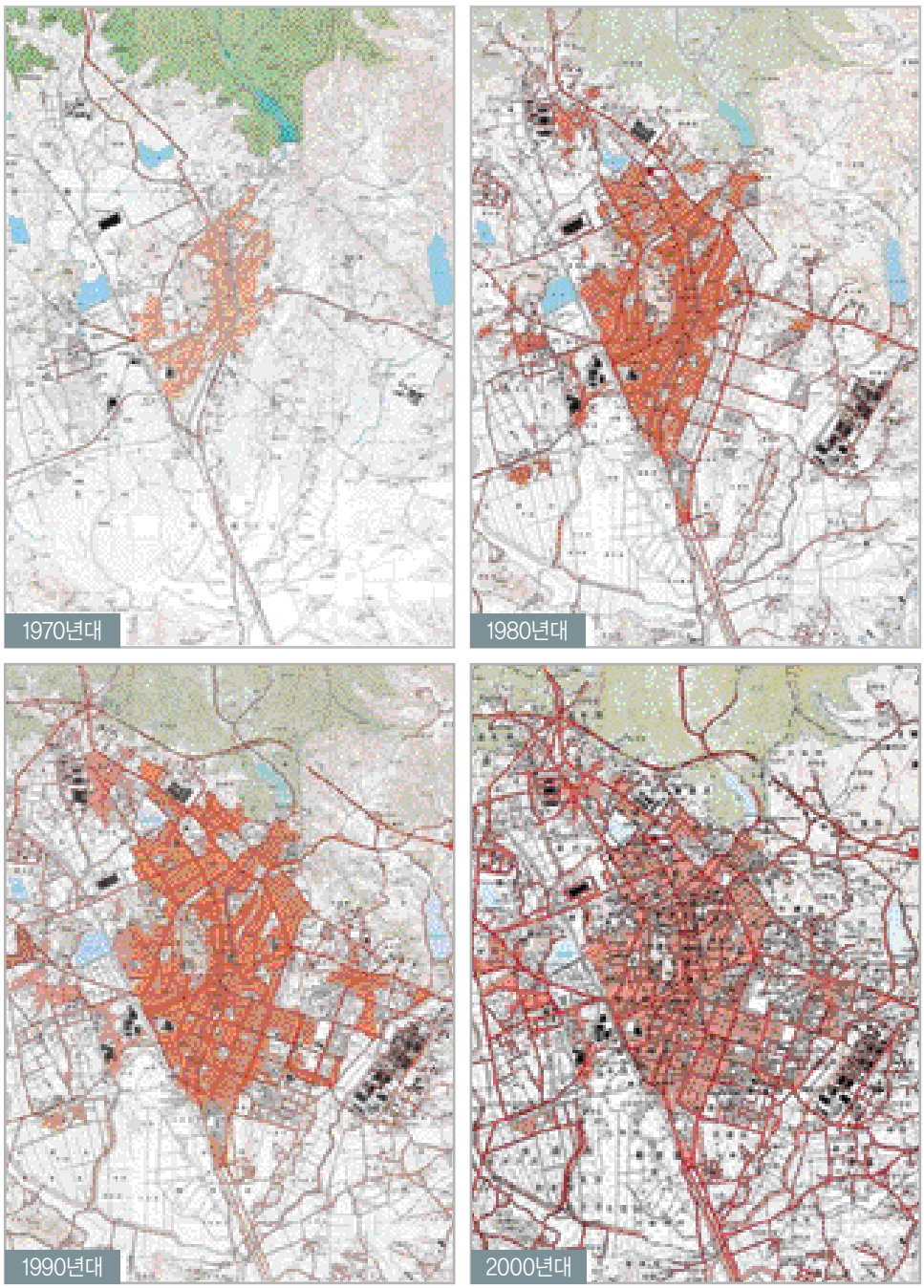
5. 해방 후 도로망

1) 도로망의 변화

1970년에 수원의 인구는 17만 518명이었고 1974년에 들어 2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1970년대까지 수원은 시가지의 발달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1970년 당시에 수원에 등록되었던 자동차는 1,700여 대에 불과하였다. 도시화가 뚜렷하게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수원시가지는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시가지를 비롯하여 팔달문에서부터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에 시가지가 형성된 수준이었다. 시가지가 발달하지 않은 만큼 도시 내 도로망의 발달도 더딘 편이었다.

1970년의 도로 총연장은 98.1㎞를 기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국도는 22.8㎞, 지방도는 7.6㎞, 시도가 67.7㎞ 등이었다. 당시에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 69.0%는 2010년의 시도 비율인 93.3%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이다. 즉 수원 내에서의 도로 발달이 더디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1970년에 수원에서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3%이었는데, 이는 2010년의 국도 비율인 3.9%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당시에 수원을 통과하는 도로 가운데 가장 위계가 높은 도로는 국도였으며, 여기에는 수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과 수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도 42호선이 있었다. 이들 도로는 팔달문 남쪽의 중동사거리에서 교차하였다. 당시에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국도 1호선은 화성군에서 수원으로 진입하여 세류사거리에서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수원 화성을 관통하였다. 수원을 통과한 국도 1호선은 지지대고개를 넘어 안양시로 진입



〈그림 14〉 시기별 수원시 도로망의 변화

〈그림 15〉 1975년 국도 1호선 수원-오산 간 산업도로

〈그림 16〉 개통 직후 경수산업도로 동문고개의 한적한 모습(경인일보사 제공)

하였다. 국도 42호선의 노선은 현재와 같았다.

1970년대에는 지방도 319호선이 시 남서쪽의 오목천동에서 진입하여 중심시가지인 화성을 통과한 후 동북쪽의 용인으로 진출하였다. 이 도로는 당시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였지만, 수원의 도시화와 함께 도로의 등급이 변화하였다. 이 도로는 현재 국도 43호선으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 들어 수원에서는 점진적으로 시가지의 수평적 확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는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도로망이 다소 미비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남서쪽의 평야지대를 제외한 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지가 건설됨에 따라 시내에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포장되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간선도로에서 뻗어 나간 지선도로의 발달이 두드러졌다.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시가지가 개발됨에 따라 시도에 해당하는 도로가 많이 개설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신규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시의 동남쪽에서 간선도로를 비롯한 지선도로의 발달이 눈에 띈다. 시내에서는 시가지의 충진현상이 동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의 동쪽에서 여러 도로가 건설되었다. 한편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서도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시가지가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도로망도 1980년대에 비해 확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시의 북쪽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수원의 교통망은 기존에 형성된 간선도로망에 종횡으로 연결되는 소로가 확충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수원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가지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도시 내에서 많은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 결과 수원의 도로 총연장은 1980년에 153.1㎞이었던 것이 2010년 말에 833.6㎞로 증가하였으며,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12.9㎢로 시 전체 면적의 10.7%를 차지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수원에 있는 도로의 총면적은 12.12㎢이고, 시가화면적에서 차지하는 도로 면적의 비율인 도로율은 23.4%를 기록하였다. 수원의 도로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면적이 증가한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여, 1990년에 도로 총연장이 194.2㎞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875.2㎞로 증가하였다. 도로 포장률은 1975년의 34.2%에서 2010년에는 100%가 되었다.

2) 등급별 도로

수원에 건설된 도로는 대부분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이고, 지방도가 총연장 9.0㎞로 가장 짧다. 본래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하지만, 수원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가 아닌 수원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에는 국도의 비율이 23.3%로 매우 높았지만, 2010년에는 국도의 비율이 3.9%로 감소하였고, 국도의 총연장 역시 1970년의 22.3㎞에서 32.1㎞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시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69.0%이었던 것이 2010년에 93.3%로 증가하였고, 총연장은 67.7㎞에서 777.7㎞로 증가하였다. 시도는 수원의 면적 확장에 따라 총연장이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수원의 도시화에 따른 시가지 개발이 시도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수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있으며, 수원에서 차지하는 도로의 비중은 1% 수준이다. 수원의 북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에는 북수원I.C.와 동수원I.C.가 있으며, 수원시계 내에서 영동고속도로의 노선 총연장은 11.08㎞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일일 평균통행량은 의왕시 부곡I.C.-북수원I.C. 구간이 13만 5,606대,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은 15만 4,103대, 동수원I.C.-신갈분기점 구간은 13만 5,223대였다. 북수원I.C.와 동수원I.C.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각각 2만 894대와 3만 2,786대를 기록하였다.

수원 동북쪽의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 사이를 통과하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는 국도 43호선과 만나는 지점에 광교상현I.C.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원시계 내에서의 노선 연장은 3.62㎞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일일 평균 통행량은 용인시 흥덕I.C.-광교상현I.C. 구간은 4만 9,170대, 광교상현I.C.-서수지I.C. 구간은 7만 522대였다. 광교상현I.C.와 동수원I.C.에서의 통행량은 광교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도로는 수원시계를 벗어난 동쪽에서 남북으로 통과하지만, 국도 42호선과 교차하는 곳에 수원나들목이 건설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원을 드나드는 자동차의 주요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0년 기준으로 수원나들목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4만 2,608대를 기록하였다.

국도는 3개 노선이 수원을 통과하며, 수원 내에서의 비중은 3.9%이다. 수원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도 42호선, 그리고 시의 남서쪽에서 동북쪽으로 통과하는 국도 43호선이 있다.

국도 1호선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시작하여 전주시 · 천안시 등을 경유하여 압록강변

〈그림 17〉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

〈그림 18〉 서울-수원-오산 간 고속도로 개통(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표 1〉 수원시 도로 구성의 변화[13]

(단위 : m, %)

구분 / 연도	총연장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계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1975	151,376	34.2	–	23,763	91.8	8,591	73.6	119,222	19.9
1980	153,164	42.9	–	22,815	100.0	7,585	84.6	122,754	29.7
1985	153,350	71.6	–	34,283	87.6	540	100.0	118,527	66.9
1990	194,246	100.0	–	33,885	100.0	540	100.0	159,821	100.0
1995	518,584	98.9	11,080	35,100	100.0	7,500	26.7	464,904	100.0
2000	875,204	69.3	11,080	32,138	100.0	8,820	83.0	823,166	67.5
2005	875,204	80.6	11,080	32,138	100.0	7,320	100.0	654,452	79.4
2010	833,608	100.0	14,700	32,138	100.0	9,020	100.0	777,750	100.0

의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국도로서, 현재는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진다. 수원에서는 화성시와 경계를 형성하는 곡반정동을 지나 비행장로터리에서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동수원사거리와 창룡문사거리를 경유하고 장안구청 앞을 지나 파장동까지 이어진다. 본래 국도 1호선은 수원 남쪽의 화성시에서 진입하여 수원천을 건넌 후 수원 화성 남쪽의 매교

13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해당 연도.

〈그림 19〉 **국도 1호선과 국도 43호선이 교차하는 창룡문사거리** 가로로 놓인 도로가 국도 1호선이고, 위 아래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국도 43호선이다.

삼거리에서 팔달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팔달문에서 팔달로(현 정조로)를 따라 장안문을 통과하여 안양으로 연결되는 것이 초기의 구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원의 도시화와 함께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초기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화성 내부를 통과하는 노선을 동쪽으로 우회시킨 것이다. 국도 1호선은 동수원사거리에서 국도 42호선과 교차하고, 창룡문사거리에서 국도 43호선과 교차한다. 수원시 내에서 국도 1호선의 연장은 12.83㎞이다. 특히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이르는 총 27㎞ 구간은 '경수산업도로'로 불리며, 도로명 주소로는 '경수대로'라고 불린다.

국도 42호선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흥시와 안산시를 거쳐 수원을 통과하여, 동해안의 강원도 동해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수원 동쪽의 용인시에서 진입하여 영통삼거리를 지나 수원역으로 이어진 후 수원역에서 서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안산 방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국도 42호선이 수원을 통과하는 노선 연장은 10.51㎞이다. 특히 동수원사거리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에 이르는 구간은 '수인산업도로'라고 불린다.

국도 43호선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에서 강원도 고성군을 잇는 국도로서, 현재는 강원도 철원군의 군사분계선까지 이어진다. 수원에서는 수원 서쪽의 화성시와 경계를 형성

하는 오목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원역으로 이어진 후 수원역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동사거리까지 국도 42호선과 노선을 같이한다. 이후 팔달문을 통과하여 화성 안의 종로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창룡문을 지나 창룡문사거리에서 국도 1호선과 교차한 후 독고개를 거쳐 용인시로 이어진다. 국도 43호선이 수원을 통과하는 노선 연장은 8.8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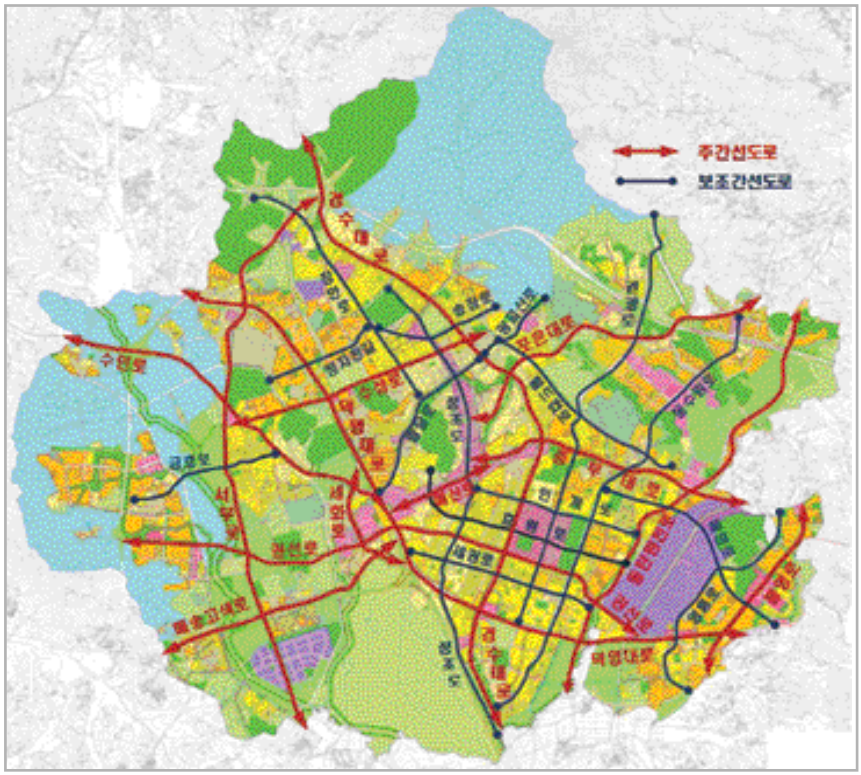
지방도는 2개 노선이 통과하는데, 수원의 도로에서 차지하는 지방도의 비중은 1% 수준이다. 수원의 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309호선과 수원 동남부에서 화성시와 용인시를 연결시켜 주는 315호선이 있다. 호매실동에서 율전동을 통과하는 309호선은 수원에서의 노선 연장이 5.32㎞이고, 화성시 태안읍에서 수원의 망포동으로 진입하여 영통동으로 연결되는 315호선은 수원에서의 노선 연장이 2.0㎞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9호선은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에 해당하며, 서수원I.C.와 호매실I.C.가 건설되어 수원 서쪽의 교통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광역으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를 시에서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에는 4,300개가 넘는 노선이 있으며, 노선 총연장은 834.6㎞이다. 이 가운데 개설구간의 연장은 777.5㎞이고, 미개설구간은 56.9㎞에 달한다.

3) 도로체계

도시 내에서의 도로는 폭에 따라 광로 · 대로 · 중로 · 소로 등으로 구분된다. 도로의 폭원에 따른 기능과의 관계는 광로 및 일부 대로가 주간선도로에 해당하고, 일부 대로 및 일부 중로는 보조간선도로, 일부 중로는 집산도로, 그리고 소로는 국지도로에 해당한다. 주간선도로는 도시 내 교통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시가지를 통과하거나 도시를 다른 지역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간선도로는 주행거리가 주간선도로보다는 짧고 교통량을 집결시키거나 분산시켜 주며, 도시 내의 시가화구역에서 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원에는 2001년에 10개의 주간선도로와 22개의 보조간선도로가 지정된 바 있다. 주간선도로에 포함되었던 도로는 경수산업로, 신갈-안산고속국도, 의왕-고색고속국도, 수인산업로, 역전로, 남부우회로, 고색로, 매산로, 원천로, 창룡문로 등이었다. 보조간선도로에 포함되었던 도로에는 정조로, 수성로, 서부우회로, 금호로, 파정로, 화서문로, 공단로, 동수원로, 매탄로, 권선로, 동서로, 향원로, 세류로, 세권로, 영통서부로, 영통로 등이다.[14] 그러나 이전까지 사용되어 온 주소체계가 일제시기에 수립된 것이었고, 경제 발전과



〈그림 20〉 2010년 수원시의 간선도로망

산업화 · 도시화를 겪으면서 지번에 의한 위치정보가 부정확해짐에 따라 2006년부터 도로명을 새로 지정하고 주소체계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하여 2007년 2월에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 9월부터 도로구간을 새롭게 설정하고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의 1,690구간에 달하는 도로는 '대로'급 9구간, '로'급 107구간, '길'급 1,574구간으로 획정되었다. 도로명의 부여기준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는 폭이 40m 또는 8차로 이상인 도로이고, '로'는 폭이 12~40m 또는 2~7차로인 도로이며, 대로와 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도로는 '길'이라 명명하였다.

도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 보면, 수원에는 13개의 주간선도로와 15개의 보조간선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주간선도로는 '대로' 8개 노선과 '로' 5개가 포함되어 있다. 보조간선

14 수원시, 『수원의 길이름』, 신문사, 2001, 78쪽.

도로에 포함되는 도로에는 '대로' 인 효원로를 비롯하여 '로' 에 해당하는 금호로, 광교산로, 송정로, 권광로, 정조로, 매영로, 세권로, 인계로, 월드컵로, 영통로, 장안로, 팔달로, 정자천길, 동수원로 등 모두 15개 노선이 있다〈그림 20〉.

〈표 2〉 수원시의 주간선도로[15]

(단위 : m)

급	도로명	기점	종점	연장(폭)
대로	경수대로	권선구 대황교동 비상활주로	장안구 파장동 지지대고개	13,211(50)
	수인로	팔달구 고등동 육교사거리	권선구 당수동 대명고교	6,240(36)
	덕영대로	장안구 율전동 월암I.C.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 정문	13,909(50)
	동탄원천로	권선구 곡반정동 시계	영통구 하동 시계	7,772(40)
	매송고색로	권선구 오목천동 오목천삼거리	권선구 세류동 세평삼거리	4,652(35)
	서부로	권선구 오목천동 고색산업단지	장안구 이목동 지지대교차로	10,641(35)
	중부대로	팔달구 중동 중동사거리	영통구 영통동 영통삼거리	6,412(40)
	창룡대로	팔달구 팔달로1가 종로사거리	원천구 이의동 재활용사업소	4,912(25)
로	수성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삼거리	장안구 조원동 영산공원	4,529(35)
	매산로	팔달구 매산로1가 역전로타리	팔달구 인계동 리젠시호텔	1,812(25)
	권선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I.C.	영통구 망포동 방죽삼거리	9,598(35)
	봉영로	영통구 망포동	영통구 영통동	4,882(35)
	세화로	권선구 세류동 세류지하차도	팔달구 화서동 화서지하차도	2,645(40)

2011년 현재 수원의 주간선도로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가운데 대로 8개 노선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경수대로는 국도 1호선에 속하는 것으로 시작점과 끝 지점인 서울[京]과 수원의 머리글자를 따서 도로명이 만들어졌고, 수원에서는 대황교동 비상활주로에서부터 국도 1호선을 따라 파장동의 지지대고개까지 이어진다. 수인로는 국도 42호선에 속하는 것으로 시작점과 끝지점인 수원과 인천의 머리글자를 따서 도로명이 명명되었으며, 수원에서는 고등동 육교사거리에서부터 국도 42호선을 따라 당수동 대명고교까지 이어진다. 덕영대로는 시작점인 의왕시와의 경계에 자리한 덕성산과 끝지점인 영통·영덕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되었으며, 수원에서는 율전동 월암I.C.에서 영통동 경희대학교 정문까지 이어진다. 동탄원천로는 시작점인 동탄과 끝 지점인 원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수원에서는 곡반정동 시 경계에서부터 영통구 하동의 시 경계까지 이어진다.

매송고색로는 시작점인 매송과 끝 지점인 고색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오목천동

15 새주소도로명리스트(http://www.suwon.go.kr). 수원시 내에서의 기점과 종점만 기재하였다.

〈그림 21〉 경부철도와 나란히 가는 덕영대로

오목천삼거리에서 수원역 남쪽의 세류동 세평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43호선이다. 서부로는 오산-화성-수원을 잇는 도로로서 수원의 서부에 자리한 주요 도로라는 의미를 가지며, 오목천동 고색산업단지에서 이목동 지지대교차로까지 이어지고, 파장동에서 경수대로와 교차한다. 중부대로는 경기도의 중부 지역임을 반영하는 도로명으로 중동의 중동사거리에서 영통동의 영통삼거리까지 연결되며, 수원과 용인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의 구간에 속한다. 창룡대로는 수원 화성 내부에서 시작하는 도로로서, 처음에는 포은대대로 명명되었다가 현 도로명으로 변경되었다. 팔달로1가 종로사거리에서 창룡문을 지나 이의동 재활용사업소까지 이어지는 국도 43호선에 속한다.

주간선도로 가운데 5개의 '로' 급 노선은 다음과 같다. 동서 방향으로 뻗은 수성로는 서부로에서 덕영대로를 지나 경수대로에 이어지는 노선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수원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매산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매산로는 덕영대로와 교차하는 수원역 앞에서 인계동 리젠시호텔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권선로는 시의 서쪽을 관통하는 지방도 309호선의 호매실 I.C.에서 동쪽으로 뻗어 시의 동남쪽에 자리한 망포동의 방죽삼거리에서 덕영대로와 교차한다. 권선로의 이름은 권선구를 대표하는 도로라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봉영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영통구 영통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서, 기점인

〈그림 22〉 매산로

봉담과 종점인 영통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되었으며, 영통동에서 중부대로와 교차한다. 기점인 세류동과 종점인 화서동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한 세화로는 덕영대로에서 분기한 후 다시 덕영대로에 합류하는 노선으로 세류지하차도에서 화서지하차도까지이며, 수원역을 서쪽으로 우회하는 도로이다.

이들 주간선도로 가운데 노선이 가장 긴 도로는 13.9㎞에 달하는 덕영대로이고, 매산로가 1.8㎞로 가장 짧은 노선이다. 주간선도로는 대부분이 수원시와 주변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광역도로 구간에 포함되지만, 매산로 · 세화로 · 수성로 · 권선로 등은 수원 시내에서 시작하여 시내에서 종결되는 노선이다.

보조간선도로는 정자천길의 일부 구간과 금호로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선이 덕영대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표 3〉. 권광로는 시작점인 권선과 종점인 광교지구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하였으며, 선일초교삼거리에서 이의동 시계까지 연결된다. 시의 동남쪽에 있는 영통로는 영통구의 지명을 반영하는 도로이며, 망포동 시계에서 영통동의 왕골공원까지 이어진다. 인계로는 인계동이라는 행정동명을 반영하는 노선으로, 매교동의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매탄동의 매화사거리까지 연결된다. 인계로는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정조로와 교차하고, 동쪽의 끝지점에서는 동탄원천로와 교차한다. 정자천로는 정자천에서

〈그림 23〉 효원로

〈표 3〉 수원시의 보조간선도로[16]

(단위 : m)

도로명	기점	종점	연장(폭)
권광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삼거리	영통구 이의동 시계	7,839(35)
영통로	영통구 망포동 시계	영통구 영통동 왕골공원	4,590(35)
인계로	팔달구 매교동 팽나무고개삼거리	영통구 매탄동 매화사거리	2,983(30)
정자천길	팔달구 화서동 정천초교삼거리	장안구 정자동 만석공원사거리	2,108(32)
팔달로	팔달구 매산로1가 육교사거리	장안구 영화동 교육청사거리	3,256(25)
동수원로	권선구 대황교동 구 1번 국도	영통구 이의동 시계	8,468(35)
월드컵로	영통구 원천동 주민센터	장안구 영화동 창훈사거리	4,595(32)
장안로	팔달구 화서동 화서문로터리	장안구 이목동 수원서광학교	5,218(20)
정조로	권선구 대황교동 구 1번 국도	장안구 송죽동 일왕삼거리	9,357(25)
금호로	권선구 호매실동	권선구 서둔동	2,704(25)
광교산로	장안구 영화동	장안구 상광교동	6,455(20)
매영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 영통동	4,372(20)
세권로	권선구 세류동	권선구 권선동	3,439(20)
송정로	장안구 정자동	장안구 조원동	1,976(20)
효원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정문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정문	4,219(50)

16 새주소도로명리스트(http://www.suwon.go.kr). 수원시 내에서의 기점과 종점만 기재하였다.

〈그림 24〉 효성육교

〈그림 25〉 장안지하차도

유래한 도로명으로, 화서동의 정천초교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뻗어 덕영대로를 가로질러 정자동 만석공원사거리에서 장안로와 교차한다.

팔달구의 지명을 반영하는 팔달로는 수원역 북쪽의 매산로1가 육교사거리에서 동북방향으로 뻗어 정조로를 지나 영화동 교육청사거리에서 경수대로와 교차한다. 동수원로는 시의 남쪽 대황교동 구 1번 국도에서 동북방향으로 뻗어 권선로 · 효원로 · 중부대로 등의 주간선도로와 인계로 · 월드컵로 등의 보조간선도로를 지나 이의동의 용인시 경계까지 연결된다. 월드컵로는 공공시설물인 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반영하는 도로명이고, 원천동 주민센터에서 서북 방향으로 뻗어 포은대로와 교차한 후 영화동 창훈사거리까지 연결된다. 장안로는 화성의 화서문로터리에서 북쪽으로 뻗어 수성로를 가로지른 후 이목동의 수원서광학교까지 연결되며, 장안구의 지명을 반영하는 명칭이다. 화성을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는 정조로는 화성과의 시경계인 대황교동에서 옛 국도 1호선을 따라 송죽동의 일왕삼거리까지 연결된다.

금호로는 금호동에서 서호 인근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행정동 명칭을 이용하였다. 매영로는 매탄동과 영통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라는 데에서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되었다. 송정로는 송죽동과 정자동의 경계를 이루면서 종합운동장을 지나는 도로로서, 기점과 종점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되었다. 효원로는 경기도청이 자리한 팔달산에서 수원시청이 자리한 인계동을 지나 영통구까지 뻗은 도로로서, 정조대왕의 효 사상을 이어받고 효의 도시

인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명명된 도로명이다. 세권로는 세류지구와 권선동을 잇는 도로라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보조간선도로 가운데 노선 연장이 가장 긴 것은 약 9.4㎞에 달하는 정조로이고, 동수원로와 권광로의 노선연장도 길다. 반면 송정로는 1.9㎞에 불과하여 노선 연장이 가장 짧은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하며, 정자천길과 인계로도 노선 연장이 짧은 편이다. 보조간선도로 가운데 시 남쪽의 화성시와 연결되는 정조로, 동남쪽의 화성시에서 진입하여 용인시로 연결되는 영통로는 광역도로구간에 해당하고, 이 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간선도로는 시내에서 시작하여 시내에서 종결되는 도로이다.

수원의 도로시설물에는 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교량 등이 있다. 고가차도는 모두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영통 · 밤밭 · 수원역 · 우만 · 터미널 · 세류 · 동수원 고가차도가 있다. 이 외에 지하차도 24개소, 지하보도 12개소, 보도육교 31개소, 교량 107개소(고속도로 23개소 제외) 등이 있다. 교량은 국도에 11개소(총연장 527.0m), 지방도에 16개소(총연장 2,284.2m), 시도에 80개소(총연장 3,288.3m)가 있다.

4) 간선도로의 교통량

(1) 주간선도로

수원의 주간선도로는 앞에서 살펴본 9개의 '대로'를 포함하여 모두 12개 노선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주간선도로의 일일 평균 교통량은 61만 773대를 기록하였다〈표 4〉. 도로별로는 국도 42호선으로 이루어진 수인로의 통행량이 7만 179대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수대로(6만 6,936대), 중부대로(6만 4,552대) 등이었으며, 매송고색로의 통행량이 3만 4,370대로 가장 적었다.

시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경수대로), 국도 42호선(수인로, 매산로, 중부대로), 국도 43호선(매송고색로, 매산로, 창룡대로)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전체 주간선도로 교통량의 55%를 차지하여, 수원의 주간선도로는 국도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면 시 서부에 자리한 월암I.C. 방면의 시경계 유출입 교통량의 증가로 덕영대로의 교통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덕영대로에서 분기하여 수원역의 서쪽으로 우회한 후 다시 덕영대로에 접하는 세화로의 교통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경수대로와 수인로의 교통량은 감소하였다.

〈표 4〉 수원시 주간선도로의 교통량[17]

(단위 : 대/일)

도로	일일 평균교통량	도로	일일 평균교통량
경수대로	66,936	동탄원천로	36,366
덕영대로	63,357	매송고색로	34,370
매산로	48,871	세화로	58,118
서부로	41,193	수인로	70,179
수성로	35,257	창룡대로	53,064
중부대로	64,552	합계	610,773
권선로	38,510		

(2) 보조간선도로

수원에는 10개의 보조간선도로가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보조간선도로의 일일 평균교통량은 37만 3,289대로,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다〈표 5〉. 도로별로는 정자천로의 교통량이 4만 8,161대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권광로(4만 6,405대), 월드컵로(4만 4,268대) 등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많았다. 팔달로의 교통량이 2만 3,207대로 가장 적었다. 2010년의 교통량을 전년과 비교하면 권광로와 인계로의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팔달로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표 5〉 수원시 보조간선도로의 교통량[18]

(단위 : 대/일)

도로	일일 평균교통량	도로	일일 평균교통량
권광로	46,405	월드컵로	44,268
영통로	31,681	장안로	25,376
인계로	43,122	정조로	32,933
정자천로	48,161	효원로	40,477
팔달로	23,207	합계	373,289
동수원로	37,659		

(3) 교통량 분포

2010년 기준으로 수원에서는 금요일의 교통량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량이 가장 적었던 날은 일요일이고, 평일에는 월요일의 교통량이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과 오후

17 수원시, 『2010 교통백서』, 2011, 33쪽.
18 수원시, 『2010 교통백서』, 2011, 34쪽.

의 출퇴근시간대(8~9시, 18~19시)에 첨두시간(Peak Hour)이 형성되었고, 오후 3~4시 교통량이 가장 적었다. 주간선도로에서는 교통량의 첨두시간이 출퇴근시간에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었지만, 보조간선도로에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의 교통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시간대별 교통량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다.

수원시와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용인시 · 화성시 · 안산시 · 의왕시 등지로 연결되는 주요 지점은 12개소에 달한다. 시 경계를 넘나드는 교통량은 외부지역에서 수원시로 유입되는 교통량에 비해 수원시에서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교통량이 더 많았다. 덕영대로 · 중부대로 등을 통해 용인시로 유출입하는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수대로 · 정조로를 통과하여 화성시 병점 방면으로 유출입하는 교통량이 많았다. 이 외에 동탄지성로 · 동탄원천로 · 영통로 등을 통한 화성시 동탄 방면, 창룡대로를 통한 용인시 수지 방면, 수인로를 통한 안산시 방면, 경수대로를 통한 의왕시 방면 순으로 교통량의 규모가 작아졌다.

수원시로 유입하는 교통량을 노선별로 살펴보면,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일일 평균 4만 3,643대가 통과하여 시 전체 유입교통량의 15%를 차지한 창룡대로이며, 그 뒤를 이어 수인로, 중부대로, 경수대로의 순이었다. 수원시에서 유출되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노선도 일일 평균 4만 3,780대가 빠져나간 창룡대로이고, 그 뒤로 경수대로, 수인로의 순이었다.

김찬수 동원고등학교 교사

1. 경부철도의 부설과 복선화
2. 수여선의 부설과 변천
3. 수인선의 부설과 변천
4. 수원역의 설치와 변화
5. 철도의 발달과 수원의 변화

제4장

수원의 철도교통 변화

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지정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교통 발달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수원은 우리나라 철도(국철, 전철, 고속철) 및 도로교통(국도, 고속도로)이 동서남북으로 모두 통과하는 곳으로 교통의 박물관과 같은 위치에 있다. 국철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수원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일반도로로 1번, 42번, 43번 국도가 동서남북으로 도심을 가로질러 통과한다.

특히, 철도사적인 측면에서 수원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1974년 8월 15일 구로와 수원 사이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었으며, 1980년 12월 23일 영등포-수원 간 경부선이 복복선 전철로 개통되었고, 1989년 12월 19일에 수원-동대구 간의 경부선에 열차집중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010년 11월 1일부터 하루 왕복 8편의 KTX가 수원역에 정차하고 있다. 2016년이면 강남에서 수원의 광교신도시까지 개통되어 서울 강남으로 직접 연결될 신분당선은 1호선 전철과는 또 다른 수도권 광역전철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하철 4호선도 인덕원역에서 직접 수원 조원동 한일타운을 거쳐 월드컵경기장, 수원시청을 지나 동탄신도시에 이르는 노선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적으로 교통의 발달사는 시대적 변천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통의 흐름은 식민지 시기 교통의 발전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경제와 사회의 발달에 따라 차츰 중추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이 변하게 되는데, 수원의 근대적인 교통은 1905년 개통된 경부철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역과 1930년 12월 4일(수원-이천 간 53.1km) 운행이 개시된 수여선(水驪線), 1937년 8월 6일에 개통된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水仁線)을 통해 살필 수 있겠다.

1. 경부철도의 부설과 복선화

1) 경부철도 노선의 선정

1880년 중반부터 경부철도 건설을 위한 지형 탐사를 시작한 일제는 1896년 경부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고종은 1896년 두 차례나 경부철도 부설 청원서를 거부했지만, 힘에 밀려 1898년 9월 8일 정부가 일본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에게 경부선 부설을 허가하였다. 경부선은 1901년 9월 21일 서울 영등포에서, 같은 해 9월 21일 부산 초량에서 일본자본의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기공되어 3년 후인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었고, 190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 노선의 영업이 개시되었다. 그해 5월 25일 서울 남대문

1905년 5월 25일 거행된 경부철도 개통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

정거장 광장에서 개통식이 거행되었다.[1]

경부철도는 한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1908년 최남선이 지은 「경부철도가」에는 이러한 충격이 드러나 있다. 그중 수원 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실라 같은 안양을 옆에 끼고서
다달으니 수원역 여기로다.
예전에는 유수(留守)도 지금 관찰부
경기도의 관찰사 있는 곳이다.

경개(景槪) 이름 다 좋고 서호 항미정
그 옆에는 농학교 농사시험장
마음으로 화령전 등배(謄拜)한 후에
대성인의 큰 효성 감읍하도다.

달 바라는 나각(螺閣)은 어찌 되었나
물 구경터 화홍문 변(變)이 없는지
운담풍경(雲談風輕) 때맞춰 방화수류정
등어상련(登魚賞蓮) 겸하는 만석거로다.

광교산을 옆 하고 떠나 나가서
잠시간에 병점역 이르렀도다.
북에 뵈는 솔밭은 융릉 뫼신도
이름 높은 대황교 거기 있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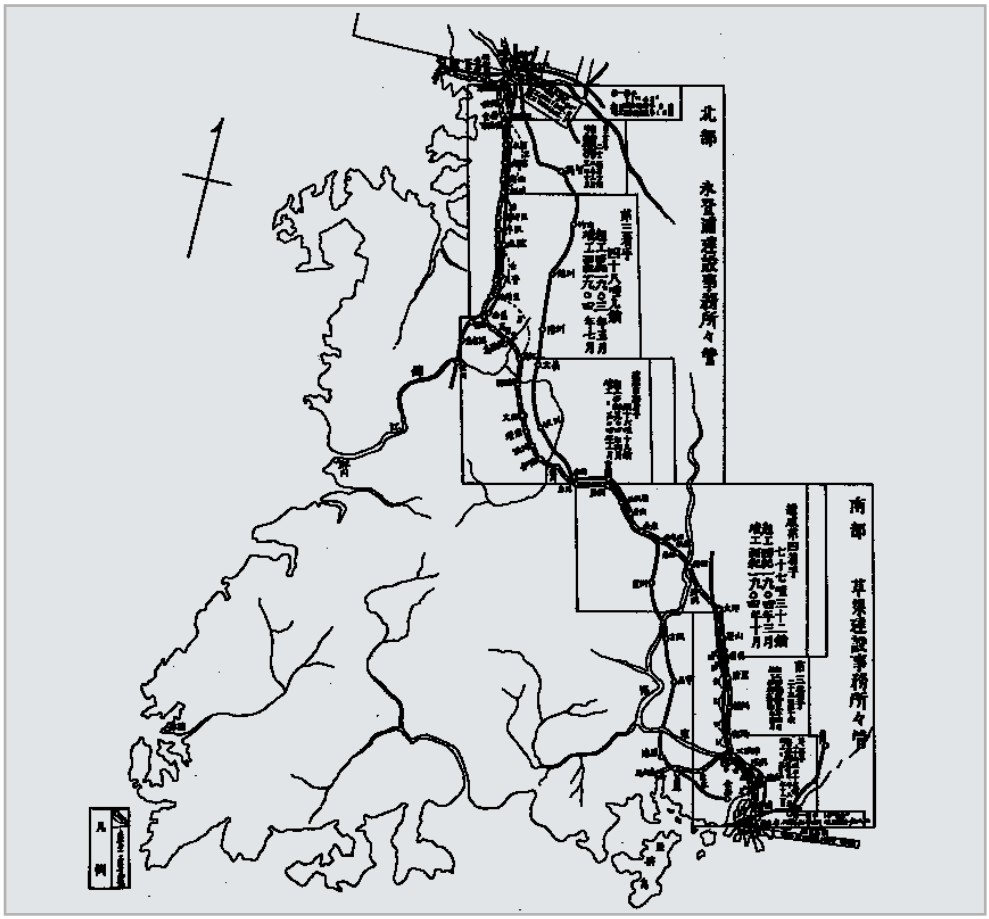
1904년 경부철도 노선(『대한전도』, 「경기도」)

경부선이 수원을 통과하기까지는 노선 선정과정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 일본은 경부철도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5회의 대규모 현장답사를 실시했는데, 1~2차 답사 때 경부선 노선은 서울–용인–죽산–청주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고, 3차 답사 때는 노량진–영등포–수원–공주–논산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다. 1~2차 답사 노선은 서울–부

1 철도청, 『사진으로 본 한국철도 100년』, 1999, 170쪽.

산을 최단거리로 연결시키려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었고, 3차 노선 답사 때는 상공업이 발달한 경제 선진 지역을 관통하려고 배려했다고 한다. 그리고 4~5차 답사를 거치면서 군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금의 수원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된 것이다.[2] 즉, 당시의 경제적인 위치가 수원 지역으로 경부철도가 통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수원 구간은 경부철도의 안양 명학동(鳴鶴洞)–진위(振威) 간의 제2공구로, 선로 거리는 22마일이고 1902년 7월에 착공하여 1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명학동–수원 구간은 1903년 10월경에는 공사용 건축열차가 이미 운행하게 되었다.[3]



경부철도 건설공구 약도[4]

2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47~58쪽 참조.
3 조선총독부, 『조선철도사』, 1937, 305~306쪽.
4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사』, 1929.

그런데 수원 지역에서도 지금의 서수원 쪽 노선으로 철도가 통과하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애초에 일본의 건설회사는 사그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지지대고개의 서쪽 산에 터널을 뚫고 대유평(大有坪)을 거쳐 화서문 밖, 팔달산 기슭을 뚫고 상류천(上柳川), 대황교(大皇橋) 동편으로 나가는 노선이었다.[5]

문제가 된 것은 지지대 노선이 정조의 역사성이 깃든 「지지대비(遲遲臺碑)」와 화령전(華寧殿)이 있는 팔달산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1902년 4월 28일 이러한 이유를 들어 유기환(兪箕煥) 철도원 총재가 다케우치(竹內) 취체역에게 지지대 터널공사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다케우치는 다시 한국에 와 있던 구사(田下) 취체역과 함께 하야시 겐스케(林權助) 일본공사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합동조약의 제2조에 "선로의 부설방법은 회사가 선정하는 기사의 측량에 따라 시공한다."는 조항에 따라 계획대로 강행할 것을 결의하였다.[6] 아울러 4월 30일 일본 감독은 철도원 총재를 찾아가 터널의 시공 위치는 지지대비에서 480피트나 떨어져 있어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때 수원 부민이 남문 밖에 모여 철도는 지지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반대 시위를 하였다.[7]

한편 수원군수 김각현(金珏鉉)도 보고를 통해 팔달산은 화령전이 있는 주산(主山)이고 지지대도 소중한 곳이며, 그 구간에는 전답분묘가 많아 민소(民訴)가 답지하니 어떻게 조치할지를 묻고 있다.[8] 며칠 후 유기환 총재가 일본 철도회사 기사에게 비교 노선을 답사시키고, 심상훈(沈相薰)을 통하여 조정여론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02년 5월 9일 하야시 공사가 다케우치, 구사 두 취체역을 대동하고 경운궁으로 고종을 알현하고 철도원이 까닭 없이 항의하여 철도공사가 지연되니 자기들 회사의 요구를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고종은 잠시 숙고한 후 철도원의 유기환 총재와 협의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리고 비교 답사의 결과도 하문(下問)하였으나 철도원 당국은 여전히 노선 변경을 고집하였다.[9]

그러자 일본 철도회사도 이를 하야시 공사에게 보고하였고 공사는 "이 이상 미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조약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개시한다. 만약 한국 관리가 공사를 제지할 경우에는 곧 이에 대항한다."라고 강경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1902년 6월 1일 일본 회사는 철도원에게 사그내-오산 간의 선로를 기공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5 『황성신문』, 1902년 6월 5일; 이진호, 「기전지방의 경인 · 경부철도사」, 『기전문화』 6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9, 97~98쪽; 이창식,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142~160쪽 참조.
6 철도청, 『한국철도사』 3권, 1979.
7 철도청, 『한국철도사』 3권, 1979.
8 『황성신문』, 1902년 6월 5일.
9 철도청, 『한국철도사』 3권, 1979.

터널공사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조선 측 철도원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 군산포(軍山浦 : 현 군포시)에서 사시현(四時峴)을 넘어 대대동(大垈洞), 서둔동(西屯洞)을 거쳐 상류천(上柳川)에 이르는 노선을 택하면 다소 우회하지만 터널을 뚫지 않고 다른 문제는 없으니 그렇게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회사에서는 이를 논박하고 조약의 권리를 고집, 6월 1일부터 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유감이지만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철도원은 지지대고개 터널공사에 끝까지 반대하여 경기관찰사 이근명(李根命)에게 명하여 사그내-지지대 간의 공사착수를 엄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6월 1일의 기공은 무기한 연기되고 한 달여 양국의 갈등은 계속되다가 철도원 총재에서 외부대신 서리로 영전한 유기환이 고종의 내지(內旨)를 받아 타협 · 절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1902년 7월 14일 유기환이 하야시 공사에게 공손하게 부탁하자 하야시가 이를 받아들여 새롭게 철도원 총재가 된 권재형(權在衡)이 하야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함으로써 이 문제는 종결을 보았다.

그 후 일본 측에서도 철도원 우치다(內田) 기사가 답사해 보니 노선을 변경할 경우 기존 노선보다 1마일 정도 우회하지만 그 대신 터널공사가 필요 없다고 보고하였다. 가쓰노이(笠井) 기사장도 실지답사를 실시한 결과, 우치다의 의견과 같았고 오히려 공사비는 5만 원 정도 덜 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경부선 수원 통과노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회사는 노선 변경으로 명학동에서 사그내까지 약 2마일의 기정공사 폐기에 따른 손해금 1만 3,503원 95전을 1903년 10월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다.[10]

2) 철도용지의 강제수용 문제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이루어진 경부철도의 부설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금액과 결수를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제국정부가 1901년부터 1904년 사이에 산정한 철도용지의 평당 수용 예정가액은 시흥 · 과천 · 군포 · 광주 · 수원 · 진위 · 양성 지역이 논 상품 30전, 중품 21전, 하품 12전, 밭 상품 12전, 중품 8전, 하품 4전이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계획한 보상금액은 총 45만 6,000여 원이었지만, 실제 보상금액은 당초 추정가액의 50%도 되지 않는 20만 8,000여 원에 불과하였다.[11]

10 조선총독부, 『조선철도사』, 1937, 291~298쪽 참조. 이창식,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159쪽에는 손해배상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나, 손해배상금을 한국정부가 지불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경부선 보상금 공고(『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9일)

이를 철도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총평수로 나누면, 평당 보상가액은 대략 7.6전 꼴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평당 보상가액 17전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논은 하품가액(下品價額)의 2분의 1, 밭은 하품가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로 보상하는 정도였다.

정부는 연선 주민에게 1907년 9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각 정차장에서 철도용지의 보상가격을 지급하였다. 이때 철도용지 보상가격 지급 상황을 보면 수원역에서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수원군 소속 철도용지 보상가격으로 7,973원 88전(평당 보상가 4.1전)을 지급하였다. 이때 경부선 철도 연선에서 지급된 용지대금은 모두 20만 8,000여 원이었다.[12]

더욱이 이러한 보상금액은 전답을 철도용지로 수용당한 지 3~6년이 지나서야 수령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게 온전히 지급된 것도 아니었다. 일본 측은 보상비 지불을 일본의 제일은행권 보급의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보상가액의 10분의 2를 수수료로 공제하였다. 또한 그 나머지 액수도 군수나 면장이 보상금 지불 과정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제로 지주의 손에 들어간 것은 몇 푼에 불과하였다.

11 『京釜鐵道用地金額及結數成册(1897-1910)』(규 19365).
12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9일.

3) 철도 건설노동자 동원 문제

경부철도의 건설 과정에서 일본군이나 그의 지원을 받은 토건회사 소속원이 지방관을 협박하여 주민들을 노동자로 동원하였다. 평택 · 천안 · 연기 · 청주 · 옥천 · 창원 등 주요 도시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해당 지역 지방관에게 관내의 호구 · 미곡 · 우마의 수량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강요하였다. 일본측은 이를 근거로 지방관에게 경부철도주식회사와 토건회사 소속원 및 일본인 노동자에게 숙사와 식료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1904년 8월 진위군(현 평택시)에서는 일본인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호마다 1인씩 철도 역부(役夫)를 뽑아 달라고 강권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은 이방(吏房)이 중간에서 임금을 갈취하자, 분노한 군민(郡民)이 봉기하여 향청(鄕廳)과 이서배(吏胥輩)의 가옥 7호를 부쉈다.

용인군에서도 비슷한 연유로 1904년 8월에 군민 5,000여 명이 봉기하여 군수가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노동자 동원방식은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철도 연선 주민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철도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경부철도 역부(役夫) 강제징발에 반발하여 일어난 1904년 8월의 용인시위, 9월의 시흥시위의 영향으로 수원에서도 을사늑약 체결 반 년 전에 벌써 의병이 일어났다. 1905년 4월 이인응(李寅應)은 수원 남쪽 죽산에서 포군과 농민 23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양성 · 양지 · 용인을 거쳐 수원군 지경으로 진격하였다.[13] 5월 초에는 박석여(朴昔[錫]汝)부대가 죽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규모는 280여 명에 이르렀고 죽산군 원일면에서 청주로부터 출동한 일본군과 격돌하였다.[14] 박석여 의병이 일어난 곳은 안산 · 수원 등지였으며, 의병장 박석여 휘하에는 수원 출신 선달 최화실(崔化實)이 중군장으로 활약하였다. 박석여는 비교적 대부대를 거느렸고, '척왜창의(斥倭倡義)'의 깃발을 올리고 부민에게서 전곡을 징발하고 관속을 결박하여 군기를 빼앗고 상인에게는 말을 징발하였다. 또한 광주 · 양근 등지에서는 의병들이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였고 일진회 회원들을 잡아 의병에 가입시켰다.[15] 수원 서쪽 남양군 대곶도(大串島)에서는 수적선(水賊船) 두 척이 나타나

13 『황성신문』, 1905년 5월 10일; 『황성신문』, 1905년 5월 15일; 『황성신문』, 1905년 6월 14일.
14 『황성신문』, 1905년 5월 22일.
15 『황성신문』, 1905년 6월 14일; 『황성신문』, 1905년 6월 19일; 『황성신문』, 1905년 6월 21일.

뱃길을 봉쇄한 뒤 섬 안의 부민에게서 약 100만 냥을 약탈하고 섬을 물러난 사건이 발생하였다.[16]

일본 측의 난폭한 강제와 억압 아래 부설된 경부철도는 바야흐로 의병부대의 가장 큰 공격목표가 되었다. 1907년 8월 15일 0시경 검은 옷을 입은 한국인 수십 명이 수원정차장에 십여 발을 방포(放砲)하다가 수비대의 반격을 받고 퇴각하였고,[17] 1907년 9월 8일에는 병점역에서 30리 떨어진 선장동(先長洞)에서 의병 700명이 집합하여 오산역과 진위역을 습격하였다.[18]

4) 경부선의 복선화

초창기의 경부철도는 경부철도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민간철도였다. 그렇지만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을 도발하면서 경부철도가 정치적 ·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세력을 확장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경부철도를 국가가 매수하여 직영하려는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주권을 침탈한 일본정부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한 직후인 1906년 3월 제국의회 중의원에 '경부철도매수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1906년 7월 15일 경부철도를 매수하여 경의철도 · 마산철도와 함께 통감부 철도관리국에 직속시켜 버렸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건설되는 간선철도는 모두 일본의 국유 철도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10년 설치된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경부철도를 비롯하여 모든 국유철도를 관할하였다. 그리고 수원 지역을 포함하여 경부철도에 대해 수시로 개량공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일본 세력의 대륙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반도의 경제적 · 군사적 가치가 증대되자, 1936년부터 약 1억 엔의 자본을 투자하여 수송난을 겪고 있는 경부철도 각 구간을 순차적으로 복선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부터 북으로는 영등포-대전 구간, 남으로는 부산진-삼랑진 구간의 복선화 공사를 시작하였다. 수원-군포장 구간 11㎞의 복선공사는 일본인 토건회사 우치다구미(內田組)의 시공으로 1936년 7월부터 시작하여 1937년 10월 완료하여 1937년 11월 1일부터 복선운전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조선총독부 철도

16 『황성신문』, 1905년 5월 29일.
17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6일.
18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0일.

1950년대 초 수원역 철로 보수작업(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국이 진두지휘한 경부철도 복선화공사는 일본의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전시체제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1945년 3월에 완공되었다.

경부철도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중추 철도로서 기능하였다. 한국전쟁 때 잠시 한강철교가 폭파되기도 하였으나 전후에는 디젤 기관차가 투입되어 서울-부산 간의 운행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1974년 서울-수원 전철화를, 2003년 4월 수원-병점 복복선화를, 2005년 병점-천안 복복선 전철화를, 2006년 12월에 전 구간의 전철화를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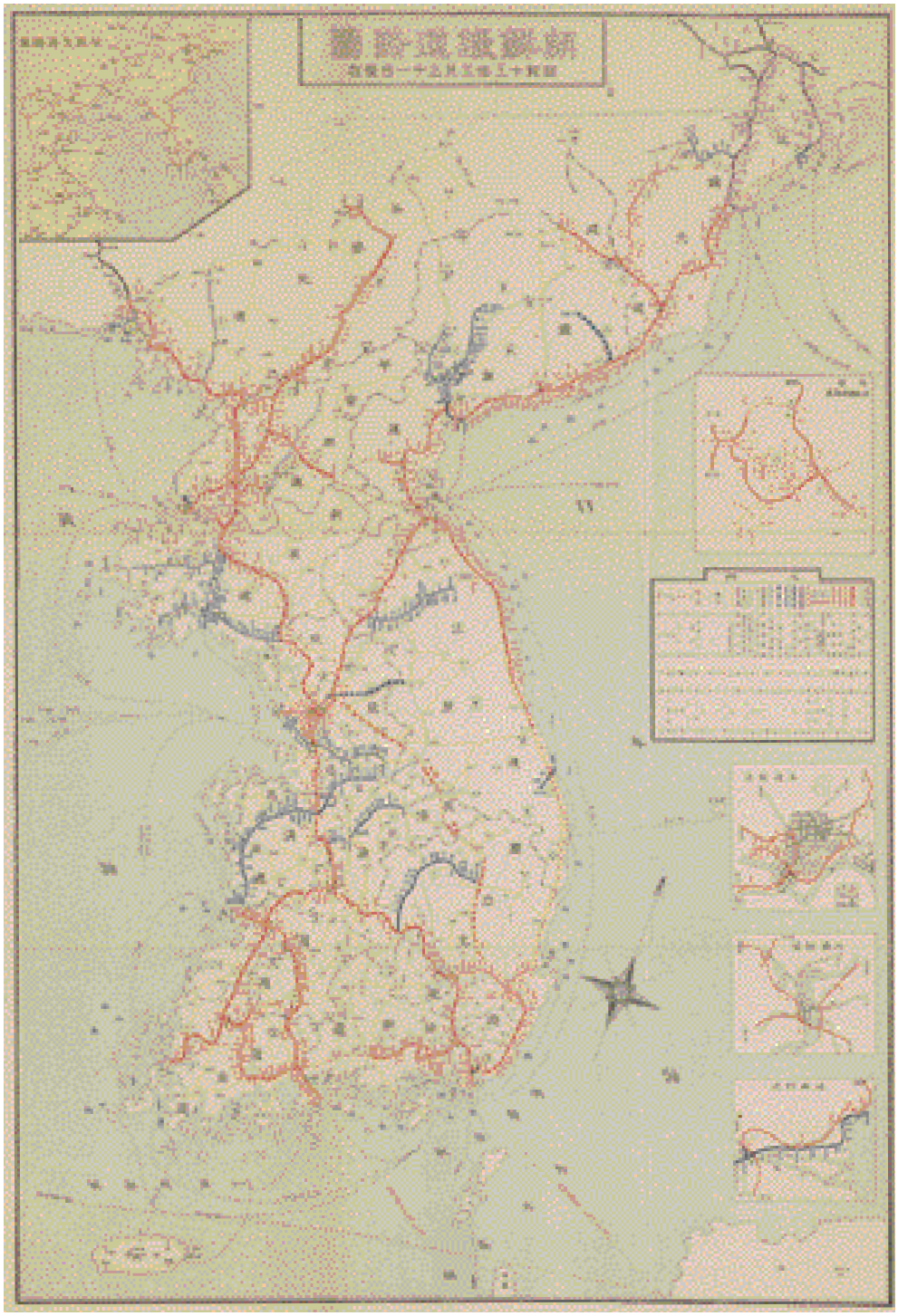
2. 수여선의 부설과 변천

수여선은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1930년 12월 4일 수원-이천 간 53.1㎞에 14개 정차장(역)이 세워져 운행이 개시된 이래, 1931년 12월 7일 이천-여주 간 20.3㎞ 4개 정차장이 공식 개통되어 1972년 3월 31일 운행을 끝으로 42년 만에 폐지된 사철 협궤철도이다.

수여선이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수여선이 지나가던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 있다. 폐선된 지 30여 년 지난 오늘날에도 수여선 협궤열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며 동호회까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19] 수여선 일부는 서류상으로는 빈 땅이나 부지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서 장차 광역전철망으로 부활될 예정이다.[20] 최근 용인시는 신갈-용인 구간에 경전철 건설을 발표해서 수여선이 도시철도로서

19 협궤열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net).

20 도도로키 히로시(轟博志), 『영남대로 답사기』, 한울, 2000, 45~46쪽 참조. 홍승주, 「국철과 전철과 협궤선의 요람」, 『한국철도』, 1985, 82~89쪽에서 필자는 수여선의 길엔 명물고소(名物古所 : 민속촌, 자연농원, 아주대, 경희대, 명지대 등)가 많아 여기에 전철을 놓으면 수입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철도약도」(수원박물관 소장)

일제시기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건물(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40년약사』, 1939)

부활할 기미가 보이기도 한다. 또 '여주선(驪州線)'이라고 해서 성남에서 여주까지 국철이 건설되고 있다.

1920년 3월 3일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원에서 여주까지 73.4㎞ 구간의 면허를 얻어 1930년 11월 30일 수원-이천 간 53.1㎞에 대해 개통식을 갖고 12월 4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1년 후인 1931년 12월 7일에는 이천-여주 간 20.3㎞를 개통시켰다. 당초 자본금은 300만 엔, 차입금은 130만 엔이었다.[21] 일본인 자본가 다가와 쓰네이치로(田川常一郎)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후에 조선평안철도(진남포-용강온천)와 서울의 철도차량 공장인 용산공작주식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다.

조선경동철도는 표준궤도 규격으로 면허를 받고서도 다른 사설철도에 비해 재정기반이 약해 자금 부족으로 규격이 작은 762㎜의 협궤로 건설되었다. 수여선이 가장 안정된 상황이던 1938년 당시 수여선의 운행횟수는 왕복 4편으로, 편도 2시간 23분이 소요되었다. 수원역에서 9시 50분, 13시, 15시 39분, 17시 08분에 출발하였다.

당시 주주총회 자료만으로는 이 회사 경영이 아주 건실하고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객수입만 보면 인구 희박지대를 운행한 금강산 전철과 큰 차이가 없어 경영은 결코 고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객과 물자 수요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요금할인 시책을 펴거나 인천의 송도유원지, 원천유원지, 이천 온천 등 관광시설을 선전하여 집객(集客)·집화(集貨)에 노력하였다.

수여선의 부설은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미곡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일본 사람들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려는 순기능도 고려되었지만, 경동철도의 자본과 경영이 철저하게 일본인 위주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목적은 일본 자본의 내륙 진출과 미곡의 반출이

21 中村進吾, 『鮮內鐵道沿線要覽』, 1932, 159쪽.

1936년 수원관광지도에 보이는 수여선(수원박물관 소장)

〈표 1〉 수원-이천-여주 간 노선 및 정차장[22]

(단위 : km)

정차장명	구분	연장	역간거리
수원(水原)	정차장		
본수원(本水原)	정차장	3.0	3.0
원천(園川)	정차장	6.5	3.5
신갈(新葛)	정차장	12.5	6.0
어정(漁汀)	임시정류장	15.9	3.4
삼가(三街)	정차장	21.8	5.9
용인(龍仁)	정차장	24.1	2.3
마평(麻坪)	임시정류장	28.4	4.3
양지(陽智)	정차장	31.9	3.5
제일(霽日)	임시정류장	35.4	3.5
오천(午川)	정차장	40.0	4.6
표교(標橋)	임시정류장	45.7	5.7
유산(酉山)	정차장	49.4	3.7
이천(利川)	정차장	53.1	3.7
무촌(茂村)	임시정류장	57.6	4.5
매류(梅柳)	정차장	64.4	6.8
신대(神垈)	임시정류장	69.7	5.3
여주(驪州)	정차장	73.4	3.7

22 『조선총독부관보』, 1930년 12월 4일; 『조선총독부관보』, 1931년 11월 27일; 『동아일보』, 1930년 11월 30일; 『동아일보』, 1931년 11월 27일; 견수찬, 「경동철도(수여 · 수인선)의 부설과 변천」, 『인하사학』 10집, 2002, 917쪽 참조.

〈표 2〉 일제시기 수여선 운송 현황[23]

연도	여객수입	화물수입	잡수입	계
1932	286,265	112,622	31,574	430,461
1939	294,548	276,374	41,237	612,159
1942	1,685,505	960,658	129,873	2,776,036

었다.[24]

수여선의 개통이 가까워지면서 이미 수원에는 주변 각지에서 밀려든 농산물이 넘쳐나 수원실업협회(水原實業協會)를 필두로 곡물창고 설치운동까지 벌이고 있었다.[25]

〈표 2〉를 보면 1930년대 초 수여선을 통한 운송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여객의 비중이 더 많았고, 철도 주변 지역의 인구 이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1932년을 전후로 해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수원, 여주, 죽산, 관주 등 내륙 각지의 자동차 운송망을 인수하면서 화물과 여객이 증가해 상당한 영업 이익을 누렸다.[26]

수여선이 개통된 후 운송체계는 수여선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와 우마차 중심의 기존 운송체계와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수하물의 하역 및 운송권과 관련해 기존의 지역 하주(荷主)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조선운송회사와 독점계약을 맺었는데, 용인에서는 항의 소동이 일기도 하였다.[27]

수여선을 건설한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일단 종점을 여주로 삼은 것은 기존의 남한강 수운과의 연결 때문이었다. 조선경동철도는 여주까지의 철도노선 개통 이듬해인 1932년 여주 하항(河港)에서 원주 부론면 흥호리(興湖里)까지 선박 3척으로 하루 4왕복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경동철도가 흥호리를 겨냥했던 이유는 이곳이 조선시대 세곡을 보관하던 흥원창(興原倉)이 있던 곳으로, 일제시기에도 여전히 영서 지방의 물자 집산지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3년 568t, 1935년 2,507t, 1936년 145t 등 원주 지역의 물동량이 줄면서 1937년에는 경동철도의 수운사업은 포기하고 1935년 9월에 받은 철도 연장 면허도 공사 실시를 포기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편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여주에서 신작로를 따라 화물자동차 노선을 개설하고, 이후 양평, 장호원, 충주 등지로 화물 노선을 확장하였으며 나아가 이천, 신갈에서 서울로 직행

23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508쪽.
24 견수찬, 「경동철도(수여 · 수인선)의 부설과 변천」, 『인하사학』 10집, 2002, 918쪽.
25 「京東鐵道開通後는 水原은 穀物 呑吐地」, 『매일신보』, 1930년 8월 8일.
26 철도청, 『한국철도사』, 1979, 547~549쪽.
27 「非合運 壓迫 去益 露骨化-京東鐵道서」, 『동아일보』, 1930년 10월 7일.

하는 트럭 노선도 개설하였다.

여객 수송에서도 철도 연변의 버스회사를 직영화 · 계열화함으로써 철도선 주변의 교통을 장악해 나갔다.[28] 또 1941년 4월에는 수원군 지역에서 서울과 수원 간을 운행하는 경수자동차주식회사를 매수하여 자동차 영업을 하였는데, 경동철도 인수 후에는 착발차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서비스도 개선되었다고 한다.[29] 이처럼 일제시기에는 철도교통이 도로교통보다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체계가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표 3〉 수여선 주변의 신작로 건설 현황[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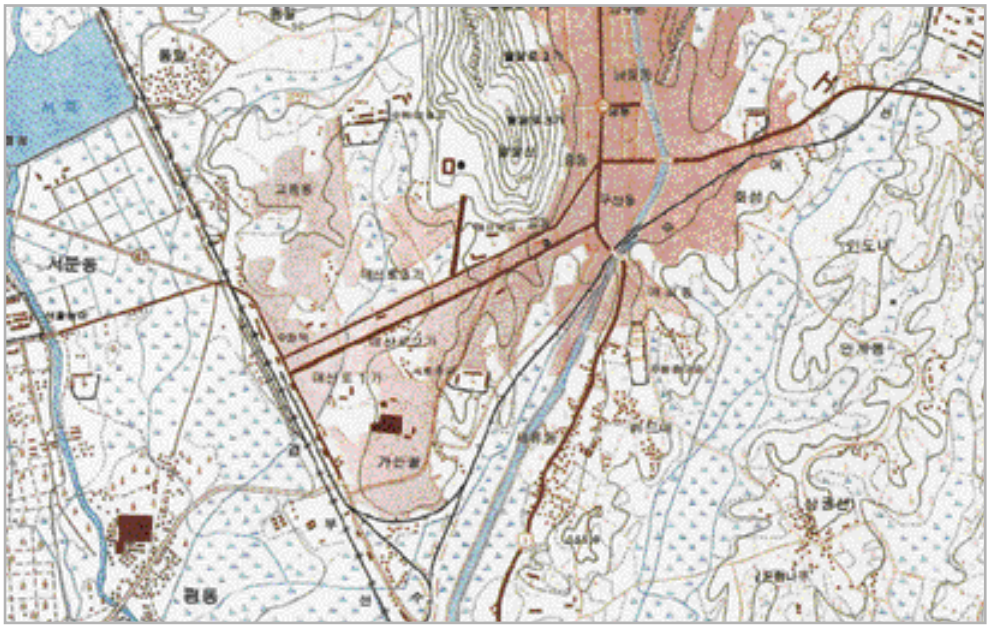
시기	구간	연장거리(㎞)	등급	비고
1908(제1기 도로개업사업)	수원–이천	50.0	2급	현 42번 국도
1911~1917(제1기 치도공사)	이천–장호원	29.4	1급	현 3번 국도
	서울–이천	49.0	2급	현 3번 국도
	이천–강릉	190.4	2급	현 42번 국도

한편 경동철도주식회사는 1935년 7월 5일 이미 여주에서 홍호리 대안(對岸)인 점동면(占東面)까지 노선 연장 면허를 얻었지만, 수인선이 부설되기까지 미루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무산되었다. 그리고 경동철도주식회사는 1942년 조선철도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46년에 국유화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도로망과 도로교통이 점차 발전하여 도로의 접근성이 쉬워지고 노선이 다양해지면서 도로교통이 철도교통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영업망이 철도 수요를 빼앗아 감에 따라 수여선은 적자운행을 계속하다가 1972년 3월 31일에 폐선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수여선 화성역(수원박물관 소장)

28 『수원일보』, 1932년 7월 29일에는 경동철도가 철도와 버스를 독점하게 되면서 서비스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9 이창식,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369쪽.
30 조선총독부, 『조선토목사업지(朝鮮土木事業誌)』, 1928.



지도에 보이는 수여선 노선(「수원시기본도」, 1969)

〈표 4〉 수여선의 변화

일시	내용
1920. 3. 3.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00만 원) 수원-여주 간 부설면허 취득
1926.10.	경동철도기성회(京東鐵道期成會) 결성
1930.12. 4.	수원-이천 간 53.1㎞ 영업 개시
1931.12. 7.	이천-여주 간 20.3㎞ 개통
1941. 4.	경동철도가 수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수자동차주식회사(京水自動車株式會社) 매수
1942. 8.	조선철도주식회사에 합병 매각
1945. 9.	미군정이 철도를 접수
1946. 5.17.	국철로 흡수
1972. 3.31.	폐선

3. 수인선의 부설과 변천

수인선은 1937년 8월부터 1995년 말일까지 수원-인천항 사이를 운행한 협궤열차이다. 수인선의 부설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곳은 1926년 1월 25일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동

해안 강원도 강릉에 이르는 횡단철도 부설 요망서(이하 요망서)」를 제출한 인천상업회의소(仁川商業會議所)이다. 이 「요망서」에서 인천상업회의소는 한반도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강원도 내륙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경부선과 경인선의 수송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주안(朱安) 등 서해안 내륙의 관염(官鹽)을 내륙 깊숙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1] 이어서 이듬해 1월에 인천상업회의소는 재차 수인선 부설을 당국에 제출했는데,[32] 이러한 여론은 수여선을 추진 중이던 경동철도주식회사에도 자극이 되어 1928년 수여선을 인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33]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인선 부설문제는 수여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경동철도주식회사의 자동차 운수업체 인수가 마무리되는 1932년경에야 다시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경동철도회사가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관망에 그치다가 1934년쯤 수여선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채산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당국에 정식 부설허가를 신청하였다.

〈표 5〉 1937년 개통 당시의 수인선 노선 및 정차장[34]

(단위 : km)

정차장명	구분	연장	역간거리
수원(水原)	정차장		
고색(古索)	정차장	3.9	3.9
오목(梧木)	임시 정류장	5.8	1.9
어천(漁川)	정차장	10.7	4.9
야목(野牧)	임시 정류장	13.7	3.0
빈정(濱丁)	임시 정류장	15.1	1.4
일리(一里)	정차장	20.0	4.9
성두(城頭)	임시 정류장	21.6	1.6
원곡(元谷)	정차장	27.9	6.3
신길(新吉)	임시 정류장	29.2	1.3
군자(君子)	정차장	32.4	3.2
소래(蘇萊)	정차장	38.6	6.2
논현(論峴)	임시 정류장	41.5	2.9
남동(南洞)	정차장	42.4	0.9
문학(文鶴)	임시 정류장	45.8	3.4
송도(松島)	정차장	47.0	1.2
인천항(仁川港)	정차장	52.0	5.0

31 인천부, 『인천부사』, 1933, 819~821쪽.
32 「水仁鐵道 不遠間 認可－京阪資産家의 應援下」, 『동아일보』, 1927년 5월 8일.
33 「경동철도의 인천연장 출원」, 『중외일보』, 1928년 11월 19일.
34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8월 6일.

그리고 경동철도회사는 인천 지역 상공인들의 협력을 얻어 1935년 9월 23일 총독부로부터 수원-인천 간 철도부설허가를 얻었다.[35] 1936년 5월 16일 인천 화정(花町) 매립지에서 성대한 기공식을 갖고 6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년 2개월 만인 1937년 8월 6일 정식운행에 들어갔다. 수인선은 총연장 52㎞의 협궤선 열차로 10개의 정식 정차장과 7개의 임시 정류장을 두었으며, 수원-인천 간을 1시간 40분 정도에 달렸다.

수인선의 성공적인 개통 이후 수원-인천 간의 인적 · 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경동철도주식회사는 폭주하는 화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창고시설과 인입선을 확충하고 역사(驛舍)를 증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갔다.[36] 특히, 내륙의 곡류와 해안가의 소금이 속속 집하되면서 인천과 수원 지역의 경기는 호황을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37] 이에 따라 〈표 6〉에서 보듯이 수인선은 화물과 여객이 꾸준히 증가하자 1940년대가 되면서 광궤화와 노선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38] 이듬해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다.

〈표 6〉 1937~1942년 경동철도 영업실적[39]

연도	수입				지출						수익금	비고
	총액	객차 수입	화차 수입	잡수입	총액	보선비 (保線費)	기차비 (汽車費)	운송비	총계비와 관련비	기타		
1937	400,888	139,974	219,151	41,763	324,446	63,837	142,716	80,916	27,666	9,311	76,442	
1938	665,971	218,019	392,665	55,287	634,617	131,011	283,546	118,675	101,041	344	31,354	
1939	612,159	294,548	276,374	41,237	600,721	128,090	258,900	111,226	102,385	120	11,438	
1940	686,720	367,488	275,494	43,738	692,915	120,625	344,200	123,524	102,611	1,955	-6,195	
1941	742,143	394,757	287,760	59,680	924,088	169,445	469,604	134,954	97,468	61,617	-181,945	
1942	427,987	211,303	161,386	55,298	386,026	47,686	195,428	67,863	75,049		41,961	조선철도 '경동선'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 간의 여객수송은 물론 각종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항도 인천과 내륙의 요충지인 수원 사이에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교류를 1일 생활권으로 압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5 「水原仁川間의 鐵道敷設 認可」,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3일.
36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256~1257쪽.
3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7~1938년에 따르면 인천항의 물동량이 1.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8 「水仁線廣軌改替와 港驛改築新要望」, 『매일신보』, 1940년 10월 4일.
3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7~1942.

수인선 열차표(인천광역시립박물관, 『수인선, 두 번째 안녕』, 2012)

수인선 타러 가는 길(수원박물관 소장)

이 철도의 설립 목적은 당시 여주·이천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던 최고 품질의 쌀을 일본 본국으로 보내는 한편, 강원도 벽지의 풍부한 물자를 인천항으로 수송하는 동시에 군자(君子)·소래(蘇萊)·남동(南洞) 등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산간 오지에 수송하는 데 있었다. 또한 조만간에 개장이 될 인천 송도유원지에 철도편을 연결시킴으로써 위락인구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의 경제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40]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인선 개통 후 화물의 수송량이 늘어나 인천항역 구내 야적장에는 강원도 지방에서 벌채한 원목이 가득 쌓였고, 경기 남부의 곡물과 서부의 소금이 창고에 가득 채워져 결국 철도라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조선의 자원은 이출(移出)이라는 이름으로 수탈당하고 말았던 것이다.[41] 해방 이후 수인선 철도는 1946년 5월 10일에 사철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국유철도가 되었다.

수인선은 해방 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증기기관차가 객차 6량, 화물차 7량을 달고 수인선 15개 역을 하루 평균 7차례 운행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등장과 서울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재편되면서 적자가 늘어나자 철도청은 1979년 송도-남인천 간 5.9㎞의 운행을

40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508쪽.
41 이창식, 『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130~131쪽.

수원역을 출발하는 수인선의 뒷모습(수원박물관 소장)

중단하였다. 이어 1992년 7월 소래역-송도역 운행이 끊기고, 수인선 복선전철화 계획이 구체화된 1994년 9월에는 한양대 안산캠퍼스-송도역 26.9㎞ 구간을 폐쇄하여 수원-한양대역까지만 운행하다가 이마저 다시 1995년 12월 31일 완전 폐선되었다.

철도청은 이 협궤열차 운행으로 연간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도 교통수단이 불편한 서해안 주민들을 생각하고 기차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한동안 폐선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인선을 연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수인선의 변화

일시	내용
1926. 1. 25.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동해안 강릉에 이르는 횡단철도 요망서 제출
1926. 10.	경동철도기성회(京東鐵道期成會) 결성
1927. 1.	인천상업회의소 수인선 부설요구 진정서 제출
1935.	수여선 추진 활기를 띰
1935. 9. 23.	수인선 철도부설 인가
1936. 5. 16.	기공식
1936. 6. 1.	공사 시작
1937. 7. 19.	개통식
1937. 8. 6.	정식 운행 시작(52㎞, 17개 정차장 · 임시정류장, 1시간 40분 소요)
1938. 4.	광궤화 논의 시작
1938. 10.	영업 이익 증가에 따라 본격적인 광궤화 논의
1942. 8.	조선철도주식회사에 매각
1945. 9.	미군정 접수
1946. 5. 17.	국철로 흡수
1973. 7. 13.	남인천-송도 구간 철거
1977. 9. 1.	화물 수송 중단
1994. 9. 1.	송도-한양대 구간(26.9㎞) 운행 중지

4. 수원역의 설치와 변화

1) 수원역사(水原驛舍)의 변화

수원역(팔달구 매산로1가 18번지)은 서울 기점 41.5㎞ 지점에 위치한 경부철도의 중요한 역으로, 1930~1940년대에는 경동철도의 수인선과 수여선의 시 · 종착역이었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1931년 12월 7일 73.4㎞의 수여선(수원-여주), 1937년 8월 6일에는 52㎞의 수인선(수원-남인천)의 개통을 보게 되었다. 수원역이 현 위치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 정거장은 수원군청 소재지의 안에 있고, 부근이 황량하지만 기름진 들판이 있어 농산물이 풍부하고, 시장이 2개 있어 물산의 집산지로서 상업 또한 성하다. 정거장의 북쪽 20여 정 거리에 돌산이 있고 양호한 석재의 산지가 있으며, 부근에 동척(東拓), 동산(東山), 국무(國武) 세 농장이 있고, 시가지는 정거장의 동쪽 15정 거리에 있으며, 성내에는 두루두루 20여 척의 높은 성벽과 이에 따른 사대문이 있어 울창한 팔달산이 남쪽에 솟아 있고 동북쪽에는 광교산 등이 산맥을 형성해 뻗어 있다. 서남쪽은 거주자가 거의 없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어 사통팔달한 요충지이다.[42]

경부선 · 수여선이 교차하는 수원역

1920년대 수원역(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1928년 준공한 전통한옥 형태의 수원역(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역 주변의 교통 운행상태에 대해서도 "각지로 통하는 도로는 양호하고 교통 운행과 관련된 것은 공공적이고 편리하다."[43]고 하여 수원역의 교통적인 입지를 알 수 있다.

일제시기였지만 수원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한 결과인지 수원역 건물은 한국 전통가옥 형태로 설계되었다.[44] 전통한옥 형태의 역사를 가진 역은 경주, 전주, 남원 등 역사성이 깊은 지역이었다. 수원역사는 1927년 6월 13일 1만 원 예산으로 전통 한국식으로 설계하여[45] 1928년 8월 27일 낙성식을 가졌으며,[46] 1928년 9월 1일 수원역 준공식을 가졌다. 수원역은 총건평 177평에 공사비 2만 8,000여 원이 들어갔고, 건물의 외관은 벽돌 단층에 한식 기와집이며, 내부 대합실 천장에는 격자(格子) 문양을 넣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광물성 채색도료를 사용하였다.[47]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수원역사가 전소되는 참화를 겪고, 1961년 9월 20일에 신역사가 신축·준공되었다. 이어 2003년 2월에는 연면적 2만 500평, 부지 6,200평의 규모에 역무시설, 백화점, 편의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역사를 준공하였고 2011년 현재는 민자역사로서 AK플라자 수원점이 영업 중이다. 수원역은 새마을호를 포함한 모든 여객 열차가 정차

42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권, 1914, 94쪽.
43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권, 1914, 94쪽.
44 「고적 많은 정거장 조선식으로 건축」, 『동아일보』, 1928년 4월 2일; 「純古式으로 水原驛을 新築」, 『매일신보』, 1928년 4월 4일.
45 「1만원 예산으로 수원역 신축, 순 조선식으로 설계」, 『동아일보』, 1927년 6월 13일.
46 「조선 고대식으로 신축한 수원역(사진) 수원역 낙성, 순 조선식으로 내일부터 개통」, 『동아일보』, 1928년 8월 27일.
47 「수원역 준공」, 『동아일보』, 1928년 9월 1일.

1970년대 수원역

2000년대 초에 신축된 수원역

하며 2010년 11월 1일부터 하루 왕복 8편성 KTX도 정차한다. 한때 수도권 전철 통근형 전동차는 모두 이 역에서 시·종착하였으나, 병점역과 그 이남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현재는 이 역에서 시·종착하지 않는다. 2006년 7월 한국철도공사 지사제 발족 당시 수도권 남부지사의 지사 소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9월 업무 효율과 핵심사업 실행, 현장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각 지사가 지역본부로 축소되면서 수도권 남부지사와 서부지사가 합병되어 수도권 서부본부가 되었고 본부 대표역으로 수도권 서부지사가 소재한 영등포역이 지정되면서 지역본부 대표역의 역할을 위임하였다. 강남역과 비슷하게 약 80개의 버스노선이 있다.

2) 일제시기 수원역의 운송과 창고 기능

수원역이 개통된 지 5년여가 흐른 1910년 수원역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원역 주변에 있었던 관공서로는 수원군청, 경찰서, 구재판소(區裁判所), 헌병분대(憲兵分隊), 우편국(郵便局), 수비대(守備隊),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경기도수원묘포(京畿道水原苗圃) 등이 있었다.[48]

수원역의 전체적인 여객 및 화물의 물동량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은데, 특히 1930년대

48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권, 1914, 94쪽.

초의 경제공황 여파로 물동량이 잠시 준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과 화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표 8〉 수원역의 여객 · 화물 물동량[49]

연도	승객(명)		소수하물(근)		화물(톤)		운수수입(원)		
	승차	하차	발송	도착	발송	도착	객차	화차	합계
1906	41,632	46,991	22,759	6,111	61,723	2,672	22,109	6,899	29,009
1907	75,836	82,694	42,262	80,184	9,778	3,128	37,922	15,483	53,405
1908	51,508	56,236	45,693	126,228	5,283	5,957	43,416	10,528	53,944
1909	42,830	46,661	42,818	114,573	6,502	3,838	37,710	12,928	50,638
1910	40,633	44,133	47,218	114,958	7,537	4,539	36,809	23,602	60,411
1911	46,841	50,788	49,893	139,980	13,732	5,724	43,587	29,857	73,444
1912	85,129	91,427	58,655	166,537	7,240	8,900	49,334	25,195	74,529
1913	93,397	99,810	55,942	167,316	7,738	10,554	54,905	39,291	94,196
1914	87,984	93,944	63,053	212,034	8,684	9,978	52,207	32,647	84,854
1915	95,029	101,232	63,587	202,451	12,945	11,193	56,139	41,150	97,289
1916	97,905	104,293	56,662	191,102	12,106	11,604	58,492	38,420	96,912
1917	119,378	128,333	64,658	211,066	14,873	13,248	68,997	48,655	117,652
1918	150,594	157,050	187,462	445,067	17,366	12,085	89,683	39,974	129,657
1919	191,909	189,785	243,407	666,185	16,252	15,974	123,273	36,930	160,203
1920	196,048	197,986	235,313	527,016	18,108	17,811	134,251	34,244	168,495
1921	217,745	222,896	151,022	490,352	24,238	19,858	145,619	46,365	191,984
1922	225,873	225,884	152,205	488,878	19,749	24,440	152,566	37,067	189,633
1923	225,927	231,852	164,199	451,951	23,274	35,749	145,620	51,345	196,965
1924	225,458	233,227	182,077	443,187	23,969	24,175	140,824	53,857	194,681
1925	231,082	231,517	170,154	429,516	32,944	25,958	134,815	69,198	204,013
1926	237,014	242,828	162,491	440,340	31,899	32,969	144,731	89,439	234,170
1927	234,363	241,371	179,126	–	32,241	33,211	151,523	67,864	219,387
1928	248,364	255,010	166,994	–	26,920	33,614	160,799	62,923	223,722
1929	264,108	266,416	140,605	–	26,713	28,549	159,814	59,408	219,222
1930	251,676	261,243	87,242	–	26,308	39,349	143,117	58,074	201,191
1931	219,551	229,032	71,619	–	24,744	29,976	124,042	54,449	178,488
1932	220,090	228,330	60,216	–	24,761	23,691	120,854	52,763	173,617
1933	207,752	219,633	63,636	–	27,603	28,358	123,773	61,933	185,706
1934	231,077	247,519	69,228	–	32,697	35,717	137,455	73,549	211,004
1935	252,012	266,078	80,323	–	26,200	36,961	152,496	68,192	220,688
1936	274,210	278,434	94,649	–	21,806	57,837	175,490	62,282	237,772
1937	262,601	267,782	94,968	–	26,356	67,669	176,252	98,345	274,597
1938	325,839	322,096	99,245	–	46,476	40,561	217,523	102,216	319,739
1939	431,595	433,281	135,661	–	36,088	49,395	303,995	126,146	430,141
1940	557,565	588,984	166,206	–	25,793	40,404	377,612	106,665	484,277

4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06~1940.

특히 1938년의 승객 · 화물 수송량과 운수 수입이 증가한 것은 경동철도의 수인선 개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과 〈표 10〉을 보면 1910년과 1911년 경부선 주요 역 가운데 수원역은 각종 화물 운송량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편이었다.[50] 수원역에서 주로

〈표 9〉 1910년 수원역 발 · 착 화물 수량

발송화물		도착화물					
종류	수량(t)	종류	수량(t)	종류	수량(t)	종류	수량(t)
미(米)	2,866	미(米)	102	가구(家具)	160	석재(石材)	172
대두(大豆)	1,081	맥(麥)	49	주(酒)	91	석탄(石炭)	96
잡곡(雜穀)	674	생과(生果)	76	미쟁장유(味噌醬油)	58	석유(石油)	273
생과(生果)	37	야채(野菜)	55	사탕[砂糖]	43	목재(木材)	319
연초(煙草)	67	연초(煙草)	62	식료품(食料品)	45	석탄(石炭)	42
우피(牛皮)	59	승입(繩叺)	82	방적사(紡績絲)	30		
가구(家具)	95	선어(鮮魚)	36	금건(金巾)	158		
금건(金巾)	88	염간어(鹽干魚)	88	마포(麻布)	65		
석재(石材)	309	명태(明太)	210	지류(紙類)	40		
목재(木材)	307	염(鹽)	70	인촌(燐寸)	41		
신(薪)	1,199	해초(海草)	77	도자기(陶磁器)	30		
묘목(苗木)	73	금속기(金屬器)	62	연와(煉瓦)	230		

〈표 10〉 1911년 수원역의 화물 종류별 현황

품목명		수량(t)	품목명		수량(t)
쌀	탁송	1,653	야채	착하	49
	착하	131	식료품	탁송	14
보리	탁송	9		착하	52
	착하	23	신탄	탁송	742
콩	탁송	1,431		착하	14
	착하	2	금속기류	탁송	30
잡곡	탁송	19		착하	35
	착하	20	가구류	탁송	96
곡분	탁송			착하	96
	착하	17	목재	탁송	205
선어	탁송			착하	302
	착하	27	석재	탁송	383
염간어	탁송	4		착하	9
	착하	61	기와	탁송	5
야채	탁송	42		착하	314

50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권, 1914, 14쪽; 『조선산업지』 하권, 동경 보문관, 1911.

수원역에서 쌀을 운반하는 모습(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취급되었던 화물로는 쌀 · 보리 · 콩 등의 곡식과 선어(鮮魚) · 염간어(鹽干魚) 등의 해산물 그리고 금속기류 · 가구류 등이었다. 수원역의 경우 화물 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았던 것을 쌀을 비롯한 곡물이었다. 그러나 1910년에 쌀 발송량이 2,866t이고 도착량이 102t이며, 1911년에도 발송량이 1,653t이고 도착량이 131t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볼 때 수원은 쌀의 집화지였음을 알 수 있다.

1932년 7월 한 달 승 · 하차 인원과 화물 수송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12위, 경부선 역 중에는 7위였다.[51] 또 1936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전국 역 가운데 연간 20만 명 이상이 승강하는 역을 선정하여 통계를 내었는데, 수원역은 최상위인 서울과 평양에 이어 19위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수원이 얼마나 활기찬 도시였으며 상공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1〉 수원역 창고 영업 수입

연도	건평(평)	영업일수(일)	입고톤수(t)	출고톤수(t)	재고 연일 톤수(t)	일일평균 재고톤수(t)	수입(엔)		
							창고료	기타	합계
1916	60	172	1,680	1,359	54,912	319.3	430	92	522
1917	60	365	3,726	2,946	159,125	436.0	1,036	29	1,065
1918	60	365	5,205	4,636	250,615	686.6	1,361	41	1,402
1919	240	366	9,450	8,285	438,493	1,198.1	2,840	568	3,408
1920	150	365	1,733	4,388	450,284	1,233.7	7,707	1,523	9,230
1921	60	365	1,038	1,086	79,838	218.7	1,605	355	1,960
1922	60	365	418	494	22,314	61.1	7	5	12
1923	60	366	833	713	35,817	97.9	662	14	676
1924	60	365	466	539	29,554	81.0	474	7	481
1925	60	365	461	488	21,778	59.7	550		550
1926	60	365	287	329	11,602	31.8	453	7	460
1927	60	366	623	500	27,891	76.2	398		398
1928	60	365	430	522	39,873	109.2	1,144		1,144
1929	60	365	289	320	10,122	27.7	143		143
1930	198㎡	168	34	68	850	5.1	110	1	111

51 「客月中의 水原驛 業績」, 『매일신보』, 1932년 8월 9일.

한편 수원역의 창고 운영에 따른 수입은 〈표 11〉에서 보듯이 경부선의 다른 역에 비해 특별할 것은 없고,[52] 1910년대의 창고 운영이 1920년대보다 활기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3) 해방 이후 수원역의 변화

수원역의 철도 수송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도성장을 하기 시작하자, 경부선에서 수원역 수송화물은 급진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도의 철도 운송실적을 보면 여객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화물은 크게 증가하였다. 여객운송은 승차인원이 179만 8,593명이고 강차인원은 이보다 약간 적은 154만 4,516명으로 나타났다. 화물 수송 실적은 발송이 142만 7,864t, 도착이 30만 9,890t으로 발송 화물이 많다.

1970년 수원역의 총수입은 1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여객 수송 수입은 1억 3,100만원(82%)이다. 1980년의 철도 수송 실적은 여객은 승차(176만 5,140명), 강차(190만 1,650명) 등 모두 366만 6,790명이 수원역을 이용하였다. 화물은 발송이 4만 4,200t, 도착이 89만 6,844t으로 화물수입은 1억 7,000여 만 원에 달하였다. 1980년도 수원역의 총수입은 26억 8,000만 원에 달하였다.

추석을 맞아 수원역에서 귀향하는 귀성객(경인일보, 『경기근현대사진전』, 2010)

1990년에는 수원역을 거쳐 나간 이용객수가 4,645만 명으로, 여객수입은 207억 7,000만 원에 이르렀다. 화물은 발송 5만 8,499t, 도착 125만 7,543t 등 모두 130여 만t에 이르고 화물수입은 2억 5,700만 원이다. 1970~1990년의 경우 여객은 약 14배 증가하였고 화물은 오히려 23% 감소하였다. 1995년 말 현재 수송 실적은 여객이 승차 2,587만 7,324명, 강차 2,462만 1,630명 등 모두 5,049

5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6~1930.

만 8,954명에 달하고, 화물은 발송 11만 6,845t, 도착 82만 6,956t 등 총 94만 3,801t으로 나타났다.

〈표 12〉 철도 수송 추이[53]

연도	여 객			화 물		
	승차인원(인)	강차인원(인)	여객수입(백만원)	발송톤수(t)	도착톤수(t)	화물수입(백만원)
1970	1,798,593	1,544,516	131.3	1,427,864	309,890	28.3
1980	1,765,140	1,901,650	2,505	44,200	896,844	173
1990	26,151,440	20,306,622	20,771	58,499	1,257,543	257
1991	28,741,649	22,644,978	23,721	74,588	1,252,407	287
1992	28,688,772	26,951,781	24,616	111,532	1,097,369	63
1993	27,276,984	26,275,876	27,512	112,987	997,747	46
1994	25,682,595	22,822,982	29,334	117,283	884,974	45
1995	25,877,324	24,621,630	31,347	116,845	826,956	68

5. 철도의 발달과 수원의 변화

오늘날 수원 지역의 교통 흐름은 일제시기의 교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시기 수원 지역의 철도는 여러 면에서 경기 남부 지역 교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자동차 교통이 미미했던 그 시기에 수원 지역의 철도교통은 오늘날에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였다. 철도교통의 발달이 가져온 수원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자.

철도교통이 발달하면서 수원 지역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우선 경제적인 것이다. 철도가 수원에 들어오기 전 수원의 장시와 연결되는 오산, 발안, 남양은 직 · 간접적으로 수로와 연결되어 있고, 포구와 같은 수상교통의 거점을 두고 있었다.

진위-안성천 유역은 진위천, 안성천,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 등이 아산만을 하구로 하는 하나의 하천과 그 지류로 보아도 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안성천과 황구지천을 제외하면 수운은 발달하지 않았다. 지형으로 볼 때 현재 신갈저수지 부근의 불당골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신갈천은 오산천으로 모여 아산만에 이르고, 북쪽의 하천들은 탄천으로 모여 한강에 합류되었다. 현재 오산천은 신갈저수지로 모였다가 금곡천

53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1971~1996.

을 이루고, 동탄면과 오산시를 흘러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에서 진위천과 합류한다. 안성천의 지류인 진위천은 이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만나 서해로 흘러간다.

발안천은 발안장까지 배를 올려 이후 수원장으로 유통 경로를 만든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양성현의 비지(飛地)인 옹포(瓮浦)에 두어 세수를 보태고 거리비용을 줄였다. 옹포는 우리말로 '독개'라고 부르는데, 현재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독개마을로 그 이름만 남겼다. 유포, 구포 및 빈정포는 남양에 속한 주요 포구로 앞서의 언급대로 수원장과 연결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경부선 개통 이후인 1911년의 수원 지역 수운 상황은 빈정포에서 인천으로 사시사철 운항하는 배가 15척이 있었으며, 곡식을 200섬에서 500섬 정도를 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배운임은 인천까지 곡류 한 섬에 5전(錢), 마포까지 8전을 받았고, 시장에서 선착장까지 운반하는 데는 우마차로 1대에 1원 80전, 소짐으로 45전, 짐꾼은 1리(4㎞)당 15전을 받았다.[54] 수원장은 육운을 통해 용인, 남양, 양지, 이천 등까지 포섭범위가 매우 넓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 1911년부터는 신작로 개설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의 영향으로 지역마다 우마차 사용빈도도 높아졌다. 이전에는 장거리 대량운송을 위한 수단이 거의 수운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면서 이 문제는 수운과 철도라는 두 운송방식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수원장은 성안장과 성밖장으로 나뉘어 번갈아 개시되었는데 성안장은 매달 9일, 19일, 29일, 성밖장은 4일, 14일, 24일이 개시일이었다. 장 주변은 둔토로 운영되던 넓은 논이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북쪽 석산(石山)에서 채취한 양질의 석재, 그리고 주변 장에서 모인 소와 각종 물자 등으로 장날 평균 거래액이 2만 원(圓)으로 조선 3대 시장으로 일컫는 안성장의 1만 5,000원보다 많았다. 부근에 동양척식회사 출장소, 동산농장, 그리고 국무농장 등 일본인 농장이 들어선 것도 이와 같은 수원장의 장세(場勢)와 수원역 때문이다.[55]

일제 농장들은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원장을 거쳐 서울, 인천,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는데, 1911년 한 해에 동양척식회사의 경우 벼 8,962섬, 콩 2,086섬을, 동산농장은 벼 6,800섬, 콩 1,285섬, 그리고 국무농장은 벼 1,690섬, 콩 220섬을 철도편으로 실어 내보냈다. 수원 지역 내에서 시장에 모인 주요 곡물의 수량은 쌀이 6만 섬, 콩이 1만 1,353섬, 팥이

54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 1912 참조.
55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 1912 참조.

2,116섬이었다. 수원장에는 상설 상점들이 있었는데, 주요한 거래품목을 보면 미곡상점이 12곳(이 중 일본인 상점은 6곳), 정미(精米) 상점이 2곳(모두 일본인 상점), 잡화상점이 29곳(일본인 11곳), 직물상점이 4곳(일본인 2곳), 연초상점이 6곳(일본인 1곳)이며, 우피상점이 3곳, 제지(製紙) 상점이 1곳이며, 일본인이 운영하는 재목상(材木商)이 1곳이다.[56]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수원을 경유하고, 1931년 전 구간이 개통된 수여선과 1937년 개통된 수인선이 수원을 기점으로 삼으면서 서해안의 소금을 비롯한 해산물과 여주 일원의 쌀이 수원을 경유하여 집산하는 등 물산의 경유지로서나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수원의 위치는 확고해졌다.

경부선은 시흥대로를 기반으로 수원을 경유하였고, 후에 생긴 수여선과 수인선 또한 수원을 매개로 인천과 내륙의 여주가 동서로 연결되면서 교통요지로서의 수원의 우위는 확고해졌다. 이미 서울과 공주, 전주를 연결하는 요충에 위치한 수원의 수원장은 인천 개항과 경부선 개통으로 더욱 번창하였으며, 반면 경기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인 안성장 또한 경부선 철도 운송과 연계되어 유통의 효과를 보아 거래액은 늘었지만 안성천의 수운 기반이 약해지면서 수원장에 밀리게 되었다.

1913년경 수원의 장시는 경기 남부에서 최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오산장 역시 가장 큰 장시의 하나로서 자리 잡았다. 안성장도 비록 순위는 뒤집혔지만 규모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 즉 모두가 경부선 개통의 효과를 본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철도역에 위치한 장시가 급성장하는 현상과 일치한다. 이러한 효과로 성장한 수원장, 오산장 및 안성장은 철도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시와의 관계에서 한 단계 높은 위계에 서게 된다. 여기에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철도역 주변 장시들의 중심지적 성격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수원장의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평택역을 놓고 보면 죽산이나 진천 등지에서 안성시장으로 모인 물자 중에는 이 역을 통해 서울과 지방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즉 안성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던 유통라인 중 일부가 평택 쪽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수원역은 곡류, 우피(牛皮)의 유입처로서 용인 · 양지 그리고 남양 등이 나오는데, 이천 지역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물자 유통은 철도와 수운의 두 수단이 지역경계를 이룰 정도로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었다.[57]

한편, 1927년 9월 15일에 천안으로부터 장호원까지 사설철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천안에서 출발하면 직산–고지–미양–안성–죽산–주천–장호원에 이르는 충북선은 조

56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 1912 참조.
57 조선총독관 방토목부, 『治水及水利踏査書』, 1920; 조선총독부, 『朝鮮河川調査書』, 1929 참조.

선경남철도주식회사(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가 건설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조치원-충주 간 노선이 보완되어 충청북도 북부와 경기 남부의 지역들이 큰 편차 없이 화차(貨車)를 통한 화물 운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그만큼 수원장이나 안성장 등이 갖는 중심적인 위치가 약화되어 감을 뜻한다.

일제시기 수원역 앞 전경(수원박물관 소장)

이천·여주 지역에서 장호원선이 담당했던 운송역할은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수여선을 부설하면서 역할이 옮겨지게 되었다. 수여선을 통해 집하된 곡물의 대부분은 경부선을 통해 서울, 인천, 일본, 만주 등으로 유출되었다. 물자 유입에서도 경부선에서 수여선으로 옮겨 현지로 가기도 하지만 수원역에서 바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어 모두를 합치면 이전에 수운으로 움직이던 물동량을 모두 합한 양이 되었다. 그러나 수원역이 중개역할을 하는 동안 수원장 자체의 역할은 오히려 줄어 예전의 중심성은 더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철도역 부근에 위치한 장의 이점이 점점 사라져 감을 의미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 조치원선, 장호원선, 수여선 등의 노선이 깔리게 된 것은 결국 그 영향을 골고루 받아 거의 모든 지역들이 장거리 유통과 관련한 접근성의 불균등성이 해소되어 간 것이다.

수인선은 수원장의 중심성을 높여 주는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주 등지의 곡물과 염전지대의 소금이 수원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되는 측면도 있어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 수원 지역의 철도를 도시 발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일제시기 이전의 수원은 화성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중심 역할이 펼쳐졌다. 그러나 근대 교통수단으로 파급 효과가 큰 철도가 화성 밖 수원의 서쪽을 지나면서 이후 수원의 중심은 옮겨 가게 된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수원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고 결국 일제시기 수원의 도시 발달은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물론 협궤열차로 수여선과 수인선이 수원 남북 밖을 지나면서 역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가 더욱 발달하였다. 8·15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고 오늘날의 수원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수원역 앞 전경

2000년대 수원역 일대

우리나라 간선철도의 가장 큰 축인 경부선이 용인-죽산 노선을 택하지 않고 수원을 지나게 된 것은 당시 수원 지역의 경제적인 위치가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 지역 사람들이 정조 관련 역사 유적을 지키기 위해 경부선이 지지대고개를 뚫고 팔달산

서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반대하여서 오늘날까지 많은 역사 유적이 지켜지게 되었다.

수원역은 한국 간선철도의 핵인 경부철도와 경기 남부 지역의 동서 간 물자운송을 책임진 수여선, 수인선의 중심역이었다. 수원역은 경부선 개통 시에는 보통역으로 출발하였지만 수여선이 개통된 이후부터는 여객과 물동량이 늘어나서 상당히 중요한 역으로 성장하였다. 역사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식 전통 가옥형태로 건축하여 역사성 있는 도시의 상징을 갖게 됐으며, 이후 여러 번의 개축과 신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편, 철도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위한 수탈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근대 문물의 편리함을 제공한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수여선과 수인선은 일제시기와 1960~1970년대의 산업화시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역사이다. 1970년대 이후 철도교통이 도로교통의 편리함에 밀리기는 했지만, 오늘날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정교통수단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열차 운행의 흔적을 아주 지워 버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 본다.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1. 촌락의 발달 과정
2. 촌락의 입지
3. 촌락의 형태와 경관

제5장

수원의 촌락 형성과 발달

촌락은 한 가족의 거주공간인 가옥이 모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최소단위이다. 우리가 '마을'이라고 일컫는 촌락의 역사는 인간이 정착생활을 시작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리학에서는 촌락이 도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촌락이 성장하여 도시로 발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촌락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도시와 촌락의 구분이 쉽지 않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 산업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도 촌락과 도시의 구분이 모호한 지역들이 많다.[1]

수원은 일찍이 1949년에 시로 승격하였으며, 1967년에 경기도청의 소재지가 되면서 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비대해진 서울의 주거와 공업기능을 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이 주를 이루는 전통적인 향촌사회의 기본단위로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수원의 촌락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두 그 순수성과 고유성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화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변화된 것 자체가 다른 지역의 그것과 구분되는 수원 촌락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1 최영준 · 정치영 외,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 · 용인문화원, 2000, 149쪽.

이 장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원의 촌락을 다룬다. 따라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촌락, 즉 자연마을이 서술의 중심을 이루며, 도시화로 생긴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원의 촌락이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해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수원의 촌락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눈 다음,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그 입지와 형태 그리고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들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의 입지란 터 잡기를 뜻하는데, 마을이 형성되는 시기에 한 번 정해진 후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마을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주민들의 생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을의 입지를 살펴보면, 마을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주민들의 자연관과 복거관(卜居觀) 등 환경에 대한 가치인식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마을의 형태란 마을을 구성하는 가옥의 배열상태를 말하는데, 마을이 위치한 장소의 자연적 · 역사적 배경, 그리고 사회 ·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첫 주민이 정착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가, 가구의 유입과 이출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이러한 마을의 형태와 경관을 살펴봄으로써 주민들이 외부의 여러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왔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마을이 다시 주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촌락의 발달 과정

수원에 언제부터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정착하여 촌락을 형성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수원의 선사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파장동에서 발견되었으나,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 지역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한 것은 청동기시대부터로 추정된다. 수원의 서남쪽인 권선구 일대에서는 농경 및 주거생활과 관련된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며, 서둔동의 여기산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집터가 발견되어 청동기에서 철기시대에 걸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2]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촌락의 형성을 의미하며, 특히 여기산 유적에서는 집터 주변의 수습된 토기에서 볍씨 자국이 발견되어 벼농사를 바탕으

〈그림 1〉 여기산 선사유적지 전경

로 한 촌락이 이곳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차례로 백제 · 고구려 · 신라의 영역이 되었던 수원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촌락들이 많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수주(水州)라고 불렸던 고려시대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촌락이 계속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의 한계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간접적인 것이나마 수원의 촌락 형성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이다. 고려 말에 수주에서 수원으로 이름을 바꾼 수원 지역에는 조선 초기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가 설치되었다. 1454년(단종 2)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당시 수원도호부의 호수(戶數)는 1,842가구, 인구는 4,926명으로,[3] 경기도의 군현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었다. 또한 같은 책에 수원도호부는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고, 간전(墾田)이 1만 9,154결(結)이며, 이 중 논이 조금 적다고 기재되어 있다.[4] 농경지 면적 역시 경기도의 군현 중에서 1위에 해당한다. 당시 수원도호부의 영역이 현재의 수원시보다 상당히 넓었다는 점을

2 수원시,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53~54쪽.
3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
4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인구 규모와 농경지 면적으로 미루어 보아 넓은 농경지를 바탕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촌락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수원도호부에 토성(土姓)[5]으로 최(崔)·김(金)·이(李)·서(徐) 등 4개의 성씨가 있고, 서울에서 온 성[6]으로 백(白)씨가 있으며, 촌락성(村落姓)으로 하(河)씨, 망성(亡姓)[7]으로 백·최·이·방(方) 등 4개 성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8] 고려시대 이래 최·김·이·서·백 등이 주요한 성씨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수원의 촌락 발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먼저 1789년(정조 13)에 작성된 『호구총수(戶口總數)』를 꼽을 수 있다. 『호구총수』는 일종의 인구 통계집으로, 당시 전국 군현의 면별 호수와 남녀 인구수뿐만 아니라 면별 리 이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호구총수』가 편찬될 당시, 수원부의 범위는 지금의 수원시를 포함하여 오산시 전역과 화성시·평택시의 일부에 걸쳐 있었으며, 모두 50개 면을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 수원부의 호수는 1만 5,121가구(면별 호수 합계는 1만, 5,139호), 인구는 5만 7,660명으로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수원의 인구 증가는 새로운 촌락의 형성과 기존 촌락의 발달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원의 인구 증가와 촌락 발달에는 수원이 지닌 지리적 특성이 작용하였는데, 먼저 수원은 왕도와 가까워 사대부들의 거주지로 선호되었다. 사대부들은 정치적 핵심인 수도에 인접해 거주함으로써 관료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학문과 사상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 획득에도 유리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수원 일대는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는 들판이 펼쳐져 있고 어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와도 멀지 않으며 교통도 편리한 편이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호구총수』에 기록된 면 가운데 현재의 수원시에 해당하는 면들과 당시 광주목·용인현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 수원시의 범위에 속하는 면에 소속된 리와 인구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2,004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현재의 팔달구 고등동 등에 해당하는 고등촌면이며, 인구 규모가 가장 적은 면은 현재의 송죽동 등에 해당하는 일용면이었다. 특히 고등촌면은 당시 수원부의 50개 면 중 인구 규모에서 2위일 정도로 인구가 많았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촌락의 발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토성이란 고려 초 성씨의 분정(分定) 시 그곳에 토착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유력한 씨족 또는 그곳을 본관으로 하면서 읍사(邑司)를 구성하였던 성씨집단을 의미한다.
6 '경래성(京來姓)'이라 표기되어 있다.
7 종래의 토성이 소멸되거나 타지로 이주하여 이미 지역에서 없어진 성씨를 말한다.
8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

〈그림 2〉 조선 후기 수원부(『동국여도』, 「수원부」,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리고 조선 후기 수원의 촌락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으로 수원의 읍치 이전을 빼놓을 수 없다. 1793년 정조는 수원의 신읍치를 '화성(華城)'이라 이름하였고, 1794년부터 1796년까지 화성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화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촌락들이 형성되었으며, 화성 주변의 기존 촌락들도 큰 발전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자세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화성 건설이 끝난 1796년을 전후한 시기에 성 안을 중심으로 부의 읍치 주변에 관아 · 전방(廛房) · 민가가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적 면모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읍내 지역은 남부

〈표 1〉 조선 후기(1789년) 수원의 면리(面里)와 면별 인구[9]

군현	면	리	인구(명)
수원부	호매절면(好每折面)	대수리(大授里), 서원리(書院里), 어량천리(於良川里) (3)	1,693
	공석면(空石面)	천천리(泉川里), 방축리(防築里), 율전리(栗田里) (3)	859
	광교면(光敎面)	매산리(梅山里), 인동리(仁洞里) (2)	888
	고등촌면(古等村面)	장지동리(長之洞里), 권동리(權洞里), 고양동리(古陽洞里) (3)	2,004
	용복면(龍伏面)	고삭리(古朔里), 기전리(旗田里), 고사리(庫舍里) (3)	676
	장족면(長足面)	매탄리(梅呑里), 권선리(權善里) (2)	1,051
	일용면(一用面)	송죽리(愛竹里) (1)	646
광주목	월곡면(月谷面)	일리(一里), 이리(二里), 대대동(大岱洞), 입북동(笠北洞), 오룡동(五龍洞), 사사리(沙士里), 상초평(上草坪), 하초평(下草坪), 당수리(棠樹里) (9)	1,049
용인현	지내면(枝內面)	상리(上里), 수하동(水下洞), 하동(下洞), 호천동(狐川洞), 의곡덕동(義谷德洞), 영통리(靈通里) (6)	1,783

와 북부로 읍면 단위의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그 동리의 구획도 남성자내(南城字內), 서성자내(西城字內), 동성자내(東城字內), 북성자내(北城字內) 등으로 분계(分界)와 분속(分屬)이 이루어졌다.[10]

화성 건설 이후 19세기의 수원의 촌락 발달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831년(순조 31)에 편찬된 『화성지(華城誌)』 방리조(坊里條)에 수록된 촌락명을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행정구역에 변화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표 1〉에 없는 새로운 촌락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부의 상류천과 하류천, 상지장포와 하지장포 등은 촌락의 발달에 따라 분동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부의 군기동(軍器洞)·장안동(長安洞) 등은 화성 신읍치 건설에 따라 형성된 촌락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늘날 수원을 이루고 있는 촌락 이름들이 대부분 나타나 이 시기에 이르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수원 촌락의 짜임새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1831년경 수원의 면별 촌락[11]

면명	리명	리수
남부(南部)	남창동(南倉洞), 남수동(南水洞), 매향동(梅香洞), 구천동(龜川洞), 산루동(山樓洞), 교동(校洞), 하류천(下柳川), 장지촌(長芝村), 향목정(香木亭), 독산리(禿山里), 상류천(上柳川), 하지장포(下芝長浦), 상지포(上芝浦), 벌리(洑里), 세동리(細洞里), 권동(權洞), 천동(川洞), 내동(內洞), 우만리(牛滿里), 신폭(新幅)	20

9 『호구총수』. 현 수원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면리를 정리하였다.
10 최홍규 편,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2~40쪽.
11 『화성지』. 붉은 글씨로 쓰인 면이 현 수원시 관할구역에 해당한다.

면명	리명	리수
북부(北部)	보시동(普施洞), 북수동(北水洞), 장안동(長安洞), 군기동(軍器洞), 신풍동(新豊洞), 관길동(觀吉洞), 역촌(驛村), 용연(龍淵), 지소동(紙所洞), 광교동(光敎洞), 서둔동촌(西屯東村), 고양동(高陽洞), 화산동(花山洞), 서둔촌(西屯村)	14
일용면(日用面)	미륵당(彌勒堂), 파동(琶洞), 일림리(逸林里), 대송죽리(大松竹里), 조원(棗園), 정자리(亭子里), 진목정(眞木亭)	7
장주면(章洲面)	권선리(勸善里 : 적사리[赤寺里]라고도 한다), 산남리(山南里), 궁촌(宮村), 구역촌(舊驛村), 원천(遠川), 매곡(梅谷), 영통(靈通), 신목동(申木洞), 평촌(坪村)	9
형석면(荊石面)	신기촌(新基村), 율전(栗田), 천천리(泉川里), 탑현동(塔峴洞), 방축동(防築洞), 이목동(梨木洞)	6
안녕면(安寧面)	야반정(野磻亭), 독지동(禿至洞), 배양동(培養洞), 작현동(鵲峴洞), 송산리(松山里), 장지촌(長芝村), 하류천(下柳川), 곡반정(谷磻亭), 궁촌(宮村)	9
용복면(龍伏面)	기전리(旗田里), 상송리(上松里), 신촌(新村), 고색리(古索里)	4
매곡면(梅谷面)	화봉리(花峯里), 신촌(新村), 조산리(造山里), 금곡(金谷), 노리촌리(老里村里), 자목리(自木里), 대촌동(大村洞), 가산리(加山里), 천천리(泉川里), 원평리(原坪里), 송촌리(松村里), 교기리(橋機里), 화촌리(花村里), 송촌(松村), 지곡(芝谷)	15
태촌면(台村面)	진언리(眞言里), 장승점(長牲店), 구봉리(龜峯里), 송고리(松古里), 신대리(新岱里), 개라동(箇羅洞), 독재동(禿在洞), 내동(內洞), 능동(陵洞), 운정리(雲井里), 기산리(機山里), 마성촌(馬城村), 상소촌(上昭村), 작교(鵲橋), 하소촌(下昭村), 망포동(望浦洞), 당의암(塘儀巖)	17
송동면(松洞面)	빈정포(濱丁浦), 중촌(中村), 야목리(野牧里), 현천(玄川), 병실(丙室), 송라동(松蘿洞), 만평리(晩坪里)	7
삼봉면(三峯面)	수기촌(水機村), 방축리(防築里), 분천리(汾川里), 신천(新川), 상동(上洞), 동화촌(同化村), 신촌(新村), 현천(玄川), 신수리(新守里), 내동(內洞), 여래동(如來洞), 수영리(水營里)	12
문시면(文市面)	명학동(鳴鶴洞), 죽담점(竹潭店), 묵암동(墨岩洞), 신촌(新村), 옹동(瓮洞), 평촌(坪村), 세교(細橋), 관음동(觀音洞)	8
남곡면(南谷面)	귀래동(歸來洞), 단구(丹邱), 사근촌(沙斤村), 발산리(鉢山里), 신촌(新村), 한적동(閑寂洞), 봉황동(鳳凰洞), 와곡(瓦谷), 당두(唐頭), 문학동(文學洞), 오곡(梧谷), 신기촌(新基村), 갈천(葛川), 만은동(晩隱洞), 괘랑리(掛浪里), 모산리(牟山里), 보통내(甫通川), 판전(板田), 오일리(五逸里)	19
갈담면(葛潭面)	왕림촌(旺林村), 세동(細洞), 당하촌(棠下村), 유대리(柳岱里), 덕구리(德邱里), 마하리(麻霞里), 이덕리(履德里), 지도리(至道里), 봉양촌(鳳陽村)	9
산성면(山城面)	서리(西里), 남리(南里), 지곶리(紙串里), 신촌리(新村里), 양산리(陽山里)	5
어탄면(漁灘面)	장지촌(長芝村), 기곡(基谷), 산척동(山尺洞), 이곡(梨谷 :배마루), 송촌(松村 : 소라리), 평촌(平村), 신암리(新庵里 :새암리), 방교(防橋), 암산(巖山), 금곡(金谷)	10
동북면(東北面)	오산리(烏山里), 목족동(睦族洞), 농촌리(農村里), 만의동(萬儀洞), 직동리(直洞里), 초목동(草木洞), 내곡리(內谷里), 중촌리(中村里), 괴목정(槐木亭), 지사정(池沙亭), 청계동(淸溪洞), 영평야(永平野), 선납현(先納峴 : 선납재), 골마동(骨馬洞 : 골마골), 화약리(火藥里), 소랑리(少郎里), 반송리(盤松里), 궁평(宮坪), 내촌(內村), 진구리(陳舊里), 송내촌(松內村), 묵실리(墨室里)	22
청호면(晴湖面)	갈곶리(葛串里), 기문동(奇門洞), 당리(棠里), 원통리(元通里), 부산동(釜山洞), 수덕동(修德洞), 천변동(川邊洞)	7
초평면(楚坪面)	수철리(水鐵里), 누읍동(樓邑洞), 타종리(他宗里), 마유동(馬遊洞), 신촌(新村), 모전촌(牟田村), 용난리(龍蘭里), 서촌(西村), 여대리(余垈里), 내창동(內昌洞), 어은굴리(漁隱窟里), 대화촌(大花村), 궁기리(宮基里), 어인포(漁仁浦)	14

면명	리명	리수
정림면(正林面)	덕촌(德村), 비정리(備井里), 물면리(物面里), 내촌(內村), 사근동(沙斤洞), 고지동(高芝洞), 용수동(龍水洞), 검복리(劍伏里), 망우리(忘憂里), 신기(新基), 제지촌(題只村)	11
상홀면(床笏面)	동지동(東枝洞), 창동(倉洞), 질수동(垈水洞), 갈전(葛田), 서천리(鋤川里), 송산리(松山里)	6
남면(南面)	요동리(料洞里), 백토동(白土洞), 두모동(斗某洞), 상두리(上斗里), 내동리(內洞里), 화리현(禾里峴), 하두리(下斗里), 서송리(西松里), 증거리(曾巨里), 갈천동(葛川洞), 오실리(嗚室里), 삼미성(三美城)	12
양간면(楊澗面)	사양리(思養里), 포곡(浦谷), 석천(石川), 만어언리(晩於堰里), 만촌(晩村), 요당리(蓼塘里), 용소리(龍巢里), 기동(基洞), 가오실리(加五實里), 신왕동(新往洞), 독조리(獨調里)	11
종덕면(宗德面)	가내리(加內里), 동청리(東淸里), 개아산(開牙山), 구력리(九力里), 도곡리(島谷里), 지곶리(知串里), 두응리(頭應里), 당본리(堂本里), 막금리(莫今里)	9
토진면(土津面)	천계리(泉溪里), 후평(後坪), 신당(新塘), 월곡(月谷), 판교장(板橋場), 건의촌(乾儀村), 상토진(上土津), 하토진(下土津), 고좌의(高座宜), 한현(漢峴 : 큰재)	10
수북면(水北面)	도렴리(道簾里), 육백리(六栢里), 평촌리(坪村里), 상가내(上加內), 하가내(下加內), 벽동(壁洞), 암증리(巖曾里), 항동(項洞), 어연리(漁淵里), 한산리(閑山里)	10
오타면(五朶面)	울성리(鬱城里), 신리(新里), 동고리(東古里), 방축리(防築里), 정자리(亭子里), 효학리(孝學里), 건곤리(乾坤里), 오영리(五營里), 흑동리(黑洞里)	9
청룡면(靑龍面)	창촌(倉村), 덕우리(德佑里), 수촌(水村), 신릉리(新陵里), 옥길리(玉吉里), 개사리(箇沙里), 동산리(東山里), 조동(祚洞), 강길리(康吉里), 죽동(竹洞), 후사동(後寺洞), 벌대리(泧垈里)	12
숙성면(宿城面)	동언리(洞堰里), 어호동(於湖洞), 좌구리(座龜里), 양교동(梁橋洞), 구평(龜坪), 죽동(竹洞), 조두리(潮頭里)	7
오정면(梧井面)	길산동(吉山洞), 양성촌(陽城村), 상룡촌(上龍村), 삼정리(三井里), 황금리(黃金里), 율리(栗里), 학현리(鶴峴里), 임촌(林村), 율산동(栗山洞), 소반동(小盤洞), 탑리(塔里), 미촌(美村), 누촌(樓村), 안중촌(安仲村)	14
포내면(浦內面)	당두리(棠頭里), 곡교리(曲橋里), 거산리(巨山里), 무수리(舞袖里), 감탕리(甘湯里), 운정동(雲井洞), 둔내리(屯內里)	7
현암면(玄巖面)	문곡리(文谷里), 화양동(華陽洞), 도대리(道岱里), 당상리(堂上里), 천곡리(泉谷里)	5
광덕면(廣德面)	신암동(新巖洞), 대외동(大外洞), 구둔동(鳩屯洞), 소외동(小外洞), 덕목리(德木里), 죽현리(竹峴里), 냉정리(冷井里), 신성리(新成里)	8
가사면(佳士面	두마리(頭麻里), 안중리(安中里), 계두리(鷄頭里), 권관리(權官里), 맥산리(麥山里), 기곡리(基谷里), 수산동(水山洞), 삼도(三島), 신둔촌(新屯村), 동성포(洞城浦), 밀두리(密頭里), 맥언리(麥堰里)	12
공향면(貢鄕面)	창촌(倉村), 매산리(梅山里), 화당촌(花堂村), 공장촌(工長村), 각곡리(角谷里), 덕구리(德九里), 고죽동(孤竹洞), 갈곡리(葛谷里), 고주동(古州洞), 한절리(寒節里), 방축리(防築里), 중촌리(仲村里), 도리동(桃李洞), 한천동(寒泉洞), 복촌리(福村里), 정촌(亭村)	16
팔탄면(八灘面)	언창리(彦倉里), 전대리(箭帶里), 사천리(沙川里), 서촌(西村), 동촌(東村), 장지촌(長芝村), 동막(東幕), 노상리(路上里), 진월리(眞月里)	9
장안면(長安面)	장내리(長內里), 독정리(獨亭里), 신촌리(新村里), 원당리(院塘里), 감촌리(甘村里), 거묵동(拒墨洞), 화전리(花田里), 가장촌(可裝村), 방축동(防築洞), 이물촌(利物村), 석포리(石浦里), 양촌리(楊村里), 대유정리(大有井里), 아강동(兒强洞), 장작원(長作院), 거산리(巨山里)	16
우정면(雨井面)	거물리(巨物里), 원종리(元宗里), 원안리(元案里), 안두리(安斗里), 굴원리(屈原里), 호곡리(虎谷里), 봉화곡(烽火谷), 계양리(啓陽里), 만진리(晩津里), 소곶리(少串里), 파소리(播所里), 배행리(陪行里), 여소곡(如蘇谷), 한정리(寒井里), 달무리(達武里), 평전리(平田里), 운정리(雲井里), 고잔리(古殘里), 내운정리(內雲井里), 한각리(閑角里), 방축리(防築里), 반곡리(盤谷里), 멱동(覓洞), 창동(倉洞)	24

면명	리명	리수
초장면 (草長面)	노정리(魯亭里), 진목리(眞木里), 흥천리(興天里), 신언리(新堰里), 구천리(舊川里), 덕다곶리(德多串里), 독지동(獨芝洞), 어은동(魚隱洞), 사랑리(沙浪里)	9
압정면 (鴨井面)	만곶리(晩串里), 중강리(中岡里), 당곡리(唐谷里), 맹곶리(孟串里), 주곡리(舟谷里), 덕목리(德睦里), 가내동(加乃洞), 고온포(古溫浦), 야미리(夜味里), 시여촌(柴如村), 장포리(壯浦里), 일원리(一院里), 고기리(古機里), 양촌(陽村), 습촌(習村), 한촌(閑村), 조암리(朝巖里), 농촌(農村), 서재동(西齋洞), 마산동(馬山洞)	20
총 40면		451

〈그림 3〉 읍치 이전 후 화성유수부(「수원부지도」, 187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 후 20세기 초인 1912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기록되어 있는 면별 촌락 이름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자료 성격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표 2〉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면에서 촌락의 숫자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부면의 광교동은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으로 나누어졌고, 안녕면의 작현동은 동작현과 서작현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촌락의 발달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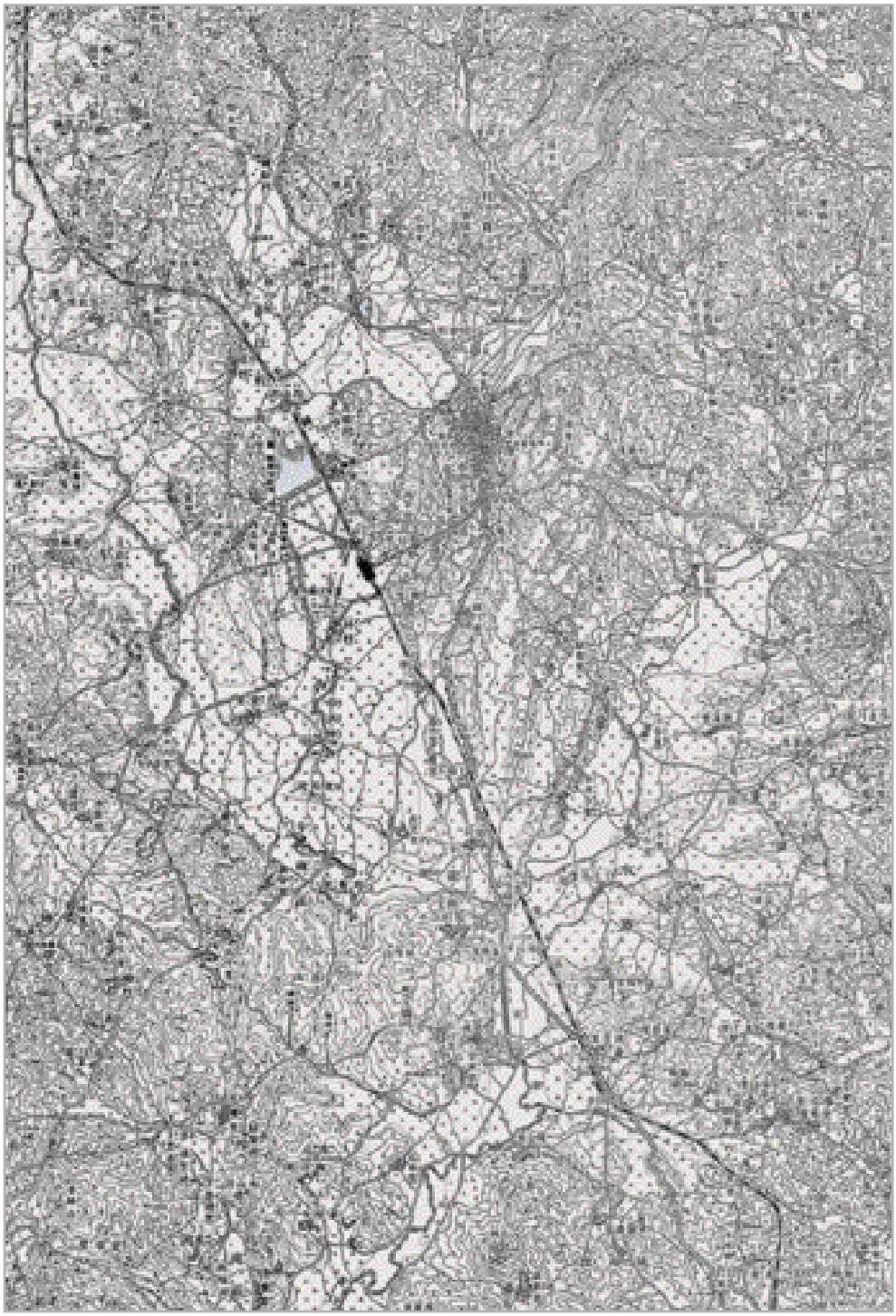
〈표 3〉 1912년경 수원군의 면별 촌락[12]

면명	리동명	리수
남부	남수동, 남창동, 매향동, 산루동, 구천동, 교동, 매산동, 고등촌, 세동, 평촌, 지장동, 장지동, 독산리, 향목동, 상류천, 하류천, 지동, 우만동, 인계동	19
북부	신풍동, 보시동, 군기동, 북수동, 장안동, 관길동, 영화동, 지소동, 석산동, 하광교동, 상광교동, 화산동, 고양동, 동촌, 둔촌, 보촌	16
일용면	파장동, 정정동, 조원동, 일림동, 두곡동, 송죽동, 정자동, 미륵동, 화산동, 진목동, 신촌	11
장주면	권선리, 신기, 산남리, 보촌, 역촌, 관촌, 원천, 나촌, 신촌, 음촌, 영통, 후곡, 매탄, 후촌	14
형석면	상율전, 하율전, 이목동, 숙목동, 안지동, 천천동, 점촌, 상구운동, 하구운동, 곡촌, 탑동	11
안녕면	안녕리, 동작현, 서작현, 송산동, 점촌, 황계동, 간촌, 대황교, 곡반정, 중반정, 하반정, 배양동	12
용복면	기안동, 와우동, 고사촌, 고색리, 중보평, 오목천	6
매곡면	도봉리, 금곡리, 조산리, 백목리, 노루미, 두마미, 호매실, 가리미, 천천동, 서원촌, 극곡리, 원평, 천월리, 대천리, 소로지, 냉정리, 숙곡리, 화촌, 장생현, 석수동	20
태촌면	진안리, 병점, 안화동, 구동봉, 이천, 능동, 독재동, 개라동, 당현, 양산리, 신대리, 송곡, 기산리, 마성리, 일안리, 당곡, 반월리, 각곡, 작교, 당암, 우문리, 망포	22
송동면	야목, 당산, 효대, 아산곡, 소곡, 원촌, 만촌, 내실, 관천, 유곡, 빈정포, 당곡	12
삼봉면	여래동, 청궁리, 장아평, 상동, 신미리, 입동, 구점촌, 장등, 반현, 동화동, 신촌, 수기동, 방축동, 분천동, 신천동, 수영동, 와우동	17
문시면	외삼미, 평촌, 월촌, 장등, 능곡, 하세교, 내삼미, 수청동, 독동, 검암, 죽미, 중세교, 석곶동, 신촌, 노산리, 하석곶, 남산동, 각곡, 배양동	19
남곡면	상보통천, 하보통천, 모산동, 만은동, 여의동, 갈천동, 백동, 오곡, 와곡, 오일리, 봉황동, 한적동, 문학동, 계향동, 귀래동, 수직동, 남동, 조목동, 구억돈, 괘랑동, 수곡, 신촌, 양지동, 오리동, 내발산, 외발산, 단구리, 학촌, 관항동, 장내, 판전리, 탑산리, 사근촌, 어상동, 신기동	35
갈담면	가마리, 독정리, 왕림리, 세곡, 당하동, 마하리, 유촌, 석당리, 내곡, 덕좌리, 양지리, 하가등리	12
산성면	서랑동, 남서리, 세교리, 부동, 지곶동, 양산동	6
어탄면	장지천, 기곡, 내곡, 송촌, 산척동, 이곡, 방교, 평촌, 금곡, 심암, 위포, 독곡	12
동북면	석우동, 이곡, 내촌, 묵실, 서촌, 반송리, 당현, 화동, 하촌, 소랑곡, 석산동, 신기촌, 신산강, 구오산, 상촌, 신촌, 직동, 성죽동, 능동, 목족동, 야동, 내곡, 중촌, 선납현, 영천평, 곡청계, 평청계, 고매곡	28

12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붉은 글씨로 쓰인 면이 현 수원시 관할구역에 해당한다.

면명	리동명	리수
청호면	부산, 가량곡, 위동, 역촌, 대청호, 하조산, 상조산, 갈곶	8
초평면	청학동, 가수동, 누읍리, 탑동, 석우리, 두곡, 벌음리, 동촌, 서촌, 가장동, 궐리사, 궁대, 위포, 죽전	14
정림면	덕랑리, 황기, 창촌, 제기, 음촌, 양촌, 망월리, 금복동, 고지동, 용수동, 수면리, 내촌, 토근동	13
상홀면	상죽동, 하죽동, 사창, 오가리, 갈전, 정내, 포당, 도간, 길묵, 송산, 월촌, 후곡, 청등리	13
남면	송곡, 백토동, 길성리, 요동, 갈천, 상수직, 하수직, 증거동, 동오리, 관동, 두모동, 내동, 상두리, 하두리, 화리현, 양석동	16
양간면	용치동, 고려리, 대촌, 안산동, 후곡, 송내동, 독가동, 창촌, 동신왕리, 서신왕리, 삼당리, 대만촌, 소만촌, 석천리, 개월리,	15
종덕면	막금리, 당현, 두능리, 황조곡, 문곡, 계루지, 신기, 가산리	8
토진면	판교동, 강포리, 어연리, 한산리, 고좌리, 건의동, 토진리, 삼계동, 대곡, 고기리, 원목리, 전평, 중평, 후평	14
수북면	백봉, 도염동, 동언, 평촌, 벽동, 어연리, 황곡, 한산리, 가천	9
청룡면	설창, 덕좌리, 수촌, 신기, 옥길리, 가사리, 후사리, 강길리	8
숙성면	양교동, 대겸당리, 여수동, 신기, 소겸당리, 성적동, 대죽동, 장자동, 소죽동, 점촌, 숙성리, 대호두리, 소호두리, 월량촌, 주교동	15
오정면	임촌, 금곡, 관두리, 소반촌, 대반촌, 율리, 학현, 황금리, 안중리, 용촌, 신촌, 대삼정리, 중삼정리, 외삼정리, 미촌, 길음리, 탑현	17
포내면	해호원, 학현, 성외리, 용소동, 현석리, 서정리, 감양리, 목장리, 도곡, 진목리, 무수리, 양지촌, 고장동, 거산리, 어은리, 내기, 구억촌, 한리, 야동, 피우치, 운정리, 이평, 만포	23
현암면	화양동, 언성리, 한촌, 양산, 송담, 인광리, 방축동, 서두호, 신령리, 신기동, 전동, 송내, 가장동, 천곡, 문곡, 당현, 보시동, 도대, 용동	19
광덕면	냉정리, 언곡, 신왕리, 이촌, 대외리, 입진리, 소외리, 와촌	8
가사면	두매리, 권관리, 고잔리, 모산리, 문곡, 기곡, 기산리, 수산리, 안중리, 천곡	10
공향면	삼일암, 창촌, 두곡, 매안동, 월문리, 화당촌, 갈곡, 서근촌, 덕고리, 고단동, 제암동, 복촌, 장기, 상평촌, 하평촌, 분촌, 방축동, 상행정	18
율북면	황구지, 동청리, 항곡, 중리, 불정리, 진목리, 상가천	7
서신리면	어소리, 광승리, 현곡, 갈몰창, 석우리, 한산리	6
감미면	고염동, 옹포, 갈창, 고란평, 발오곡, 개울, 사양, 대양, 송산, 하두	10
승양면	희곡, 신영리, 가장동, 국리, 방림동, 전촌, 원택리, 미촌, 곡교, 당두리, 원정리, 번호	12
안외면	백성동, 창촌, 송내, 신대리, 재촌, 유곡, 만호리, 신당리, 황산리, 송담리, 원촌, 능우, 이촌, 신영리	14
언북면	당거리, 탑현, 홍원, 안두원, 안원리, 동원리, 교포, 중대리, 창내	9
총 40면		558

20세기 초 수원의 촌락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 『일제시대지형도(日帝時代地形圖)』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일본 육군의 육지측량부가 1919년에 측량하여 1925년에



〈그림 4〉 일제시기 수원(『일제시대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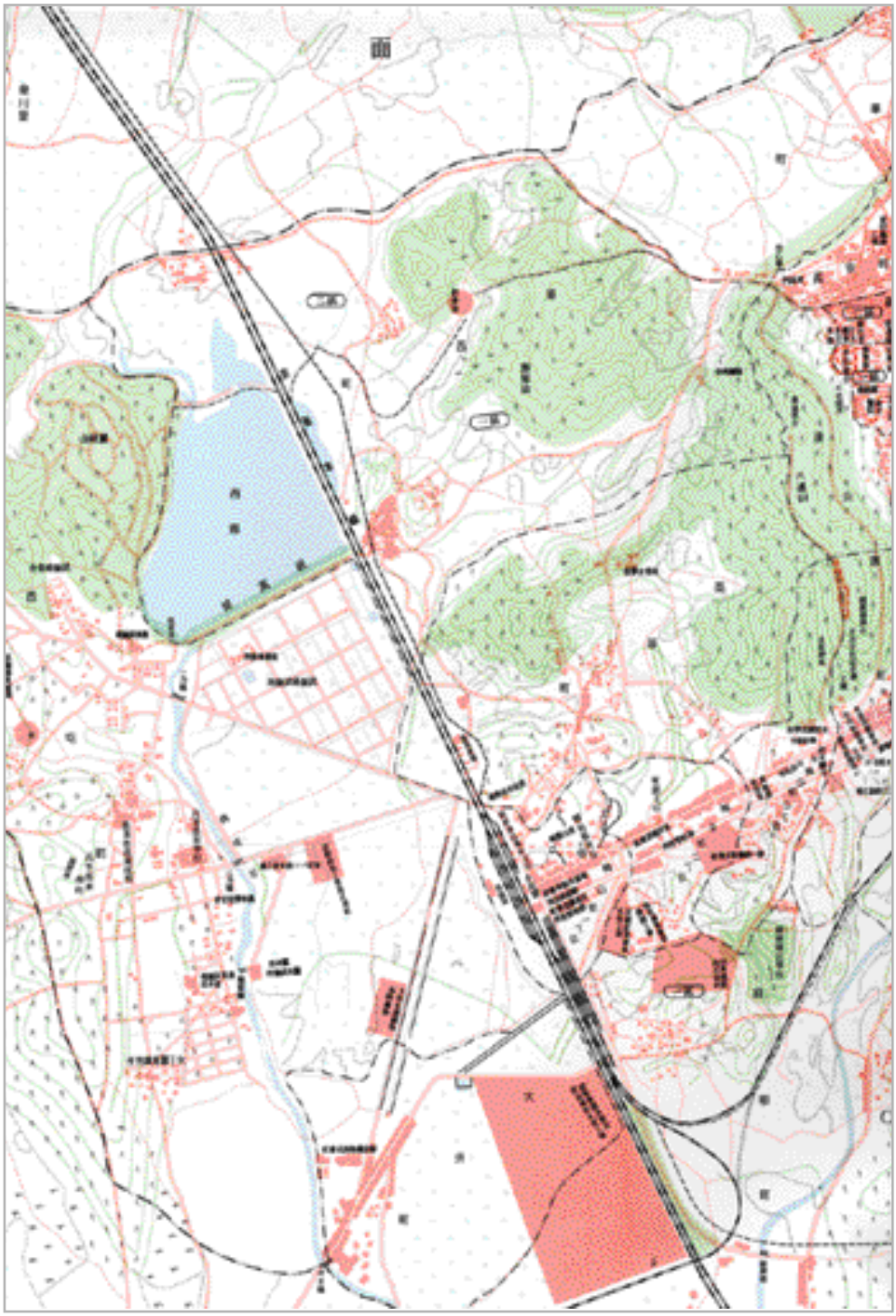
발행한 것으로, 당시 촌락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화성 내부는 건물들이 가득 찬 시가지가 발달하여 있으며, 각종 관공서가 자리 잡고 있다. 화성 외부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 아닌 촌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촌락으로, 수원 북부에서는 송죽리 · 파장리, 동부에서는 원천리, 남부에서는 유천리 · 곡반정리, 서부에서는 구운리 · 금곡리 · 고색리 · 호매실리 등이 있었다. 이 중 송죽리 · 파장리 · 곡반정리 · 호매실리는 모두 수원의 대표적인 동족마을이다. 1930년대에 송죽리에는 홍천 용씨가 60가구, 파장리에는 광주 이씨가 62가구, 곡반정리에는 반남 박씨가 28가구, 호매실리에는 밀양 박씨가 56가구 살았다. 호매실리와 곡반정리는 임진왜란 때 피난한 선조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파장리는 17세기 후반 인조반정을 피해 입향조가 정착하였으며, 송죽리는 18세기에 소유 농토의 확대에 따라 입향조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즉 20세기 초에 수원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던 마을 중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동족마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20세기 초 수원의 촌락과 관련해 『일제시대지형도』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로는 경부선 철도와 주요 도로 주변에 촌락들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경부선 철도는 1905년 개통되었는데, 수원역이 들어선 매산리는 수원역에서 수원 시내로 가는 길을 따라 촌락이 발달해 있다. 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로를 따라 촌락이 발달한 사례로는 영화리 · 구천리 · 원천리 · 유천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촌락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루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원의 촌락은 더욱 발달하였다. 1911년 8만 7,880명이었던 수원군의 인구는 1925년에 15만 3,22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35년에 이르면 17만 3,187명이 되었다.[14]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촌락보다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화성 내부와 그 주변 지역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1943년에 수원상공회의소가 만든 「수원읍지도」에는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난다. 이 지도에는 조선시대 수원의 중심지인 화성과 일제강점기에 수원의 관문 역할을 하였던 수원역 사이의 도로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각종 기업과 관공서, 학교, 그리고 일본 사찰이 들어서 있는 것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현재의 서둔동 일대에는 농사시험장, 고등농림학교 등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해방 이후 수원의 인구와 가구는 〈표 4〉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부터

13 허홍범 외, 『수원의 동족마을』, 수원시, 2006, 32~40쪽.
14 김세영 외, 『북수원지』, 수원박물관, 2010, 41쪽.



〈그림 5〉 1940년대 서둔동과 매산동 일대(수원상공회의소, 「수원읍지도」, 1943)

1990년까지는 인구가 10년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도 급성장을 거듭하였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촌락의 규모가 성장하였으나, 〈표 4〉에서 보듯이 농가의 수와 경지면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수원에서 전형적인 농촌 촌락이 점차 사라지는 대신, 대규모 주택단지가 이를 대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지역은 1980년대 이후에는 택지 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전통적인 촌락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높게 늘어선 아파트 숲과 이에 수반한 각종 상업 및 공공시설의 건설로 예전의 촌락은 없어진 경우가 적지 않으며, 남아 있다 하더라도 촌락을 구성하는 가옥의 형태와 구조 등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표 4〉 수원시의 인구와 농업 변화[15]

연도	인구(명)	가구(수)	농가(수)	경지면적(ha)
1954	73,004	14,065	–	–
1960	90,806	16,498	1,792	1,152
1970	170,518	33,451	3,587	3,745
1980	310,757	71,154	2,548	2,439
1990	644,968	171,855	2,404	2,521
2000	946,704	285,511	1,585	1,958
2010	1,104,681	412,253	3,004	1,228

2. 촌락의 입지

우리 조상들의 복거관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문헌으로 꼽히는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촌락 입지의 기준으로 지리(地理)·생리(生利)·인심(人心)·산수(山水) 등 네 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이 중 지리와 산수는 자연조건, 인심과 생리는 인문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적 시각에서 이를 재해석하면 자연조건은 지형·기후·토양·식생 등이고, 인문조건은 경제·교통·정치·사회 조건과 문화적 전통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1961·1971·1981·1991·2001·2011.

실제 마을의 입지선정에는 이러한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자연조건 중 지형이었다. 예를 들어 이중환은 "살 곳을 택할 때에는 처음에 지리를 살펴보고, 다음에 생리 · 인심 · 산수를 살펴본다."[16] 고 하였고, 허균(許筠) 역시 『한정록(閑情錄)』에서 "생활의 방도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먼저 지리를 선택해야 한다."[17]고 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때 지리란 풍수적인 색채가 짙지만 대체로 지형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지세(地勢)와 물의 조건이 강조된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형조건을 통해 수원의 자연마을의 입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것들의 특징을 자연 및 인문 조건을 고려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원의 전체적인 지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시는 동 · 서 · 북의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남쪽은 열려 있는 분지인데, 대체로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보다는 남북의 폭이 넓다. 따라서 북동쪽의 광교산(582m)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가장 높으며, 서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수원시 서쪽을 남북으로 관통해 흐르는 황구지천 변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보인다. 황구지천 주변의 평야는 서쪽으로 칠보산 줄기와 이어지는데, 화성시와의 경계 역할을 하는 칠보산은 해발 200m대이다.[18] 한편 수원시 내에는 팔달산(143m), 여기산(105m) 등 해발 100m 남짓한 구릉성 산지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저지대 가운데 솟아 있기 때문에 실제 고도보다 높게 보인다. 특히 수원시 중앙의 팔달산은 해발고도는 낮은 편이지만, 사방이 내려다보이고 그 위치가 사통팔달[19]하여 이를 한 축으로 하여 화성이 건설되었다.

크고 높은 산이 없듯이 수원시에는 큰 강도 없다. 다만 여러 개의 소하천이 수원을 이리저리로 관통해 흐르며 분지를 적시고 있다. 대부분의 하천은 지형의 영향으로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며, 이 중 상당수는 저수지로 흘러가 그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수원시를 흐르는 하천 중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는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수원 북부의 산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데, 서호천은 파장저수지와 서호를 거쳐 수원시 남쪽의 장지동에서 황구지천으로 흘러들며, 수원 도심을 관통해 흐르는 수원천과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를 거쳐 흐르는 원천천은 모두 수원 남단의 대황교동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한다. 수원의 평지는 이들 하천변의 충적지에 발달해

16 이중환, 『택리지』, 「복거총론(卜居總論)」.
17 허균, 『한정록(閑情錄)』 권16, 「치농(治農)」, 택지(擇地).
18 칠보산 정상은 238.8m이다.
19 권혁재, 『한국지리 – 지방편』, 법문사, 1995, 57쪽.

〈그림 6〉 산록완사면에 입지한 촌락(『일제시대지형도』, 남양도엽의 일부) 구운동 하구운('九雲里'라고 표기된 마을)과 호매실동 노림과 두암이 구릉지에 기대어 자리 잡고 있다.

있으며, 특히 황구지천이 만든 충적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원의 지형조건은 자연마을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원의 자연마을들의 입지는 지형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유형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부분에 마을이 자리 잡은 것이다. 즉 산기슭이나 구릉지 끝부분의 완만한 경사지에 마을이 들어선 경우로, 산록완사면 입지라 할 수 있다. 칠보산 기슭의 완사면에 위치한 금곡동의 상촌 · 중촌과 호매실동의 노림 · 두암, 여기산에서 뻗어 나온 언덕에 의지하여 황구지천을 바라보며 자리한 구운동의 하구운, 역시 북쪽의 율천동에서 이어져 내려온 구릉지의 남서쪽 기슭에 자리한 구운동의 상구운, 광교산에서 내려온 능선의 끝부분에 입지한 송죽동의 솔대와 조원동 돌미,[20] 북쪽으로 흐르는 황구지천을 바라보며 고금산 기슭에 들어선 오목천동 고사촌, 평지 가운데 남은 야트막한 언덕에 의지한 권선동 상권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산록완사면 입지는 조상들이 선호하였던 삶터이다. 산록완사면 입지는 마을의 입지조건의 전형으로 간주하였던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마을 입지는 하천 변의 평지보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의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

20 석산동이라 부른다.

〈그림 7〉 **골짜기에 입지한 촌락**(『1:5만 지형도』, 수원도엽의 일부) 상광교동 중간말과 하광교동 불당골, 문암골이 골짜기에 들어서 있다

람으로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고, 겨울에는 마을이 기대고 있는 산지가 바람을 막아 안온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또한 경사지는 조망이 좋으며 평지보다 양지바르고, 지하수면이 낮아서 음료수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배후산지에서 땔감 · 식재료, 건축재 등 다양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인근의 평지를 버리고 완경사지에 마을을 만든 데에는 조금이라도 넓고 평탄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21] 이러한 마을의 터전이 농업 위주의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던 전통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점들이 지금보다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수원 촌락 입지의 두 번째 유형은 산지나 구릉지 사이의 골짜기에 촌락이 자리 잡은 것이다. 수원에는 광교산, 칠보산 등의 산지에서 뻗어 내려온 구릉 사이에 크고 작은 골짜기가 발달해 있고 산지에서 발원한 계류가 골짜기를 통해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골짜기에 마을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골짜기 입지의 예로는 칠보산의 골짜기에 입지한 호매실동의 자목, 광교산의 골짜기에 자리한 상광교동의 윗말 · 작은말, 하광교동의 윗말 · 불당골 · 문암골, 파장동의 미륵동 · 일림동, 이의동의 쇠죽골 · 두릉, 이목동 배나무골, 청명산의 골짜기에 들어선 영통동 황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골짜기 입지는 앞에서 언급한 산록완사면 입지가 지닌 대부분의 장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거관(可居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곳이었다. 먼저 조상들은 도시와 마을 등의 입지를 정할 때 풍수지리

21 정치영 외, 『과천시지 1 : 관악산과 청계산이 펼쳐놓은 터전』, 과천시지편찬위원회, 2007, 169쪽.

설을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풍수지리설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인 이른바 명당(明堂)의 조건을 갖춘 곳이 골짜기이다. 일반적으로 명당의 형국은 뒤쪽의 주산(主山)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이들 산지에서 발원하는 계류가 명당에서 흘러나와 명당 앞쪽의 평지를 흐르는 하천에 합류하고 그 너머에 다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골짜기 입지는 이러한 형국에 가까운 곳이 대부분이다.

골짜기 입지는 생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수원의 대부분의 촌락 입지가 정해진 조선시대에는 농업, 그중에서도 벼농사가 가장 중요한 생업이었다. 적절한 물의 공급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벼농사에서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강변의 평야지대보다 골짜기가 농사짓기에 훨씬 유리하였다. 그 까닭은 강변의 경우 대규모 수리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관개에 어려움이 많았던 데 비해, 골짜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어가 쉬운 계류를 이용해 보(洑)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벼농사를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중환도 골짜기에 사는 계거(溪居)는 "평온한 아름다움과 깨끗한 경치가 있고 관개와 경농(耕農)하는 이익이 있어서"[22] 가장 바람직한 삶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골짜기 입지는 병화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에도 적당한 곳이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적지 않은 외침을 받아 왔으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심해진 당쟁과 사화를 계기로 사대부계층을 중심으로 이상향을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하더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일반 민중들도 이에 동참하여 피병(避兵)·피세지(避世地)의 탐색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마을의 입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앞에서 언급한 수원의 대표적인 동족마을들도 임진왜란 때 피난하였거나, 인조반정 등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이주한 입향조에 의해 촌락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병·피세지의 탐색과정에 구체적인 마을 입지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으로, 도가(道家)의 이상향을 형상화한 '청학동전설(靑鶴洞傳說)'과 민간에서 많이 신봉하던 『정감록(鄭鑑錄)』 등 각종 '비결류(秘訣類)'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도가의 청학동과 비결류의 이른바 보신지지(保身之地)는 지형적으로 서로 닮은꼴이며, 모두 골짜기에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청학동은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 등에 입구가 매우 좁은 데 반해 입구를 들어서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는 마치 호리병을 거꾸로 눕힌 듯한 분지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비결류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신지지의 전형적인 모

22 이중환, 『택리지』, 「복거총론」.

〈그림 8〉 이의동 혜령골

〈그림 9〉 광교산 자락의 골짜기 입지 촌락

형도 한 쪽 면만 병목(bottle-neck)과 같은 좁은 입구로 외부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방향은 산으로 차단되어 있는 협곡 내지 분지이며 그 안에 좁은 입구로 빠져나가는 계류가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23] 이러한 곳은 입구가 좁고 경사져 있어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안쪽은 넓지는 않지만 완경사면이 펼쳐져 있어 농경지로 일구어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최상의 피난처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특성들 때문에 골짜기 입지는 우리 조상들이 가장 선호해 온 촌락 입지였으며, 이에 따라 수원에도 골짜기에 입지한 촌락이 많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골짜기로 보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촌락에도 골짜기의 의미를 지닌 지명을 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골짜기 입지를 선호한 우리 조상들의 가거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는 수원의 자연마을 중 골짜기를 의미하는 '골', '실', '곡(谷)' 등의 접미어가 붙은 마을들을 뽑아 법정동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곡반정동 명당골은 원천천 변의 평지에 입지해 있으나, "명당에 들어 있어 병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마을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24] 마을의 지형조건과 관계없이 붙여진 지명인 것이다.

〈표 5〉 골짜기를 의미하는 마을 이름[25]

구	법정동	마을 이름	구	법정동	마을 이름
장안구	파장동	파장골	권선구	당수동	오룡골
	이목동	배나무골, 안죽골	팔달구	중동	다락골
	조원동	감나무골, 금당골, 두곡		남수동	남숫골
	하광교동	갈곡, 문암골, 불당골		북수동	북숫골
권선구	세류동	가는골		화서동	고양골
	장지동	향나뭇골, 장짓골		지동	못골
	고색동	고샛골	영통구	이의동	산의실, 서룡골, 성주골, 소죽골, 안골, 작은안골, 죽골
	탑동	골말			
	금곡동	금곡		하동	불당골
	호매실동	호매실		영통동	느티나뭇골, 뒷골, 은행나뭇골
	권선동	온수골		신동	신나무실
	곡반정동	명당골			

23 정치영, 『지리산지 농업과 촌락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363쪽.
2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도편 상』, 1985, 394쪽.
2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도편 상』, 198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경기도편 하』, 1986.

수원 촌락 입지의 세 번째 유형은 하천 주변의 넓고 평탄한 평지, 즉 곡저평야(谷底平野)에 마을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두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며, 입북동 벌말, 서둔동 벌터, 세류동 버드내 · 새터말, 세평동 평촌, 평리동 벌말, 곡선동 벌터 등의 마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들판을 의미하는 '벌', '평(坪)' 등의 지명어가 많이 사용된 이 마을들은 수원을 관통해 흐르는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이 만든 충적지에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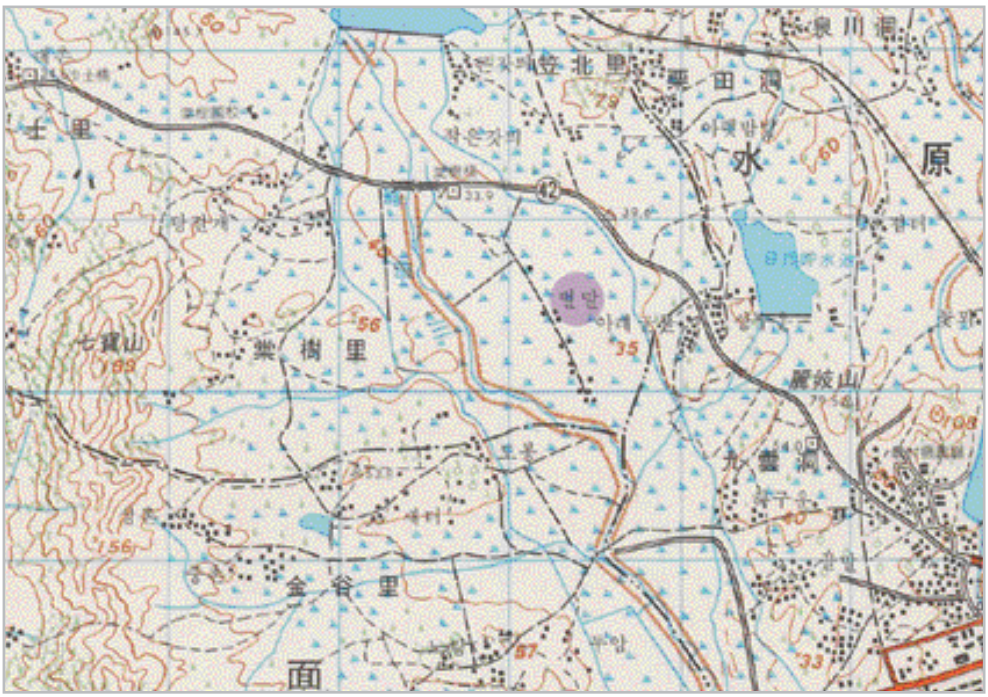
하천이 운반한 흙과 모래 등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충적지는 넓고 기복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므로, 농경지로 이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충적지는 골짜기나 산록완사면에 비해 홍수 때에 범람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음료수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수질도 좋지 않았다. 그것은 지하수위가 낮아 우물을 파기도 힘들 뿐 아니라 수질도 충적지를 복류하는 지하수가 골짜기의 계류나 샘물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충적지는 농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수해뿐만 아니라 한해의 위험도 높았다. 곡저평야를 관통해 흐르는 하천은 산간 골짜기를 흐르는 계류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뿐 더러 하천에 비해 곡저평야가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물을 끌어올려 논에 대는 것은 근대적인 관개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충적지는 제방과 관개시설 등 근대적인 수리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취락의 발달이 부진하였다.

그래서 곡저평야에 자리 잡은 촌락은 골짜기나 산록완사면에 자리 잡은 촌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그 좋은 예가 황구지천 변의 넓은 들판에 입지한 입북동 벌말인데, 1919년 상황을 보여 주는 지도인 〈그림 10〉에는 마을이 존재하지 않으나, 〈그림 11〉의 1970년대 지도에는 마을이 그려져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황구지천[26]에 인공제방이 건설되어 범람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벌말이 들어선 곳의 일제강점기의 토지 이용이다. 〈그림 10〉을 보면, 현재 벌말이 자리 잡은 곳은 주변이 모두 논으로 개간되고 그 부분만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길게 숲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따라서 들판이라 하더라도 주변보다 조금 높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곳을 택해 촌락이 길게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주변과의 미세한 고도 차이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성 등을 인식하여 촌락의 터를 잡은 것은 여러 곳의 자연조건을 관찰 · 비교하는 신중한 탐색과정의 결과라

26 〈그림 11〉의 지형도에는 당수천(棠樹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림 10〉 **입북동 일대**(『일제시대지형도』, 남양도엽의 일부) 입북동 벌말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림 11〉 **입북동 일대**(『1:5만 지형도』, 안양도엽의 일부) 당수천의 동쪽 들판에 벌말이 있다.

할 수 있다. 유사한 예는 황구지천을 사이에 두고 벌말과 마주보고 있는 금곡동의 도봉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도봉은 마을이 황구지천 주변의 충적지와 바로 이어지지만, 이 충적지보다 10m 이상 높은 곳에 터를 잡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완벽하게 인공제방이 갖추어지기 전에도 황구지천의 범람으로부터 큰 위험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짜기나 산록완사면에 비해 촌락의 발달이 부진하였던 수원의 곡저평야는 수해 방지 대책이 갖추어지고 도시화 · 산업화로 주택용지와 산업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시가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촌락은 형성되지 않았고 논으로 이용되는 곳에 대규모 주택단지와 공장들이 들어섰다. 원천천 주변의 곡선동 · 곡반정동, 수원천 주변의 세류동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촌락의 형태와 경관

촌락의 형태는 먼저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 집촌(集村)과 산촌(散村)으로 나누어지며, 집촌은 다시 그 가로망의 조직과 마을의 기학적 형태에 따라 괴촌(塊村) · 열촌(列村) · 가촌(街村) · 환촌(環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원의 자연마을은 거의 전부가 집촌이며, 집촌 중에서도 괴촌이 지배적이다. 괴촌은 가옥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수원의 촌락이 대부분 집촌, 그중에서도 괴촌의 형태를 띠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우선 수원의 촌락이 대부분 무계획적으로,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수원의 자연마을은 처음에는 한두 가구로 시작하여 수백 년 동안 그 자손들이 분가하고 간헐적으로 새로운 가구가 이주하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이므로 계획적인 가옥의 배치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땅의 생김새에 맞추어 한 채, 한 채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촌락이 불규칙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집촌의 형성에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양식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원부의 18세기 후반 경지면적은 논이 5,275결, 밭이 6,328결 등 총 1만 1,603결이었다. 전체 농경지 중 논이 45.5%, 밭이 5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초의 경기도 전체의 논 비율이 38.7%였다는 점[27]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군현에 비해 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세기 이후인 1908년에는 논이 3,615결, 밭이 1,901

27 『만기요람(萬機要覽)』을 통해 구한 수치이다(이호철, 『조선전기농업경제사』, 한길사, 1986, 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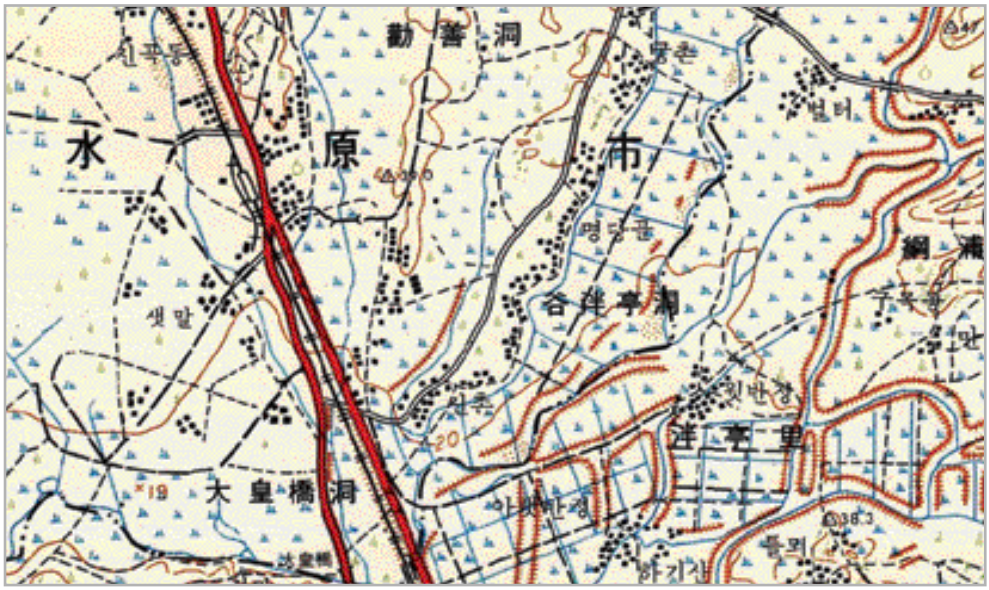
〈그림 12〉 **일제시기 화서동 동말 전경**(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의 촌락은 대부분 몇 채의 가옥이 모인 형태가 점차 확장되어 형성되었다.

결로 논의 전체 농경지의 65.5%의 차지하였다.[28] 즉 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벼농사가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벼농사는 다른 농사에 비해 수리시설의 축조 · 관리와 영농에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지역 특성이 집촌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밖에 촌락의 입지와 관련한 지형적 원인도 작용하였다. 수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촌락들은 대개 골짜기나 산록완사면에 자리 잡고 있다. 골짜기의 경우,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지에 비해 가옥을 짓기에 적당한 대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조금이라도 평탄한 땅은 농경지로 확보해야 하므로 가옥이 불규칙하게 밀집하였다. 또한 산록완사면의 경우에도 평지와 구릉지나 산지가 만나는 계면부가 좁기 때문에 가옥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29]

수원의 촌락 중에는 괴촌 외에 열촌과 가촌이 있었다. 열촌은 일반적으로 산기슭 · 자연제방 · 해안선 등의 자연지물과 도로 · 수로 등 인공구조물을 따라 줄을 지어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원의 산기슭이나 도로 등을 따라 발달한 마을들은 현재 절

28 통감부, 『제3차 통감부통계연보』, 1910, 265~266쪽.
29 정치영 외, 『과천시지 1 : 관악산과 청계산이 펼쳐놓은 터전』, 과천시지편찬위원회, 2007, 171쪽.



〈그림 13〉 **곡반정동 일대**(『1:5만 지형도』, 용인도엽의 일부) 곡반정동의 명당골은 열촌의 형태가 남아 있다.

〈그림 14〉 열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원천천 주변의 평야지대

대다수가 괴촌을 이루고 있으며, 열촌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일제시대지형도』 등 과거의 대축척지형도를 살펴보면, 적은 수이지만 열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촌락들이 발견된다. 〈그림 13〉은 1974년 『1:5만 지형도』인데, 곡반정동 명당골은 배후의 낮은 언덕과 전

면의 원천천의 충적지의 경계부를 따라 들어선 집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의 중간 부분은 열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과거에는 수원에도 열촌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촌락이 성장하면서 괴촌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곡반정동은 택지개발로 인해 과거 촌락의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바뀌었다.

가촌은 열촌 가운데 특히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촌락이다.[30] 가촌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양쪽에 집들이 길게 2열 횡대로 늘어서 있는 형태이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도로변에 입지하면서 상업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촌의 발달이 부진하였다. 이른 역대 왕조가 상업을 경시하였고 교통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백성들도 노변에 거주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31] 당시에는 도로가 전염병과 잡귀의 통로이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것들이 전파되는 통로라 생각하여 도로변이나 도로에서 가까운 곳은 삶터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32] 따라서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17~18세기 이전에는 역원촌락(驛院村落)을 제외하고는 가촌의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원촌락은 조선시대 역과 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촌과 원촌을 말한다. 역촌은 공무여행을 하는 관리들에게 마필과 인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역의 각종 시설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들로 이루어진 촌락이었고, 원촌은 관리와 일반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이었다. 따라서 역촌과 원촌은 길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유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그 입지는 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형태에서는 가촌의 형태를 띤 것보다 괴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예로 현재 서울 양재동에 있었던 양재역(良才驛)은 영남대로(嶺南大路)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괴촌을 이루고 있었다.[33] 역이 폐지될 무렵인 1895년의 상황을 담고 있는[34] 〈그림 16〉의 『구한말한반도지형도』를 살펴보면, 당시 수원에 있었던 역촌인 영화동 역말[35]과 원천동 역말[36]은 도로에 인접해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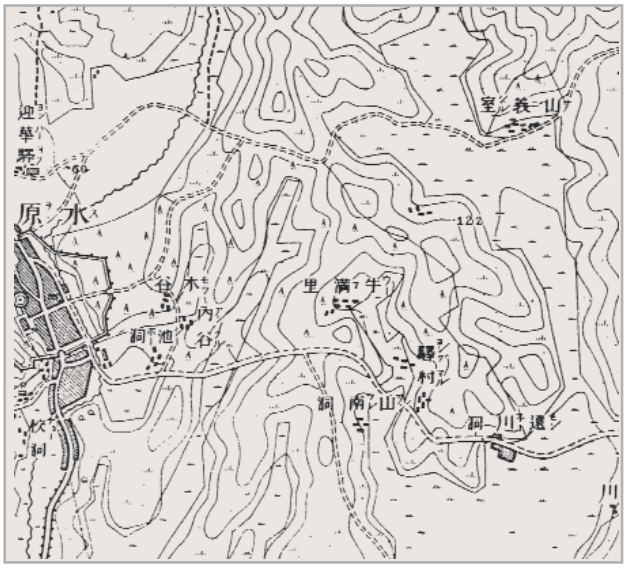
30 도로를 따라 병렬해 있는 촌락 중에서도, 도로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촌락들이 많다. 즉 도로에 가옥의 후면이 접해 있고 출입문은 도로와는 상관없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촌락은 가촌의 범주에 넣기가 곤란하리라 생각된다.
31 최영준, 「노변취락(路邊聚落)」, 『지리학논총』 11, 1984, 63~68쪽.
32 최영준, 『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387~390쪽.
33 최영준, 『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264쪽.
34 조선시대 역제(驛制)는 1895년(고종 32) 우체사(郵遞司)의 설치와 함께 폐지되었다.
35 조선시대 영화역(迎華驛)이 있었던 곳이다. 영화역은 화성 건설 이후 1796년(정조 20)에 양재역을 옮겨 설치한 역으로, 1831년(순조 31) 편찬된 『화성지(華城誌)』에 따르면 역촌은 97호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36 조선시대 양재도에 속한 장족역(長足驛)이 있었던 곳이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수원부읍지』에 의하면, 장족역은 대마(大馬) 1필, 기마(騎馬) 2필, 복마(卜馬) 2필과 역노(驛奴) 5명이 배정되어 있는 소규모의 역이었다.

〈그림 15〉 영화역 주변에 형성된 마을(『화성성역의궤』, 「영화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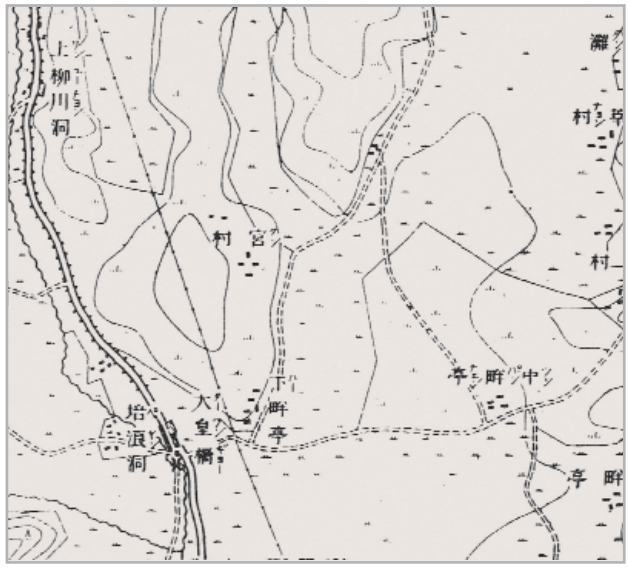
나, 가촌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촌이 발달한 시기는 18세기 이후이다. 17~18세기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주막으로 이루어진 촌락인 주막촌(酒幕村)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는데, 이들 주막촌은 대개 중심가로를 따라 건물이 배열된 가촌의 형태를 띠었다. 수원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조선시대 8대로 중 하나인 충청도 · 전라도로 가는 '삼남로(三南路)'[37]를 비롯해 통

37 서울에서 출발하여 과천, 수원, 평택, 천안, 공주, 정읍, 나주 등을 통과하여 전남 강진까지 가는 도로로, 제주까지 뱃길로 연결되어 '제주로'라고도 한다. 수원에서는 지지대고개와 미륵동, 영화역, 화성, 상류천, 하류천을 잇는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조의 화성 능행로로도 이용되었다.



〈그림 16〉 영화동 역말과 원천동 역말(『구한말한반도지형도』, 수원도엽의 일부) 영화역이라 표기된 곳이 영화역이 있던 영화동 역말, 원천동 서북쪽에 역촌이라 표기된 곳이 장족역이 있던 원천동 역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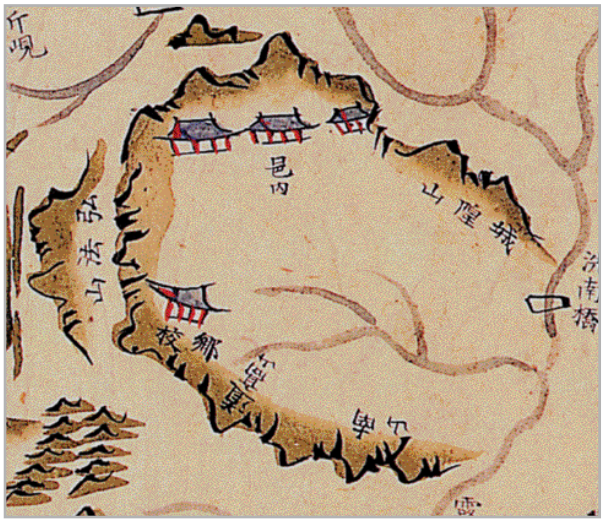


〈그림 17〉 가촌인 상류천동과 대황교(『구한말한반도지형도』, 수원도엽의 일부)

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들이 통과하였기 때문에 주막촌과 가촌의 형성이 활발하였다. 과거 주막촌이었던 곳은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남아 있는 지명으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영화동의 새술막거리, 입북동의 주막거리, 매탄동 주막거리 등이 그러한 예이다. 가촌 역시 현재는 촌락의 발달이나 새로운 도로의 건설 등으로 그 형태가 변형된 경우가 많아서 과거의 지도를 통해서나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의 원천동이 가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림 17〉의 상류천동과 대황교 역시 가촌이다. 그리고 수원역이 생기고 나서 발달한 매산동도 일제강점기에는 전형적인 가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그림 5 참조〉.

촌락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다른 촌락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촌락이 있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읍치(邑治), 즉 읍취락이었다. 읍취락이란 조선시대 부·목·군·현 등 지방행정기관의 소재지로서, 정치·행정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군사·종교 기능도 가지고 있었으며, 대개 시장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내 물자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형성 과정은 물론, 경관상으로도 다른 촌락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조선시대 수원도호부가 위치한 곳은 현재의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송산리 일대였다.[38] 이곳은 1789년(정조 13)에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곳에 모시



〈그림 18〉 수원 구읍치 경관(『광여도』, 「수원부」)

는 대신 새로 화성을 쌓고 수원도호부를 옮기면서 구읍취락(舊邑聚落)이 되었다. 구읍취락이란 읍취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읍에 소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 폐쇄 혹은 이전되어 읍의 행정적 기능을 상실한 취락을 말한다.[39]

안녕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읍취락은 행정 · 경제 · 군사 · 교육 · 종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일반 촌락과는 다른 경관 및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읍취락을 구성하는 이러한 시설들의 배치는 대체로 일정한 규칙에 따르고 있는데, 그 규칙은 풍수설과 중국의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서울의 도시계획에 적용된 것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명당으로 여겨지는 곳에 궁궐을 건축하였듯이 읍취락에서는 풍수지리상 가장 좋은 곳에 동헌(東軒)과 객사(客舍)를 배치하고, 「고공기」의 좌묘우사(左廟右社) 원칙에 따라 좌측에 문묘, 우측에 사직단을 건설하였으며, 동헌 앞쪽에 각종 관아건물들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시장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40]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읍취락의 핵심시설이자 그 경관을 대표하는 관아는 동헌을 비롯하여 객사, 향청(鄕廳),[41] 작청(作廳),[42] 군기고(軍器庫)[43] 등 여러 개의 건물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원 읍취락의 관아는 일찍 이전하였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단편적인 기록으로, 객사는 1645년(인조

38 수원도호부의 읍취락은 해발 108m의 야트막한 화산(花山) 기슭에 들어서 있었으며, 진산인 남쪽의 발점산(鉢岾山) 사이에 비교적 넓은 평지가 나타나나 전면을 흐르는 큰 하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읍취락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서 황구지천(黃口池川)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39 이기석, 「구읍취락에 관한 연구-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 3권 1호, 1968, 34쪽.
40 「고공기」에는 전조후시라 하여, 궁궐 앞에 조정을 배치하고 뒤쪽에 시장을 배치하나,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읍취락들은 뒤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시장 역시 앞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41 좌수와 별감이 집무하는 건물이다.
42 아전이 집무하는 건물이다.
43 병장기를 보관하는 창고이다.

23), 동헌인 은약헌(隱若軒)은 각각 1604년(선조 37)과 1721년(경종 1)에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수원부읍지』에 나온다.[44]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관아의 동북쪽에 연못이 있고 여기에 운금루(雲錦樓)라는 누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색 · 신숙주 · 권제 등이 묘사한 글들이 실려 있다.[45] 한편 읍취락은 고려시대부터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46] 현재는 건릉 서쪽에 일부 구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읍취락을 구성하는 경관 중 다른 촌락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단묘(檀廟)를 꼽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수원 읍취락은 관아를 중심으로, 문묘는 서쪽 3리의 향교 안에, 사직단은 서쪽, 성황사는 동쪽 5리, 여단은 북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좌묘우사의 원칙에 맞추어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은 서쪽에 배치하였으나, 유학의 선현들을 모시는 문묘는 동쪽에 배치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서쪽에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고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안녕을 비는 성황사를 동쪽에,[47] 거두어 줄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위로하는 여단을 북쪽에 건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읍취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향교도 중요하다. 문묘를 포함하고 있어 종교적 기능과 함께 지역의 인재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향교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대부분 남아 있다. 따라서 향교의 존재는 그 취락이 과거에 읍취락이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수원도호부의 향교는 현재의 봉담읍 와우리에 있었는데, 화성 건설과 함께 현재의 수원시 권선구 교동으로 옮겨졌다.[48] 이와 같이 일반적인 촌락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경관을 지니고 있었던 수원도호부의 읍취락이었던 태안읍 안녕리 일대는 1789년에 구읍취락이 되면서 과거의 경관을 잃어버리고, 일반 농촌으로 변화하였다.

44 『수원부읍지』, 공해.
4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수원도호부, 누정.
46 둘레가 4,035척이며, 1530년경 이미 대부분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수원도호부, 성곽).
47 지명으로 볼 때, 수원도호부의 성황사는 화산의 동쪽에 있는 성황산(城隍山 : 해발 134m)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8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 · 경기도의 향교건축』, 2000, 218~219쪽.

참고자료

제1부 자연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위치와 지형

강영복, 「화강편마암에 발달한 적색토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1-1, 1973.
강영복, 「계양산 산록면에 발달한 토양단면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지리학회지』 15, 1977.
강영복 · 박경, 「한국의 고토양」, 박용안 외, 『한국의 제4기 환경』, 서울대출판부, 2001.
권동희, 「한국 산지에 발달한 색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권동희, 「포천, 동두천 일대의 지형경관 특성과 활용방안」, 『한국지형학회지』 11-4, 2004.
권동희, 『한국의 지형』, 한울아카데미, 2006.
권동희, 「한국의 화강암 풍화지형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지형학회지』 14-2, 2007.
권순식, 「한반도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된 제4기 후반의 주빙하 결빙구조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4, 1987.
권순식, 「화강암 풍화층의 특성과 결빙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2003.
권순식, 『사면이동의 지형학』, 다락방, 2005.
권순식, 『풍화작용과 지형』, 한국학술정보(주), 2009.
권영식 · 이형호 · 한욱 · 김원형 · 김동진 · 김두일 · 염승준, 「해안분지의 지구과학적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11-3, 1990.
권혁재, 「호남평야의 충적지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12, 1975.
권혁재, 「논산평야」, 『고려대 사대논집』 14, 1989.
권혁재, 「여주지방의 지형과 토지이용 -복하천과 양화천의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대논집』, 1995.
권혁재, 『지형학(제4판)』, 법문사, 1999.
권혁재, 「한국의 산맥」, 『대한지리학회지』 35-3, 2000.
권혁재, 『남기고 싶은 지리 이야기-우리 자연 우리의 삶-』, 법문사, 2005.
권혁재, 『남기고 싶은 지리 사진들』, 법문사, 2007.
기근도 · 이상환, 「수원분지의 지형 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2004.
기근도 · 김영래, 「불암산 지형경관과 기후지형학적 특색」, 『한국지형학회지』 14-1, 2007.
기근도 · 김영래 · 조헌, 「경상우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4-3, 2007.
김도정, 「서울 근교의 화강암 풍화에 대한 기후지형학적 고찰 :특히 백운대 및 인수봉 지역을 중심으로」, 『낙산지리』 2, 1972.
김상호, 「한국 중부지방의 지형발달」, 『서울대학교 논문집(이공계)』 10, 1961.

김상호, 「중부지방의 침식면 지형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이공계)』 21, 1973.
김영래, 「미호평야 주변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한 구릉지 지형의 유형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래, 「Micromorphology 관점에서 본 한반도 중남부 화강암 구릉대 풍화층의 형성 과정」, 『한국지형학회지』 12-4, 2005.
김영래, 「한반도 중남부 화강암과 편마암 풍화특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김영래, 「등체적 분석을 통한 화강암 구릉대 풍화층의 지화학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3-4, 2006.
김영래, 「영주-봉화분지의 화강암 지형 경관의 특색」, 『한국지형학회지』 14-3, 2007.
김주환, 「불암산 지역의 Joint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18, 1978.
김주환, 「Joint와 화강암 풍화와의 관계고찰」, 『동국지리』 3, 1982.
김주환 · 장재훈, 「한국의 화강암에 발달된 Salt Weathering 현상에 대한 기후지형학적 연구」, 『지리학연구』 4, 1978.
김창환, 「전라북도 남서지역의 구릉지 경사 분석」, 『지리학연구』 14, 1989.
김창환, 「한국 남서지역의 구릉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다나카 유키야, 「화강암 및 편마암 산지 소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5-4, 2000.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1998.
문현숙, 「한반도 중남부 화강암지대에서의 분지 지형 발달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박 경, 「남한 지역에 나타나는 환상구조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3-1, 2006.
박수진, 「수문화학적 자료를 통한 화강암질 유역의 화학적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8-1, 1993.
박수진, 「한반도의 지반운동(1) : DEM 분석을 통한 지반운동의 공간적 분포 규명」, 『대한지리학회지』 42-3, 2007.
박수진, 「한반도에 '고위평탄면'이 존재하는가?」, 『한국지형학회지』 16-2, 2009.
박수진 · 손일, 「한국 산맥론(1) : DEM을 이용한 산맥의 확인과 현행 산맥도의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40-1, 2005.
박용안 · 공우석 외, 『한국의 제4기 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박종관, 『박종관 교수의 LET'S GO! 지리여행』, 지오북, 서울, 2006.
손명원, 「우리나라 침식분지 경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2, 2000.
손 일, 「산간분지의 형태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한반도 남부를 대상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5-4, 2008.
양해근 · 박종관, 「화강암 지대 완사면에 발달된 'U자골' 지형의 수문지형학적 의미 -전라북도 고창군 지역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1-3, 2004.
오경섭, 「화강암 풍화층의 점토조성과 풍화환경」, 『대한지리학회지』 40, 1989.
오경섭, 「Bt-band의 형성과정」, 『제4기학회지』 3, 1989.
오경섭 · 오선희, 「금강과 만경강 역과 모래의 비교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2, 1994.
오경섭, 「기존 '산맥체계'와 전통지리의 '산경체계'」, 『지리과교육』 제2호, 2000.
오경섭, 「국토 이해의 밑그림이 되는 산지 인식 방향」, 『한국지형학회지』 제10권 제1호, 2003.
오경섭 · 양재혁, 「구조지형학 관점에서 본 한반도 중부의 지형선구조 체계」, 『한국지형학회지』 14-2, 2007.
유홍식, 「관악산의 화강암 지형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4-4, 2007.
윤지연, 「중랑천과 탄천 유역의 지형 환경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민호, 「대전 분지의 지형 특색과 시가지 확산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상환, 「지형환경을 통해 본 수원의 지리적 공간의 특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오석, 「낙안 분지 지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우평, 『한국지형산책 1, 2』, 푸른숲, 2007.
이케다 히로시, 권동희 역, 『화강암 지형의 세계』, 한울아카데미, 2002.
임종호, 「한국에 분포된 화강암류와 석회암류의 풍화현상에 관한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장재훈, 「산록완사면과 피복퇴적물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5, 1980.
장재훈, 「한국의 산록완사면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장재훈, 「한국 산간분지의 지형적 특성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연구논문집』 32, 1992.
장재훈, 『한국의 화강암 침식지형』, 성신여대출판부, 2002.
장 호, 「남서부지방의 제암석에 나타나는 풍화혈의 성인과 형성시기」, 『지리학논총』 10, 1983.
장 호, 「호남평야와 논산평야 내의 충적평야 주변에 분포한 저구릉의 토양지형학적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2-2, 1995.
장 호, 「한국의 하안단구」, 『한국의 제4기 환경』, 서울대출판부, 2001.
장 호, 「전라지방-자연 및 생태환경」, 『한국지리지-전라편』, 한국지리지편찬위원회(편), 2006.
조 헌, 「지리산지 남부 악양 지역의 지형발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화룡, 「지형발달사」, 『한국지지-총론』, 국립지리원(편),1982.
조화룡, 「만경강 연안 충적평야의 지형발달」, 『경북대 사대교육연구지』 29, 1986.
조화룡, 『한국의 충적평야』, 교학연구사, 1987.
조화룡 · 장호 · 이종남, 「가조분지의 지형발달」, 『제4기학회지』 1-1, 1987.
조화룡교수 논문집 발간위원회, 『한국의 지형 발달과 제4기 환경변화』, 한울아카데미, 2006.
지광훈 · 장동호 · 박노욱, 『위성에서 본 한국의 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최명렬, 「서울 서북북 지역의 지형환경」,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무웅 · 임종호, 「경기도 지역에 분포한 화강 · 편마암의 풍화특성과 등급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1, 1990.
최홍규, 「춘천분지의 지형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추미양, 「Tafoni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덕숭산을 대상으로-」, 『지리학논총』 10, 1983.
홍금수, 「산성취락연구 : 남한산성 광주읍치의 형성과 쇠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2004.

제2부 역사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연혁과 영역

『삼국사기』(http://www.koreaa2z.com, 동방미디어).
『고려사』(http://www.krpia.co.kr, 한국의 지식콘텐츠, 누리미디어).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동여도』.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한국지명총람』.
『구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
『민적통계표』.

제4장 문화경관으로 본 수원팔경의 형식과 의미

강미숙, 「한국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에 나타난 미의식(美意識) 고찰」,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강영조 · 김영란,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2, 1991.
김기탁, 「한국 한문학; 익재의 〈 소상팔경 〉과 그 영향」, 『중국어문학』 3, 1981.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160~257쪽.
김동욱,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집, 2002, 473~495쪽.
김동필 · 이기철 · 青木陽二, 「한국과 일본의 팔경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5(1), 1997, 49~57쪽.
김동훈 · 강건희, 「역사적 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제10호, 2002, 35~42쪽.
김영모 · 이선 · 진상철 · 장종수, 「화성 행궁의 식생경관 복원을 위한 고증과 복원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2004, 39~53쪽.
김용국, 「수원팔경의 역사와 의의」, 수원 춘 · 추 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2, 7~25쪽.
김용국, 「일제강점기 한국의 문화훼손 : 수원팔경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2집, 2012, 87~103쪽.
김현정 · 김정태, 「성곽의 야간경관조명 실태조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조명 · 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49~56쪽.
노재현 · 신상섭 · 조찬문, 「팔경 구조분석을 통해 본 전통문화경관 조망권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2007, 11~23쪽.
노재현, 「수원팔경의 형성배경과 문화경관적 함의(含意)」, 『한국조경학회지』 36(1), 2008, 90~102쪽.
노재현, 「소상팔경(瀟湘八景), 전통경관 텍스트로서의 의미와 결속구조」, 『한국조경학회지』 37(1), 2009, 100~119쪽.
노재현 · 최종희 · 신상섭, 「수원 화성 용연(龍淵)과 화홍문 일곽의 원형경관 탐색」, 『한국조경학회지』, 38(2), 2010, 94~108쪽.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세계』, 도서출판 훈민, 2006, 247~253쪽.
맹인재, 「겸재필 한양북부팔경도」, 『미술사학연구』 Vol.37, 1963, 427~428쪽.
박동석 · 정종수 · 이재근 · 최종희, 「수원 화성의 조망점 및 조망 경로를 고려한 경관보존 · 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2007, 1~25쪽.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집, 2002, 413~471쪽.
박천우 · 김은진, 「화성 축성에 관한 연구; 정다산의 성설을 중심으로」, 『장안대학 장안논총』 제23집, 2003, 524쪽.
박춘균 · 이재근, 「지형, 지세가 성곽축성 높이에 미치는 영향 ;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8(1), 2000, 1~10쪽.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박현모,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화성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34, 2001, 65~100쪽.
芳賀徹, 「風景の比較文化史; 〈瀟湘八景〉と〈近江八景〉」, 『比較文學研究』 50, 1986, 27~36쪽.
백종철, 「정조시대 화성의 가로, 녹지, 수리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사운연구소, 『정조대왕 · 화성관련자료 전시도록』, 2000, 58~60쪽.
성동환, 「현륭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사학』 제17집, 2001, 121~167쪽.
손민호 · 최종희 · 이우균, 「수원성 방화수류정 권역의 입지와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2004, 103~111쪽.
손정목, 「세계최고의 계획된 신도시-화성; 신도시 화성건설의 이념과 수법」, 『도시문제』 11(9), 1976, 51~86쪽.
송희경, 「중국 남송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와 그 연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송희경, 「여말선초 문예의 전환기적 논리; 조선초기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의 시각적 번안과 그 표상적 의미: 강천모설(江天暮雪)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5, 2006, 127~158쪽.
수원시,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 1991, 130~148쪽.
수원시, 『국역화성성역의궤』, 1994.
수원시, 『수원의 옛지도』, 현대자문화사, 2000, 36쪽.
수원시, 『화성기본계획』, 2000.
수원시, 『수원시사』 중, 199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수원향교, 『수원향교지』, 2002, 844~850쪽.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앞 공간의 문화 복원과 전망 : 21세기 한국문화의 위상과 성찰」, 『인문콘텐츠』 제8호, 2006, 197~213쪽.
안경환, 「수원 화성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제16집, 2001, 87~94쪽.
안장리, 「 비해당48영시 」의 팔경시적 특성」, 『연민학지』 Vol.5, 1997, 139~161쪽.
안장리,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新增)' 소재(所載) 팔경시(八景詩)의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Vol.20, 1997, 109~135쪽.
안장리, 「소상팔경시첩의 문화사적 의미 연구」, 『한중팔경구곡과 산수문화』, 이회출판사, 2004, 137~159쪽.
안장리, 「조선시대 왕의 팔경 향유 양상」, 『동향학』 제4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안휘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소상팔경도」」, 『미술사학연구』 Vol.138 · 139, 1978, 136~142쪽.
안휘준, 「한국의 소상팔경도 연구」, 『한국 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175~249쪽.
양성욱, 「아름다운 근대역사문화도시의 풍경보전」, 『건축』 2007년 5월호, 46~50쪽.
여기현, 「소상팔경의 수용과 양상」, 『중국문학연구』 Vol.25, 2002, 305~326쪽.
여기현,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Vol.15, 2003, 37~64쪽.
염상균, 「신 수원 8경의 제안과 수원의 미래 : 수원백경(水原百景) 중 16경을 제안하면서」, 수원 춘 · 추 8경 제작을 위한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2, 27~41쪽.
오민근, 「역사 · 문화의 경관관리에 의한 공간문화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형성」, 문화경관 보존과 형성/전주시 Artpolis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자료, 전주시 · 전북대학교, 2007, 69~82쪽.
오정학 · 허상현,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관광 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1(2), 2006, 141~154쪽.
유봉학 · 정해득, 『수원지명총람』, 수원시 · 수원문화원, 1999, 61~75, 249~257쪽.
유영봉, 「「비해당사십팔영(匪懈堂四十八詠)」의 성립배경과 체제 : 「소상팔경도시권」과 「몽유도원도」의 제작과 연관하여」, 『한문학보』 Vol.15, 2006, 159~191쪽.
윤종태, 「수원화성(유천성) 원형경관에 나타난 버드나무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윤효진 · 이종호, 「한일 양국에 있어 역사적 계획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형태특성 및 변화과정 비교분석에 관

한 연구; 한국 화성과 일본 히코네 성의 사례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7(4), 2007, 525~533쪽.
이상아,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상주 편역,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 동일, 2008, 9~24쪽.
이태식 · 김정현 · 이동욱, 「역사적 토목 구조물 수원 화성」, 『자연과 문명의 조화』 52(9), 2004, 97~101쪽.
장계수, 「조선후기 소상팔경도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장미아 · 김남기 · 배재수 · 김진성, 『역주 조선의 임수』, 지오북, 2007, 889~900쪽.
전경원,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전종한,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논총』 제10집, 2006, 65~87쪽.
정기호, 「수원 화성축조계획의 분석 개략」, 『생명자원과학연구』 1(1), 1994, 33~37쪽.
정민채, 「화성에 대한 수원시민의 관광이미지 분석」, 『관광지리학』 제15호, 2001, 221~237쪽.
鄭于澤 · 並木誠士, 『韓國の美術 日本の美術』, 昭和堂, 2003, 104~107쪽.
정운채, 「소상팔경을 노래한 시조와 한시에서의 경의 성격」, 『국어교육』 Vol.79, 1992, 255~276쪽.
조은심, 「소상팔경도와 소상팔경시의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진희성 · 노재현, 「팔경의 의미체험에 따른 풍경 개념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1991, 31~43쪽.
최기수, 「곡(曲)과 경(景)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최영진, 「화성 성역 당시의 식수조경에 관하여」, 『기전문화연구』 제3집, 1973, 163~17쪽.
최은주, 「조선전기 팔경시의 창작경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진원, 『팔경과 구곡; 한중팔경구곡과 산수문화』, 이회출판사, 2004, 9쪽.
허소영, 「도시문화유산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수원시 화성의 문화유산 보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堀川貴司, 『瀟湘八景 — 詩歌と繪畵に見る日本化の樣相』, 臨川書店, 2002.
青木陽二 · 柳原映子, 「八景の分布と最近の研究動向」, 『日本國立環境研究所研究報告』 第197號, 2007, 93~105쪽.
島田修二郎, 「宋迪と瀟湘八景」, 『南畵鑑賞』 104卷, 1931, 7쪽.
Shinohara, 「景觀體驗と景觀の操作」, 『景觀論』, 土木工學體系編輯委員會, 障國社, 1977, 64~73쪽.
http://www.joongboo.com/html/news_view.asp?articlenum=20499000000000&div=5
http://www.nonghyup.com/addoorae/doorae200407/doorae200407_05_02.jsp
http://www.suwoncity.net/www2/bbs/board.php?bo_table=city_10&wr_id=54&page=
http://jbs.pe.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z2_6&wr_id=21&page=
http://tour.suwon.ne.kr/

제3부 사회지리적 환경

제1장 수원의 인구와 주민 구성 변화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해당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수원문화원, 1986.
이정일, 「조선 후기 수원지역의 장시 연구-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제6권, 2002, 199~222쪽.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제2장 수원의 토지 이용 변화

수원시, 『수원시 통계연보』, 해당 연도.
김재행 · 장성민 · 장영원 · 남영우, 「수원시 등질지역의 구조적 변화 : 1995-2005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9, 45~63쪽.
수원시, 『도시종합계획(1972~1981)』, 1970.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2004.
수원시, 『수원 도시계획 200년사』, 2008.
수원시, 『2010 수원시정백서』, 201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 하, 1997.
이우종 · 김상호,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제37권 제3호, 2002, 231~244쪽.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제3장 수원의 도로망과 도로교통 변화

『수원통계연보』.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 조선말~일제시기』, 법문사, 2011.
대한토목학회, 『한국토목사, 도로 및 공항』, 1997.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94.
수원시, 『수원 지명총람』, 수원문화원, 1999.
수원시, 『수원의 길이름』, 신문사, 2001.
수원시, 『2010 교통백서』, 2011.
최영준,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1997.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사』, 보진재, 1981.
한근배, 『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1997.
김선범, 「城郭의 都市原形的 解釋 : 조선시대 읍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권 제2호, 1999.
손승호, 「수원 화성의 도로망 형성과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6.
최영준 · 김종혁, 「경기지역의 교통로와 교통의 발달」,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새주소도로명리스트(http://www.suwon.go.kr).

제4장 수원의 철도교통 변화

『황성신문』;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수원일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1910.
朝鮮總督府鐵道局編, 『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 1912.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驛勢一般』 상권, 1914.
朝鮮總督府, 『道路要覽』, 1917.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 『朝鮮の私設鐵道』, 1921.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の鐵道』, 192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朝鮮の私設鐵道』, 1925.
朝鮮總督府,『市街地の商圈』, 1926.
滿鮮鐵道新報社,「朝鮮鐵道 12年 計劃線」, 1927.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鐵道史』, 1929.
善生永助,『朝鮮の市場經濟』, 1929.
朝鮮總督府,『生活狀態調査(其一)水原郡 – 調査資料二十八輯』, 1929.
中村進吾,『鮮內鐵道沿線要覽』, 1932.
仁川府,『仁川府史』, 1933.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 1935.
中村進吾,『朝鮮施政發展史』, 1936.
조선총독부,『조선철도사』, 1937.
朝鮮總督府 鐵道局,『鐵道要覽』, 1939.
朝鮮總督府 鐵道局,『朝鮮鐵道40年略史』, 1940.
철도청,『韓國鐵道 80年略史』, 1979.
철도청,『한국철도사』 3권, 1979.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사』, 1981.
村上勝彦 外,「植民地期朝鮮社會經濟の統計的硏究」,『東京經大學會誌』 136, 1984.
洪承疇,「國鐵과 電鐵과 挾軌線의 요람 '水原驛'」,『한국철도』, 1985.
鮮交會,『朝鮮交通史』, 1986.
수원시,『수원시사』, 1986.
화성군사편찬위원회,『화성군사』, 1990.
철도청 편,『鐵道主要年表』, 철도청공보담당관실, 1992.
정재정,『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철도청,『사진으로 본 한국철도 100년』, 1999.
도도로키 히로시(轟博志),『영남대로 답사기』, 한울, 2000.
서선덕 외,『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삼성경제연구소, 2001.
이창식,『일제강점기 민생실록–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철도청,『사진으로 보는 해방이전의 철도역사』, 2003.
철도청,『2003 사진으로 본 한국철도 100년』, 2003.
허우긍 · 도도로키 히로시,『개항기 전후 경상도의 육상교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허우긍,『일제 강점기의 철도 수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정재정,「경부철도 부설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의 성격」,『한국사연구』 44, 1984.
이창식,「日帝下 水驪 · 水仁線의 鐵道考」,『畿甸文化』 3, 畿甸鄕土文化硏究會, 1988.
金景林,「日帝下 朝鮮鐵道 12年 計劃線에 關한 硏究」,『經濟史學』 12, 1988.
鄭在貞,「朝鮮總督府鐵道局의 雇傭構造에 관한 硏究」,『논문집』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8.
이진호,「기전지방의 경인 · 경부철도사」,『기전문화』 6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9.
尹玉炅,「水仁線 鐵道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地理敎育論集』 28,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92.
鄭在貞,「日帝侵略期 韓國鐵道史硏究의 現況과 課題」,『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3.
이승환 · 최기주,「수원 지역 철도교통수단의 확충방안 연구」,『아주대학교 논문집』, 1995.
도도로키 히로시,「수여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견수찬, 「경동철도(수여 · 수인선)의 부설과 변천」, 『인하사학』 10집, 2002.
정재정, 「근대로 열린 길, 철도」, 『역사비평』 70, 역사문제연구소, 2005.
김찬수, 「일제시대 수원 지역의 철도교통」, 『수원학연구』 2호, 수원학연구소, 2006.

찾아보기

ㄱ

가거관 560
가구당 인구수 379
가로수 124
가로정비사업 486
가사 249, 250, 389, 392
가사곶 385
가사곶면 231, 237
가사면 222, 236, 237, 238, 239, 391, 394, 550, 553
가쓰노이(笠井) 514
가지사 309
가촌 566, 567, 569, 571
각건대 332
간선도로망 477, 478, 479
간이농업학교 432
갈담 389, 392
갈담면 233, 236, 238, 250, 391, 549, 552
감미 389, 392
감미면 222, 226, 228, 238, 394, 553
감암 385
감암면 231, 233
감탕리 226
갓등 385
갓등면 231, 233
강무당 306, 307, 316
강설일수 79
강수 69
강수량 69, 70, 86
강수일수 71, 87
강화로 471
개발제한구역 454, 455
객사 307, 572
거대도시 410
거매도 324
거산리 226
건달산 61, 221, 332
건달산봉수 327, 332
건릉 573
건장동 330
「건치연혁」 325
겨울철 기온 65
결빙일수 89
결성둔 329
경기감영 241, 258
경기대 440
경기도 205
경기도관찰부 25, 241
경기도잠종장 28
경기도청 258, 270, 427, 436, 469
경기육괴 31
『경기읍지』 304
『경기지』 304
경기편마암복합체 31
경덕왕 211
경동철도 526
경동철도주식회사 522, 523, 525
경부고속도로 24, 26, 28, 436, 451, 469, 470, 472, 509
경부고속철도 509
경부선 25, 396, 430, 432, 462, 472, 488, 509, 511, 537, 538, 539, 541
경부철도 469, 470, 483, 517, 520
「경부철도가」 511
경부철도주식회사 510
경사도 95, 96
경성부 205
경수대로 497, 500, 505, 506
경수산업도로 469, 470, 497
경수산업로 498
경수자동차주식회사 523
경안 475
경위도 23
경위도 원점 24
경인산업도로 470
경제활동인구 416, 417
경홍로 471
계거 561
계수즉지 281
고가차도 505
고금산 279
고덕면 228, 239, 249, 250, 252
고도 94
고두면 250
고등농림학교 555
고등동 256, 259, 264, 266, 268, 385, 399, 409, 414, 420, 438, 464, 546
고등리 255
고등정 256
고등촌 385
고등촌면 231, 235, 236, 309,

326, 385, 388, 546, 548
고령사회 413
고령화사회 413
고마고 316
고색 525
고색동 259, 266, 443, 446
고색로 498
고색리 235, 555
고색역 489
고속도로 26
고양동 236
「고적」 309, 319, 332
『고적과 풍속』 349
고주리 224
고천리 253
고화토지구획정리사업 438
곡간지 52, 53
곡교리 226
곡반정동 26, 259, 563, 566, 568, 569
곡반정리 235, 555
곡선동 264, 266, 409, 414, 420, 564, 566
곡저평야 564
곡창지대 520
곤신지 314, 332, 371
곤충 서식지 모형 142
골짜기 563
골짜기 입지 560, 561
공군비행장 26
공극루 307, 309
「(공극루)중건상량문」 309
공단로 498
공도회 332
공무원 연금주택 440
공서린 312
공석면 231, 233, 326, 387, 388, 548
공수 316
공업지역 443, 447, 451
공원 면적 118
공원식생 117
공이 219, 230
공이향 222, 309, 385
공이향면 222, 225, 231, 237, 307, 316, 326
공촌 309
「공해」 307
공향 389, 392
공향면 222, 223, 224, 225, 236, 237, 238, 239, 250, 550, 553
「과거」 336
과시 322
과천 475, 480
과천안양둔 329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470
과천현 468
관곽전 322
관길동 236
관길야 354, 355
관리 253
관목 110
관목 우점종 110
관문 322
관악산 281
「관직」 335
관청 316
「관해(官廨)」 313
「관화오장(觀華五章)」 336
광교 385
광교동 236, 268
광교면 231, 236, 237, 326, 548
광교산 31, 34, 35, 45, 57, 59, 61, 93, 94, 277, 279, 280, 281, 282, 301, 318, 365, 430, 454, 462, 558, 560
광교산로 503
광교산맥 277, 462
광교상현I.C. 494
광교신도시 494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430
광교저수지 45, 48, 133
광교적설 349, 350, 363, 365, 366, 367
광교천 45, 127
광교택지개발사업 446
광덕 219, 230, 249, 250, 309, 385, 389, 392
광덕강 222
광덕면 222, 231, 236, 237, 238, 239, 391, 550, 553
광덕현 222
광동제언 317
광역교통로 472
광역도로망 480
광주 248, 475, 476, 477, 478
광주군 250, 252, 394
광주부 314
광주 이씨 555
광주창 316
괴목정교 327
괴촌 566, 567, 568
괴태곶 309
교구정 365
교구정방죽 48
교동 235, 259, 268, 399, 573
교동사거리 451
교량 505
「교량」 307, 316, 327
교목 108
교목 우점종 108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 423, 424
교통량 505, 506
교통로 472, 475, 482, 484
구릉지 26, 37, 41, 42, 52, 53, 58
구봉산 61, 213
구사(田下) 513
구암 354, 355
구암반조 354, 356
구운동 47, 259, 264, 266, 409, 414, 420, 446, 454, 559
구운리 555
구운택지개발사업 407

구읍취락 572
구읍치 234, 276, 277, 284, 285, 300, 307, 326
구장리 253
구천 294
구천동 235, 256, 259, 268, 399
구천리 555
구천정 254, 256
『구한국지방행정구역일람』 246
『구한말한반도지형도』 430, 476
구화도 315
국도 43호선 25, 493, 494, 497, 498, 501, 505
국도 42호선 25, 26, 488, 490, 493, 494, 497, 498, 501, 505
국도 47호선 472
국도 1호선 24, 25, 26, 27, 472, 490, 494, 496, 497, 498, 505
국무농장 537
국민주택 440
국토지리정보원 23
국화도 217
군기고 307, 316, 327, 572
군기동 236, 548
군산포 514
군자 525
군자역 489
군자염전 489
군향고 307, 316
궁내부 335
궁리 228
궁정 254, 256
권광 503
권광로 502, 505, 506
권동 235
권선구 24, 261, 264, 266, 408, 413, 415, 420, 456, 460, 461
권선구청 266
권선동 259, 266, 409, 440, 442, 444, 559
권선로 498, 500, 501, 506
권선리 256, 318
권선2동 266, 414, 420
권선1동 266, 414, 420
권선택지개발계획 442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40
권업모범장 432
권재형 514
궐리사 332
극최저기온 68
극한기온지수 83
금곡동 24, 258, 259, 266, 446, 455, 559, 566
금곡리 258, 555
금당암 306
금물촌 219, 230, 385
금물촌면 226, 231, 237, 309, 326
금물촌처 228
금북정맥 280
금천 317
금호동 266, 414, 420
금호로 498, 502, 503, 504
기온 63, 81, 82
『기전영사례』 330
『기전영지』 304, 330, 334
『기전읍지』 304
기지 306
기후 51, 61, 81
기흥읍 24, 268
길야관상 354, 356
길지 283, 288, 289, 299
김각현 513
김노영 312
김득신 318
김병학 336
김사목 313
김성균 336
김성근 336
김용 215, 218
김이양 328
김익 287
김정호 474
김종수 288
김칠 215, 218
김홍도 318, 353

ㄴ

나각대월 349
나곶면 233, 326
나이토(內藤倫政) 349
나혜석 349
난지도 216, 217
남곡 385, 389, 392
남곡면 231, 236, 237, 238, 250, 326, 386, 393, 549, 552
남녀 인구수 381
남대문정거장 510
남동 525
남동염전 489
남리 235, 315, 326
남면 233, 238, 250, 550, 553
남문 477
남문외장 334, 394
남부 326, 389, 392, 478, 548, 552
남부면 235, 236, 237, 238, 250, 252, 391, 393, 394
남부우회로 498
남부정 254, 256
남북대로 479, 484
남산 369
남성자내 235, 548
남수동 235, 256, 259, 268, 399
남수리 253
남수문 352
남수정 254, 256
남양 388, 474, 475, 477, 480
남양군 213, 238, 246, 248, 252, 394
남양도호부 217, 219, 222
남양리 253
남양부 216, 217, 468
남인천역 489
남자인구 384
남정순 336

남제 324, 328, 365
남제장류 350, 352, 363, 366, 367
남지 332, 354
남창동 235, 256, 259, 268, 399, 402
남창정 254, 256
남창지 332
남초현상 398
남한산성 475, 478
남향동 263, 266, 268, 409
내동 235
내수고 316
노년층 418, 419
노인인구 411
노인인구 비율 418
녹지 121
녹지식생 120
녹지지역 447, 453
논현 525
농사시험장 431, 555
농어촌개발공사 28
농업 393
농촌진흥청 25
「누정」 309, 317
능원소화소 328

ㄷ

다가와 쓰네이치로(田川常一郎) 520
다케우치(竹內) 513
단련사 218
단묘 573
「단묘」 309, 313, 317, 336
당두리 226
당성군 213, 215, 216, 217
당성진 213
당수동 259, 266
당수리 266
당은군 213, 214, 215, 216, 218
당은현 211
당진 324
당포진 314
당항성 213
대곶도 516
대대동 514
『대동여지도』 280, 474
『대동지지』 246, 304
대부도 216, 217, 218
대부면 217
대안리 222
대양리 228
대왕교 316
대유농가 354, 356
대유둔 48, 329, 354, 355
대유산업 440
대이작도 217
대천 294
대평정 256
대포진 324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 23
대한주택공사 407
대황교 32, 47, 281, 571
대황교동 24, 26, 259, 558
대황교리 235, 253
대황교천 324
덕목리 222
덕영대로 500, 502, 505, 506
덕우리 224
덕적도 217
덕적면 217
도고산 369
도곡리 226
도단련사 215
도로 493, 494
도로개수계획사업 482
『도로고』 471
도로교통 467, 468, 482, 523
도로망 467, 468, 477, 485, 490
도로 면적 493
「도로명주소법」 499
도로율 493
도로체계 498
도로 포장률 493
도마교제언 317
도마리제언 317
「도서」 315, 324
도성도로 477
도시 332
도시개발사업 429, 493
도시계획 428
도시계획구역 437
「도시계획법」 428
도시공간 462
도시녹지 116
도시식생 116
도시하천 129
도이리 224
도제지 306
독동제언 317
독산리 235
독산성 306, 307, 309, 314, 315, 316
독성산 279
독성산성 326, 327
독성여왕릉 332
동경원점 23
동대화곡 354, 356
동래로 469, 471, 474
동리 255
동면 231, 233, 386
동물 서식지 142
동북 385, 389, 392
동북면 231, 236, 238, 250, 386, 388, 549, 552
동산농장 537
동산석봉 349
동서대로 484
동서로 498
동성자내 235, 548
동수원로 498, 503, 504, 506
동수원I.C. 494
동양척식회사 출장소 537
『동여도』 474
동작대로 472

동장대 354, 355
동장대 상량문 299
동지 332, 352
동창지 332
동탄면 252, 253, 397
동탄원천로 500
동화리 253
동화역 309, 317, 471
둔내리 226
둔동 256
둔전 329, 432
「둔전」 328
득중정 317
「득중정상량문」 317
득중정지 314

ㄹ
람사르협약 133

ㅁ
마도면 248, 252, 253, 397, 398
마산리 253
마정 385
마정면 231, 237, 326
마평 521
만년제 328
만마명당 298
만봉암 309
만석거 48, 328, 354, 355, 365
만의사 309
만화현 330
망성 546
망운대 306
망월봉 306
망천 318
망포동 259, 268, 444
망포리 253, 268
매곡 389, 392
매곡리 224
매곡면 232, 236, 237, 238, 250, 549, 552
매곡서원 309
매교 327, 328, 330
매교동 256, 259, 264, 266, 268, 399, 409, 414, 420, 438
매류 521
매미산 34, 279
매산동 264, 266, 268, 409, 414, 420, 571
매산로 26, 438, 498, 500, 501, 502, 505, 506
매산로3가 259, 399, 401
매산로2가 259, 399, 401
매산로1가 259, 399, 401
매산3동 268
매산2동 268
매산1동 268
매산정 254, 256
매송고색로 500, 505
매송면 24, 232, 252, 253, 258, 259, 397
매영로 503, 504
매탄동 259, 264, 268, 279, 407, 438, 440, 442, 444, 452, 453, 571
매탄로 498
매탄4동 266, 268, 409, 415, 420
매탄3동 264, 266, 268, 409, 415, 420
매탄2동 264, 266, 268, 409, 414, 420
매탄1동 264, 266, 268, 409, 414, 420
매탄1·2지구 택지개발사업 407
매탄지구 429
매탄지구택지개발사업 440
매향교 327, 352, 354
매향교천 324
매향동 235, 256, 268, 399
매향정 254, 256
매홀 370
매홀군 211, 215, 218
매화리 253
멱운리 220
면적 379, 457
명고서원 321
「명륜당중수기」 309
모수국 370
모전 385
모전면 231, 233, 237, 326, 386, 388
모지 385
모지면 231, 233, 237, 385, 386
목력도 216
목욕동교 327
「목장」 309
목포전 322
무상일수 78
무수리 226
무촌 521
문묘 309, 572
문밖시장 481
문수당 231, 307, 385
문수당면 232, 235, 237, 315, 326, 385, 386
문시 389, 392
문시면 235, 236, 237, 238, 250, 326, 549, 552
문학 525
문화경관 372
미곡전 322
미로한정 317, 332, 354, 355
『민적통계표』 246, 388, 389, 391, 392, 395
밀양 박씨 555

ㅂ
바람장미 73
박기수 323, 326
박석여 516
박용대 336
박정양 336
박호양 336
『반계수록』 291
반남 박씨 555

반룡산사 309
반룡완주 298
반월면 248, 252, 253, 259, 266, 397
반정리 235
발산리 253
발안리 224
발안장 394, 537
발안천 537
『발전하는 수원』 349
발점산 277, 279
방답제 328
「방리」 306, 307
방영지 314
방영청 316
방축리 224, 228
방하지 306
방화수류정 332, 352, 353, 355, 365, 366
배양교 316
배양리 234
백동 221
백령대소청둔 329
백산암 309
백석포 239
백운산 34, 45, 61, 93, 279, 280
백호 279, 281
벌리 235
벌말 564
「범례」 323
법정동 264, 266, 268
법정보호종 158
변성암 31
별시 332
병마좌방어사 307
병암간수 349
병점역 517
보개산 281
보도육교 505
보시동 236
보조간선도로 498, 499, 502, 503, 505, 506
복내당 316
본수원 521
본정 254, 256
봉고동일성 35, 37, 41
봉담면 252, 253, 397
봉담읍 211, 226
봉담읍사무소 211
「봉수」 309, 327, 332, 335
봉영로 500, 501
부곡 219, 230, 309
부내면 231, 234, 235
「부사선생안」 312, 330
부아산 281
부천군 217
북리 235, 315, 326
북문내장 394
북방 385
북방면 231, 233, 252
북부 326, 389, 392, 478, 549, 552
북부면 235, 236, 237, 238, 250, 391, 393, 394
북성자내 235, 548
북수동 236, 256, 259, 268, 399
북수문 355
북수원권 443
북수원I.C. 494
북수정 254, 256
북지 48, 332, 352
북지상련 349, 350, 363, 365, 367
분봉상시 335
분천리 226
분촌 219, 230
분촌향 222, 226, 309
분향면 223, 239
비봉면 218, 252, 253, 397
비오톱 184, 186
비오톱 보전등급 189
비오톱 보전등급별 관리방안 198
비오톱 유형 분류체계 184
비오톱 유형화 186
비오톱 평가 188
비행장 438, 462
빈정 525
빈정역 489
빈정포 537

ㅅ

사도세자 275, 285
사량 219, 226, 230, 309
사량부곡 226
「사례」 314, 322
사망률 421
사방댐 182
사사곶장 334
사사리제언 316
사시현 514
사야곶도 216, 217
「사원」 321, 336
사정 219, 230, 385
사정면 226, 231, 233, 309
사정처 226
사정향 226
사직단 309, 317, 572, 573
「사찰」 309, 318
사창 307, 316
사창리 226
사카이 마사노스케 349
사통팔달 277
산록경사지 52
산록완사면 입지 559
산루동 235
「산릉의」 285
산림생태계 103
산림식생 104, 116
산림현존식생도 104
산성 385, 389, 392
「산성」 326
산성면 231, 236, 238, 250, 391, 549, 552
산악지 52, 53
산의실천 127
산정 317

산지 34
산창 307, 316
「산천」 306, 314, 324
산촌 566
삼가 521
삼도 324
삼도둔 329
삼도오동 239, 240
삼며곡면 231, 235
삼미 385
삼미면 235, 237, 326
삼봉 385, 389, 392
삼봉면 231, 236, 237, 238, 250, 309, 385, 549, 552
삼성디지털단지 452
삼성전기 26
삼성전자 26, 28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452
삼천병마동 332
상관식생 105, 106, 107
상광교동 24, 259, 264, 462, 560
상광교천 45
상기리 226
상남지 352
상대습도 72
상동지 352
상류천 235, 281, 324, 328, 514, 548
상류천동 571
상안리 213
상업 393
상업지역 447, 450
상지장포 235, 548
상홀 389, 392
상홀면 226, 228, 233, 236, 238, 250, 550, 553
상홀현 218, 221
새술막거리 571
생태계 93, 94, 184, 196
생태계 건강성 188
생태통로 159
서근리 224
서둔동 259, 264, 266, 399, 401, 409, 414, 420, 442, 444, 514, 544, 555
서둔동촌 236
서둔리 255
서둔정 256
서둔촌 236
서리 77
서리일수 78, 88
서봉산 327
서부로 500, 501, 506
서부우회로 498
서북 385
서북면 225, 231, 237, 326, 387, 388
서성우렵 354, 356, 359
서성자내 235, 548
서수원권 445, 453
서수원I.C. 498
서신리 249, 389, 392
서신리면 238, 391, 394, 553
서신면 213, 248, 252, 253, 397
서원혁파령 330
서장대 350, 355
서해안고속도로 509
서호 48, 431
서호낙조 349, 350, 352, 363, 365, 367
서호방죽 44
서호저수지 133, 181
서호천 27, 43, 44, 48, 127, 173, 430, 558, 564
석거황운 354, 356, 367
석교리 253
석성산 281
석성산봉수 327
석장둔 329
석정리 226
석향 309
선감도 217
선감미도 216, 217
선경 28
선경합섬 26
선경화학연구소 26
선사유적지 544
「선생안」 305, 306, 324
선재도 217
선캄브리아기 31
선희궁 335
설창 307, 316
성곶면 252
「성곽」 326, 335
성균관대 440
성내시장 484, 485
성두 525
성밖장 537
성별 구성 423
성비 388, 389, 401, 410, 416
성신묘 296
성신사 294, 296, 336
성씨 312
「성씨」 311
성안장 537
성외시장 432
「성지」 314
성호면 211, 252, 253, 254, 397, 398
성황단 313
성황사 309, 317, 336, 573
성황산 369
세계문화유산 339
세권로 498, 503, 505
세남교 307
세대당 인구 406, 409, 411, 413, 414, 416
세대당 인구수 401, 404
세대수 406, 409, 414
세동리 235
세람장 334
세류동 256, 259, 266, 399, 401, 402, 442, 464, 566
세류로 498
세류3동 264, 409, 414, 420

세류2동 264, 266, 402, 409, 414, 420
세류1동 264, 402, 409, 414, 420, 438
세류정 256
세리 235, 255
세마대 332
『세종실록지리지』 219
세평동 564
세화로 500, 502, 505
소교 307
소금 527
소동면 238
소래 525
소래역 489
소래염전 489
소물도 216, 217
소사 474
소상팔경 343
소상팔경도 343
소야도 217
소우도 216, 217
소유역도 139
속5읍 326
「속우」 326
「속읍」 326
속읍진 325
「속진」 326
속현 219, 230
손항지 306
송도 525
송도역 489
송도유원지 520, 527
송동 385, 389, 392
송동둔 329
송동면 232, 236, 250, 314, 325, 549, 552
송라리 232
송산리 226, 234, 571
송산면 248, 252, 253, 397
송산부곡 218, 221
송원동 263
송정로 503, 504, 505
송죽동 259, 409, 414, 420, 546, 559
송죽리 232, 253, 555
송희정 336
수금제 328
수도권 전철 470
수도권 전철 1호선 470
수도권 지하철 4호선 509
수류 385
수류면 231, 233
수리산 61, 281
수북 249, 250, 389, 392
수북면 222, 233, 236, 238, 391, 394, 550, 553
수생태계 192
수성 215, 218
수성군 211, 214, 215, 217, 370
수성로 498, 500, 501, 506
수순환기능 195
수여선 396, 470, 488, 489, 510, 518, 520, 522, 523, 524, 529, 538, 539
수원 215, 230, 242, 299, 303, 393, 521, 525
수원고농 431
수원군 211, 215, 217, 239, 246, 248, 249, 250, 252, 335, 389, 391, 392, 394, 396, 397
『수원군읍지』 304, 334, 335
수원군 행정구역 397
수원기상대 25, 62, 63
수원나들목 494
수원농림학교 25
수원농업기상관측소 25, 63
수원도시계획 428
수원도시기본계획 429
수원도호부 215, 218, 312, 545
수원면 236, 240, 252, 253, 254, 256, 258, 259
수원부 25, 213, 215, 218, 222, 240, 246, 276, 306, 307, 309, 314, 315
『수원부계록』 332
『수원부읍지』 222, 303, 305, 312
「수원부지도」 305
『수원부하지초록』 316, 317
「수원사례」 330
수원시 24, 25, 31, 32, 34, 206, 214, 240, 256, 258, 268, 281, 398, 399
수원시가지계획 434, 486
수원시 도로 496
수원시 면적 28
수원시의 위치 24
수원시 인구 402, 406, 409, 411, 414
수원시 저수지 49
수원시청 440, 451
수원시 총인구 408
수원시 하천 43
수원시 행정구역 404
수원실업협회 522
수원역 25, 26, 432, 451, 469, 470, 483, 488, 498, 509, 510, 529, 530, 532, 533, 534, 535, 541, 555
수원유수 325
수원읍 240, 253, 254, 255, 256, 397, 398
수원장 537, 538, 539
수원정차장 517
수원천 45, 46, 47, 93, 127, 168, 169, 281, 288, 352, 430, 478, 485, 488, 558, 564
수원측후소 63
수원팔경 279, 339, 341, 345, 347, 349, 350, 359, 363, 365, 367, 368, 371
「수원팔경가」 349
수원팔경도 342
수원향교 332

수원 화성 291, 297, 298, 339, 477
수유산 281
수인로 500, 505
수인산업도로 497
수인산업로 498
수인선 25, 396, 470, 488, 489, 510, 524, 525, 526, 527, 528, 529, 533, 538, 539
수주 211, 215, 216, 217, 370, 545
수주목 215
수지면 258, 259
수지읍 24
수치고도모형 94
수환경주제도 195
숙성 249, 250, 385, 389, 392
숙성면 231, 236, 238, 550, 553
숙성수포둔 329
숙지산 31, 93, 94, 296, 478
습도 69
습지 133
습지식생 133
습지유형 138
승봉도 217
승양 249, 389, 392
승양면 222, 238, 250, 391, 394, 553
승황도 216, 217
시루봉 94
시봉 385
시봉면 232, 235, 237, 315, 326
『시세일람』 399
시외버스터미널 440
시전 321
「시전」 314, 334
시취규정 322
시흥 388, 475, 480
시흥둔 329
식생 52
식생 경관 59
식생 피복 53
식생활력도 192, 195
식품연구원 28
식피율 115, 118
신갈 521
신갈-안산고속국도 498
신갈저수지 34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246, 249
신기리 234
신길 525
신대 521
신대저수지 48, 133, 183, 494
신동 259, 268, 440, 442, 444
신리 268
신매탄동 26
신복사 309
신석희 336
신성포 239
신실 336
신안동 263, 266, 268, 409
신영 219, 230
신영장 228
신영제 328
신왕리 222, 228
신읍치 234, 313, 547
신작로 482, 523
『신증동국여지승람』 312
신집복고 334
신천가곶방둔 329
신천둔 329
신천마정둔 329
신폭 235
신풍교 235, 327
신풍동 236, 252, 256, 259, 268, 399, 438
신풍루 317, 354, 355
신풍리 252
신풍사주 354, 356
신풍정 254, 256
신학대학 440
신해통공 334
신환둔 334
신흥포 239
심곡 219, 230, 309
심곡처 228
심상훈 513
10대로 469, 471
10도제 214
13도제 25, 241, 246
12목 214
십자가 480
십자로 477, 478
쌍봉산 219, 220
쌍부 218, 230
쌍부산 219
쌍부현 219, 237
쌍창 307, 316

ㅇ
아교목 109
아교목 우점종 110
아산군 239, 240
아주공대 440
아주도 315, 324
안개일수 78, 79, 88
안녕 385, 389, 392
안녕동 25, 277
안녕리 234, 571, 572, 573
안녕면 231, 234, 236, 238, 250, 549, 552
안동 256
안룡면 234, 236, 252, 253, 255, 259, 397, 398, 401
안산 279, 475, 480
안산군 248, 252
안산둔 329, 334
안산봉수 327
안산시 24, 217
안성 317, 474
안성둔 329
안성장 538
안성천 222, 536, 537, 538
안양현 218

안열 215, 218
안외 249, 250, 389, 392
안외면 222, 238, 391, 393, 394, 553
안중읍 222
안중장 334, 394
압장 385
압장면 231, 233, 309, 386
압정면 219, 237, 238, 239, 246, 248, 551
애련당 307
앵봉 314
야목 525
야목리 232
야목역 489
양간 219, 230, 385, 389, 392
양간면 226, 228, 231, 233, 236, 238, 250, 309, 391, 550, 553
양간소 228
양간처 228
양감면 226, 228, 252, 253, 397, 398
양감면사무소 228
양광도 215, 218
양근 476
양노리 253
양루상설 354, 356
양서류 서식지 모형 149
양서파충류 147
양서파충류상 144
양서파충류 서식지 145
양서파충류 서식지 모형 147
양성 219, 317, 475
양성둔 329
양성현 228, 238, 249
양재도 471, 472
양재역 325, 569
양지 476, 521
양택 276, 284, 288
양향둔 329
어류상 166, 168, 176
어목헌 306, 307
「어목헌시(御牧軒詩)」 336
어목헌지 306
어물전 322
어승마랑 316
어정 521
어천 525
어천역 489
어탄 385, 389, 392
어탄면 231, 233, 236, 238, 250, 388, 391, 549, 552
언북 389, 392
언북면 238, 249, 250, 391, 553
여기산 31, 93, 352, 478, 558
여기산 유적 544
여단 309, 317, 573
여방면 220
여의교 327, 330
여자인구 384
여주 520, 521
여주선 520
『여지도서』 303, 378, 382, 384
여천 46, 127
역도 470
역원촌락 569
역전로 498
역촌 236, 569
연교차 62
연령별 인구 구성 416, 420
연령층별 인구 구성 417, 418, 419
연무동 256, 259, 263, 264, 399, 409, 414, 420, 454, 477
연산둔 329
연천현 379
연초제조창 436
연평균 강설일수 79
연평균 강수량 69, 71, 86
연평균 기온 63, 65, 81, 82
연평균 상대습도 71
연평균 최고기온 66, 83
연평균 최저기온 67, 83
연평균 풍속 72
연혁 205, 230, 252, 256
열대야일수 69, 84
열촌 566, 567, 568
염급상전 322
염불산봉수 309
영덕리 268
영동 256, 259, 268, 399, 401, 402
영동고속도로 470, 494, 509
영동시장 481
영릉 285
영선 316
영신 218, 230
영신현 220
영역 205
영우원 285
영정 254, 256
영천동 402
영통구 24, 261, 266, 268, 416, 419, 420, 448, 456, 460, 461
영통구청 268
영통동 259, 266, 268, 409, 444, 560
영통로 498, 502, 503, 505, 506
영통리 268
영통서부로 498
영통신시가지 406
영통2동 266, 268, 415, 420
영통1동 266, 268, 415, 420
영통지구 408, 410, 444
영통택지개발사업 407, 442
영평현 379
영풍 218
영하일수 85
영화도 472
영화도역 325, 326
영화도찰방 326
영화동 256, 259, 263, 399, 401, 409, 414, 420, 438, 571
영화리 255, 555
영화역 328, 354, 355, 476, 480
영화정 256, 332, 365

영화천 43
영흥도 216, 217
영흥면 217
오교심화 354, 356, 367
5도 양계 214
오동도 315, 324
오동사 309
오목 525
오목천 324
오목천교 327
오목천동 45, 259, 266, 443, 454, 559
오목천리 235
오봉서원 332
오산리 253
오산면 211, 254
오산시 211, 254
오산역 517
오산읍 211, 254
오산장 334, 394, 538
오산천 537
오성면 250, 252
오익영 336
오정 249, 250, 385, 389, 392
오정면 231, 236, 238, 550, 553
오천 521
오타 219, 230, 385
오타둔 329
오타면 226, 228, 231, 236, 237, 238, 239, 249, 250, 309, 326, 550
오타장 220, 228
온대 몬순 기후권 51
온대습윤기후 24, 62
옹봉 328
옹진군 217
와우리 573
왕륜면 252
왕송저수지 49, 50, 133, 178
외방도로 477
외시장 481
요당리 228, 253
요철도 98
용도지역 447, 448, 450
용복 385, 389, 392
용복면 231, 234, 235, 236, 238, 250, 548, 549, 552
용성 218, 230
용성리 222
용성현 215, 217, 218, 221, 222, 237
용소리 228
용연 314, 332, 354, 355
용연동 236
용연제월 354, 356, 367
용인 317, 474, 475, 480, 521
용인군 258, 259, 268, 404, 488
용인도촌둔 329
용인둔 329
용인모현둔 329
용인부곡둔 329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470, 494
용인시 24
용인창 316
용인험천둔 329
용인현 467
용주사 313, 316, 318
용지대월 363
우만동 256, 263, 266, 268, 399, 401, 402, 442
우만리 235
우만2동 266, 268, 409, 414, 420
우만1동 266, 268, 409, 414, 420
우만정 256
우만택지개발사업 442
우시장 485
「우역(郵驛)」 309
우정면 219, 226, 233, 237, 238, 239, 248, 252, 253, 326, 397, 550
우정읍 219, 220
우체사 335
우치다(內田) 514
우치다구미(內田組) 517
운금루 573
「운금루시(雲錦樓詩)」 336
운송체계 522
운정동 226
운주당 314
원곡 525
원리 232
원안리 226
원정리 226
원찰 318
원천 521
원천동 259, 264, 266, 268, 409, 415, 420, 438, 442, 446, 452, 454, 471, 477
원천동 역말 569
원천로 498
원천리 555
원천리천 127, 172
원천역 489
원천유원지 520
원천저수지 48, 133, 494
원천천 26, 46, 47, 48, 93, 440, 444, 488, 558, 563, 564
원천택지개발사업 442
원촌 569
「원침」 314, 320
월경지 206, 238, 239, 240, 249
월곡면 252, 548
월드컵로 503, 504
월문리 224
월평균 상대습도 71
위치 24
유근교 327
유기환 513
유산 521
유소년층 417, 419
「유수 및 판관선생안」 324
유제 219, 230, 310
유제처 228
「유지」 313, 314, 322
유천 46, 281, 289, 354, 430
유천교 316
유천둔 329

유천리 555
유천장제 349
유천청연 354, 356, 367
유철전 322
유첨현 328
유출량 141
유출축적 141, 195
유형원 276, 291, 368
육내미 219, 226, 230, 309
6대로 469, 471
육상생태계 192
윤강 287
윤선도 276, 283, 284, 285, 287, 291, 294, 368
「윤음」 313, 314, 322
율북 249, 389, 392
율북면 222, 238, 250, 391, 393, 394, 553
율전동 259, 264, 444
율천동 264, 409, 414, 420
융릉 365
은약헌 306, 307, 316, 573
은율광암둔 329
을미개혁 335
음덕면 248, 252, 253, 397
음영기복도 95
음택 276, 283, 284, 300
「읍선생안」 314, 322
읍지 303, 323
읍취락 571, 572, 573
읍치 240, 306
응봉 34, 46
의곡면 252
의왕-고색 간 고속화도로 498
의왕-고색고속국도 498
의왕면 247, 252, 253, 254, 258, 397, 398
의왕시 24
의주로 471
이경무 305, 306
이경원 309
이고 318, 319
이근명 514
이근수 336
이기론 292
이기호 336
이능섭 336
이대근 321
이덕승 322
이만수 336
이명기 318
이명언 310
이명응 336
이목동 259, 264, 438
이범선 334
이복영 306
이석하 315
이석형 336
이성계 318
이성원 287
이세용 336
이승우 336
23부제 241
이우신 326
이원규 349, 350
이유승 336
이유원 336
이의동 258, 259, 263, 266, 268, 409, 410, 446, 560
이의리 258
이의풍 326
이인응 516
이재면 336
이재원 336
이정구 309, 326
이정보 309
이종진 336
이중환 557
이즉도 216, 217
이지란 321
이집 318
이천 476, 521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430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429
202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 452
이최만 287
이최응 336
이포진 315
인계동 256, 259, 264, 266, 399, 409, 414, 420, 438
인계로 502, 503, 505, 506
인계리 256
인계정 256
인구 25, 377, 378, 385, 388, 391, 394, 395, 399, 401, 404, 406, 409, 410, 414, 548
인구 구성 418
인구밀도 379, 384, 388, 401, 406, 408, 409, 410, 411, 413, 414, 415, 416
인구부양력 384
인구주택총조사 410
인구 증가율 396, 401, 402, 411
인구총조사 395, 396, 397
인구피라미드 421, 422
「인물」 312, 319, 321
인물도 216, 217
인주 216, 217
인천 217, 475
인천상공회의소 489
인천상업회의소 525
인천항 525
일가(날품팔이) 393
일리 525
일리역 489
1번 국도 258
일사량 100, 102
일왕면 254, 258, 401
일왕저수지 48, 133
일용 385, 389, 392
일용면 232, 236, 238, 250, 314,

325, 326, 546, 548, 549, 552
일월저수지 48, 50, 133, 179
일일 평균 교통량 505
일자문성 298
일조시간 102
일형면 232, 236, 252, 253, 254, 255, 258, 259, 397
1호선 전철 509
입북동 259, 266, 409, 414, 420, 454, 455, 564, 571
입북리 266
입색전 322
입파도 217

ㅈ
「자궁행화성행궁 진찬일 악장」 336
자안리 218
자연마을 559
자연식생 52
자월도 217
작청 316, 572
작청지 314
잡량곶도 216
잡탈 316
잣골 221
장 230
장남헌 316
「장락오장」 336
『장서』 292
장승 328
「장시」 334
장안구 24, 232, 261, 263, 408, 413, 419, 420, 454, 456, 460, 461
장안구청 264
장안길 485
장안동 236, 259, 268, 399, 548
장안로 503, 504
장안리 253
장안면 219, 233, 237, 238, 239, 248, 252, 253, 326, 397, 550
장안문 432, 476, 477, 478, 480, 486
장안사거리 485
장안위장 326
장안정 254, 256
장용외사 325
장용외영 48, 319, 325
장족 385
장족면 231, 233, 548
장족역 309, 317, 470, 471, 472, 474
장족역말 471
장주 389, 392
장주면 233, 236, 238, 250, 268, 549, 552
장지동 259, 266
장지리 235
장지촌 235
장춘각 316
장호원선 539
재양현 217, 218
쟁홀 219, 226, 230, 309, 385
쟁홀면 226, 231, 233, 307, 316, 386
쟁홀부곡 226
저수지 48, 176
적사리제언 317
「전결」 307, 316
「전교」 313, 314, 322
「전우」 332, 335
전입인구 404
정남면 221, 252, 253, 397
정동준 315
정림 385, 389, 392
정림면 231, 236, 238, 250, 391, 550, 553
「정묘어제 목갑 계행궁실중」 336
정문리 226
정범조 336
정송 218, 230, 309, 385
정송면 231, 237, 326, 386
정송현 221
정수암 309
「정자각상량문」 320
정자동 259, 263, 438, 444, 476
정자리 232
정자3동 263, 414, 420
정자2동 263, 409, 414, 420
정자1동 263, 409, 414, 420
정자천길 502, 503, 505
정자천로 502, 506
정조 297
정조로 498, 503, 504, 505
정한기 319
제부도 217
제암리 224
「제언」 309, 316, 328
제2종합운동장 442
제일 521
제주로 469, 472, 474
제천현 332
제촌 309
제한정비권역 442
「제화봉팔관도[분본]후」 353
조견 318
조경호 336
조대 318, 332
조류 151, 155
조류상 150
조류 서식지 모형 155, 156
조류 종다양도 모형 156
조병직 330
조병호 336
조복양 321
조산 279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538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488, 518, 520, 539
「조선시가지계획령」 428, 486
조선운송회사 522

조선철도주식회사 523
조심태 295, 313, 321
조암리 220
조원동 259, 264, 409, 438, 559
조원2동 263, 414, 420
조원1동 263, 264, 414, 420
조익 321
조지겸 321
조해공진 281, 282, 299
종다양도 163
종덕 219, 230, 249, 385, 389, 392
종덕면 226, 231, 236, 238, 250, 309, 550, 553
종덕장 228
종로사거리 478, 479, 485
종중요도 163
좌익문 316
주간선도로 498, 499, 500, 501, 505, 506
주거지역 447, 448
주막거리 571
주막촌 570, 571
주산 314
주석 219, 230
주석향 222, 225
「중건기」 336
중군 306, 315
「중군」 314
중동 256, 259, 268, 399, 401, 402
중보뜰 45
중부대로 500, 501, 505, 506
「중수항미정기」 336
중약문 316
지내면 548
지대월 367
지동 256, 259, 263, 266, 399, 401, 402, 409, 414, 420, 464
지리 256
지만동 263, 402
지목 456, 458, 459, 461
지방도 494, 498
지방도 43호선 26
지방도 319호선 493
지방행정구역 211
지소동 236
지소리 255
지소정 256
지수주사 218
지야정 256
지의제 328
지정면 254
지정면 제도 253
지주사 215
지지대고개 34
「지지대비」 513
지하보도 505
지하차도 505
지형 31
지혜전 322
직산 249
직산현 238
직업 393
직업 구성 391, 392
진관 325
「진관」 317
진남루 309, 317, 322, 327
「(진남루)기문」 309
「진도」 314, 324
진목정교 327
진목천 324
진산 34, 277, 279, 280, 282
진위 317, 474, 475, 480
진위군 213, 220, 222, 239, 249, 250, 252, 391, 394
진위둔 329
진위역 517
진위천 536, 537
진위현 213, 220, 468
집사청 316
집촌 566

ㅊ

차성 218
차성현 213, 214, 215, 221
찰방역 471
참겨울일수 66, 85
참여름일수 66, 84
참좌헌 316
「창고」 307, 316
창룡대로 500, 505
창룡문 477, 478, 480
창룡문로 485, 498
창룡문사거리 497
창룡문 상량문 299
창룡위장 326
창선사 309
채석장 478
채제공 287, 297
처 230
천동 235
천양면 238
천연기념물 150
천조지설 282, 299
천천동 259, 264, 442, 444
천천리 253
천천지구 442
철도교통 509, 523
청계산 281
청구 309
청룡 249, 250, 279, 281, 385, 389, 392
청룡면 222, 231, 236, 237, 238, 307, 316, 393, 550, 553
청명산 31, 34, 279, 560
청북면 222, 250
『청오경』 292, 297
청장년층 417, 419
청해백사 321
청호 385, 389, 392
청호면 231, 236, 238, 250, 388, 391, 394, 549, 553
청호역 309, 317, 471, 472
청호장 394

초고령사회 413
초관청 316
초본 113
초본식물 121
초본 우점종 113
초장 385
초장면 219, 231, 237, 238, 239, 248, 551
초평 385, 389, 392
초평면 231, 236, 238, 250, 386, 394, 549, 553
촌락 543, 546, 548, 555, 564
촌락성 546
촌락 입지 563
최남선 511
최승규 215, 218
최영규 312
최자성 312
최화실 516
추길피흉 282
축만제 328, 365
축만제둔 329, 365
출생률 421
충적지 26, 559
충청주도 470
취락밀집지역 438
취재도시 332
치소 205, 231, 240
칠보산 28, 31, 35, 36, 37, 57, 61, 93, 94, 279, 454, 462, 558, 560

ㅌ
탑동 259, 266
탑산 318
태림면 237, 238
태봉산 61
태안면 268
태안읍 24, 268, 571
태장동 266, 268, 415, 420
태장면 236, 252, 253, 256, 259, 268, 397, 398, 401
태촌 385, 389, 392
태촌면 231, 233, 236, 237, 250, 549, 552
태평양공장 26
『택리지』 557
택지개발사업 406, 429, 493
토법 385
토법면 231, 233
토성 546
토양 50, 51
토양 습윤도 141
토양 습윤지수 56, 141
토지구획정리사업 429, 438
토지 이용 50, 427, 430, 435, 437, 440, 447, 456, 459
토지 이용도 53
토지 피복 53
토지 피복도 53, 54, 104
토진 249, 250, 389, 392
토진면 222, 226, 233, 236, 238, 393, 394, 550, 553
토포사 307
토포청 316
특수구역 230

ㅍ
파장동 259, 263, 264, 409, 414, 420, 544
파장리 232, 555
파장저수지 133
파정로 498
판교장 334
팔경 341
팔경문화 343
팔곡1리 253
팔달관 316
팔달구 252, 261, 263, 266, 268, 408, 410, 416, 419, 420, 448, 460, 461
팔달구청 268
팔달동 263, 266, 268, 409
팔달로 26, 483, 485, 503, 504, 506
팔달로3가 259, 268, 399, 402
팔달로2가 268, 399, 402
팔달로1가 259, 268, 399, 402
팔달로1~3가 256
팔달문 235, 432, 469, 477, 480, 484, 486, 488
팔달산 31, 93, 94, 95, 234, 277, 279, 280, 281, 282, 288, 301, 314, 319, 350, 365, 369, 385, 430, 462, 469, 478, 513, 558
팔달위장 326
팔달제경 350
팔달청람 365, 367
팔달청풍 363
8대로 570
팔도군현지도 387
8도제 214, 241, 246
팔라곶 385
팔라곶면 231, 233, 237
팔부자거리 485
팔창 316
팔창동 402
팔탄 385
팔탄면 223, 224, 225, 231, 233, 237, 238, 239, 252, 253, 326, 397, 550
팔탄장 334, 394
편마암 34
편마암 산지 31
평동 26, 44, 256, 259, 264, 266, 399, 409, 414, 420, 438, 442, 446, 454
평리 224, 235, 256
평리동 266, 564
평산둔 329
평신진 325, 326
평신진둔 329
평신진장 326
평야 43
평탄지 52

평택 474, 475, 480
평택시 213, 220, 226, 238, 239, 250, 252, 391
평택역 538
평택현 467
평해로 471
포내 249, 250, 385, 389, 392
포내둔 329
포내며 309
포내며부곡 226
포내면 222, 226, 231, 236, 238, 309, 550, 553
포내미 219, 226, 230
포내미부곡 226
포승면 250, 252
포승읍 226
포유류 159, 162
포유류상 158
포유류 서식지 164
포유류 서식지 모형 161
「폭원」 314
폭풍일수 73
표교 521
『표롱을첨』 353
표면유출 195
표석 328
표층풍화 57
풍덕 388
풍도 315
「풍속」 310, 319
풍수지리 275, 277, 283, 284, 288, 291, 294, 299, 300, 301
풍수학 283
풍향별 출현빈도 74, 77
풍헌 326
풍화 38, 56
풍화작용 57
풍화층 37, 40, 41, 57
필로 327, 328

ㅎ
하광교동 259, 264, 560
하남지 352
하동 24, 258, 259, 268
하류천 235, 330, 548
하리 258
하야시 겐스케(林權助) 513
하정범익 354, 356
하지장포 235, 548
하천 43, 127
하천생태계 127
하천자연도 129, 131
학사정 318, 332
한경원 336
한국인삼연초연구원 28
한남 215, 218
한남금북정맥 34
한남정맥 280
한성부 205, 335
한양 480
한일합섬 28
한정품국 354, 356
「한정품국」 359
한주 211, 214
한진 324
항곶진 46
항곶천 46
항미정 332, 365
해창 316
해창리 223, 224, 228
해태유업 26, 440
「행궁」 332
행궁동 268, 414, 420
행궁정리사 325
행정구역 206, 240, 241, 315, 397, 401, 404
행정동 263, 266, 268
행정리 224
향 230
향교 573
향교동 235
향남면 224, 225, 233, 252, 253, 397
향도 97
향목정 235
향원로 498
향청 316, 572
현덕면 250, 252
현륭원 231, 275, 276, 283, 288, 289, 294, 300, 305, 307, 313, 314, 318, 320
『현륭원등록』 307, 320
『현륭원사례』 320
현무산 280
현상일수 77, 87
현암 249, 389, 392
현암면 222, 233, 236, 238, 250, 550, 553
현존식생도 103
협궤열차 539
협수위장 326
협수체제 327
형기론 292
형석 389, 392
형석면 233, 236, 238, 250, 326, 393, 549, 552
「형승」 306, 314
형제봉 93, 279
형제봉봉수 332
형제산 34, 46
호구 383, 385, 389, 395
호구조사 377
『호구총수』 378, 381, 383, 384, 385, 388, 546
호당 인구 379, 389
호당 인구수 382, 384, 388, 391
호당 평균 인구수 387
호매실동 258, 259, 266, 445, 446, 455, 559, 560
호매실리 258, 555
호매실택지개발사업 430, 455
호매실I.C. 498
호매절 385
호매절면 237, 548

호매절어량천면 231
호수 385, 386, 391, 395
홍건적 215
홍길주 353
홍낙성 297
홍다구 216
홍법산 277
홍양호 317
홍원목장 309
홍원식 336
『홍재전서』 283, 286, 291
홍저소련 354, 356, 367
홍천 용씨 555
화강암 40
화강암 지역 52
화강암 풍화층 37, 41
화강편마암 31
화당리 224
화령전 325, 332, 335, 513
『화령전응행절목』 336
화방 385
화방면 231, 237, 307, 316, 326, 388
『화봉팔관도』 353
화산 25, 234, 240, 277, 279, 281, 285, 289, 306, 320, 354
화산동 236
화산두견 350, 363, 367, 369
화산리 253
화산서애 354, 356, 367, 369
화서동 256, 259, 268, 399, 438, 444
화서문 477, 478, 480
화서문로 498
화서문 밖 354
화서시장 438
화서위장 326
화서2동 263, 266, 268, 409, 414, 420
화서1동 263, 266, 268, 409, 414, 420, 464
화서정 256
화서택지개발사업 442
화성 25, 240, 275, 276, 280, 288, 294, 325, 432, 469, 547, 555
화성군 258, 266, 268, 404
화성(본수원)역 489
『화성성역의궤』 291
화성시 24, 206, 213, 214, 219, 221
화성유수 323
화성유수부 25, 323, 326
「화성전도」 354
『화성지』 234, 235, 236, 246, 304, 323, 324, 326, 330, 334, 335
「화성지 속편」 336
화성추팔경 357
화성춘 · 추팔경 344, 345, 347, 350, 354, 357, 359, 367
화성춘 · 추팔경도 353
화성춘팔경 357, 369
화성행궁 313, 316, 432, 478, 479
「화성행궁도」 350
화소 313, 320
화양루 332, 354, 355
화우산구 354, 356
화포과 332
「화포과절목」 332
화포진 315
화홍관창 363, 365, 366, 367
화홍문 294, 352, 354, 355, 365, 478
화홍문 상량문 299
화홍잔벽 349
환촌 566
황계동 228
황계리 235
황교 316
황구지천 24, 32, 37, 43, 45, 46, 47, 59, 93, 127, 129, 170, 430, 537, 558, 564
황보연 336
황사 79
효원로 503, 504
후지노 군잔(藤野君山) 349
후평대교 307
흔적중요도 163
홍국사 279
홍원창 522
홍천산봉수 309, 317, 327
홍호리 522

A~Z
GIS 위치자료 116
KTX 509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원시사』를 만들기까지"

"1~2년짜리 시군사가 난무하는 이때에 ……"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재정력이 비교적 풍부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15년 정도를 주기로 하여 시군사를 편찬하는 사례가 늘어 가고 있다. 또한 시군사 발간 규모와 사업비도 다른 지방에 비해 증대되었다. 이렇게 시군사 편찬이 활성화된 것은 지역사 편찬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고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선거에서 문화 업적을 내세울 때, 재정적 부담이 큰 도서관 · 박물관 건립과 같은 사업에 비해, 시군사 편찬사업은 지역 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한편 시군사 발간이 거듭되면서 외형적으로 분량과 사업비는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편찬된 시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리, 역사, 문화유산, 민속, 현대사회(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를 분야별로 분권하고 마을지, 사진집, 자료집 등을 추가하여 8~10권으로 시군사를 편찬하였고, 이런 체제를 갖춘 책이 시군사의 전형(典型)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로 발간된 시군사 중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 맞는 내용성을 충실히 담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구성만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그전에 발간된 시군사를 요약하거나 통계 자료나 백서류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는 자료집이 주가 된 시군사도 발간되고 있으며, 시장 · 군수의 재임기간 내에 발간하기 위해 자료 조사기간도 없이 1~2년 정도의 사업기간으로 시군사를 발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1~2년짜리 시군사가 난무"하며 양적 팽창과 내용적 부실을 드러내는 이때에 지역성을 담아내고 새로운 시군사의 전범(典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수원시사』를 편찬하는 주체들의 과제였다.

편찬사업 계획과 추진 일정

2009년 수원시에서는 시 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수원시사』 발간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시의 경우 1986년에 1차, 1995~1998년에 2차 『수원시사』가 발간된

바 있다. 1차 『수원시사』는 자료집 성격이 강했고, 2차 『수원시사』는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 수원 역사에 중심을 두어 편찬되었다.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화성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으로서의 화성과 화성 성역이 가져온 전근대 수원의 변화에 집중하다 보니, 화성 성역 이후 수원의 근대적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반영하면서 근현대를 포괄하는 종합 역사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그 결과 2009년에 3차 『수원시사』 편찬계획이 수립되었다. 본래의 계획은 수원시 승격 60주년 기념 사진집을 발간하는 것이었으나, 사진집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수원의 각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원시사』를 편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번 『수원시사』 편찬 기본계획은 1~2차 시사를 포괄하면서, 최근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수원시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원자료를 충실하게 수집 · 활용하고, 근대 이후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수원 시민의 생활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2009년 5월 8일 제1차 수원시사편찬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한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총 8권과 CD-ROM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2009년 10월 19일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제를 세분화한 후 20권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2011년에는 CD-ROM 제작을 e-book 제작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거쳐 시사 편찬사업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사업기간 : 2009년 4월 23일~2014년 6월 30일
- 사업비 : 15억 8,800만 원
- 위원회 : 편찬위원장 및 편찬위원 13인
- 상임진 : 선임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 사업내용 : 『수원시사』(전 20권) 1,500질 발간, e-book 제작

이러한 사업내용은 다른 시군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규모로, 상당히 파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원과 지역사 연구자들에게 수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5년이라는 사업기간은 역사적 ·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수원 시민들의 역사와 삶의 과정을 새롭게 쓰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었으며, 수원 역사에 대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다.

● 편찬 일정

일시	내용
2009년 4월 23일	• 수원문화원과 편찬사업 위탁 협약체결
2009년 5월 8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개최 ▸ 편찬위원 총 13명 위촉 ▸ 위원장(김용서 수원시장), 부위원장(유병헌 수원문화원장) 선임 ▸ 시사편찬 기본계획 승인 : 총 8권, 2000질, 시디롬 ▸ 시사편찬위원회 현판식
2009년 6월 1일	• 류현희 상임연구원 위촉
2009년 6월 29일	• 소위원회 구성
2009년 8~12월	• 기초자료 조사사업 추진 ▸ 문헌자료조사 ▸ 분야별 기초 구술자 인터뷰 ▸ 일제시기 수원 신문자료 조사 ▸ 사진자료 수집
2009년 8월 14일	• 상임위원 김명훈 위촉
2009년 9월 29일	• 경기지역 연구자 회의 개최 ▸ 시사 편찬 방향 협의
2009년 10월 19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전 20권 기본안 논의
2009년 10월 20일	• 소위원회 회의 개최 ▸ 자료조사 현황 보고 및 활동 논의
2010년 1월 26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 자료조사 내용 보고
2010년 3월 4일	• 시사 사무실 이전(수원문화원 2층)
2010년 5월 19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경과보고 및 자료조사 진행 상황 보고
2010년 1~12월	• 사무국 자체 조사사업 실시 ▸ 기초자료 현황 파악 ▸ 재수원 일본인명록,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자료 정리 ▸ 한말 · 일제시기 관보 및 신문자료 정리
2011년 1월~	• 제1차 집필 계약
2011년 3월 30일	• 상임위원 김명훈 사임
2011년 6월 1일	•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이전(수원문화원→ 수원박물관)
2011년 7월 15일	• 박철하 상임위원 위촉
2011년 7월 28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2기 편찬위원 위촉
2011년 7월 28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위원장 염상덕 원장, 부위원장 조성을 교수) ▸ 수원시사 편찬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 총 20권, e-book 제작 ▸ 목차 기획안 통과 ▸ 소위원회 구성 의결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개정안 요청

일시	내용
2011년 8월	▸ 소위원회 구성
2011년 9월 8일	• 소위원회 회의 개최 ▸ 자료조사 및 사업진행 방향 등 협의
2011년 12월 23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목차 및 집필자 승인 ▸ 소위원회 구성 승인
2012년 1월~	• 제2차 집필 계약 및 원고 내용 협의
2012년 2월 24일	• 소위원회 개최 ▸ 2012년 전반기 보조금 집행계획 검토 ▸ 조례개정 진행 상황 보고 및 검토 ▸ 분야별 자료조사사업 추진계획 검토
2012년 2~12월	• 5개 분야별 조사사업 추진 ▸ 토박이 및 이주민 자료조사 ▸ 여성사 자료조사 ▸ 노동사 자료조사 ▸ 사회 변동과 지식인 조사 ▸ 개인문중 자료조사
2012년 6월 11일	•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 공포
2012년 6월 19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개최 ▸ 발간부수 조정(2,000질→1,500질)
2012년 7월 1일	• 홍현영 연구원 위촉
2012년 8월 1일	• 정수자 편찬위원 위촉
2012년 7월~	• 원고 수합
2012년 10월~	• 교열교정작업 추진
2012년 10월	• 박철하 선임연구원 사임
2012년 12월 10일	• 류현희 선임연구원 위촉, 김현미 연구원 위촉
2013년 1월 30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편집디자인 및 인쇄제작업체 선정안 검토 ▸ 편찬사업기간 연장 논의(2013년 11월→2014년 6월)
2013년 3월 7일	• 시사편찬 사업 연장 및 위수탁 재협약 완료
2013년 3월	• 편집디자인 및 인쇄업체 선정 공고
2013년 4월 18일	• 편집디자인 및 인쇄제작업체 선정
2013년 4월 26일	• 편집디자인 및 인쇄제작업체 계약 확정
2013년 5월 6일	• 편집디자인 착수보고 및 실무회의 개최
2013년 5월 28일	• 편집디자인 시안본 회의 개최
2013년 11월 11~29일	• 수원시사 주민공람
2013년 11~12월	• 원고 감수
2013년 12월 19일	• 수원시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 발간기념식 논의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상설기구화 방안 논의

일시	내용
2014년 6월	• 수원시사 발간 기념식
2014년 6월 30일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해체

"새롭게 지역사 쓰기"

시군사는 흔히 지역의 '종합 역사서', '지역 정체성을 담은 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말 '백과사전'과 같은 시군사를 읽고 나면 지역의 형성 과정, 지역민의 삶과 역사, 지역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수원시사』 발간사업을 시작하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던 의구심이었다. 이와 함께 이번에 편찬되는 『수원시사』가 3차로 발간되는 것이라는 점도 연구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럼 『수원시사』는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발간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획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새로운 편찬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기존 시군사의 획일적인 체제나 목차 구성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충실히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원시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주제를 특화시켜 분책(分冊)방식으로 제작함으로써 수원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권된 각 책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도록 기획 · 제작하였다. 각 책의 편찬 목적과 독자층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편찬방식과 서술내용을 달리함으로써 시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지역문화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였다. 이에 문헌자료에 의존하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 문화인류학 · 민속학 · 지리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유기적 · 다층적'으로 분석 ·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 접근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단위 역사에서 서술되지 않는, 개인 · 가족 · 단체 · 마을 등 지역의 소단위에서 전개된 지역민의 생활사 · 문화사를 생생하고 밀도 있게 담아내고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에서 지역민의 생활문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자료 조사를 충실히 하고 현장조사의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충실한 자료조사를

통해 지역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수원시의 다양한 지역자료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앙단위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문헌자료와 구술 · 근현대자료 등을 조사 · 발굴함으로써 지역자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내용의 '현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충분한 사진자료를 수집하고 도표 · 그림 · 지도 · 만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편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획 방향에 따라 수원 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 권별 구성과 내용

영역	권	제목	구성
01 지리적 환경과 도시공간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제1부 자연지리적 환경
			제2부 역사지리적 환경
			제3부 사회지리적 환경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제1부 신읍치의 공간구조와 도시체계
			제2부 근대 식민도시의 형성과 변화
			제3부 해방 후 도시개발과 공간 변천
02 지배와 자치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제1부 선사시대와 고대사회
			제2부 고려시대 지배체제와 지방세력의 형성
			제3부 조선시대 지배체제와 화성유수부의 운영
			제4부 조선시대 지방세력의 재편과 지역민의 동향
			제5부 한말 지방제도와 통치조직의 변화
			제6부 일제의 식민 지배체제 구축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제1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영역	권	제목	구성
02 지배와 자치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제2부 정치세력과 권력구조의 변화
			제3부 정치 성향과 정치 참여
			제4부 지방자치의 발전
			제5부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03 산업과 경제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제1부 조선시대 농업과 토지 소유
			제2부 근대적 토지제도와 토지 소유
			제3부 일제하 농업정책과 농업 생산
			제4부 일제하 지주제와 농업 경영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제1부 장시와 상업의 발달
			제2부 한말 · 일제하 경제의 변화와 특성
			제3부 해방 후 경제의 변화와 특성
04 사회 변동과 사회운동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제1부 조선시대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제2부 근대적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제3부 질병과 의료
			제4부 사회정책과 지역사회 개발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제1부 한말 농민항쟁과 국권수립운동의 전개
			제2부 일제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전개
			제3부 해방 후 사회운동의 전개
			제4부 시민운동의 성장과 흐름
05 문화와 교육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제1부 문학
			제2부 공연예술
			제3부 시각예술
			제4부 대중매체
			제5부 체육과 축제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제1부 종교와 신앙
			제2부 근대교육의 도입과 전개
			제3부 학교생활과 학창시절
06 수원 사람들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제1부 '수원 인물', '수원 토박이' 그리고 '수원 사람'
			제2부 사회 변동과 토박이의 생활
			제3부 토박이의 삶과 정체성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제1부 식민 지배와 일본 이주민
			제2부 월남민의 이주와 정착 경험
			제3부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제4부 이촌향도민의 이주 경험과 삶
			제5부 결혼 이주여성의 생애 이야기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제1부 전통시대 여성의 삶과 지위
			제2부 근대의 옷을 입은 여성
			제3부 근대사회와 여성 생활
			제4부 해방 후 여성의 삶과 사회활동

영역	권	제목	구성
07 수원 도시민의 노동과 생활문화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과 노동문화	제1부 섬유산업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일상
			제2부 삼성전자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무노조 경영'
			제3부 노동야학과 노동문화운동
			제4부 노동구조와 노동세계의 변화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제1부 구운동 삼환아파트를 들여다보다
			제2부 지역 생활권과 아파트 공간
			제3부 삼환아파트 사람들
			제4부 시간으로 본 주민들의 삶과 문화
			제5부 주민들의 살림살이
08 문화유산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제1부 전설과 신앙을 따라서
			제2부 화성을 품은 수원
			제3부 지배와 저항의 현장
			제4부 수원 인물을 기억하다
			제5부 전통을 잇는 사람들
			제6부 문화유산 둘러보기
	17	수원 화성	제1부 임오화변과 현륭원 천봉
			제2부 수원 신읍치 조성과 활성화
			제3부 화성 축성
			제4부 장용영 외영의 설치와 운영
			제5부 8일간의 화성행차
			제6부 화성행궁
09 자료집과 사진집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제1부 수성 최씨가 오백 년 종가를 지킨 사람들
			제2부 화령전을 수호한 밀양 손씨가
			제3부 수원을 본관으로 삼은 차씨가, '팔부자'의 명성을 얻다
			제4부 해주 오씨 추탄공파의 수원 정착과 오성선의 농촌진흥사업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제1부 격변하는 정치와 총력안보체제
			제2부 '성장제일주의' 경제개발
			제3부 동원의 시대, 통제된 일상
			제4부 'Metropolis'를 향하여
			제5부 스며들고 흩어지다
	20	수원 자료 목록집	제1부 자료 조사와 정리
			제2부 중앙 학술기관 소장자료
			제3부 관내 기관 · 단체 소장자료
			제4부 구술자료와 영상자료

"『수원시사』를 만들며 건너야 했던 강"

지방자치제가 발전할수록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역사 연구는 양적 ·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실제적인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군사와 같이 종합적이고 집단적인 연구가 수행될 때, 계획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비만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또 실제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 편찬사업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시군사 편찬사업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에서 추진되고 있다.

● 편찬사업 주체별 장 · 단점

구분	시	문화원	학술용역 또는 출판사
장점	•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편찬의 방향과 일원화된 사업 추진 • 관내 · 외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필요한 자료 수집 용이 • 예산 집행의 객관성 확보 • 책임감 있는 사업 집행	• 수원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온 분들의 주도적 참여 • 자료조사 및 수집, 원고 집필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용이 • 예산 집행의 자율성으로 필요시 즉시 대처 가능	• 학술연구기관은 기획, 자료조사, 원고 집필, 교정, 편집, 발간 등 업무수행 용이 • 시 자체에 별도의 시설이나 인력을 갖출 필요가 없음
단점	• 시사 편찬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사용방식의 어려움 • 사무실 및 장비 확보 절차 복잡 • 자료조사, 원고 집필 및 편집 등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 능동적 대처 어려움 • 예산 집행의 복잡한 절차	•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 감독 필요 • 관내 인사 위주로 집필될 경우, 내용의 객관성 보장 어려움 • 전문성이 부족하고 혁신적인 방식과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	• 용역자(기관)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 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시기 지연 • 편찬 경험이 없는 학술기관이나 출판사가 선정될 수 있음 • 시사 편찬의 성과가 시에 남지 못하고, 시는 방관자에 불과할 가능성 높음 • 용역에 따른 편찬이므로 열의 있는 사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계약 이행에 관한 감독이 어렵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와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출처 : 김락기, 「시흥시사 편찬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 『시흥시사편찬사업 중간설명회』,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6 일부 수정.

세 가지 중 학술용역이나 출판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수원시의 역사를 남에게 맡겨 써 달라는 것으로, 시사 편찬의 근본적 의의와 괴리되므로 일단 배제되었다. 수원시가 직영하는 방안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증원문제와 필요한 상황에 따른 예산 사용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수원시는 타 시 · 군에서 가장 널리 채택한 방식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하였다.

그러나 문화원에 위탁 운영될 때 흔히 발생하는 우려사항이 『수원시사』 편찬사업 초기에도 나타났다. 사업 초기에 시사 편찬의 새로운 방향과 전문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적인 방식으로 시사 편찬사업을 이해함으로써 편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즉, 편찬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지 못하였고, 연구원들이 강조한 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초기 조사사업은 난항에 부딪혔다. 더구나 시사 편찬사업을 단순하게 이해하여 기존에 발간된 시사와 유사한 목차를 만든 후, '적당한(?)' 집필위원들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수합된 원고를 편집업체에게 넘기면 되는 지극히 기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수원시와 수원문화원 그리고 연구원들은 시사 편찬사업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일단 편찬위원들을 재위촉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수원시사』의 방향도 명확히 하였다. 시군사 편찬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문제를 사업 주체들인 시와 위탁(또는 용역) 기관, 연구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개선해 가며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행히 수원의 경우 시 담당자들과 문화원 관계자, 편찬위원회 연구원들이 상호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어갔다.

이렇게 사업 체제를 재정비한 후 시사 편찬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먼저 분야별 사전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권별 특성과 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문중 자료조사과 여성 · 토박이 · 월남민 · 화교 · 이촌향도민 · 아파트주민 · 노동자 · 지식인 · 문화예술인 · 지역유지 등 다양한 수원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문화가 『수원시사』 안에 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원시사』의 의의와 지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집필위원들을 선정하여 주제별로 전문성과 내용성을 담은 원고 집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주제와 내용에 맞는 구술자를 찾기 위해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애 경험과 이력을 확인한 후, 집필자들이 조사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

● 『수원시사』 편찬 단계

구분	소요기간	주요 사업 내용
기획 및 기초자료 조사 단계	2년	• 사업계획 수립 • 연구인력 확보 •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 현황 정리 • 편찬 방향 수립 • 권별 기획 및 목차 구성
연구 및 집필 단계	1년 6개월	• 분야별 사전조사사업 추진 • 자료 아카이브 구축 • 집필위원 선정 • 집필 내용 협의 및 자료 전달
편집 및 제작 단계	1년 6개월	• 수합 원고 내용 검토 및 체제 편집 • 시각자료 편집 • 교열교정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제작

원해 주어야 했다. 또한 기획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원고를 집필해 줄 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집필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녹녹하지 않았다. 『수원시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집필위원들이 참여하였는데, 그분들과 내용을 협의하면서 방향을 찾아 가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충실한 내용의 원고들이 집필되었다.

수합된 원고들은 일차적으로 연구원들이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원시사』는 기획단계에서 사진자료와 도표 · 그림 · 지도 · 만화 등의 다양한 시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편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수합 이전부터 다양한 사진자료와 지도 등을 수집하였고, 1차 내용 편집이 끝난 원고에 각종 시각자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우스갯소리로 "원고 반, 사진 반"인 『수원시사』로 만들 수 있었다. 사실 이 과정은 다른 시군사 편찬에서 간과하기 쉬운데, 수합된 원고의 철저한 검토와 수정, 다양한 시각자료의 활용은 시군사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1차 내용 편집과 시각자료 배치를 거친 원고는 교열교정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 오류를 수정하였고, 체제 통일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원고의 검토와 내용 편집 및 수정 단계를 거친 후 시사 편찬의 마지막 단계인 디자인 편집을 수행하였다. 『수원시사』는 원고 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형과 디자인을 각기 달리 편집하였다. 이를 위해 업체가 선정된 후 연구원들과 디자이너들은 『수원시사』의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방향을 찾기 위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1개월간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에도 디자인의 세부적인 면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지만, 디자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디자인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커다란 변동이나 수정 없이 편집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남은 문제와 향후 과제

『수원시사』 편찬은 타 시군과 비교해 사전조사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집필자들도 해당 주제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중심으로 선정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원시사』"를 발간하기 위해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동안 연구원들은 야근과 특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이 300시간에 이르렀다. 과중한 업무량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시사 편찬사업은 연구원들에게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렇듯 좋은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 내용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연구인력들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시사에서 다루게 되는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사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목표로 한 성과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즉 시군사 편찬을 위해 지역의 역사 ·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연속성 있게 추진해 가는 상설기구와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시군이 그렇듯이 수원시사편찬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서, 일회성 사업인 『수원시사』 편찬사업이 종료하면 수원시사편찬위원회도 해체된다. 대개의 경우 시사편찬위원회가 해체되고 나면 수집된 자료의 관리와 정리가 지속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모두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또한 자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관계망과 기층구조 등을 분석하며, 아래로부터의 지역사 연구 방법과 연구 역량

을 키워 온 연구원들도 더 이상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몇 년 후 새로 시사 편찬사업이 추진되면 모든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책과 몇 가지의 자료집만 남기고 무형의 결과물인 연구 역량을 사장하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식이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사편찬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시사가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사의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수원시사』는 약 350개의 지역사 주제를 선정하여 원고 집필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 주제들이 제기되었지만 1년 6개월 정도 되는 연구 · 집필 기간 동안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은 『수원시사』 집필원고로 설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대개 지역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기간이 소용되는 주제로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수행할 수 없었다. 전체 사업기간은 비교적 길었지만 한 주제를 검토 ·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 조건에 비해 의욕이 너무 앞서는 주제들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시군사를 더 이상 편찬하지 말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갈 상설기구와 인력의 확보는 다음 차수에 편찬될 시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일회성 사업으로서의 시사 편찬은 결국 지역사 연구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시사 편찬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밑그림를 더 확장하고 멋진 채색을 통해 완성도 있게 그려가는 것은 수원 지역사회에 남겨진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다음 차수에 발간될 『수원시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다시 겪어야 하고, 심지어 이번에 발간된 시사를 표절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이 되기를 바라며 5년간 『수원시사』 편찬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편찬 후기를 마치고자 한다.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이번 시사 편찬사업 과정에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사업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시사 편찬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며 본인들이 소장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는 그 어떤 것보다 연구원들에게 시사 편찬에 대한 열정을 높이게 하는 동력이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몇 번이고 찾아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음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지역 제보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은 "대단치 않은 내 삶이 역사책 내는 데 도움이 되겠냐."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정성스럽게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수원에 대해 잘 알 만한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했다. 일일이 성함을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생생한 수원 역사의 장면들을 채워 주신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시사 편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시사』가 다른 시군사와 차별적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시사 편찬사업의 의의를 이해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해 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

어떤 시에서는 "건물을 짓는 데도 1년이면 가능한데 책 몇 권 발간하는 데에 몇 년의 사업기간이 왜 필요하냐?"며 당초 3년으로 수립한 사업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였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건물 짓는 것과 달리 결과물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 사업의 의의를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편찬사업의 주무부서인 수원시청 문화관광과 라수홍 · 한승환 · 김주홍 · 김찬영 · 오성석 · 원영덕 과장을 비롯하여 유승희 · 용환수 · 황연주 · 우병민 팀장, 이민식 · 정제연 · 이동근 학예사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었다. 특히 2009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준 최철희 학예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문화관광과는 주무부서로서 5년 동안 무던하게 배려해 주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항상 믿음과 신뢰로 응원해 주신 염상덕 편찬위원장과 편찬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번 어려움에 부딪쳐 좌초할 뻔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번 시사 편찬사업에는 200명에 가까운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바쁜 일정 중에도 여러 차

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원고에 반영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집필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20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다 보니 기획의도에 맞게 원고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 주신 집필위원들에게 이 글을 빌려 감사와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사 편찬사업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해 주고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주신 수원문화원 주인군 사무국장과 최중영 총무부장, 예산 집행에 따르는 그 많은 일들을 언제나 빈틈없이 처리해 준 박지연 총무를 비롯한 문화원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권이라는 유래 없는 분량과 각 권별 특성에 따라 변화된 디자인을 요구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 수위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편집디자인 작업을 해 주신 홍익문화사 김태익 대표와 정경식 상무, 디자인 실무를 맡아 준 윤진남 실장과 장은경 팀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난하기 그지없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을 말없이 묵묵하게 수행해 준 이태영, 어준일, 김용선, 송민정, 하효림, 김수현, 김충현, 이혜영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20권에 달하는 『수원시사』 교정교정 작업에 최선을 다해 준 성명선, 김미엽, 이주실, 이우석, 권오수, 정명숙 선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수원 지역사 연구에 큰 힘이 되어 준 한동민, 김준혁, 이달호 선생과 경기지역사연구소 동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분들은 『수원시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문제를 풀어 주고 고민을 들어주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진 아카이브(수원시청 포토뱅크)를 구축하여 수원시청 소장 사진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공보팀 이용창 선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외에도 지면의 제약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류현희, 김현미, 홍현영

집필위원(가나다 순)
강대균 공주대학교 리서치펠로우
김종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찬수 동원고등학교 교사
김혜정 대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의전담요원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
손승호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이승호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응경 (주)터알 대표이사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외래교수

수원시사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61-1
ISBN 978-89-87738-60-4(세트)